



2016 산업디자인 통계조사

2016 KOREA DESIGN
STATISTICAL DATA



[이용자를 위하여]

- » 본 조사의 기준시 점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 까지임
- » 표본추출틀은 통계청의 2014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자료 중 디자인특수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체를 모집단으로 한 표본조사임
- » 본 조사에서 제시된 산업규모는 모수 추정한 결과임
- » 통계표상의 모든 수치는 반올림되었으므로 세부항목을 더한 수치와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 » 보고서에 수록된 통계표 중 충복응답 문항은 비율의 합계가 100.0%을 초과함
- » 통계표에 사용된 부호의 뜻은 다음과 같음
 - » [-] : 해당 숫자 없음
 - » [0], [0.0] : 단위 미만
- » 본 보고서의 내용을 전재(轉載) 또는 역재(譯載) 할 경우에는 「2016 산업디자인 통계조사 보고서 ○쪽에서 전재 또는 역재」라고 기재하여야 함
- » 본 보고서에 관한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엔지니어링PD로 문의하기 바람 (☎031-780-2266)

Contents

2016 산업디자인 통계조사

Part 1.

국내 산업디자인 통계조사 조사개요 및 주요결과

제1장 산업디자인 통계조사 조사 개요

1. 조사 설계	1
2. 응답자 특성	11

제2장 2016 산업디자인 통계조사 주요 통계

1. 디자인산업 규모	17
2.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	27
3. 디자인 활용률	29
4. 디자인학과 졸업 및 취업 현황	31

Part 2.
**국제 디자인산업
통계조사**
제1장 요약본

1. 디자인산업 규모	39
2. 디자인 인력	40
3. 디자인 인증	40
4. 디자인 활용률	41

제2장 국제 디자인산업 통계

1. 디자인산업 규모	45
2. 디자인 인력	50
3. 디자인 역량	51
4. 디자인 인증	55
5. 디자인 활용률	60
6. 디자인 정책	64
7. 디자인 교육	66

제3장 주요국 산업동향

1. 미국	69
2. UK	74
3. 일본	78

Part 3.
**국내 산업디자인
통계조사 결과**
제1장 일반업체

1. 디자인 활용업체 비율	85
2. 디자인 활용 현황	88
1) 디자이너 고용 여부	88
2) 전문디자인업체 용역 의뢰 경험 여부	90
3) 디자인 활용 분야	92
4) 디자인 부서 형태	93
5) 디자인 개발 비중	95
5-1) 디자인 개발 비중(건수 기준)	95
5-2) 디자인 개발 비중(비용 기준)	97
6) 직원 수	99
6-1) 디자인 부서 직원 수	101
6-2) 디자인 부서 디자이너 수	103
6-2-1) 직급별 디자이너 수	105
6-2-2) 학력별 디자이너 수	107
6-2-3) 연령별 디자이너 수	109
6-2-4) 디자인 영역별 디자이너 수	111
6-2-5) 성별 종사자 및 디자이너 수	112
6-2-6) 근로자 형태별 디자이너 수	114
7) 2015년 재무 및 투자 현황	116
7-1) 2015년 디자인 투자금액	118
8) 2016년 재무 및 투자 전망	120
8-1) 2016년 디자인 투자금액 전망	120
8-2) 2016년 디자이너 고용 전망	122
8-3) 2016년 디자이너 고용자 수 전망	124
9) 2017년 재무 및 투자 전망	126
9-1) 2017년 디자이너 투자금액 전망	126
9-2) 2017년 디자이너 고용 전망	128
9-3) 2017년 디자이너 고용자 수 전망	130
10) 제품판매 영향 요소별 비중	132
3. 디자인 인력	134
1) 적정 디자이너 수	134
2) 가장 필요한 디자이너 전문 분야	136

Contents

2016 산업디자인 통계조사

3) 2015년 신규 채용한 디자이너 수(경력/신입)	138
4) 2015년 퇴사한 디자이너 수	140
5) 디자인 인력 채용경로	142
6) 디자인 인력 채용의 어려움	144
7) 최근 3년간 고용한 인력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146
4. 디자인 교육	148
1)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역량	148
2) 가장 선호하는 디자이너 교육 수준	150
3) 대학 디자인 교육 기여도	152
4) 보강되어야 할 디자인 전공 대학교육	154
5)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재교육	156
6) 선호하는 디자이너 재교육 방법	160
7) 디자이너 재교육 방법	162
8) 디자이너 재교육 시 애로사항	164
5. 디자인 역량	166
1) 디자인이 차지하는 위상/수준	166
2) 개발 프로세스 중 디자이너/용역업체 개입 단계	168
3) 디자인 업무 및 활동 수준	171
4) 디자인 투자 및 활동 기여도	173
5) 디자인 수상 및 출원, 등록경력 건수	175
6) 디자인 인증	177
6-1) GD 마크 인지도	177
6-2) GD 마크 획득 경영활동 기여도	179
6. 기타	181
1) 디자인 활용 시 느끼는 애로사항	181
2) 정부지원 여부	183
3) 디자인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185
3-1) 디자인표준계약서 활용 종류 및 건수	187
4)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인지도	189
4-1)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업무 활용도	191
4-2)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업무에 활용하지 않는 이유	193

제2장 전문디자인업체

1. 디자인 활용 현황	197	7) 최근 3년간 고용한 인력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257
1) 전문디자인업체의 서비스분야	197	8) 우수인재 채용을 위한 정부의 지원 강화 부분	259
2) 직원 수	199	3. 디자인 교육	261
2-1) 디자인 부서 직원수	201	1)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역량	261
2-2) 디자이너 수	203	2) 필요 인력의 전공 분야	263
2-2-1) 직급별 디자이너 수	205	3) 가장 선호하는 디자이너 교육 수준	265
2-2-2) 학력별 디자이너 수	207	4) 대학 디자인 교육 기여도	267
2-2-3) 연령별 디자이너 수	209	5) 보강되어야 할 디자인 전공 대학교육	269
2-2-4) 디자인 영역별 디자이너 수	211	6)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재교육	271
2-2-5) 성별 종사자 및 디자이너 수	213	7) 선호하는 디자이너 재교육 방법	277
2-2-6) 근로자 형태별 디자이너 수	215	8) 디자이너 재교육 방법	279
3) 2015년 재무 및 투자 현황	217	9) 디자이너 재교육 시 애로사항	281
3-1) 2015년 디자인 사업비	219	4. 디자인 역량	283
3-2) 디자이너 평균 연봉	221	1) 해외 비즈니스 및 진출여부	283
3-3) 용역 형태별 매출구성	223	1-1) 해외 비즈니스 방법	285
3-3-1) 용역 형태별 매출구성 비율	223	1-2) 해외 비즈니스 주력 분야	287
3-3-2) 용역 형태별 매출구성 건수	225	1-3) 교류 해외 지역	289
3-4) 매출액 기준 고객 비중	227	2) 디자인 수상 및 출원, 등록경력 건수	291
4) 2016년 재무 및 투자 전망	229	3) 디자인 인증	293
4-1) 2016년 매출액 전망	229	3-1) GD 마크 인지도	293
4-2) 2016년 디자인 사업비 전망	231	3-2) GD 마크 획득 경영활동 기여도	295
4-3) 2016년 디자이너 고용 전망	233	4) 최종산출물에 대한 디자인권 소유(명의)	297
4-4) 2016년 연구개발비 전망	235	5. 기타	299
5) 2017년 재무 및 투자 전망	237	1) 디자인산업 육성·발전 장애요인	299
5-1) 2017년 매출액 전망	237	2) 디자인산업이 타 산업에 비해 취약한 부분	301
5-2) 2017년 디자인 사업비 전망	239	3) 디자인 개발 시 느끼는 애로사항	303
5-3) 2017년 디자이너 고용 전망	241	4) 정부지원 여부	304
5-4) 2017년 연구개발비 전망	243	4-1)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	306
2. 디자인 인력	245	4-2)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정부지원	308
1) 적정 디자이너 수	245	5) 향후 매출 증대 방안	310
2) 가장 필요한 디자이너 전문 분야	247	6) 부당한 처우 경험	312
3) 2015년 신규 채용한 디자이너 수(경력/신입)	249	6-1) 부당한 처우 피해 유형	314
4) 2015년 퇴사한 디자이너 수	251	7) 디자인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316
5) 디자인 인력 채용 경로	253	7-1) 디자인표준계약서 활용 종류 및 건수	318
6) 디자인 인력 채용의 어려움	255	7-2) 디자인표준계약서 평균 계약금액	320

Contents

2016 산업디자인 통계조사

7-3) 디자인표준계약서 사용대상	322
8)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인지도	324
8-1)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업무 활용도	326
8-2)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업무에 활용하지 않는 이유	328
9) 세액공제 적용 여부	330

제3장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1. 디자인 활용 현황	335
1) 디자인 전담부서 보유 여부	335
2) 직원 수	337
2-1) 디자인 전담부서 보유 기관 총 직원 수	337
2-2) 디자인 전담부서 보유 기관 디자이너 수	339
2-2-1) 디자인 영역별 디자이너 수	341
2-2-2) 성별 종사자 및 디자이너 수	343
3) 2015년 디자인 관련 예산집행금액	345
3-1) 2015년 디자인 전담부서 보유 기관	345
3-1-1) 디자인 용역비	345
3-1-2) 인건비	347
3-1-3) 고용되지 않은 인건비	349
3-1-4) 지방자치단체	351
3-2) 2015년 디자인 전담부서 미보유 기관	352
3-2-1) 디자인 용역비	352
3-2-2) 인건비	354
3-2-3) 고용되지 않은 인건비	356
4) 2016년 디자인 관련 예산집행금액 전망	358
5) 2017년 디자인 관련 예산집행금액 전망	360
2. 디자인 인력	362
1) 적정 디자이너 수	362
2) 신규 디자인 담당자 채용 필요도	364
3. 디자인 교육	366
1)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역량	366
2) 필요 인력의 전공 분야	368
3) 대학 디자인 교육 기여도	370
4) 보강되어야 할 디자인 전공 대학교육	372

부 록

5) 선호하는 디자이너 재교육 방법	374
6) 디자인 교육 필요도	376
7) 디자인 교육 실시 여부 및 횟수/시간	378
7-1) 실시한 디자인 교육 분야	380
8) 디자이너 재교육 시 애로사항	382
4. 기타	383
1)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또는 마스터플랜 여부	383
2) 디자인 예산 집행방법별 비율	385
3) 디자인 사업 발주방법별 비율	387
4) 공공디자인사업 중 가장 효과있는 정책	389
4-1) 공공디자인사업 중 우선 추진정책	392
5) 디자인 적용 정책분야 중 가장 효과있는 정책	395
5-1) 디자인 적용 정책분야 중 우선 추진 정책	398
6) 공공정책의 디자인 활용 단계	401
7)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인지도	403
7-1)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업무 활용도	405
7-2)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업무에 활용하지 않는 이유	407

표본 설계

1. 디자인 활용업체(일반업체) 조사	425
2. 전문디자인업체 조사	437
3. 중앙부처 및 지자체	441

조사표

제4장 교육통계(문헌조사)

1. 대학(원)의 디자인학과 보유학교 및 학과 현황	411
2. 2016년 대학(원) 디자인학과 학생 현황	413
1) 재적학생 수	413
2) 재학생 수	414
3) 입학자 수	415
4) 졸업자 수	417
5) 취업자 수	419
6) 취업률	421

한국 디자인산업의 동향 및 시사점

1. 한국디자인산업의 성장성 동향

□ 부문별 성장

2015년 디자인산업 규모는 15조 6,516억 원으로 전년대비 8.8% 성장하여, 국내 전체 경제성장률은 물론 서비스산업 성장률을 웃도는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부문별로 고등 교육 부문을 제외한 모든 부문이 성장하였으며, 특히 프리랜서와 공공부문이 빠른 성장을 보였다.

부문별로 일반업체의 경우 전년대비 9.3% 성장하여 디자인산업 전체 평균 성장률을 웃도는 성장률을 보였다. 분야별로 공간디자인(41.7%), 패션/텍스타일디자인(40.8%), 시각디자인(27.7%) 순으로 일반업체 전체 평균을 웃도는 높은 성장률을 보였지만, 산업공예디자인(-22.1%), 디자인 인프라(-9.5%)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고, 제품디자인도 성장률이 0.5%에 머물러 분야 간 큰 대조를 보였다.

일반업체 기업규모별로는 소기업만 전체 평균을 소폭 웃도는 11.8% 성장률을 보였을 뿐 중기업과 대기업은 각각 20.6%와 14.6%씩 감소하여 소기업이 디자인 활용업체 시장 성장을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소기업의 경우 이러한 성장이 업체당 디자인 투자 증대보다는 활용업체 수 증대에서 비롯됨에 따라 디자인 활용 저변 확대라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기업규모 간 디자인 투자 격차문제 해소에는 한계를 보였다.

전문디자인업체는 전년대비 2.3% 성장하여 전체 평균을 크게 하회하는 성장률을 보였다. 이러한 성장률은 일반업체 투자성장률과 대조적으로, 일반업체 디자인 투자 확대가 전문디자인업체 성장으로 연계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디자인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전문디자인업체의 성장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일반업체의 전문디자인업체 활용을 통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일반업체의 디자인투자 내부화 심화는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전문디자인업체 분야별로는 시각디자인과 제품디자인은 전문디자인업체 평균은 물론 전체 디자인산업의 평균을 웃도는 높은 성장률을 보인 반면, 인테리어 디자인과 기타 패션/텍스타일디자인은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여, 인테리어와 기타 패션/텍스타일디자인은 성장하고 시각디자인과 제품디자인은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인 2014년과는 정반대현상을 보였다.

이러한 조사결과와 관련하여 기업(B2B)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전문디자인업체 특성상 매출액이 수요산업의 부침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성장률이 전문디자인업계의 역량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문디자인업계가 분야별, 연도별 극심한 부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업체의 종합 디자인역량 강화나 해외시장 개척 등 안정적인 수요기반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공공부문의 경우 전년대비 96.5% 성장함으로써 부문별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지만 전체 산업규모가 크지 않아 성장을 자체가 큰 의미는 없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중앙부처의 경우 디자인예산이 소폭 줄어든 반면, 지자체는 큰 폭으로 예산이 늘어나는 등 지자체가 공공부문의 디자인 성장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향후 공공부문 디자인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디자인투자 활성화가 지속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프리랜서의 경우 전년대비 14.7% 성장하여 공공부문 다음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프리랜서부문은 공공부문과 달리 전체 디자인 산업생산의 5%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이 부문의 성장은 전체 디자인산업의 성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특히 성장의 질적인 측면이 디자인 산업 발전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 이 부문의 성장이 전체 디자인산업의 발전에 순기능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부문과의 적절한 역할 분담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프리랜서 부문의 경우 1인당 매출액 규모가 2013년 이후 매우 소폭으로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2015년 약 2,000만원 수준으로 전문디자인업체의 1/10 수준에 불과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프리랜서의 성장률이 프리랜서의 높은 전문 역량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일반업체나 전문디자인업체의 하부에서 보다 비전문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교육부문의 경우 전체 부문 중 유일하게 산업규모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고 대학이나 전문대학의 교원 임금이나 연구비를 중심으로 한 것 이기 때문에 산업 차원에서 의미는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2015년 디자인인력(비디자이너 제외) 수는 30만 678명으로 전년대비 5.8%(16,403명) 증가하였다. 디자인 인력구조를 보면 일반업체가 전체의 80.1%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 하고 있고, 프리랜서가 14.7%로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이에 비해 전문디자인업체 인력 비중은 5.1%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러한 부문 간 인력구조는 2015년에 들어 일반업체의 비중이 소폭 하락하고 전문디자인업체와 프리랜서 비중이 소폭 상승하였지만 2013년 이후 전체적으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안정적인 산업구조가 인력구조에도 그대로 투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부문별로 일반업체의 경우 디자이너 고용업체와 활용업체 전체 평균 디자이너 수는 각각 3.93명과 2.47명으로 분야별로 디자이너 고용업체는 2~5명, 활용업체 전체는 1~3명 수준을 보이고 있고 분야 간 격차도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업규모별로는 디자이너 고용업체와 활용업체 전체 모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평균 규모 격차가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큰 격차를 보이고 있어 기업 간 디자인 투자규모 격차가 인력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기업규모 간 디자인투자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력구조 개선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전문디자인업체의 경우 2015년 전체 디자인인력 평균은 4.57명, 평균 디자이너 수는 3.06명으로 분야 간 격차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디자인산업의 생산구조

디자인산업의 생산구조를 보면 매우 소폭의 증감이 있지만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일반업체(80.1%)와 전문디자인업체(5.1%), 공공부문(0.2%), 프리랜서(13.7%) 그리고 고등 교육기관(0.9%)으로 나타나, 최근 산업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연도별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안정적인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부문별로 일반업체의 경우 분야별 디자인투자 규모 비중이 제품디자인(23.8%), 서비스/경험디자인(20.2%), 디자인인프라(16.2%)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업체 디자인 투자구조에서 나타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제품디자인의 지속적인 비중 하락이다. 이는 제조업 경기침체를 반영한 것으로서, 제품디자인의 경우 산업규모 축소에 따라 비중이 2013년 29.0%에서, 2014년 25.9%, 2015년에는 23.8%로 하락한 반면, 빠른 성장을 보인 공간디자인, 패션/텍스타일디자인, 시각디자인 등은 비중이 상승하였다.

전문디자인업체의 경우 인테리어 디자인이 36.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시각디자인(38.0%), 제품디자인(23.8%), 그리고 기타 패션/텍스타일디자인(12.4%) 순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전문디자인업체의 경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인테리어 디자인이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데, 2015년의 경우 2014년에 비해 인테리어 디자인의 성장세가 다소 약화되었지만, 여전히 높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디자인의 경우 일반업체와 마찬가지로 국내 제조업의 성장 둔화에 따라 전년 대비 비중이 감소하였고 시각디자인도 비중이 감소하는 구조변화가 발생하였다.

□ 디자인산업의 투자와 생산성

일반업체의 업체당 디자인투자 규모는 1억 1,530만원으로 분야별로 제품디자인(2억 2,090만원), 시각디자인(1억 9,220만원)과 디지털/미디어디자인(1억 6,210만원), 패션/텍스타일디자인(1억 2,090만원)은 평균 규모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서비스 디자인(5,870만원), 산업공예디자인(5,720만원)은 전체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디자인인프라(7,010만원), 공간디자인(8,960만원) 등도 전체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으로 심한 양극화 현상을 보여, 향후 분야별 고른 투자가 과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분야별로 규모 변화를 보면 전체 산업규모 감소를 반영하듯 산업공예디자인, 디자인인프라, 제품디자인 순으로 규모가 감소하였다. 특히 제품디자인의 경우 전체 산업규모는 증가하였지만 그 증가율이 업체 수 증가율을 따르지 못해 평균 규모는 전년에 비해 하락하였다.

일반업체의 디자인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기업규모별 디자인투자 격차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의 평균 디자인 투자규모 비율은 2013년 1:1.4:28.0에서 2014년 1:1.4:22.0 그리고 2015년에는 1:1.3:21.0로 소기업의 중기업과 대기업과의 디자인 투자 격차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기업규모별 디자인투자 규모 격차가 줄어들고 있지만 이러한 현상은 소기업의 적극적인 디자인투자 확대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는 대기업이나 중기업의 평균 디자인 투자 규모 축소가 크게 작용한 결과이다. 향후 기업규모별 디자인투자 규모 격차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소기업의 디자인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디자인업체의 경우는 인테리어디자인만 업체당 평균 매출액규모가 10억 2,088원으로 전체 평균 6억 1,594만원을 크게 웃돌고 있을 뿐, 나머지 분야는 전체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등 일반업체와 마찬가지로 분야별로 극심한 격차를 보여 업체 규모 대형화가 과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디자인산업의 생산성을 디자인인력 1인당 산업규모(매출액)로 살펴보면 전체 디자인산업 1인당 산업규모는 5,200만원 수준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물론, 이러한 산업 전체의 디자이너 1인당 산업규모는 부문별 서로 다른 집계기준 때문에 단순 비교는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하지만 부문내 분야별 비교에서는 의미가 있다. 먼저 일반업체의 경우 1인당 산업규모(평균 디자인투자 규모와 동일)는 4,670만원으로 나타났는데, 분야별로는 제품디자인(7,200만원), 시각디자인(6,910만원), 디지털/미디어디자인(5,880만원)만 전체 평균을 웃도는 산업규모를 보였다. 분야별 디자인 투자 집약도를 보여주는 일반업체의 분야별 1인당 디자인투자 규모의 소수 분야에 대한 집중과 분야 간 심한 격차는 일반업체의 디자인활용 또는 디자인투자 정도를 분야별로 고르게 확대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전문디자인업체의 1인당 평균 매출액의 경우 2015년 평균 6,150만원 수준으로, 전체적으로 낮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분야별로 인테리어 디자인만 1억 209만원으로 평균 규모를 상회하였을 뿐, 나머지 분야는 모두 평균 규모를 하회하여 분야 간 격차와 평균 규모 변동 모두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디자인업체 업체당 평균 디자이너 수에서 분야 간 격차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간 평균 매출규모 격차나 디자인인력 1인당 매출규모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향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부가가치 수준 향상에 초점을 둔 혁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2. 디자인산업 활용성 동향

디자인 활용의 경우 5인 이상 업종 디자인 활용의 전체 평균은 13.7%로 나타났고, 업종별로는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48.2%), 부동산업과 임대업(25.7%),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23.8%)이 활용률이 높은 업종으로 나타난 반면, 활용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업종이 광업 등 5개 업종이나 나타나 산업 전반의 고른 디자인 활용률 제고가 과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사내디자인 보유 및 최근 2년 동안 전문디자인업체에 대한 디자인 개발 의뢰 등 디자인을 활용한 업체 비중은 2015년 13.7%로 2013년 이후 소폭이지만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디자인 활용률은 평균 27.6%이지만, 가장 높은 활용률을 보인 디지털/멀티미디어(53.6%)와 가장 낮은 활용률의 제품디자인(23.6%)에서 보듯이 분야 간 활용률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제품디자인 활용률 저조 현상은 제품경쟁력 확보와 관련하여 향후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디자인 활용은 디자인 고용업체와 디자인 외주경험업체 비중이 각각 62.7%와 47.2%로 나타나 모두 전체 디자인 활용비율 평균을 크게 웃돌았지만 내부 디자이너 고용 비율이 훨씬 높고, 2014년 40.5%에 비해서도 크게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디자인 활용에 있어서 내부화 지향성이 오히려 강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분야별 디자인 활용에서는 내부 디자이너 고용과 외주경험 비율 비교에서도 나타나는데, 내부 디자이너 고용비율이 높은 공간디자인(98.2%), 제품디자인(72.1%), 패션/텍스타일디자인(72.4%)의 경우 외부경험 비율이 각각 5.7%, 39.1%, 39.3% 순으로 낮게 나타난 반면, 디자인인프라의 경우 그 반대의 현상을 보여 내부 디자이너 고용이 외부 전문디자인 업체 활용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업체 내부 디자이너와 전문디자인업체 간 바람직한 협력모델 개발이나 전문디자인업체의 역량 강화 등의 방안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3. 디자인산업 경제성 동향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는 2015년 94조 1,807억원으로 전년대비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제품디자인과 공간디자인 그리고 패션/텍스타일디자인 분야가 빠른 성장을 보였지만 전체적인 규모에서는 증가율이 소폭 증가한 서비스/경험디자인(39조 1,171억원)과 증가율이 감소한 디자인인프라(20조 920억원) 순으로 높은 경제적 가치를 보였다.

일반업체의 제품판매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보면 디자인이 26.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2014년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지만 2013년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하였다. 분야별로는 패션/텍스타일디자인(36.4%),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34.9%), 공간디자인(30.0%)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비교적 고르게 높은 수준을 보여 디자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널리 확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디자인이 차지하는 위상의 경우 회사의 전략에 중심이 되는 요소(29.9%), 제품 및 서비스

개발에 필수적인 요소(28.4%)에 비해 비정기적으로 제품 홍보나 마케팅에 단순 활용되는 요소(31.1%), 제품 개발 마지막 단계의 외관 및 스타일링에 활용되는 요소(10.6%)로 나타나 비교적 높은 활용구조를 보인 비율이 58.3%로 낮은 활용구조를 보인 비율 41.7%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가장 높은 디자인 활용구조를 보인 회사 전략에 중심이 되는 요소 비율에서, 분야별로 제품디자인(3.9%), 디자인인프라(6.3%),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7.0%) 순으로 비율이 낮게 나타나 이들 분야의 활용구조 고도화가 과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4. 국제 교류 부문

2015년 디자인 수출과 수입의 경우 수출액은 741억원으로 전년대비 62.5% 증가한 반면, 수입은 70억원로 전년대비 6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의 경우 2012년까지 증가세를 보이다 2013년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가 2014년 이후 다시 증가세를 회복한 반면, 수입은 2013년 이후 감소세로 돌아선 후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조가 2015년에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디자인산업은 큰 폭의 무역흑자를 보이는 서비스 부문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전문디자인업체의 매출구조에서 해외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5%에 불과한 실정이다. 한편,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 조사 결과 수출 및 국제협력 지원은 1순위가 1.5%, 1,2순위를 더한 비율은 4.5%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낮은 비율은 아직 전문디자인업체의 낮은 해외매출 비중 등 매출구조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정부지원 항목에서는 수출지원금(22.9%), 해외지사 지원사업(15.9%), 해외전시회(13.3%) 순으로 나타났지만 지원항목 전체적으로 비교적 고르게 나타났다. 이는 향후 디자인산업 해외진출과 관련하여 특정 항목보다는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5. 공적 지원

일반업체에 대한 공적 지원의 경우 GD마크 인지도의 경우 2015년 '본 적도 있고 의미도 알고 있다'는 응답이 14.2%에 불과하고, '본 적은 있지만 의미는 모른다'(26.9%)와 ' 전혀 모르고 있다'(58.9%)로 나타나 GD마크를 인식하고 있는 업체나 활용업체 비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디자이너에 대한 재교육에서 정부/공공기관 지원 무료교육 활용 비율의 경우도 3.6%, 그리고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대한 인지도의 경우도 알고 있는 비율과 활용 비율이 각각 18.9%와 18.2%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NCS의 경우 전문디자인업체의 경우 인지도와 활용도가 각각 11.4%와 8.6%로 일반업체보다

도 낮게 나타났는데, 그 이유로 일반업체와 전문디자인업체 모두 필요성이 없어서 활용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업체 특성을 고려한 보다 맞춤형의 공적 지원 방안이 강구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전문디자인업체에 대한 정부지원의 경우 지원을 받지 않은 업체 비율이 87.6%로 높게 나타나고 자금 지원 수혜만 6.7%로 다소 높게 나타났을 뿐 인력, 연구개발 등 대부분 항목에서 수혜 비율이 낮게 나타나 향후 업체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Part 1.

국내 산업디자인 통계조사 조사 개요 및 주요 결과

2 0 1 6

KOREA
DESIGN
STATISTICS

1장

2016 산업디자인 통계조사

산업디자인 통계조사

조사 개요

01 | 조사 설계

02 | 응답자 특성

1 조사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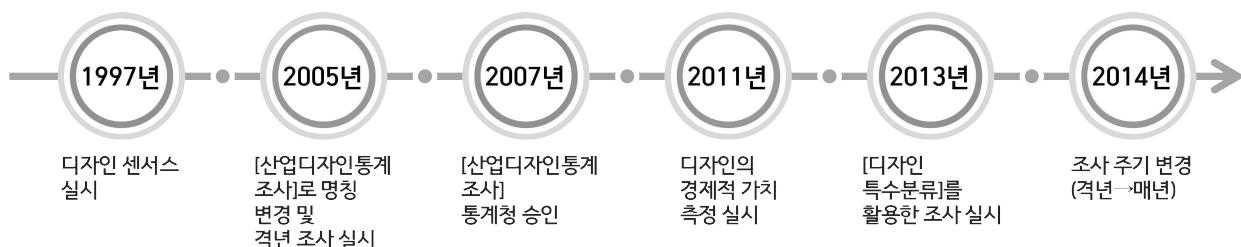
1) 조사 목적

- » 디자인산업 현황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구축하여 통계 이용자의 수요에 부응하고, 정부, 산업계, 학계 등의 디자인 정책 및 전략 수립 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음.

2) 조사 근거

- »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제20조의 3항 (산업디자인통계의 작성 및 관리)
- » 통계법 제18조에 의한 승인통계 (제11526호)

3) 조사 연혁



4) 조사 기간

- » 조사 기준 시점: 2015. 01. 01 ~ 2015. 12. 31
- » 조사 실시 기간: 2016. 09. 12 ~ 2016. 11. 18

5) 조사 범위 및 대상

구분	상세내용	
실태조사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업체 디자인 활용여부 조사 · 일반업체 중 디자인활용업체 조사 · 전문 디자인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부처 (17부 5처 16청) · 지자체(행정시/자치구)
문현조사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리랜서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자인 관련 교육기관 현황

6) 실태조사 영역 조사 개요

	일반업체	전문디자인 업체	중앙부처 및 지자체
표본추출법	이중추출법(two-phase sampling) 1차 : 디자인 활용여부 조사 - 총화추출/변형제곱근비례배분 2차 : 디자인활용업체 실태조사 - 총화추출/변형비례배분	총화추출/ 변형비례배분	전수조사
목표표본수	1차 : 디자인 활용여부 조사 - 10,000개 업체 2차 : 디자인활용업체 실태조사 - 1,000개 업체	600개 업체	중앙부처(17부 5처 16청) - 38개 기관 전수 지자체(행정시/자치구) - 243개 기관 전수
조사표본수	1차 : 디자인 활용여부 조사 - 10,683개 업체 2차 : 디자인활용업체 실태조사 - 1,204개 업체	622개 업체	중앙부처(16부 5처 14청) - 35개 기관 지자체(행정시/자치구) - 241개 기관
응답대상	업체 대표 또는 과장급 이상 디자인 업무 담당자	업체 대표 또는 과장급 이상 실무자	디자인 업무담당 공무원
조사방법	방문조사 및 이메일/팩스/전화조사		

7) 조사 항목

조사 대상	조사 항목	
일반업체 디자인 활용 여부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 12월 기준 디자이너 종사 여부 · 최근 2년 이내 전문디자인업체 디자인개발 의뢰 경험 여부 	
디자인활용업체 (일반업체) 실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체 일반 현황 · 디자인 투자 실적 · 디자인 위상 및 기여도 · 정부 정책 및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자인 활용 현황 · 디자인 인력 현황 · 디자인 교육 현황
전문디자인업체 실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체 일반 현황 · 디자인 사업 실적 · 디자인 교육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력 디자인 분야 및 인력 현황 · 디자인 해외 교류 · 정부 정책 및 지원
중앙부처 및 지자체 실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자인 활용 현황 · 디자인 교육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자인 사업 발주 현황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리랜서 산업 규모 ·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자인 관련 교육기관 현황 · 디자인 수출·수입 규모

8) 주요 용어 및 개념

(1) 디자인 활용여부 확인 단계

1단계

2015년 12월 기준 귀 사에는 디자이너가 직원으로 종사하고 있었습니까?
시점 때문에 확인이 어렵다면 현재 귀 사에 디자이너가 직원으로 종사하고 있습니까?



예 ▶ 디자인활용업체, 실태조사 컨택

아니오 ▶ 2단계 질문

* 디자이너: 디자이너로 고용된 자 중 디자인 관련 학과 전공 또는 디자인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



하거나, 디자인 관련 학과 또는 자격증 소지자가 아니라도 디자인 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2단계

최근 2년 이내 귀 사업체에서 생산하는 제품 및 제공하는 서비스의 디자인 개발을 위해
전문디자인업체에 용역을 의뢰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 ▶ 디자인활용업체, 실태조사 컨택

아니오 ▶ 3단계 질문

3단계

귀 사업체는 최근 2년 동안 신제품을 출시했거나 기존 상품의 디자인을 변경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 ▶ 4단계 질문

아니오 ▶ 조사종료, 디자인비활용업체 활용여부 조사 종료

4단계

(신제품 출시 및 디자인변경 경험이 있는 경우) 신제품 디자인 혹은 디자인 변경은 어떤
방법(자체, 외주 등)으로 하셨습니까?



주관식 응답, 응답자의 응답을 듣고 아래 디자인 활용 구분 기준을 참고하여
디자인 활용업체 여부를 판단

(2) 전문디자인업체 용역 구분 기준

- » 생산물 및 제공서비스에 관련된 디자인 용역(상품 자체 및 포장)
- » 생산물의 홍보와 관련된 BI(브랜드 아이덴티티) 광고, 팜플렛 제작, 현수막 등
- » 회사 CI(컴퍼니 아이덴티티), 회사 소개와 관련된 광고, 팜플렛 제작, 홈페이지, 인테리어 등 유니폼 제작

특이사항

- 건설업: 디자인과 설계를 구분하기 어려움.
(설계만 하는 경우는 디자인 외주로 보지 않음) 설계란 건물의 높이, 형태, 크기와 관련됨.
- 연구소: 보고서 작성 직원 중 제작업무 담당자가 있으나 이들을 디자이너로 호칭하지 않음.
제작업무 담당자 중 디자인 전공 출신자는 디자이너로 인정
- 디자인은 디자이너에 의해 개발된 디자인만 해당, 경력이 짧은 디자인 비전공자가 기존 디자인을 수정하여 만든 것은 디자인으로 보지 않음
- 외부 업체에 의뢰한 것은 최근 2년 이내에 의뢰한 것만 해당. 2년 이전에 의뢰한 디자인으로 계속 생산물을 만드는 경우 디자인 외주용역으로 인정 안함.
- 외부 업체는 디자인을 전공한 디자이너가 있는 업체만 해당 가령, 디자이너가 있는 인쇄업체, 출판업체에 의뢰한 경우 디자인 외주로 인정

전문디자인업체

- » 한국표준산업분류 내 전문디자인업체에 해당하는 사업체로 인테리어디자인업체, 제품디자인업체, 시각디자인업체, 기타전문디자인업체가 전문디자인업체에 포함됨.

기업 형태

① 개인사업체

- » 법인 없이 개인이 경영하는 사업체로 개인이 공동 경영하는 사업체도 여기에 포함됨.
- » 회사와 제품·상품 등의 판매 계약을 맺고 개인경영주의 책임 아래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대리점, 특약점, 가맹점 등의 개인사업체

② 회사법인

- » 상법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영리법인으로서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병회사 및 외국회사를 말함.
- » 외국회사란 외국(미국 등)에 본사를 두고 국내에 설립한 회사를 말하며 주로 국내에 설치된 외국의 지사(점), 영업소 등으로 이루어짐.

③ 회사이외 법인

- » 민법 또는 특별법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이외의 법인으로서 재단법인, 사단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각종 공사 등을 말함.

④ 비법인 단체

- » 법인격이 없는 각종 협회, 조합, 후원회, 문화단체, 노동단체 등

사업체 구분

① 단독사업체(1기업 1사업체)

- » 다른 장소에 본사(점) 또는 지사(점), 영업소, 출장소 등이 없이 한 장소에 단 하나의 사업체만 있는 경우

② 본사(점), 본부, 중앙회(1기업 다사업체)

- » 동일한 경영 하에 있는 지사(점), 영업소, 출장소 등을 1개 이상 거느리며 사업 전반을 실질적으로 총괄 하는 사업체
- » 실제로 기획, 회계, 재무, 구매, 광고, 법무 등 총괄적인 관리업무가 이루어지는 사업체

③ 지사(점), 출장소, 영업장(1기업 다사업체)

- » 동일 경영을 총괄하는 본사 등이 별도로 있으면서 그 본사 등으로부터 업무 전반에 관하여 지시를 받고 있는 지사(점), 영업장, 출장소 등

종사자

① 상용근로자

- » 사업체외 1년 이상의 고용계약을 맺는 사람 또는 일정한 기간의 고용계약 없이 인사관리규정을 적용받거나 상여금 등 각종 수혜를 받는 자

② 임시 및 일용근로자

- » 고용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로서 사업체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자

업체 규모 구분 방법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구분하였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해 중기업과 소기업을 구분하였음.

* 중견기업은 업종 및 종사자 수 규모로 구분할 수 없어 설문을 통해 구분함.

업종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농/임/어업	200인 이상	10~199인	9인 이하
제조업	300인 이상	50~299인	49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상	50~299인	49인 이하
도매 및 소매업	200인 이상	10~199인	9인 이하
운수업	300인 이상	50~299인	49인 이하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300인 이상	50~299인	49인 이하
금융/보험업	200인 이상	10~199인	9인 이하
부동산업/임대업	50인 이상	10~49인	9인 이하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300인 이상	50~299인	49인 이하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300인 이상	50~299인	49인 이하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300인 이상	50~299인	49인 이하
교육서비스업	100인 이상	10~99인	9인 이하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300인 이상	50~299인	49인 이하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200인 이상	10~199인	9인 이하
협회단체/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100인 이상	10~99인	9인 이하

사업 실적

① 매출액

- » 2015년 1년간 사업 활동을 통한 수익 총액

② 인건비

- » 2015년 1년간 급여, 복리후생비, 퇴직급여 총당금전입액 등 인건비성 비용으로 기타종사자에게 지급되는 수당, 수수료도 포함.

③ 연구개발비

- » 연구비, 개발비, 경상개발비의 합으로 구성됨.

④ 영업이익

- » 총 매출액에 영업비용을 제외한 이익을 뜻함.

디자인 관련 투자금액 및 사업비

① 디자인 인건비

- » 2015년 1년간 고용된 디자이너 인건비

② 디자인 용역비

- » 2015년 전문디자인업체 용역비, 프리랜서 등 고용되지 않은 인력에 지급된 인건비 포함
* 전문업체 용역비와 그 외 용역비를 구분해 조사함

③ 디자인 기계/장치 및 소프트웨어

- » 2015년 구매 디자인 연구개발용 고가 기기, 장치, 컴퓨터시스템 및 응용소프트웨어 구매 및 관리 비용

④ 디자인 연구개발용 토지/건물

- » 2015년 구매 디자인 연구 개발용 토지, 건물비 및 건물의 대규모 수리 등을 위한 지출액

⑤ 디자인 관련 기타 경상비

- » 2015년 디자인 연구에 소요되는 재료비, 유인물비, 비품구입비, 교육비, 출장비 등 기타 경비

디자이너 기준

- » 디자이너로 고용된 자 중 디자인 관련학과 전공 또는 디자인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이거나, 디자인 관련학과 또는 자격증 소지자가 아니라도 디자인 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디자인 분야

제품 디자인



전기 전자 제품디자인, 다목적 기계 및 공구 디자인, 생활/환경용품디자인, 운송기기디자인, 가구 디자인, 제조업 회사본부 디자인, 기타 제품디자인

시각 디자인



편집디자인, 식·의약품 패키지디자인, 비식·의약품 패키지디자인, 광고디자인(인쇄매체), 기타 시각디자인

디지털미디어 디자인



영상디자인, 웹디자인, 게임디자인, 기타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공간 디자인

건축디자인, 인테리어장식디자인, 전시 및 무대디자인, 인테리어 자재디자인, 익스테리어디자인, 조경 및 레저공간디자인, 리모델링디자인, 건설환경디자인, 토목환경디자인, 기타 인테리어 디자인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패션디자인, 기능성패션디자인, 텍스타일디자인, 잡화디자인,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



서비스/경험 디자인

서비스디자인, 인터렉션디자인, 기타 서비스/경험디자인

서비스디자인 서비스를 설계하고 전달하는 과정 전반에 사용자 중심의 리서치가 강화된 디자인 방법을 적용하여,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는 디자인 분야



산업공예 디자인

금속공예, 도자공예, 섬유공예, 목공예, 기타공예



디자인 인프라(디자인 기반 기술)

디자인 모형, 디자인 연구개발, 기타디자인서비스

▣ 출원/등록 구분

① 출원

» 산업체산권의 등록을 목적으로 국가기관에 대해 법률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는 행위를 말함.

② 등록

» 출원된 서류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법률에서 요구하는 형식적, 실질적 요건을 심사하여 이를 만족한 경우 권리(권리를 부여하는 행정처분)를 의미함.

GD(Good Design)마크

- » 우수산업디자인(GD)상품 선정제도는 1985년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음.
현재 국내외에서 판매중이거나 판매 예정인 상품을 대상으로 조형성, 경제성, 편리성 등을 기준으로 디자인을 평가해 선정된 제품에 대해 정부에서 우수디자인상품임을 인증하여 GD마크를 부여하는 제도임.

디자인 표준 계약서

- » 디자인표준계약서는 디자인 개발 용역에서 사용되는 표준계약서로 산업통상자원부가 2013년 6월에 고시한 계약서 양식임.
종류로는 시각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제품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제품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성과 보수), 인터랙티브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가 있음.

공공 디자인 구분



도시 기반시설

- 공원, 운동장, 광장, 놀이터, 집회시설, 보도, 자트리 공원, 주차장, 터널, 도로, 철로, 교량, 육교, 고가도로, 하천, 하수처리장, 산업공단, 변전소, 발전소 등

건축 및 실내환경

- 마을회관, 파출소, 소방서, 우체국, 전화국, 동사무소, 군사시설, 교도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청사, 정부행정부처 건물, 외국공관 건축물, 시민회관, 문화재, 체육관, 경기장, 공연장, 국공립 복지시설, 국공립의료시설, 보육원, 기념관, 박물관, 미술관, 휴게소,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철도역사, 지하철역, 공항, 항만, 고속도로 휴게실,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유아원, 교육원, 훈련원, 연구소, 도서관, 연수원 등

시설물 ⇨

보행 및 운송시설물

- 보행신호등, 훈스, 방음벽, 볼라드, 가드레일, 가로표식,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육교, 정류장, 자전거 정차대, 보행 유도등, 신호등, 교통차단물, 속도 억제물, 주차시설, 주차요금징수기, 공공기관 소유차량 등

편의시설물

- 벤치, 의자, 쉘터, 옥외용 테이블, 휴지통, 음수대, 재떨이, 화장실, 세면장, 매점, 무인 키오스크, 자동판매기, 신문가판대 등

관리시설물

- 맨홀, 전신주, 가로등, 신호개폐기, 전력구, 분전반, 환기구, 우체통, 소화전, 방재시설, 범죄예방장치, 신원확인장치 등

정보시설물

- 공중전화, 풍향계, 시계, 은행도계, 정보부스, 지역/관광안내시설, 시(도)계 경계석, 지자체 상징탑, 교통정보판 등

행정시설물

- 제복, 가구, 문구, 표찰, 무인 민원처리기 등

이미지 ⇨

정보매체

- 이정표, 교통표지판, 지역/관광 안내도, 버스노선도, 지하철노선도, 방향유도사인, 규제사인, 자동차 번호판, 각종 픽토그램, 광고판, 현수막, 포스터, 게시판, 간판, 배너, 기, 홍보영상

상징매체

- 국가 및 행정부처, 지방자치단체, 각급 공공기관 상징시스템(상징사인, 증명서, 공문서, 출판물 표지, 웹페이지 등), 화폐, 주민등록증, 여권, 교통카드, 채권, 기념주화, 우표 등

환경연출

- 벽화, 수피그래픽, 미디어 아트, 오감연출매체(sound scape, light scape), 미술장식품

도시마스터플랜/가이드라인

- 녹지 벨트 확보를 위한 디자인 개발 등, 도시별 이미지 구축을 위한 디자인 개발

2 응답자 특성

1) 일반업체 디자인 활용여부 조사

디자인 활용여부 조사 응답자 특성

		상세내용	
		사례수	%
전체		10,683	100.0
권역별	서울	3,172	29.7
	부산/울산/경남	1,458	13.6
	대구/경북	1,005	9.4
	인천/경기	3,053	28.6
	광주/전라	773	7.2
	대전/세종/충청	923	8.6
	강원/제주	301	2.8
업종별	제품 디자인	2,481	23.2
	시각 디자인	935	8.8
	디지털/미디어 디자인	468	4.4
	공간 디자인	2,285	21.4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716	6.7
	서비스/경험 디자인	1,318	12.3
	산업공예 디자인	737	6.9
	디자인인프라(디자인기반기술)	1,743	16.3
총사자 수	소기업	6,583	61.6
	중기업	2,313	21.7
	대기업	1,787	16.7

2) 일반업체 디자인 활용업체 실태조사

디자인 활용업체 실태조사 응답자 특성

		조사완료 표본	
		사례수	%
전체		1,204	100.0
권역별	서울	505	41.9
	부산/울산/경남	132	11.0
	대구/경북	89	7.4
	인천/경기	295	24.5
	광주/전라	77	6.4
	대전/세종/충청	83	6.9
	강원/제주	23	1.9
업종별	제품 디자인	253	21.0
	시각 디자인	153	12.7
	디지털/미디어 디자인	86	7.1
	공간 디자인	238	19.8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99	8.2
	서비스/경험 디자인	140	11.6
	산업공예 디자인	77	6.4
	디자인인프라(디자인기반기술)	158	13.1
종사자 수	소기업	155	12.9
	중기업	29	2.4
	중견기업	191	15.9
	대기업	829	68.9
2014년 매출액	10억 미만	302	25.1
	10~30억 미만	295	24.5
	30~100억 미만	251	20.8
	100~500억 미만	154	12.8
	500~1,000억 미만	55	4.6
	1,000억 이상	147	12.2

3) 전문디자인업체

전문디자인업체 실태조사 응답자 특성

		조사완료 표본	
		사례수	%
전체		622	100.0
권역별	서울	478	76.8
	부산/울산/경남	34	5.5
	대구/경북	30	4.8
	인천/경기	47	7.6
	광주/전라	25	4.0
	대전/충청	7	1.1
	강원/제주	1	0.2
업종별	제품 디자인	157	25.2
	시각 디자인	206	33.1
	인테리어 디자인	137	22.0
	기타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122	19.6
규모별	1인	94	15.1
	2~4인	222	35.7
	5~9인	154	24.8
	10~14인	70	11.3
	15인 이상	82	13.2
2015년 매출액	1억 미만	79	12.7
	1~3억 미만	153	24.6
	3~5억 미만	83	13.3
	5~10억 미만	113	18.2
	10억 이상	194	3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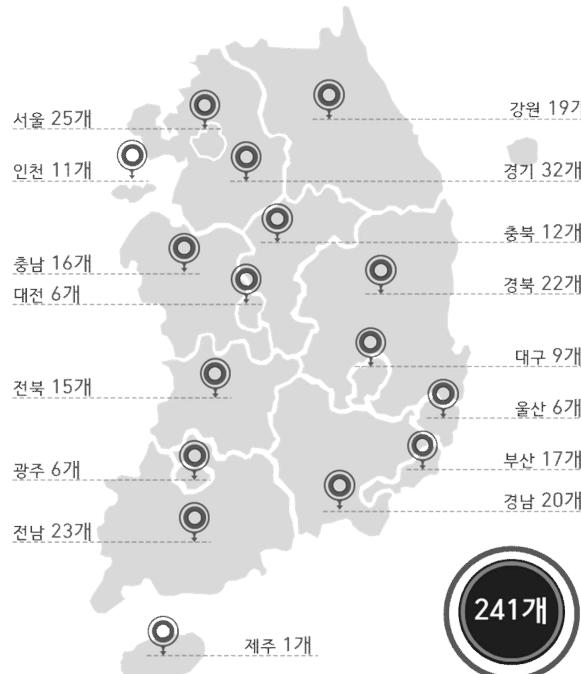
4) 중앙부처

▣ 총 36개 기관 중 33개 기관 조사 완료①

중앙부처	
17부 (16부 완료)	고용노동부, 교육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외교부, 통일부,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환경부
5처 (5처 완료)	국가보훈처, 국민안전처(구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사혁신처
16청 (14청 완료)	관세청, 국세청, 기상청, 농촌진흥청, 문화재청, 방위사업청, 병무청, 산림청, 새만금개발청, 조달청, 중소기업청, 통계청, 특허청,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청

5) 지방자치단체

▣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241개 조사 완료②



▶▶ 지방자치단체 지역별 모집단 크기 (2015년)

시/도	시군구(행정구/자치구)			계
	시	군	구	
서울	1		24	25
부산	1	1	15	17
대구	1	1	7	9
인천	1	2	8	11
광주	1		5	6
대전	1		5	6
울산	1	1	4	6
경기	1	28	3	32
강원	1	7	11	19
충북	1	3	8	12
충남	1	8	7	16
세종	1			1
전북	1	6	8	15
전남	1	5	17	23
경북	1	8	13	22
경남	1	10	9	20
제주	1			1
계	17	75	81	241

①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미응답

② 서울 중랑구, 경남 산청군 미응답

2장

2016 산업디자인 통계조사

2016 산업디자인 통계조사

주요 통계

- 01 | 디자인산업 규모
- 02 |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
- 03 | 디자인 활용률
- 04 | 디자인학과 졸업/취업

1 디자인산업 규모

» 2015년 디자인 산업 규모는 15조 6,516억 원

디자인 산업 규모는 디자인활용업체의 디자인 투자금액 11조 2,526억 원^③, 전문디자인업체의 매출액 3조 599억 원^④, 공공부문의 디자인 전담부서 예산 2,717억 원, 프리랜서 산업규모 8,210억 원 및 고등 교육 부문 2,464억 원의 합으로 추정함.

» 2015년 디자인 인력 규모는 308,174명

디자인활용업체의 디자이너 수(240,866명), 전문디자인업체 종사자 수(22,728명), 공공부문 디자인 전담부서 직원 수(676명), 프리랜서 수(41,214명), 디자인학과계열 대학교원 수(2,690명)의 합으로 추정함.

▣ 2015년 디자인 산업 규모 및 인력

구분	2014년		2015년		비고
	디자인 산업규모 (백만원)	디자인 인력 (명)	디자인 산업규모 (백만원)	디자인 인력 (명)	
일반업체	10,292,018	230,979	11,252,597	240,866	
전문디자인 업체	2,990,423	13,249 *(21,345)	3,059,925	15,232 *(22,728)	*(비디자이너 포함 총 종사자)
공공부문 (지자체, 정부부처)	138,281 *(17,782)	749	271,727 *(36,709)	676	*(공공부문 디자인용역비를 제외한 산업규모)
소계	13,420,722 *(13,300,223)	244,977 *(253,073)	14,584,249 *(14,349,231)	256,774 *(264,270)	*(비디자이너 포함 총 종사자) *(공공부문 디자인용역비를 제외한 산업규모)
프리랜서	715,641	36,587	820,990	41,214	
고등교육	233,758	2,711	246,359	2,690	
총계	14,370,121 *(14,249,622)	284,275 *(292,371)	15,651,598 *(15,416,580)	300,678 *(308,174)	

③ 일반업체 산업 규모 : 디자인활용업체 수(추정치) × 디자인 투자금액 평균(표본조사결과, 전문디자인업체 용역비 제외)

④ 전문디자인업 산업 규모 : 전문디자인업체 매출액 평균(표본조사결과) × 모집단 수(2013전국사업체조사 중 전문디자인업인 업체)

1-1) 일반업체 디자인 산업 규모 및 인력

» 디자인활용업체의 평균 디자인 투자금액은 1억 1,533만원, 산업 규모는 11조 2,526억원으로 추정됨. 업종별 평균 디자인 투자금액은 제품디자인업이 2억 2,090만원으로 가장 높고, 이어 시각디자인(1억 9,220만원), 디지털/미디어디자인(1억 6,208만원), 패션/텍스타일디자인(1억 2,090만원), 서비스/경험디자인(1억 418만원), 공간디자인(8,963만원), 디자인인프라(7,009만원), 산업공예디자인(5,716만원) 순임.

규모별로는 대기업이 18억 2,516만원, 중견기업 8억 6,328만원, 중기업 1억 962만원, 소기업 8,383만원으로 규모가 클수록 평균 디자인 투자금액이 높음.

» 업종별로 산업 규모를 분석해 보면, 제품디자인(2조 6,829억원)의 산업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서비스/경험디자인(2조 2,699억원), 디자인인프라(1조 8,183억원), 시각디자인(1조 5,405억원), 공간디자인(1조 4,862억원)등의 순으로 높음.

▣ 14년, 15년 디자인활용업체의 디자인 산업 규모

(단위: 백만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4년 대비 산업규모 증감률	
	디자인 활용업체 수	업체 평균 디자인 투자금액	산업규모	디자인 활용업체 수	업체 평균 디자인 투자금액	산업규모		
업종별	제품 디자인	11,453	233.16	2,670,454	12,145	220.90	2,682,897	▲0.5%
	시각 디자인	7,003	172.23	1,206,162	8,015	192.20	1,540,535	▲27.7%
	디지털/미디어 디자인	3,459	158.58	548,580	3,994	162.08	647,310	▲18.0%
	공간 디자인	11,886	88.23	1,048,706	16,582	89.63	1,486,163	▲41.7%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4,453	86.79	386,482	4,501	120.90	544,177	▲40.8%
	서비스/경험 디자인	21,494	96.95	2,083,855	21,787	104.18	2,269,865	▲8.9%
	산업공예 디자인	4,104	82.41	338,222	4,608	57.16	263,354	▼22.1%
	디자인인프라(디자인기반기술)	23,588	85.19	2,009,557	25,941	70.09	1,818,297	▼9.5%
규모별	소기업	70,444	86.61	6,101,060	81,399	83.83	6,823,779	▲11.8%
	중기업	15,811	122.21	1,932,296	13,998	109.64	1,534,817	▼20.6%
	중견기업				1,118	863.28	965,046	-
	대기업	1,186	1,904.41	2,258,662	1,057	1825.16	1,928,955	▼14.6%
계		87,441	117.70	10,292,018	97,572	115.33	11,252,597	▲9.3%

- » 디자인활용업체의 평균 디자이너 수는 2.47명으로 2014년(2.64명) 대비 다소 낮음. 디자이너 고용 업체의 평균 디자이너 수는 3.93명(2014년 3.74명)임. 디자인활용업체의 디자인 인력은 240,866명으로 추정됨.
- » 업종별 디자인 산업인력은 서비스/경험디자인의 산업인력이 52,203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디자인인프라(50,348명), 공간디자인(45,958명), 제품디자인(37,264명), 시각디자인업(22,293명) 등의 순으로 많음.

▣ 14년, 15년 디자인활용업체의 디자인 인력 규모

(단위: 명)

구분		2014년			2015년			2014년 대비 산업인력 증감률	
		평균 디자이너 수		산업인력	평균 디자이너 수		산업인력		
		디자이너 고용업체 대상	활용업체 전체 대상		디자이너 고용업체 대상	활용업체 전체 대상			
업종별	제품 디자인	5.03	3.13	35,830	4.26	3.07	37,264	▲4.0%	
	시각 디자인	2.77	2.21	15,507	4.29	2.78	22,293	▲43.8%	
	디지털/미디어 디자인	4.06	3.98	13,753	4.13	2.76	11,014	▼19.9%	
	공간 디자인	5.07	3.00	35,684	2.82	2.77	45,958	▲28.8%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3.06	2.53	11,260	4.17	3.02	13,594	▲20.7%	
	서비스/경험 디자인	3.94	2.61	56,032	4.27	2.40	52,203	▼6.8%	
	산업공예 디자인	3.35	2.28	9,377	3.51	1.78	8,191	▼12.6%	
	디자인인프라(디자인기반기술)	2.98	2.27	53,536	4.79	1.94	50,348	▼6.0%	
규모별	소기업	2.90	2.06	144,934	3.09	2.18	177,792	▲22.7%	
	중기업	4.15	2.86	45,230	6.88	2.58	36,063	▼20.3%	
	중견기업				14.48	9.73	10,881	-	
	대기업	42.95	34.41	40,815	25.38	15.26	16,131	▼60.5%	
계		3.74	2.64	230,979	3.93	2.47	240,866	▲4.3%	

1-2) 전문디자인업체 디자인 산업 규모 및 인력

- » 전문디자인 업체의 평균 매출액은 6억 1,594만원(2014년 6억 5,935만원)이며, 전문디자인업체의 산업 규모는 3조 599억원으로 추정됨. 2014년(2조 9,990억) 대비 2.3% 증가함. 한편, 전문디자인업체 사업체 수는 2014년 4,535개에서 4,976개로 크게 증가함.
- » 전문디자인업체 업종별 평균 매출액을 살펴보면, 인테리어디자인업이 10억 2,088만원으로 가장 높고, 산업규모 역시 1조 1,056억 원으로 가장 높음. 다음은 제품디자인업(5억 8,635만원), 기타 패션텍스타일(4억 9,538만원) 시각디자인업(4억 4,932만원) 순임.
- » 2014년 대비 시각디자인과 제품디자인의 산업규모가 각각 26.1%, 12.1% 증가한 반면, 인테리어디자인과 기타 패션텍스타일디자인은 각각 13.7%, 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14년, 15년 전문디자인업체의 디자인 산업 규모

(단위: 백만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4년 대비 산업규모 증감률
	조사 모집단 (업체 수)	평균 매출액	산업규모 비중	조사 모집단 (업체 수)	평균 매출액	산업규모 비중	
제품	1,164	557.09	648,500(21.7%)	1,240	586.35	727,076(23.8%)	▲12.1%
시각	1,597	421.49	673,097(22.5%)	1,889	449.32	848,760(27.7%)	▲26.1%
인테리어	1,033	1,239.79	1,280,694(42.8%)	1,083	1020.88	1,105,617(36.1%)	▼13.7%
기타 패션텍스타일	741	523.49	388,132(13.0%)	764	495.38	378,471(12.4%)	▼2.5%
계	4,535	659.35	2,990,423(100%)	4,976	615.94	3,059,925(100%)	▲2.3%

- » 전문디자인업체의 종사자 수(디자이너 수 및 타 업무 종사자)는 평균 4.57명이고, 산업 인력은 22,728명으로 추정됨. 2014년(21,345명) 대비 6.5% 증가함.
디자이너 수 기준으로 보면, 평균 디자이너 수는 3.06명, 전체 디자이너 수는 15,232명으로 2014년(13,249명) 대비 1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 종사자가 가장 많은 업종은 시각디자인(8,190명)으로 전체의 36.0%의 비중을 보임.
다음은 제품디자인(6,226명, 27.4%), 인테리어디자인(5,051명, 22.2%), 기타 패션텍스타일 디자인(3,260명, 14.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14년, 15년 전문디자인업체의 디자인 인력 규모(종사자 기준)

(단위: 명)

구분	2014년			2015년			2014년 대비 산업인력 증감률
	조사 모집단 (업체 수)	평균 종사자 수	산업규모 비중	조사 모집단 (업체 수)	평균 종사자 수	산업규모 비중	
제품	1,164	4.67	5,440(25.5%)	1,240	5.02	6,226(27.4%)	▲14.4%
시각	1,597	5.32	8,490(39.8%)	1,889	4.34	8,190(36.0%)	▼3.5%
인테리어	1,033	4.22	4,357(20.4%)	1,083	4.66	5,051(22.2%)	▲15.9%
기타 패션텍스타일	741	4.12	3,058(14.3%)	764	4.27	3,260(14.3%)	▲6.6%
계	4,535	4.71	21,345(100%)	4,976	4.57	22,728(100%)	▲6.5%

* 2014년 전국사업체조사 전문디자인업 종사자 수: 19,980명

▣ 14년, 15년 전문디자인업체의 디자인 인력 규모(디자이너 기준)

(단위: 명)

구분	2014년			2015년			2014년 대비 산업인력 증감률
	조사 모집단 (업체 수)	평균 종사자 수	산업규모 비중	조사 모집단 (업체 수)	평균 종사자 수	산업규모 비중	
제품	1,164	3.19	3,717(28.1%)	1,240	3.31	4,106(27.0%)	▲10.5%
시각	1,597	3.26	5,202(39.3%)	1,889	3.06	5,789(38.0%)	▲11.3%
인테리어	1,033	2.47	2,557(19.3%)	1,083	2.98	3,223(21.2%)	▲26.0%
기타 패션텍스타일	741	2.39	1,773(13.4%)	764	2.77	2,114(13.9%)	▲19.2%
계	4,535	2.92	13,249(100%)	4,976	3.06	15,232(100%)	▲15.0%

1-3) 공공부문(중앙부처/지자체) 디자인 산업 규모 및 인력

- » 공공부분은 중앙부처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디자인 투자 규모를 조사한 결과, 중앙부처 디자인 전담부서 예산은 618억 원, 지자체 디자인 전담부서는 2,099억 원으로 공공부문 디자인 투자 규모는 2,717억 원으로 추정됨.
- » 중앙부처 디자인 전담부서 직원 수는 11명, 지자체의 디자인 전담부서 직원 수는 665명으로 공공부분 디자인 관련 인력 규모는 676명으로 추정됨.

■ 공공부문 디자인 투자 규모 및 인력 현황

구분	2014년		2015년	
	디자인 전담부서 예산 총 합 (백만원)	전담부서 직원 수 총 합 (명)	디자인 총 합 (백만원)	전담부서 직원 수 총 합 (명)
중앙부처	62,191 *(159)	57	61,793 *(486)	11
지자체	76,090 *(17,623)	692	209,934 *(10,937)	665
계	138,281 *(17,782)	749	271,727 *(11,423)	676

* 괄호는 디자인 관련 예산 중 디자인 용역비 제외 금액

* 2015년부터 디자인 예산은 디자인 전담부서 예산과 전담부서 이외 예산의 합으로 산정함.

1-4) 프리랜서 디자이너 산업 규모 및 인력

- » 프리랜서 디자이너 산업 규모 및 인력은 2015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⑤ 결과를 활용하여 프리랜서 디자이너 수를 추정하고, 추정된 프리랜서 디자이너 수에 디자이너 임금을 곱하여 산업 규모를 산출함.
- » 2015년 프리랜서 수는 **41,214명**(2014년 36,587명)으로 추정됨.
 - 프리랜서 수 41,214명 = {전문디자인업체 종사자 수(22,728명) + 일반업체 디자이너 수(240,866명)} × 15.6%
 * 디자이너 중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전체 디자이너=35,690/228,262=15.6%
 프리랜서 수는 2015년 지역별고용조사 결과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규모로 추정함



$$\text{프리랜서 수} = \frac{\text{전문디자인업체 종사자 수} & \text{일반업체 디자이너 수 추정치}}{\text{전체 디자이너}} \times \frac{\text{디자이너 중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text{전체 디자이너}}$$

▣ 2015년 지역별고용조사 자영업자 현황

2015년		명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35,690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외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192,572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무급 가족 종사자	
전체		228,262

- » 디자이너 산업 규모는 **8,210억원**(2014년 7,156억원)으로 추정됨.
 - 8,210억원 = 프리랜서 수 41,214명 × 프리랜서 월평균 임금 166만원(2014년 지역별고용조사 결과) × 12개월



$$\text{프리랜서 산업규모} = \text{프리랜서 수 추정치} \times \text{프리랜서 월 평균 임금} \times 12개월$$

구분	2014년	2015년
프리랜서 산업규모	7,156억원	8,210억원
프리랜서 수	36,587명	41,214명

⑤ 2015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는 2014년 10월에 전국 약 19만 9천가구의 만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1주간(실업자는 4주간)의 경제활동상태를 조사하여 9개도의 시군별 주요고용지표를 집계한 결과임

1-5) 교육 부문 디자인 산업 규모 및 인력

- » 교육 부문 디자인 투자금액 규모는 대학 디자인학과의 교원 임금 추정치와 디자인과 연구비 추정치의 합으로 산출됨. 교육 부문 인력 규모는 디자인 관련과의 전문대학 및 4년제 대학, 대학원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⑥ 수의 합으로 산출됨.
- » 교육 부문 디자인 산업규모는 2,463억원으로 추정됨.



교육 부문
246,359백만원 = 217,485백만원(디자인과 교수 연봉) + 28,874백만원(디자인학과 연구비)

- » 교육 부문 인력 규모는 2,690명으로 나타남(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DB 결과).

▣ 14년, 15년 디자인학과 교수 연봉

구분	2014년			2015년		
	교수 연봉 평균 (백만원)	디자인과 교원 수 (명)	디자인과 교수 연봉 추정 (백만원)	교수 연봉 평균 (백만원)	디자인과 교원 수 (명)	디자인과 교수 연봉 추정 (백만원)
4년제 대학	교수	97	680	66,044	101	702
	부교수	81	331	26,870	85	400
	조교수	68	584	39,782	71	445
	전임강사	51	125	6,409	53	124
전문대학	교수	92	262	24,169	96	242
	부교수	75	283	21,253	78	297
	조교수	61	306	18,684	64	341
	전임강사	41	139	5,683	43	138
계		71	2,711	208,895	74.2	2,690
						217,485

* 교수 연봉 및 디자인과 교원 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DB

⑥ 전임강사 수는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아 2014년 대비 2015년 재적학생 수 증감비율로 추정한 값임

디자인학과 연구비

(단위: 백만원)

구분		2014년 연구비	2015년 연구비
4년제 대학	중앙정부 지원	12,601	13,216
	지자체 지원	2,691	1,564
	민간 지원	3,436	7,668
	외국 지원	46	240
	교내 지원	4,537	4,013
	소계	23,312	26,702
전문대학	교수	1,551	2,172
계		24,863	28,874

※ 2015년 대학연구활동실태조사 결과, 교과부, 한국연구재단

2) 디자인산업 규모 및 인력 추이

08~15년 디자인 산업 규모 추이

(단위: 백만원)

구분	2008년	2010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일반업체	3,347,607	4,368,687	10,056,779	9,152,954	10,292,018	11,252,597
전문디자인업	1,661,274	1,959,626	2,499,239	2,745,643	2,990,423	3,059,925
공공부문	223,000	342,246	363,045	247,758	138,281 *(17,782)	271,727 *(36,709)
소계	5,231,881	6,670,559	12,919,063	13,067,240	13,420,722 *(13,300,223)	14,584,249 *(14,349,231)
프리랜서	-	233,282	593,268	691,968	715,641	820,990
고등 교육		186,168	222,970	228,917	233,758	246,359
총계	7,090,009	13,735,301	13,067,240		14,370,121 *(14,249,622)	15,651,598 *(15,416,580)

- » 일반업체의 경우 2010년까지는 디자인 산업 규모 추정 시 표준산업분류 대부분류 상의 제조업, 건설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5개 업종으로 한정하고, 종사자수가 5인 이상, 본사 및 단독사업체를 대상으로 디자인 산업을 추정하였으나 2012년부터는 디자인 산업 특수분류로 구분된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추정함.
- » 2013년 산업규모 추정치부터는 일반업체의 디자인 산업규모(디자인 투자 금액) 중 전문 디자인업체 용역비를 제외하고 추정함.
- » 2014년 공공부문의 괄호는 디자인 산업규모(디자인 전담부서 예산) 중 디자인관련 용역비를 제외한 금액임.

3) 디자인 수출/수입 규모

» 디자인활용업체의 디자인 수입 금액 규모는 70억원으로 추정됨.



활용업체
수입 금액

= 활용업체 수 × 수입업체 비율 × (디자인투자비평균 × 해외 외주 디자인 개발 비중)

▣ 디자인 수입 금액 추정

구분	추정 활용업체 수	수입업체 비율 ^⑦	디자인 투자비 평균 (백만원)	디자인 개발시 해외 외주 디자인 개발 비중	추정 수입 규모 (백만원)
디자인 수입	97,572	0.05%	130.66	100.0%	6,979

» 전문디자인업체의 수출 금액 규모는 741억으로 추정됨.



전문디자인업체
수출 금액

= 전문디자인업체 수 × 수출업체 비율 × (매출액평균 × 매출 중 해외 고객 비중)

▣ 디자인 수출 금액 추정

구분	디자인전문 업체 수	수출업체 비율 ^⑧	매출액 평균 (백만원)	매출 중 해외고객 비중	추정 수출 규모 (백만원)
디자인 수출	4976	6.99%	614.94	34.62%	74,092

▣ 08-15년 디자인 수입/수출 추이

구분	2008년	2010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수입액	281억원	210억원	260억원	262억원	192억원	70억원
수출액	250억원	393억원	568억원	440억원	456억원	741억원

⑦ 수입업체 비율: 디자인활용업체 설문 중 외주디자인 개발- 해외 업체 의뢰 비중이 1%이상인 업체

⑧ 수출업체 비율: 디자인전문회사 설문 중 매출구성- 해외 고객 비중이 1%이상인 업체

2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

●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는 94조로 추정됨

» 서비스/경험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가 39.1조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디자인인프라(20.1조), 제품디자인(14.8조), 공간디자인(10.8조)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2015년 지역별고용조사 자영업자 현황

디자인 특수 분류	매출액 (단위: 백만원)	디자인기여도 (단위: %)	부가가치율 (단위: %)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 (단위: 백만원)
제품디자인	218,329,673	25.17	26.92	14,793,627
시각디자인	56,001,521	27.27	27.44	4,190,538
디지털/미디어디자인	13,540,929	34.87	42.18	1,991,666
공간디자인	84,956,562	29.87	42.36	10,750,362
패션/텍스타일디자인	18,309,456	36.38	26.72	1,780,060
서비스/경험디자인	286,956,481	23.47	58.08	39,117,063
산업공예디자인	20,644,472	22.04	32.20	1,465,438
디자인인프라	154,323,923	23.01	56.59	20,091,957
전체	853,063,017	-	-	94,180,711

* 매출액: 디자인특수분류 해당 업종 매출액 × 디자인활용비율 × 2014년 대비 2015년 매출액 증가율
(매출액 정보: 2014년 산업디자인 통계조사, 매출액 증가율: 한국은행)

* 디자인기여도: 디자인실태조사 결과

* 부가가치율: 한국은행 자료로 추정

» 2014년 대비 제품디자인, 공간디자인, 패션/텍스타일디자인, 디지털/미디어디자인, 서비스/경험디자인의 경제적 가치가 증가 추세를 보임.

14년, 15년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

(단위: 백만원)

디자인 특수 분류	2014년	2015년	14년 대비 증감률
제품디자인	11,861,637	14,793,627	▲24.7%
시각디자인	4,417,277	4,190,538	▼5.1%
디지털/미디어디자인	1,881,234	1,991,666	▲5.9%
공간디자인	8,920,391	10,750,362	▲20.5%
패션/텍스타일디자인	1,578,565	1,780,060	▲12.8%
서비스/경험디자인	37,831,039	39,117,063	▲3.4%
산업공예디자인	1,793,391	1,465,438	▼18.3%
디자인인프라	24,731,805	20,091,957	▼18.8%
전체	93,015,339	94,180,711	▲1.3%

3 디자인 활용률

- » (전체산업 기준) 2015년 5인 이상 업종 711,755개 중 디자인활용업체 수는 97,573개로 일반업체의 디자인 활용비율은 13.7%로 나타남.
- » (디자인 특수분류 기준) 디자인 특수분류에 해당되는 일반업체 336,833개의 디자인 활용비율은 29.0%로 나타남.

▣ 디자인 활용업체 비율 추이

구분	2014년		2015년	
	전체산업 기준	디자인특수분류 기준	전체산업 기준	디자인특수분류 기준
디자인활용업체 비율	13.0%	27.6%	13.7%	29.0%

▣ 전체산업 기준 디자인 활용 비율

(단위: 개)

표준 산업 분류	구분	사업체 수		디자인 활용비율
		5인 이상 사업체	디자인 활용업체	
	농업, 임업 및 어업	1,934	279	14.4%
	광업	652	1	0.2%
	제조업	147,240	28,903	19.6%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1,162		0.0%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4,142		0.0%
	건설업	49,368	10,593	21.5%
	도매 및 소매업	114,365	14,564	12.7%
	운수업	21,378	1,053	4.9%
	숙박 및 음식점업	86,182		0.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7,219	8,292	48.2%
	금융 및 보험업	29,691	3,634	12.2%
	부동산업 및 임대업	23,508	6,042	25.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전문디자인업제외)	32,681	7,780	23.8%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8,725	2,508	13.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중앙부처 및 지자체 제외)	10,224	76	0.7%
	교육서비스업(대학제외)	42,443	3,876	9.1%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68,974	4,309	6.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0,794	1,640	15.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31,073	4,023	12.9%
규모별	소기업	550,075	77,136	14.0%
	중기업	155,186	19,239	12.4%
	대기업	6,494	1,197	18.4%
계		711,755	97,573	13.7%

디자인 특수분류 기준 디자인 활용 비율

(단위: 개)

구분	디자인 특수분류 모집단	사업체 수			디자인 활용 비율
		디자인 활용업체 (추정)	디자인 비활용업체 (추정)		
업종별	제품디자인	51,553	12,146	39,407	23.6%
	시각디자인	18,325	8,015	10,310	43.7%
	디지털/미디어디자인	7,449	3,994	3,455	53.6%
	공간디자인	67,324	16,582	50,742	24.6%
	패션/텍스타일디자인	13,169	4,501	8,668	34.2%
	서비스/경험디자인	65,207	21,787	43,420	33.4%
	산업공예디자인	17,986	4,608	13,378	25.6%
	디자인인프라(디자인기반기술)	95,820	25,941	69,879	27.1%
규모별	소기업	267,777	77,136	190,641	28.8%
	중기업	66,067	19,239	46,827	29.1%
	대기업	2,989	1,197	1,792	40.0%
계		336,833	95,573	239,260	29.0%

4 디자인학과 졸업 및 취업 현황

- » 2016년 대학 또는 대학원 디자인학과 총 졸업자는 25,975명(2015년 대비 164명 감가)으로 나타났고, 취업자는 14,569명(2015년 대비 884명 증가)으로 나타남. 취업률은 65.1%(2015년 대비 2.1%p증가)임.

▣ 2016년 대학(원) 디자인학과 졸업 및 취업 현황

(단위: 명)

구분	졸업자	취업자	취업률(%)
2016년	25,975	14,569	65.1%
2015년	26,139	13,685	63.0%
GAP	▼164	▲884	▲2.1%p

- » 계열별/학교구분별 디자인학과 졸업 및 취업 현황

▣ 분류별 2016년 대학(원) 디자인학과 졸업 및 취업 현황

(단위: 명)

학교 구분	계열	졸업자				취업자				취업률(%)			
		학부	석사 과정	박사 과정	계	학부	석사 과정	박사 과정	계	학부	석사 과정	박사 과정	계
총계	소계	24,474	1,359	142	25,975	14,269	220	80	14,569	65.0	68.5	77.7	65.1
학교 구분별	전문대학	11,250	-	-	11,250	6,539	-	-	6,539	64.3	-	-	64.3
	대학교	11,167	-	-	11,167	6,711	-	-	6,711	64.5	-	-	64.5
	산업대학	416	-	-	416	369	-	-	369	62.4	-	-	62.4
	각종대학(대학)	19	-	-	19	7	-	-	7	63.6	-	-	63.6
	일반대학원	-	1,359	142	1,501	-	220	80	300	-	68.5	77.7	70.8
	사이버대학(대학)	570	-	-	570	-	-	-	-	-	-	-	-
	전공대학	150	-	-	150	-	-	-	-	-	-	-	-
	기능대학	902	-	-	902	643	-	-	643	82.0	-	-	82.0
디자인 특수 분류별	디자인 일반	1,921	333	48	2,302	869	75	30	974	60.9	74.3	76.9	62.2
	제품디자인	3,675	176	13	3,864	2,272	26	11	2,309	63.8	74.3	73.3	63.9
	시각디자인	4,387	125	3	4,515	2,564	12	4	2,580	63.0	85.7	100.0	63.2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3,350	98	8	3,456	1,771	7	5	1,783	65.4	70.0	100.0	65.5
	공간디자인	3,685	144	8	3,837	2,199	14	1	2,214	67.0	77.8	33.3	67.0
	패션/텍스타일디자인	5,375	166	9	5,550	3,180	14	5	3,199	64.9	43.8	83.3	64.8
	서비스/경험디자인	177	76	21	274	86	4	-	90	62.8	36.4	-	60.8
	산업공예디자인	1,246	73	32	1,351	701	16	24	741	67.7	72.7	77.4	68.1
	디자인인프라	658	168	-	826	627	52	-	679	73.4	66.7	-	72.9

※ 한국교육개발원 자료 인용

※ 졸업자 조사기준일 : 2016년 4월 1일

※ 취업자 및 취업률 조사기준일 : 2015년 12월 31일

Part 2.

국제 디자인산업 통계조사

2 0 1 6

KOREA

A

D

E

G N

S

S

T

A

S

L

A

A

들 어 가 며

1. 본 보고서는 해외의 디자인 관련 통계자료들을 수집해 주요 디자인 지표별로 각국의 규모 및 동향을 분석함.
2. 본 보고서에 수록된 데이터들은 2016년 7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EU, OECD 등의 국제기구, 그 외 통계사이트 및 디자인관련 기관에서 발표된 보고서 등을 중심으로 수집됨.
3. 수록 자료의 대부분이 각국의 공인된 기관 및 단체에서 발표된 자료를 바탕으로 신뢰성을 제고하였으며, 각 자료의 출처는 표 하단에 표기함.
4. 환율은 1USD=1,203원(2017.01.04)을 기준으로 표기함. 단위는 '\$ 백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기준 단위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는 '\$'를 기준으로 작성함. 기준 단위로의 변환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작성되었음(변환이 아닌 발췌 자료들은 소수점 표기 기준이 다름).
5. 국가별, 조사 기준별 분류체계가 달라 해당 범주에 대해 각주를 통해 설명하였고, 주요 용어정의는 해당 통계표 하단에 정리하였음. 해당하는 내용이 없는 경우 ‘-’로 표기함.
5. 본 보고서는 디자인 산업의 여러 지표들에 대해 한국을 비롯해 주요국들을 비교하여 지표별 규모 및 동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함. 국가별로 디자인 분류기준, 조사 기준이 상이해 단순 비교에 어려움이 있으나 주요국들의 디자인 관련 통계의 규모 파악이 가능하다는 데에 의의가 있음.

요약본

-
- 01 | 디자인산업 규모
 - 02 | 디자인 인력
 - 03 | 디자인 인증
 - 04 | 디자인 활용률

1 디자인 산업규모

1) 디자인전문서비스 시장규모

(순위기준: 2014년 / 단위: \$백만)

NO.	국가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	미국	23,540.00	24,780.00	25,760.00	27,500.00	29,450.00	32,570.00
2	영국	4,774.02	5,733.42	6,428.14	5,998.93	7,665.42	-
3	이탈리아	4,082.94	4,041.54	3,977.48	4,001.71	3,851.02	-
4	독일	2,326.58	2,656.06	3,039.09	3,319.89	3,576.77	-
5	호주	3,681.60 (‘10-‘11)	3,700.10 (‘11-‘12)	3,637.70 (‘12-‘13)	3,653.90 (‘13-‘14)	3,829.00 (‘14-‘15)	3,933.50 (‘15-‘16)
6	일본	2,762.27	-	3,338.47	2,964.36	2,754.05	-
7	한국	1,628.95	-	2,077.51	2,282.33	2,485.80	2,543.58
8	프랑스	1,737.94	1,975.90	2,354.04	2,178.28	1,735.76	-
9	스웨덴	1,169.79	1,227.93	1,406.29	1,475.66	1,560.31	-
10	인도	759.00	967.00	989.00	1,026.00	1,186.00	1,232.00

2) 디자인 전문기업 수

(순위기준: 2013년 / 단위: 개)

NO.	국가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	미국	30,650	29,933	29,700	29,880	30,451	31,163
2	프랑스	20,023	22,014	27,846	29,508	-	-
3	이탈리아	27,612	27,481	28,408	27,450	-	-
4	독일	16,732	18,398	20,464	21,530	-	-
5	영국	15,898	16,915	18,669	19,919	-	-
6	호주	14,613 (‘10-‘11)	14,563 (‘11-‘12)	13,884 (‘12-‘13)	13,987 (‘13-‘14)	13,920 (‘14-‘15)	14,098 (‘15-‘16)
7	네덜란드	7,306	8,848	10,827	13,893	-	-
8	스웨덴	12,431	13,012	13,118	12,846	-	-
9	폴란드	3,641	5,450	6,184	6,899	-	-
10	스페인	6,609	6,547	5,815	5,425	-	-
11	한국	3,023	3,453	3,982	4,573	4,535	4,976

2 디자인 인력

(순위기준: 2014년 / 단위: 명)

NO.	국가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	미국	97,434	99,202	101,088	105,996	109,349	114,690
2	영국	-	34,856	41,602	42,850	53,208	-
3	이탈리아	44,857	43,682	44,723	44,790	46,526	-
4	독일	31,261	33,340	37,151	40,226	43,505	-
5	프랑스	23,678	24,175	29,740	31,392	34,459	-
6	호주	22,467 ('10-'11)	22,958 ('11-'12)	22,081 ('12-'13)	22,001 ('13-'14)	21,868 ('14-'15)	22,705 ('15-'16)
7	한국	16,557	-	20,752	22,945	21,345	22,728
8	네덜란드	10,779	11,490	14,167	11,250	12,021	-
9	폴란드	5,206	8,755	9,450	10,145	11,756	-
10	스웨덴	8,307	8,691	9,000	9,200	9,666	-

3 디자인 인증

1) WIPO 산업디자인 등록

(단위: 건)

순위 (2015 기준)	국가	국가코드	연도별 등록건수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	중국	CN	421,273	521,468	657,582	659,563	564,555	569,059
2	한국	KR	57,187	56,524	63,135	66,940	64,574	68,086
3	미국	US	29,059	30,467	32,799	36,034	35,378	39,128
4	일본	JP	31,756	30,805	32,391	31,125	29,738	29,864
5	이란	IR	3,856	4,292	3,759	4,825	8,864	11,856
6	인도	IN	7,038	8,216	8,545	8,497	9,309	10,290
7	터키	TR	7,920	9,007	9,526	10,083	10,251	10,133
8	독일	DE	6,391	6,290	6,414	6,543	7,392	7,301
9	호주	AU	5,863	5,966	6,549	6,912	6,597	7,024
10	UK	GB	3,604	4,511	4,916	5,209	5,084	6,472

2) WIPO 상표등록

(단위: 건)

순위 (2015 기준)	국가	국가코드	연도별 등록건수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	미국	US	281,461	305,209	313,322	323,338	342,570	374,924
2	인도	IN	189,925	198,547	190,851	202,818	223,751	274,768
3	한국	KR	128,671	132,506	141,836	157,139	160,306	182,968
4	브라질	BR	127,692	152,699	151,711	163,422	157,016	158,709
5	일본	JP	113,174	107,017	119,263	116,139	124,615	144,832
6	멕시코	MX	94,457	100,281	105,828	104,362	109,930	120,425
7	터키	TR	84,609	116,631	110,602	107,215	111,228	109,549
8	프랑스	FR	93,140	93,041	89,869	89,413	90,956	94,898
9	독일	DE	74,229	68,741	64,592	64,495	70,878	72,782
10	호주	AU	58,913	60,613	62,757	61,729	64,648	70,729

4 디자인 활용률

1) 디자인 성숙도

(단위: %)

국가	기준연도	디자인 성숙도 비율 (디자인 활용 사다리 기준, 덴마크 디자인센터)					
		단계 1 : 디자인 미활용	활용				소계
		단계 2 : 스타일링	단계 3 : 과정	단계 4 : 전략			
오스트리아	2012	27	31	33	9	73	
덴마크	2007	7	30	40	23	93	
에스토니아	2013	55	18	20	7	45	
프랑스	2010	60	17	8	15	40	
아일랜드	2007	20	22	43	15	80	
스웨덴	2004	27	12	39	22	73	

2) 디자인 활용수준

(단위: %)

국가	디자인은 기업전략의 핵심요소	디자인은 기업의 개발 작업의 핵심요소는 아니지만 필수적	디자인은 최종 마무리로 사용되어 최종제품의 외관 및 매력을 향상시킴	디자인을 체계적으로 사용하지 않음	디자인이 사용되지 않음
UK	22	20	13	10	33
룩셈부르크	18	26	15	12	28
네덜란드	18	14	11	15	40
스위스	18	16	17	15	32
독일	17	17	14	17	33
몰타	17	39	13	4	27
오스트리아	17	18	22	16	26
덴마크	15	16	13	19	32
아일랜드	14	17	15	15	36
루마니아	14	15	13	16	40

국제 디자인산업 통계

- 01 | 디자인산업 규모
- 02 | 디자인 인력
- 03 | 디자인 역량
- 04 | 디자인 인증
- 05 | 디자인 활용률
- 06 | 디자인 정책
- 07 | 디자인 교육

1 디자인 산업규모^⑨

1) 디자인 시장규모

(단위: \$ 백만)

국가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한국	1,628.95	-	2,077.51	2,282.33	2,485.80	2,543.58
미국	23,540.00	24,780.00	25,760.00	27,500.00	29,450.00	32,570.00
일본	2,762.27	-	3,338.47	2,964.36	2,754.05	-
인도	759.00	967.00	989.00	1,026.00	1,186.00	1,232.00
호주	3,681.60 (‘10-‘11)	3,700.10 (‘11-‘12)	3,637.70 (‘12-‘13)	3,653.90 (‘13-‘14)	3,829.00 (‘14-‘15)	3,933.50 (‘15-‘16)
유럽	17,905.84	20,134.61	21,658.10	21,905.10	23,495.37	-
벨기에	283.71	352.04	336.75	439.40	342.58	-
불가리아	16.02	17.78	20.70	24.02	34.63	-
체코	-	93.08	90.69	88.71	81.43	-
덴마크	589.16	659.36	686.71	742.04	817.86	-
독일	2,326.58	2,656.06	3,039.09	3,319.89	3,576.77	-
에스토니아	12.58	18.51	22.57	26.00	30.26	-
아일랜드	229.53	189.38	178.57	-	-	-
그리스	124.07	67.60	57.41	53.66	53.87	-
스페인	728.21	843.96	811.62	845.73	853.74	-
프랑스	1,737.94	1,975.90	2,354.04	2,178.28	1,735.76	-
크로아티아	43.06	44.82	34.63	38.38	45.03	-
이탈리아	4,082.94	4,041.54	3,977.48	4,001.71	3,851.02	-
키프로스	14.87	15.50	10.82	7.90	6.97	-
라트비아	15.91	14.77	22.15	32.66	26.73	-
리투아니아	10.30	12.17	10.71	15.70	17.68	-
룩셈부르크	24.44	32.97	30.16	34.22	41.50	-
헝가리	35.78	34.32	36.19	50.34	56.68	-
몰타	-	-	-	-	8.53	-
네덜란드	-	-	-	-	-	-
오스트리아	140.40	158.81	167.96	169.62	184.70	-
폴란드	183.98	337.06	328.95	452.19	424.22	-
포르투갈	158.18	156.00	154.86	168.38	207.58	-
루마니아	46.28	56.89	54.50	62.30	75.30	-
슬로베니아	32.55	35.88	37.23	37.75	42.95	-
슬로바키아	36.19	21.84	56.16	26.42	37.34	-
핀란드	161.10	176.07	186.58	184.18	203.11	-
스웨덴	1,169.79	1,227.93	1,406.29	1,475.66	1,560.31	-
영국	4,774.02	5,733.42	6,428.14	5,998.93	7,665.42	-
노르웨이	392.29	487.55	538.51	560.25	584.06	-
스위스	626.29	856.02	812.86	1,025.23	936.31	-
마케도니아	-	0.62	0.62	0.83	-	-
터키	-	-	-	-	-	-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	0.42	0.42	-	-	-
총계	50,367.99	49,765.37	57,696.05	59,486.97	63,207.19	40,279.08

- 출처

- 1) 한국: 2013 산업디자인 통계조사, p.14(KIDP, 2013), 유럽 디자인전문서비스 통계자료(KIDP, 2016), 2016 산업디자인 통계조사(KIDP)
- 2) 미국: Anything Research: 2016 Premium Report on Specialized Design Services(Anything Research, 2016)
- 3) 일본: 일본 디자인산업 통계자료 (2016.03)
- 4) 인도: Statista(www.statista.com, 2016)
- 5) 호주: IBISWorld Industry Report M6924: Specialized Design Services in Australia (2016.04.)
- 6) 유럽: Annual detailed enterprise statistics for services(Eurostat, 2016.04.)

⑨ 본 장의 ‘디자인 산업’의 범위는 ‘Specialized Design Service(전문디자인서비스)’에 해당하며(북미산업분류시스템 코드, NAICS Code 5414), 전문적인 디자인 서비스(건축, 엔지니어링 및 컴퓨터 시스템 설계 제외)를 제공하는 산업 그룹을 의미함. (<http://siccode.com/en/naicscodes/5414/specialized-design-service>)

*SIC(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표준산업분류) 코드는 미국 정부가 사업장에 할당하여 사업장의 주요 사업을 식별하는 4 자리 숫자 코드. 영국 등 기타국가의 기관에서도 사용됨. 1997년 발표된 6자리의 북미산업분류시스템(NAICS 코드)으로 대체되었으나, 미국 증권 거래위원회 (SEC)와 같은 정부 부처 및 기관에서는 여전히 SIC 코드를 사용. SIC 코드의 처음 3 자리는 산업 그룹, 처음 두 자리는 주요 그룹을 나타냄.

2) 디자인 시장규모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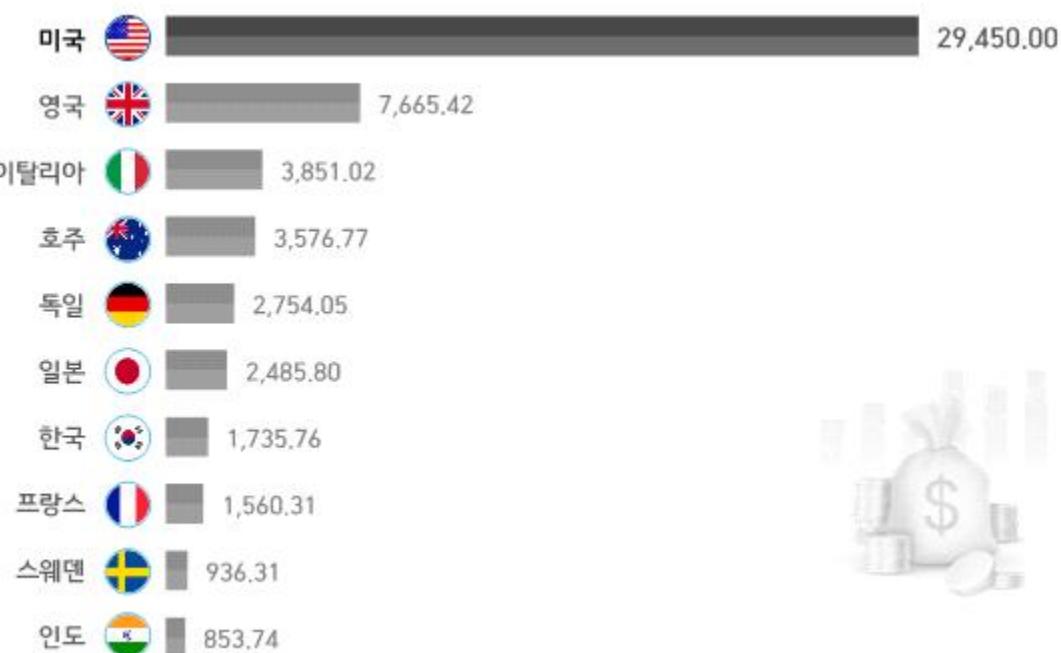
(단위: \$ 백만)

순위	2010		2012		2013		2014	
	국가	매출액	국가	매출액	국가	매출액	국가	매출액
1	미국	23,540.00	미국	25,760.00	미국	27,500.00	미국	29,450.00
2	영국	4,774.02	영국	6,428.14	영국	5,998.93	영국	7,665.42
3	이탈리아	4,082.94	이탈리아	3,977.48	이탈리아	4,001.71	이탈리아	3,851.02
4	호주	3,681.60	호주	3,637.70	호주	3,653.90	호주	3,829.00
5	일본	2,762.27	일본	3,338.47	독일	3,319.89	독일	3,576.77
6	독일	2,326.58	독일	3,039.09	일본	2,964.36	일본	2,754.05
7	프랑스	1,737.94	프랑스	2,354.04	한국	2,282.33	한국	2,485.80
8	한국	1,628.95	한국	2,077.51	프랑스	2,178.28	프랑스	1,735.76
9	스웨덴	1,169.79	스웨덴	1,406.29	스웨덴	1,475.66	스웨덴	1,560.31
10	인도	759.00	인도	989.00	인도	1,026.00	인도	1,186.00

*출처: KIDP 산업디자인 통계조사, Anything Research: 2016 Premium Report on Specialized Design Services(Anything Research, 2016), 일본 디자인산업 통계자료 (2016.03), Annual detailed enterprise statistics for services(Eurostat, 2016.04)

디자인 시장규모 순위(2014 기준)

(단위: \$ 백만)



3) 디자인 고용인 1인당 매출액

(단위: \$)

국가	2010	2011	2012	2013	2014
한국	98,384	-	100,111	99,469	116,458
호주	161,170 (‘10-‘11)	164,740 (‘11-‘12)	166,080 (‘12-‘13)	175,100 (‘13-‘14)	173,240 (‘14-‘15)
유럽	1,767,168	1,982,760	1,986,088	1,851,616	1,909,960
벨기에	89,128	73,736	69,056	88,088	80,496
불가리아	16,120	17,472	19,448	21,008	27,664
체코	47,008	45,136	41,288	40,456	36,920
덴마크	132,600	142,584	142,584	147,784	153,192
독일	74,464	79,664	81,848	82,576	80,080
에스토니아	28,600	37,232	35,048	37,336	52,624
아일랜드	88,400	73,216	67,496	-	-
그리스	46,800	27,248	24,024	22,464	22,464
스페인	66,976	72,280	81,016	86,216	103,480
프랑스	73,424	81,744	79,144	69,368	55,536
크로아티아	34,632	37,128	27,560	29,744	26,728
이탈리아	91,000	92,560	88,920	89,336	93,808
키프로스	56,576	34,320	33,072	32,448	27,976
라트비아	30,056	38,688	38,688	46,696	28,184
리투아니아	24,024	27,144	19,656	26,104	22,152
룩셈부르크	136,656	158,392	120,744	128,232	156,312
헝가리	23,088	20,176	19,032	26,208	25,480
몰타	-	-	-	-	-
네덜란드	-	-	-	-	-
오스트리아	64,376	68,536	70,200	68,952	76,752
폴란드	35,360	38,480	34,840	-	36,192
포르투갈	33,072	32,552	31,512	32,032	34,424
루마니아	22,048	26,312	24,752	26,104	29,952
슬로베니아	36,608	36,816	35,048	31,928	33,384
슬로바키아	54,496	38,480	95,784	44,200	47,112
핀란드	69,680	68,848	71,240	66,456	72,592
스웨덴	140,816	141,232	156,208	160,368	156,728
영국	-	164,528	154,544	139,984	138,840
노르웨이	113,360	132,600	144,872	145,288	140,400
스위스	137,800	159,536	162,656	162,240	150,488
마케도니아	-	-	-	-	-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	16,120	15,808	-	-

- 출처

- 1) 한국: 2013 산업디자인 통계조사(KIDP, 2013), 2014 산업디자인 통계조사(KIDP, 2013), 2015 산업디자인 통계조사(KIDP)
- 2) 호주: IBISWorld Industry Report M6924: Specialized Design Services in Australia (2016.04.)
- 3) 유럽: Services by employment size class(Eurostat, 2016)

4) 디자인 전문기업 수

(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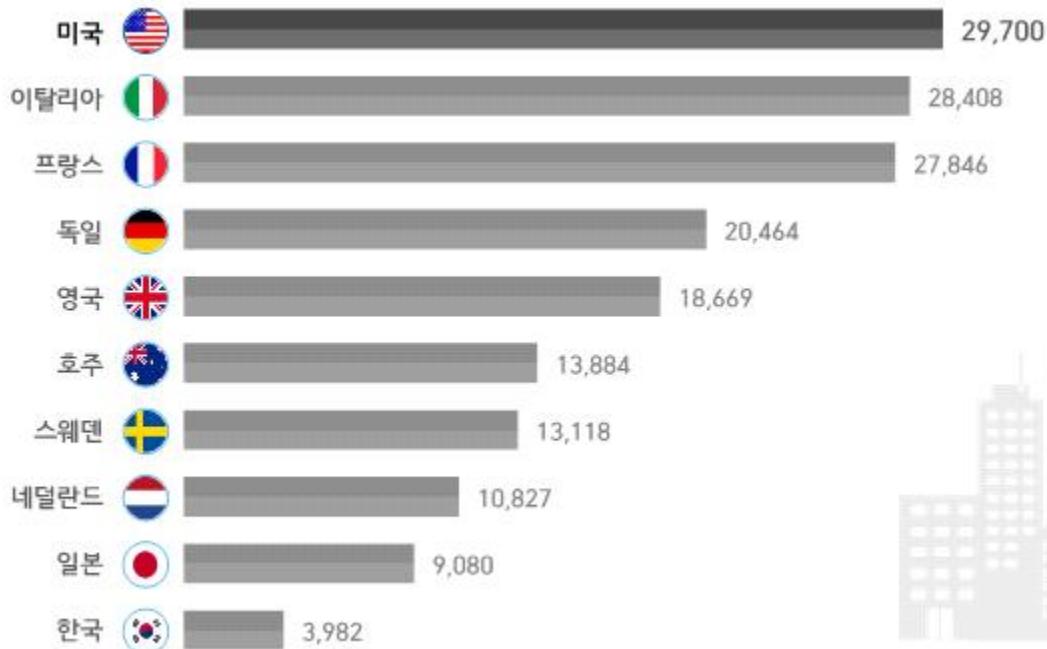
국가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한국	3,023	3,453	3,982	4,573	4,535	4,976
미국	30,650	29,933	29,700	29,880	30,451	31,163
일본	-	-	9,080	-	9,010	-
호주	14,613 (‘10-‘11)	14,563 (‘11-‘12)	13,884 (‘12-‘13)	13,987 (‘13-‘14)	13,920 (‘14-‘15)	14,098 (‘15-‘16)
유럽	137,294	147,370	160,604	166,607	-	-
벨기에	2,241	3,324	3,655	3,900	-	-
불가리아	484	540	554	586	-	-
체코	2,118	2,160	2,256	2,261	-	-
덴마크	2,639	2,918	3,056	3,135	-	-
독일	16,732	18,398	20,464	21,530	-	-
에스토니아	343	377	437	511	-	-
아일랜드	1,409	1,427	1,381	-	-	-
그리스	2,110	1,816	1,203	1,165	-	-
스페인	6,609	6,547	5,815	5,425	-	-
프랑스	20,023	22,014	27,846	29,508	-	-
크로아티아	762	782	805	822	-	-
이탈리아	27,612	27,481	28,408	27,450	-	-
키프로스	152	199	220	214	-	-
라트비아	235	221	309	378	-	-
리투아니아	131	140	206	267	-	-
룩셈부르크	138	158	181	195	-	-
헝가리	1,176	1,228	1,234	1,160	-	-
몰타	110	-	-	-	-	-
네덜란드	7,306	8,848	10,827	13,893	-	-
오스트리아	1,398	1,484	1,507	1,540	-	-
폴란드	3,641	5,450	6,184	6,899	-	-
포르투갈	3,233	3,233	3,335	3,631	-	-
루마니아	868	796	901	945	-	-
슬로베니아	733	815	869	1,001	-	-
슬로바키아	365	394	370	393	-	-
핀란드	1,846	1,938	2,013	2,034	-	-
스웨덴	12,431	13,012	13,118	12,846	-	-
영국	15,898	16,915	18,669	19,919	-	-
노르웨이	3,757	3,886	3,849	3,969	-	-
스위스	794	821	883	984	-	-
마케도니아	-	40	41	46	-	-
터키	-	-	-	-	-	-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	8	8	-	-	-
총계	180,580	195,319	217,250	215,047	57,916	50,237

- 출처

- 1) 유럽 수치: 유럽 디자인전문서비스 통계자료(KIDP, 2016), Annual detailed enterprise statistics for services(Eurostat, 2016.04.)
- 2) 호주: IBISWorld Industry Report M6924: Specialised Design Services in Australia(IBISWorld, 2016.04.)
- 3) 미국: Anything Research: 2016 Premium Report on Specialized Design Services(Anything Research, 2016)
- 4) 한국: 2011 산업디자인 통계조사, p.31(KIDP, 2011), 2013 산업디자인 통계조사, p.307(KIDP, 2013), 2016 산업디자인 통계조사(KIDP)
- 5) 일본: 일본 디자인산업 통계자료(일본 경제산업성, 2016.03.)

주요국 디자인전문기업 수 비교(2012 기준)

(단위: 개)



2 디자인^⑩ 인력

(단위: 명)

국가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한국	16,557	-	20,752	22,945	21,345	22,728
미국	97,434	99,202	101,088	105,996	109,349	114,690
일본	179,570	-	-	-	-	-
호주	22,467 (`10-'11)	22,958 (`11-'12)	22,081 (`12-'13)	22,001 (`13-'14)	21,868 (`14-'15)	22,705 (`15-'16)
유럽	176,621	221,540	241,853	245,942	269,937	-
벨기에	3,184	4,775	4,876	4,987	4,671	-
불가리아	990	1,013	1,061	1,147	1,252	-
체코	2,066	2,065	2,194	2,191	2,264	-
덴마크	4,442	4,625	4,815	5,021	5,160	-
독일	31,261	33,340	37,151	40,226	43,505	-
에스토니아	442	497	645	695	736	-
아일랜드	2,596	2,586	2,647	-	-	-
그리스	2,652	2,483	2,392	2,392	2,394	-
스페인	10,875	11,669	10,016	9,809	9,026	-
프랑스	23,678	24,175	29,740	31,392	34,459	-
크로아티아	1,244	1,208	1,254	1,289	1,684	-
이탈리아	44,857	43,682	44,723	44,790	46,526	-
키프로스	262	450	327	245	287	-
라트비아	530	381	573	700	960	-
리투아니아	428	448	547	600	938	-
룩셈부르크	179	208	250	267	290	-
헝가리	1,550	1,701	1,901	1,918	2,248	-
몰타	162	-	-	-	-	-
네덜란드	10,779	11,490	14,167	11,250	12,021	-
오스트리아	2,183	2,318	2,393	2,460	2,511	-
폴란드	5,206	8,755	9,450	10,145	11,756	-
포르투갈	4,779	4,793	4,914	5,252	5,975	-
루마니아	2,096	2,165	2,201	2,392	2,517	-
슬로베니아	889	973	1,064	1,182	1,286	-
슬로바키아	664	567	587	596	794	-
핀란드	2,314	2,557	2,619	2,769	2,812	-
스웨덴	8,307	8,691	9,000	9,200	9,666	-
영국	-	34,856	41,602	42,850	53,208	-
노르웨이	3,460	3,677	3,717	3,857	4,128	-
스위스	4,546	5,367	4,999	6,320	6,863	-
마케도니아	-	-	-	-	-	-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	25	28	-	-	-
총계	492,649	343,700	385,774	396,884	422,499	160,123

- 참고: 일본(디자이너 수)을 제외한 수치는 디자인전문서비스 종사자 수

- 출처

- 1) 미국: Anything Research: 2016 Premium Report on Specialized Design Services(Anything Research, 2016)
- 2) 호주: IBISWorld Industry Report M6924: Specialised Design Services in Australia(IBISWorld, 2016.04.)
- 3) 일본: 일본 디자인산업 통계자료(2016.03)
- 4) 한국: 2013 산업디자인 통계조사, p.14(KIDP, 2013), 2015 산업디자인 통계조사, p.15(KIDP, 2015), 2016 산업디자인 통계조사(KIDP)
- 5) 유럽: Services by employment size class(Eurostat, 2016)

⑩ 본 장의 '디자인 산업'의 범위는 'Specialized Design Service(전문디자인서비스)'에 해당하며(북미산업분류시스템 코드, NAICS Code 5414), 전문적인 디자인 서비스(건축, 엔지니어링 및 컴퓨터 시스템 설계 제외)를 제공하는 산업 그룹을 의미함. (<http://siccode.com/en/naicscodes/5414/specialized-design-service>)

*SIC(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표준산업분류) 코드는 미국 정부가 사업장에 할당하여 사업장의 주요 사업을 식별하는 4 자리 숫자 코드. 영국 등 기타국가의 기관에서도 사용됨. 1997년 발표된 6자리의 북미산업분류시스템(NAICS 코드)으로 대체되었으나, 미국 증권 거래위원회 (SEC)와 같은 정부 부처 및 기관에서는 여전히 SIC 코드를 사용. SIC 코드의 처음 3 자리는 산업 그룹, 처음 두 자리는 주요 그룹을 나타냄.

3 디자인 역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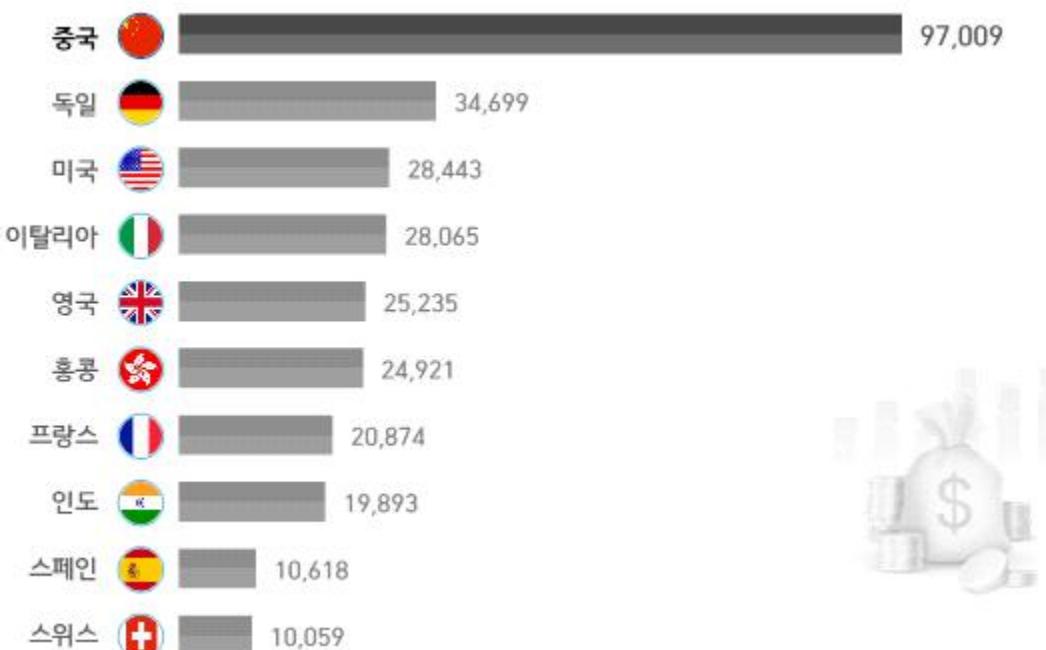
1) 디자인관련 수출

국가	2011년 전체 디자인관련 연간수출 (단위: \$ 백만)	절대 순위	2011년 인구 (단위: 백만 명)	전체 디자인관련 수출 (백만 명 당/단위: \$ 백만)	상대 순위
홍콩	24,921	6	7	3,560	1
스위스	10,059	10	7.9	1,273	2
이탈리아	28,065	3	60.7	462	3
독일	34,699	2	82.8	419	4
영국	25,235	5	62.6	403	5
프랑스	20,874	7	65.7	318	6
스페인	10,618	9	46.5	228	7
미국	28,443	4	318.7	83	8
중국	97,009	1	1,368.40	71	9
인도	19,893	8	1,211.10	16	10

- 출처: UN Commodity Trade Statistics database 2009~2013 (United Nations, 2015)
 [재인용] The Design Economy: The Value of design to the UK (Design Council,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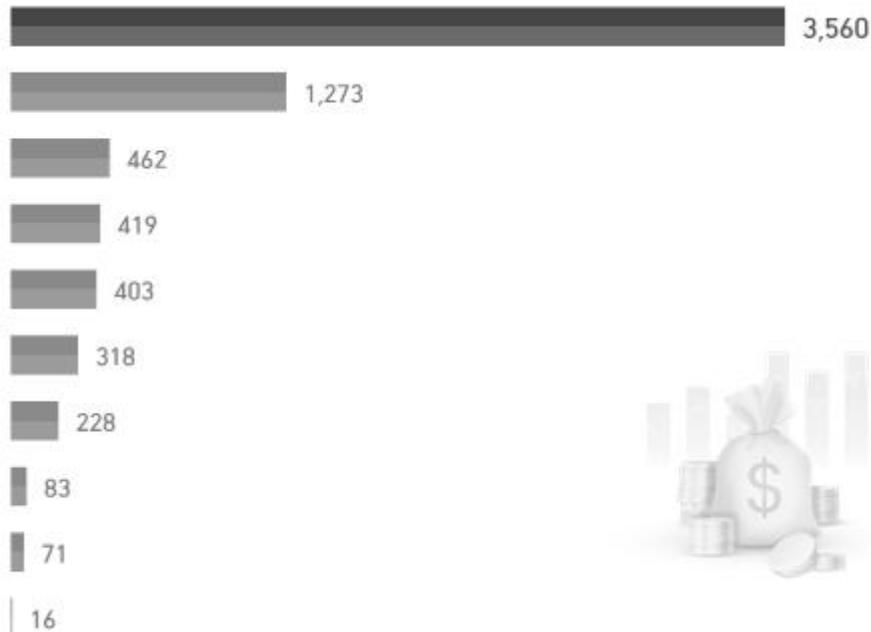
2011년 전체 디자인관련 수출

(단위: \$ 백만)



2011년 인구 백만 명 당 전체 디자인관련 수출

(단위: \$ 백만)

2) 디자인 집약산업¹⁾의 재화²⁾ 수출액

(단위: \$ 백만)

국가	수출
유럽연합+비 유럽연합 총합	102,090
유럽연합	47,970
프랑스	7,380
독일	9,840
아일랜드 공화국	4,920
비 유럽연합	54,120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9,840
오스트레일리아	1,230
중국	1,230
홍콩	1,230
인도	1,230
일본	1,230
동유럽	2,460
러시아	1,230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지역	1,230
브라질	-
중동 및 북아프리카(MENA)	4,920
북아메리카	11,070
미국	9,840
사하라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2,460
나이지리아	-
남아프리카	1,230
EC(유럽공동체)를 제외한 서유럽	3,6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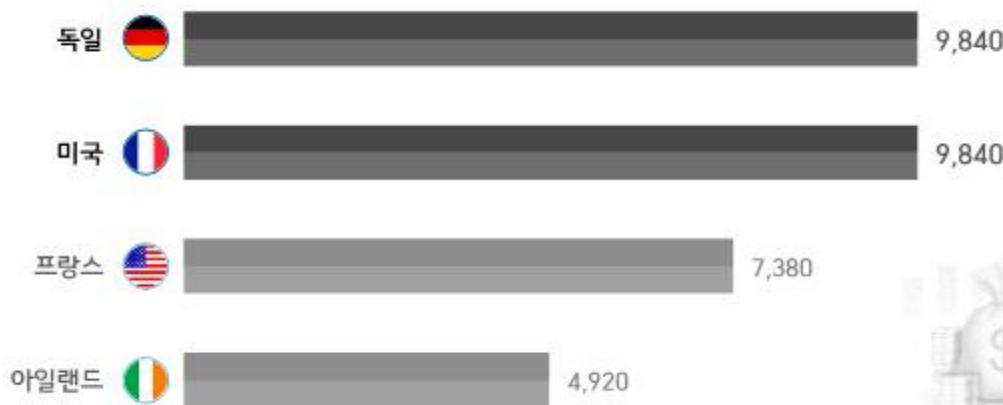
1) 디자인 집약산업(design-intensive industries) : 'UK design as a global industry: International trade and intellectual property' 보고서에서 '디자인 집약산업'을 디자인 서비스(전문디자인 및 기술 활동), 건축 및 공학 서비스, 컴퓨터 및 통신 서비스, 인쇄 및 출판, 패션 및 공예, 고급 제조(우주 항공, 자동차 제조 및 전자장비 등 첨단 제조분야)의 6개 하위 산업들로 설명(p.32)

2) 재화 : 사용 또는 소비 등을 통해 사람(소비자)들의 효용을 증가시킬 수 있는 형태를 가진 모든 것(위키백과)

- 출처 : UK design as a global industry: International trade and intellectual property (THE BIG INNOVATION CENTRE, 2012)

2011년 디자인 집약산업의 재화 수출액

(단위: \$ 백만)



3) 디자인 생산가치

(단위: \$ 백만)

국가	2010	2011	2012	2013
유럽				
벨기에	15,475.11	17,734.32	19,332.06	19,858.49
불가리아	277.89	330.93	323.75	424.32
체코	15.29	17.06	20.28	23.30
덴마크	-	-	-	-
독일	439.61	555.26	669.45	616.51
에스토니아	2,007.30	2,297.36	2,623.30	2,952.46
아일랜드	12.27	16.54	22.36	26.00
그리스	154.34	130.52	127.30	-
스페인	96.82	64.48	57.41	54.08
프랑스	584.48	752.75	751.09	773.97
크로아티아	1,561.98	1,797.02	2,227.99	2,049.01
이탈리아	37.02	38.69	31.72	34.01
키프로스	3,851.33	3,991.94	3,844.57	4,050.59
라트비아	14.87	15.50	10.82	7.90
리투아니아	15.60	15.08	21.53	32.55
룩셈부르크	9.46	9.78	9.67	14.25
헝가리	14.98	20.07	20.07	28.08
몰타	21.22	22.98	26.10	31.20
네덜란드	4.37	-	-	-
오스트리아	-	-	-	-
폴란드	113.57	129.38	136.03	139.15
포르투갈	154.13	290.68	293.07	442.94
루마니아	144.04	140.09	135.62	142.79
슬로베니아	44.41	57.10	50.65	81.95
슬로바키아	30.47	32.86	34.53	35.67
핀란드	30.16	20.18	47.32	19.24
스웨덴	131.98	177.42	188.45	186.89
영국	1,065.79	1,114.67	1,276.81	1,346.38
노르웨이	4,257.03	5,232.86	5,864.77	5,789.58
스위스	384.70	462.18	516.46	555.05
마케도니아	-	0.52	0.52	0.62
터키	-	-	-	-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	0.42	0.42	-

- 출처 : 유럽 디자인전문서비스 통계자료(KIDP, 2016), Annual detailed enterprise statistics for services(Eurostat, 2016.04.)

* 생산가치(Production Value) : 생산 된 특정 상품의 생산량에 대한 물질적 또는 금전적 가치(Oxford dictionary)

4 디자인 인증

1) WIPO 산업디자인 등록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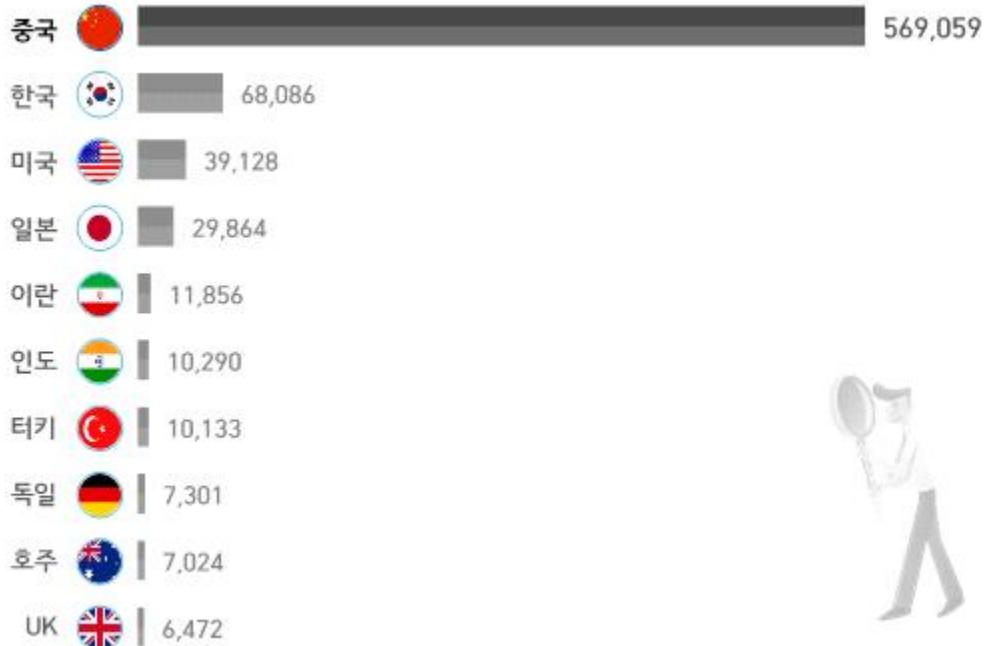
순위 (2015 기준)	국가	국가코드	연도별 등록건수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	중국	CN	421,273	521,468	657,582	659,563	564,555	569,059
2	한국	KR	57,187	56,524	63,135	66,940	64,574	68,086
3	미국	US	29,059	30,467	32,799	36,034	35,378	39,128
4	일본	JP	31,756	30,805	32,391	31,125	29,738	29,864
5	이란	IR	3,856	4,292	3,759	4,825	8,864	11,856
6	인도	IN	7,038	8,216	8,545	8,497	9,309	10,290
7	터키	TR	7,920	9,007	9,526	10,083	10,251	10,133
8	독일	DE	6,391	6,290	6,414	6,543	7,392	7,301
9	호주	AU	5,863	5,966	6,549	6,912	6,597	7,024
10	UK	GB	3,604	4,511	4,916	5,209	5,084	6,472
11	브라질	BR	6,050	6,835	6,563	6,847	6,590	6,039
12	캐나다	CA	5,142	5,227	5,362	5,346	5,767	5,846
13	프랑스	FR	4,891	4,612	4,339	4,123	4,782	5,022
14	러시아	RU	3,997	4,197	4,640	4,994	5,184	4,929
15	태국	TH	3,614	3,749	3,481	3,802	4,077	4,461
16	멕시코	MX	3,540	4,149	4,137	4,011	4,080	3,999
17	인도네시아	ID	4,066	4,196	4,612	4,259	3,731	3,972
18	스위스	CH	2,615	2,655	2,856	2,948	2,725	2,794
19	홍콩	HK	2,525	2,353	2,552	2,336	2,453	2,769
20	우크라이나	UA	2,196	2,291	2,428	4,472	3,254	2,702
21	V베트남	VN	1,717	1,833	1,812	2,095	2,311	2,445
22	싱가포르	SG	1,926	2,131	2,160	2,393	2,305	2,348
23	스페인	ES	1,826	1,840	1,677	1,890	1,842	1,987
24	이탈리아	IT	1,447	1,515	1,441	1,733	1,434	1,977
25	남아프리카공화국	ZA	1,747	2,044	2,361	2,237	1,973	1,960
26	이집트	EG	3,747	2,071	1,865	1,982	2,147	1,958
27	말레이시아	MY	1,677	1,871	2,082	2,053	1,882	1,762
28	아르헨티나	AR	1,676	1,444	1,574	1,465	1,384	1,581
29	이스라엘	IL	1,617	1,511	1,549	1,349	1,380	1,538
30	방글라데시	BD	896	1,297	1,198	1,232	1,379	1,376
31	모로코	MA	1,415	1,345	1,209	1,142	1,168	1,341
32	뉴질랜드	NZ	1,298	1,242	1,402	1,186	1,285	1,329
33	노르웨이	NO	855	1,054	1,192	1,283	1,216	1,246
34	필리핀	PH	847	1,112	1,225	1,376	1,348	1,103
35	폴란드	PL	1,755	1,579	1,377	1,358	1,188	1,071
36	사우디아라비아	SA	-	752	-	692	677	824
37	아랍에미리트	AE	-	499	459	540	804	813
38	콜롬비아	CO	400	384	490	766	577	718
39	베네룩스	BX	511	481	92	75	72	650
40	오스트리아	AT	968	738	1,051	841	881	576
41	튀니지	TN	20	200	315	544	485	549
42	스웨덴	SE	585	468	572	502	437	536
43	파키스탄	PK	549	905	494	457	558	489
44	스리랑카	LK	284	443	394	359	-	457
45	모나코	MC	379	371	384	444	391	439
46	마케도니아	MK	371	393	421	440	324	406
47	칠레	CL	493	529	538	762	465	402
48	포르투갈	PT	402	408	430	400	451	395
49	몰도바	MD	288	291	324	399	300	385
50	조지아	GE	243	246	278	327	286	371

- 출처 : WIPO statistics database, <http://ipstats.wipo.int/ipstatv2/index.htm?tab=industrial>

(WIPO IP Statistics Data Center, November 2016)

WIPO 산업디자인등록 Top 10(2015 기준)

(단위: 건)



2) WIPO 상표등록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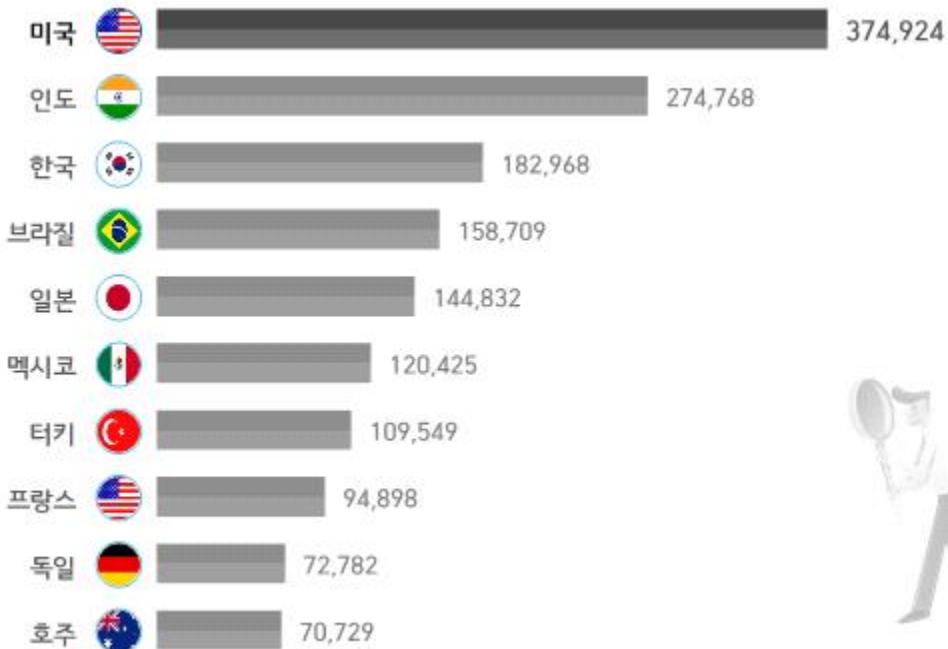
순위 (2015 기준)	국가	국가코드	연도별 등록건수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	미국	US	281,461	305,209	313,322	323,338	342,570	374,924
2	인도	IN	189,925	198,547	190,851	202,818	223,751	274,768
3	한국	KR	128,671	132,506	141,836	157,139	160,306	182,968
4	브라질	BR	127,692	152,699	151,711	163,422	157,016	158,709
5	일본	JP	113,174	107,017	119,263	116,139	124,615	144,832
6	멕시코	MX	94,457	100,281	105,828	104,362	109,930	120,425
7	터키	TR	84,609	116,631	110,602	107,215	111,228	109,549
8	프랑스	FR	93,140	93,041	89,869	89,413	90,956	94,898
9	독일	DE	74,229	68,741	64,592	64,495	70,878	72,782
10	호주	AU	58,913	60,613	62,757	61,729	64,648	70,729
11	아르헨티나	AR	88,428	77,494	60,170	55,295	58,486	66,278
12	이란	IR	29,518	31,165	28,856	38,967	55,400	62,927
13	러시아	RU	56,071	58,334	62,203	63,016	60,541	58,567
14	UK	GB	36,255	39,113	42,912	50,004	54,792	57,869
15	스페인	ES	46,874	47,337	47,050	49,691	52,762	53,103
16	캐나다	CA	45,220	48,472	50,110	49,819	51,028	52,461
17	태국	TH	37,656	38,950	44,963	46,097	45,661	52,344
18	인도네시아	ID	47,794	53,196	62,455	60,983	46,452	47,544
19	베트남	VN	31,813	32,001	33,762	35,628	38,315	42,542
20	이탈리아	IT	41,833	42,360	39,568	40,621	40,194	39,753
21	홍콩	HK	28,872	32,542	35,530	37,092	40,063	39,179
22	남아프리카공화국	ZA	30,549	33,484	34,604	36,070	35,418	36,973
23	말레이시아	MY	26,370	28,833	31,876	32,225	34,571	35,923
24	칠레	CL	45,104	35,733	33,831	33,564	31,869	31,857
25	우크라이나	UA	28,309	29,353	31,257	33,357	26,379	30,982
26	스위스	CH	27,853	28,283	28,506	28,868	29,023	29,970
27	파키스탄	PK	-	18,478	19,665	20,822	25,267	28,056
28	콜롬비아	CO	25,990	29,084	32,030	25,924	25,687	27,976
29	페루	PE	23,120	24,711	25,295	25,258	25,258	26,354
30	필리핀	PH	16,838	18,611	20,816	23,041	26,016	26,320
31	베네룩스	BX	25,671	25,758	24,459	23,753	23,126	24,608
32	싱가포르	SG	16,928	18,202	19,263	20,032	21,291	21,362
33	중국	CN	1,056,563	1,386,776	1,618,428	1,847,936	2,104,404	21,087
34	뉴질랜드	NZ	17,124	17,748	18,196	18,906	20,296	20,715
35	이집트	EG	21,860	17,710	18,047	17,429	19,259	20,128
36	포르투갈	PT	19,452	18,349	16,661	16,981	19,666	18,502
37	폴란드	PL	17,986	17,933	16,842	17,095	16,420	15,452
38	노르웨이	NO	13,385	14,085	14,059	14,644	14,933	15,023
39	코스타리카	CR	11,265	14,124	11,963	-	12,361	13,600
40	마카오	MO	6,754	8,590	9,581	10,084	12,287	13,140
41	쿠웨이트	KW	-	-	-	-	-	13,051
42	엘살바도르	SV	-	-	7,496	7,524	7,036	11,449
43	시리아	SY	1,958	1,829	1,598	1,226	1,238	11,386
44	모로코	MA	10,536	10,461	10,740	10,871	11,240	11,126
45	스웨덴	SE	12,419	11,802	11,127	10,360	9,858	10,131
46	도미니카공화국	DO	6,453	-	-	9,413	9,738	10,049
47	루마니아	RO	11,811	11,229	10,335	11,468	10,488	10,034
48	체코	CZ	10,893	11,034	11,033	10,895	10,122	9,971
49	스리랑카	LK	6,244	7,657	9,116	8,825	-	9,415
50	방글라데시	BD	10,231	11,645	11,429	11,581	11,541	9,322

- 출처 : WIPO statistics database, <http://ipstats.wipo.int/ipstatv2/index.htm?tab=trademark>

(WIPO IP Statistics Data Center, November 2016)

WIPO 상표등록 Top 10(2015 기준)

(단위: 건)



3) ICT(정보통신기술) 및 시청각*관련 디자인 등록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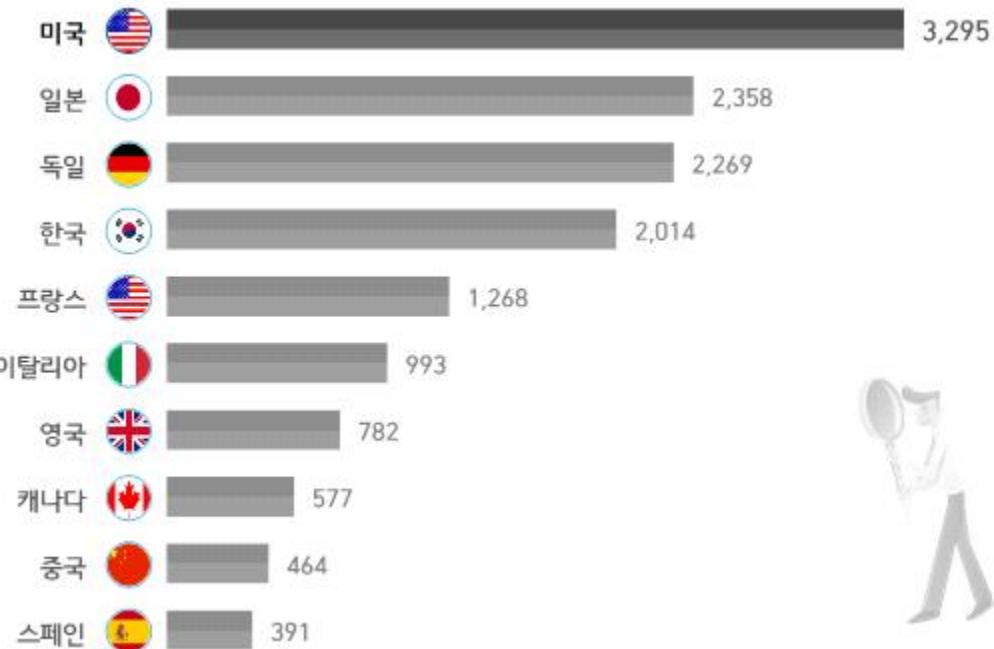
순위	국가	연도별 등록건수 (2010-2012)	순위	국가	연도별 등록건수 (2010-2012)
1	미국	3,295	11	스웨덴	380
2	일본	2,358	12	오스트리아	284
3	독일	2,269	13	핀란드	282
4	한국	2,014	14	네덜란드	259
5	프랑스	1,268	15	덴마크	187
6	이탈리아	993	16	폴란드	145
7	영국	782	17	벨기에	131
8	캐나다	577	18	스위스	129
9	중국	464	19	룩셈부르크	72
10	스페인	391	20	오스트레일리아	68

* 시청각(audio-visual) : 시각과 청각을 위주로 하는 오디오나 비디오의 신호 정보, 또는 음향 기기나 영상 기기 등 전달 매체. 오디오나 비디오, 홈시어터(Home Theater) 시스템처럼 일정 수준 이상의 가전 음향기기를 통칭하는 의미로도 사용(IT 용어사전)

- 출처 : ICT and audiovisual-related designs, 2010-12: Registered Community designs, top 20 applicants, in 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Scoreboard 2013, OECD Publishing. doi: 10.1787/sti_scoreboard-2013-graph185-en. (OECD, 2013)

연도별 등록건수(2010-2012) Top 10

(단위: 건)



5 디자인 활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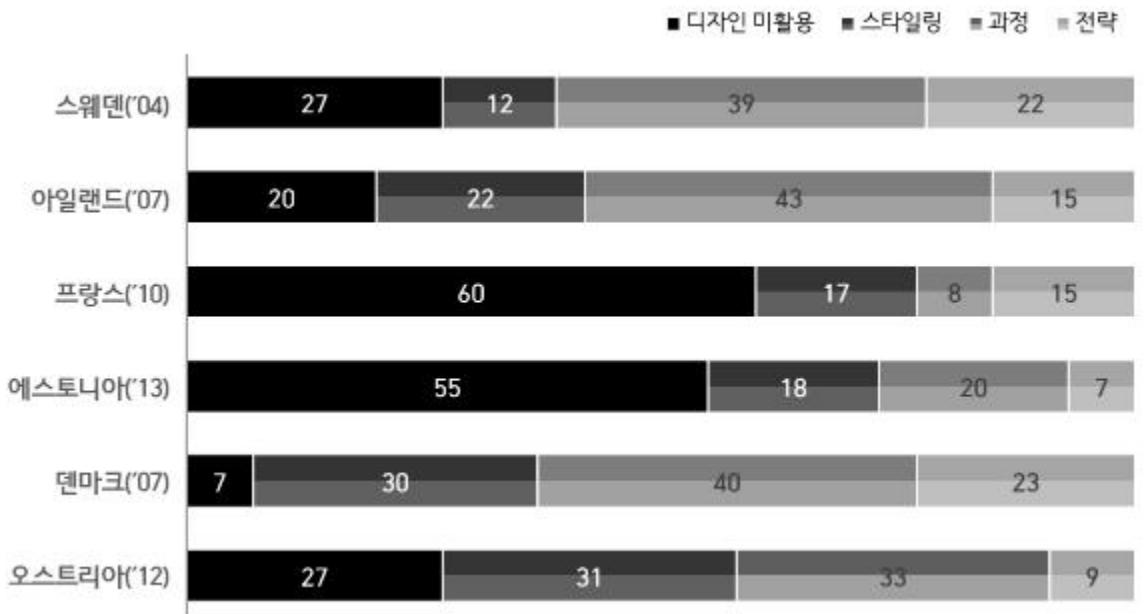
1) 디자인 성숙도

(단위: %)

국가	기준연도	디자인 성숙도 비율 (디자인 활용 사다리 기준, 덴마크 디자인센터)				
		단계 1 : 디자인 미활용	활용			소계
			단계 2 : 스타일링	단계 3 : 과정	단계 4 : 전략	
오스트리아	2012	27	31	33	9	73
덴마크	2007	7	30	40	23	93
에스토니아	2013	55	18	20	7	45
프랑스	2010	60	17	8	15	40
아일랜드	2007	20	22	43	15	80
스웨덴	2004	27	12	39	22	73

- 출처 : Design Policy Monitor 2015, p.11(SEE Platform, 2015.01.15)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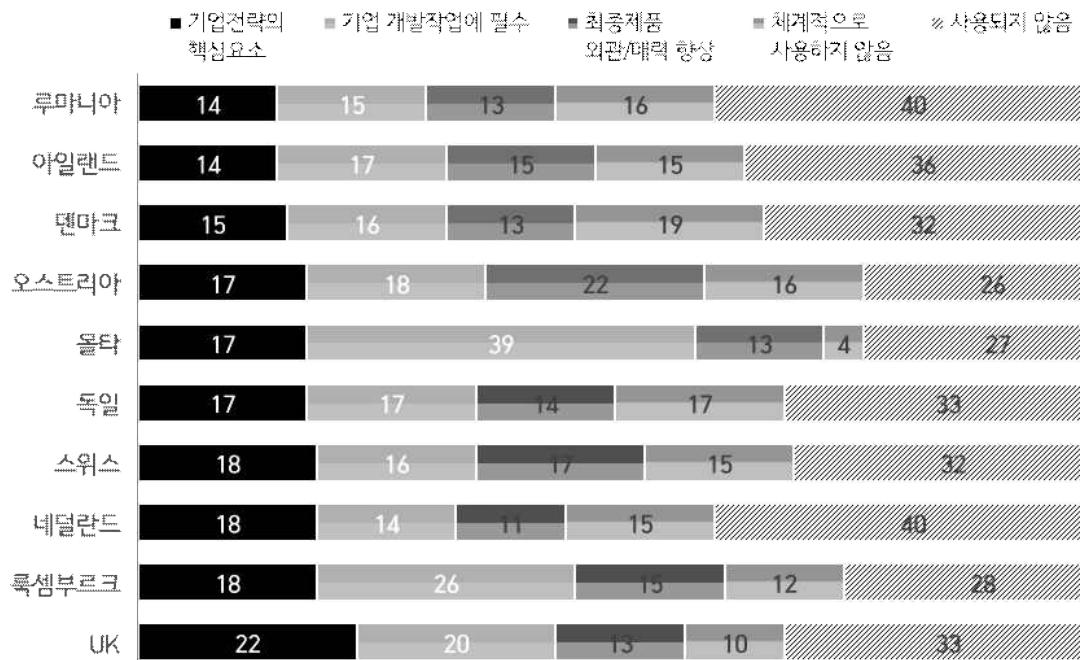
2) 디자인 활용수준

(단위: %)

국가	디자인은 기업전략의 핵심요소	디자인은 기업의 개발 작업의 핵심요소는 아니지만 필수적	디자인은 최종 마무리로 사용되어 최종제품의 외관 및 매력을 향상시킴	디자인을 체계적으로 사용하지 않음	디자인이 사용되지 않음
UK	22	20	13	10	33
룩셈부르크	18	26	15	12	28
네덜란드	18	14	11	15	40
스위스	18	16	17	15	32
독일	17	17	14	17	33
몰타	17	39	13	4	27
오스트리아	17	18	22	16	26
덴마크	15	16	13	19	32
아일랜드	14	17	15	15	36
루마니아	14	15	13	16	40

- 출처 : The Design Economy: The Value of design to the UK, p.38 (Design Council, 2015)

(단위: %)



3) 디자인 활용수단

(단위: %)

국가	혁신활동에 투자하는 기업* ¹⁾ (2008-2010)	디자인 활동을 하는 기업**	사내 디자인팀을 보유한 기업	디자인 전략을 활용하는 기업***
덴마크	51.9	93 ²⁾	16 ³⁾	23 ²⁾
에스토니아	56.4	45 ⁴⁾	7 ⁵⁾	7 ⁶⁾
핀란드	52.2	57 ⁷⁾	23 ⁸⁾	17 ⁹⁾
영국	45.6	66 ¹⁰⁾	-	-
EU-27	51.6	-	-	-

* 혁신활동에 투자하는 기업: 조직 또는 마케팅 혁신에 관계없이, 제품 및 프로세스 혁신을 구현하는 기업

** 디자인 활동을 하는 기업: 디자인분야에 지출을 소비하고 있는 기업

*** 디자인 전략을 활용하는 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에서 디자인을 전략 및 비전개발로 활용하는 기업

- 출처 : Design Policy Monitor 2012, p.23 (SEE platform, 2012)

1) Eurostat (2012)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in Europe 2012', European Commission, p.74
http://epp.eurostat.ec.europa.eu/cache/ITY_OFFPUB/KS-GN-12-001/EN/KS-GN-12-001-EN.PDF2) Danish Business Authority (2008) 'Design Creates Value', p.9.
http://www.erhvervsstyrelsen.dk/publikationer/design_skaber_vaerdi/pdf/design_skaber_vaerdi.pdf

3) Danish Business Authority (2008) 'Design Creates Value', p.10.

4) Estonian Design Centre (2013) 'Use of design within Estonian enterprises', Tallinn, Estonia, p.5.

5) Ministry of Economy and Communication (2012) 'National Action Plan for Design 2012-2013 as part of Estonian Enterprise Policy 2007-2013', Tallinn, Estonia, p.12.

6) Estonian Design Centre (2013) 'Use of design within Estonian enterprises', Tallinn, Estonia, p.7.

7) Holopainen, M. and Järvinen, J. (2006) 'Muotoilun Toimialakartoitus 2006' (Design Industry Survey 2006), TEKES and Aalto University, Designium, p7. http://www.taik.fi/images/stories/Palvelut_Designium/TOIMIALAKARTOITUS_06_fix.pdf

8) Holopainen, M. and Järvinen, J. (2006) 'Muotoilun Toimialakartoitus 2006' (Design Industry Survey 2006), TEKES and Aalto University, Designium, p.10.

9) Hietamäki, T., Hytönen, J., and Lammi, M. (2005) 'Modelling the Strategic Impacts of Design in Businesses', Aalto University, Designium, p.33.

10) Moultrie, J., and Livesey, F. (2009) 'Company Spending on Design: Exploratory Survey of UK Firms 2008', University of Cambridge, p.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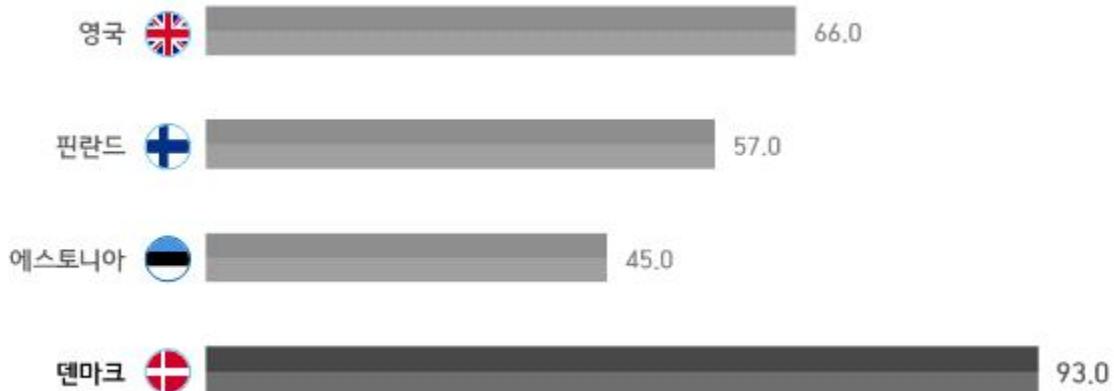
혁신활동을 하는 기업

(단위: %)



디자인활동을 하는 기업

(단위: %)



6 디자인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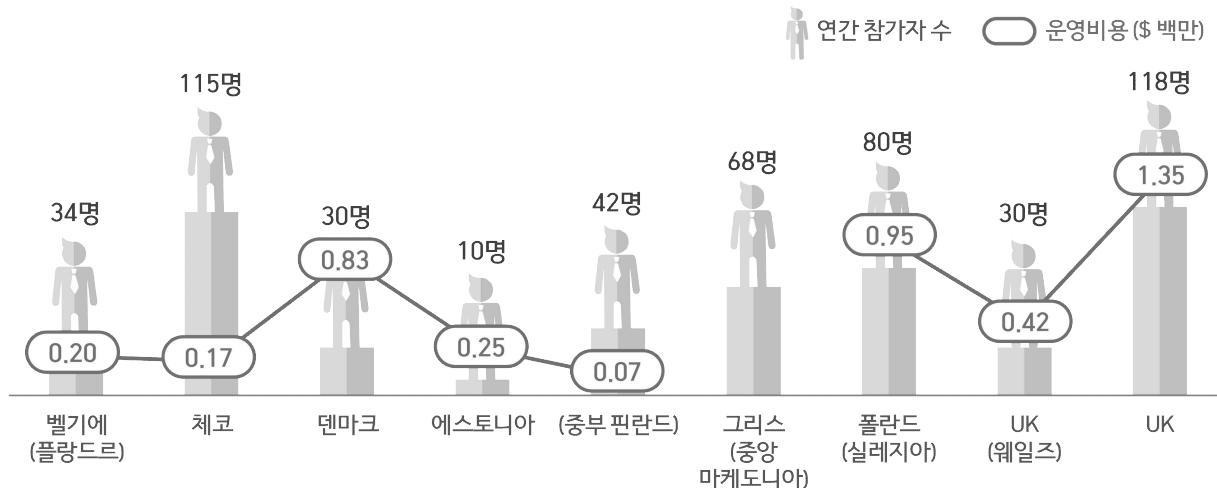
1) 디자인 지원·홍보 프로그램

(1-1) 디자인 지원프로그램 운영비용 및 연간 참가자 수

(기준연도: 2012)

국가 (지역)	프로그램명	운영기간	운영비용(\$백만)	연간 참가자 수(명)
벨기에 (플랑드르)	중소기업 월렛 및 서비스 디자인 해결책	2009-	0.20	34
체코	수출을 위한 디자인	2008-2012	0.17	115
덴마크	디자인 부스트 및 디자인 360°	2010-2012	0.83	30
에스토니아	디자인 블도저	2012-2014	0.25	10
(중부 핀란드)	서비스 디자인 툴킷	2010-2012	0.07	42
그리스 (중앙 마케도니아)	기업의 외향적 경쟁력	2011-	-	68
폴란드 (실레지아)	디자인 실레지아	2010-	0.95	80
UK (웨일즈)	서비스 디자인 프로그램	2010-2013	0.42	30
UK	디자인 리더쉽	2002-	1.35	118

- 출처: Design Policy Monitor 2012, p.28 (SEE platform, 2012)



(1-2) 디자인 홍보프로그램 운영비용

(기준연도: 2012/단위: \$백만)

국가 (지역)	디자인 홍보 프로그램* 운영비용	디자인 지원 프로그램** 운영비용
벨기에 (플랑드르)	0.12	0.2
체코	-	0.17
덴마크	1.46	0.83
에스토니아	0.14	0.25
핀란드	18.51	0.07
(중부 핀란드)	0.1	-
폴란드 (실레지아)	0.11	0.95
UK (웨일즈)	0.04	0.42
UK	0.12	1.35

* 디자인 홍보프로그램 : 디자인 홍보활동은 유럽전역에서 디자인 지원프로그램보다 널리 퍼져 있음. 그러나 거의 모든 EU국가에서 디자인 홍보활동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전역의 디자인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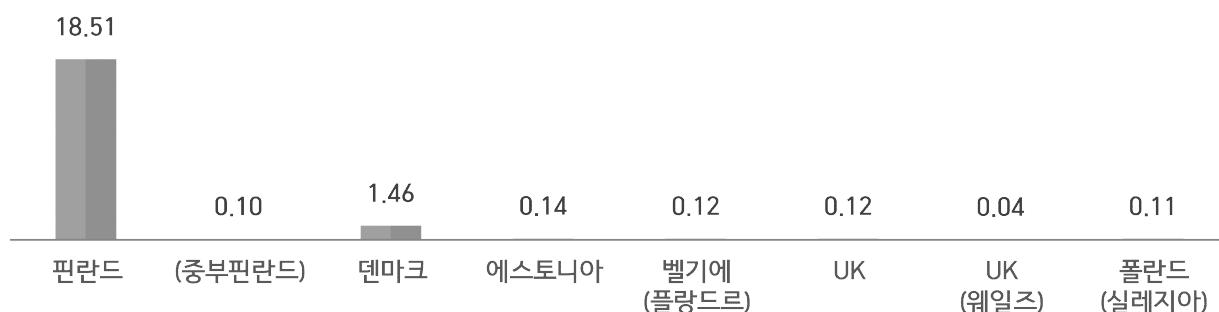
(프로그램 예시: 디자인 어워드, 디자인 주간, 디자인 전시회, 디자인 컨퍼런스 및 인식 캠페인 등)

** 디자인 지원프로그램 : 디자인 지원 프로그램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 기존의 제품 디자인 지원이 여전히 우위를 보이고 있지만 디자인 중재기구는 민간 및 공공부문에 서비스 디자인 지원을 제공하고 기업이 디자인에 투자 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또는 보조금을 제공함

- 출처 : Design Policy Monitor 2012, p.30 (SEE platform,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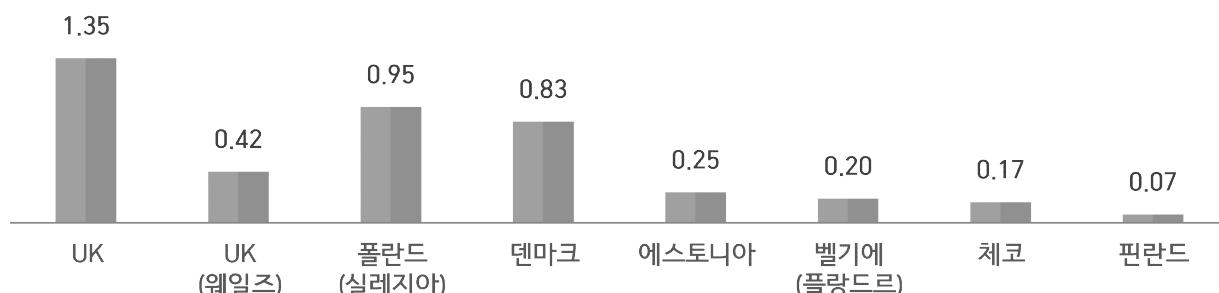
디자인 홍보 프로그램 운영비용

(기준연도: 2012/단위: \$백만)



디자인 지원 프로그램 운영비용

(기준연도: 2012/단위: \$백만)



7 디자인 교육

1) TOP 50 디자인스쿨

순위	대학	국가
1	Royal College of Art	UK
2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MIT)	미국
3	Rhode Island School of Design (RISD)	미국
4	Parsons School of Design at The New School	미국
5	University of the Arts London	UK
6	Pratt Institute	미국
7	School of the Art Institute of Chicago (SAIC)	미국
= 8	Stanford University	미국
= 8	Yale University	미국
10	itecnico di Milano	이탈리아
11	Goldsmiths, University of London	UK
12	California Institute of the Arts	미국
= 13	Carnegie Mellon University	미국
= 13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UCLA)	미국
15	University of Oxford	UK
16	RMIT University	호주
17	Aalto University	핀란드
18	Design Academy Eindhoven	네덜란드
19	Art Center College of Design	미국
20	The Glasgow School of Art	영국
21	HK PolyU School of Design	홍콩
22	New York University (NYU)	미국
23	Tsinghua University	중국
24	Columbia University	미국
25	School of Visual Arts (SVA)	미국
26	Universidad Nacional Autónoma de México (UNAM)	멕시코
27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NUS)	싱가폴
28	California College of the Arts	미국
29	The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UNSW Australia)	호주
30	Peking University	중국
31	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	호주
32	Swinburne University of Technology	호주
33	UCL (University College London)	영국
= 34	Princeton University	미국
= 34	Tongji University	중국
36	Pontificia Universidad Católica de Chile (UC)	칠레
37	The University of Melbourne	호주
38	Loughborough University	UK
39	Universidad de Buenos Aires (UBA)	아르헨티나
40	Seoul National University	한국
= 41	Konstfack University College of Arts, Crafts and Design	스웨덴
= 41	Umeå University	스웨덴
43	National Taiwan University (NTU)	태국
= 44	Ravensbourne	영국
= 44	The University of Sydney	호주
= 46	Shanghai Jiao Tong University	중국
= 46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미국
48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Singapore (NTU)	싱가폴
= 49	Instituto Tecnológico y de Estudios Superiores de Monterrey	멕시코
= 49	University of Chicago	미국

- 출처 : QS World University Rankings by Subject 2016
<http://www.topuniversities.com/university-rankings/university-subject-rankings/2016/art-design#sorting=rank+region=+country+=+faculty+=+stars=false+search=+>

주요국 산업 동향

01 | 미국

02 | UK

03 | 일본

1 미국

■ 전문디자인

- » 미국의 전문디자인 매출액 규모는 2015년 기준, 3백 25억 7천만 달러 규모로, 기업 당 평균 약 백만 달러의 수익을 올리고 있음.
 - 전체 고용인 수는 2010년 97,434명에서 2015년 114,690명으로 약 18% 증가해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기업 당 평균 고용인은 2013년 이후 4명 수준임.
- » Anything Research에 따르면, 전문디자인 시장은 2016년 3.7%의 성장세를 보이겠으나 이후 1%대의 성장을 지속한 후 2020년 경에는 마이너스 성장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 전문디자인 시장 매출액은, 2015년 기준으로 인테리어디자인이 전체 매출액의 약 37%, 그래픽 디자인이 약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산업디자인 약 8%, 의류디자인 약 3%, 인쇄, 기타 순으로 나타남.
- » 각 주별 전문디자인 시장 규모는, 캘리포니아, 뉴욕, 미시간, 텍사스, 오하이오 등의 순으로 주로 캘리포니아와 미 동부 지역에 전문디자인 시장이 집중되어 있음(2015년 기준).

■ 그래픽디자인

1) 그래픽디자인 산업규모

- » 그래픽디자인 매출액 규모는 2016년 기준 약 11.4 십억 달러 수준이며, 해당 산업의 주요 마켓은 기업 및 조직이 58.3%, 광고가 24.9%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고용인 1인당 매출액은 2014년 -3.3% 성장률을 기록한 이래 2016년에도 -0.9%의 감소세를 기록함.
- » 그래픽디자인의 제품 및 서비스는 광고 및 기업브랜딩이 절반가량을 차지하며, 인쇄매체 디자인이 약 18%, 웹디자인이 13.4%로 나타남(2016년 기준).
- » 그래픽디자인 기업 수는 2011년 122,194개에서 2016년에는 138,035개로 약 13% 증가함.
 - 사업체 수도 유사한 성장 추세임.
- » 그래픽디자인 사업체는 2016년 기준, 캘리포니아 15.4%, 뉴욕 10.6%에 가장 많이 분포해 있고, 일리노이 6.3%, 텍사스 4.6%의 순으로 집중되어 있음.
- » 그래픽디자인 산업의 평균 임금은 2011년 이래 약 2만 5천 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 그래픽디자인 산업비용의 비율은, 임금이 타 부문의 평균(43.6%)보다 낮은 편(37.9%)이며, 수익 또한 부문 평균(10.6%)보다 다소 낮은 편임(7.4%).

2) 그래픽디자인 인력

- » 그래픽디자인의 고용(영업 담당자, 관리자 등 포함)은 해마다 소폭 증가하여 2016년에는 1% 증가한 172,494명으로 나타남.
 - 사업체 당 평균 1.25명 고용(2016년 기준)

3) 그래픽디자인 역량

- » 그래픽디자인 산업의 부가가치는 2016년 기준 약 53억 7천만 달러에 이르며, 매출 대비 약 47%에 달함.
 - 산업 부가가치는 2014년 약 8% 성장 후 성장 폭이 둔화되었으나 상승세임.
 - 경제 비중은 0.03% 수준임.

■ 제품디자인

1) 제품디자인 산업규모

- » 제품디자인 매출액 규모는 2015년 기준 약 20억 달러로, 해당 산업의 주요 마켓은 전자 제품이 32.5%, 자동차가 22.6%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고용인 1인당 매출액은 2014년 -0.8%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이래 2015년에도 -1.1%성장
- » 제품디자인의 제품 및 서비스는 제품디자인이 전체의 약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모델 설계 및 제작이 약 17%를 차지하고 있음(2015년 기준).
- » 제품디자인 기업 수는 2012년 1,550개에서 2015년 1,633개로 약 5.4% 증가함.
 - 사업체 수도 유사한 성장 추세임.
- » 제품디자인 사업체는 2015년 기준, 캘리포니아 19.1%, 뉴욕 10.6%에 가장 많이 분포해 있고, 일리노이 5.8%, 미시간 5.1%의 순으로 그래픽디자인 사업체 분포와 유사함.
- » 제품디자인 산업의 평균 임금은 2015년 기준 약 88,700달러 수준임.
- » 제품디자인 산업비용의 비율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임금이 타 부문의 평균(44.1%)보다 높은 편(57.2%)이고 수익은 7.6%를 차지하고 있음.

2) 제품디자인 인력

- » 제품디자인의 고용(영업 담당자, 관리자 등 포함)은 2013년 7.2%로 크게 증가한 이후 꾸준히 소폭 증가하여 2015년에도 0.9% 증가한 13,395명을 기록함.
 - 사업체 당 평균 약 8명 고용(2015년 기준)

3) 제품디자인 역량

- » 제품디자인 산업의 부가가치는 2015년 기준으로 약 14억 달러에 이르며, 매출 대비 약 66%에 달함.
 - 산업 부가가치는 2010년에 비해 27% 성장함.
 - 경제 비중은 0.01% 수준임.

■ 인테리어디자인

1) 인테리어디자인 산업규모

- » 인테리어디자인 매출액 규모는 2016년 기준 약 136억 달러 수준으로, 이 산업의 매출액은 서브 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 주택담보대출) 과잉투자로 인한 리먼 브러더스 파산으로 부동산 시장이 몰락한 2008-2009년 하락을 거듭했으나 2010년 이래 꾸준히 성장추세에 있음.
 - 주요 시장은 주거가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고 접객/상업, 기관, 기업/사무실 순임.
 - 고용인 1인당 매출액은 2015년부터 마이너스 성장세(-3.9%)로 돌아선 이후 2016년에도 소폭 감소해 (-0.7%) 약 일만 달러 규모임.
- » 인테리어디자인의 제품 및 서비스는 시장 비율에도 알 수 있듯이, 주거용 인테리어디자인서비스가 46.8%, 그다음으로 상업용 인테리어디자인서비스가 22.8%를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는 인테리어디자인 관련 상품 판매, 인테리어 장식서비스의 순임(2016년 기준).
- » 인테리어디자인 기업 수는 2016년 104,301개로 2011년 대비 약 17% 성장함.
 - 사업체 수도 2016년 104,590개로 동일 기간 내 약 17% 증가함.
- » 인테리어디자인 사업체는 2016년 기준, 캘리포니아 14.8%, 플로리다 12.5%, 뉴욕 11%의 순으로, 디자인 관련 산업들이 캘리포니아, 뉴욕에 밀집해 있는 것을 감안하면 플로리다의 인테리어디자인 시장이 큰 것으로 나타남.
- » 인테리어디자인 산업의 평균 임금은 2016년 기준 약 2만 3천 500달러로, 산업디자인 평균임금(약 88,700달러)의 1/4수준임.
 - 산업 매출액은 인테리어디자인 산업이 약 136억 달러로, 약 20억 달러 규모인 산업디자인의 6배가 넘는 규모임.

- » 인테리어디자인 산업비용의 비율은 2016년 기준, 평균적으로 가장 높은 비율이 임금(부문 평균 43.6%)인 반면에 해당 산업은 구매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39.1%) 임금 비율이 3번째를 차지함(22.7%).

2) 인테리어디자인 인력

- » 인테리어디자인의 고용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감소세를 기록하다가 2011년 이후 상승세로 돌아서 2016년 기준 약 13만 명으로 나타남.
 - 사업체 당 평균 약 1.26명이 고용됨(2016년 기준).

3) 인테리어디자인 역량

- » 인테리어디자인 산업의 부가가치는 2016년 기준 약 42 달러에 이르며, 매출 대비 약 31% 비율임.
 - 산업 부가가치는 2011년 대비 약 92% 성장함.
 - 경제 비중은 0.03% 수준임.

■ 조경디자인

1) 조경디자인 산업규모

- » 조경디자인 매출액 규모는 2016년 기준 약 51억 달러로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주요 시장은 개인 부동산 소유자 비율이 34.1%, 연방 및 주/지방정부 비율이 31.3%, 건축/엔지니어링 회사 22.2% 순으로 나타남.
 - 고용인 1인당 매출액도 2013년 이래 지속 성장 중이며, 2016년 기준 약 7만 7천 달러로 나타남.
- » 조경디자인의 제품 및 서비스는 주거용 건물 조경 설계 비중이 전체의 1/3을 넘고, 비주거용 건물 조경설계가 18.1%, 레크리에이션 프로젝트용 설계가 14.8%, 도시계획 서비스는 9.3%를 차지함(2016년 기준).
- » 조경디자인 기업 수는 2016년 약 4만 7천개로, 2012년 소폭 감소 한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세 임(2011년 대비 약 11% 성장).
 - 사업체 수도 2016년 약 4만 7천개로 2011년 대비 약 12% 증가함.
- » 조경디자인 사업체는 2016년 기준, 캘리포니아에 16.8%로 가장 밀집해 있으며 플로리다가 9.3%, 뉴욕이 6.9%, 텍사스가 6.5%를 차지함.
- » 조경디자인 산업의 평균 임금은 2016년 기준 약 3만 2천 달러로 2012년부터 증가하고 있고 2011년 대비 약 11% 성장함.

- » 조경디자인 산업비용의 비율은 2016년 기준, 부문 평균(43.6%)보다 임금 비중(41.5%)이 다소 낮고 구매와 마케팅 비중이 각각 19.2%, 24.7%로 부문 평균 13.9%, 21.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2) 조경디자인 인력

- » 조경디자인의 고용은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해 2016년 약 6만 7천명 규모임.
 - 사업체 당 평균 약 1.42명이 고용됨(2016년 기준)

3) 조경디자인 역량

- » 조경디자인 산업의 부가가치는 2016년 기준 약 27억 달러에 이르며, 매출 대비 약 52% 비율임.
 - 산업 부가가치는 2011년 대비 약 25% 성장함.
 - 경제 비중은 0.02% 수준임.

웹디자인

1) 웹디자인 산업규모

- » 웹디자인 매출액 규모는 2015년 기준 약 240억 달러로 2010년과 2011년 큰 폭(각각 11.8%, 10.4%)으로 성장한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 중임.
 - 주요 시장은 다양한 고객들이 33%, 광고에이전시가 27%, 소비재 제조업체가 25%, 도서·신문·잡지 출판사가 15%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고용인 1인당 매출액도 2013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서 2015년 약 11만 달러로 2010년과 유사한 수준.
- » 웹디자인의 제품 및 서비스는 맞춤형 플랫폼 웹 개발이 약 6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기타 콘텐츠 플랫폼 웹 개발(23.4%), 워드프레스 웹 개발(12.1%)로 구성됨(2015년 기준).
- » 웹디자인 기업 수는 2015년 약 15만개로 2010년 대비 약 30% 성장했음.
 - 사업체 수도 2010-2015년까지 약 27% 성장함.
- » 웹디자인 사업체는 2015년 기준, 캘리포니아가 14.9%, 뉴욕이 10.2%, 플로리다 6.9%, 일리노이 6.7% 순으로 집중 분포해 있음.
- » 웹디자인 산업의 평균 임금은 2015년 약 4만 2천 달러 수준이며 약 4만 5천 달러 수준이었던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임.
- » 웹디자인 산업비용의 비율은 2015년 기준, 부문 평균 가장 높은 비율이 구매(30.6%)인 반면, 임금이 3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마케팅 비율도 34.4%로 부문 평균(23.1%)보다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2) 웹디자인 인력

- » 웹디자인의 고용은 2015년 기준 약 22만 명 규모로 2010년 대비 약 29%가 성장했고 지속적인 성장 추세를 보여주고 있음.
 - 사업체 당 평균 약 1.40명이 고용됨(2015년 기준).

3) 웹디자인 역량

- » 웹디자인 산업의 부가가치는 2015년 기준 약 110억 달러에 이르며, 매출 대비 약 45% 비율임.
 - 산업 부가가치는 2011년 대비 약 25% 성장함.
 - 경제 비중은 0.07% 수준임.

2 UK

- UK는 창조경제를 국정방향으로 잡고 창의성을 핵심자원으로 하는 산업들을 분류하여 핵심적으로 육성하여 오고 있는 대표적인 창조경제 국가임. 창의성을 강조하는 디자인 산업은 창조산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디자인 분야 중 제품, 그래픽 및 패션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음.

1) 디자인 산업규모

- » 디자인산업 내 기업들의 매출액은 2009년부터 2013년 간 변화를 살펴보면, 종합디자인 분야의 디자인기업 매출이 31.6%, 디지털 분야의 디자인기업 또한 31.6%로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임.
 -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제품 및 산업 디자인기업은 -55.1%, 의류 디자인기업은 -22.1%의 감소세를 보임.
- » 디자인기업 수는 매출액에서 증가율이 높았던 디지털 디자인기업의 기업수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109.7%로 급격히 늘었고 종합디자인 분야의 기업수가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임(29.7%).
- » 디자인경제(디자인산업, 기타산업의 디자이너, 기타부문의 디자이너에 의한 경제활동) 전반에 있어 비 디자인산업의 디자인 직업 수가 1,014,300개로 디자인산업의 디자인 직업의 수(299,600)의 3배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2014년 기준), 디지털 디자인 분야가 2009년부터 2013년 사이 38.9%, 종합 디자인 분야가 33.4%의 고용 성장을 보이고 있음.
 - 매출, 기업 수 및 고용 증가에서 공통적으로 디지털 디자인 분야 및 분야 간 융합을 바탕으로 하는 디자인 비중이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2) 디자인 인력

- » 디자인경제의 고용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기준으로 자영업자보다 고용인 비중이(84.5%) 평균 영국경제의 고용인 비중(72.4%)보다 다소 높음.
 - 자영업 비중이 높은 분야는 제품 및 산업 디자인, 디지털 디자인, 광고 디자인 분야가 각각 91%, 86.2%, 84.1%를 차지함.
- » 디자인 산업규모 측면에서 UK 지역별 창조경제 및 창조산업 디자인분야 일자리를 분석해보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런던과 남동부지역에 주로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창조경제의 디자인 일자리를 살펴보면, 런던이 46,000개의 디자인 일자리가 분포해 전체 UK 디자인 일자리의 25.8%를 차지하고 있어 UK지역 중 가장 많은 디자인 일자리가 분포한 것으로 나타남(2013년 기준).
 - 그 뒤를 이어 남동부지역이 23,000개의 일자리가 분포해 전체 디자인 일자리 중 13.2%를 차지함
 -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두 지역의 일자리 변화를 살펴보면, 런던의 경우 2013년 5,000개의 일자리가 증가세($41,000 \rightarrow 46,000$)를 보인 반면 남동부 지역은 디자인 일자리가 감소함($25,000 \rightarrow 23,000$).
- » 성별에 따른 디자인분야 고용(2013년 기준)을 살펴보면 창조경제의 경우 남성은 95,000명, 여성은 82,000명(46.4%)으로 나타나며 여성에 비해 남성의 비율이 높음.
 - 창조산업의 경우 남성이 63,000명, 여성이 59,000명으로 나타나면서 창조경제보다는 여성의 비율이 미세하게 높지만 여성에 비해 남성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 민족에 따른 디자인분야 고용을 살펴보면 창조경제 및 창조산업 모두 백인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음.
 - 창조경제의 경우, 백인은 2011년 142,000명에서 2013년 166,000명으로 절대수치는 증가했으나 비율은 2011년 94.1%에서 2013년 93.3%로 나타나며 다소 감소함.
 - BAME(흑인, 아시아인 및 소수민족)는 2011년 9,000명에서 2013년 12,000명으로 절대수치도 증가하는 동시에 비율 또한 5.9%에서 6.7%로 2011년에 비해 미세하게 증가함.
 - 창조산업의 경우 백인의 일자리는 2011년 대비 2013년에는 22,000명 증가한 반면, BAME 절대 수치가 변동이 없어 BAME 비율이 6.9%에서 6.0%로 감소함.
- » 교육수준별 디자인 일자리 비율(2013년 기준)을 살펴보면, 창조경제, 창조경제 및 창조적 직종 부문에서 모두 학부 또는 동등한 수준의 일자리(창조경제: 45.8% / 창조산업: 42.9% / 창조적 직종: 57.5%)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해 UK 경제 평균보다 고학력의 일자리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음.
 - UK 경제 평균은 학부 또는 동등한 수준(31.2%), A레벨 또는 동등한 수준(23.3%), GCSE A-C 등급 또는 동등한 수준(20.1%)의 일자리 비율이 유사함.
 - 대학교육 및 대학원교육이 필요한 일자리 또한, UK경제 평균(10%)보다 창조경제(14.8%), 창조 산업(15.2%) 및 창조적 직종(14.6%)의 디자인 일자리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디자인분야가 타 직종에 비해 고등교육을 필요로 하는 일자리 비율이 높다는 것을 시사.

- » 교육수준과 비례하여 시간당 임금(2011년 기준) 또한 전체 UK경제의 평균이 £8.69인 반면, 디자인 분야의 시간당 임금이 UK경제 평균보다 높은 £11.50으로 나타나며 창의성을 핵심요소로 활용하는 디자인 분야가 UK 전체경제 평균에 비해 고임금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2014년 기준, 평균 주급도 디자인경제 평균 £635로 영국경제 평균 £38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3) 디자인 역량

- » UK 디자인 서비스 수출변화를 살펴보면, 2009년 £1억 1,600만에서 2014년 £2억 2,600만으로 조사되면서 UK디자인 서비스 수출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 UK 전체경제 대비 디자인 수출 점유율 및 UK 창조산업 수출규모 대비 디자인 점유율 또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UK경제 대비 디자인 점유율: 2009년, 0.068% → 2014년, 0.102% / UK 창조산업 규모 대비 디자인 점유율: 2009년, 0.068% → 2014년, 0.102%).
- » 대륙별, 나라별 서비스 수출현황(2014년 기준)을 살펴보면, UK에서 유럽으로 수출되는 디자인 서비스 비율이 55.4%(£1억 2천 5백 2십만)로 조사되면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 유럽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대륙은 아메리카(18.9%, £4,270만), 아시아(18.8%, £4,260만)가 뒤를 이으며, 아프리카와 오스트레일리아가 각각 5.5%(£1240만)와 3.1%(£310만)를 차지함.
- » 주요나라별 디자인 수출상황은 미국이 £3,640만으로 16.1%를 차지해 가장 많은 수출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조사됨.
 - 미국의 뒤를 이어, EU 국가인 독일(7.9%, £1,790만), 프랑스(3.5%, £790만)가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아시아권에서는 홍콩(2.2%, £490만)과 중국(2.1%, £480만)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의 경우 £30만으로 UK 디자인 수출의 0.1%를 차지함.
- » UK 디자인분야의 총부가가치 변화는, 2008년 £18억 5,600만으로 조사되었던 가치가 2014년 기준 £32억 3,500만으로 측정되며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UK 전체 경제 및 창조산업의 디자인 점유율로도 확인되는데, 디자인 총부가가치의 증가와 함께 UK경제 및 창조산업의 디자인 점유율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조 산업 디자인 점유율: 2008년 3.0% → 2014년, 3.8% / UK경제 디자인 점유율: 2008년, 0.136% → 2014년, 1.999%)
- » 총부가가치(일정기간 동안에 경제활동 주체가 생산 활동에 참여하여 새로이 창출한 가치)가 산업의 경제적 가치를 대변해주는 핵심요소 중 하나로 볼 때, UK경제 내에서 디자인 분야의 중요도는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며 창조성을 핵심요소로 하는 대표적인 창조산업 중 하나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2009년부터 2013년간 영국경제의 총부가가치는 18.1% 증가한 반면에 디자인경제의 총부가가치는 27.9% 증가함.
 - 또한 영국고용기술위원회(UKCES)의 디자인 분야의 고용 예측에 따르면, UK 디자인분야는 향후 2022년까지 2012년 대비 18,000개의 일자리가 증가(14.5% 증가)할 것으로 전망해 UK 디자인 분야의 지속적인 성장을 예상함.
- » 디자인경제의 생산성(근로자 1인당 평균 생산량)은 2013년 기준으로 영국경제 평균 £ 33,667 와 비교해 디자인경제는 £ 47,402로 나타났으며, IT 및 커뮤니케이션, 금융, 에너지, 고부가가치 제조 부문의 평균 생산성보다 부문 내 디자인활동기업의 생산성이 각각 24%, 8.4%, 12.7%, 고부가가치 제조 부문은 무려 469%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 입지계수(LQ: 전국과 비교하여 어떤 지역 산업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측정 방법)에 따른 디자인산업이 상대적으로 특화된 지역을 살펴보면, 2014년 기준으로 런던의 해크니, 이즐링턴 등 런던 지역이 상위 6위까지를 모두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남동부 지역이 10위권에 포함되어 있어 기업, 고용 등이 런던 및 남동부 지역에 밀집해 있음을 알 수 있음.

3 일본

1) 디자인 산업규모

- » 디자인전문기업 수는 2006년 9,904개사에서 2014년 9,010개사로 5년간 약 15%의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 » 디자인전문기업의 구성은 1~4명 규모가 전체의 78%를 차지하며 10명 미만인 소규모 기업이 92.3%, 매출액 1억 엔 미만인 기업 수가 91.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2014년 기준).
 - 매출액 1천만 엔 미만인 기업이 3,321개로 40.7%, 1천만 엔 이상 3천만 엔 미만인 기업이 28.1%, 3천만 엔 이상 1억 엔 미만인 기업이 22.4%로 나타남.
- » 디자인전문기업 분포는 2014년 기준, 도쿄에 36%, 오사카에 14%로 약 절반가량이 두 도시에 밀집해 있으며 아이치현(6%), 가나가와현(5%) 등 대도시에 주로 집중되어 있음.
- » 디자인전문기업 매출액은 3,240억엔(2014년 기준)으로 2012년 이후 약 7.5%가량 감소세를 이어오고 있음.
 - 매출액 구성을 살펴보면, 고용인이 30인 미만인 기업이 디자인 산업 매출의 약 86%를 차지하고 있음.
 - 디자인산업 중, 고용인 5인 이상 규모인 기업에서 그래픽디자인 분야가 매출의 약 60%을 차지해 디자인 산업의 주축으로 평가됨.
- » 디자인산업의 매출액 분포를 살펴보면, 2014년 기준으로 도쿄(48%) 및 오사카(14%) 등 대도시에 매출의 62%가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 » 디자인산업의 경제 규모는 2014년 일본이 3,175백만 달러로 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9,362백만 달러 규모의 영국, 20억 달러 규모의 캐나다, 5,362백만 달러 규모의 호주 등 유럽, 아메리카 등지의 주요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작은 수준임.
- » 디자이너 연 수입은(2014년 기준) 2012년 이후 400만 엔(약 4천 3백만 원) 가량을 유지하고 있음.
 - 유럽 및 미국, 호주에 비해 낮은 편이며, 싱가포르, 홍콩과 비슷한 수준임.

2) 디자인 인력

- » 디자인 인력이 가장 많이 종사하는 산업은 디자인업(32%)이며, 인터넷관련 서비스업(13%), 광고업(11%), 영상·음성·문자 정보 기타 업무(8%) 순으로 나타남.
 - 인쇄, 섬유산업 등 제조업 및 도·소매업도 디자인 인력의 주요 활동 영역임.
- » 디자인 인력을 살펴보면, 디자이너 수는 2000년 161,393명에서 2010년에는 179,570명으로 약 13%가 증가했으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 » 디자인 인력 취업 현황은(2010년 기준), 정규직이 52%, 프리랜서가 22%, 임원이 11%를 차지하고 있어 파트타임 비율은 낮은 편임.
- » 사내 디자이너 및 프리랜서 디자이너 현황은, 사내 디자이너가 76.4%를 차지해 프리랜서 디자인 인력의 약 3배에 달함.
- » 노동시간은 규모가 10~99명인 기업에서 월 178시간, 100~999명인 기업은 170시간, 1,000명 이상인 기업은 163시간으로 기업 규모가 클수록 노동시간이 짧아짐.

3. 디자인 교육

- » 디자인교육을 받는 학생 수는 연간 약 42,000명 수준으로 총 학생 수의 1%를 차지함.
 - 전문학교가 50%, 대학이 40%를 차지함.
- » 디자인 관련 학과 및 전공에 입학하는 학생 수는 연간 약 15,000명으로 소폭 감소하는 추세이며, 입학 총 학생 수의 1.4%를 차지함.
 - 전문학교가 약 70%, 대학이 약 30%를 차지하고 있음.
- » 디자인 관련 학과 및 전공 졸업/수료생 수는 매년 1.2~1.5만 명 수준임.
 - 졸업생의 진로는 취업이 약 2/3를 차지하고 주로 정규직으로 채용되고 있음.

4. 디자인 등록

- » 디자인 출원 수는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약 31,000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디자인 등록도 2013년 기준 약 2만 8천 300개 수준으로 2004년 대비 약 13% 이상 감소함.

Part 3.

국내 산업디자인 통계조사

2 0 1 6

K O

R E A

D E S - G N

A T S - I C H - T A S - L A D - T A I C - H - S

일반업체

01 | 디자인 활용업체 비율

02 | 디자인 활용 현황

03 | 디자인 인력

04 | 디자인 교육

05 | 디자인 역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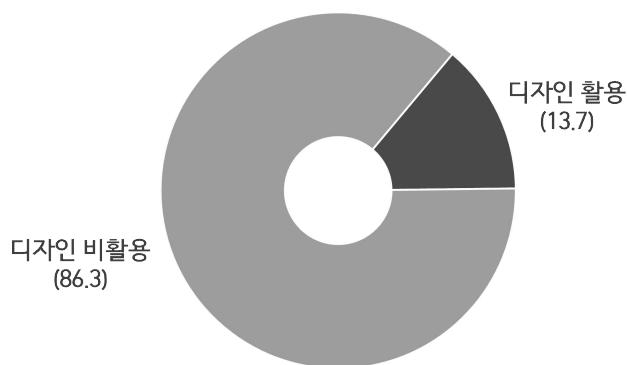
06 | 기타

1 디자인 활용업체 비율

- » (전체산업 기준) 일반업체 중 사내 디자이너를 보유했거나 전문디자인업체에 최근 2년 내 디자인 개발을 의뢰 경험 등으로 디자인을 활용한 비율은 13.7%로 나타남.
그 외 86.1%는 사내 디자이너와 최근 2년간 디자인 개발을 의뢰한 경험도 없음.

디자인 활용 여부

(단위: %)



- » 권역별로 분석해 보면, 서울(20.7%)의 디자인 활용여부 비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은 대구/경북(13.8%)이 뒤를 이음.

▣ 권역별 디자인 활용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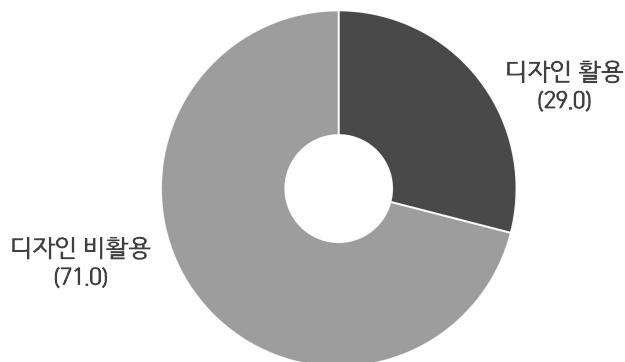
(단위: %)

구분		디자인 활용	디자인 비활용
일반업체		13.7	86.3
권 역 별	서울	20.7	79.3
	부산/울산/경남	11.1	88.9
	대구/경북	13.8	86.2
	인천/경기	11.7	88.3
	광주/전라	11.5	88.5
	대전/충청	10.9	89.1
	강원/제주	10.8	89.2

- » (디자인 특수분류 기준) 디자인 특수분류 8개 대분류에 해당하는 일반 업체 중 디자이너를 보유했거나, 최근 2년 이내 디자인 개발 의뢰 경험이 있는 디자인활용업체 비율은 29.06%로 나타남. 그 외 71.0%는 디자이너를 보유하지 않고, 최근 2년간 디자인 개발 의뢰 경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남.

디자인 활용 여부

(단위: %)



- » 업종별로는 디지털/미디어디자인업(53.6%)의 디자인 활용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은 시각디자인업(43.7%), 패션/텍스타일디자인업(34.2%), 서비스/경험디자인업(33.4%) 등의 순으로 나타남. 반면, 제품디자인업(23.6%)은 다른 업종 대비 상대적으로 낮음.

업종별 디자인 활용여부

(단위: %)

업종별	구분	디자인 활용	디자인 비활용
	일반업체	29.0	71.0
제품디자인	23.6	76.4	
시각디자인	43.7	56.3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53.6	46.4	
공간디자인	24.6	75.4	
패션/텍스타일디자인	34.2	65.8	
서비스/경험디자인	33.4	66.6	
산업공예디자인	25.6	74.4	
디자인인프라	27.1	72.9	

- » 권역별로 분석해 보면, 서울(37.8%)의 디자인 활용률이 가장 높은 반면, 부산/울산/경남의 활용률이 24.0%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 규모별로는 대기업의 디자인 활용률은 40.0%로 가장 높고, 소기업(27.8%)과 중기업(26.4%)의 디자인 활용률은 29% 내외로 나타남.

권역별/규모별 디자인 활용여부

(단위: %)

구분		디자인 활용	디자인 비활용
일반업체		29.0	71.0
권 역 별	서울	37.8	62.2
	부산/울산/경남	24.0	76.0
	대구/경북	27.0	73.0
	인천/경기	25.8	74.2
	광주/전라	26.6	73.4
	대전/충청	26.0	74.0
	강원/제주	29.2	70.8
규 모 별	대기업	40.0	60.0
	중기업	29.1	70.9
	소기업	28.8	7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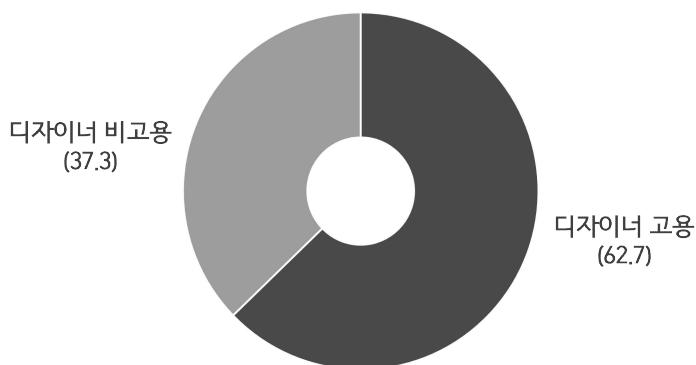
2 디자인 활용 현황

1) 디자이너 고용 여부

- » 디자인활용업체 중 디자이너를 고용한 업체(2015년 12월 기준)는 62.7%로 나타났고, 디자이너를 고용하지 않은 업체는 37.3%로 나타남.

디자인 고용 여부

(단위: %)



- » 업종별로 살펴보면, 디자이너 고용 비율은 공간디자인업(98.2%)이 가장 높고, 다음은 패션/텍스타일디자인업(72.4%), 제품디자인업(72.1%)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업종별 디자이너 고용 여부

(단위: %)

업종별	활용업체	디자이너 고용	디자이너 비고용
		62.7	37.3
	제품디자인	72.1	27.9
	시각디자인	64.8	35.2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66.8	33.2
	공간디자인	98.2	1.8
	패션/텍스타일디자인	72.4	27.6
	서비스/경험디자인	56.2	43.8
	산업공예디자인	50.7	49.3
	디자인인프라	40.5	59.5

- » 권역별로 살펴보면, 서울(67.3%), 대전/충청(67.2%), 강원/제주(65.9%) 등에서 디자이너 고용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 외 인천/경기(62.8%), 광주/전라(62.0%) 등의 순으로 고용 비율이 높게 나타남.
- » 규모별로 살펴보면, 디자이너 고용비율은 소기업(65.6%)에서 가장 높고, 다음은 중견기업(63.0%), 중기업(47.5%), 대기업(46.1%) 순으로 나타남.

권역별/규모별/외주여부별 디자이너 고용 여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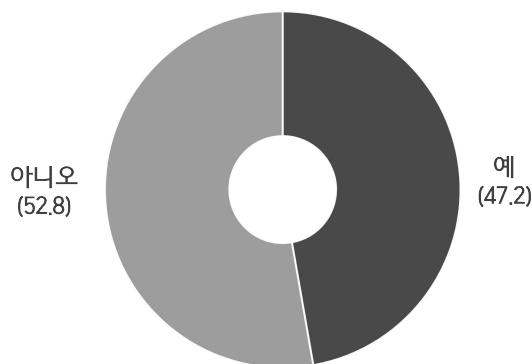
구분		디자이너 고용	디자이너 비고용
활용업체		62.7	37.3
권 역 별	서울	67.3	32.7
	부산/울산/경남	48.8	51.2
	대구/경북	55.4	44.6
	인천/경기	62.8	37.2
	광주/전라	62.0	38.0
	대전/충청	67.2	32.8
	강원/제주	65.9	34.1
규 모 별	대기업	46.1	53.9
	중견기업	63.0	37.0
	중기업	47.5	52.5
	소기업	65.6	34.4
외 주	외주용역 있음	21.2	78.8
	외주용역 없음	100.0	0.0

2) 전문디자인업체 용역 의뢰 경험 여부

- » 디자인활용업체를 대상으로 최근 2년 이내 디자인 개발 외주 용역 경험을 살펴보면, 디자인 외주용역 경험이 있는 업체 비율은 47.2%, 그 외 52.8%는 디자인 외주 용역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전문디자인업체 용역 의뢰 경험 여부

(단위: %)



- » 업종별로 살펴보면, 최근 2년 이내 디자인 개발 외주용역 경험이 있는 업체 비율은 디자인인프라업(65.7%)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 서비스/경험디자인업(59.7%), 산업공예디자인업(57.6%), 시각디자인업(53.0%) 등의 순으로 나타남. 한편, 공간디자인업(5.7%)은 최근 2년 이내 디자인 개발 외주용역 경험 비율이 타업종 대비 낮게 나타남.

▣ 업종별 전문디자인업체 용역 의뢰 경험 여부

(단위: %)

업종별	구분	예		아니오	
		활용업체	47.2	활용업체	52.8
	제품디자인		39.1		60.9
	시각디자인		53.0		47.0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42.1		57.9
	공간디자인		5.7		94.3
	패션/텍스타일디자인		39.3		60.7
	서비스/경험디자인		59.7		40.3
	산업공예디자인		57.6		42.4
	디자인인프라		65.7		34.3

- » 권역별로 살펴보면, 전문디자인업체 용역 의뢰 경험이 있는업체의 비율은 부산/울산/경남(59.1%), 대구/경북(57.4%)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 강원/제주(49.7%), 대전/충청(45.9%) 순으로 나타남.
 - »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기업(64.5%), 중기업(63.3%)이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다음은 중견기업(52.1%), 소기업(44.2%) 순으로 나타남.
- 한편, 디자이너를 고용한 업체의 84.1%가 외주용역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권역별/규모별/고용별 전문디자인업체 용역 의뢰 경험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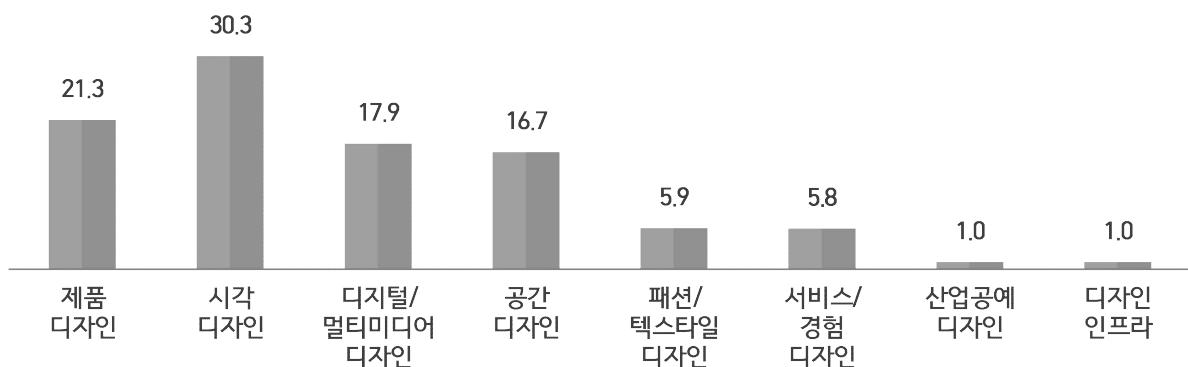
(단위: %)

구분		예	아니오
활용업체		47.2	52.8
권 역 별	서울	45.2	54.8
	부산/울산/경남	59.1	40.9
	대구/경북	57.4	42.6
	인천/경기	42.5	57.5
	광주/전라	44.4	55.6
	대전/충청	45.9	54.1
	강원/제주	49.7	50.3
규 모 별	대기업	64.5	35.5
	중견기업	52.1	47.9
	중기업	63.3	36.7
	소기업	44.2	55.8
고 용	디자이너 고용	15.9	84.1
	디자이너 비고용	100.0	0.0

3) 디자인 활용 분야

- » 디자인활용업체의 주요 디자인 활용분야(중복응답 기준)는 '시각디자인'이 30.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은 '제품디자인'(21.3%),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17.9%), '공간디자인'(16.7%) 등의 순으로 나타남.

디자인 활용 분야 (단위: %)



- » 권역별로 살펴보면, 인천/경기와 강원/제주를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시각디자인' 분야 활용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특히 대구/경북(38.8%)에서 높은 비율을 보임. 한편, '제품디자인'은 인천/경기(34.3%), '공간디자인'은 강원/제주(38.7%)에서 높게 나타남.
- » 규모별 결과 역시 모든 규모의 기업에서 '시각디자인' 분야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권역별/규모별/고용별/외주여부별 디자인 활용 분야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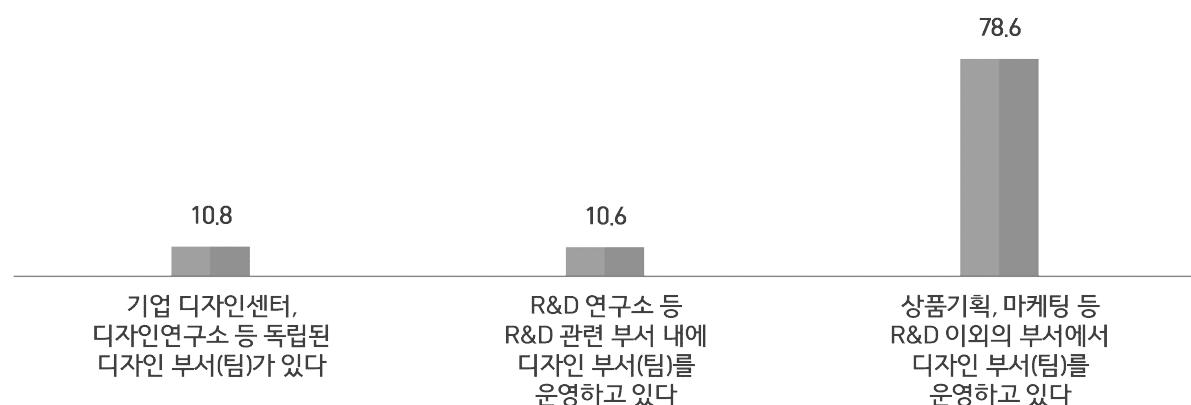
구분		제품 디자인	시각 디자인	디지털/멀티미디어 디자인	공간 디자인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서비스/경험 디자인	산업공예 디자인	디자인 인프라
활용업체		21.3	30.3	17.9	16.7	5.9	5.8	1.0	1.0
권역별	서울	15.7	32.5	21.9	15.1	7.8	4.8	1.5	0.6
	부산/울산/경남	22.1	35.4	10.3	23.1	1.9	3.9	0.0	3.3
	대구/경북	22.4	38.8	17.2	9.7	2.5	4.7	0.0	4.7
	인천/경기	34.3	20.5	17.0	14.4	7.3	5.2	1.3	0.1
	광주/전라	18.6	34.8	16.2	23.9	2.0	4.4	0.0	0.1
	대전/충청	16.8	26.0	15.1	17.7	5.7	16.7	2.0	0.0
	강원/제주	2.6	29.3	7.2	38.7	0.0	22.3	0.0	0.0
규모별	대기업	10.4	43.3	23.6	9.2	2.4	10.9	0.0	0.0
	중견기업	14.7	34.4	18.8	13.5	2.7	15.6	0.0	0.4
	중기업	19.0	38.5	17.3	7.3	2.6	14.5	0.1	0.6
	소기업	21.9	28.7	17.9	18.5	6.5	4.1	1.2	1.1
고용	디자이너 고용	22.6	18.7	18.2	26.0	6.1	6.6	0.8	0.9
	디자이너 비고용	19.0	50.0	17.4	1.0	5.4	4.5	1.4	1.3
외주	외주용역 있음	19.1	46.4	18.5	2.4	5.4	5.3	1.1	1.8
	외주용역 없음	23.3	16.0	17.4	29.5	6.2	6.3	1.0	0.4

4) 디자인 부서 형태

- » 디자인활용업체를 대상으로 디자인 부서의 형태를 살펴본 결과, 독립된 디자인 부서(팀)가 있는 업체 비율은 10.8%, R&D 관련 부서 내에 디자인 부서(팀)를 운영하는 업체의 비율은 10.6%로 나타났으며, R&D 이외의 부서에서 디자인 부서(팀)를 운영하는 업체 비율은 78.6%로 가장 높게 나타남.

디자인 부서 형태

(단위: %, 중복응답)



- » 업종별로 디자인 부서 운영 형태를 살펴보면, R&D 이외의 부서 내 디자인 부서(팀) 운영 업체의 비율은 디자인인프라업(93.5%), 서비스/경험디자인업(93.0%),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업(92.8%)에서 가장 높고, 다음은 패션/텍스타일디자인업(89.5%), 시각디자인업(82.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업종별 디자인 부서 형태

(단위: %, 중복응답)

업종별 활용업체	기업 디자인센터, 디자인연구소 등 독립된 디자인 부서(팀)가 있다	R&D 연구소 등 R&D 관련 부서 내에 디자인 부서(팀)를 운영하고 있다	상품기획, 마케팅 등 R&D 이외의 부서에서 디자인 부서(팀)를 운영하고 있다
	활용업체	10.8	10.6
제품디자인	5.9	22.6	72.0
시각디자인	8.0	9.1	82.8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3.6	3.6	92.8
공간디자인	39.6	6.8	53.7
패션/텍스타일디자인	4.5	6.0	89.5
서비스/경험디자인	0.1	6.8	93.0
산업공예디자인	0.0	53.5	46.5
디자인인프라	0.7	5.6	93.5

- » 권역별로 살펴보면, R&D 이외의 부서에서 디자인 부서(팀)를 운영하는 업체 비율이 강원/제주(97.9%)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 대전/충청(90.6%), 서울(81.1%), 대구/경북(77.1%)의 비율을 보임.
- » 규모별로 살펴보면, R&D 이외의 부서에서 디자인 부서(팀)를 운영하는 비율이 대기업(80.3%)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소기업(78.8%), 중기업(78.0%), 중견기업(76.0%) 순으로 나타남.

▣ 권역별/규모별/외주여부별 디자인 부서 형태

(단위: %, 중복응답)

구분		기업 디자인센터, 디자인연구소 등 독립된 디자인 부서(팀)가 있다	R&D 연구소 등 R&D 관련 부서 내에 디자인 부서(팀)를 운영하고 있다	상품기획, 마케팅 등 R&D 이외의 부서에서 디자인 부서(팀)를 운영하고 있다
활용업체		10.8	10.6	78.6
권 역 별	서울	11.0	8.0	81.1
	부산/울산/경남	15.0	16.1	68.9
	대구/경북	6.4	16.5	77.1
	인천/경기	12.2	14.8	73.0
	광주/전라	6.8	18.1	75.1
	대전/충청	3.3	6.2	90.6
	강원/제주	0.0	2.1	97.9
규 모 별	대기업	10.6	12.1	80.3
	중견기업	0.0	24.0	76.0
	중기업	10.9	11.1	78.0
	소기업	11.0	10.2	78.8
외 주	외주용역 있음	8.8	21.2	70.5
	외주용역 없음	11.0	9.3	7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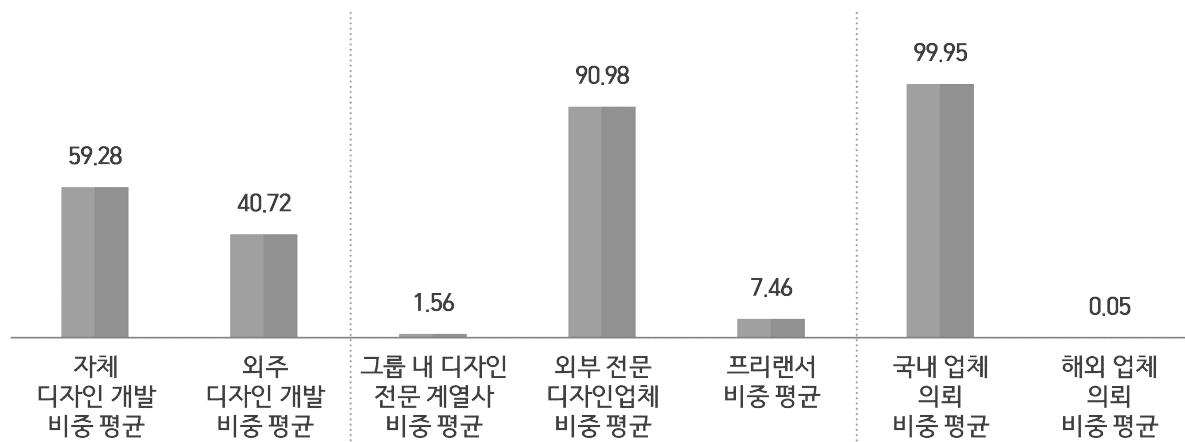
5) 디자인 개발 비중

5-1) 디자인 개발 비중(건 수 기준)

- » 디자인 개발 시 '자체 디자인 개발' 비중은 디자인활용업체 평균 59.28%, '외주 디자인 개발' 비중은 40.72%로 나타남. '외주 디자인 개발'의 경우 '국내 업체 의뢰'(99.95%)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디자인 개발 비중(건 수 기준)

(단위: %)



- » 업종별로 살펴보면, '자체 디자인 개발' 비중은 공간디자인업(96.38%), 패션/텍스타일디자인업(70.21%), 제품디자인업(67.57%) 등의 순으로 나타남. '외부 전문 디자인업체' 비중은 서비스/경험디자인업(98.44%)에서 높게 나타남. 한편, '국내 업체 의뢰' 비중은 패션/텍스타일디자인(98.57%)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100%의 비율을 보임.

■ 업종별 디자인 개발 비중(건 수 기준)

(단위: %)

구분	자체 디자인 개발 비중 평균	외주 디자인 개발 비중 평균	그룹 내 디자인 전문 계열사 비중 평균	외부 전문 디자인업체 비중 평균	프리랜서 비중 평균	국내 업체 의뢰 비중 평균	해외 업체 의뢰 비중 평균
활용업체	59.28	40.72	1.56	90.98	7.46	99.95	0.05
업종별	제품디자인	67.57	32.43	0.55	89.55	9.90	100.00
	시각디자인	59.21	40.79	4.66	77.79	17.56	100.00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63.98	36.02	0.00	96.85	3.15	100.00
	공간디자인	96.38	3.62	0.51	89.48	10.01	100.00
	패션/텍스타일디자인	70.21	29.79	2.39	71.62	25.99	98.57
	서비스/경험디자인	49.77	50.23	1.56	98.44	0.00	100.00
	산업공예디자인	48.45	51.55	5.91	94.09	0.00	100.00
	디자인인프라	38.99	61.01	0.51	90.01	9.48	100.00

- » 권역별로 살펴보면, '자체 디자인 개발' 비중은 서울(63.61%), 강원/제주(61.22%)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외주 디자인개발' 비중은 부산/울산/경남(53.10%)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 » 규모별로 살펴보면, '자체 디자인 개발' 비중은 소기업(62.50%), 중견기업(55.79%), 중기업(42.17%), 대기업(41.56%) 순으로 나타남. 한편, '국내 업체 의뢰' 비중은 중기업(99.72%)을 제외한 모든 규모의 업체에서 100%의 비율을 보임.

■ 권역별/규모별/고용별 디자인 개발 비중(건 수 기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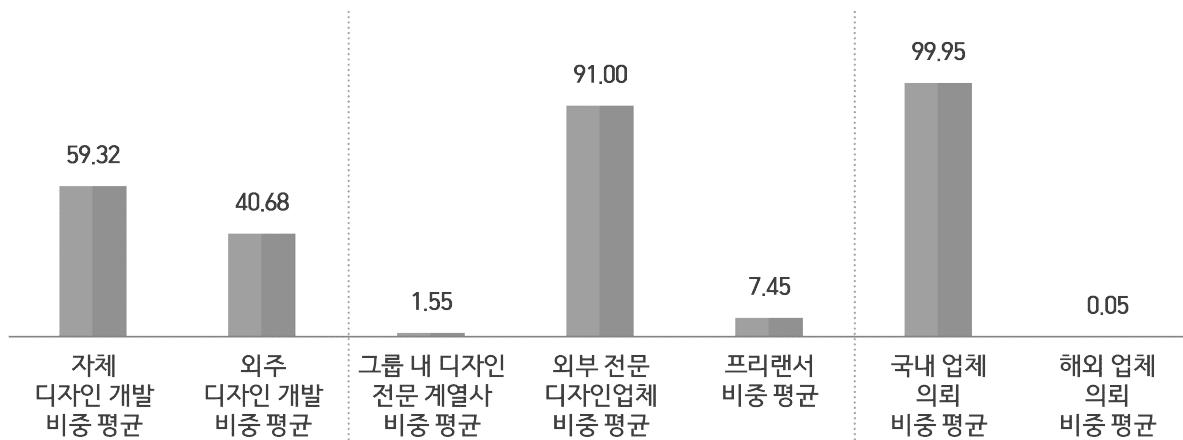
구분		자체 디자인 개발 비중 평균	외주 디자인 개발 비중 평균	그룹 내 디자인 전문 계열사 비중 평균	외부 전문 디자인 업체 비중 평균	프리랜서 비중 평균	국내 업체 의뢰 비중 평균	해외 업체 의뢰 비중 평균
활용업체		59.28	40.72	1.56	90.98	7.46	99.95	0.05
권 역 별	서울	63.61	36.39	1.46	90.16	8.39	99.86	0.14
	부산/울산/경남	46.90	53.10	0.09	89.26	10.65	100.00	0.00
	대구/경북	51.84	48.16	0.43	94.99	4.58	100.00	0.00
	인천/경기	60.28	39.72	0.99	91.06	7.94	100.00	0.00
	광주/전라	58.79	41.21	2.38	92.49	5.13	100.00	0.00
	대전/충청	59.69	40.31	1.75	96.24	2.01	100.00	0.00
	강원/제주	61.22	38.78	23.81	76.19	0.00	100.00	0.00
규 모 별	대기업	41.56	58.44	6.38	93.27	0.35	100.00	0.00
	중견기업	55.79	44.21	2.39	92.46	5.15	100.00	0.00
	중기업	42.17	57.83	0.19	95.99	3.81	99.72	0.28
	소기업	62.50	37.50	1.79	89.68	8.53	100.00	0.00
고 용	디자이너 고용	94.47	5.53	2.52	86.97	10.51	99.74	0.26
	디자이너 비고용	0.00	100.00	1.30	92.06	6.64	100.00	0.00

5-2) 디자인 개발 비중(비용 기준)

- » 디자인 개발 시 자체 디자인을 개발하는 업체의 비중은 평균 59.32%, 그 외 외주 디자인 개발업체의 비중은 40.68%로 나타남. 특히 ‘국내 업체 의뢰’(99.95%) 비중이 ‘외주 디자인 개발’ 비중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디자인 개발 비중(비용 기준)

(단위: %)



- » 업종별로 살펴보면, ‘자체 디자인 개발’ 비중은 공간디자인업(96.40%)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패션/텍스타일디자인업(70.21%), 제품디자인업(67.57%) 등의 순으로 나타남. ‘외부 전문 디자인업체’ 비중은 서비스/경험디자인업(98.44%)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한편 ‘국내 업체 의뢰’의 경우 패션/텍스타일디자인업(98.57%)을 제외한 업체에서 100% 비율을 보임.

▣ 업종별 디자인 개발 비중(비용 기준)

(단위: %)

구분	자체 디자인 개발 비중 평균	외주 디자인 개발 비중 평균	그룹 내 디자인 전문 계열사 비중 평균	외부 전문 디자인업체 비중 평균	프리랜서 비중 평균	국내 업체 의뢰 비중 평균	해외 업체 의뢰 비중 평균
활용업체	59.32	40.68	1.55	91.00	7.45	99.95	0.05
업종별	제품디자인	67.57	32.43	0.55	89.55	9.90	100.00
	시각디자인	59.36	40.64	4.66	77.89	17.45	100.00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63.98	36.02	0.00	96.85	3.15	100.00
	공간디자인	96.40	3.60	0.51	89.48	10.01	100.00
	패션/텍스타일디자인	70.21	29.79	2.39	71.62	25.99	98.57
	서비스/경험디자인	49.77	50.23	1.56	98.44	0.00	100.00
	산업공예디자인	48.39	51.61	5.91	94.09	0.00	100.00
	디자인인프라	39.11	60.89	0.51	90.01	9.48	100.00

- » 권역별로 살펴보면, 자체 디자인 개발업체의 비중은 서울(63.73%) 및 강원/제주(61.22%)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외주 디자인 개발업체의 비중은 부산/울산/경남(53.10%)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 규모별로 살펴보면, '자체 디자인 개발' 비중은 소기업(62.55%), 중견기업(55.94%), 중기업(42.20%)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기업(41.41%)에서 가장 낮은 비중을 보임. 한편, 국내업체의 퇴비 중은 중기업(99.72%)을 제외한 모든 규모의 업체에서 100%로 높게 나타남.

권역별/규모별/고용별 디자인 개발 비중(비용 기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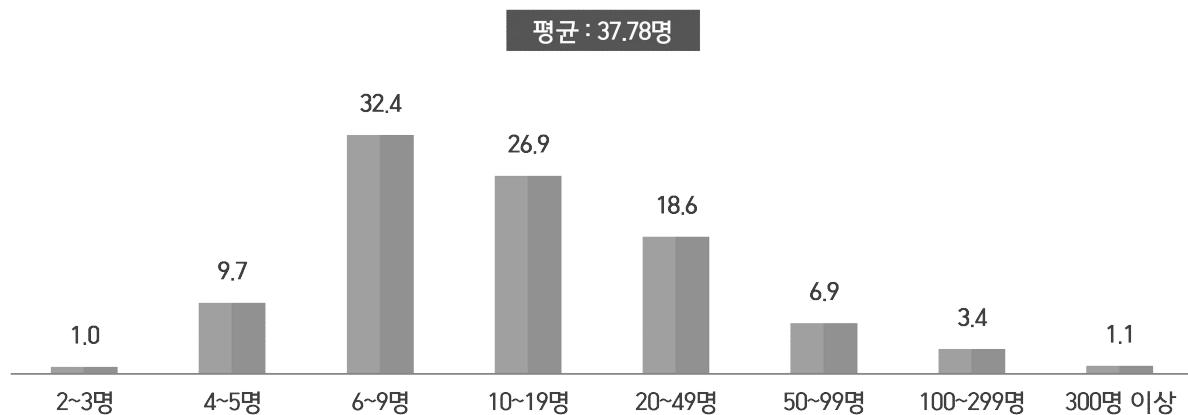
구분		자체 디자인 개발 비중 평균	외주 디자인 개발 비중 평균	그룹 내 디자인 전문 계열사 비중 평균	외부 전문 디자인 업체 비중 평균	프리랜서 비중 평균	국내 업체 의뢰 비중 평균	해외 업체 의뢰 비중 평균
활용업체		59.32	40.68	1.55	91.00	7.45	99.95	0.05
권 역 별	서울	63.73	36.27	1.45	90.18	8.36	99.86	0.14
	부산/울산/경남	46.90	53.10	0.09	89.26	10.65	100.00	0.00
	대구/경북	51.80	48.20	0.43	94.99	4.58	100.00	0.00
	인천/경기	60.28	39.72	0.99	91.06	7.94	100.00	0.00
	광주/전라	58.79	41.21	2.38	92.49	5.13	100.00	0.00
	대전/충청	59.69	40.31	1.75	96.24	2.01	100.00	0.00
	강원/제주	61.22	38.78	23.81	76.19	0.00	100.00	0.00
규 모 별	대기업	41.41	58.59	6.27	93.38	0.35	100.00	0.00
	중견기업	55.94	44.06	2.39	93.24	4.37	100.00	0.00
	중기업	42.20	57.80	0.19	95.99	3.81	99.72	0.28
	소기업	62.55	37.45	1.79	89.68	8.53	100.00	0.00
고 용	디자이너 고용	94.55	5.45	2.51	87.02	10.47	99.74	0.26
	디자이너 비고용	0.00	100.00	1.30	92.06	6.64	100.00	0.00

6) 직원 수

- » 디자인활용업체의 총 종사자 수는 업체 평균 37.78명으로 나타남. '6~9명'의 종사자 고용 업체 가 32.4%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10~19명'(26.9%), '20~49명'(18.6%) 등의 순으로 나타남.

디자인활용업체 직원 수

(단위: %)



- » 업종별로 살펴보면, 디자인활용업체 총 종사자 수가 제품디자인업(104.15명)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패션/텍스타일디자인업(19.29명)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업종별 디자인활용업체 직원 수

(단위: %)

구분		2~3명	4~5명	6~9명	10~19명	20~49명	50~99명	100~299명	300명 이상	평균 (명)
업종별	활용업체	1.0	9.7	32.4	26.9	18.6	6.9	3.4	1.1	37.78
	제품디자인	0.0	3.4	23.0	32.2	22.1	10.6	5.6	3.1	104.15
	시각디자인	2.0	15.0	30.4	21.2	18.7	7.0	4.3	1.4	37.25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0.0	16.7	30.3	25.6	19.9	4.1	1.9	1.5	27.96
	공간디자인	0.0	9.4	31.2	31.6	18.8	5.3	3.1	0.5	24.60
	패션/텍스타일디자인	0.0	16.6	34.1	29.8	13.6	3.0	2.5	0.3	19.29
	서비스/경험디자인	0.0	11.8	29.6	28.5	18.6	7.3	3.4	0.8	29.41
	산업공예디자인	0.0	17.0	30.6	22.6	19.6	6.9	2.9	0.4	22.56
	디자인인프라	3.0	5.8	41.1	22.2	17.4	6.9	2.7	0.9	29.75

- » 권역별로는, 서울의 디자인활용업체 종사자 수가 52.1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대전/충청(45.04명), 강원/제주(33.17명) 등의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광주/전라의 종사자 수는 다른 권역 대비 낮은 19.68명으로 나타남.
- » 디자이너 고용여부별로는 디자이너 고용 업체의 종사자 수 평균이 42.68명인 반면, 디자이너 비고용 업체의 경우 29.84명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 외주용역 여부에 따라 살펴보면, 외주 용역이 있는 업체(45.40명)의 종사자 수 평균이 외주 용역이 없는 업체(30.96명) 대비 높게 나타남.

권역별/규모별/고용별/외주여부별 디자인활용업체 직원 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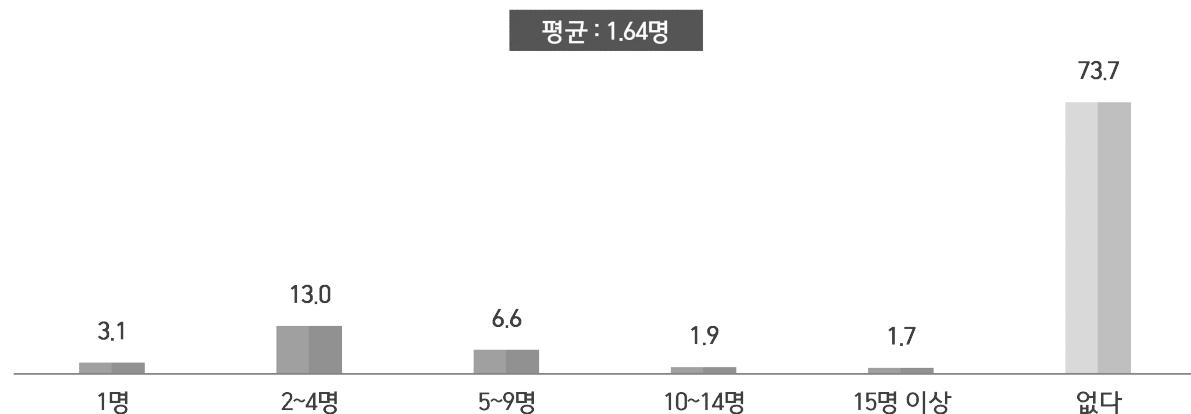
구분		2~3명	4~5명	6~9명	10~19명	20~49명	50~99명	100~299명	300명 이상	평균 (명)
활용업체		1.0	9.7	32.4	26.9	18.6	6.9	3.4	1.1	37.78
권 역 별	서울	2.3	10.4	31.8	25.8	17.6	7.1	3.3	1.7	52.17
	부산/울산/경남	0.0	7.6	37.8	27.7	16.6	5.5	4.2	0.6	26.57
	대구/경북	0.0	1.7	34.3	30.0	20.8	8.2	4.2	0.8	28.42
	인천/경기	0.0	10.5	32.8	24.1	22.7	6.1	3.1	0.7	24.86
	광주/전라	0.0	9.4	34.1	35.2	14.0	4.4	2.7	0.2	19.68
	대전/충청	0.0	13.0	27.2	28.9	17.7	9.4	2.7	1.2	45.04
	강원/제주	0.0	21.1	10.9	25.7	18.2	18.5	4.8	0.7	33.17
규 모 별	대기업	3.7	0.0	0.0	0.4	7.5	15.9	22.9	49.6	1,132.56
	중견기업	0.0	0.0	0.0	0.0	4.0	15.8	64.2	16.0	258.93
	중기업	0.0	2.0	3.0	28.2	27.2	24.3	12.9	2.3	66.00
	소기업	1.1	11.3	38.4	27.4	17.5	3.7	0.7	0.1	15.68
고 용	디자이너 고용	0.3	9.9	27.2	30.0	20.1	7.5	3.9	1.1	42.68
	디자이너 비고용	2.2	9.4	41.3	21.6	16.0	5.9	2.5	1.0	29.54
외 주	외주용역 있음	1.7	10.7	35.6	23.6	16.4	8.0	2.8	1.2	45.40
	외주용역 없음	0.3	8.8	29.6	29.8	20.6	6.0	3.9	1.0	30.96

6-1) 디자인 부서 직원 수

- » 디자인활용업체의 디자인 부서 직원 수는 업체 평균 1.64명으로 나타남. 범주별로 살펴보면, 디자인 부서 직원이 없는 경우가 73.7%로 가장 높았으며, 나머지 범주는 '2~4명'(13.0%), '5~9명'(6.6%) 등의 순으로 나타남.

디자인활용업체 디자인 부서 직원 수

(단위: %)



- » 업종별로 살펴보면, 공간디자인업의 종사자 수가 3.43명으로 가장 많은 반면, 산업공예디자인업(0.82명)과 디자인인프라업(0.81명)의 종사자 수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업종별 디자인활용업체 디자인 부서 직원 수

(단위: %)

구분		1명	2~4명	5~9명	10~14명	15명 이상	없다	평균(명)
활용업체		3.1	13.0	6.6	1.9	1.7	73.7	1.64
업종별	제품디자인	7.7	17.2	2.5	1.0	0.8	70.8	1.48
	시각디자인	10.3	27.3	8.0	2.9	1.9	49.7	1.97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1.7	25.7	7.2	0.9	1.1	63.5	1.53
	공간디자인	2.4	8.2	12.7	3.5	4.7	68.5	3.43
	패션/텍스타일디자인	5.1	21.0	5.9	1.4	1.6	65.0	1.74
	서비스/경험디자인	0.0	4.6	7.6	2.3	1.9	83.6	1.40
	산업공예디자인	0.8	14.7	4.3	0.8	0.1	79.4	0.82
	디자인인프라	2.0	13.2	3.8	1.2	0.2	79.6	0.81

- » 권역별로는, 디자인 부서 직원 수 평균이 서울(2.46명)에서 가장 높았고, 강원/제주(0.48명)와 대전/충청(0.45명)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기업(15.89명)과 중견기업(11.70명)의 디자인 부서 종사자 수 평균과 중기업(2.01명), 소기업(1.25명)의 디자인 부서 종사자 수 평균의 차이가 크게 나타남.
- » 디자인 개발 외주 용역이 없는 업체의 디자인 부서 직원 수 평균은 2.60명으로 외주 용역이 있는 업체(0.56명) 대비 높게 나타남.

권역별/규모별/외주여부별 디자인활용업체 디자인 부서 직원 수

(단위: %)

구분		1명	2~4명	5~9명	10~14명	15명 이상	없다	평균(명)
활용업체		3.1	13.0	6.6	1.9	1.7	73.7	1.64
권 역 별	서울	4.3	18.0	10.6	2.2	2.7	62.2	2.46
	부산/울산/경남	2.1	8.1	1.8	2.1	2.5	83.5	1.25
	대구/경북	0.4	9.3	3.5	4.2	0.6	82.0	1.23
	인천/경기	3.2	12.1	6.3	1.4	0.4	76.5	1.06
	광주/전라	0.8	4.1	3.2	0.5	1.3	90.2	1.18
	대전/충청	3.5	8.9	0.2	1.1	0.0	86.3	0.45
	강원/제주	0.0	11.9	0.0	0.0	0.5	87.6	0.48
규 모 별	대기업	4.4	9.3	3.5	2.1	12.4	68.3	15.89
	중견기업	0.0	3.8	9.2	6.0	26.0	54.9	11.70
	중기업	1.9	7.7	7.9	1.2	2.9	78.3	2.01
	소기업	3.3	14.1	6.4	2.0	1.0	73.2	1.25
외 주	외주용역 있음	1.3	3.1	0.5	0.8	0.6	93.7	0.56
	외주용역 없음	4.7	21.9	12.0	2.9	2.6	55.8	2.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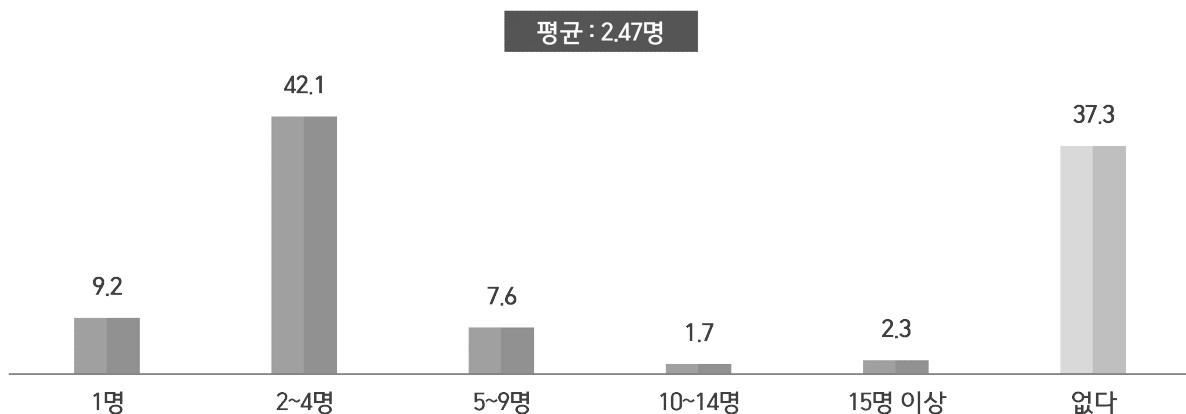
6-2) 디자인 부서 디자이너 수

» 디자인활용업체의 디자이너 수 평균은 2.47명으로 나타남.

범주별로 살펴보면, 디자이너 수의 평균은 '2~4명'이 42.1%로 가장 많고, 다음은 '1명'(9.2%), '5~9명'(7.6%), '15명 이상' (2.3%), '10~14명'(1.7%)의 순으로 나타남. 한편, 디자이너가 '없다'는 답변은 37.3%로 나타남.

디자인활용업체 디자이너 수

(단위: %)



» 업종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업종별 디자이너 수의 평균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난 가운데, 그 중 제품디자인업(3.07명), 패션/텍스타일디자인업(3.02명)의 총 디자이너 수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남. 한편, 산업공예디자인업은 총 디자이너 수 평균 1.78명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업종별 디자인활용업체 디자이너 수

(단위: %)

구분	1명	2~4명	5~9명	10~14명	15명 이상	없다	평균(명)
활용업체	9.2	42.1	7.6	1.7	2.3	37.3	2.47
업종별							
제품디자인	0.0	61.8	7.9	0.6	1.7	27.9	3.07
시각디자인	0.0	45.3	14.7	2.8	2.0	35.2	2.78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0.0	50.1	14.8	0.9	1.1	33.2	2.76
공간디자인	54.0	32.6	5.7	2.7	3.2	1.8	2.77
패션/텍스타일디자인	0.0	59.2	9.2	1.9	2.1	27.6	3.02
서비스/경험디자인	0.0	45.3	6.7	0.5	3.6	43.8	2.40
산업공예디자인	0.0	40.2	9.3	1.1	0.1	49.3	1.78
디자인인프라	0.0	31.3	5.5	2.3	1.4	59.5	1.94

- » 권역별로 살펴보면, 디자이너 수의 평균은 서울(3.28명)에서 가장 많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대구/경북(2.54명), 인천/경기(1.99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한편, 부산/울산/경남과 강원/제주의 평균 디자이너 수가 1.50명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 규모별로 살펴보면, 업체 규모에 비례해 디자이너 수의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대기업의 디자이너 수 평균은 15.26명으로 다른 규모의 평균 디자이너 수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됨.
- » 외주용역의 유무에 따라 살펴보면, 외주용역이 없는 업체(3.88명)의 디자이너 수가 외주용역이 있는 업체(1.01명) 대비 많은 것으로 나타남.

권역별/규모별/외주여부별 디자인활용업체 디자이너 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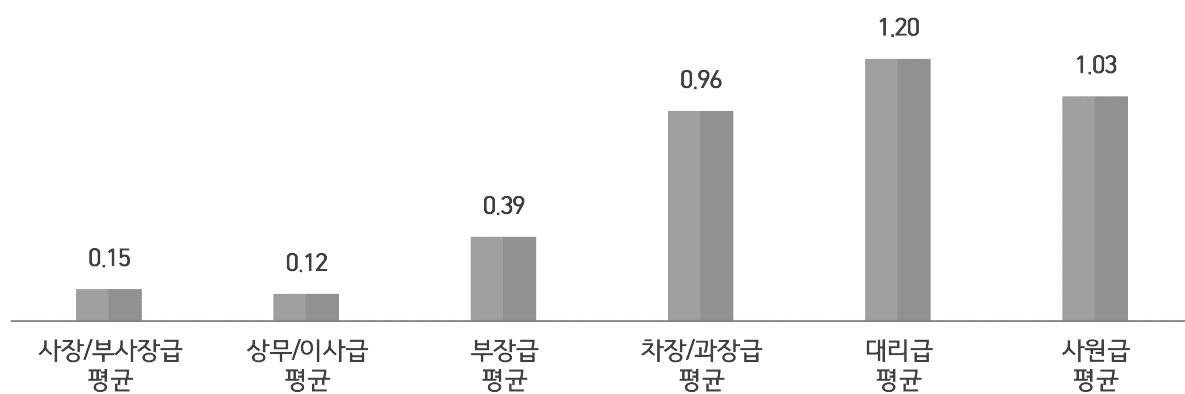
구분		1명	2~4명	5~9명	10~14명	15명 이상	없다	평균(명)
활용업체		9.2	42.1	7.6	1.7	2.3	37.3	2.47
권 역 별	서울	5.0	44.7	11.6	2.7	3.4	32.7	3.28
	부산/울산/경남	14.0	27.5	4.5	0.8	2.0	51.2	1.50
	대구/경북	5.7	36.6	6.4	2.2	4.5	44.6	2.54
	인천/경기	8.4	47.3	5.8	0.9	0.5	37.2	1.99
	광주/전라	20.8	35.8	3.7	0.5	1.3	38.0	1.73
	대전/충청	15.8	48.9	1.1	0.7	0.7	32.8	1.73
	강원/제주	26.8	36.1	2.6	0.0	0.5	34.1	1.50
규 모 별	대기업	1.0	20.7	6.7	3.2	14.4	53.9	15.26
	중견기업	0.0	25.7	5.3	8.0	24.0	37.0	9.73
	중기업	2.5	28.3	8.4	4.6	3.8	52.5	2.58
	소기업	10.6	44.9	7.5	1.1	1.5	34.4	2.18
외 주	외주용역 있음	1.1	16.7	1.8	0.2	1.3	78.8	1.01
	외주용역 없음	16.4	64.7	12.8	3.0	3.1	0.0	3.78

6-2-1) 직급별 디자이너 수

- » 디자인활용업체 디자이너의 직급별 종사자 수 평균을 살펴본 결과, '대리'급의 디자이너 수가 평균 1.20명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사원'급(1.03명), '차장/과장'급(0.96명) 등의 순으로 나타나 비교적 낮은 직급의 디자이너가 주를 이루는 것으로 보임.

디자인활용업체 직급별 디자이너 수

(단위: 명)



- » 업종별로 살펴보면, '대리'급 평균 디자이너 수는 디자인인프라업(1.74명) 및 시각디자인업(1.65명)에서 가장 높은 반면, 패션/텍스타일디자인업(0.75명), 공간디자인업(0.59명)에서 가장 낮게 나타남. 한편, '상무/이사'급의 평균 디자이너 수는 공간디자인업(0.24명)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업종별 디자인활용업체 직급별 디자이너 수

(단위: 명)

구분	사장/부사장급 평균	상무/이사급 평균	부장급 평균	차장/과장급 평균	대리급 평균	사원급 평균
활용업체	0.15	0.12	0.39	0.96	1.20	1.03
업종별						
제품디자인	0.26	0.11	0.32	1.08	1.22	0.73
시각디자인	0.03	0.02	0.43	0.79	1.65	1.37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0.00	0.00	0.12	0.61	1.47	1.92
공간디자인	0.24	0.24	0.44	0.77	0.59	0.54
패션/텍스타일디자인	0.23	0.12	0.30	0.53	0.75	2.23
서비스/경험디자인	0.08	0.11	0.44	1.39	1.42	0.82
산업공예디자인	0.04	0.00	0.28	1.37	1.24	0.57
디자인인프라	0.07	0.09	0.38	0.89	1.74	1.62

- » 권역별로는, 서울과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권역의 직급별 평균 디자이너 수가 '대리'급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그 중 서울(1.42명)이 많은 인원으로 나타남.
'사원'급은 서울(1.47명), '차장/과장급'은 대구/경북(1.38명)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기업의 경우 '사장/부사장'급과 '상무/이사'급을 제외한 모든 직급의 디자이너 수가 타 규모 업체에 비해 모두 높게 나타남. 한편 '사장/부사장'급은 소기업(0.17명), '상무/이사'급은 중견기업(0.30명)에서 가장 높은 인원을 보임.

권역별/규모별/외주여부별 디자인활용업체 직급별 디자이너 수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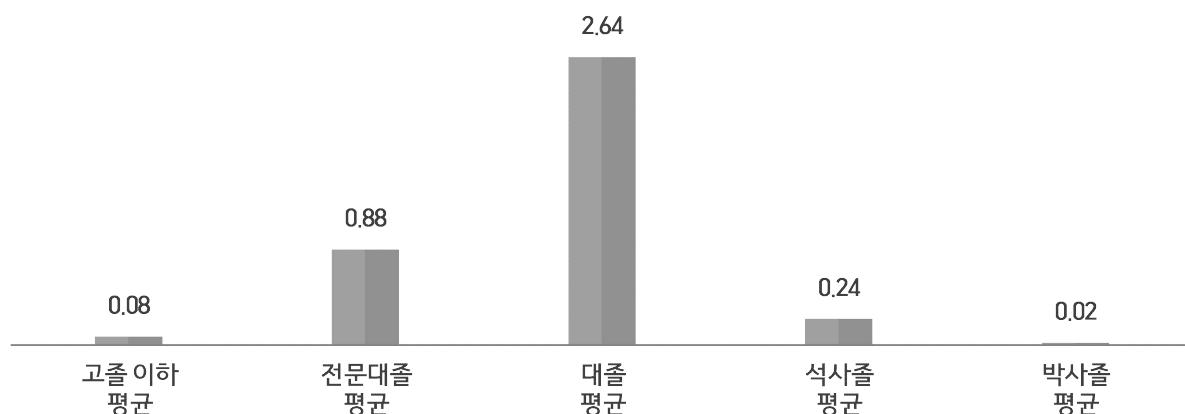
구분		사장/ 부사장급 평균	상무/이사급 평균	부장급 평균	차장/과장급 평균	대리급 평균	사원급 평균
활용업체		0.15	0.12	0.39	0.96	1.20	1.03
권 역 별	서울	0.11	0.14	0.45	1.10	1.42	1.47
	부산/울산/경남	0.18	0.13	0.36	0.78	0.91	0.73
	대구/경북	0.08	0.13	0.48	1.38	1.35	1.18
	인천/경기	0.21	0.09	0.33	0.79	1.10	0.65
	광주/전라	0.11	0.19	0.24	0.94	0.96	0.36
	대전/충청	0.26	0.09	0.21	0.63	0.69	0.68
	강원/제주	0.00	0.04	0.47	0.43	1.12	0.23
규 모 별	대기업	0.01	0.22	2.45	8.27	7.69	4.97
	중견기업	0.00	0.30	1.37	4.27	5.21	4.30
	중기업	0.01	0.10	0.48	1.39	1.54	1.90
	소기업	0.17	0.12	0.34	0.80	1.05	0.84
외 주	외주용역 있음	0.04	0.07	0.48	1.12	1.46	1.10
	외주용역 없음	0.17	0.13	0.37	0.93	1.16	1.02

6-2-2) 학력별 디자이너 수

- » 평균 디자이너 수를 학력별로 살펴본 결과, '대졸' 디자이너가 평균 2.64명으로 가장 높았음. 다음은 '전문대졸'(0.88명), '석사졸'(0.24명), '고졸 이하'(0.08명), '박사졸'(0.02명) 순으로 나타남.

디자인활용업체 학력별 디자이너 수

(단위: 명)



- » 업종별로 살펴보면, '대졸' 디자이너 수는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업(3.27명), 서비스/경험디자인업(3.26명), 시각디자인업(3.23명)에서 가장 높았으며, '전문대졸' 디자이너 수는 디자인인프라업(1.35명)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석사졸'의 경우, 서비스/경험디자인업에서 0.44명으로 가장 많은 디자이너 수를 보유함.

▣ 업종별 디자인활용업체 학력별 디자이너 수

(단위: 명)

구분	고졸 이하 평균	전문대졸 평균	대졸 평균	석사졸 평균	박사졸 평균
활용업체	0.08	0.88	2.64	0.24	0.02
업종별	제품디자인	0.08	0.81	2.65	0.13
	시각디자인	0.22	0.76	3.23	0.08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0.02	0.79	3.27	0.05
	공간디자인	0.06	0.91	1.57	0.23
	패션/텍스타일디자인	0.03	1.11	2.92	0.11
	서비스/경험디자인	0.05	0.50	3.26	0.44
	산업공예디자인	0.07	0.78	2.48	0.18
	디자인인프라	0.08	1.35	3.07	0.29

- » 권역별로 살펴보면, '대졸' 디자이너 수의 평균이 모든 권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특히 대구/경북(3.27명), 서울(3.18명)에서 높게 나타난 반면, 강원/제주(1.61명)에서 낮게 나타남. '전문대졸' 디자이너 수 또한 서울(1.12명)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 규모별 결과 역시, 모든 규모의 업체에서 '대졸' 디자이너 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규모와 디자이너 수가 비례하는 결과를 보임. 대기업의 '대졸' 디자이너 수는 평균 13.78명으로 나타난 반면, 소기업은 2.33명으로 큰 차이를 보임.

권역별/규모별/외주여부별 디자인활용업체 학력별 디자이너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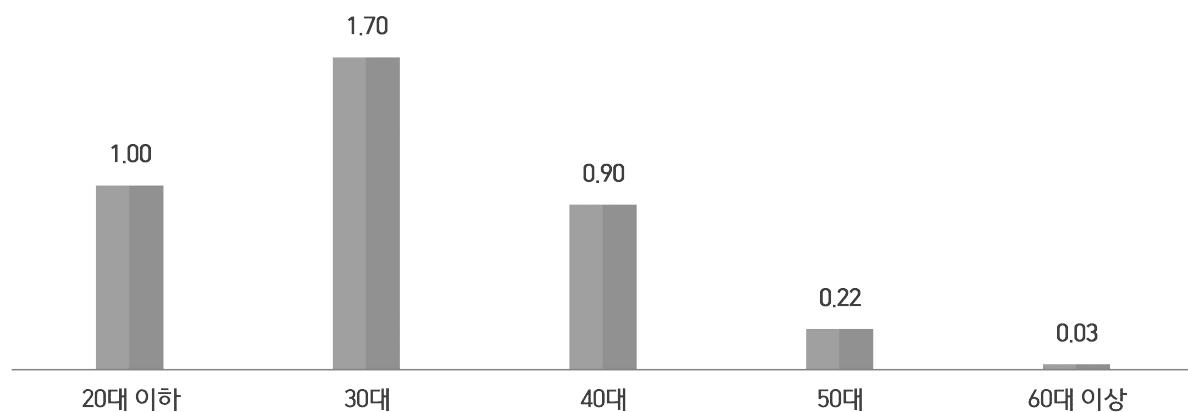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고졸 이하 평균	전문대졸 평균	대졸 평균	석사졸 평균	박사졸 평균
활용업체	0.08	0.88	2.64	0.24	0.02
권역별	서울	0.05	1.12	3.18	0.32
	부산/울산/경남	0.04	0.68	2.23	0.10
	대구/경북	0.24	0.74	3.27	0.31
	인천/경기	0.07	0.75	2.16	0.17
	광주/전라	0.16	0.66	1.74	0.21
	대전/충청	0.08	0.48	1.90	0.11
	강원/제주	0.00	0.47	1.61	0.12
규모별	대기업	0.18	6.26	13.78	0.20
	중견기업	0.07	2.75	11.24	0.09
	중기업	0.18	1.51	3.47	0.26
	소기업	0.06	0.73	2.33	0.02
외주	외주용역 있음	0.14	0.67	3.10	0.00
	외주용역 없음	0.06	0.92	2.56	0.02

6-2-3) 연령별 디자이너 수

- » 연령별 디자이너 수를 살펴본 결과, '30대' 디자이너가 평균 1.70명으로 가장 높았음. 다음은 '20대 이하'(1.00명), '40대'(0.90명), '50대'(0.22명), '60대 이상'(0.03명)으로 나타남.

디자인활용업체 연령별 디자이너 수 (단위: 명)



- » 업종별로 살펴보면,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업에서 '20대 이하' 디자이너 수가 2.27명으로 특히 높게 나타남. '30대' 디자이너는 시각디자인업(2.58명)과 디자인인프라업(2.44명)에서 가장 높은 수치로 나타난 반면, 공간디자인업(0.92명)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공간디자인업에서는 '50대' 디자이너 수가 0.35명으로 타업종 대비 높게 나타남.

▣ 업종별 디자인활용업체 연령별 디자이너 수

(단위: 명)

구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업종별	활용업체	1.00	1.70	0.90	0.22	0.03
	제품디자인	0.94	1.76	0.75	0.22	0.05
	시각디자인	0.70	2.58	0.94	0.08	0.00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2.27	1.23	0.61	0.02	0.00
	공간디자인	0.57	0.92	0.92	0.35	0.07
	패션/텍스타일디자인	1.50	1.73	0.75	0.16	0.02
	서비스/경험디자인	1.19	1.82	0.96	0.27	0.02
	산업공예디자인	0.67	1.52	1.13	0.18	0.00
	디자인인프라	1.27	2.44	0.97	0.11	0.00

» 권역별로 살펴보면, '30대' 평균 디자이너 수가 모든 권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대구/경북(2.33명)에서 높게 나타남. '20대 이하'의 디자이너 수는 서울, 대구/경북에서 각각 1.39명, 1.20명으로 높게 나타남.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기업을 제외한 모든 규모의 기업에서 '30대' 디자이너 수의 평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대기업의 경우 '40대' 평균 디자이너 수가 8.53명으로 '30대' 디자이너(8.11명) 대비 높게 나타남.

권역별/규모별/외주여부별 디자인활용업체 연령별 디자이너 수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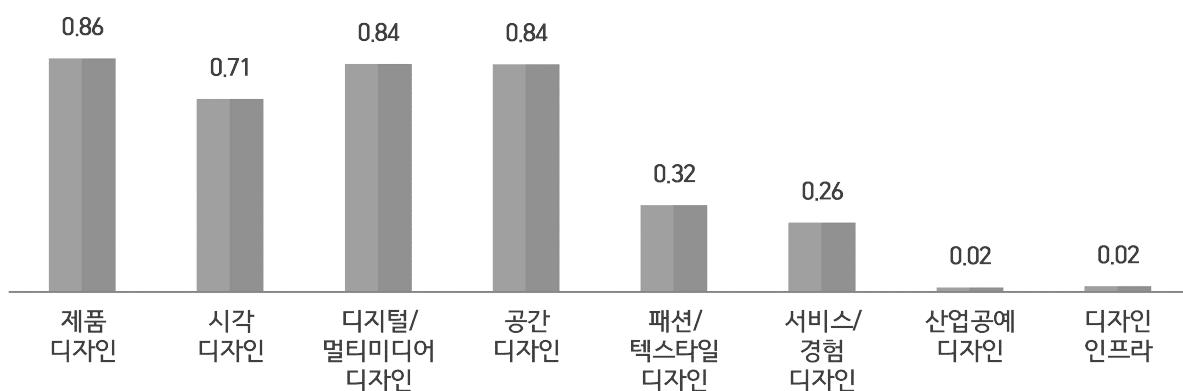
구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활용업체		1.00	1.70	0.90	0.22	0.03
권 역 별	서울	1.39	1.94	1.13	0.20	0.02
	부산/울산/경남	0.67	1.36	0.79	0.21	0.04
	대구/경북	1.20	2.33	0.88	0.18	0.00
	인천/경기	0.60	1.55	0.72	0.26	0.04
	광주/전라	0.59	1.28	0.65	0.24	0.03
	대전/충청	0.65	1.10	0.55	0.20	0.06
	강원/제주	0.39	1.02	0.42	0.45	0.00
규 모 별	대기업	5.12	8.11	8.53	1.82	0.02
	중견기업	5.14	6.00	3.67	0.58	0.06
	중기업	1.57	2.37	1.14	0.33	0.01
	소기업	0.84	1.50	0.76	0.19	0.03
외 주	외주용역 있음	1.18	1.79	1.09	0.18	0.02
	외주용역 없음	0.97	1.68	0.86	0.23	0.03

6-2-4) 디자인 영역별 디자이너 수

- » 디자인 영역별 디자이너 수를 살펴본 결과, '제품디자인' 분야의 디자이너 수가 평균 0.86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0.84명), '공간디자인'(0.84명), '시각디자인'(0.71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디자인활용업체 영역별 디자이너 수

(단위: 명)



- » 권역별로 살펴보면, 제품디자인 분야 디자이너는 대구/경북(1.58명),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분야는 서울(1.24명), 공간디자인은 대구/경북(1.28명), 시각디자인업은 서울(1.13명)에서 가장 높은 수로 나타남.
규모별로 살펴보면, 제품디자인, 서비스/경험디자인, 산업공예디자인, 디자인인프라를 제외한 분야에서 규모가 클수록 영역별 평균 디자이너 수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권역별/규모별/외주여부별 디자인활용업체 영역별 디자이너 수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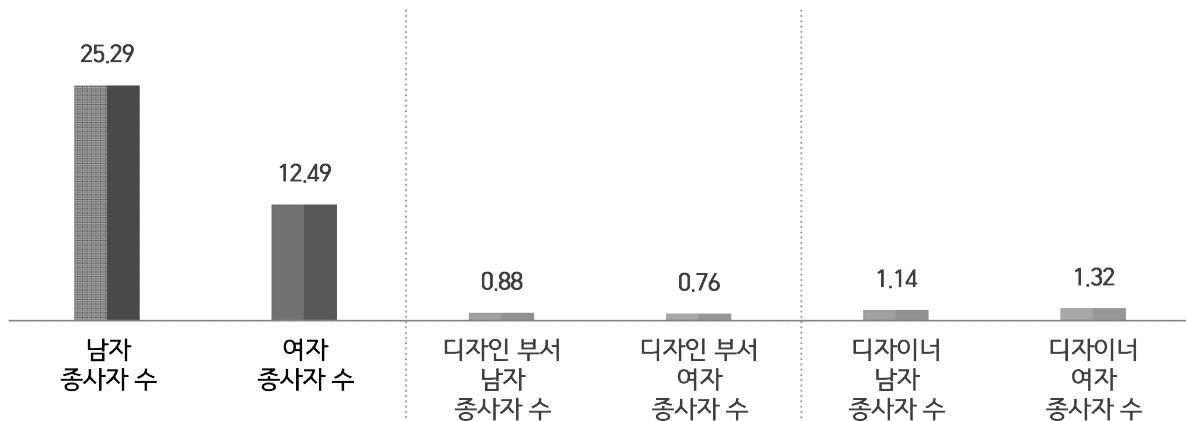
구분	제품 디자인	시각 디자인	디지털/멀티미디어 디자인	공간 디자인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서비스/경험 디자인	산업공예 디자인	디자인 인프라
활용업체								
권 역 별	0.86	0.71	0.84	0.84	0.32	0.26	0.02	0.02
	서울	0.48	1.13	1.24	1.04	0.55	0.22	0.02
	부산/울산/경남	0.92	0.56	0.25	1.28	0.05	0.02	0.00
	대구/경북	1.58	0.58	0.89	0.40	0.10	0.88	0.00
	인천/경기	1.52	0.26	0.52	0.51	0.21	0.13	0.02
	광주/전라	0.51	0.26	0.71	1.05	0.03	0.18	0.00
	대전/충청	0.86	0.37	0.22	0.31	0.17	0.58	0.06
	강원/제주	0.08	0.54	0.48	0.72	0.00	0.47	0.00
규 모 별	대기업	4.43	2.05	3.77	6.15	6.68	0.52	0.00
	중견기업	4.85	2.02	2.80	3.79	1.11	0.57	0.00
	중기업	1.46	0.74	1.56	0.93	0.47	0.24	0.01
	소기업	0.70	0.68	0.70	0.74	0.23	0.25	0.02
외 주	외주용역 있음	1.14	1.19	0.70	0.75	0.20	0.2	0.10
	외주용역 없음	0.80	0.62	0.86	0.85	0.34	0.3	0.02

6-2-5) 성별 종사자 및 디자이너 수

- » 종사자 및 디자이너 수 평균을 성별에 따라 비교해본 결과, 남자 종사자 수는 25.29명, 여자 종사자 수는 12.49명으로 평균의 차이를 보임. 반면, 디자이너 여자 종사자 수는 1.32명으로 디자이너 남자 종사자 수(1.14명) 대비 높음.

디자인활용업체 성별 종사자 및 디자이너 수

(단위: 명)



- » 업종별로 살펴보면, 패션/텍스타일디자인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남자 종사자 수 평균이 여자 종사자 수 평균을 앞서는 가운데, 특히 제품디자인업의 남자 종사자 수 평균(81.45명)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업종별 디자인활용업체 성별 종사자 및 디자이너 수

(단위: 명)

구분	남자 종사자 수	여자 종사자 수	디자인 부서 남자 종사자 수	디자인 부서 여자 종사자 수	디자이너 남자 종사자 수	디자이너 여자 종사자 수
활용업체	25.29	12.49	0.88	0.76	1.14	1.32
업종별	제품디자인	81.45	22.70	0.93	0.55	1.96
	시각디자인	21.85	15.40	0.63	1.34	0.70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17.96	10.00	0.63	0.89	0.87
	공간디자인	19.08	5.52	2.46	0.97	1.98
	패션/텍스타일디자인	8.75	10.55	0.20	1.54	0.43
	서비스/경험디자인	17.08	12.33	0.74	0.66	1.16
	산업공예디자인	15.77	6.79	0.45	0.37	1.08
	디자인인프라	16.62	13.13	0.27	0.54	0.53
						1.41

- » 권역별로 분석해 보면, 모든 권역에서 남자 종사자 수가 여자 종사자 수 대비 많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남자 종사자 수는 서울(33.46명), 대전/충청(32.19명), 강원/제주(21.61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여자 종사자 수 역시 서울(18.71명), 대전/충청(12.86명), 강원/제주(11.56명) 등의 순으로 남자 종사자와 동일한 순위를 보임.
- » 규모별로 살펴보면, 모든 규모의 업체에서 남자 종사자 수의 평균이 여자 종사자 수의 평균보다 많았으며, 대기업의 남자 종사자 수 평균은 848.23명으로 나타남. 디자인 부서의 경우, 소기업을 제외한 모든 규모의 기업에서 남자 종사자 수가 여자 종사자 수를 앞섰으며, 디자이너 남자 종사자 수 역시 소기업을 제외한 모든 규모의 기업에서 디자이너 여자 종사자 수를 앞선 것으로 나타남.
- » 한편, 디자인 개발 외주 용역이 있는 업체에서는 디자이너 여자 종사자 수 평균(0.56명)이 디자이너 남자 종사자 수 평균(0.45명)보다 높게 나타났고, 외주 용역이 없는 업체 역시 디자이너 여자 종사자수 평균(2.01명)이 남자 디자이너 수 평균(1.77명)보다 높게 나타남.

권역별/규모별/외주여부별 디자인활용업체 성별 종사자 및 디자이너 수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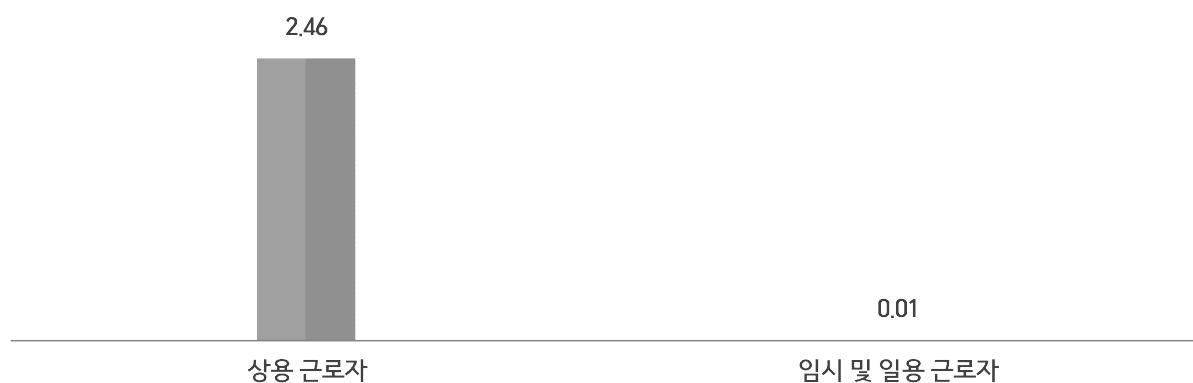
구분		남자 종사자 수	여자 종사자 수	디자인 부서 남자 종사자 수	디자인 부서 여자 종사자 수	디자이너 남자 종사자 수	디자이너 여자 종사자 수
활용업체		25.29	12.49	0.88	0.76	1.14	1.32
권 역 별	서울	33.46	18.71	1.13	1.33	1.26	2.02
	부산/울산/경남	18.88	7.70	0.89	0.36	0.88	0.63
	대구/경북	20.15	8.27	0.58	0.65	1.27	1.27
	인천/경기	17.76	7.10	0.74	0.32	1.17	0.83
	광주/전라	13.34	6.34	0.94	0.24	1.13	0.60
	대전/충청	32.19	12.86	0.21	0.24	0.77	0.96
	강원/제주	21.61	11.56	0.19	0.29	0.89	0.62
규 모 별	대기업	848.23	284.33	9.83	6.05	8.27	6.99
	중견기업	168.06	90.87	8.13	3.57	5.68	4.05
	중기업	39.60	26.40	1.34	0.67	1.34	1.23
	소기업	10.19	5.49	0.59	0.67	0.96	1.23
외 주	외주용역 있음	30.94	14.46	0.31	0.25	0.45	0.56
	외주용역 없음	20.23	10.73	1.39	1.21	1.77	2.01

6-2-6) 근로자 형태별 디자이너 수

- » 디자인활용업체의 디자이너 수를 근로자 형태별로 살펴본 결과, '상용근로자'가 평균 2.46명, '임시 및 일용근로자'는 평균 0.01명으로 나타남.

디자인활용업체 근로자 형태별 디자이너 수

(단위: 명)



- » 업종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상용근로자' 디자이너 수의 평균은 제품디자인업(3.07명), 패션/텍스타일디자인업(3.02명)에서 가장 높고, 그 외 공간디자인업(2.77명), 디지털/멀티미디어 디자인업(2.76명), 시각디자인업(2.74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임시 및 일용근로자' 디자이너 수는 시각디자인업에서 평균 0.06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업종별 디자인활용업체 근로자 형태별 디자이너 수

(단위: 명)

업종별	구분	상용근로자	임시 및 일용근로자
	활용업체	2.46	0.01
제품디자인	제품디자인	3.07	0.00
	시각디자인	2.74	0.06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2.76	0.00
	공간디자인	2.77	0.00
	패션/텍스타일디자인	3.02	0.00
	서비스/경험디자인	2.40	0.00
	산업공예디자인	1.78	0.00
	디자인인프라	1.93	0.01

» 권역별로 근로자 형태별 디자이너 수를 살펴보면, 평균 '상용근로자' 디자이너 수는 서울에서 3.26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대구/경북(2.54명), 인천/경기(1.99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임시 및 일용근로자' 평균 디자이너 수는 서울(0.02명), 부산/울산/경남(0.01명)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0.0명으로 나타남.

▣ 권역별/규모별/외주여부별 디자인활용업체 근로자 형태별 디자이너 수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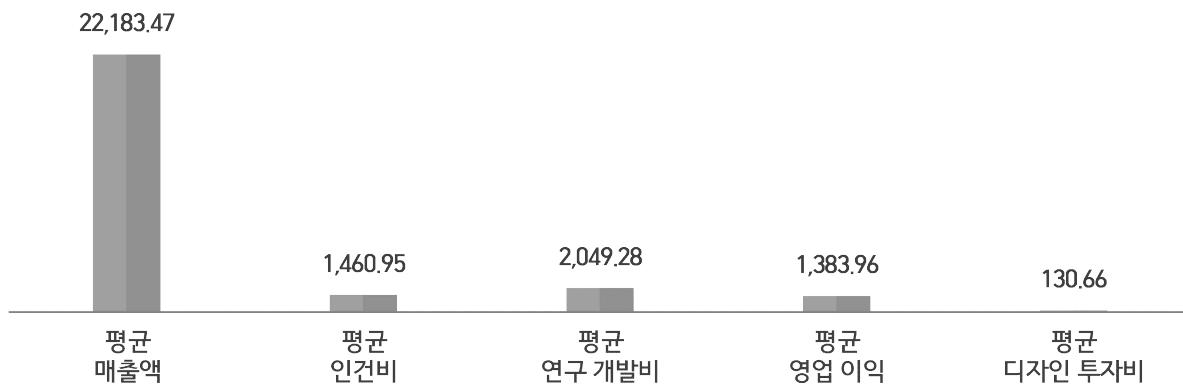
구분		상용근로자	임시 및 일용근로자
활용업체		2.46	0.01
권 역 별	서울	3.26	0.02
	부산/울산/경남	1.50	0.01
	대구/경북	2.54	0.00
	인천/경기	1.99	0.00
	광주/전라	1.73	0.00
	대전/충청	1.73	0.00
	강원/제주	1.50	0.00
규 모 별	대기업	15.26	0.00
	중견기업	9.73	0.00
	중기업	2.57	0.01
	소기업	2.18	0.01
외 주	외주용역 있음	1.01	0.00
	외주용역 없음	3.76	0.02

7) 2015년 재무 및 투자 현황

- » 디자인활용업체의 평균 매출액은 221억 8,347만원으로 나타났고, 평균 인건비는 14억 6,095만원, 평균 연구개발비는 20억 4,928만원, 평균 영업이익은 13억 8,396만원으로 나타남. 한편, 평균 디자인 투자금액은 1억 3,066만원으로 나타남.

2015년 재무 및 투자 현황

(단위: 백만원)



- » 업종별로 살펴보면, 모든 재무 및 투자 현황이 제품디자인업에서 다른 업종 대비 가장 높게 나타남. 제품디자인업의 평균 매출액은 1,130억 7,970만원이며, 평균 인건비는 61억 7,498만원, 평균 연구개발비는 45억 7,721만원 등의 높은 수치를 보임.

▣ 업종별 2015년 재무 및 투자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평균 매출액	평균 인건비	평균 연구개발비	평균 영업 이익	평균 디자인 투자비
활용업체	22,183.47	1,460.95	2,049.28	1,383.96	130.66
업종별	제품디자인	113,079.70	6,174.98	4,577.21	6,644.75
	시각디자인	11,396.43	1,011.32	2,811.86	543.05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4,963.50	940.51	1,053.69	1,582.60
	공간디자인	13,704.67	807.35	1,831.70	530.57
	패션/텍스타일디자인	11,410.04	580.93	719.11	345.79
	서비스/경험디자인	7,736.62	744.70	2,092.33	622.01
	산업공예디자인	4,488.14	501.94	637.50	207.84
	디자인인프라	8,176.20	815.30	1,367.86	659.32
					81.75

- » 권역별로는, 평균 매출액을 제외한 재무 및 투자 현황이 서울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평균 매출액은 대전/충청이 506억 904만원으로 가장 높은 결과를 보임.
- 규모별로 살펴보면, 모든 재무 및 투자 현황의 평균이 기업 규모가 커짐에 따라 높은 것으로 나타남. 디자이너 고용 업체의 모든 재무 및 투자 현황이 디자이너 비고용 업체보다 높게 나타남. 한편, 외주 용역 업체의 평균 디자인투자비(1억 1,020만원)가 외주 용역이 없는 업체(1억 4,899만원)에 비해 낮게 나타남.

권역별/규모별/고용별/외주여부별 2015년 재무 및 투자 현황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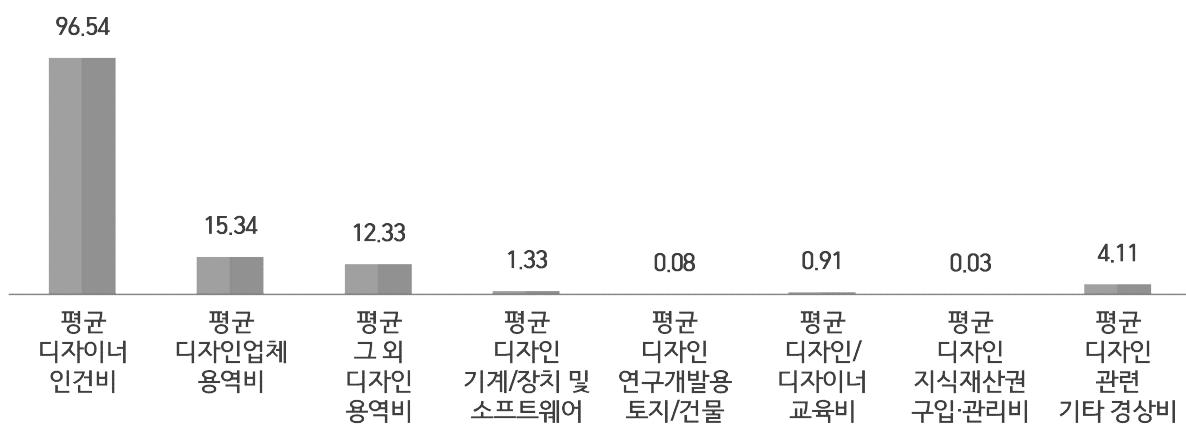
구분		평균 매출액	평균 인건비	평균 연구개발비	평균 영업 이익	평균 디자인투자비
활용업체		22,183.47	1,460.95	2,049.28	1,383.96	130.66
권 역 별	서울	29,488.23	2,493.91	3,275.52	2,252.76	173.99
	부산/울산/경남	10,779.98	674.73	1,229.64	623.64	86.96
	대구/경북	8,590.48	671.63	775.39	161.66	103.86
	인천/경기	15,403.36	686.97	973.53	725.66	104.32
	광주/전라	13,995.00	680.36	1,225.98	519.60	65.34
	대전/충청	50,609.04	1,086.40	2,078.80	1,945.72	147.53
	강원/제주	5,580.94	665.86	1,741.83	1,376.38	79.15
규 모 별	대기업	1,325,979.73	72,610.15	89,059.78	97,511.75	2,336.75
	중견기업	174,171.43	6,430.84	21,356.06	7,007.73	952.40
	중기업	19,101.54	1,690.03	2,237.83	496.49	122.04
	소기업	3,698.01	429.52	621.99	210.88	92.22
고 용	디자이너 고용	23,956.56	1,849.62	2,267.59	1,736.38	175.79
	디자이너 비고용	19,196.87	806.27	1,681.57	774.52	54.65
외 주	외주용역 있음	33,149.03	2,171.40	3,105.97	2,173.50	110.20
	외주용역 없음	12,362.02	824.63	1,102.85	700.95	148.99

7-1) 2015년 디자인 투자금액

- » 세부항목별 디자인 투자금액을 살펴본 결과, '평균 디자이너 인건비'가 9,654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평균 디자인업체 용역비'(1,534만원), '평균 그 외 디자인 용역비'(1,233만원), '평균 디자인 관련 기타 경상비'(411만원), '평균 디자인 기계/장치 및 소프트웨어'(133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2015년 디자인 투자금액

(단위: 백만원)



- » 업종별로 살펴보면, '평균 디자이너 인건비'는 제품디자인업에서 1억 9,809만원으로 가장 높은 반면, 산업공예디자인업(4,487만원)으로 가장 낮음.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업에서 '평균 디자인업체 용역비'는 4,814만원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업종별 2015년 디자인 투자금액

(단위: 백만원)

구분	평균 디자이너 인건비	평균 디자인업체 용역비	평균 그 외 디자인 용역비	평균 디자인 기계/장치 및 소프트웨어	평균 디자인 연구개발용 토지/건물	평균 디자인/디자이너 교육비	평균 디자인 지식재산권 구입·관리비	평균 디자인 관련 기타 경상비
활용업체	96.54	15.34	12.33	1.33	0.08	0.91	0.03	4.11
업종별	제품디자인	198.09	42.95	20.75	0.16	0.00	0.10	0.02
	시각디자인	174.84	19.79	6.97	1.88	0.00	2.46	0.23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123.48	48.14	5.39	1.62	0.00	0.97	0.00
	공간디자인	77.30	3.77	3.46	1.32	0.48	2.24	0.03
	패션/텍스타일디자인	95.77	8.20	5.81	2.69	0.01	1.93	0.02
	서비스/경험디자인	83.51	6.70	17.86	2.38	0.00	0.01	0.43
	산업공예디자인	44.87	16.55	8.22	0.53	0.00	1.96	0.01
	디자인인프라	53.19	11.65	14.00	0.69	0.00	0.34	0.00
								1.87

- » 권역별로 살펴보면, '평균 디자이너 인건비'는 서울(1억 3,763만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평균 디자인업체 용역비'는 대전/충청(6,471만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 규모별로는, 전반적인 세부항목에서 규모가 클수록 세부항목별 디자인 투자금액 평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평균 디자인 지식재산권 구입 관리비'와 '평균 디자인 관련 기타 경상비'는 중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조금 더 높게 나타남.
- » 디자이너 고용 여부에 따라 살펴보면, 디자이너 비고용 업체의 '평균 디자인업체 용역비'(1,874만 원) 및 '평균 그 외 디자인 용역비'(2,113만원)이 디자이너 고용 업체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남.

권역별/규모별/고용별/외주여부별 2015년 디자인 투자금액

(단위: 백만원)

구분		평균 디자이너 인건비	평균 디자인업체 용역비	평균 그 외 디자인 용역비	평균 디자인 기계/장치 및 소프트웨어	평균 디자인 연기/설립 토지/건물	평균 디자인 디자이너 교육비	평균 디자인 지식재산권 구입 관리비	평균 디자인 관련 기타 경상비
활용업체		96.54	15.34	12.33	1.33	0.08	0.91	0.03	4.11
권역별	서울	137.63	13.98	12.97	1.56	0.19	1.53	0.03	6.10
	부산/울산/경남	60.34	11.97	10.29	1.16	0.02	0.14	0.04	3.01
	대구/경북	77.41	11.82	8.47	1.13	0.00	1.55	0.10	3.39
	인천/경기	83.52	7.94	8.54	1.34	0.00	0.26	0.01	2.70
	광주/전라	41.42	13.70	7.11	0.97	0.00	0.53	0.03	1.58
	대전/충청	41.01	64.71	38.22	0.80	0.00	0.40	0.01	2.39
	강원/제주	65.03	5.40	3.93	1.18	0.00	0.26	0.00	3.35
규모별	대기업	1,526.98	511.59	269.17	7.20	0.03	4.12	0.30	17.38
	중견기업	818.70	89.11	21.18	2.73	0.00	2.59	0.40	17.68
	중기업	87.84	12.39	16.26	0.96	0.01	0.47	0.03	4.07
	소기업	69.54	8.39	8.20	1.30	0.10	0.92	0.02	3.76
고용	디자이너 고용	153.85	5.95	7.10	1.90	0.13	1.45	0.04	5.37
	디자이너 비고용	0.00	31.15	21.13	0.37	0.00	0.00	0.01	1.99
외주	외주용역 있음	50.93	32.01	23.74	0.71	0.00	0.28	0.03	2.50
	외주용역 없음	137.38	0.40	2.10	1.88	0.15	1.48	0.03	5.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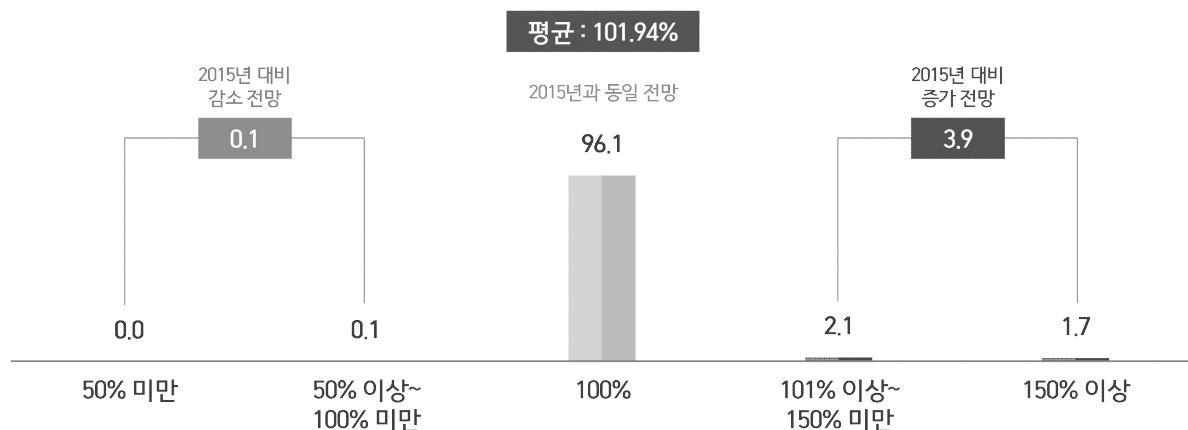
8) 2016년 재무 및 투자 전망

8-1) 2016년 디자인 투자금액 전망

- » 2015년 대비 2016년 디자인 투자금액 전망^⑪은 평균 101.94% 수준으로 2015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범주별로는 '2015년과 동일할 것이다'는 전망(100%)이 96.1%로 가장 높고, '2015년 대비 증가 전망'(100% 초과)은 3.9%, '2015년 대비 감소 전망'(100% 미만)은 0.1%로 나타남.

2016년 디자인 투자금액 전망

(단위: %)



- » 업종별로는 모든 업종에서 디자인 투자금액 전망이 평균 100% 이상으로 나타나 전반적인 투자금액 증가를 전망하는 가운데, 특히 디지털/미디어디자인업(108.51%), 시각디자인업(106.15%), 공간디자인업(103.68%) 순으로 2016년 디자인 투자금액 전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한편, 서비스/경험디자인업과 산업공예디자인업은 100%로 2016년 디자인 투자가 2015년과 동일할 것으로 전망함.

▣ 업종별 2016년 디자인 투자금액 전망

(단위: %)

구분	50% 이상~100% 미만	100%	100% 이상~150% 미만	150% 이상	평균
업종별	활용업체	0.1	96.1	2.1	1.7
	제품디자인	0.0	96.9	1.6	1.5
	시각디자인	0.6	87.4	6.3	5.8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0.0	77.1	17.6	5.3
	공간디자인	0.0	94.9	1.0	4.2
	패션/텍스타일디자인	0.0	93.7	3.5	2.9
	서비스/경험디자인	0.0	100.0	0.0	0.0
	산업공예디자인	0.0	100.0	0.0	0.0
	디자인인프라	0.0	98.6	1.4	0.0

⑪ 2015년과 같으면 100%, 2015년 보다 증가하면 100%초과, 2015년 보다 감소하면 100% 미만으로 작성
예를 들어 2015년의 절반 수준이면 50%, 2배 증가했으면 200% 등으로 작성

- » 권역별로 살펴본 결과, 모든 권역의 전망이 100% 이상으로 2016년 디자인 투자금액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이 나타난 가운데, 특히 서울(102.59%)이 다른 권역 대비 높게 나타남.
- » 규모별로 살펴보면, 중견기업(98.50%)은 다소 부정적인 전망을 한 반면, 나머지 규모의 기업은 투자금액 증가를 전망함. 기업별 전망은 소기업(102.01%), 중기업(101.94%), 대기업(100.27%) 순으로 나타남.
- » 디자이너 고용 여부로 살펴보면, 디자이너 고용업체 및 비고용업체 모두 2016년 투자금액 증가를 전망했으며, 디자이너 고용업체의 전망(102.64%)이 디자이너 비고용업체(100.76%) 대비 높게 나타남.

권역별/규모별/고용별/외주여부별 2016년 디자인 투자금액 전망

(단위: %)

구분		50% 이상~100% 미만	100%	100% 이상~150% 미만	150% 이상	평균
활용업체		0.1	96.1	2.1	1.7	101.94
권 역 별	서울	0.1	94.9	2.4	2.5	102.59
	부산/울산/경남	0.0	98.9	0.5	0.6	100.77
	대구/경북	0.0	95.5	3.5	1.0	101.98
	인천/경기	0.0	96.7	2.2	1.2	101.73
	광주/전라	0.0	97.6	0.9	1.5	101.28
	대전/충청	0.0	95.8	2.1	2.1	101.47
	강원/제주	0.0	94.6	5.4	0.0	101.62
규 모 별	대기업	0.3	98.2	0.4	0.3	100.27
	중견기업	4.3	92.4	3.3	0.0	98.50
	중기업	0.0	97.9	0.3	1.9	101.94
	소기업	0.0	95.8	2.5	1.7	102.01
고 용	디자이너 고용	0.1	94.9	2.4	2.5	102.64
	디자이너 비고용	0.0	98.0	1.7	0.3	100.76
외 주	외주용역 있음	0.0	97.4	1.9	0.7	101.04
	외주용역 없음	0.1	94.9	2.4	2.6	102.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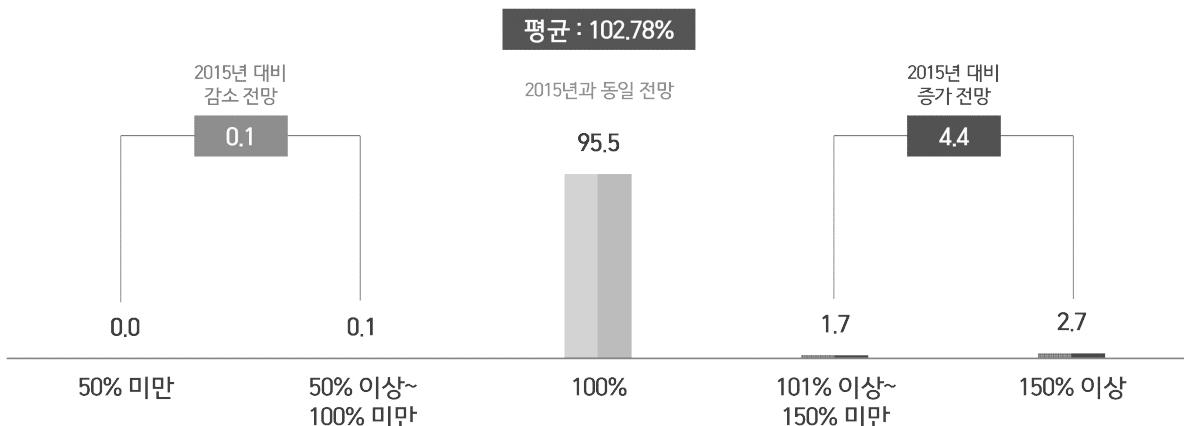
8-2) 2016년 디자이너 고용 전망

» 2015년 대비 2016년 디자이너 고용 전망은 102.78% 수준으로 디자이너의 고용은 2015년에 비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범주별로 살펴보면, '2015년과 동일 전망'이 95.5%를 차지했고, '2015년 대비 증가 전망'(100%초과)은 4.4%, '2015년 대비 감소 전망'(100%미만)은 0.1%로 나타남.

2016년 디자이너 고용전망

(단위: %)



» 업종별로 살펴보면, 모든 업종에서 2016년 디자이너 고용 증가를 전망하는 가운데, 그 중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업(111.14%), 시각디자인업(107.89%)의 디자이너 고용 증가폭이 클 것으로 전망함. 한편, 서비스/경험디자인업과 산업공예디자인업은 100%로 2015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함.

▣ 업종별 2016년 디자이너 고용전망

(단위: %)

구분	50% 이상~100% 미만	100%	100% 이상~150% 미만	150% 이상	평균
활용업체	0.1	95.5	1.7	2.7	102.78
업종별	제품디자인	0.0	95.6	2.3	102.78
	시각디자인	0.9	85.4	5.7	107.89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0.0	81.8	5.5	111.14
	공간디자인	0.0	95.4	1.0	103.42
	패션/텍스타일디자인	0.0	89.5	5.8	105.73
	서비스/경험디자인	0.0	100.0	0.0	100.00
	산업공예디자인	0.0	100.0	0.0	100.00
	디자인인프라	0.0	99.6	0.4	100.07

- » 권역별로 살펴보면, 모든 권역에서 긍정적인 디자이너 고용 전망이 나타난 가운데, 특히 서울(103.77%)과 대구/경북(103.71%)이 다른 권역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 규모별로는 중견기업(96.57%)에서는 디자이너 고용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 반면, 나머지 규모의 기업들에서는 디자이너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디자이너 고용 증가 전망은 중기업(103.08%), 소기업(102.84%), 대기업(100.81%)의 순으로 나타남.
- » 디자인 개발 외주 용역별 디자이너 고용전망 역시 긍정적이며, 외주용역이 있는 업체(101.86%)가 외주용역이 없는 업체(102.95%)보다 더 낮은 전망치를 보임.

권역별/규모별/외주여부별 2016년 디자이너 고용전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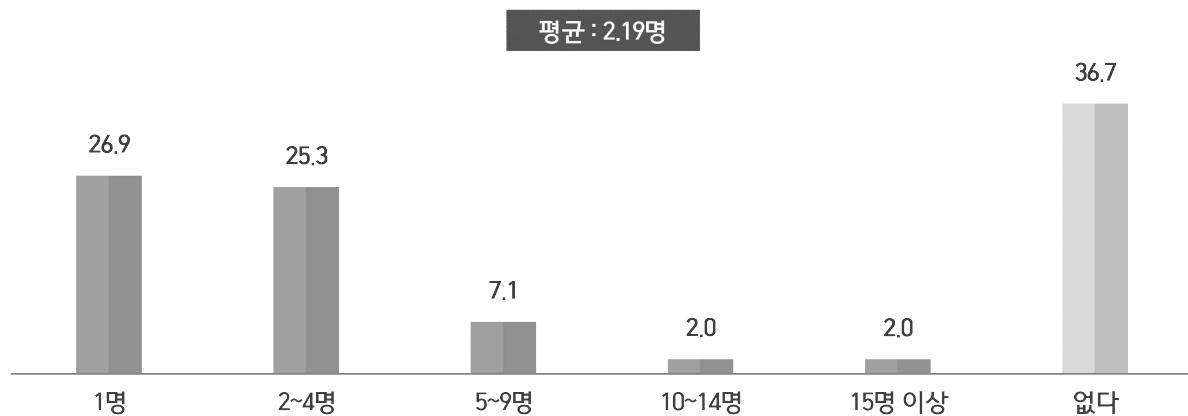
구분		50% 이상~ 100% 미만	100%	100% 이상~ 150% 미만	150% 이상	평균
활용업체		0.1	95.5	1.7	2.7	102.78
권 역 별	서울	0.2	94.2	1.7	3.9	103.77
	부산/울산/경남	0.0	97.8	1.0	1.2	101.66
	대구/경북	0.0	91.9	6.2	1.8	103.71
	인천/경기	0.0	97.0	1.1	1.9	102.06
	광주/전라	0.0	98.6	0.0	1.4	100.72
	대전/충청	0.0	96.8	0.1	3.1	101.58
	강원/제주	0.0	91.8	8.2	0.0	102.45
규 모 별	대기업	0.6	94.5	2.6	0.6	100.81
	중견기업	6.9	93.1	0.0	0.0	96.57
	중기업	0.0	96.6	1.0	2.4	103.08
	소기업	0.0	95.4	1.8	2.8	102.84
외 주	외주용역 있음	0.0	96.9	1.3	1.6	101.86
	외주용역 없음	0.1	95.2	1.8	2.9	102.95

8-3) 2016년 디자이너 고용자 수 전망

- » 디자인활용업체의 2016년 디자이너 고용자 수는 평균 2.19명으로 전망됨. 세부 항목별로는 '없다'가 36.7%로 가장 높았고, '1명'(26.9%), '2~4명'(25.3%), '5~9명'(7.1%) 등의 순으로 나타남.

2016년 디자이너 고용자 수 전망

(단위: %)



- » 업종별로 살펴보면, 공간디자인업에서 5.02명으로 디자이너 고용자 수 전망이 가장 높았으며, 디자인인프라업에서 1.06명으로 디자이너 고용 전망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업종별 2016년 디자이너 고용자 수 전망

(단위: %)

구분		1명	2~4명	5~9명	10~14명	15명 이상	없다	평균(명)
활용업체		26.9	25.3	7.1	2.0	2.0	36.7	2.19
업종별	제품디자인	35.3	29.4	5.1	1.0	1.1	27.9	1.89
	시각디자인	20.3	31.5	10.3	3.4	0.7	33.8	2.16
	디지털/미디어	13.6	44.2	7.2	0.9	1.1	33.2	2.12
	공간디자인	37.2	34.3	15.3	5.1	6.4	1.8	5.02
	패션/텍스타일	36.5	27.7	7.1	1.4	1.6	25.9	2.33
	서비스/경험	25.8	21.4	5.2	1.3	2.4	43.8	1.76
	산업공예디자인	19.9	25.7	4.2	0.8	0.1	49.3	1.25
	디자인인프라	21.0	15.7	3.8	1.2	0.2	58.1	1.06

- » 권역별로 살펴보면, 서울(2.82명), 대구/경북(2.07명), 광주/전라(2.04명)에서 높게 나타났고, 대전/충청(1.27명)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전망치를 보임. 규모별로 살펴보면, 기업 규모에 따라 디자이너 고용자 수 역시 높게 전망되었으며, 대기업의 디자이너 고용자 수는 11.07명으로 전망됨.

▣ 권역별/규모별/외주여부별 2016년 디자이너 고용자 수 전망

(단위: %)

구분		1명	2~4명	5~9명	10~14명	15명 이상	없다	평균(명)
활용업체		26.9	25.3	7.1	2.0	2.0	36.7	2.19
권 역 별	서울	23.0	28.5	10.7	2.3	3.1	32.5	2.82
	부산/울산/경남	24.2	16.0	4.0	2.1	2.5	51.2	1.76
	대구/경북	26.7	16.3	5.9	5.4	1.2	44.6	2.07
	인천/경기	28.5	28.0	6.6	0.7	0.7	35.5	1.70
	광주/전라	34.9	22.2	1.9	1.4	2.3	37.3	2.04
	대전/충청	38.2	28.8	0.2	1.1	0.0	31.6	1.27
	강원/제주	41.6	21.2	0.0	2.6	0.5	34.1	1.43
규 모 별	대기업	10.7	13.3	4.7	3.8	12.7	53.9	11.07
	중견기업	15.0	10.7	9.6	10.1	17.6	37.0	9.93
	중기업	20.7	13.4	8.1	1.6	4.0	52.1	2.33
	소기업	28.3	27.7	6.9	2.0	1.3	33.8	1.95
외 주	외주용역 있음	13.9	6.3	0.7	0.9	0.6	77.6	0.65
	외주용역 없음	38.5	42.4	12.8	3.0	3.3	0.0	3.57

9) 2017년 재무 및 투자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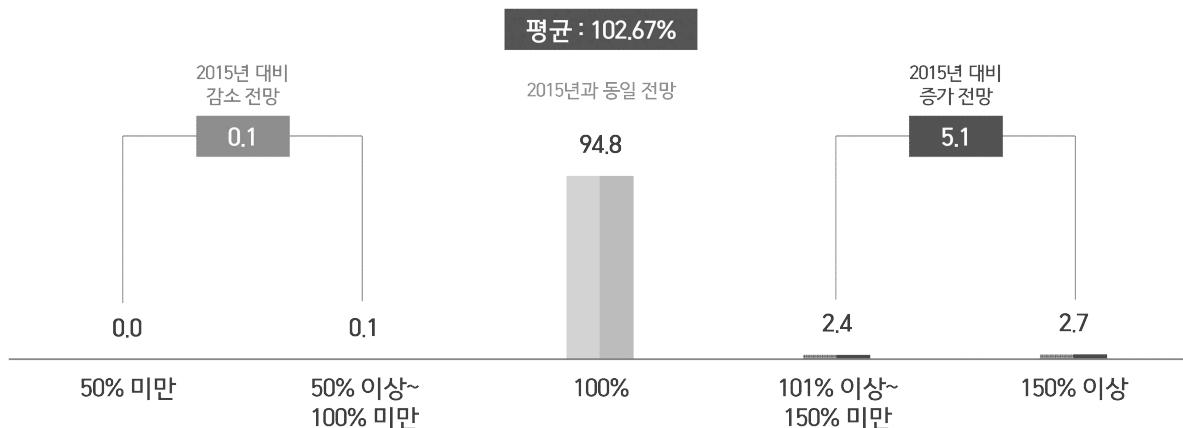
9-1) 2017년 디자인 투자금액 전망

» 2015년 대비 2017년 디자인투자금액 전망^⑫은 평균 102.67% 수준으로 2015년 대비 투자금액 증가를 전망함.

범주별로는, '2015년과 동일할 것이다'는 전망(100%)이 94.8%로 가장 높은 가운데, '2015년 대비 증가 전망'(100% 초과)은 5.1%, '2015년 대비 감소 전망'(100% 미만)은 0.1%로 나타남.

2017년 디자인 투자금액 전망

(단위: %)



» 업종별로 살펴보면, 모든 업종에서 2017년 디자인 투자금액 증가를 전망한 가운데, 특히 디지털/미디어디자인업(116.70%), 시각디자인업(107.85%), 제품디자인업(102.0%)이 다른 업종 대비 2017년 디자인투자금액의 증가폭이 클 것으로 전망됨. 한편, 서비스/경험디자인업과 산업공예 디자인업은 100%로 2015년 대비 디자인 투자금액이 동일할 것으로 전망함.

▣ 업종별 2017년 디자인 투자금액 전망

(단위: %)

구분	50% 이상~100% 미만	100%	100% 이상~150% 미만	150% 이상	평균
업종별 활용업체	활용업체	0.1	94.8	2.4	102.67
	제품디자인	0.0	96.9	1.6	102.00
	시각디자인	1.8	84.9	6.1	107.85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0.0	61.4	23.7	116.70
	공간디자인	0.0	93.2	1.0	104.63
	패션/텍스타일디자인	0.0	92.1	4.0	103.13
	서비스/경험디자인	0.0	100.0	0.0	100.00
	산업공예디자인	0.0	100.0	0.0	100.00
	디자인인프라	0.0	98.2	1.4	100.62

⑫ 2015년과 같으면 100%, 2015년 보다 증가하면 100%초과, 2015년 보다 감소하면 100% 미만으로 작성
예를 들어 2015년의 절반 수준이면 50%, 2배 증가했으면 200% 등으로 작성

- » 권역별로는 모든 권역에서 디자인 투자금액의 증가를 전망한 가운데, 특히 대구/경북(104.02%)과 서울(103.51%)이 다른 권역 대비 긍정적인 전망을 한 것으로 나타남. 규모별로 살펴보면, 2017년 디자인 투자전망은 업체 규모에 반비례하여 소기업(102.72%), 중기업(102.57%), 중견기업(102.37%), 대기업(100.96%) 순으로 나타남.

▣ 권역별/규모별/외주여부별 2017년 디자인 투자금액 전망

(단위: %)

구분		50% 이상~100% 미만	100%	100% 이상~150% 미만	150% 이상	평균
활용업체		0.1	94.8	2.4	2.7	102.67
권 역 별	서울	0.2	93.4	2.7	3.7	103.51
	부산/울산/경남	0.0	98.9	0.5	0.6	100.94
	대구/경북	0.0	94.0	3.4	2.6	104.02
	인천/경기	0.2	94.5	2.9	2.4	102.35
	광주/전라	0.0	97.0	0.9	2.1	101.58
	대전/충청	0.0	95.8	2.1	2.1	101.47
	강원/제주	0.0	94.6	5.4	0.0	101.62
규 모 별	대기업	0.3	97.0	0.4	1.5	100.96
	중견기업	8.4	80.5	3.3	7.9	102.37
	중기업	0.3	96.4	0.6	2.6	102.57
	소기업	0.0	94.7	2.7	2.6	102.72
외 주	외주용역 있음	0.1	96.5	2.3	1.1	101.52
	외주용역 없음	0.2	93.2	2.5	4.1	103.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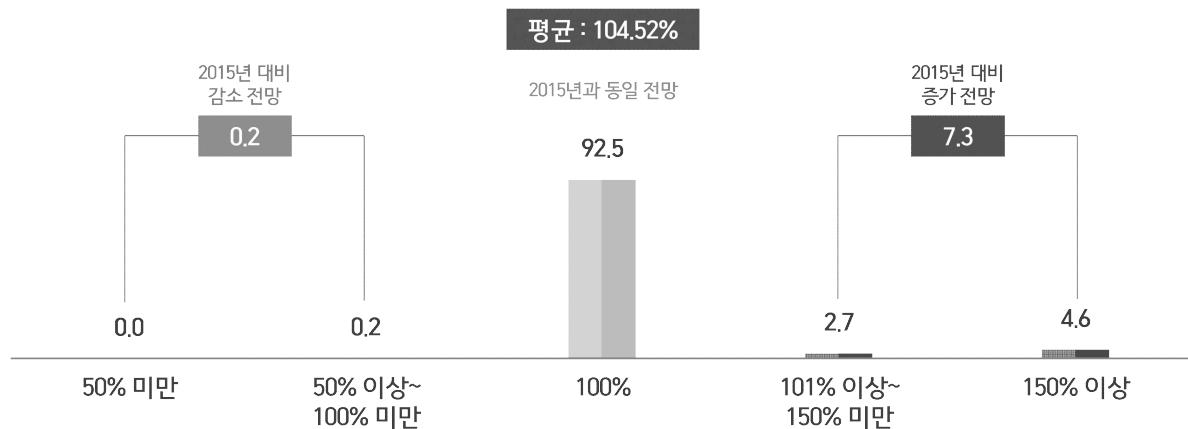
9-2) 2017년 디자이너 고용 전망

» 2015년 대비 2017년 디자이너 고용 전망은 104.52% 수준으로 2015년에 비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범주별로는 '2015년과 동일 전망'이 92.5%를 차지했고, '2015년 대비 증가 전망'(100% 초과)은 7.3%, '2015년 대비 감소 전망'(100% 미만)은 0.2%로 나타남.

2017년 디자이너 고용전망

(단위: %)



» 업종별로 살펴보면, 모든 분야에서 디자이너 고용 증가를 전망하는 가운데, 특히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업(118.6%)에서 가장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한편, 산업공예디자인업의 경우 100%의 전망치로 2015년의 디자이너 고용과 같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업종별 2017년 디자이너 고용전망

(단위: %)

	구분	50% 이상~100% 미만	100%	100% 이상~150% 미만	150% 이상	평균
업종별	활용업체	0.2	92.5	2.7	4.6	104.52
	제품디자인	0.0	95.6	2.3	2.0	102.8
	시각디자인	1.9	81.1	8.1	9.0	108.8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0.0	79.8	7.5	12.7	118.6
	공간디자인	0.0	89.7	1.9	8.4	106.2
	패션/텍스타일디자인	0.0	90.8	6.0	3.1	103.8
	서비스/경험디자인	0.0	97.8	2.2	0.0	100.4
	산업공예디자인	0.0	100.0	0.0	0.0	100.0
	디자인인프라	0.0	96.0	0.4	3.6	103.7

- » 권역별로 살펴보면, 모든 권역에서 긍정적인 디자이너 고용 전망이 나타난 가운데, 특히 인천/경기(105.6%), 서울(105.2%)에서 다른 권역 대비 긍정적으로 전망됨.
- 규모별 결과 역시 모두 긍정적 전망으로 나타났으며, 2017년 디자인 투자전망은 중기업(104.9%), 소기업(104.5%), 중견기업(103.4%), 대기업(103.2%)의 순을 보임.
- 디자인 개발 외주 여부와 관계없이 디자이너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권역별/규모별/외주여부별 2017년 디자이너 고용전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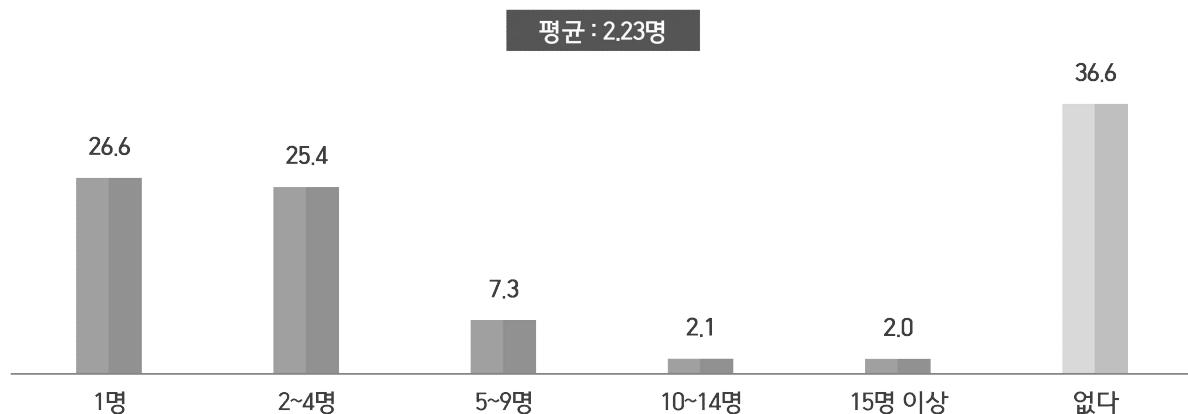
구분		50% 이상~100% 미만	100%	100% 이상~150% 미만	150% 이상	평균
활용업체		0.2	92.5	2.7	4.6	104.52
권 역 별	서울	0.2	91.5	3.7	4.6	105.2
	부산/울산/경남	0.0	96.1	1.0	2.9	102.9
	대구/경북	0.0	91.8	6.4	1.8	103.7
	인천/경기	0.4	91.9	1.1	6.7	105.6
	광주/전라	0.0	93.5	1.0	5.6	102.9
	대전/충청	0.0	96.8	0.1	3.1	101.6
	강원/제주	0.0	91.8	8.2	0.0	102.5
규 모 별	대기업	0.6	87.9	5.4	4.3	103.2
	중견기업	6.9	80.7	6.2	6.2	103.4
	중기업	0.7	93.0	1.0	5.3	104.9
	소기업	0.0	92.7	2.8	4.5	104.5
외 주	외주용역 있음	0.0	94.3	3.0	2.5	103.3
	외주용역 없음	0.2	92.2	2.6	5.0	104.7

9-3) 2017년 디자이너 고용자 수 전망

- » 디자인활용업체의 2017년 디자이너 고용자 수는 평균 2.23명으로 전망됨. 항목별로는 '없다'가 36.6%로 가장 높았고, '1명'(26.6%), '2~4명'(25.4%), '5~9명'(7.3%) 등의 순으로 나타남.

2017년 디자이너 고용 전망

(단위: %)



- » 업종별로 살펴보면, 2017년 디자이너 고용자 수 전망은 공간디자인업에서 5.19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패션/텍스타일디자인업(2.29명), 디지털/미디어디자인업(2.20명), 시각디자인업(2.19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업종별 2017년 디자이너 고용자 수 전망

(단위: %)

구분		1명	2~4명	5~9명	10~14명	15명 이상	없다	평균(명)
활용업체		26.6	25.4	7.3	2.1	2.0	36.6	2.23
업종별	제품디자인	35.3	29.4	5.1	1.0	1.1	27.9	1.89
	시각디자인	20.3	30.9	10.3	3.4	0.7	34.4	2.19
	디지털/미디어	15.0	44.2	7.2	0.9	1.1	31.8	2.20
	공간디자인	36.9	32.1	16.9	5.6	6.7	1.8	5.19
	패션/텍스타일	37.6	28.2	5.4	1.4	1.6	25.9	2.29
	서비스/경험	25.8	21.6	5.2	1.3	2.4	43.7	1.77
	산업공예디자인	19.9	25.7	4.2	0.8	0.1	49.3	1.25
	디자인인프라	19.6	17.1	3.8	1.2	0.2	58.1	1.07

» 권역별로 살펴본 2017년 디자이너 고용자 수 전망은 서울에서 2.86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대전/충청에서 1.26명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전망됨.

규모별로는 업체 규모가 커짐에 따라 고용자 수를 높게 전망한 가운데, 대기업의 2017년 디자이너 고용자 수는 11.48명으로 전망됨.

▣ 권역별/규모별/외주여부별 2017년 디자이너 고용자 수 전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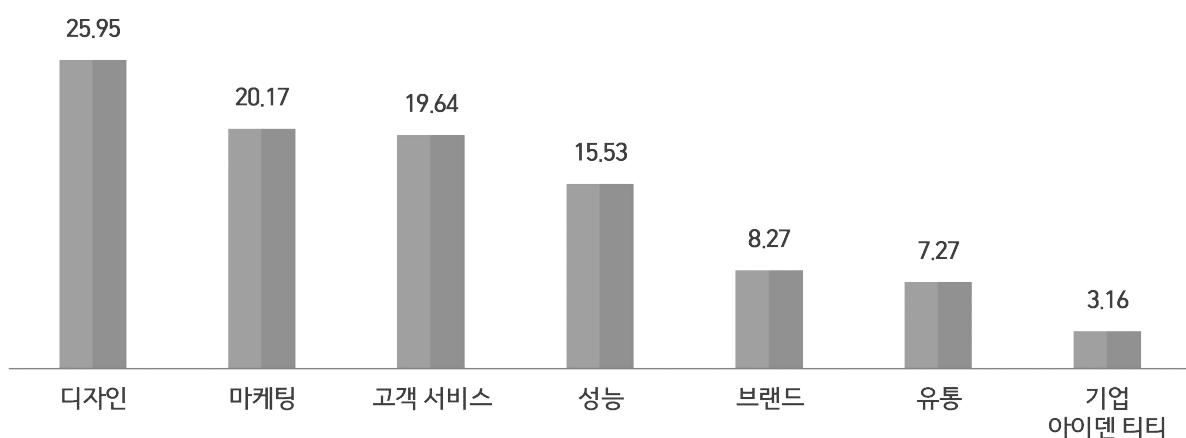
구분		1명	2~4명	5~9명	10~14명	15명 이상	없다	평균(명)
활용업체		26.6	25.4	7.3	2.1	2.0	36.6	2.23
권 역 별	서울	23.0	28.5	10.9	2.1	3.2	32.3	2.86
	부산/울산/경남	24.2	15.2	4.8	2.1	2.5	51.2	1.78
	대구/경북	26.7	16.3	5.9	5.4	1.2	44.6	2.07
	인천/경기	26.9	29.2	6.4	1.3	0.7	35.5	1.76
	광주/전라	34.2	20.9	3.2	1.4	2.3	38.0	2.12
	대전/충청	39.4	27.6	0.2	1.1	0.0	31.6	1.26
	강원/제주	41.6	21.2	0.0	2.6	0.5	34.1	1.43
규 모 별	대기업	10.7	15.7	5.4	3.8	12.7	50.8	11.48
	중견기업	15.0	6.8	13.6	10.1	17.6	37.0	10.40
	중기업	20.4	13.4	7.8	1.6	4.4	52.5	2.38
	소기업	28.0	27.8	7.1	2.1	1.3	33.7	1.98
외 주	외주용역 있음	13.9	6.3	0.7	0.9	0.6	77.5	0.68
	외주용역 없음	37.9	42.4	13.1	3.2	3.3	0.0	3.63

10) 제품판매 영향 요소별 비중

- » 제품판매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별 비중을 살펴보면, '디자인'이 25.95%로 가장 높고, 다음은 '마케팅'(20.17%), '고객서비스'(19.64%), '성능'(15.53%) 등의 순으로 나타남.

제품판매 영향 요소별 비중

(단위: %)



- » 업종별로는 '디자인'의 비중은 패션/텍스타일디자인업(36.38%),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업(34.87%)에서 높고, 다음은 공간디자인(29.87%), 시각디자인(27.27%) 등의 순으로 나타남. '마케팅'의 경우 디자인인프라(32.06%), '고객서비스'의 경우 서비스/경험디자인(38.28%)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업종별 제품판매 영향 요소별 비중

(단위: %)

구분	디자인	마케팅	고객서비스	성능	브랜드	유통	기업 아이덴 티티
활용업체	25.95	20.17	19.64	15.53	8.27	7.27	3.16
업 종 별	제품디자인	25.17	17.58	8.17	32.09	8.21	7.85
	시각디자인	27.27	24.98	12.55	7.38	7.60	14.15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34.87	30.12	20.26	2.44	0.61	9.91
	공간디자인	29.87	13.99	26.28	14.36	5.31	6.23
	패션/텍스타일디자인	36.38	10.37	5.08	15.16	24.55	6.06
	서비스/경험디자인	23.47	11.97	38.28	11.97	6.54	6.60
	산업공예디자인	22.04	13.74	5.64	44.87	2.27	11.44
	디자인인프라	23.01	32.06	12.23	10.92	11.25	5.18

- » 권역별로 살펴보면, '디자인' 비중은 서울(29.87%)에서 가장 높고, 다음은 인천/경기(24.77%), 대전/충청(23.73%), 부산/울산/경남(23.06%) 등의 순으로 높음.
- » 규모별 '디자인' 요소 비중은 소기업(26.34%), 대기업(25.40%), 중기업(24.37%)은 25% 내외로 나타났으나, 중견기업의 경우 17.95%로 상대적으로 낮음.
- » 디자이너를 고용한 업체(30.97%)의 '디자인' 요소 비중이 더욱 높게 나타난 반면, 디자인 외주 용역을 주는 업체(20.37%)의 '디자인' 비중은 낮게 나타남.

권역별/규모별/고용별/외주여부별 제품판매 영향 요소별 비중

(단위: %)

구분		디자인	마케팅	고객서비스	성능	브랜드	유통	기업 아이덴 티티
활용업체		25.95	20.17	19.64	15.53	8.27	7.27	3.16
권 역 별	서울	29.87	17.68	18.55	13.51	8.87	8.05	3.48
	부산/울산/경남	23.06	25.61	17.54	14.41	9.80	6.83	2.74
	대구/경북	20.89	32.75	16.63	15.51	6.17	5.85	2.20
	인천/경기	24.77	15.79	19.38	20.23	8.37	7.62	3.84
	광주/전라	21.63	28.63	24.16	13.66	5.10	4.92	1.89
	대전/충청	23.73	17.46	27.73	15.35	7.33	6.30	2.11
	강원/제주	18.21	15.04	27.41	19.00	9.26	7.66	3.42
규 모 별	대기업	25.40	14.35	24.22	20.50	7.05	7.62	0.86
	중견기업	17.95	18.35	25.72	18.54	6.17	9.02	4.25
	중기업	24.37	17.48	27.47	14.07	9.03	5.84	1.74
	소기업	26.34	20.73	18.15	15.68	8.18	7.49	3.42
고 용	디자이너 고용	30.97	17.29	18.66	15.20	7.55	7.07	3.26
	디자이너 비고용	17.50	25.02	21.30	16.10	9.46	7.62	2.99
외 주	외주용역 있음	20.37	22.75	21.19	16.15	9.27	7.40	2.87
	외주용역 없음	30.96	17.86	18.25	14.98	7.37	7.16	3.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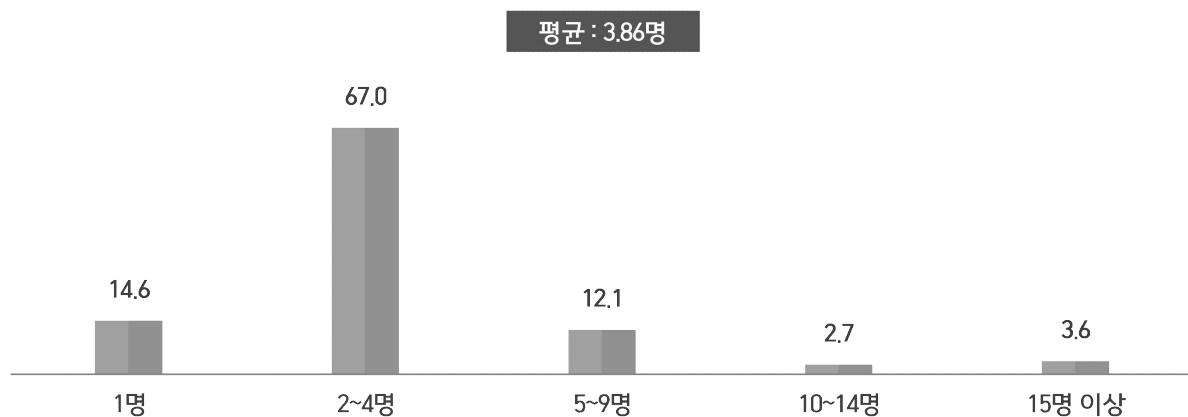
3 디자인 인력

1) 적정 디자이너 수

- » 디자인활용업체 내 적정 디자이너 수는 평균 '3.86명'으로 나타남. 범주별로는 67.0%가 '2~4명'으로 나타났고, 다음은 '1명'(14.6%), '5~9명'(12.1%), '15명 이상'(3.6%), '10~14명'(2.7%)의 순으로 나타남.

디자인활용업체 적정 디자이너 수

(단위: %)



- » 업종별 적정 디자이너 수를 살펴본 결과, 디자인인프라업에서 평균 4.79명의 디자이너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시각디자인업(4.29명), 서비스/경험디자인업(4.27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반면, 공간디자인업(2.82명)에서 적정 디자이너 수의 평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업종별 적정 디자이너 수

(단위: %)

구분	1명	2~4명	5~9명	10~14명	15명 이상	평균(명)
활용업체	14.6	67.0	12.1	2.7	3.6	3.86
업종별	제품디자인	0.0	85.9	11.0	0.8	3.71
	시각디자인	0.0	70.0	22.6	4.3	4.29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0.0	75.0	22.1	1.3	4.13
	공간디자인	55.0	33.2	5.8	2.7	2.82
	패션/텍스타일디자인	0.0	81.7	12.7	2.7	4.17
	서비스/경험디자인	0.0	80.6	12.0	0.9	4.27
	산업공예디자인	0.0	79.3	18.4	2.2	3.51
	디자인인프라	0.0	77.2	13.6	5.7	4.79

- » 권역별 적정 디자이너 수는 서울(4.69명)과 대구/경북(4.59명)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강원/제주(2.28명)에서 가장 낮게 나타남.
- » 규모별로는, 기업 규모가 커짐에 따라 적정 디자이너 수가 높아지는 결과를 보인 가운데, 대기업 적정 디자이너 수는 평균 23.61명으로 높게 나타남. 그 외 중견기업은 15.45명, 중기업은 5.42명, 소기업은 3.33명의 적정 디자이너 수를 보임.
- » 외주여부별로는 외주용역이 있는 업체(4.27명)가 외주용역이 없는 업체(3.78명)보다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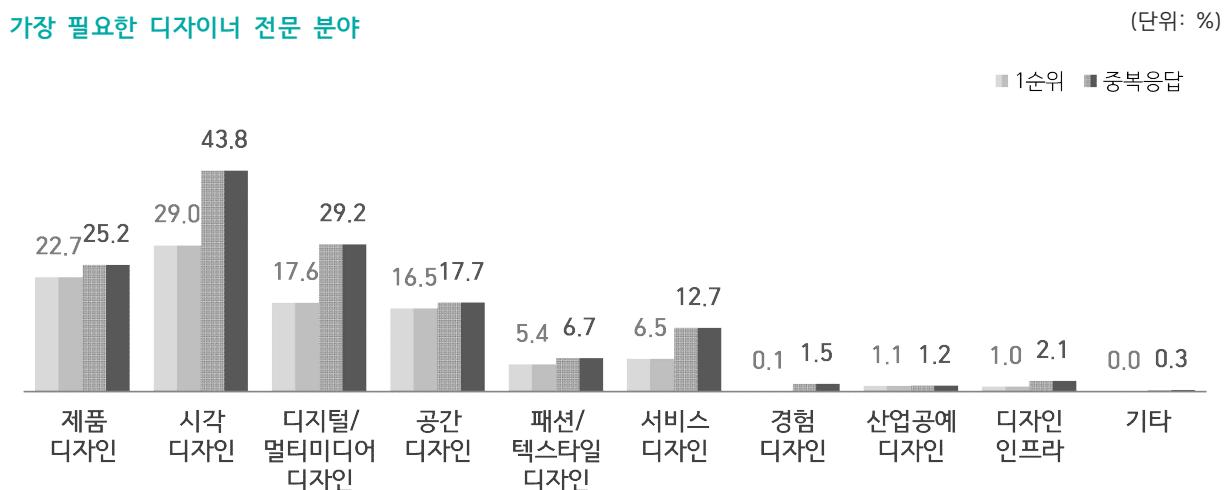
권역별/규모별/외주여부별 적정 디자이너 수

(단위: %)

구분		1명	2~4명	5~9명	10~14명	15명 이상	평균(명)
권 역 별	활용업체	14.6	67.0	12.1	2.7	3.6	3.86
	서울	7.5	66.4	17.2	4.0	5.0	4.69
	부산/울산/경남	28.8	56.3	9.2	1.7	4.0	3.08
	대구/경북	10.2	66.1	11.6	3.9	8.1	4.59
	인천/경기	13.3	75.2	9.2	1.4	0.8	3.17
	광주/전라	33.5	57.7	6.0	0.8	2.0	2.79
	대전/충청	23.6	72.8	1.7	1.0	1.0	2.57
규 모 별	강원/제주	40.6	54.7	3.9	0.0	0.8	2.28
	대기업	2.2	45.8	14.9	7.0	30.1	23.61
	중견기업	0.0	40.8	8.4	12.7	38.2	15.45
	중기업	5.2	59.5	17.7	9.6	7.9	5.42
외 주	소기업	16.1	68.5	11.4	1.6	2.3	3.33
	외주용역 있음	5.3	79.2	8.4	0.7	6.3	4.27
	외주용역 없음	16.4	64.7	12.8	3.0	3.1	3.78

2) 가장 필요한 디자이너 전문 분야

- » 2015년에 가장 필요한 디자이너 전문 분야를 살펴본 결과(중복응답 기준), 시각디자인(43.8%),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29.2%), 제품디자인(25.2%) 등의 순으로 나타남. 1순위 결과 역시 시각디자인(29.0%)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제품디자인(22.7%),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17.6%) 등이 뒤를 이음.



- » 업종별로는, ‘시각디자인’ 분야의 경우 시각디자인업(88.8%), 서비스/경험디자인업(70.6%)에서 가장 높았으며,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분야는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업(94.3%), 서비스/경험 디자인업(77.3%)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업종별 가장 필요한 디자이너 전문 분야

(단위: %, 중복응답)

구분	제품 디자인	시각 디자인	디지털/멀티 미디어 디자인	공간 디자인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서비스 디자인	경험 디자인	산업공예 디자인	디자인 인프라	기타
활용업체	25.2	43.8	29.2	17.7	6.7	12.7	1.5	1.2	2.1	0.3
업종별	제품디자인	76.7	22.7	11.2	0.0	0.0	0.0	0.0	0.0	0.1
	시각디자인	16.5	88.8	32.9	15.8	0.0	2.5	0.8	0.0	4.0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0.0	36.1	94.3	1.4	2.8	0.0	0.0	1.4	0.0
	공간디자인	11.9	1.8	16.6	88.6	0.0	14.4	6.3	0.6	4.0
	패션/텍스타일디자인	14.5	0.1	0.0	0.1	99.9	0.0	0.0	0.0	0.0
	서비스/경험디자인	0.0	70.6	77.3	0.2	0.0	25.7	0.0	1.0	0.0
	산업공예디자인	55.7	33.8	2.3	3.9	13.7	0.0	4.4	9.2	0.3
	디자인인프라	33.6	54.8	4.0	3.9	4.9	16.0	0.7	1.4	4.2

- » 권역별로는 대전/충청과 강원/제주를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시각디자인’ 분야가 가장 필요한 분야로 나타났으며, 대전/충청과 강원/제주는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분야가 1순위로 나타남.
- » 규모별로 살펴보면, 모든 규모의 업체에서 ‘시각디자인’이 가장 필요한 분야인 것으로 나타남.

권역별/규모별/고용별/외주여부별 가장 필요한 디자이너 전문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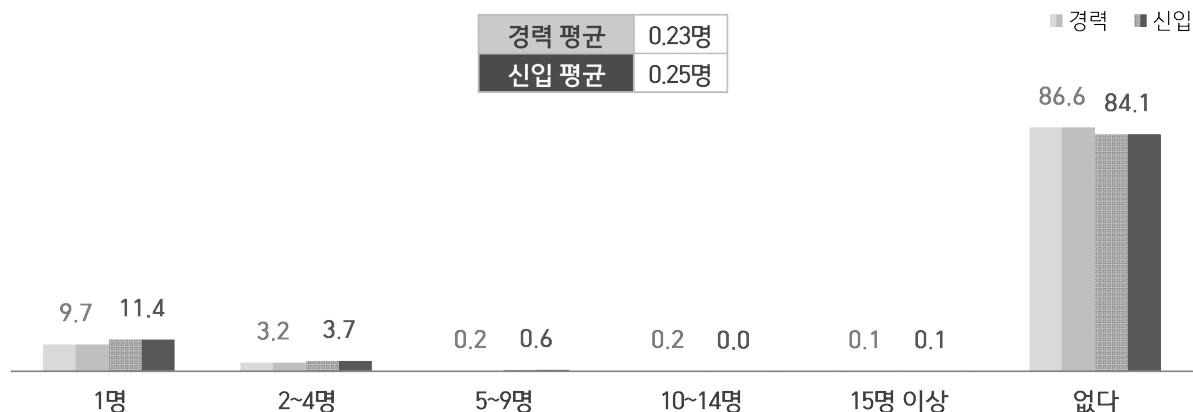
(단위: %, 중복응답)

구분		제품 디자인	시각 디자인	디지털/ 멀티 미디어 디자인	공간 디자인	패션/ 텍스타일 디자인	서비스 디자인	경험 디자인	산업공예 디자인	디자인 인프라	기타
활용업체		25.2	43.8	29.2	17.7	6.7	12.7	1.5	1.2	2.1	0.3
권 역 별	서울	21.6	46.8	29.5	16.7	9.3	11.9	1.5	1.5	1.7	0.3
	부산/울산/경남	27.4	48.9	22.7	23.3	3.1	11.7	1.2	0.1	5.5	0.0
	대구/경북	23.2	52.9	33.7	10.5	2.5	13.0	2.1	0.0	4.7	0.1
	인천/경기	36.6	35.7	25.0	15.2	7.3	8.3	0.8	1.5	0.7	0.3
	광주/전라	19.9	41.6	26.8	24.0	2.2	19.8	2.8	1.3	0.6	0.0
	대전/충청	18.2	38.5	45.5	18.6	6.3	21.6	1.8	2.0	1.8	2.1
	강원/제주	2.8	32.5	48.3	38.7	0.0	27.8	4.8	0.0	5.5	0.0
규 모 별	대기업	16.8	67.5	47.6	10.2	2.5	14.0	1.0	0.0	0.3	1.3
	중견기업	16.6	48.1	33.3	14.7	2.7	22.8	0.0	0.0	3.9	0.0
	중기업	21.2	49.6	37.5	7.3	5.4	24.3	0.7	0.2	1.3	0.0
	소기업	26.1	42.5	27.5	19.6	7.0	10.5	1.7	1.4	2.3	0.4
고 용	디자이너 고용	26.3	31.0	29.5	26.8	6.8	14.9	2.2	1.1	2.5	0.5
	디자이너 비고용	23.2	65.5	28.7	2.2	6.4	8.9	0.4	1.4	1.5	0.0
외 주	외주용역 있음	23.4	63.9	30.8	3.6	6.2	10.1	0.7	1.1	2.5	0.4
	외주용역 없음	26.8	25.9	27.8	30.3	7.1	15.0	2.3	1.3	1.8	0.3

3) 2015년 신규 채용한 디자이너 수(경력/신입)

- » 디자이너 고용 디자인활용업체가 2015년 신규 채용한 경력 디자이너 수는 평균 0.23명, 신입 디자이너 수는 평균 0.25명으로 나타남.

2015년 신규 채용한 디자이너 수(경력/신입) (단위: %)



- » 업종별 신규 채용한 경력 디자이너 수 평균은 시각디자인업(0.43명)과 공간디자인업(0.36명), 패션/텍스타일디자인업(0.34명)에서 가장 높은 반면, 디자인인프라업(0.07명), 산업공예디자인업(0.06명)에서 가장 낮았음.
한편, 신규 신입 디자이너 수 평균 역시 시각디자인업(0.44명), 공간디자인업(0.41명)에서 가장 높은 반면, 디자인인프라업에서 0.07명으로 가장 낮았음.

▣ 업종별 2015년 신규 채용한 디자이너 수(경력/신입)

(단위: %)

구분	경력							신입							
	1명	2~4명	5~9명	10~14명	15명 이상	없다	평균(명)	1명	2~4명	5~9명	10~14명	15명 이상	없다	평균(명)	
활용업체	9.7	3.2	0.2	0.2	0.1	86.6	0.23	11.4	3.7	0.6	0.0	0.1	84.1	0.25	
업종별	제품디자인	5.8	1.7	0.0	0.0	0.0	92.3	0.11	9.0	1.8	0.0	0.1	0.0	89.0	0.15
	시각디자인	17.4	4.3	0.9	1.1	0.0	76.4	0.43	26.8	7.8	0.0	0.0	0.0	65.5	0.44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5.5	0.2	0.0	0.0	0.0	94.3	0.06	18.1	0.3	0.0	0.0	0.0	81.6	0.19
	공간디자인	8.4	5.3	0.3	0.5	0.5	85.0	0.36	11.3	7.5	0.8	0.0	0.5	79.9	0.41
	패션/텍스타일디자인	14.4	5.9	0.7	0.0	0.1	78.9	0.34	14.1	1.8	0.2	0.1	0.0	83.8	0.21
	서비스/경험디자인	14.0	3.8	0.0	0.0	0.0	82.2	0.22	9.5	2.5	1.8	0.0	0.0	86.2	0.24
	산업공예디자인	5.5	0.0	0.0	0.0	0.0	94.5	0.06	17.3	1.6	0.0	0.0	0.0	81.1	0.20
	디자인인프라	6.5	0.4	0.0	0.0	0.0	93.0	0.07	4.2	0.9	0.0	0.1	0.0	94.8	0.07

- » 권역별 신규 디자이너 수는 경력의 경우, 부산/울산/경남(0.37명)과 서울(0.33명)에서 가장 높았고, 광주/전라(0.05명)에서 가장 낮게 나타남. 신입의 경우, 서울에서 0.34명으로 가장 많은 반면, 대전/충청과 강원/제주는 0.07명으로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남.
- » 규모별로 살펴보면, 기업 규모가 커짐에 따라 신규 채용 디자이너 수가 높게 나타남. 경력 디자이너는 대기업에서 1.36명, 소기업에서 0.21명의 차이를 보임. 신입 디자이너는 대기업(1.32명), 중견기업(1.24명), 중기업(0.25명), 소기업(0.23명)의 순으로 나타남.

권역별/규모별/외주여부별 2015년 신규 채용한 디자이너 수(경력/신입)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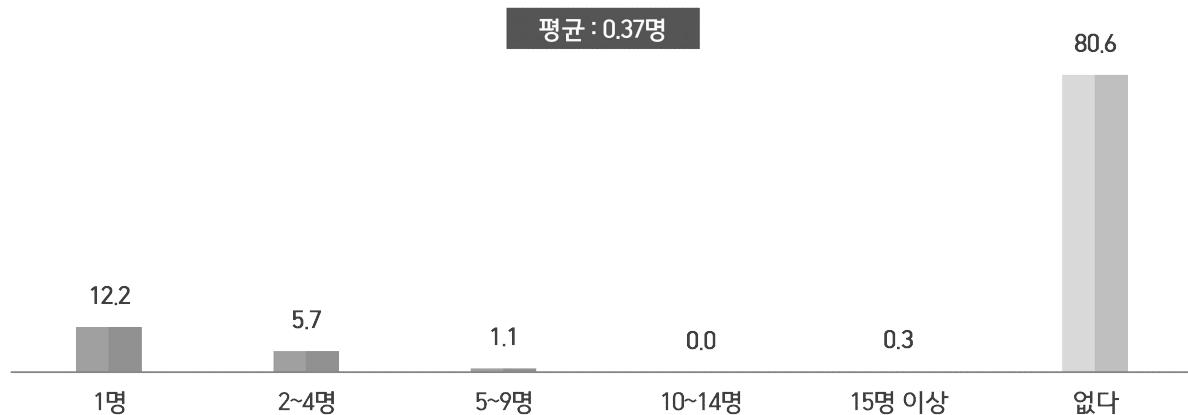
구분		경력							신입						
		1명	2~4명	5~9명	10~14명	15명 이상	없다	평균(명)	1명	2~4명	5~9명	10~14명	15명 이상	없다	평균(명)
활용업체		9.7	3.2	0.2	0.2	0.1	86.6	0.23	11.4	3.7	0.6	0.0	0.1	84.1	0.25
권역별	서울	13.0	4.7	0.3	0.2	0.3	81.6	0.33	12.2	5.4	0.8	0.1	0.3	81.2	0.34
	부산/울산/경남	10.1	5.1	0.0	1.4	0.0	83.4	0.37	11.5	1.4	1.4	0.0	0.0	85.7	0.22
	대구/경북	18.7	2.0	0.0	0.0	0.0	79.3	0.23	21.1	1.1	0.1	0.0	0.0	77.8	0.25
	인천/경기	6.4	1.0	0.0	0.0	0.0	92.6	0.09	12.3	3.6	0.0	0.0	0.0	84.1	0.21
	광주/전라	0.0	2.1	1.0	0.0	0.0	97.0	0.09	1.1	4.0	1.0	0.0	0.0	93.9	0.14
	대전/충청	2.3	0.0	0.0	0.0	0.1	97.6	0.05	5.8	0.0	0.0	0.1	0.0	94.1	0.07
	강원/제주	0.4	6.2	0.0	0.0	0.0	93.4	0.13	4.9	0.8	0.0	0.0	0.0	94.4	0.07
규모별	대기업	30.8	11.7	2.3	0.6	2.3	50.6	1.36	16.1	11.5	2.9	4.4	1.1	62.3	1.32
	중견기업	10.3	9.4	14.1	0.0	0.0	66.2	1.12	14.4	33.7	6.2	0.0	0.0	45.6	1.24
	중기업	15.0	3.7	0.2	0.0	0.0	81.1	0.23	15.7	3.6	0.0	0.0	0.0	80.7	0.25
	소기업	8.8	3.0	0.0	0.3	0.1	87.8	0.21	10.7	3.3	0.6	0.0	0.1	85.3	0.23
외주	외주용역 있음	13.0	2.5	0.9	0.6	0.0	83.0	0.30	6.8	2.9	0.5	0.0	0.0	89.7	0.16
	외주용역 없음	9.0	3.3	0.1	0.2	0.2	87.2	0.22	12.2	3.9	0.6	0.0	0.2	83.1	0.27

4) 2015년 퇴사한 디자이너 수

- » 퇴사 디자이너 수의 평균은 0.37명으로 나타남. 범주별 결과는 '없다'의 비율이 80.6%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1명'(12.2%), '2~4명'(5.7%), '5~9명'(1.1%), '15명 이상'(0.3%)의 순으로 나타남.

퇴사한 디자이너 수

(단위: %)



- » 업종별 퇴사 디자이너 수는 시각디자인업(0.67명), 패션/텍스타일디자인업(0.61명), 공간디자인업(0.55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디자인인프라업은 0.06명으로 가장 적게 나타남.

▣ 업종별 퇴사한 디자이너 수

(단위: %)

구분	1명	2~4명	5~9명	10~14명	15명 이상	없다	평균(명)
활용업체	12.2	5.7	1.1	0.0	0.3	80.6	0.37
업종별	제품디자인	9.2	3.0	1.0	0.0	86.6	0.21
	시각디자인	27.0	11.9	1.8	0.0	59.3	0.67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19.3	0.2	0.2	0.0	80.3	0.20
	공간디자인	8.9	9.5	1.5	0.0	79.0	0.55
	패션/텍스타일디자인	30.6	10.5	0.2	0.4	58.2	0.61
	서비스/경험디자인	11.2	5.3	1.8	0.0	81.7	0.37
	산업공예디자인	17.5	2.4	0.0	0.0	80.1	0.22
	디자인인프라	4.9	0.1	0.1	0.1	94.8	0.06

- » 권역별 퇴사 디자이너 수 평균은 서울에서 0.52명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부산/울산/경남(0.45명)이 뒤를 이음. 퇴사 디자이너 수가 가장 적은 권역은 대전/충청(0.09명)과 강원/제주(0.08명)로 나타남.
- » 규모별로 살펴보면, 기업의 규모에 따라 퇴사 디자이너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대기업의 퇴사 디자이너 수는 평균 2.13명으로 나타남.

권역별/규모별/외주여부별 퇴사한 디자이너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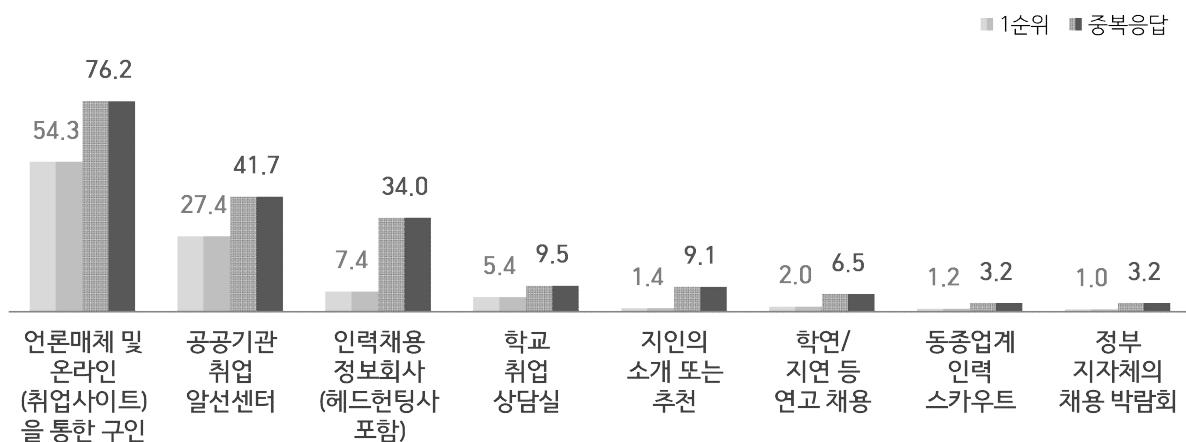
(단위: %)

구분		1명	2~4명	5~9명	10~14명	15명 이상	없다	평균(명)
활용업체		12.2	5.7	1.1	0.0	0.3	80.6	0.37
권 역 별	서울	16.5	7.9	1.6	0.1	0.3	73.5	0.52
	부산/울산/경남	10.0	3.8	0.8	0.0	1.4	83.9	0.45
	대구/경북	10.4	3.8	1.1	0.0	0.0	84.7	0.24
	인천/경기	11.5	4.8	0.3	0.0	0.0	83.4	0.23
	광주/전라	2.6	3.8	2.0	0.0	0.0	91.6	0.24
	대전/충청	4.3	2.3	0.0	0.0	0.0	93.4	0.09
	강원/제주	4.9	0.4	0.4	0.0	0.0	94.4	0.08
규 모 별	대기업	25.3	13.2	10.8	2.7	2.8	43.5	2.13
	중견기업	7.7	28.3	16.4	1.4	0.0	46.2	1.83
	중기업	10.6	10.9	2.8	0.0	0.0	75.7	0.47
	소기업	12.4	4.7	0.6	0.0	0.3	82.1	0.32
외 주	외주용역 있음	17.3	4.2	1.6	0.0	0.0	76.8	0.37
	외주용역 없음	11.3	6.0	1.0	0.0	0.3	81.4	0.37

5) 디자인 인력 채용 경로

» 디자인활용업체의 디자인 인력 채용 경로를 살펴본 결과(중복응답 기준), ‘언론매체 및 온라인을 통한 구인’이 76.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외 ‘공공기관 취업 알선센터’(41.7%), ‘인력채용 정보회사’(34.0%) 등의 순을 보임. 1순위 응답 역시 중복응답과 같은 순위를 보인 가운데, ‘언론매체 및 온라인을 통한 구인’이 54.3%로 나타남.

디자인 인력 채용 경로 (단위: %)



» 업종별 채용 경로를 살펴보면, 모든 업종에서 ‘언론매체 및 온라인을 통한 구인의 비율이 가장 높고, 특히 제품디자인업(98.0%),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업(96.5%)에서 높은 비율을 보임.

▣ 업종별 디자인 인력 채용 경로

(단위: %, 중복응답)

구분		언론매체 및 온라인을 통한 구인	공공기관 취업 알선센터	인력채용 정보회사	학교 취업 상담실	지인의 소개 또는 추천	학연/지연 등 연고 채용	동종업계 인력 스카우트	정부 자체의 채용 박람회
활용업체		76.2	41.7	34.0	9.5	9.1	6.5	3.2	3.2
업종별	제품디자인	98.0	59.8	10.8	2.0	1.6	0.0	0.0	0.0
	시각디자인	93.2	29.8	5.6	2.9	12.8	9.5	0.9	0.8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96.5	51.3	0.0	2.3	3.4	3.3	37.3	2.0
	공간디자인	75.9	51.6	41.8	3.2	13.2	5.5	1.7	0.0
	패션/텍스타일디자인	70.5	39.5	38.0	8.5	11.2	10.9	3.8	8.3
	서비스/경험디자인	66.3	36.6	72.6	7.8	1.7	9.6	1.8	3.6
	산업공예디자인	71.2	18.8	43.8	12.2	12.7	7.0	6.2	2.2
	디자인인프라	59.2	26.7	15.6	32.4	15.9	7.6	1.6	10.5

- » 권역별 디자인 인력 채용 경로는 모든 권역에서 ‘언론매체 및 온라인을 통한 구인’이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특히 부산/울산/경남(85.5%)과 강원/제주(84.6%)에서 높게 나타남. ‘공공기관 취업 알선센터’는 대전/충청(53.5%)과 부산/울산/경남(51.7%)에서 높게 나타남.
- » 규모별 결과 역시 모든 규모의 기업에서 ‘언론매체 및 온라인을 통한 구인’을 인력 채용 경로로 응답했으며, 대기업(84.6%), 소기업(76.7%), 중견기업(75.4%), 중기업(71.8%)의 비율을 보임.

■ 권역별/규모별/외주여부별 디자인 인력 채용 경로

(단위: %, 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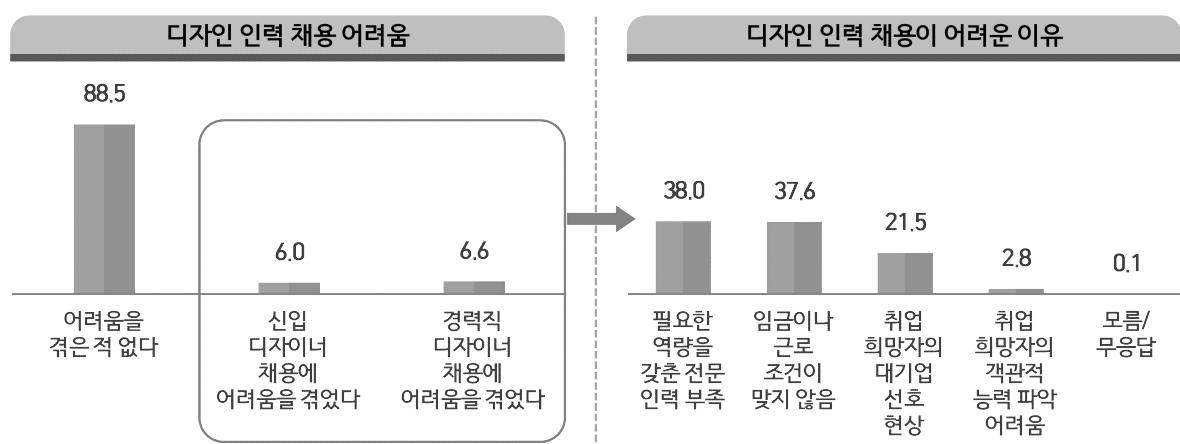
구분		언론매체 및 온라인을 통한 구인	공공기관 취업 알선센터	인력채용 정보회사	학교 취업 상담실	자인의 소개 또는 추천	학연/ 지연 등 연고 채용	동종업계 인력 스카우트	정부 지자체의 채용 박람회
활용업체		76.2	41.7	34.0	9.5	9.1	6.5	3.2	3.2
권 역 별	서울	76.3	33.2	31.7	15.8	7.6	6.6	5.4	5.3
	부산/울산/경남	85.5	51.7	25.9	4.3	12.9	4.8	0.6	0.0
	대구/경북	78.9	47.1	35.2	10.4	15.1	0.0	3.0	0.6
	인천/경기	75.6	46.6	33.5	3.0	12.0	5.3	1.0	2.9
	광주/전라	60.6	49.9	47.9	4.1	6.3	17.3	2.1	0.0
	대전/충청	77.1	53.5	44.8	1.6	1.5	6.2	1.2	1.8
	강원/제주	84.6	39.2	36.0	11.7	7.1	8.4	5.0	0.0
규 모 별	대기업	84.6	48.7	43.8	6.3	0.6	0.0	0.9	1.5
	중견기업	75.4	24.5	32.1	37.5	19.5	0.0	1.4	1.4
	중기업	71.8	44.3	34.2	14.7	9.3	2.4	6.1	4.7
	소기업	76.7	41.6	33.9	8.5	9.0	7.1	2.9	3.1
외 주	외주용역 있음	75.5	35.4	38.9	13.9	9.3	2.6	3.1	7.4
	외주용역 없음	76.3	42.9	33.1	8.7	9.1	7.2	3.3	2.4

6) 디자인 인력 채용의 어려움

- » 디자인 인력 채용의 어려움을 살펴본 결과, 어려움을 겪은 적이 없는 기업이 88.5%의 비율로 높게 나타났으며, 신입 디자이너 채용에 어려움을 겪은 기업은 6.0%, 경력직 딜레이터 채용에 어려움을 겪은 기업은 6.6%로 나타남.
 디자인 인력 채용이 어려운 이유로는 '필요한 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 부족'(38.0%), '임금이나 근로 조건이 맞지 않음'(37.6%) 등의 순을 보임.

디자인 인력 채용의 어려움

(단위: %)



- » 업종별로 살펴보면, 시각디자인업에서 신입(23.6%) 및 경력직(28.2%) 딜레이터 채용에 어려움이 가장 많고, 반면 제품디자인업은 신입(0.0%), 경력직(0.2%)로 어려움을 경험한 비율이 가장 낮음.
 인력 채용 어려움의 이유로는 대부분의 업종에서 '전문 인력 부족'의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임금이나 근로 조건이 맞지 않음'의 응답이 높게 나타남.

▣ 업종별 디자인 인력 채용의 어려움

(단위: %)

구분	디자인 인력 채용 어려움			디자인 인력 채용이 어려운 이유			
	어려움을 겪은 적 없다	신입 딜레이터 채용에 어려움을 겼었다	경력직 딜레이터 채용에 어려움을 겼었다	필요한 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 부족	임금이나 근로 조건이 맞지 않음	취업 희망자의 대기업 선호 현상	취업 희망자의 객관적 능력 파악 어려움
활용업체	88.5	6.0	6.6	38.0	37.6	21.5	2.8
업종별	제품디자인	99.7	0.0	0.2	25.0	12.5	0.0
	시각디자인	60.0	23.6	28.2	39.1	51.4	6.8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75.1	0.0	24.9	86.9	13.1	0.0
	공간디자인	96.0	1.0	3.1	69.0	3.2	14.4
	패션/텍스타일디자인	64.7	26.4	10.2	25.4	33.5	40.8
	서비스/경험디자인	94.8	0.0	5.2	56.3	1.4	41.6
	산업공예디자인	95.0	2.2	2.8	76.2	23.8	0.0
	디자인인프라	83.6	13.2	3.3	5.3	61.1	31.4

- » 권역별로는, 대부분의 권역에서 인력 채용 어려움을 겪은 적이 없다는 비율이 높은 반면, 대구/경북은 신입(11.2%)과 경력직(16.1%) 채용에 다소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남. 디자인 인력 채용이 어려운 이유로는 대부분의 권역에서 '전문 인력 부족'의 응답 비율이 높고, 대구/경북(51.0%), 광주/전라(55.6%), 대전/충청(100.0%)에서는 '임금이나 근로 조건이 맞지 않음'을 높음.
- »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기업(25.1%)은 경력직 디자이너 채용 시 어려움을 겪은 비율이 높고, 중견기업은 신입(22.1%), 경력직(29.8%) 디자이너 채용 어려움을 경험함. 채용 어려움의 이유로는 '전문 인력 부족'의 경우, 중견기업(63.5%), 소기업(39.4%)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근로 조건 부적합'의 경우 대기업(61.2%), 중기업(40.3%)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권역별/규모별/외주여부별 디자인 인력 채용의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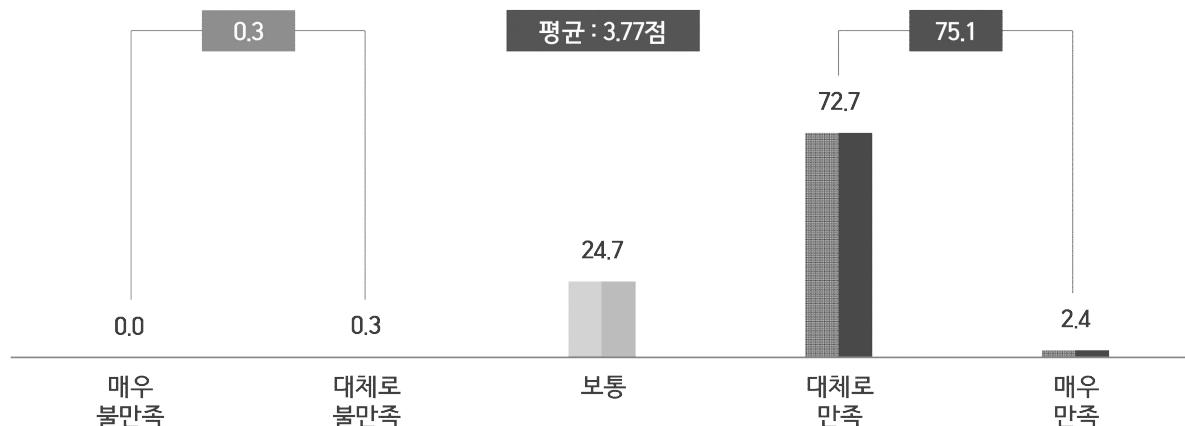
(단위: %)

구분	디자인 인력 채용 어려움			디자인 인력 채용이 어려운 이유			
	어려움을 겪은 적 없다	신입 디자이너 채용에 어려움을 겹었다	경력직 디자이너 채용에 어려움을 겹었다	필요한 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 부족	임금이나 근로 조건이 맞지 않음	취업 희망자의 대기업 선호 현상	취업 희망자의 객관적 능력 평가 어려움
활용업체	88.5	6.0	6.6	38.0	37.6	21.5	2.8
권역별	서울	85.7	8.4	7.7	37.1	33.6	26.8
	부산/울산/경남	92.5	1.4	6.2	70.3	19.2	0.0
	대구/경북	75.1	11.2	16.1	24.5	51.0	24.2
	인천/경기	90.7	4.1	5.2	43.5	36.4	15.3
	광주/전라	97.8	1.0	1.2	44.4	55.6	0.0
	대전/충청	96.1	3.4	0.5	0.0	100.0	0.0
	강원/제주	94.4	4.9	5.6	93.0	7.0	0.0
규모별	대기업	71.5	1.7	25.1	23.0	61.2	0.0
	중견기업	60.6	22.1	29.8	63.5	19.1	17.4
	중기업	87.1	5.8	7.1	23.2	40.3	21.9
	소기업	89.2	5.9	6.0	39.4	37.6	22.1
외주	외주용역 있음	83.8	11.0	7.1	33.4	57.2	2.5
	외주용역 없음	89.4	5.1	6.5	39.4	32.0	27.0

7) 최근 3년간 고용한 인력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 » 최근 3년간 고용 인력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3.77점의 평균을 보임. 범주별로 살펴보면, 만족('대체로 만족'(72.7%) + '매우 만족'(2.4%)) 비율이 75.1%로 매우 높았으며, 불만족('매우 불만족'(0.0%) + '대체로 불만족'(0.3%)) 비율은 0.3%로 나타남.

최근 3년간 고용한 인력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단위: %)



* 불만족 이유: 실무 능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94.9%), 모름/무응답(5.1%)

- » 업종별로 살펴보면, 모든 업종에서 만족도가 비슷한 수준을 보인 가운데, 제품디자인업(3.88 점), 서비스/경험디자인업(3.87점), 시각디자인업(3.80점)에서 가장 높은 반면, 패션/텍스타일 디자인업(3.49점)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업종별 최근 3년간 고용한 인력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단위: %)

구분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만족	평균(점)
업종별	활용업체	0.0	0.3	0.3	24.7	72.7	2.4	75.1	3.77
	제품디자인	0.0	0.0	0.0	11.6	88.3	0.0	88.3	3.88
	시각디자인	0.0	1.1	1.1	20.1	76.1	2.7	78.8	3.80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0.0	0.0	0.0	37.1	62.9	0.0	62.9	3.63
	공간디자인	0.0	0.5	0.5	32.0	61.2	6.3	67.5	3.73
	패션/텍스타일디자인	0.0	0.8	0.8	50.0	49.1	0.1	49.2	3.49
	서비스/경험디자인	0.0	0.0	0.0	14.9	83.3	1.8	85.1	3.87
	산업공예디자인	0.0	0.0	0.0	44.4	53.4	2.2	55.6	3.58
	디자인인프라	0.0	0.0	0.0	22.4	77.4	0.2	77.6	3.78

- » 권역별 최근 3년간 고용 인력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모든 권역에서 비슷한 점수를 보인 가운데, 서울(3.83점), 대전/충청(3.81점), 광주/전라(3.75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 규모별로는 중견기업(4.04점)과 대기업(4.03점)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한편, 외주용역이 없는 업체(3.79점)의 만족도가 외주용역이 있는 업체(3.69점)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임.

■ 권역별/규모별/외주여부별 최근 3년간 고용한 인력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단위: %)

구분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만족	평균(점)
활용업체		0.0	0.3	0.3	24.7	72.7	2.4	75.1	3.77
권 역 별	서울	0.0	0.3	0.3	19.7	77.0	2.9	79.9	3.83
	부산/울산/경남	0.0	0.0	0.0	35.3	61.9	2.8	64.7	3.67
	대구/경북	0.0	0.0	0.0	32.1	66.4	1.6	67.9	3.69
	인천/경기	0.0	0.6	0.6	26.9	70.8	1.8	72.6	3.74
	광주/전라	0.0	0.0	0.0	29.7	65.8	4.5	70.3	3.75
	대전/충청	0.0	0.0	0.0	18.7	81.3	0.0	81.3	3.81
	강원/제주	0.0	0.0	0.0	37.5	62.1	0.4	62.5	3.63
규 모 별	대기업	0.0	0.6	0.6	10.7	71.8	15.1	86.9	4.03
	중견기업	0.0	0.0	0.0	8.2	79.3	12.5	91.8	4.04
	중기업	0.0	0.4	0.4	23.6	69.2	6.8	76.0	3.82
	소기업	0.0	0.3	0.3	25.1	73.0	1.6	74.6	3.76
외 주	외주용역 있음	0.0	0.6	0.6	30.9	66.9	1.5	68.4	3.69
	외주용역 없음	0.0	0.2	0.2	23.5	73.8	2.6	76.3	3.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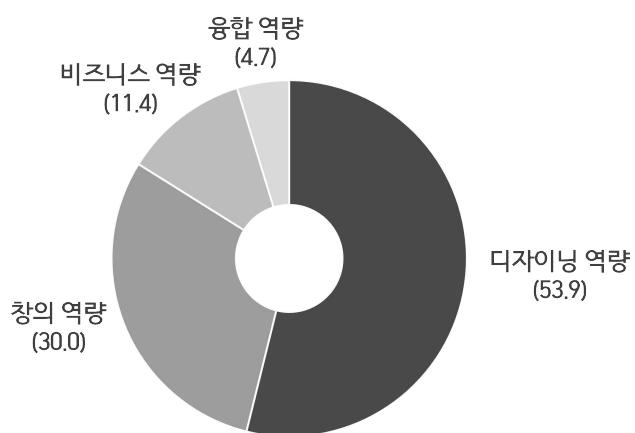
4 디자인 교육

1)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역량

- »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역량을 조사한 결과, '디자이닝 역량'이 59.3%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창의 역량'(30.0%), '비즈니스 역량'(11.4%), '융합 역량'(4.7%)의 순을 보임.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역량

(단위: %)



- » 업종별로 살펴보면,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업과 산업공예디자인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디자이닝 역량'에 높은 응답을 보임. '창의 역량'은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업(66.8%)과 산업공예디자인업(52.7%)에서 높게 나타남.

▣ 업종별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역량

(단위: %)

구분	디자이닝 역량	창의 역량	비즈니스 역량	융합 역량
활용업체	53.9	30.0	11.4	4.7
업종별	제품디자인	60.4	24.1	14.3
	시각디자인	65.7	18.8	13.6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15.0	66.8	13.6
	공간디자인	49.3	38.6	12.1
	패션/텍스타일디자인	77.4	11.4	6.4
	서비스/경험디자인	39.8	32.5	16.3
	산업공예디자인	44.4	52.7	2.9
	디자인인프라	70.7	15.5	3.9

- » 권역별로 살펴보면, 광주/전라와 대전/충청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디자이닝 역량’을 가장 필요한 역량으로 꼽았으며, ‘창의 역량’은 광주/전라(42.3%)와 대전/충청(45.4%)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임.
- » 규모별로 살펴보면, 모든 규모의 기업에서 ‘디자이너 역량’을 가장 필요한 역량으로 응답함.

권역별/규모별/외주여부별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역량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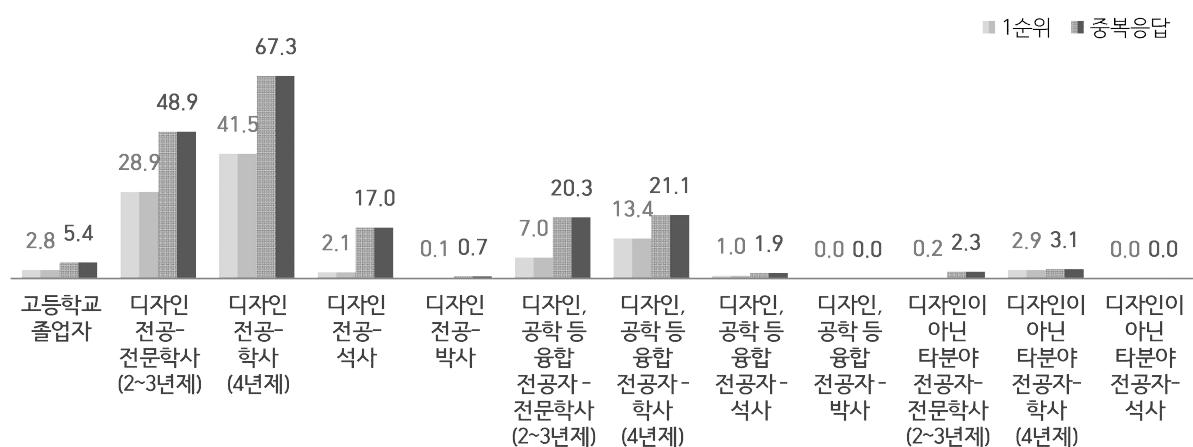
구분		디자이닝 역량	창의 역량	비즈니스 역량	융합 역량
활용업체		53.9	30.0	11.4	4.7
권 역 별	서울	59.1	25.4	9.2	6.3
	부산/울산/경남	54.5	32.0	12.8	0.7
	대구/경북	56.2	35.4	8.3	0.1
	인천/경기	56.7	28.1	11.7	3.4
	광주/전라	38.4	42.3	17.3	2.0
	대전/충청	28.3	45.4	19.0	7.3
	강원/제주	39.6	25.4	11.3	23.7
규 모 별	대기업	46.2	29.3	19.1	3.6
	중견기업	70.1	23.3	6.6	0.0
	중기업	43.9	38.4	6.9	10.7
	소기업	55.0	29.0	11.9	4.1
외 주	외주용역 있음	50.9	28.8	10.7	9.5
	외주용역 없음	54.4	30.2	11.5	3.8

2) 가장 선호하는 디자이너 교육 수준

- » 가장 선호하는 디자이너 교육 수준(중복응답 기준)으로는, '디자인전공-학사(4년제)'가 67.3%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디자인전공-전문학사(2~3년제)'(48.9%), '디자인, 공학 등 융합전공자-학사(4년제)'(21.1%) 등의 순으로 나타남.
 1순위 기준으로는 '디자인전공-학사(4년제)'(41.5%), '디자인전공-전문학사(2~3년제)'(28.9%) 등으로 중복응답과 비슷한 순위를 보임.

가장 선호하는 디자이너 교육 수준

(단위: %)



- »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품디자인업과 공간디자인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디자인전공'을 선호했고, 제품디자인업과 공간디자인업은 '융합 전공자'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업종별 가장 선호하는 디자이너 교육 수준

(단위: %, 중복응답)

업종별	고등 학교 졸업자	디자인 전공				디자인 공학 등 융합 전공자				디자인이 아닌 타분야 전공자			
		전문 학사 (2~3년제)	학사 (4년제)	석사	박사	전문 학사 (2~3년제)	학사 (4년제)	석사	박사	전문 학사 (2~3년제)	학사 (4년제)	석사	
활용업체		5.4	48.9	67.3	17.0	0.7	20.3	21.1	1.9	0.0	2.3	3.1	0.0
업종별	제품디자인	0.6	9.7	9.5	0.3	0.0	88.4	87.7	0.2	0.0	1.5	1.7	0.1
	시각디자인	17.9	76.2	68.4	7.4	0.0	2.3	3.2	0.1	0.0	3.1	3.1	0.0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4.4	63.9	78.4	0.2	0.0	42.1	10.9	0.0	0.0	0.0	0.0	0.0
	공간디자인	0.6	21.1	45.5	19.2	1.5	37.5	47.4	5.7	0.0	1.4	1.2	0.0
	패션/텍스타일디자인	10.0	87.0	92.1	1.7	0.0	0.0	0.9	0.0	0.0	0.0	0.0	0.0
	서비스/경험디자인	5.9	38.2	92.2	50.5	2.1	2.3	3.4	3.6	0.0	0.9	0.9	0.0
	산업공예디자인	5.8	82.6	88.0	12.8	0.0	1.9	4.3	2.0	0.0	0.0	0.4	0.0
	디자인인프라	5.8	70.4	77.5	4.4	0.0	1.7	1.6	0.0	0.0	5.3	8.4	0.0

- » 권역별로 살펴보면, 모든 권역에서 ‘디자인 전공-학사(4년제)’를 가장 선호한다고 응답한 가운데, 서울(73.0%)와 부산/울산/경남(71.1%)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디자인전공-전문학사(2~3년제)’ 역시 부산/울산/경남(57.9%)과 서울(51.2%)에서 가장 높았음.
- » 규모별 결과 역시 모든 규모의 업체에서 ‘디자인 전공-학사(4년제)’를 가장 선호했으며, 대기업을 제외한 모든 규모의 업체에서 ‘디자인 전공-전문학사(2~3년제)’이 다음 비율을 보임. 대기업의 경우 ‘디자인 전공-석사’가 44.6%로 2번째 선호 순위를 보임.
- » 디자이너 고용 여부별로는, 디자이너 고용과 관계없이 ‘디자인 전공-학사(4년제)’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권역별/규모별/고용별/외주여부별 가장 선호하는 디자이너 교육 수준

(단위: %, 중복응답)

구분	고등 학교 졸업자	디자인 전공				디자인 공학 등 융합 전공자				디자인이 아닌 타분야 전공자			
		전문 학사 (2~ 3년제)	학사 (4년제)	석사	박사	전문 학사 (2~ 3년제)	학사 (4년제)	석사	박사	전문 학사 (2~ 3년제)	학사 (4년제)	석사	
활용업체	5.4	48.9	67.3	17.0	0.7	20.3	21.1	1.9	0.0	2.3	3.1	0.0	
권 역 별	서울	5.4	51.2	73.0	15.2	0.1	14.4	15.2	0.7	0.0	4.6	6.5	0.0
	부산/울산/경남	3.2	57.9	71.1	11.1	0.8	24.7	22.9	2.8	0.0	0.8	1.0	0.0
	대구/경북	14.2	46.5	59.5	24.5	0.0	22.7	17.2	0.3	0.0	0.0	0.1	0.0
	인천/경기	3.9	48.1	58.4	13.6	1.4	28.9	32.8	1.4	0.0	0.8	0.9	0.0
	광주/전라	5.5	35.6	64.6	34.3	0.7	13.7	17.4	5.0	0.0	1.3	1.3	0.0
	대전/충청	5.1	42.7	68.3	18.9	3.5	24.0	22.7	6.8	0.1	0.1	0.1	0.1
	강원/제주	0.0	35.1	68.9	27.9	0.0	24.6	25.6	5.7	0.0	0.0	0.0	0.0
규 모 별	대기업	0.0	27.6	84.3	44.6	2.6	5.1	13.4	8.1	0.6	4.3	6.5	1.4
	중견기업	4.3	47.1	74.2	27.4	0.0	17.5	25.5	3.9	0.0	0.0	0.0	0.0
	중기업	3.8	48.0	81.2	27.4	1.9	10.8	12.8	2.3	0.0	1.8	2.0	0.0
	소기업	5.8	49.3	64.6	14.8	0.5	22.2	22.6	1.7	0.0	2.4	3.3	0.0
고 용	디자이너 고용	2.4	41.9	66.2	20.3	0.8	26.1	27.7	2.9	0.0	0.8	0.7	0.0
	디자이너 비고용	10.5	60.6	69.2	11.5	0.6	10.7	10.1	0.1	0.0	4.9	7.2	0.0
외 주	외주용역 있음	9.0	56.5	71.5	15.5	0.5	12.2	11.2	0.8	0.0	4.0	5.8	0.0
	외주용역 없음	2.2	42.0	63.6	18.4	0.9	27.6	30.0	2.9	0.0	0.8	0.7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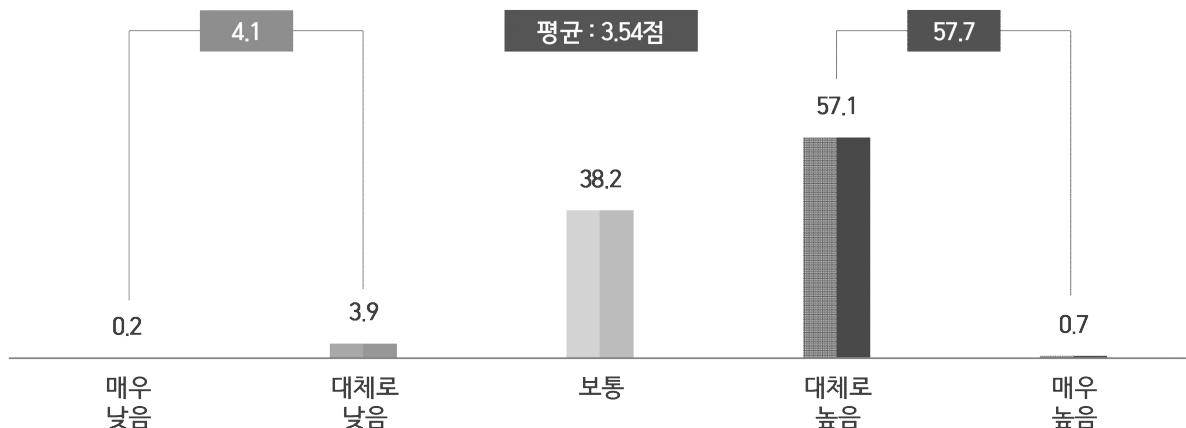
3) 대학 디자인 교육 기여도

» 대학 디자인 교육 기여도는 평균 3.54점으로 나타남.

범주별로는 높음은 57.7%(대체로 : 57.1% + 매우 : 0.7%)로 높고, 낮음은 4.1%(대체로 : 3.9% + 매우 : 0.2%)로 나타남.

대학 디자인 교육 기여도

(단위: %)



» 업종별로 디자인 교육 기여도를 살펴본 결과, 제품디자인업(3.95점), 패션/텍스타일디자인업(3.72점), 공간디자인업(3.65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시각디자인업(3.03점)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기여도를 보임.

▣ 업종별 대학 디자인 교육 기여도

(단위: %)

구분		매우 낮음	대체로 낮음	낮음	보통	대체로 높음	매우 높음	높음	평균(점)
업종별	활용업체	0.2	3.9	4.1	38.2	57.1	0.7	57.7	3.54
	제품디자인	0.0	0.0	0.0	5.5	94.4	0.0	94.4	3.95
	시각디자인	2.0	25.3	27.4	44.9	23.5	4.3	27.8	3.03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0.0	1.3	1.3	67.6	31.1	0.0	31.1	3.30
	공간디자인	0.0	2.3	2.3	31.4	65.2	1.0	66.2	3.65
	패션/텍스타일디자인	0.0	0.0	0.0	29.3	70.0	0.8	70.7	3.72
	서비스/경험디자인	0.0	5.0	5.0	62.3	32.7	0.0	32.7	3.28
	산업공예디자인	0.0	0.0	0.0	41.7	58.3	0.0	58.3	3.58
	디자인인프라	0.0	0.4	0.4	39.1	60.5	0.0	60.5	3.60

- » 권역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권역에서 비슷한 평균을 보인 가운데, 인천/경기(3.66점), 부산/울산/경남(3.58점), 서울, 대구/경북(각 3.52점)의 순으로 나타남.
- » 규모별로 살펴보면, 중기업(3.60점), 중견기업(3.58점), 대기업(3.54점), 소기업(3.53점)의 기여도 순서가 나타남.
- » 디자인 개발 외주 용역과 관계없이 대학 디자인 교육 기여도는 비슷한 수준을 보임.

권역별/규모별/외주여부별 대학 디자인 교육 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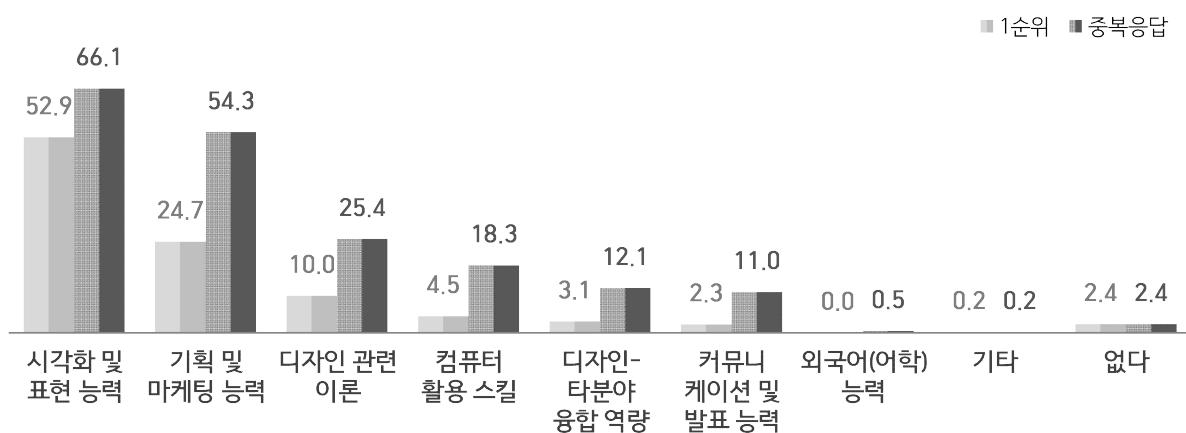
(단위: %)

구분		매우 낮음	대체로 낮음	낮음	보통			높음	평균(점)
						대체로 높음	매우 높음		
활용업체		0.2	3.9	4.1	38.2	57.1	0.7	57.7	3.54
권역별	서울	0.1	3.7	3.9	41.1	54.3	0.7	55.0	3.52
	부산/울산/경남	1.2	3.4	4.6	32.8	61.9	0.7	62.6	3.58
	대구/경북	0.0	7.0	7.0	35.2	56.3	1.5	57.8	3.52
	인천/경기	0.0	2.6	2.6	29.9	66.7	0.8	67.5	3.66
	광주/전라	0.0	3.3	3.3	46.7	50.0	0.0	50.0	3.47
	대전/충청	0.0	8.4	8.4	42.1	49.5	0.0	49.5	3.41
	강원/제주	0.0	0.0	0.0	59.8	40.2	0.0	40.2	3.40
규모별	대기업	0.0	0.6	0.6	45.2	51.3	1.1	52.4	3.54
	중견기업	0.0	11.9	11.9	23.8	58.7	5.5	64.3	3.58
	중기업	0.0	5.1	5.1	30.9	62.9	1.2	64.0	3.60
	소기업	0.2	3.7	3.9	39.2	56.4	0.5	56.9	3.53
외주	외주용역 있음	0.0	5.0	5.0	38.3	56.6	0.0	56.6	3.52
	외주용역 없음	0.2	3.7	3.9	38.2	57.1	0.8	57.9	3.55

4) 보강되어야 할 디자인 전공 대학교육

- » 시급히 보강되어야 할 대학 디자인 전공 교육으로 중복응답 기준 '시각화 및 표현 능력'(66.1%), '기획 및 마케팅 능력'(54.3%), '디자인 관련 이론'(25.4%)의 순으로 나타났고, 1순위 기준은 '시각화 및 표현 능력'(52.9%), '기획 및 마케팅 능력'(24.7%) 등으로 같은 순서를 보임.

보강되어야 할 디자인 전공 대학교육 (단위: %)



- » 업종별로 살펴보면,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업, 패션/텍스타일디자인업, 서비스/경험디자인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시각화 및 표현 능력'을 가장 시급히 보강되어야 한다고 응답함. '기획 및 마케팅 능력'은 패션/텍스타일디자인업(90.0%)과 디지털/미디어디자인업(81.2%)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임.

▣ 업종별 보강되어야 할 디자인 전공 대학교육

(단위: %, 중복응답)

구분		시각화 및 표현 능력	기획 및 마케팅 능력	디자인 관련 이론	컴퓨터 활용 스킬	디자인 - 타분야 융합 역량	커뮤니케이션 및 발표 능력	외국어 능력	기타
활용업체		66.1	54.3	25.4	18.3	12.1	11.0	0.5	0.2
업종별	제품디자인	97.3	39.3	3.7	42.5	14.8	0.0	0.0	0.0
	시각디자인	61.1	45.7	7.7	34.0	18.0	9.6	2.7	2.4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58.5	81.2	10.1	11.4	17.7	7.5	2.1	0.0
	공간디자인	70.0	45.8	45.2	11.8	7.7	17.4	0.5	0.0
	패션/텍스타일디자인	55.5	90.0	6.0	7.2	21.3	0.0	0.0	0.0
	서비스/경험디자인	43.2	71.8	37.0	16.6	9.2	20.5	0.0	0.0
	산업공예디자인	62.0	28.6	66.0	39.5	1.6	2.3	0.0	0.0
	디자인인프라	69.4	51.5	8.8	2.9	15.4	6.3	0.1	0.0

- » 권역별로 살펴보면, 대전/충청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시각화 및 표현 능력'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기획 및 마케팅 능력'은 대전/충청(60.9%)와 부산/울산/경남(60.8%)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 규모별로는 대기업을 제외한 모든 규모의 업체에서 '시각화 및 표현 능력'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대기업은 '기획 및 마케팅 능력'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권역별/규모별/외주여부별 보강되어야 할 디자인 전공 대학교육

(단위: %, 중복응답)

구분	시각화 및 표현 능력	기획 및 마케팅 능력	디자인 관련 이론	컴퓨터 활용 스킬	디자인 - 타분야 융합 역량	커뮤니케이션 및 발표 능력	외국어 능력	기타
활용업체	66.1	54.3	25.4	18.3	12.1	11.0	0.5	0.2
권역별	서울	67.6	55.3	24.0	15.2	14.7	7.8	0.8
	부산/울산/경남	67.2	60.8	30.4	21.0	5.4	10.4	0.0
	대구/경북	76.3	52.5	27.6	17.0	10.3	14.3	0.0
	인천/경기	65.6	48.9	18.6	26.6	13.8	12.4	0.6
	광주/전라	64.2	51.8	25.6	9.9	4.4	20.4	0.0
	대전/충청	49.6	60.9	43.1	18.1	8.9	13.6	0.0
	강원/제주	60.2	55.1	38.9	18.0	12.3	15.4	0.0
규모별	대기업	40.2	51.4	36.9	30.2	6.5	8.1	4.1
	중견기업	73.3	55.3	15.6	34.0	2.9	18.9	0.0
	중기업	67.3	58.8	19.3	19.7	11.0	14.4	0.7
	소기업	66.1	53.7	26.2	17.8	12.4	10.5	0.4
외주	외주용역 있음	59.6	61.5	20.9	19.4	10.6	11.3	0.0
	외주용역 없음	67.3	52.9	26.2	18.1	12.4	11.0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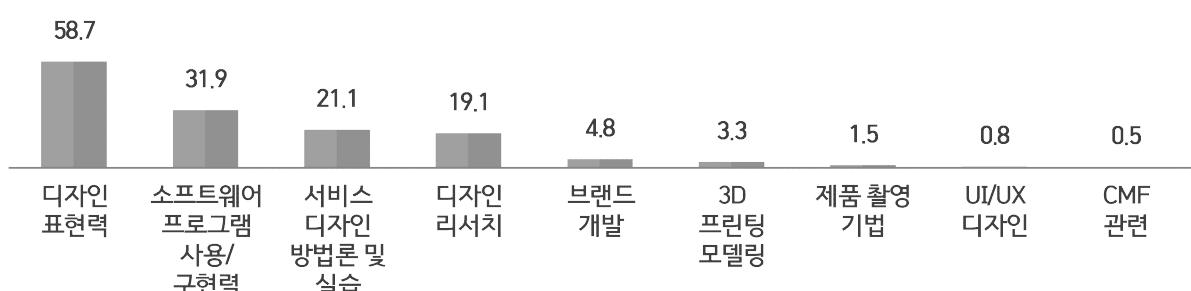
5)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재교육

»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재교육을 조사한 결과, 디자인 스킬/툴 교육은 '디자인 표현력'(58.7%),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사용/구현력'(31.9%), '서비스 디자인 방법론 및 실습'(21.1%) 등의 순으로 나타남. 역량 향상 교육은 '창의력'(59.4%), '기획력'(36.2%), '커뮤니케이션 역량'(24.3%)의 순을 보임. 한편, 기타교육은 '트렌드 정보'(35.3%), '신기술 이해'(28.7%), '타분야 융합 교육'(19.0%), '국내외 시장 정보'(12.1%)의 비율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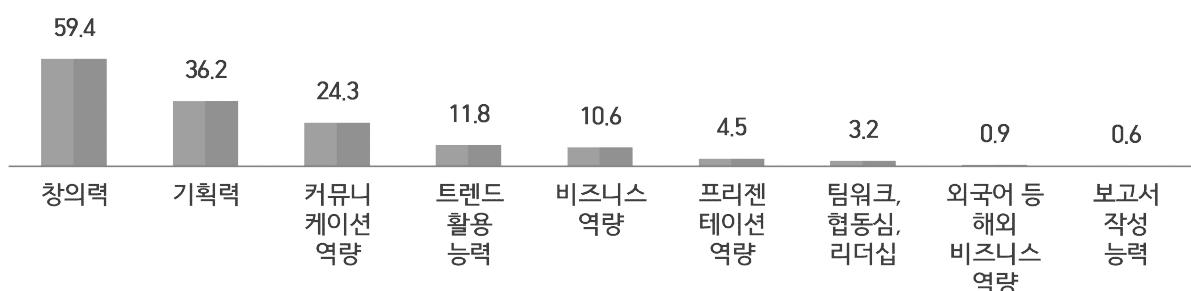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재교육

(단위: %)

디자인 스킬/툴 교육



역량 향상 교육



기타 교육



- » 업종별로 필요한 재교육을 살펴본 결과, 디자인 스킬/툴 교육은 서비스/경험디자인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디자인 표현력’을 가장 필요한 교육으로 응답함. 또한 역량향상 교육에서는 모든 업종에서 ‘창의력’을 가장 필요한 재교육이라고 응답함.

▣ 업종별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재교육_디자인 스킬/툴 교육

(단위: %, 중복응답)

구분		디자인 표현력	소프트 웨어 프로그램 사용/ 구현력	서비스 디자인 방법론 및 실습	디자인 라서치	브랜드 개발	3D 프린팅 모델링	제품 촬영 기법	UI/UX 디자인	CMF 관련
활용업체		58.7	31.9	21.1	19.1	4.8	3.3	1.5	0.8	0.5
업종별	제품디자인	97.0	13.5	1.8	71.6	0.0	0.2	0.7	0.0	1.7
	시각디자인	44.5	40.0	1.4	22.2	5.2	0.0	3.6	3.0	0.8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62.5	28.8	0.2	1.3	0.0	0.0	0.0	0.0	0.0
	공간디자인	63.9	25.5	21.7	8.3	0.9	4.6	2.0	0.0	0.6
	패션/텍스타일디자인	87.0	11.1	0.0	28.3	34.8	8.3	0.9	0.0	0.8
	서비스/경험디자인	28.6	85.8	66.3	0.1	0.0	2.0	0.0	1.8	0.0
	산업공예디자인	43.4	3.9	13.2	2.3	14.1	8.6	13.8	0.0	0.0
	디자인인프라	54.2	4.1	7.3	18.1	10.3	5.3	0.0	0.9	0.0

▣ 업종별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재교육_역량 향상 교육

(단위: %, 중복응답)

구분		창의력	기획력	커뮤니케이션 역량	트렌드 활용 능력	비즈니스 역량	프로젝션 테이션 역량	팀워크, 협동심, 리더십	외국어 등 해외 비즈니스 역량	보고서 작성 능력
활용업체		59.4	36.2	24.3	11.8	10.6	4.5	3.2	0.9	0.6
업종별	제품디자인	86.3	46.8	59.9	1.0	9.4	0.1	0.0	0.0	0.0
	시각디자인	57.4	47.2	10.0	22.2	20.6	6.2	9.2	5.2	0.9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75.7	5.4	12.4	4.7	2.3	0.0	0.0	0.0	0.0
	공간디자인	50.8	25.7	25.5	14.0	6.9	5.9	0.5	0.3	1.3
	패션/텍스타일디자인	51.6	67.9	13.0	31.6	4.1	4.5	27.4	0.0	0.8
	서비스/경험디자인	47.2	39.7	19.4	8.2	21.6	5.9	0.0	1.8	0.0
	산업공예디자인	55.5	22.0	10.7	4.5	2.4	8.6	1.6	0.0	0.0
	디자인인프라	65.0	35.4	15.2	13.8	5.6	3.6	4.7	0.0	0.9

▣ 업종별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재교육_기타 교육

(단위: %, 중복응답)

구분		트렌드 정보	신기술 이해	타분야 융합 교육	국내외 시장 정보
활용업체		35.3	28.7	19.0	12.1
업종별	제품디자인	49.0	66.0	59.0	5.0
	시각디자인	25.0	8.1	6.1	16.2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48.7	7.1	35.5	0.0
	공간디자인	51.3	35.6	9.9	13.4
	패션/텍스타일디자인	55.2	23.1	6.9	38.5
	서비스/경험디자인	17.4	27.8	10.0	10.7
	산업공예디자인	7.8	31.6	15.0	4.5
	디자인인프라	21.8	4.7	17.1	11.9

- » 권역별로는 디자인 스킬/툴 교육에 대해 강원/제주를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디자인 표현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역량 향상 교육에 대해서는 모든 권역에서 '창의력'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한편, 기타 교육에 대해서는 광주/전라와 강원/제주를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트렌드 정보'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 » 규모별로 살펴보면, 디자인 스킬/툴 교육에 대해 대기업을 제외한 모든 규모의 기업에서 '디자인 표현력'을 가장 필요한 재교육으로 응답함.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사용/구현력'은 대기업(53.5%)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역량 향상에서는 모든 규모의 기업에서 '창의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 영역에서는 대기업을 제외한 모든 규모의 업체에서 '트렌드 정보'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신기술 이해'는 대기업(47.3%)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권역별/규모별/외주여부별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재교육_디자인 스킬/툴 교육

(단위: %, 중복응답)

구분		디자인 표현력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사용/구현력	서비스 디자인 방법론 및 실습	디자인 리서치	브랜드 개발	3D 프린팅 모델링	제품 촬영 기법	UI/UX 디자인	CMF 관련
활용업체		58.7	31.9	21.1	19.1	4.8	3.3	1.5	0.8	0.5
권역별	서울	57.5	28.2	14.8	16.7	6.5	2.7	1.3	0.3	0.2
	부산/울산/경남	58.4	39.0	23.9	25.9	0.5	8.4	1.8	4.0	0.0
	대구/경북	55.0	39.1	25.1	25.3	1.0	0.1	1.5	1.5	0.0
	인천/경기	69.6	26.5	17.6	25.4	5.5	3.9	1.4	0.7	1.1
	광주/전라	54.3	43.1	40.5	6.9	2.1	5.3	2.1	0.0	0.0
	대전/충청	47.9	39.1	36.1	13.3	5.9	1.0	3.0	0.0	2.2
	강원/제주	25.8	55.6	54.7	13.1	0.0	0.0	0.0	0.0	0.0
규모별	대기업	52.3	53.5	26.1	11.4	0.6	9.6	1.5	1.1	0.0
	중견기업	66.2	36.8	28.1	23.8	1.4	4.7	0.0	0.0	0.0
	중기업	67.8	43.3	20.3	18.7	9.2	3.1	1.6	4.0	0.4
	소기업	57.5	30.3	21.1	19.2	4.4	3.3	1.5	0.4	0.5
외주	외주용역 있음	57.4	37.8	27.3	19.0	6.4	0.5	1.7	2.3	0.3
	외주용역 없음	58.9	30.8	20.0	19.1	4.5	3.9	1.5	0.5	0.6

▣ 권역별/규모별/외주여부별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재교육_역량 향상 교육

(단위: %, 중복응답)

구분		창의력	기획력	커뮤니 케이션 역량	트렌드 활용 능력	비즈니스 역량	프로젝 테이션 역량	팀워크, 협동심 리더십	외국어 등 해외 비즈니스 역량	보고서 작성 능력
활용업체		59.4	36.2	24.3	11.8	10.6	4.5	3.2	0.9	0.6
권 역 별	서울	61.5	35.5	17.9	14.1	7.9	3.5	5.5	2.0	0.8
	부산/울산/경남	55.7	31.7	35.6	11.5	16.1	3.8	0.7	0.0	0.0
	대구/경북	56.5	47.5	17.3	5.7	19.8	0.0	0.6	0.0	0.0
	인천/경기	59.1	36.7	36.7	14.4	7.1	7.4	2.8	0.0	1.0
	광주/전라	60.8	34.3	28.1	6.3	11.3	1.9	0.0	0.0	0.0
	대전/충청	57.1	33.4	14.7	2.9	22.4	10.3	1.1	0.0	0.0
	강원/제주	46.8	44.7	21.6	4.9	8.8	0.0	0.0	0.0	0.0
규 모 별	대기업	48.3	40.1	18.0	10.2	25.7	5.2	5.4	0.0	0.9
	중견기업	58.3	30.5	26.0	7.0	8.1	7.7	26.7	0.0	6.4
	중기업	65.8	34.9	31.9	18.6	12.4	10.4	6.6	2.1	0.0
	소기업	58.8	36.4	23.4	11.0	10.3	3.7	2.5	0.7	0.6
외 주	외주용역 있음	66.8	38.5	19.9	9.8	14.3	6.3	1.9	0.6	0.5
	외주용역 없음	58.1	35.8	25.2	12.2	9.9	4.1	3.5	0.9	0.6

▣ 권역별/규모별/외주여부별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재교육_기타 교육

(단위: %, 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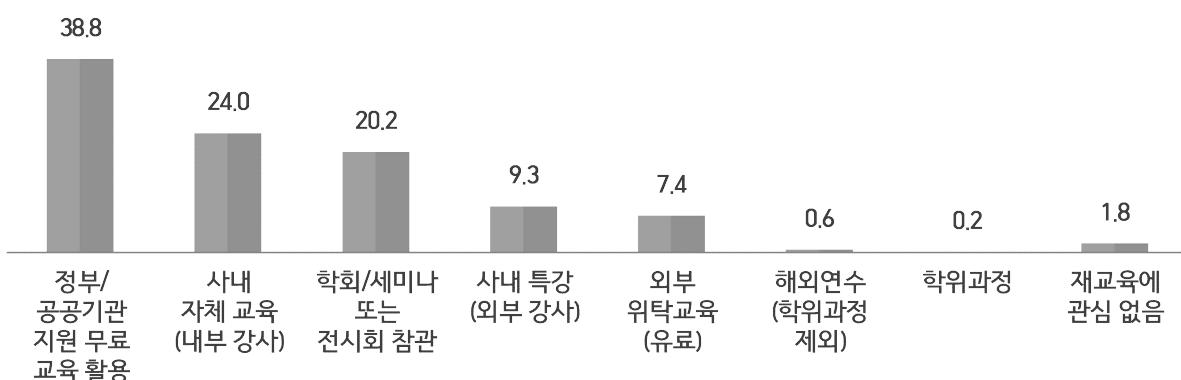
구분		트렌드 정보	신기술 이해	타분야 융합 교육	국내외 시장 정보
활용업체		35.3	28.7	19.0	12.1
권 역 별	서울	32.7	22.1	15.0	14.1
	부산/울산/경남	56.2	35.8	19.7	8.4
	대구/경북	40.1	32.0	15.3	9.0
	인천/경기	34.9	38.4	27.0	11.5
	광주/전라	28.4	33.5	18.3	7.0
	대전/충청	29.2	20.2	24.2	8.8
	강원/제주	33.7	34.3	12.1	32.1
규 모 별	대기업	18.8	47.3	9.2	4.1
	중견기업	48.1	34.9	14.5	25.2
	중기업	46.9	31.2	21.6	10.1
	소기업	33.9	28.1	18.8	12.2
외 주	외주용역 있음	38.8	24.0	17.3	8.5
	외주용역 없음	34.7	29.6	19.3	12.7

6) 선호하는 디자이너 재교육 방법

- » 선호하는 디자이너 재교육 방법을 살펴본 결과, '정부/공공기관 지원 무료 교육 활용'이 38.8%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자체교육(내부강사)'(24.0%), '학회/세미나 또는 전시회 참관'(20.2%), '사내특강(외부 강사)'(9.3%) 등이 뒤를 이음. '재교육에 관심 없음'은 1.8%로 낮은 비율을 보임.

선호하는 디자이너 재교육 방법

(단위: %)



- » 업종별로 살펴보면, '정부/공공기관 지원 무료 교육 활용'은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업(80.0%), 서비스/경험디자인업(68.1%)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자체교육(내부강사)'는 산업공예디자인업(73.0%)과 시각디자인업(47.6%)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재교육에 관심없음'은 시각디자인업에서 5.9%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업종별 선호하는 디자이너 재교육 방법

(단위: %)

구분	정부/공공기관 지원 무료 교육 활용	사내 자체 교육	학회 세미나 또는 전시회 참관	사내 특강	외부 위탁교육	해외연수	학위과정	재교육에 관심 없음
활용업체	38.8	24.0	20.2	9.3	7.4	0.6	0.2	1.8
업종별	제품디자인	38.3	5.6	43.3	8.4	1.6	1.6	0.0
	시각디자인	19.1	47.6	12.8	8.6	9.6	0.0	5.9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80.0	9.1	7.5	0.2	3.4	0.0	0.0
	공간디자인	42.3	34.6	2.0	15.5	3.8	0.0	2.4
	패션/텍스타일디자인	12.0	3.5	56.4	5.0	30.2	3.3	0.0
	서비스/경험디자인	68.1	22.5	0.0	9.3	0.0	0.0	0.0
	산업공예디자인	4.7	73.0	3.2	12.6	3.8	0.0	2.9
	디자인인프라	15.0	12.2	52.1	3.4	20.3	0.9	2.5

- » 권역별로 살펴보면, 모든 권역에서 디자이너 재교육 방법으로 '정부/공공기관 지원 무료 교육 활용'을 응답한 가운데, 특히 강원/제주(81.1%), 대전/충청(60.9%)에서 높은 비율을 보임.
- » 규모별로는, 중견기업을 제외한 모든 규모의 업체에서 '정부/공공기관 지원 무료 교육 활용'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학회, 세미나 또는 전시회 참관'의 경우 중견기업(44.1%)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 권역별/규모별/외주여부별 선호하는 디자이너 재교육 방법

(단위: %)

구분		정부/ 공공기관 지원 무료 교육 활용	사내 자체 교육	학회 세미나 또는 전시회 참관	사내 특강	외부 위탁교육	해외연수	학위과정	재교육에 관심 없음
활용업체		38.8	24.0	20.2	9.3	7.4	0.6	0.2	1.8
권 역 별	서울	34.2	25.3	23.9	9.4	8.2	0.6	0.0	1.8
	부산/울산/경남	36.7	28.5	12.0	13.1	10.1	0.1	0.0	1.2
	대구/경북	39.9	23.2	17.2	10.4	9.4	1.3	0.0	2.5
	인천/경기	34.0	24.1	23.9	9.1	6.7	0.9	0.7	1.6
	광주/전라	52.0	19.3	14.3	8.4	3.2	0.0	0.0	2.9
	대전/충청	60.9	19.1	9.0	5.9	4.4	0.0	0.0	2.2
	강원/제주	81.1	8.8	3.9	0.4	5.8	0.0	0.0	0.0
규 모 별	대기업	33.8	28.5	18.6	22.5	1.8	3.0	0.0	0.0
	중견기업	4.1	33.1	44.1	20.1	1.4	0.0	0.0	0.0
	중기업	40.6	22.3	17.6	8.3	7.7	2.0	0.0	1.9
	소기업	39.1	24.0	20.2	9.1	7.5	0.4	0.2	1.9
외 주	외주용역 있음	37.7	21.6	16.8	11.0	10.8	0.1	0.0	4.3
	외주용역 없음	39.0	24.5	20.8	8.9	6.8	0.7	0.2	1.4

7) 디자이너 재교육 방법

- » 디자이너 재교육 방법을 살펴본 결과, '실시하지 않음'이 60.6%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자체교육(내부강사)'(28.3%), '학회/세미나 또는 전시회 참관'(7.2%), '정부/공공기관 지원 무료 교육 활용'(3.6%) 등이 뒤를 이음.

디자이너 재교육 방법

(단위: %)



- » 업종별로 살펴보면, '실시하지 않음'은 제품디자인업(92.6%)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산업공예디자인업(27.6%)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사내 자체 교육'은 산업공예디자인업(70.2%), 서비스/경험디자인업(50.2%)에서 높은 비율을 보임.

▣ 업종별 디자이너 재교육 방법

(단위: %)

구분	사내 자체 교육	학회, 세미나 또는 전시회 참관	정부/공공기관 지원 무료 교육 활용	외부 위탁교육	사내 특강	해외연수	재교육 실시하지 않음
활용업체	28.3	7.2	3.6	2.8	1.5	0.3	60.6
업종별	제품디자인	2.8	0.0	1.5	1.1	2.0	92.6
	시각디자인	21.9	10.1	2.0	7.7	3.0	60.7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13.1	10.0	23.1	2.7	0.0	69.9
	공간디자인	39.3	0.5	0.8	2.3	1.5	57.3
	패션/텍스타일디자인	2.2	25.1	5.6	11.0	1.1	67.2
	서비스/경험디자인	50.2	0.0	0.0	0.0	1.8	0.0
	산업공예디자인	70.2	0.0	0.0	0.0	2.2	0.0
	디자인인프라	12.9	25.8	9.6	3.9	0.4	54.6

- » 권역별로는 모든 권역에서 '재교육 실시하지 않음'의 응답 비율이 50%를 넘었으며, 특히 대전/충청(79.2%)과 강원/제주(74.2%)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사내 자체 교육'은 부산/울산/경남(38.6%)과 대구/경북(36.0%)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 규모별로 살펴보면, 규모가 커짐에 따라 '사내 자체 교육'의 비율이 증가했으며, '재교육 실시하지 않음'의 비율은 중견기업에서 7.5%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권역별/규모별/외주여부별 디자이너 재교육 방법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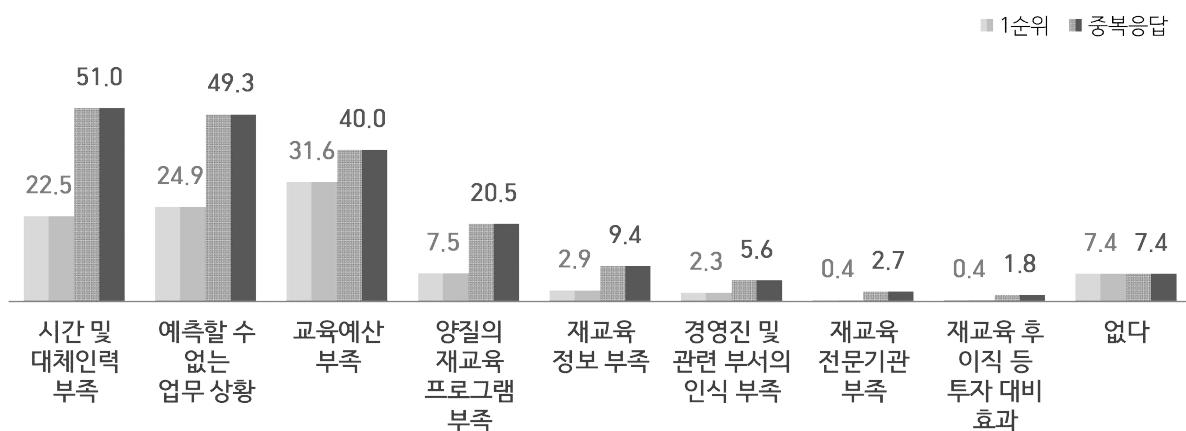
구분	사내 자체 교육	학회, 세미나 또는 전시회 참관	정부/공공기관 지원 무료 교육 활용	외부 위탁교육	사내 특강	해외연수	재교육 실시하지 않음
활용업체	28.3	7.2	3.6	2.8	1.5	0.3	60.6
권역별	서울	26.4	13.0	5.8	2.7	1.6	56.5
	부산/울산/경남	38.6	0.2	1.3	8.1	0.7	52.6
	대구/경북	36.0	4.4	3.8	0.9	1.6	61.2
	인천/경기	29.7	3.8	0.7	2.9	2.5	62.3
	광주/전라	29.0	0.0	1.4	1.4	0.0	68.1
	대전/충청	16.5	2.9	3.1	0.0	0.5	79.2
	강원/제주	20.8	0.0	5.0	0.0	0.0	74.2
규모별	대기업	52.1	12.9	9.7	1.2	4.6	34.1
	중견기업	45.8	38.6	4.1	7.0	6.4	7.5
	중기업	40.2	10.2	0.8	4.6	3.0	44.8
	소기업	26.4	6.4	3.8	2.5	1.2	63.5
외주	외주용역 있음	24.6	7.4	3.8	6.6	1.4	63.2
	외주용역 없음	29.0	7.2	3.5	2.1	1.5	60.1

8) 디자이너 재교육 시 애로사항

- » 디자이너 재교육시 애로사항(중복응답 기준)은 '시간 및 대체인력 부족'(51.0%), '예측할 수 없는 업무 상황'(49.3%), '교육예산 부족'(40.0%)의 순으로 나타났고, 1순위 기준 결과는 '교육예산 부족'(31.6%), '예측할 수 없는 업무 상황'(24.9%), '시간 및 대체인력 부족'(22.5%) 등의 순으로 나타나, 순위 차이를 보임.

디자이너 재교육 시 애로사항

(단위: %)



- » 업종별로 살펴보면, '시간 및 대체인력 부족'은 서비스/경험디자인업(77.9%), 공간디자인업(61.6%)에서 높게 나타났고, '예측할 수 없는 업무 상황'은 제품디자인업(94.4%),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업(92.7%)에서 특히 높은 비율을 보임.

▣ 업종별 선호하는 디자이너 재교육 시 애로사항

(단위: %, 중복응답)

구분	시간 및 대체인력 부족	예측할 수 없는 업무 상황	교육예산 부족	양질의 재교육 프로그램 부족	재교육 정보 부족	경영진 및 관련 부서의 인식 부족	재교육 전문기관 부족	재교육 후 이직 등 투자 대비 효과
활용업체	51.0	49.3	40.0	20.5	9.4	5.6	2.7	1.8
업종별	제품디자인	29.9	94.4	69.1	0.7	0.4	3.4	0.5
	시각디자인	55.1	37.3	36.3	7.6	10.8	1.9	3.0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30.9	92.7	63.5	9.6	0.0	0.0	1.3
	공간디자인	61.6	62.8	36.3	22.1	8.6	4.8	3.8
	패션/텍스타일디자인	42.1	58.9	79.3	3.5	0.0	13.8	0.0
	서비스/경험디자인	77.9	11.9	10.8	53.2	27.3	12.3	6.2
	산업공예디자인	54.1	30.3	51.6	27.4	14.9	13.0	1.6
	디자인인프라	26.0	30.9	36.6	9.1	0.6	0.1	7.6

- » 권역별로 살펴보면, 인천/경기를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시간 및 대체인력 부족'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응답했으며, 특히 강원/제주(73.7%)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예측할 수 없는 업무 상황'은 대부분의 권역에서 2번째 애로사항으로 응답했는데, 인천/경기(53.6%)에서는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 » 규모별로는 중견기업을 제외한 모든 규모의 업체에서 '시간 및 대체인력 부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예측할 수 없는 업무 상황'은 중견기업(51.3%)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권역별/규모별/외주여부별 디자이너 재교육 시 애로사항

(단위: %, 중복응답)

구분		시간 및 대체인력 부족	예측할 수 없는 업무 상황	교육예산 부족	양질의 재교육 프로그램 부족	재교육 정보 부족	경영진 및 관련 부서의 인식 부족	재교육 전문기관 부족	재교육 후 아직 등 투자 대비 효과
활용업체		51.0	49.3	40.0	20.5	9.4	5.6	2.7	1.8
권역별	서울	51.4	47.8	37.7	21.1	8.0	2.6	1.2	3.0
	부산/울산/경남	61.1	56.5	41.1	27.3	6.7	1.0	0.0	0.2
	대구/경북	60.0	52.4	44.6	15.0	9.4	6.8	7.6	1.5
	인천/경기	40.2	53.6	50.0	14.0	6.0	10.9	4.9	0.8
	광주/전라	58.1	37.0	25.9	29.7	22.3	0.0	4.6	0.0
	대전/충청	47.8	46.1	35.8	23.4	19.1	14.2	1.5	1.8
	강원/제주	73.7	47.6	22.0	24.6	8.4	23.7	0.0	0.0
규모별	대기업	59.7	32.8	18.6	48.6	10.3	5.3	2.8	0.0
	중견기업	43.6	51.3	28.1	46.9	17.2	4.7	0.0	1.4
	중기업	64.9	42.6	31.8	23.3	11.3	1.2	7.1	2.4
	소기업	49.3	50.3	41.4	19.5	9.0	6.2	2.1	1.7
외주	외주용역 있음	53.9	46.2	47.6	16.6	10.0	7.3	4.3	2.1
	외주용역 없음	50.5	49.9	38.6	21.2	9.3	5.3	2.3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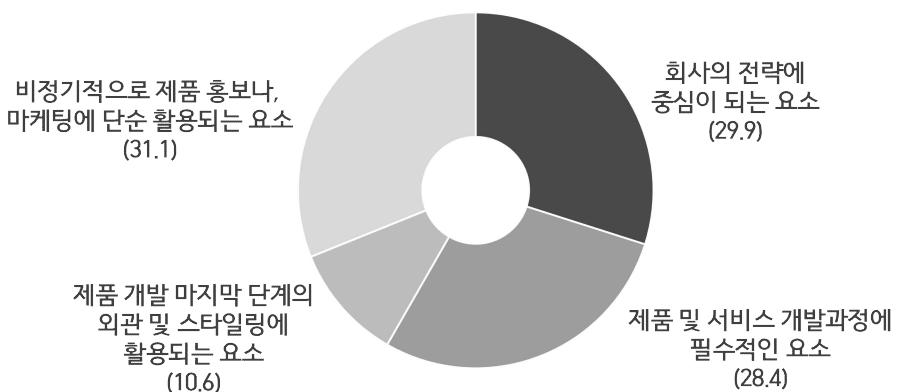
5 디자인 역량

1) 디자인이 차지하는 위상/수준

- » 디자인활용업체를 대상으로 디자인이 차지하는 위상/수준을 살펴본 결과, '비정기적으로 제품 흉보나 마케팅에 단순 활용되는 요소'(31.1%), '회사의 전략에 중심이 되는 요소'(29.9%), '제품 및 서비스 개발과정에 필수적인 요소'(28.4%), '제품 개발 마지막 단계의 외관 및 스타일링에 활용되는 요소'(10.6%)의 응답을 보임.

디자인이 차지하는 위상/수준

(단위: %)



- » 업종별로 살펴보면, '회사 전략 중심 요소'의 응답은 공간디자인업(65.6%), '비정기적으로 흉보와 마케팅에 활용 요소'의 응답은 디자인인프라업(52.4%)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업종별 디자인이 차지하는 위상/수준

(단위: %)

구분	회사의 전략에 중심이 되는 요소	제품 및 서비스 개발과정에 필수적인 요소	제품 개발 마지막 단계의 외관 및 스타일링에 활용되는 요소	비정기적으로 제품 흉보나, 마케팅에 단순 활용되는 요소
활용업체	29.9	28.4	10.6	31.1
업종별	제품디자인	3.9	72.4	2.5
	시각디자인	21.5	29.6	19.9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7.0	28.1	54.3
	공간디자인	65.6	21.5	2.5
	패션/텍스타일디자인	11.6	73.5	11.5
	서비스/경험디자인	55.8	6.5	0.0
	산업공예디자인	32.7	27.2	11.4
	디자인인프라	6.3	22.7	18.6

- » 권역별로 살펴보면, '비정기적 제품 홍보 및 마케팅 활용 요소'라는 응답은 대구/경북(44.2%)과 강원/제주에서 100.0%의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 규모별로 살펴보면, 소기업을 제외한 모든 규모의 업체에서 '비정기적 제품 홍보 및 마케팅 활용 요소'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디자이너 고용 여부별로 살펴보면, 디자이너 고용 업체에서는 '회사 전략의 중심 요소'(40.8%), '제품 및 서비스 개발과정 필수 요소'(37.0%)의 비율이 디자이너 비고용 업체 대비 높게 나타남.

권역별/규모별/고용별/외주여부별 디자인이 차지하는 위상/수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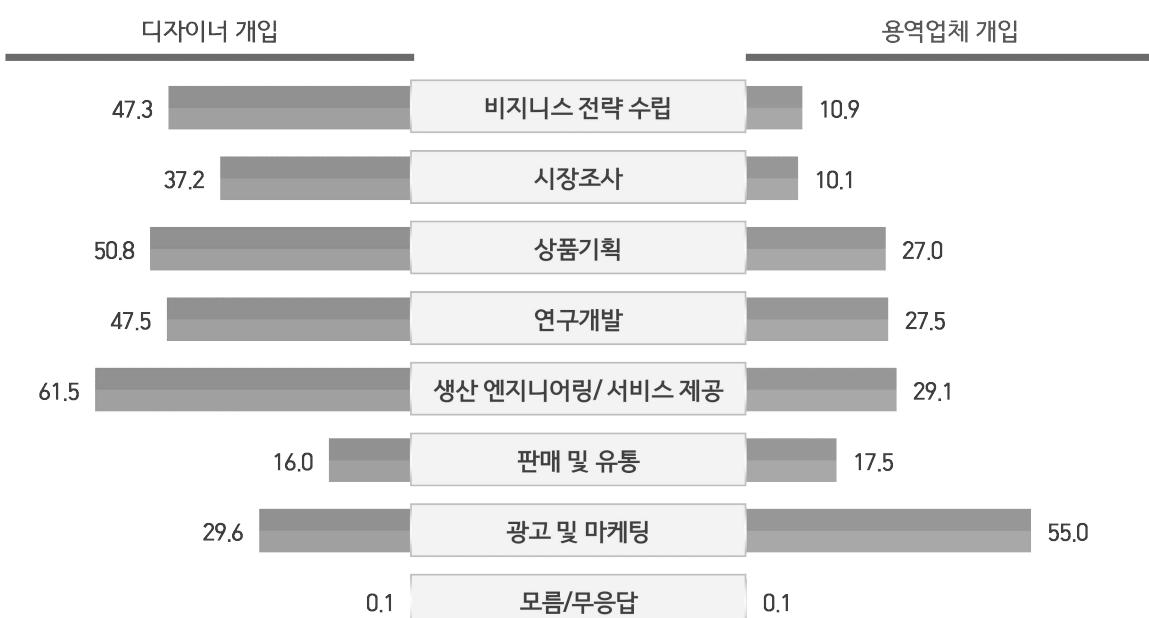
구분		회사의 전략에 중심이 되는 요소	제품 및 서비스 개발과정에 필수적인 요소	제품 개발 마지막 단계의 외관 및 스타일링에 활용되는 요소	비정기적으로 제품 홍보나, 마케팅에 단순 활용되는 요소
활용업체		29.9	28.4	10.6	31.1
권 역 별	서울	30.3	28.5	12.9	28.3
	부산/울산/경남	27.0	28.1	11.9	33.0
	대구/경북	22.2	30.4	3.2	44.2
	인천/경기	26.0	35.7	9.6	28.7
	광주/전라	38.5	12.6	12.0	36.8
	대전/충청	42.2	22.2	4.2	31.4
	강원/제주	42.0	14.8	13.1	30.1
규 모 별	대기업	29.8	19.4	1.7	48.3
	중견기업	34.5	24.3	0.0	41.2
	중기업	26.9	19.2	10.8	43.1
	소기업	30.4	30.1	10.8	28.7
고 용	디자이너 고용	40.8	37.0	6.9	15.4
	디자이너 비고용	11.6	13.9	16.9	57.6
외 주	외주용역 있음	17.0	18.9	15.3	48.7
	외주용역 없음	41.5	36.9	6.4	15.3

2) 개발 프로세스 중 디자이너/용역업체 개입 단계

- » 개발 프로세스에 개입하는 단계를 살펴보면(중복응답 기준), 디자이너의 경우 '생산 엔지니어링/서비스 제공'(61.5%)이 가장 높고, 다음은 '상품 기획'(50.8%), '연구개발'(47.5%) 등의 순임. 한편, 전문용역업체의 경우 '광고 및 마케팅'에서 55.0%로 가장 높고, 다음은 '생산 엔지니어링/서비스 제공'(29.1%), '연구개발'(27.5%) 등의 순으로 나타남.

개발 프로세스 중 디자이너/용역업체 개입 단계

(단위: %, 중복응답)



- » 업종별 디자이너 개입 단계로는 '생산 엔지니어링'의 경우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업(95.3%), 서비스/경험디자인업(87.5%), 공간디자인업(76.8%)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상품기획'의 경우 제품디자인업(95.8%), 패션/텍스타일디자인업(95.3%)에서 높게 나타남.

▣ 업종별 개발 프로세스 중 디자이너 개입 단계

(단위: %, 중복응답)

구분		비즈니스 전략 수립	시장 조사	상품 기획	연구 개발	생산 엔지니어링 /서비스 제공	판매 및 유통	광고 및 마케팅
업종별	활용업체	47.3	37.2	50.8	47.5	61.5	16.0	29.6
	제품디자인	36.2	67.4	95.8	95.4	67.4	30.5	31.7
	시각디자인	20.8	18.1	52.8	40.8	2.3	20.9	46.4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19.2	36.1	60.2	60.2	95.3	7.5	12.5
	공간디자인	39.8	24.9	39.8	52.4	76.8	7.7	3.8
	패션/텍스타일디자인	85.0	98.9	95.3	95.8	43.9	10.4	7.3
	서비스/경험디자인	73.6	14.8	19.2	6.5	87.5	12.5	44.8
	산업공예디자인	53.0	39.1	52.9	39.4	65.5	34.7	38.5
	디자인인프라	44.5	47.4	49.4	34.9	27.8	18.3	51.1

- » 업종별 용역업체 개입 단계로는 ‘광고 및 마케팅’의 경우 서비스/경험디자인업(69.1%), 디자인인프라업(62.8%) 등의 순으로 높았으며, ‘생산 엔지니어링’은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업(87.7%), 서비스/경험디자인업(59.4%)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업종별 개발 프로세스 중 용역업체 개입 단계

(단위: %, 중복응답)

구분	비즈니스 전략 수립	시장 조사	상품 기획	연구 개발	생산 엔지니어링 /서비스 제공	판매 및 유통	광고 및 마케팅
활용업체	10.9	10.1	27.0	27.5	29.1	17.5	55.0
업종별	제품디자인	11.4	19.5	46.8	51.5	14.2	32.5
	시각디자인	12.0	6.1	30.5	34.4	0.5	17.6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0.0	0.0	9.1	15.3	87.7	0.0
	공간디자인	19.8	35.5	37.5	54.4	10.3	2.8
	패션/텍스타일디자인	5.3	12.1	40.8	93.2	0.0	0.0
	서비스/경험디자인	13.3	6.0	21.8	3.6	59.4	4.8
	산업공예디자인	24.8	26.9	48.4	37.9	52.2	23.9
	디자인인프라	7.5	8.3	21.0	28.5	11.9	26.2

- » 권역별로 살펴보면, ‘생산 엔지니어링’은 강원/제주와 광주/전라에서 각각 86.7%와 83.6%로 가장 높았으며, ‘상품기획’은 대구/경북(56.3%)과 인천/경기(56.2%)에서 높게 나타남. ‘상품기획’은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디자이너의 개입 비율이 낮음.

▣ 권역별/규모별/외주여부별 개발 프로세스 중 디자이너 개입 단계

(단위: %, 중복응답)

구분	비즈니스 전략 수립	시장 조사	상품 기획	연구 개발	생산 엔지니어링 /서비스 제공	판매 및 유통	광고 및 마케팅
활용업체	47.3	37.2	50.8	47.5	61.5	16.0	29.6
권역별	서울	43.9	37.1	53.9	47.6	50.5	16.4
	부산/울산/경남	56.4	44.6	47.3	50.5	67.6	9.5
	대구/경북	53.4	41.3	56.3	44.4	69.5	19.7
	인천/경기	48.8	44.6	56.2	57.2	66.7	20.2
	광주/전라	46.1	18.2	24.6	29.2	83.6	8.8
	대전/충청	48.3	25.1	42.5	39.1	68.3	13.9
	강원/제주	40.8	17.9	42.4	30.4	86.7	9.8
	외주용역 있음	54.3	45.4	57.6	49.0	49.5	15.8
규모별	외주용역 없음	45.9	35.6	49.5	47.3	63.8	16.1
외주							29.2

- » 권역별로 용역업체 개입 단계를 살펴본 결과, '광고 및 마케팅'은 강원/제주(84.3%)에서 가장 높고, 다음은 대구/경북(70.9%), 대전/충청(64.7%) 등의 순으로 나타남. '생산 엔지니어링'은 대전/충청(40.2%), 인천/경기(39.9%), 부산/울산/경남(36.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 규모별 개입 단계로는, '광고 및 마케팅'의 경우 규모가 클수록 용역업체의 개입 단계도 높게 나타나, 대기업은 90.2%, 소기업은 50.6%의 비율을 보임.
- » 디자이너 고용업체의 용역업체 개입 단계는 '연구 개발'(35.5%), '상품 기획'(29.2%), '광고 및 마케팅'(27.9%) 등의 순임.

권역별/규모별/고용별 개발 프로세스 중 용역업체 개입 단계

(단위: %, 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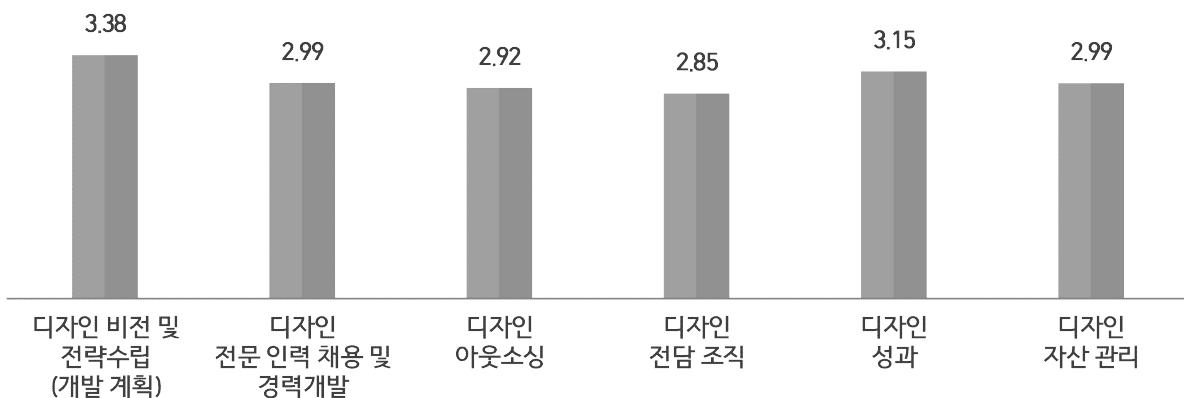
구분		비즈니스 전략 수립	시장 조사	상품 기획	연구 개발	생산 엔지니어링 /서비스 제공	판매 및 유통	광고 및 마케팅
활용업체		10.9	10.1	27.0	27.5	29.1	17.5	55.0
권 역 별	서울	9.3	10.1	28.7	22.6	23.9	12.4	48.0
	부산/울산/경남	9.9	17.0	34.4	40.8	36.7	30.1	57.8
	대구/경북	19.8	6.9	10.2	18.8	15.5	32.7	70.9
	인천/경기	8.3	10.8	27.1	31.2	39.9	10.5	53.8
	광주/전라	3.1	2.4	34.6	24.6	25.2	19.3	54.2
	대전/충청	24.6	5.1	13.2	31.1	40.2	17.4	64.7
	강원/제주	15.6	11.1	39.5	31.4	11.1	15.6	84.3
규 모 별	대기업	41.2	16.9	17.7	14.7	27.5	19.4	90.2
	중견기업	17.0	24.5	25.7	22.2	33.3	12.5	70.3
	중기업	17.1	13.5	21.6	21.8	38.1	16.7	69.5
	소기업	8.7	8.9	28.5	29.2	26.8	17.7	50.6
고 용	디자이너 고용	9.9	21.4	29.2	35.5	16.5	10.2	27.9
	디자이너 비고용	11.1	7.0	26.4	25.3	32.5	19.4	62.3

3) 디자인 업무 및 활동 수준

- » 디자인활용업체 내 디자인 업무 및 활동 수준을 살펴본 결과, '디자인 비전 및 전략수립(개발 계획)’(3.38점), '디자인 성과'(3.15점), '디자인 전문 인력 채용 및 경력개발'(2.99점), '디자인 자산 관리'(2.99점) 등으로 전반적으로 비슷한 점수로 나타남.

디자인 업무 및 활동 수준

(단위: 점)



- » 업종별로 살펴보면, 시각디자인업(2.75점)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디자인 비전 및 전략수립 (개발 계획)'의 디자인 업무 및 활동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특히 서비스/경험디자인업(3.72점), 공간디자인업(3.67점)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업종별 디자인 업무 및 활동 수준

(단위: 점)

구분	디자인 비전 및 전략수립 (개발 계획)	디자인 전문 인력 채용 및 경력개발	디자인 아웃소싱	디자인 전담 조직	디자인 성과	디자인 자산 관리
활용업체	3.38	2.99	2.92	2.85	3.15	2.99
업종별						
제품디자인	3.36	2.92	2.96	2.98	3.09	3.00
	2.75	2.55	2.40	2.62	2.89	2.67
	2.78	2.35	2.26	2.31	2.73	2.28
	3.67	3.28	2.87	3.24	3.50	3.22
	3.43	2.79	2.66	2.70	3.08	2.97
	3.72	3.26	3.27	2.73	3.12	3.00
	3.32	3.05	3.12	3.01	2.98	2.89
	3.20	2.87	2.93	2.78	3.17	3.06

- » 권역별로 살펴보면, '디자인 비전 및 전략수립(개발 계획)'이 모든 권역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가운데, 특히 강원/제주(3.64점)과 대전/충청(3.59점), 광주/전라(3.54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임.
- » 규모별 결과 역시 모든 규모의 업체에서 '디자인 비전 및 전략수립(개발 계획)'의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기업(3.63점), 대기업(3.44점), 소기업(3.34점), 중견기업(3.25점)의 순으로 나타남.
- » 디자이너 고용 여부별로 결과도 마찬가지로 고용 여부와 관계없이 '디자인 비전 및 전략수립(개발 계획)'의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남.

권역별/규모별/고용별/외주여부별 디자인 업무 및 활동 수준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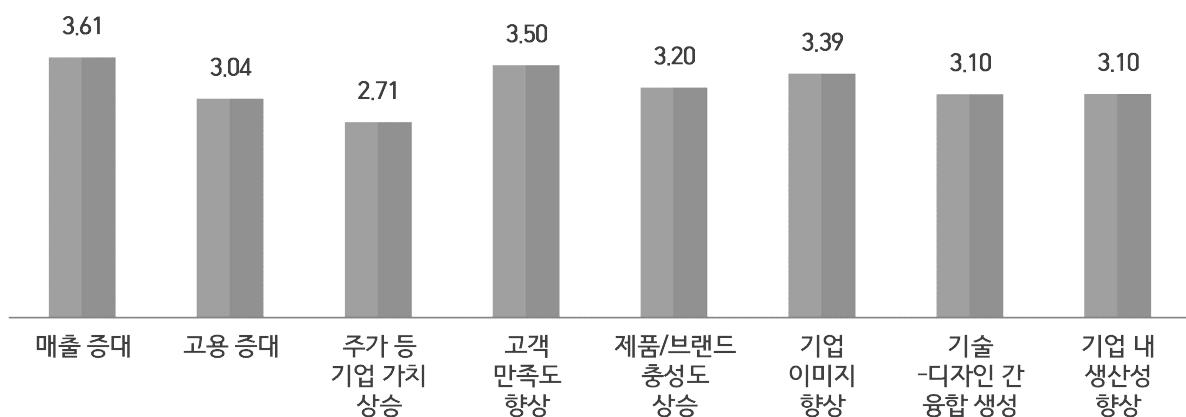
구분		디자인 비전 및 전략수립 (개발 계획)	디자인 전문 인력 채용 및 경력개발	디자인 아웃소싱	디자인 전담 조직	디자인 성과	디자인 자산 관리
활용업체		3.38	2.99	2.92	2.85	3.15	2.99
권 역 별	서울	3.23	2.89	2.82	2.79	3.09	2.93
	부산/울산/경남	3.43	3.03	2.96	2.95	3.17	3.03
	대구/경북	3.45	3.01	3.07	2.82	3.17	3.01
	인천/경기	3.47	3.00	3.00	2.95	3.18	3.05
	광주/전라	3.54	3.08	3.00	2.91	3.29	2.97
	대전/충청	3.59	3.27	2.93	2.58	3.21	3.03
	강원/제주	3.64	3.40	2.96	2.96	3.27	3.24
규 모 별	대기업	3.44	3.34	3.18	3.07	3.05	3.09
	중견기업	3.25	2.97	2.98	2.94	3.03	3.04
	중기업	3.63	3.25	3.28	2.95	3.31	3.17
	소기업	3.34	2.94	2.86	2.82	3.13	2.96
고 용	디자이너 고용	3.63	3.22	2.92	3.11	3.37	3.16
	디자이너 비고용	2.96	2.60	2.93	2.40	2.78	2.71
외 주	외주용역 있음	3.10	2.74	2.97	2.53	2.89	2.80
	외주용역 없음	3.63	3.22	2.88	3.13	3.38	3.16

4) 디자인 투자 및 활용 기여도

- » 디자인활용업체 내 디자인 투자 및 활용 기여도를 살펴본 결과, '매출 증대'(3.61점), '고객 만족도 향상'(3.50점), '기업 이미지 향상'(3.39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비슷한 수준의 점수를 보임.

디자인 투자 및 활용 기여도

(단위: 점)



- » 업종별로 살펴보면,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매출 증대'가 가장 높은 점수로 나타났으며, 제품디자인업(3.86점), 산업공예디자인업(3.75점)의 순으로 나타남. '고객 만족도 향상'은 공간디자인업(3.91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업종별 디자인 투자 및 활용 기여도

(단위: 점)

구분	매출 증대	고용 증대	주가 등 기업 가치 상승	고객 만족도 향상	제품/브랜드 총성도 상승	기업 이미지 향상	기술-디자인 간 융합 생성	기업 내 생산성 향상
활용업체	3.61	3.04	2.71	3.50	3.20	3.39	3.10	3.10
업종별	제품디자인	3.86	3.08	3.57	3.67	3.35	3.35	3.32
	시각디자인	3.45	2.79	2.72	3.39	2.95	3.25	2.90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2.58	2.13	2.23	2.90	2.89	3.06	2.73
	공간디자인	4.02	3.33	2.88	3.91	3.35	3.56	3.44
	패션/텍스타일디자인	3.33	2.75	2.26	3.16	3.23	3.21	2.39
	서비스/경험디자인	3.67	2.99	2.15	3.71	3.10	3.55	3.03
	산업공예디자인	3.75	3.27	3.08	3.33	3.36	3.32	3.03
	디자인인프라	3.43	3.10	2.77	3.19	3.19	3.29	3.10
								3.16

- » 권역별로 살펴보면, 대전/충청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매출 증대'가 디자인 투자 및 활용 기여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모든 권역에서 높은 점수를 보임. '고객 만족도 향상'은 강원/제주(3.84점)과 대전/충청(3.73점)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임.
- » 규모별 결과 역시 모든 규모의 업체에서 '매출 증대'가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그 중 중기업(3.73점)과 대기업(3.70점)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 디자이너 고용 여부와 관계없이 '매출 증대'가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디자이너 고용 업체의 점수가 3.77점으로 디자이너 비고용 업체(3.35점) 대비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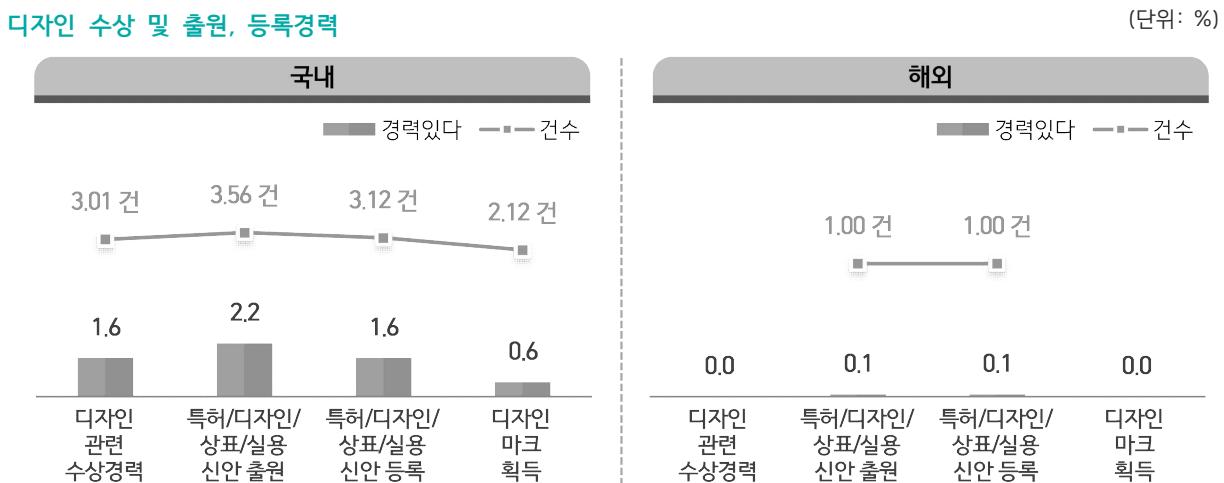
권역별/규모별/고용별/외주여부별 디자인 투자 및 활용 기여도

(단위: 점)

구분		매출 증대	고용 증대	주가 등 기업 가치 상승	고객 만족도 향상	제품/브랜드 충성도 상승	기업 이미지 향상	기술-디자인 간 융합 생성	기업 내 생산성 향상
활용업체		3.61	3.04	2.71	3.50	3.20	3.39	3.10	3.10
권 역 별	서울	3.49	2.94	2.67	3.40	3.16	3.34	3.01	3.05
	부산/울산/경남	3.76	3.18	2.79	3.53	3.20	3.51	3.17	3.20
	대구/경북	3.62	3.06	2.73	3.51	3.18	3.47	3.06	3.04
	인천/경기	3.71	3.04	2.82	3.54	3.30	3.34	3.17	3.14
	광주/전라	3.64	3.20	2.61	3.59	3.16	3.35	3.25	3.21
	대전/충청	3.69	3.13	2.49	3.73	3.15	3.56	3.11	3.08
	강원/제주	3.92	3.35	3.07	3.84	3.07	3.44	3.46	3.26
규 모 별	대기업	3.70	3.30	2.87	3.54	3.22	3.53	3.21	3.04
	중견기업	3.53	3.12	2.84	3.35	3.14	3.43	3.05	3.03
	중기업	3.73	3.17	2.74	3.63	3.28	3.50	3.18	3.24
	소기업	3.59	3.01	2.70	3.48	3.18	3.36	3.09	3.08
고 용	디자이너 고용	3.77	3.19	2.88	3.70	3.33	3.50	3.26	3.25
	디자이너 비고용	3.35	2.78	2.43	3.17	2.98	3.19	2.82	2.86
외 주	외주용역 있음	3.43	2.88	2.51	3.26	3.04	3.25	2.90	2.93
	외주용역 없음	3.77	3.19	2.89	3.72	3.33	3.51	3.28	3.26

5) 디자인 수상 및 출원, 등록경력 건수

- » 국내 디자인 수상 및 출원, 등록 경력은 '특허/디자인/상표/실용 신안 출원'(2.2%, 3.56건), '특허/디자인/상표/실용 신안 등록'(1.6%, 3.12건), '디자인 관련 수상 경력'(1.6%, 3.01건), '디자인 마크 획득'(0.6%, 2.12건) 순으로 나타남.



- » 업종별로 살펴보면, '국내 디자인 특허/디자인/상표/실용 신안 출원'은 산업공예디자인업(4.6%), 시각디자인업(4.4%), '국내 디자인 특허/디자인/상표/실용 신안 등록'은 산업공예디자인업(4.3%), '국내 디자인 관련 수상 경력'은 산업공예디자인업(9.1%)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6) 업종별 디자인 수상 및 출원, 등록경력

구분(경험비율)	국내				해외			
	디자인 관련 수상 경력	특허/디자인/ 상표/실용 신안 출원	특허/디자인/ 상표/실용 신안 등록	디자인 마크 획득	디자인 관련 수상 경력	특허/디자인/ 상표/실용 신안 출원	특허/디자인/ 상표/실용 신안 등록	디자인 마크 획득
활용업체	1.6	2.2	1.6	0.6	0.0	0.1	0.1	0.0
업종별	제품디자인	0.0	1.6	0.6	0.5	0.0	0.0	0.0
	시각디자인	3.2	4.4	2.1	0.0	0.0	1.1	0.6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0.0	0.9	0.9	0.0	0.0	0.0	0.0
	공간디자인	0.5	2.7	1.6	0.0	0.0	0.0	0.0
	패션/텍스타일디자인	0.0	0.0	0.0	0.0	0.0	0.0	0.0
	서비스/경험디자인	0.0	0.0	0.0	0.0	0.0	0.0	0.0
	산업공예디자인	9.1	4.6	4.3	3.0	0.0	0.0	0.0
	디자인인프라	3.0	3.6	3.2	1.4	0.0	0.0	0.0

- » 권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에서 경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가운데, '국내 디자인 관련 수상'은 3.1%, '국내 특허/디자인/상표/실용 신안 출원'은 3.5%, '특허/디자인/상표/실용 신안 등록' 3.0%, '국내 디자인 마크'는 1.0%로 나타남.
 한편, '국내 특허/디자인/상표/실용 신안 출원'이 중견기업(4.0%)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 디자이너를 고용한 업체의 경력이 모든 수상 및 출원, 등록 경력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국내 특허/디자인/상표/실용 신안 출원'(3.5%)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권역별/규모별/고용별/외주여부별 디자인 수상 및 출원, 등록경력

(단위: 건)

구분		국내				해외			
		디자인 관련 수상 경력	특허/디자인 /상표/실용 신안 출원	특허/디자인 /상표/실용 신안 등록	디자인 마크 획득	디자인 관련 수상 경력	특허/디자인 /상표/실용 신안 출원	특허/디자인 /상표/실용 신안 등록	디자인 마크 획득
활용업체		1.6	2.2	1.6	0.6	0.0	0.1	0.0	0.0
권 역 별	서울	3.1	3.5	3.0	1.0	0.0	0.0	0.0	0.0
	부산/울산/경남	0.1	1.3	0.7	0.0	0.0	0.0	0.0	0.0
	대구/경북	0.9	2.2	0.5	0.6	0.0	0.5	0.0	0.0
	인천/경기	0.8	1.6	0.7	0.3	0.0	0.0	0.0	0.0
	광주/전라	0.0	0.0	0.0	0.5	0.0	0.0	0.0	0.0
	대전/충청	0.8	1.0	0.8	0.8	0.0	0.8	0.8	0.0
	강원/제주	0.0	0.0	0.0	0.0	0.0	0.0	0.0	0.0
규 모 별	대기업	1.3	3.1	2.2	0.5	0.0	0.0	0.0	0.8
	중견기업	0.0	4.0	0.0	0.0	0.0	0.0	0.0	0.0
	중기업	0.8	2.0	1.9	0.4	0.0	0.3	0.3	0.0
	소기업	1.8	2.2	1.6	0.6	0.0	0.0	0.0	0.0
고 용	디자이너 고용	2.5	3.5	2.5	0.9	0.0	0.1	0.0	0.0
	디자이너 비고용	0.0	0.1	0.1	0.0	0.0	0.1	0.1	0.0
외 주	외주용역 있음	0.5	1.2	1.0	0.7	0.0	0.1	0.1	0.0
	외주용역 없음	2.6	3.2	2.2	0.5	0.0	0.1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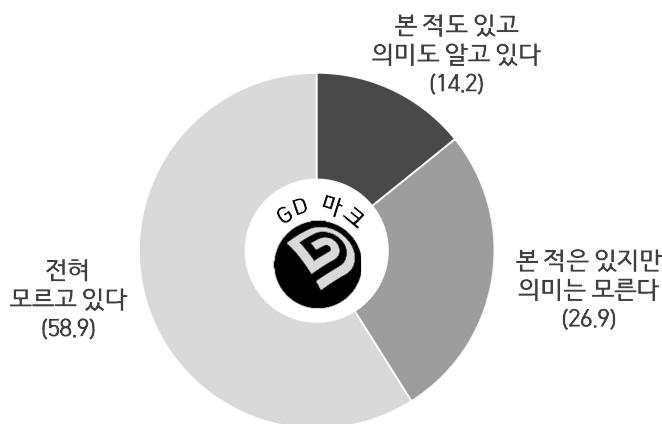
6) 디자인 인증

6-1) GD 마크 인지도

- » 디자인활용업체 중 GD 마크 인지도에 대해 '본 적도 있고 의미도 알고 있다'고 응답한 업체는 14.2%로 나타났고, '본 적은 있지만 의미는 모른다'의 응답은 26.9%, 그 외 '전혀 모르고 있다'의 응답이 58.9%로 가장 높게 나타남.

GD 마크 인지도

(단위: %)



- » 업종별 GD 마크 인지도를 살펴보면, '본 적도 있고 의미도 알고 있다'의 응답은 디지털/멀티 미디어디자인업(55.6%)에서 가장 높았으며, 서비스/경험디자인업(1.3%)에서 상대적으로 낮음. 한편 '전혀 모르고 있다'의 응답은 제품디자인업(83.4%)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업종별 GD 마크 인지도

(단위: %)

구분	본 적도 있고 의미도 알고 있다	본 적은 있지만 의미는 모른다	전혀 모르고 있다
활용업체	14.2	26.9	58.9
업종별	제품디자인	14.5	2.0
	시각디자인	22.6	20.9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55.6	31.9
	공간디자인	7.2	19.9
	패션/텍스타일디자인	24.9	12.9
	서비스/경험디자인	1.3	53.4
	산업공예디자인	12.1	27.4
	디자인인프라	19.0	24.0

- » 권역별 GD 마크 인지도는 '본 적도 있고 의미도 알고 있다'의 응답은 서울(18.8%), 인천/경기(16.3%)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본 적은 있지만 의미는 모른다'는 광주/전라(42.5%), 서울(29.5%) 등의 순을 보임. 한편, '전혀 모르고 있다'의 경우 강원/제주(75.0%), 대구/경북(71.9%), 부산/울산/경남(71.1%)의 순으로 모든 권역에서 50% 이상으로 나타남.
- » 규모별로 살펴보면, 규모가 커짐에 따라 인지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 가운데, '전혀 모르고 있다'의 응답은 대기업(35.7%), 중견기업(45.5%), 중기업(56.9%), 소기업(59.8%)로 나타남.
- » 디자이너 고용 여부별로 살펴보면, 디자이너 고용한 업체의 GD 마크 인지도가 비고용 업체보다 높게 나타남.

권역별/규모별/고용별/외주여부별 GD 마크 인지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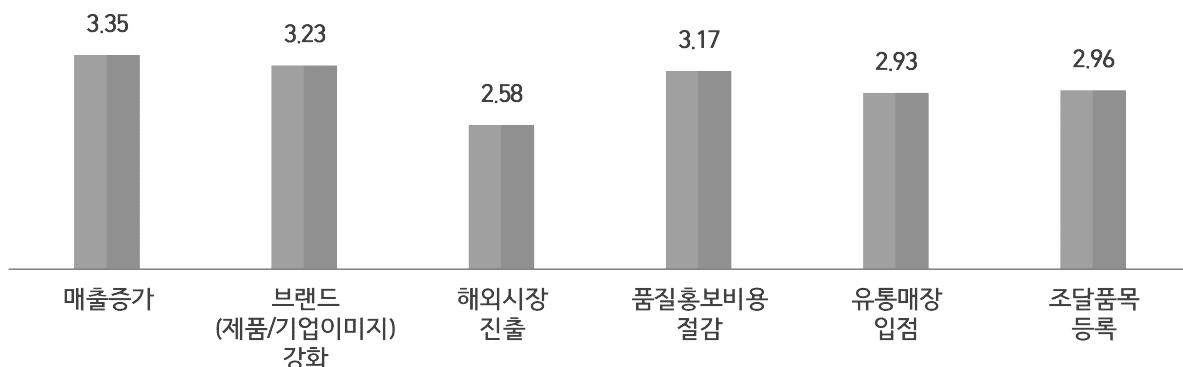
구분		본 적도 있고 의미도 알고 있다	본 적은 있지만 의미는 모른다	전혀 모르고 있다
활용업체		14.2	26.9	58.9
권 역 별	서울	18.8	29.5	51.7
	부산/울산/경남	7.3	21.6	71.1
	대구/경북	6.1	22.0	71.9
	인천/경기	16.3	24.2	59.5
	광주/전라	6.9	42.5	50.6
	대전/충청	11.4	18.2	70.4
	강원/제주	3.3	21.7	75.0
규 모 별	대기업	17.3	46.1	35.7
	중견기업	8.6	45.9	45.5
	중기업	10.0	33.1	56.9
	소기업	15.0	25.3	59.8
고 용	디자이너 고용	17.5	26.5	56.0
	디자이너 비고용	8.6	27.5	63.9
외 주	외주용역 있음	10.4	28.3	61.3
	외주용역 없음	17.6	25.5	56.8

6-2) GD 마크 획득 경영활동 기여도

- » GD 마크 획득 경영활동 기여도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항목이 비슷한 점수를 보인 가운데, '매출증가'가 3.35점으로 가장 높고 '브랜드(제품/기업이미지) 강화'(3.23점), '품질홍보비용 절감'(3.17점) 등의 순을 보임.

GD 마크 획득 경영활동 기여도

(단위: 점)



- » 업종별로 살펴보면, '매출증가'의 경우 서비스/경험디자인업(3.68점), 공간디자인업(3.65점)에서 가장 높은 기여도를 보였으며, '브랜드(제품/기업이미지) 강화'는 패션/텍스타일디자인업(3.53%), 공간디자인업(3.49점)에서 가장 높은 기여도를 보임.

▣ 업종별 GD 마크 획득 경영활동 기여도

(단위: 점)

구분	매출증가	브랜드 (제품/ 기업이미지) 강화	해외시장 진출	품질홍보비용 절감	유통매장 입점	조달품목 등록
활용업체	3.35	3.23	2.58	3.17	2.93	2.96
업 종 별	제품디자인	3.26	3.05	3.01	3.15	3.06
	시각디자인	2.35	2.47	2.15	2.06	2.08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2.41	2.69	2.19	2.55	2.26
	공간디자인	3.65	3.49	2.72	3.45	3.07
	패션/텍스타일디자인	3.52	3.53	3.07	3.06	3.22
	서비스/경험디자인	3.68	3.47	1.81	3.59	2.90
	산업공예디자인	3.29	3.04	2.80	3.30	3.09
	디자인인프라	3.35	3.26	3.01	3.08	3.11
						3.07

- » 권역별로 살펴보면, '매출증가'의 경우 광주/전라(3.56점), 강원/제주(3.54점), 부산/울산/경남(3.50점) 등에서 높은 기여도를 보였으며, '브랜드(제품/기업이미지) 강화'는 부산/울산/경남(3.36점), 광주/전라(3.32점), 대전/충청(3.30점)에서 높은 기여도를 보임.
- » 규모별로 살펴보면, '유통매장 입점'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중기업이 가장 높은 기여도를 보임.
- » 디자이너 고용 여부에 따라 살펴보면, 모든 항목에 대해 디자이너 고용 업체의 기여도가 비고용 업체의 기여도 대비 높게 나타남.

권역별/규모별/고용별/외주여부별 GD 마크 획득 경영활동 기여도

(단위: 점)

구분		매출증가	브랜드 (제품/ 기업이미지) 강화	해외시장 진출	품질홍보비용 절감	유통매장 입점	조달품목 등록
활용업체		3.35	3.23	2.58	3.17	2.93	2.96
권 역 별	서울	3.23	3.21	2.59	3.06	2.89	2.86
	부산/울산/경남	3.50	3.36	2.68	3.33	3.02	3.13
	대구/경북	3.29	3.07	2.59	3.10	2.81	2.85
	인천/경기	3.40	3.20	2.62	3.24	2.99	3.05
	광주/전라	3.56	3.32	2.44	3.20	2.96	3.05
	대전/충청	3.43	3.30	2.37	3.33	2.94	3.01
	강원/제주	3.54	3.51	2.60	3.43	3.13	3.14
규 모 별	대기업	3.40	3.33	2.42	3.43	3.15	3.10
	중견기업	3.08	3.07	2.47	3.12	2.80	2.87
	중기업	3.57	3.43	2.66	3.45	3.09	3.15
	소기업	3.31	3.20	2.57	3.12	2.91	2.93
고 용	디자이너 고용	3.46	3.32	2.68	3.27	3.02	3.04
	디자이너 비고용	3.16	3.09	2.42	3.02	2.80	2.83
외 주	외주용역 있음	3.22	3.16	2.45	3.05	2.86	2.87
	외주용역 없음	3.47	3.30	2.70	3.28	3.00	3.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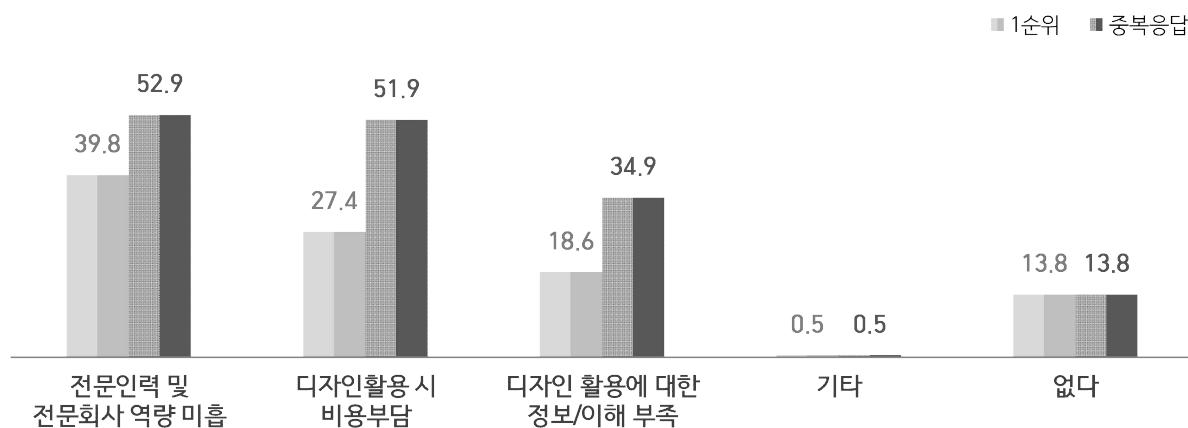
6 기타

1) 디자인 활용 시 느끼는 애로사항

- » 디자인 활용 시 느끼는 애로사항에 대해 조사한 결과(중복응답 기준), ‘전문인력 및 전문회사 역량 미흡’이 52.9%로 가장 높았고 ‘디자인활용 시 비용부담’(51.9%), ‘디자인활용에 대한 정보/이해 부족’(34.9%), 기타(0.5%)의 순으로 나타남. 1순위 기준도 같은 순위를 보임.

디자인 활용 시 느끼는 애로사항

(단위: %)



- » 업종별로 살펴보면, ‘전문인력 및 전문회사 역량 미흡’은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업이 86.4%로 가장 높았고, 패션/텍스타일디자인업(62.8%), 공간디자인업(61.9%)가 뒤를 이음. 한편 ‘디자인활용 시 비용부담’은 디지털/미디어디자인업(95.7%)과 공간디자인업(81.5%)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함.

▣ 업종별 디자인 활용 시 느끼는 애로사항

(단위: %, 중복응답)

구분	전문인력 및 전문회사 역량 미흡	디자인활용 시 비용부담	디자인 활용에 대한 정보/이해 부족	기타
활용업체	52.9	51.9	34.9	0.5
업종별	제품디자인	42.5	44.9	55.3
	시각디자인	47.1	51.4	19.9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86.4	95.7	16.3
	공간디자인	61.9	81.5	26.1
	패션/텍스타일디자인	62.8	79.8	22.8
	서비스/경험디자인	49.9	33.2	66.1
	산업공예디자인	39.5	45.2	56.8
	디자인인프라	52.0	41.7	10.6

- » 권역별로 살펴보면, '전문인력 및 전문회사 역량 미흡'은 부산/울산/경남(68.1%), 강원/제주(66.9%)에서 가장 높았고, 광주/전라(40.6%)에서 가장 낮게 나타남. '디자인활용 시 비용부담' 역시 부산/울산/경남이 58.2%로 가장 높게 나타남.
- » 규모별로는 중견기업을 제외한 모든 규모의 업체에서 '전문인력 및 전문회사 역량 미흡'에 가장 큰 불편을 겪었으며, 중견기업은 '디자인활용 시 비용부담'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응답함.
- » 디자이너 고용 여부별로는, '전문인력 및 전문회사 역량 미흡'에 대해 디자이너 고용 업체(57.8%)가 디자이너 비고용 업체(44.8%) 대비 높게 나타남.

권역별/규모별/고용별/외주여부별 디자인 활용 시 느끼는 애로사항

(단위: %, 중복응답)

구분		전문인력 및 전문회사 역량 미흡	디자인활용 시 비용부담	디자인 활용에 대한 정보/이해 부족	기타
활용업체		52.9	51.9	34.9	0.5
권 역 별	서울	54.5	56.0	28.3	1.1
	부산/울산/경남	68.1	58.2	31.9	0.0
	대구/경북	44.7	46.2	31.9	0.0
	인천/경기	50.4	48.2	39.5	0.0
	광주/전라	40.6	46.4	45.2	0.0
	대전/충청	45.8	38.1	59.0	0.0
	강원/제주	66.9	59.8	34.1	0.0
규 모 별	대기업	53.8	46.1	45.7	0.0
	중견기업	38.8	43.8	32.7	0.0
	중기업	53.1	49.5	37.3	0.0
	소기업	53.1	52.5	34.4	0.5
고 용	디자이너 고용	57.8	54.4	33.8	0.7
	디자이너 비고용	44.8	47.6	36.9	0.0
외 주	외주용역 있음	46.8	49.1	37.1	0.0
	외주용역 없음	58.4	54.4	33.0	0.9

2) 정부지원 여부

- » 디자인 관련 정부 지원을 받은 경험에 대해 살펴본 결과, '없다'가 97.6%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자금지원 경험 비율'은 1.2%,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경험업체 비율'은 0.9%, '인력양성 지원 경험 비율'이 0.7%, '수출 및 국제협력 지원 경험 비율'은 0.2%로 나타남.

정부지원 여부

(단위: %)

97.6

0.7	1.2	0.9	0.2	0.1
-----	-----	-----	-----	-----

- » 업종별로 살펴보면, '자금지원 경험 비율'과 '인력양성 지원 경험 비율'은 서비스/경험디자인에서 모두 1.2%로 업종 대비 상대적으로 높고,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경험 비율'은 시각디자인과 산업공예디자인에서 1.9%로 다른 업종 대비 높게 나타남.

■ 업종별 정부지원 여부

(단위: %)

구분	인력양성 지원 경험업체 비율	자금지원 경험업체 비율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경험업체 비율	수출 및 국제협력 지원 경험업체 비율	기타	없다
활용업체	0.7	1.2	0.9	0.2	0.1	97.6
업종별	제품디자인	0.5	1.7	0.8	0.5	0.0
	시각디자인	0.8	0.8	1.9	0.8	0.7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0.0	0.9	0.0	0.0	99.1
	공간디자인	0.0	1.1	1.5	0.0	97.3
	패션/텍스타일디자인	0.6	0.6	0.6	0.0	99.4
	서비스/경험디자인	1.2	1.2	0.2	0.0	98.6
	산업공예디자인	0.0	5.7	1.9	0.0	92.4
	디자인인프라	1.1	0.6	0.8	0.0	98.1

- » 권역별로 살펴보면, '자금지원'은 대전/충청에서 3.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은 부산/울산/경남과 대전/충청에서 모두 1.3%로 타 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 규모별로 살펴보면, '인력양성 지원'을 경험한 업체 비율은 규모가 커짐에 따라 커지는 경향을 보인 가운데, 소기업(0.7%)은 중기업(0.3%)에 비해 소폭 높은 비율을 보임. '자금지원'을 경험한 업체 비율은 대기업과 소기업은 각각 1.0%와 1.5%를 차지한 반면, 중견기업과 중기업에서는 지원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 디자이너 고용 여부별로 살펴보면, '수출 및 국제협력 지원'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디자이너 고용 업체가 비고용 업체보다 높은 경험 비율을 보임. 외주여부별로는 모든 지원 부분에서 외주용역이 없는 업체가 외주용역이 있는 업체보다 높게 나타남.

권역별/규모별/고용별/외주여부별 정부지원 여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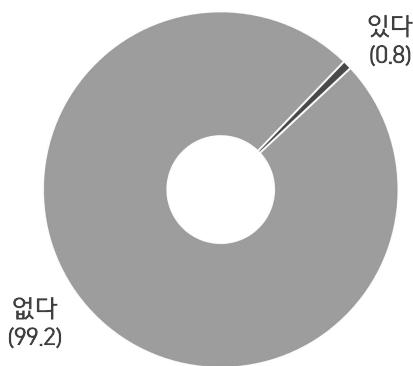
구분		인력양성 지원 경험업체 비율	자금지원 경험업체 비율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경험업체 비율	수출 및 국제협력 지원 경험업체 비율	기타	없다
활용업체		0.7	1.2	0.9	0.2	0.1	97.6
권 역 별	서울	1.3	1.5	0.8	0.2	0.1	97.1
	부산/울산/경남	0.2	1.1	1.3	0.2	0.0	97.8
	대구/경북	0.5	0.0	1.0	0.0	0.0	98.5
	인천/경기	0.3	0.7	0.7	0.3	0.0	98.9
	광주/전라	0.0	1.9	0.7	0.0	0.0	97.5
	대전/충청	0.6	3.1	1.3	0.0	0.0	95.0
	강원/제주	0.0	0.0	0.0	0.0	0.0	100.0
규 모 별	대기업	4.4	1.0	0.8	0.0	0.0	93.8
	중견기업	3.5	0.0	3.0	0.0	0.0	93.6
	중기업	0.3	0.0	0.8	0.0	0.0	98.9
	소기업	0.7	1.5	0.9	0.2	0.1	97.5
고 용	디자이너 고용	1.0	1.9	1.2	0.1	0.1	96.8
	디자이너 비고용	0.3	0.2	0.3	0.2	0.0	99.1
외 주	외주용역 있음	0.3	1.0	0.8	0.1	0.0	98.1
	외주용역 없음	1.1	1.5	1.0	0.2	0.1	97.2

3) 디자인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 » 디자인활용업체의 디자인표준계약서 활용 비율은 0.8%로 매우 낮게 나타남.
- 그 외 99.2%의 업체는 디자인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디자인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단위: %)



- » 업종별 활용 여부는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업(6.5%)과 패션/텍스타일디자인업(5.2%)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한편, 제품디자인업, 시각디자인업, 디자인인프라업에서는 디자인표준계약서 활용 비율이 0.0%로 나타남.

▣ 업종별 디자인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단위: %)

구분		있다	없다
활용업체		0.8	99.2
업종별	제품디자인	0.0	99.9
	시각디자인	0.0	100.0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6.5	93.5
	공간디자인	0.1	99.9
	패션/텍스타일디자인	5.2	94.8
	서비스/경험디자인	1.2	98.8
	산업공예디자인	0.4	99.6
	디자인인프라	0.0	100.0

- » 권역별 디자인표준계약서 활용 비율은 대전/충청(2.8%)과 서울(1.1%)에서 상대적으로 높았고, 광주/전라와 강원/제주에서는 0.0%의 활용 비율을 보임.
- » 규모별로는 대기업(2.3%)의 디자인표준계약서 활용 비율이 중기업(0.2%)과 대기업(0.9%) 대비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중견기업의 활용 비율은 0.0%로 나타남.
- » 한편, 디자이너 고용 업체(1.2%)의 디자인표준계약서 활용 비율이 디자이너 비고용 업체(0.1%)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권역별/규모별/고용별/외주여부별 디자인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단위: %)

구분		있다	없다
활용업체		0.8	99.2
권 역 별	서울	1.1	98.9
	부산/울산/경남	0.2	99.8
	대구/경북	0.7	99.3
	인천/경기	0.5	99.5
	광주/전라	0.0	100.0
	대전/충청	2.8	97.2
	강원/제주	0.0	100.0
규 모 별	대기업	2.3	96.9
	중견기업	0.0	100.0
	중기업	0.2	99.8
	소기업	0.9	99.1
고 용	디자이너 고용	1.2	98.8
	디자이너 비고용	0.1	99.9
외 주	외주용역 있음	0.2	99.7
	외주용역 없음	1.3	9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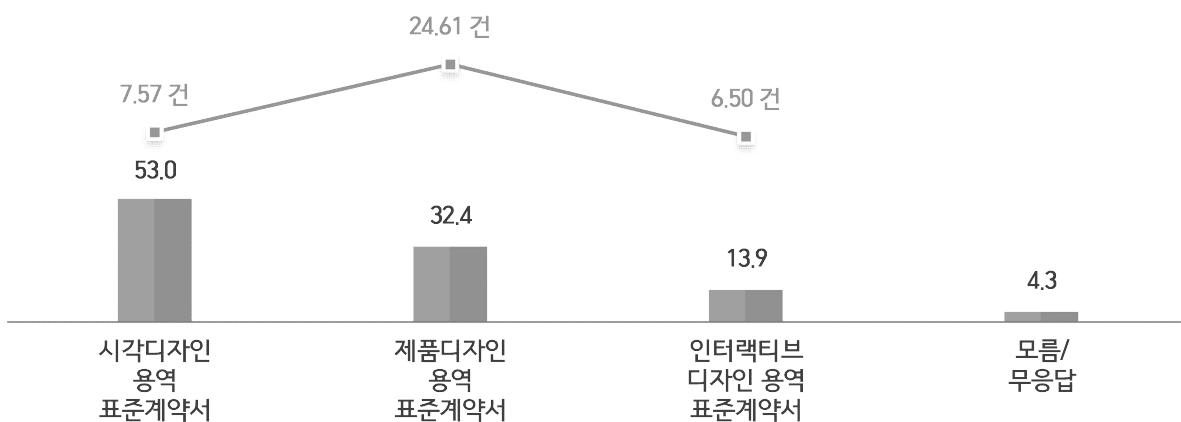
3-1) 디자인표준계약서 활용 종류 및 건수

» 활용 디자인표준계약서 종류는 ‘시각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53.0%), ‘제품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32.4%), ‘인터랙티브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13.9%)의 순을 보임.

활용 디자인표준계약서 건수는 ‘제품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가 24.6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시각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7.57건), ‘인터랙티브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6.50건)으로 나타남.

디자인표준계약서 활용 종류 및 건수

(단위: %)



» 업종별로는, ‘시각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는 시각디자인업, 서비스/경험디자인업에서 100%의 활용률을 보였으며, ‘제품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는 패션/텍스타일디자인업, 산업공예디자인업에서 100%의 활용률을 보임. 한편, ‘시각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는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업(18.44건), ‘제품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는 패션/텍스타일디자인업(27.31건), ‘인터랙티브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는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업(6.50건)에서 높게 나타남.

▣ 업종별 디자인표준계약서 활용 종류 및 건수

구분	시각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제품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인터랙티브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	건수	%	건수	%	건수
활용업체	53.0	7.57	32.4	24.61	13.9	6.50
업종별	제품디자인	25.0	1.00	25.0	2.00	0.0
	시각디자인	100.0	1.00	0.0	-	0.0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56.6	18.44	0.0	-	43.4
	공간디자인	50.0	1.00	50.0	1.00	0.0
	패션/텍스타일디자인	0.0	-	100.0	27.31	0.0
	서비스/경험디자인	100.0	1.98	0.0	-	0.0
	산업공예디자인	0.0	-	100.0	2.14	0.0
	디자인인프라	-	-	-	-	-

- » 권역별로 살펴본 결과, '시각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는 광주/전라(100.0%)와 서울(83.0%)에서 높은 활용률을 보임. '제품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는 인천/경기(100.0%), 부산/울산/경남(83.3%), 대전/충청(68.2%)에서 높은 활용률을 보임. '인터랙티브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의 경우 대구/경북에서 100.0%의 활용률을 보임. 한편, 활용 건수의 경우, '시각디자인'은 대전/충청(40.00건), '제품디자인'은 대전/충청(37.99건), '인터랙티브디자인'은 서울(10.00건)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 규모별로 살펴보면, 중견기업은 디자인표준계약서 활용 사례가 없는 가운데, '시각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는 소기업(55.1%)이 대기업(48.3%)과 중기업(0.0%)보다 높았음. 한편, 소기업에서 모든 표준계약서 활용 건수가 가장 많게 나타남.
- » 디자이너 고용 여부별로는, '시각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는 디자이너 비고용 업체의 활용 비율 및 건수가 높은 반면, '제품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는 디자이너 고용 업체의 활용 비율 및 건수가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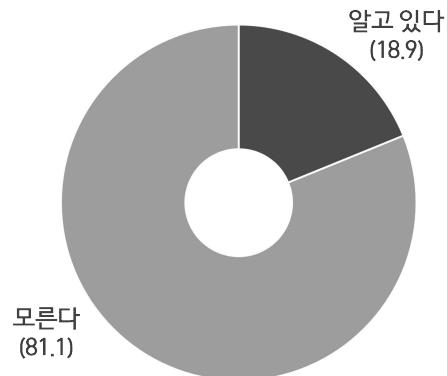
권역별/규모별/고용별/외주여부별 디자인표준계약서 활용 종류 및 건수

구분	시각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제품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인터랙티브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	건수	%	건수	%	건수
활용업체	53.0	7.57	32.4	24.61	13.9	6.50
권역별	서울	83.0	2.72	3.0	2.00	12.7
	부산/울산/경남	16.7	1.00	83.3	1.76	0.0
	대구/경북	0.0	-	0.0	-	100.0
	인천/경기	0.0	-	100.0	17.03	0.0
	광주/전라	100.0	1.00	0.0	-	0.0
	대전/충청	31.8	40.00	68.2	37.99	0.0
	강원/제주	-	-	-	-	-
규모별	대기업	48.3	1.00	33.8	1.77	0.0
	중견기업	-	-	-	-	-
	중기업	0.0	-	100.0	2.00	0.0
	소기업	55.1	7.82	29.9	28.46	15.0
고용	디자이너 고용	50.9	7.46	33.3	25.36	14.7
	디자이너 비고용	88.2	8.67	18.2	1.35	0.0
외주	외주용역 있음	40.5	7.16	9.0	1.77	45.7
	외주용역 없음	55.2	7.62	36.6	25.61	8.2

4)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인지도

-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알고 있다'고 답변한 업체는 18.9%로 나타남. 그 외 81.1%의 업체는 '모른다'고 응답함.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인지도 (단위: %)



- » 업종별로 살펴보면, 모든 업종에서 '모른다'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알고 있다'의 경우 서비스/경험디자인업(36.2%),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업(24.0%), 공간디자인업(20.9%)에서 높은 인지도를 보임.

■ 업종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인지도

(단위: %)

구분	알고 있다	모른다
활용업체	18.9	81.1
	제품디자인	89.9
	시각디자인	87.0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76.0
	공간디자인	79.1
	패션/텍스타일디자인	90.1
	서비스/경험디자인	63.8
	산업공예디자인	89.9
	디자인인프라	88.7

- » 권역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인지도는 광주/전라(25.9%)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전/충청(22.4%), 대구/경북(21.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 규모별로는 전반적으로 규모가 커짐에 따라 높은 인지도를 보인 가운데, 중견기업(38.9%)의 인지도가 대기업(38.6%)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 한편, 디자이너를 고용한 업체의 인지도가 20.5%로 비고용 업체(16.2%)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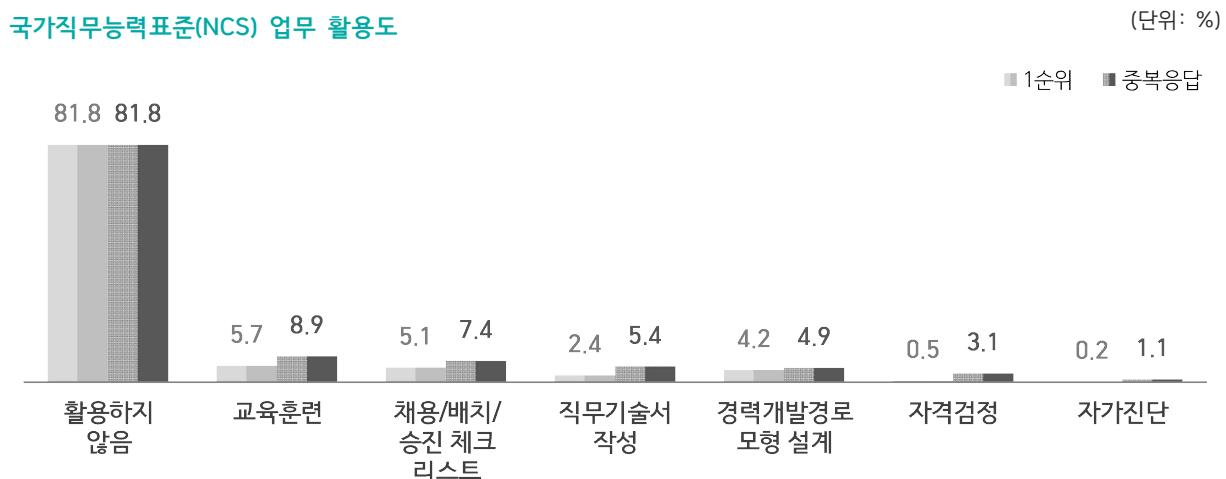
권역별/규모별/고용별/외주여부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인지도

(단위: %)

구분		알고 있다	모른다
활용업체		18.9	81.1
권 역 별	서울	18.9	81.1
	부산/울산/경남	18.0	82.0
	대구/경북	21.1	78.9
	인천/경기	15.2	84.8
	광주/전라	25.9	74.1
	대전/충청	22.4	77.6
	강원/제주	18.6	81.4
규 모 별	대기업	38.6	60.5
	중견기업	38.9	61.1
	중기업	22.8	77.2
	소기업	17.6	82.4
고 용	디자이너 고용	20.5	79.5
	디자이너 비고용	16.2	83.8
외 주	외주용역 있음	17.8	82.1
	외주용역 없음	19.8	80.2

4-1)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업무 활용도

- »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대한 업무 활용도를 조사한 결과(중복응답 기준), '활용하지 않음'(81.8%)이 가장 높고, '교육훈련'(8.9%), '채용/배치/승진 체크 리스트'(7.4%), '직무기술서 작성'(5.4%) 등이 뒤를 이음.



- » 업종별로 살펴보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업무 활용도는 전 업종에서 낮은 것으로 나타나며, 특히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업(100.0%)에서는 NCS를 전혀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한편, '교육훈련'의 경우 디자인인프라업(15.7%), 산업공예디자인업(11.9%)에서 타 업종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업종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업무 활용도

(단위: %, 중복응답)

구분	활용하지 않음	교육훈련	채용/배치/승진체크리스트	직무기술서 작성	경력개발경로 모형 설계	자격검정	자기진단
활용업체	81.8	8.9	7.4	5.4	4.9	3.1	1.1
업종별	제품디자인	88.5	9.6	2.1	1.2	0.2	0.0
	시각디자인	84.5	3.8	0.0	15.5	0.0	0.0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100.0	0.0	0.0	0.0	0.0	0.0
	공간디자인	85.4	4.0	4.6	7.9	4.1	2.3
	패션/텍스타일디자인	97.1	0.0	2.9	0.6	0.0	2.3
	서비스/경험디자인	83.1	10.6	13.1	6.0	3.8	0.0
	산업공예디자인	83.9	11.9	4.8	15.5	0.0	0.0
	디자인인프라	61.8	15.7	3.6	0.3	15.9	1.3

- » 권역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업무 활용도는 강원/제주(98.6%)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모든 권역에서 70% 이상이 활용하지 않는다고 나타남. '고용훈련'의 경우 대구/경북(31.1%), 대전/충청(21.3%)에서 타 권역 대비 높게 나타남.
- » 규모별로는 전반적으로 규모가 커짐에 따라 활용도가 높아졌으며, '활용하지 않음'의 응답은 대기업(48.0%)이 중견기업(30.7%)보다 높게 나타남.

■ 권역별/규모별/고용별/외주여부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업무 활용도

(단위: %, 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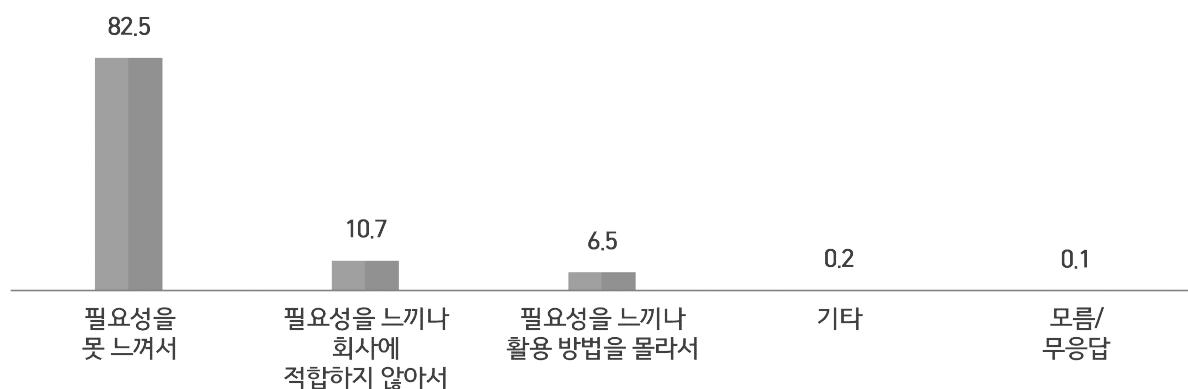
구분		활용하지 않음	교육훈련	채용/배치/ 승진체크 리스트	직무 기술서 작성	경력 개발경로 모형 설계	자격검정	자기진단
활용업체		81.8	8.9	7.4	5.4	4.9	3.1	1.1
권 역 별	서울	85.1	5.5	5.1	5.1	5.4	2.7	1.9
	부산/울산/경남	74.7	16.1	20.3	4.1	0.0	4.6	0.5
	대구/경북	68.9	31.1	6.5	0.0	0.0	0.0	0.0
	인천/경기	87.7	0.6	3.9	3.7	5.5	8.1	0.0
	광주/전라	79.1	2.6	14.0	6.9	14.1	0.0	0.0
	대전/충청	76.0	21.3	2.5	18.7	2.7	0.0	2.7
	강원/제주	98.6	0.0	1.4	1.4	0.0	0.0	0.0
규 모 별	대기업	48.0	26.3	38.8	23.3	2.0	9.3	0.0
	중견기업	30.7	22.8	42.8	17.7	26.6	0.0	11.2
	중기업	78.0	16.4	17.5	7.1	0.0	0.0	0.0
	소기업	85.2	6.4	3.1	4.2	5.5	3.7	1.0
고 용	디자이너 고용	78.7	8.3	9.8	7.7	7.0	4.3	1.6
	디자이너 비고용	88.4	10.4	2.2	0.7	0.6	0.7	0.0
외 주	외주용역 있음	85.5	10.0	3.8	2.5	2.5	2.5	0.8
	외주용역 없음	78.8	8.1	10.3	7.8	7.0	3.6	1.3

4-2)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업무에 활용하지 않는 이유

- » 국가직무능력표준(NCS)를 업무에 활용하지 않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필요성을 못 느껴서'가 82.5%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필요성을 느끼나 회사에 적합하지 않아서'(10.7%), '필요성을 느끼나 활용 방법을 몰라서'(6.5%)의 순으로 나타남.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업무에 활용하지 않는 이유

(단위: %)



- » 업종별로 살펴보면, 모든 업종에서 '필요성을 못 느껴서'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필요성을 느끼나 회사에 적합하지 않아서'는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업(37.5%)에서 높게 나타남. 한편, '필요성을 느끼나 활용 방법을 몰라서'는 제품디자인업(24.9%)와 시각디자인업(21.7%)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업종별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업무에 활용하지 않는 이유

(단위: %)

구분		필요성을 못 느껴서	필요성을 느끼나 회사에 적합하지 않아서	필요성을 느끼나 활용 방법을 몰라서	기타
활용업체		82.5	10.7	6.5	0.2
업 종 별	제품디자인	60.8	10.5	24.9	3.0
	시각디자인	49.6	28.6	21.7	0.0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53.4	37.5	9.1	0.0
	공간디자인	81.6	3.9	14.5	0.0
	패션/텍스타일디자인	73.7	26.3	0.0	0.0
	서비스/경험디자인	93.5	6.5	0.1	0.0
	산업공예디자인	100.0	0.0	0.0	0.0
	디자인인프라	87.1	12.9	0.0	0.0

- » 권역별로 살펴보면, 모든 권역에서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응답이 70% 이상을 차지했으며 특히 강원/제주(100.0%), 대전/충청(99.7%)에서 높게 나타남. '필요성을 느끼나 회사에 적합하지 않아서'는 서울(19.1%), '필요성을 느끼나 활용 방법을 몰라서'는 광주/전라(14.6%)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임.
- » 규모별로는 모든 규모의 기업에서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응답이 70% 이상을 보였으며, '필요성을 느끼나 회사에 적합하지 않아서'는 중견기업(33.9%)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 디자이너 고용 여부와 관계 없이 80% 이상의 업체에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응답함.

권역별/규모별/고용별/외주여부별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업무에 활용하지 않는 이유

(단위: %)

구분		필요성을 못 느껴서	필요성을 느끼나 회사에 적합하지 않아서	필요성을 느끼나 활용 방법을 몰라서	기타
활용업체		82.5	10.7	6.5	0.2
권 역 별	서울	73.7	19.1	7.0	0.0
	부산/울산/경남	94.9	2.9	2.1	0.0
	대구/경북	95.2	4.6	0.3	0.0
	인천/경기	81.0	8.8	9.1	1.1
	광주/전라	85.4	0.0	14.6	0.0
	대전/충청	99.7	0.3	0.0	0.0
	강원/제주	100.0	0.0	0.0	0.0
규 모 별	대기업	78.3	11.1	6.4	0.0
	중견기업	66.1	33.9	0.0	0.0
	중기업	88.2	6.5	4.0	1.3
	소기업	81.6	11.3	7.1	0.0
고 용	디자이너 고용	81.6	10.9	7.2	0.3
	디자이너 비고용	84.4	10.3	5.3	0.0
외 주	외주용역 있음	84.8	9.7	5.3	0.0
	외주용역 없음	80.5	11.5	7.6	0.4

전문디자인업체

01 | 디자인 활용 현황

02 | 디자인 인력

03 | 디자인 교육

04 | 디자인 역량

05 |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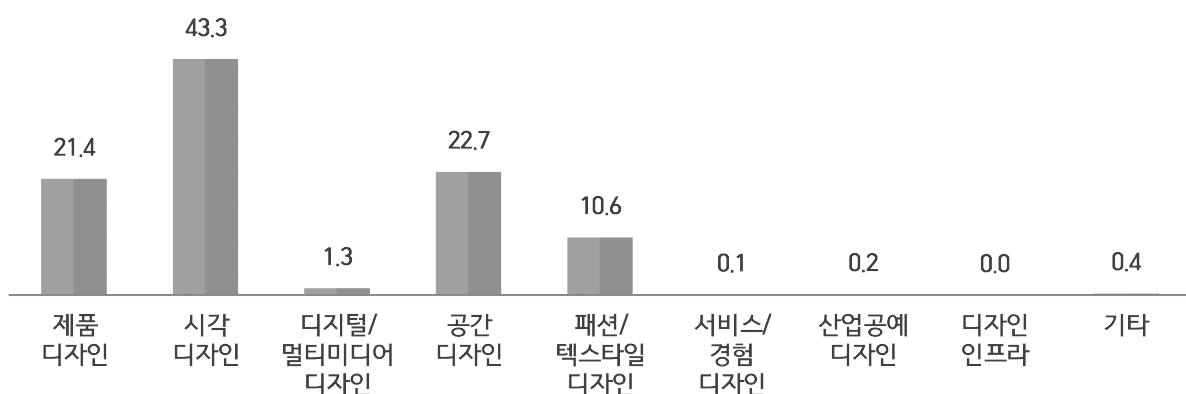
1 디자인 활용 현황

1) 전문디자인업체의 서비스 분야

- » 전문디자인업체에서 주로 서비스하는 디자인 분야를 살펴본 결과, '시각디자인'(43.3%)이 가장 많고, 이어 '공간디자인'(22.7%), '제품디자인'(21.4%), '패션/텍스타일디자인'(10.6%)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전문디자인업체의 주요 서비스 분야

(단위: %)



- » 각 업종별로 해당 디자인을 제공하는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한편, '시각디자인'의 경우 기타 패션/텍스타일디자인(19.2%)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2) 업종별 전문디자인업체의 주요 서비스 분야

(단위: %)

구분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공간디자인	패션/텍스타일디자인	서비스/경험디자인	산업공예디자인	디자인인프라	기타
전문디자인업체		21.4	43.3	1.3	22.7	10.6	0.1	0.2	0.0	0.4
업종별	제품디자인	75.2	18.1	1.0	4.0	1.0	0.1	0.0	0.1	0.5
	시각디자인	3.1	92.2	2.5	1.4	0.1	0.1	0.0	0.0	0.6
	인테리어디자인	1.7	4.1	0.4	93.8	0.0	0.1	0.0	0.0	0.0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	7.2	19.2	0.3	4.8	67.3	0.1	1.1	0.0	0.0

- » 주로 서비스하는 디자인 분야를 권역별로 살펴보면, 인천/경기와 대전/충청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시각디자인' 분야를 가장 많이 서비스 하고 있었으며, 특히 강원/제주(100.0%), 부산/울산/경남(71.0%)에서 가장 높았음. 한편, '제품디자인'은 대전/충청(61.9%)에서 다른 권역 대비 높게 나타남.
- » 규모별로 살펴보면, 모든 사업체 규모 단위에서 '시각디자인'이 주요 서비스 분야로 나타남.
- » 매출 구성별로 보면, 매출이 반반인 업체를 제외한 업체에서는 '시각디자인' 분야를 가장 많이 서비스하는 것으로 나타남. '공간디자인' 분야는 매출이 반반인 업체(51.0%)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전문디자인업체의 주요 서비스 분야

(단위: %, 중복응답)

구분		제품 디자인	시각 디자인	디지털/ 멀티 미디어 디자인	공간 디자인	패션/ 텍스타일 디자인	서비스/ 경험 디자인	산업공예 디자인	디자인 인프라	기타
전문디자인업체		21.4	43.3	1.3	22.7	10.6	0.1	0.2	0.0	0.4
권 역 별	서울	18.5	40.5	1.7	28.3	10.4	0.1	0.2	0.0	0.3
	부산/울산/경남	4.2	71.0	0.0	13.1	10.9	0.6	0.1	0.0	0.0
	대구/경북	18.9	68.1	0.9	2.9	7.0	0.0	0.1	0.1	2.1
	인천/경기	51.3	24.9	0.2	4.8	18.1	0.0	0.2	0.0	0.5
	광주/전라	35.5	52.8	0.0	4.4	7.2	0.0	0.0	0.0	0.0
	대전/충청	61.9	10.2	0.0	18.5	9.4	0.0	0.0	0.0	0.0
	강원/제주	0.0	100.0	0.0	0.0	0.0	0.0	0.0	0.0	0.0
규 모 별	1인	18.3	47.2	1.4	17.4	14.9	0.0	0.7	0.0	0.0
	2~4인	22.2	44.0	0.1	23.4	9.7	0.0	0.0	0.0	0.6
	5~9인	21.8	39.4	3.0	26.3	9.1	0.2	0.1	0.0	0.1
	10~14인	26.0	40.5	3.7	21.5	7.0	0.0	0.2	0.7	0.3
	15인 이상	20.4	35.2	6.2	26.8	9.9	1.4	0.1	0.0	0.0
매출 구성	디자인매출 50%↑	18.6	46.1	1.2	23.7	9.6	0.1	0.2	0.0	0.4
	기타매출 50%↑	0.0	88.4	0.0	11.6	0.0	0.0	0.0	0.0	0.0
	반반	0.0	44.7	0.0	51.0	3.3	1.1	0.0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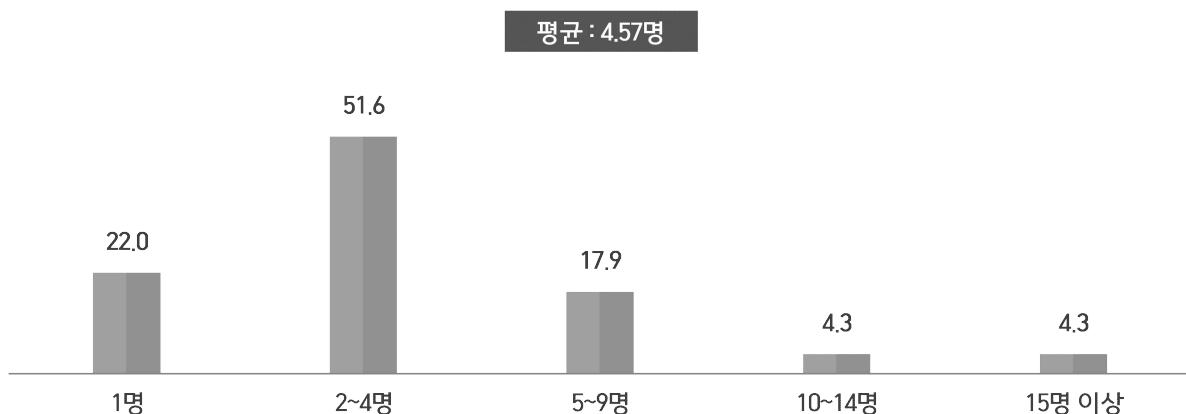
2) 직원 수

» 전문디자인업체의 총 종사자 수는 업체 평균 4.57명으로 나타남.

범주별로 살펴보면, '2~4명'이 51.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명'(22.0%), '5~9명'(17.9%), '10~14명'(4.3%), '15명 이상'(4.3%)의 순으로 나타남.

직원 수

(단위: %)



» 모든 전문디자인 업종에서 '2~4명' 규모 업체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종사자 수가 '1명'인 업체는 시각디자인(25.3%)과 기타 패션/텍스타일디자인(27.5%), '5~9명' 업체는 제품디자인(20.2%), 인테리어디자인(19.7%)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업종별 직원 수

(단위: %)

구분		1명	2~4명	5~9명	10~14명	15명 이상	평균(명)
전문디자인업체		22.0	51.6	17.9	4.3	4.3	4.57
업종별	제품디자인	16.4	53.5	20.2	5.9	4.1	5.02
	시각디자인	25.3	49.8	16.7	4.4	3.8	4.34
	인테리어디자인	18.6	52.6	19.7	3.9	5.2	4.66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	27.5	51.9	14.3	2.0	4.4	4.27

- » 권역별 전문디자인업체 종사자 수는 서울(4.88명), 인천/경기(4.82명), 대구/경북(4.13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강원/제주(2.00명)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 매출구성별로 살펴보면, 디자인 매출과 기타 매출이 비슷한 업체가 4.90명으로 가장 많았고, 디자인 매출이 반 이상인 업체(4.49명), 기타 매출이 반 이상인 업체(3.60명)의 순으로 나타남.

▣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직원 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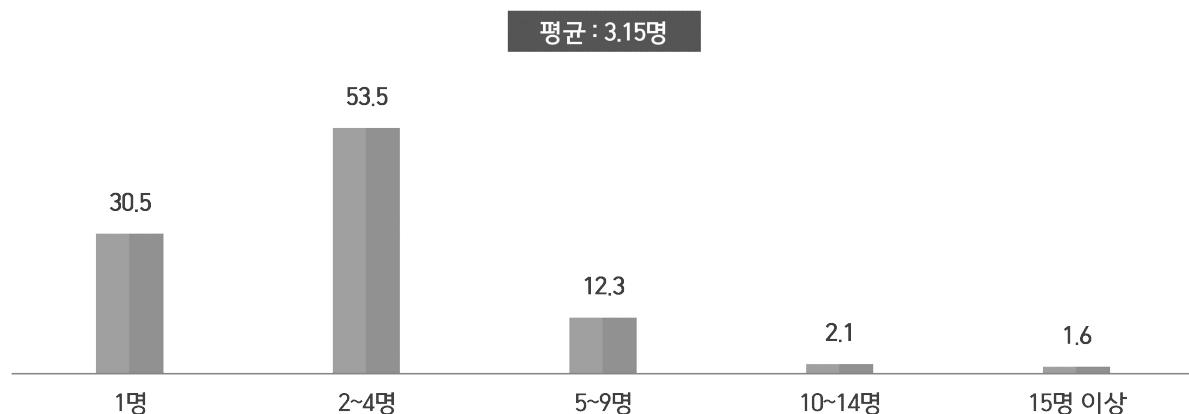
구분		1명	2~4명	5~9명	10~14명	15명 이상	평균(명)
전문디자인업체		22.0	51.6	17.9	4.3	4.3	4.57
권 역 별	서울	21.4	48.4	20.9	4.2	5.0	4.88
	부산/울산/경남	36.9	47.9	12.0	2.5	0.6	2.92
	대구/경북	12.4	74.4	3.9	6.8	2.5	4.13
	인천/경기	9.1	70.9	10.9	3.7	5.4	4.82
	광주/전라	27.0	59.5	6.8	6.6	0.0	3.19
	대전/충청	68.3	12.1	19.6	0.0	0.0	2.50
	강원/제주	0.0	100.0	0.0	0.0	0.0	2.00
규 모 별	1인	100.0	0.0	0.0	0.0	0.0	1.00
	2~4인	0.0	100.0	0.0	0.0	0.0	2.87
	5~9인	0.0	0.0	100.0	0.0	0.0	6.59
	10~14인	0.0	0.0	0.0	100.0	0.0	11.21
	15인 이상	0.0	0.0	0.0	0.0	100.0	28.36
매출 구성	디자인매출 50%↑	21.6	51.7	18.4	4.1	4.3	4.49
	기타매출 50%↑	15.1	60.4	18.1	6.4	0.0	3.60
	반반	0.0	43.6	44.4	6.5	5.5	4.90

2-1) 디자인 부서 직원 수

- » 디자인 부서 내 총 종사자 수는 업체 평균 3.15명으로 나타남.
범주별로 살펴보면, '2~4명'이 53.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명'(30.5%), '5~9명'(12.3%), '10~14명'(2.1%), '15명 이상'(1.6%) 순으로 높음.

디자인 부서 직원 수

(단위: %)



- » 업종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디자인 부서 종사자 수는 제품디자인(3.35명), 인테리어디자인(3.25명), 시각디자인(3.09명),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2.85명)의 순으로 나타남.

▣ 업종별 디자인 부서 직원 수

(단위: %)

구분		1명	2~4명	5~9명	10~14명	15명 이상	평균(명)
전문디자인업체		30.5	53.5	12.3	2.1	1.6	3.15
업종별	제품디자인	23.3	58.1	15.0	2.9	0.8	3.35
	시각디자인	32.2	52.5	11.6	1.9	1.9	3.09
	인테리어디자인	26.6	57.1	11.7	2.4	2.2	3.25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	43.5	43.7	10.5	1.1	1.1	2.85

- » 권역별 디자인 부서 평균 종사자 수는 인천/경기(3.65명), 서울(3.28명), 대구/경북(3.26명)에서 가장 높았으며, 대전/충청(1.89명), 강원/제주(1.00명)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 규모별로 살펴보면, 규모가 클수록 전문디자인업체의 디자인 부서 종사자 수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15인 이상 규모 업체의 디자인 부서 종사자 수는 평균 14.02명으로 나타남.
- » 매출 구성별로 살펴보면, 디자인 매출이 반 이상인 업체와 디자인과 기타 매출이 비슷한 업체의 종사자 수가 3.26명으로 동일한 반면, 기타매출이 반 이상인 업체의 경우 2.54명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디자인 부서 직원 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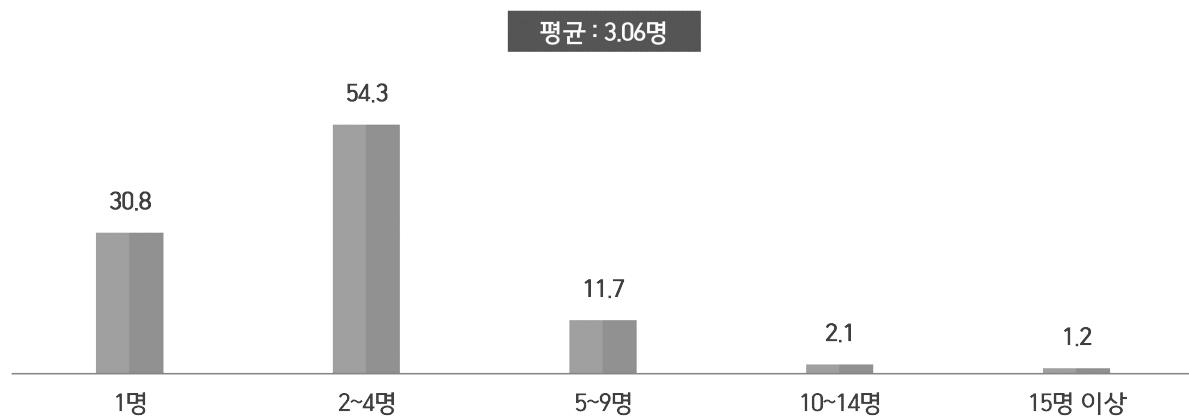
구분		1명	2~4명	5~9명	10~14명	15명 이상	평균(명)
전문디자인업체		30.5	53.5	12.3	2.1	1.6	3.15
권 역 별	서울	27.9	54.4	13.8	2.2	1.7	3.28
	부산/울산/경남	42.4	50.7	5.0	1.9	0.0	2.23
	대구/경북	28.5	58.4	8.9	2.7	1.6	3.26
	인천/경기	20.8	63.5	9.4	3.1	3.2	3.65
	광주/전라	50.9	41.4	7.7	0.0	0.0	2.17
	대전/충청	80.4	0.0	19.6	0.0	0.0	1.89
	강원/제주	100.0	0.0	0.0	0.0	0.0	1.00
규 모 별	1인	100.0	0.0	0.0	0.0	0.0	1.00
	2~4인	15.0	85.0	0.0	0.0	0.0	2.38
	5~9인	3.2	45.9	50.9	0.0	0.0	4.57
	10~14인	5.6	19.2	47.4	27.9	0.0	6.87
	15인 이상	0.0	13.9	27.3	22.4	36.4	14.02
매출 구성	디자인매출 50%↑	28.5	54.6	13.0	2.3	1.7	3.26
	기타매출 50%↑	21.5	60.4	18.1	0.0	0.0	2.54
	반반	43.6	33.5	22.9	0.0	0.0	3.26

2-2) 디자이너 수

- 전문디자인업체의 디자이너 수는 평균 3.06명인 것으로 나타남.
범주별로 분석해 보면, '2~4명'이 54.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1명'(30.8%), '5~9명'(11.7%), '10~14명'(2.1%), '15명 이상'(1.2%)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디자이너 수

(단위: %)



- 업종별 디자이너 수는 제품디자인업이 평균 3.31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시각디자인업(3.06명), 인테리어디자인업(2.98명),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업(2.77명) 순으로 나타남.

▣ 업종별 디자이너 수

(단위: %)

구분		1명	2~4명	5~9명	10~14명	15명 이상	평균(명)
전문디자인업체		30.8	54.3	11.7	2.1	1.2	3.06
업종별	제품디자인	23.3	59.3	13.7	2.9	0.8	3.31
	시각디자인	32.2	52.7	11.4	1.9	1.8	3.06
	인테리어디자인	26.6	59.3	11.2	2.1	0.8	2.98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	45.3	42.7	9.7	1.1	1.1	2.77

- » 권역별로 살펴보면, 대구/경북의 디자이너 수가 평균 3.2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서울(3.23명), 인천/경기(3.00명), 부산/울산/경남(2.18명) 등의 순을 보인 가운데, 강원/제주는 1.00명으로 평균 디자이너 수가 가장 낮음.
- » 규모별로 디자이너 수를 살펴보면, 규모가 커짐에 따라 디자이너 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5인 이상 규모는 평균 12.65명의 디자이너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남.
- » 매출 구성별로 살펴보면, 기타매출이 절반 이상인 업체(2.54명)에서 디자이너 수가 상대적으로 낮음.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디자이너 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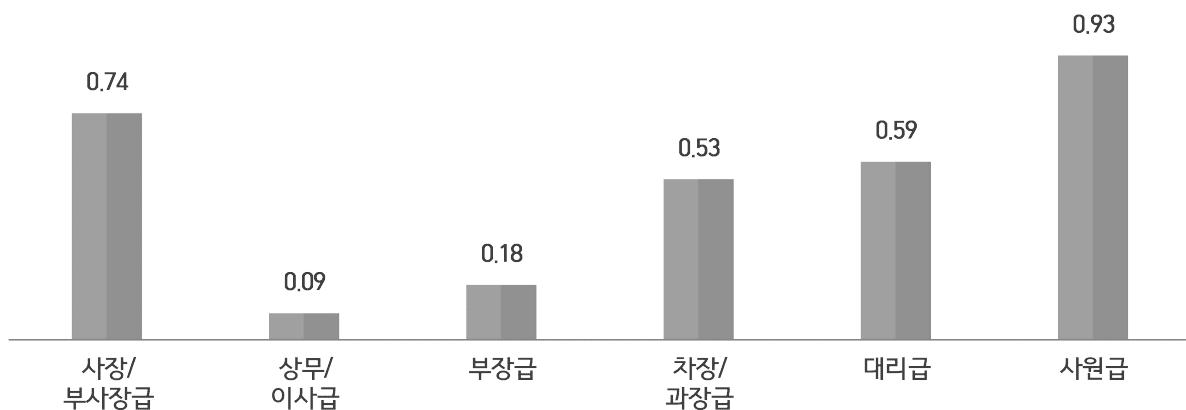
구분		1명	2~4명	5~9명	10~14명	15명 이상	평균(명)
전문디자인업체		30.8	54.3	11.7	2.1	1.2	3.06
권 역 별	서울	28.3	55.1	12.9	2.2	1.5	3.23
	부산/울산/경남	42.4	50.7	5.9	0.9	0.0	2.18
	대구/경북	28.5	58.4	8.9	2.7	1.6	3.26
	인천/경기	20.8	66.7	9.4	3.1	0.0	3.00
	광주/전라	50.9	41.4	7.7	0.0	0.0	2.17
	대전/충청	80.4	0.0	19.6	0.0	0.0	1.89
	강원/제주	100.0	0.0	0.0	0.0	0.0	1.00
규 모 별	1인	100.0	0.0	0.0	0.0	0.0	1.00
	2~4인	15.3	84.7	0.0	0.0	0.0	2.36
	5~9인	3.8	48.6	47.5	0.0	0.0	4.50
	10~14인	5.6	23.1	46.1	25.2	0.0	6.56
	15인 이상	0.0	19.5	28.9	23.3	28.3	12.65
매출 구성	디자인매출 50%↑	28.7	55.3	12.5	2.2	1.3	3.16
	기타매출 50%↑	21.5	60.4	18.1	0.0	0.0	2.54
	반반	43.6	40.1	16.4	0.0	0.0	3.00

2-2-1) 직급별 디자이너 수

- » 전문디자인업체의 직급별 평균 디자이너 수를 살펴보면, '사원급'이 0.9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사장/부사장급'(0.74명), '대리급'(0.59명) '차장/과장급'(0.53명) 등의 순으로 높음.

직급별 디자이너 수

(단위: 명)



- » 업종별로 살펴보면, '사원급'은 제품디자인업(1.04명),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업(1.05명)에서 가장 높고, 인테리어디자인업은 0.82명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사장/부사장급'은 모든 업종의 보유 디자이너 수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한편, '대리급'은 기타패션/텍스타일업(0.43명)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업종별 직급별 디자이너 수

(단위: 명)

구분		사장/ 부사장급	상무/ 이사급	부장급	차장/ 과장급	대리급	사원급
전문디자인업체		0.74	0.09	0.18	0.53	0.59	0.93
업 종 별	제품디자인	0.74	0.12	0.16	0.60	0.64	1.06
	시각디자인	0.76	0.06	0.21	0.55	0.61	0.88
	인테리어디자인	0.76	0.10	0.19	0.52	0.60	0.82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	0.70	0.09	0.14	0.37	0.43	1.05

- » 권역별로 살펴보면, '사원급'은 인천/경기(1.11명)과 서울(1.01명)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강원/제주(0.00명)는 '사원급' 디자이너를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대리급'과 '부장급'은 대구/경북(각각 0.68명, 0.23명)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 매출 구성별로 살펴보면, 디자인 매출이 반 이상인 업체의 경우 '사원급' 디자이너 수가 0.97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차장/과장급' 디자이너 수는 디자인과 기타 매출이 비슷한 업체가 1.83명으로 가장 높음.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직급별 디자이너 수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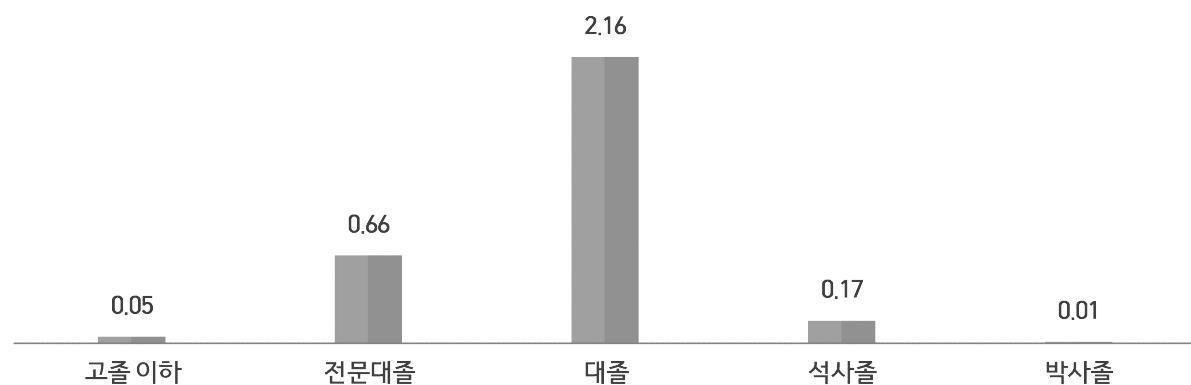
구분		사장/ 부사장급	상무/ 이사급	부장급	차장/ 과장급	대리급	사원급
권 역 별	전문디자인업체	0.74	0.09	0.18	0.53	0.59	0.93
	서울	0.73	0.09	0.21	0.57	0.63	1.01
	부산/울산/경남	0.78	0.11	0.05	0.45	0.43	0.35
	대구/경북	0.80	0.05	0.23	0.54	0.68	0.95
	인천/경기	0.77	0.03	0.11	0.40	0.56	1.11
	광주/전라	0.82	0.09	0.06	0.34	0.23	0.63
	대전/충청	0.80	0.00	0.20	0.30	0.19	0.40
	강원/제주	0.00	1.00	0.00	0.00	0.00	0.00
규 모 별	1인	0.99	0.01	0.00	0.00	0.00	0.00
	2~4인	0.77	0.03	0.08	0.41	0.42	0.64
	5~9인	0.53	0.20	0.39	0.88	1.02	1.49
	10~14인	0.43	0.28	0.65	1.41	1.34	2.45
	15인 이상	0.43	0.50	0.94	2.30	3.04	5.44
매출 구성	디자인매출 50%↑	0.77	0.09	0.19	0.53	0.61	0.97
	기타매출 50%↑	0.60	0.12	0.23	0.58	0.58	0.43
	반반	0.11	0.16	0.05	1.83	0.40	0.44

2-2-2) 학력별 디자이너 수

- » 학력별 디자이너 수 평균을 살펴보면, ‘대학졸업’이 2.16명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다음으로는 ‘전문대졸업’(0.66명), ‘석사졸업’(0.17명), ‘고졸이하’(0.05명), ‘박사졸’(0.01명)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학력별 디자이너 수

(단위: 명)



- » 업종별로 살펴보면, 모든 업종에서 ‘대학졸업’ 디자이너 수가 가장 높은 가운데, 특히 제품디자인업(2.47명)에서 더욱 높게 나타남. 한편, ‘전문대졸업’ 디자이너 수는 시각디자인업(0.77명)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 업종별 학력별 디자이너 수

(단위: 명)

구분		고졸 이하	전문대졸	대학졸업	석사졸	박사졸
전문디자인업체		0.05	0.66	2.16	0.17	0.01
업종별	제품디자인	0.06	0.46	2.47	0.31	0.01
	시각디자인	0.02	0.77	2.13	0.13	0.02
	인테리어디자인	0.05	0.72	2.04	0.15	0.01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	0.12	0.65	1.91	0.09	0.00

- » 권역별로 살펴보면, 모든 권역에서 '대학졸업' 디자이너 수가 가장 많게 나타난 가운데, 특히 대구/경북(2.49명), 서울(2.26명)에서 가장 높았음. 반면 강원/제주는 0.0명으로 '대학졸업' 디자이너를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 규모별로 보면, 모든 규모의 업체에서 '대학졸업' 디자이너의 수가 가장 많았으며, 업체의 규모가 클수록 '대학졸업' 디자이너 수가 높게 나타남. 15인 이상의 경우 '대학졸업' 디자이너 수가 평균 9.52명으로 나타남.
- » 매출 구성별 결과 역시, 매출 구성과 관계없이 '대학졸업' 디자이너의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학력별 디자이너 수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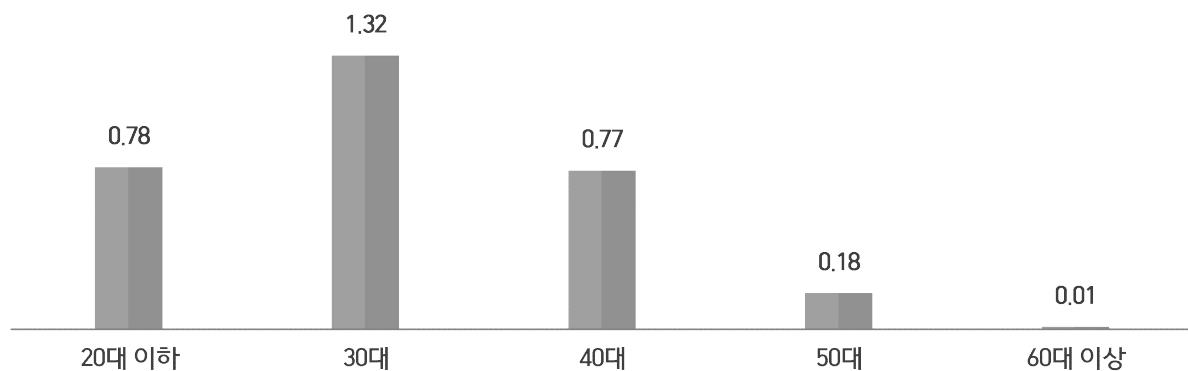
구분		고졸 이하	전문대졸	대졸	석사졸	박사졸
전문디자인업체		0.05	0.66	2.16	0.17	0.01
권 역 별	서울	0.05	0.75	2.26	0.17	0.01
	부산/울산/경남	0.00	0.19	1.76	0.15	0.08
	대구/경북	0.06	0.42	2.49	0.26	0.03
	인천/경기	0.16	0.84	1.74	0.25	0.00
	광주/전라	0.07	0.19	1.88	0.03	0.00
	대전/충청	0.00	0.31	1.48	0.10	0.00
	강원/제주	0.00	1.00	0.00	0.00	0.00
규 모 별	1인	0.05	0.14	0.71	0.10	0.00
	2~4인	0.04	0.50	1.65	0.15	0.01
	5~9인	0.07	1.26	2.94	0.19	0.04
	10~14인	0.06	1.17	5.14	0.16	0.03
	15인 이상	0.06	2.31	9.52	0.72	0.04
매 출 구 성	디자인매출 50%↑	0.05	0.70	2.24	0.16	0.01
	기타매출 50%↑	0.13	0.19	1.87	0.23	0.12
	반반	0.00	0.68	2.05	0.27	0.00

2-2-3) 연령별 디자이너 수

- » 전문디자인업체의 연령별 디자이너 수 평균을 살펴보면, '30대'의 디자이너 수 평균이 1.32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이어 '20대 이하'(0.78명), '40대'(0.77명), '50대'(0.18명), '60대 이상'(0.01명)의 순으로 높음.

연령별 디자이너 수

(단위: 명)



- » 업종별로 살펴보면, 모든 업종에서 '30대' 디자이너 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제품디자인업(1.44명)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한편, '20대 이하' 디자이너는 제품디자인업(0.87명)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업종별 연령별 디자이너 수

(단위: 명)

구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전문디자인업체		0.78	1.32	0.77	0.18	0.01
업종별	제품디자인	0.87	1.44	0.74	0.25	0.01
	시각디자인	0.84	1.21	0.85	0.16	0.00
	인테리어디자인	0.80	1.31	0.70	0.15	0.02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	0.48	1.42	0.71	0.14	0.03

- » 권역별로 살펴보면, 대전/충청과 강원/제주를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30대' 디자이너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서울(1.45명), 인천/경기(1.26명)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20대 이하' 디자이너 수는 서울(0.85명)과 대구/경북(0.84명)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 규모별로 살펴보면, 업체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20대 이하'와 '30대' 디자이너 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 매출 구성별로 살펴보면, '30대' 디자이너의 수는 디자인과 기타 매출이 비슷한 업체(1.74명)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한편, '40대' 디자이너 수는 기타매출이 반 이상인 업체에서 0.84명으로 가장 많은 수를 보유함.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연령별 디자이너 수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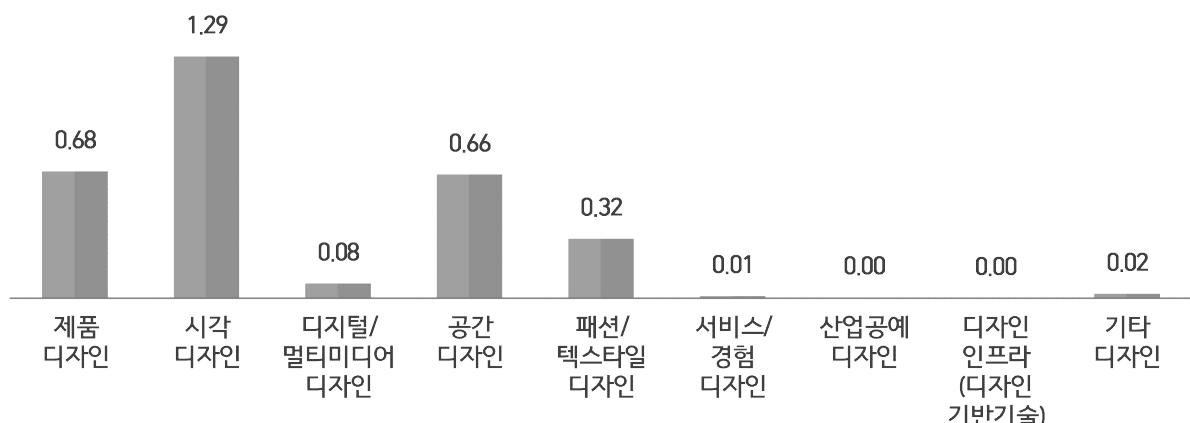
구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전문디자인업체		0.78	1.32	0.77	0.18	0.01
권 역 별	서울	0.85	1.45	0.77	0.14	0.02
	부산/울산/경남	0.48	0.79	0.80	0.09	0.02
	대구/경북	0.84	0.86	1.23	0.34	0.00
	인천/경기	0.61	1.26	0.67	0.46	0.00
	광주/전라	0.49	1.02	0.46	0.20	0.00
	대전/충청	0.59	0.42	0.62	0.26	0.00
	강원/제주	0.00	0.00	0.00	1.00	0.00
규 모 별	1인	0.01	0.45	0.41	0.13	0.00
	2~4인	0.41	1.04	0.72	0.18	0.01
	5~9인	1.51	1.82	0.96	0.18	0.03
	10~14인	2.57	2.54	1.20	0.23	0.02
	15인 이상	4.42	5.90	1.99	0.32	0.02
매 출 구 성	디자인매출 50%↑	0.82	1.34	0.80	0.18	0.01
	기타매출 50%↑	0.79	0.76	0.84	0.15	0.00
	반반	0.60	1.74	0.61	0.05	0.00

2-2-4) 디자인 영역별 디자이너 수

» 디자인 영역별로 전문디자인업체의 디자이너 수를 살펴보면, ‘시각디자인’ 영역 디자이너 수가 평균 1.29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제품디자인’(0.68명), ‘공간디자인’(0.66명)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산업공예디자인’과 ‘디자인 인프라(디자인 기반기술)’ 영역의 경우 0.0명으로 나

디자인 영역별 디자이너 수

(단위: 명)



» 업종별로 보면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분야 디자이너 수는 시각디자인업에서 0.18명으로 가장 많은 디자이너 수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남.

■ 업종별 디자인 영역별 디자이너 수

(단위: 명)

구분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공간디자인	패션/텍스타일디자인	서비스/경험디자인	산업공예디자인	디자인인프라(디자인기반기술)	기타디자인
전문디자인업체		0.68	1.29	0.08	0.66	0.32	0.01	0.00	0.00	0.02
업종별	제품디자인	2.39	0.69	0.03	0.11	0.04	0.01	0.00	0.00	0.04
	시각디자인	0.11	2.68	0.18	0.04	0.02	0.01	0.01	0.00	0.02
	인테리어디자인	0.08	0.12	0.01	2.73	0.00	0.02	0.00	0.00	0.02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	0.14	0.48	0.00	0.17	1.96	0.01	0.02	0.00	0.00

- » 권역별로 살펴보면, 광주/전라와 대전/충청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시각디자인' 분야 디자이너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특히 대구/경북(1.80명)에서 높게 나타남. '제품디자인' 영역은 인천/경기(1.56명)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 규모별로 살펴보면, 모든 규모의 업체에서 '시각디자인' 영역 디자이너 수가 가장 높았으며, 규모가 클수록 '시각디자인' 디자이너 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 매출 구성별로 살펴보면, '공간디자인' 디자이너의 수는 디자인과 기타 매출이 비슷한 업체(2.07명)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디자인 영역별 디자이너 수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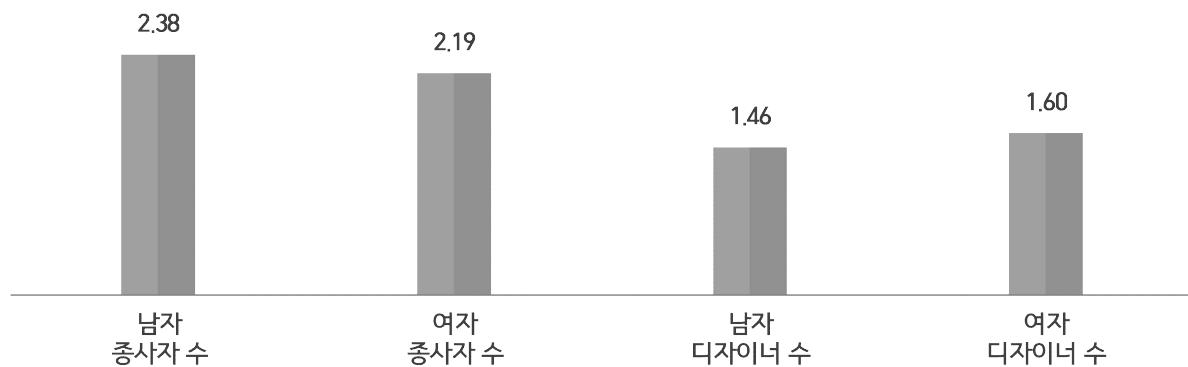
구분		제품 디자인	시각 디자인	디지털/ 멀티 미디어 디자인	공간 디자인	패션/ 텍스타일 디자인	서비스/ 경험 디자인	산업공예 디자인	디자인 인프라 (디자인 기반기술)	기타 디자인
전문디자인업체		0.68	1.29	0.08	0.66	0.32	0.01	0.00	0.00	0.02
권 역 별	서울	0.62	1.33	0.09	0.84	0.33	0.01	0.00	0.00	0.02
	부산/울산/경남	0.16	1.43	0.00	0.35	0.17	0.04	0.00	0.00	0.02
	대구/경북	0.66	1.80	0.26	0.09	0.27	0.00	0.04	0.00	0.14
	인천/경기	1.56	0.74	0.02	0.16	0.49	0.00	0.02	0.00	0.01
	광주/전라	0.98	1.02	0.00	0.04	0.12	0.00	0.00	0.00	0.00
	대전/충청	0.62	0.61	0.00	0.18	0.47	0.00	0.00	0.00	0.00
	강원/제주	0.00	1.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규 모 별	1인	0.19	0.47	0.01	0.17	0.15	0.00	0.01	0.00	0.00
	2~4인	0.54	1.02	0.00	0.57	0.21	0.00	0.00	0.00	0.02
	5~9인	1.01	1.91	0.10	0.96	0.45	0.01	0.01	0.00	0.05
	10~14인	1.95	2.50	0.25	1.21	0.46	0.03	0.00	0.03	0.12
	15인 이상	2.18	5.01	1.11	2.40	1.74	0.17	0.05	0.00	0.00
매출 구성	디자인매출 50%↑	0.65	1.39	0.06	0.69	0.31	0.01	0.01	0.00	0.03
	기타매출 50%↑	0.15	1.81	0.00	0.58	0.00	0.00	0.00	0.00	0.00
	반반	0.00	0.60	0.00	2.07	0.16	0.16	0.00	0.00	0.00

2-2-5) 성별 종사자 및 디자이너 수

- » 전문디자인업체의 종사자 수를 성별로 분석해 보면, 남자 종사자수는 평균 2.39명, 여자 종사자 수는 평균 2.19명으로 남자 종사자 수가 여자 종사자 수 대비 높게 나타남. 반면, 디자이너 수를 성별로 분석해 보면, 여자 디자이너 수는 평균 1.60명, 남자 디자이너 수는 평균 1.46명으로 여자 디자이너 수가 남자 디자이너 수 대비 높았음.

성별 종사자 및 디자이너 수

(단위: 명)



- » 업종별 종사자 성별은, 제품디자인업(2.99명), 인테리어디자인업(2.77명)에서 남자 종사자 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시각디자인과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업에서는 여자종사자 수가 높게 나타남. 한편, 제품디자인업에서 남녀 성별 종사자 수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디자이너의 경우, 시각디자인업(1.76명)과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업(1.78명)에서 여자 디자이너 수가 남자 디자이너 수 대비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업종별 성별 종사자 및 디자이너 수

(단위: 명)

구분		남자 종사자 수	여자 종사자 수	남자 디자이너 수	여자 디자이너 수
전문디자인업체		2.38	2.19	1.46	1.60
업종별	제품디자인	2.99	2.03	1.92	1.39
	시각디자인	1.98	2.36	1.31	1.76
	인테리어디자인	2.77	1.89	1.54	1.43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	1.79	2.48	0.98	1.78

- » 권역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대구/경북과 대전/충청, 강원/제주를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평균 남자 종사자 수가 평균 여자 종사자 수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한편, 강원/제주의 경우에는 남자 종사자 수와 여자 종사자가 1.00명으로 같게 나타남.
- » 디자이너의 경우 대구/경북과 인천/경기를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여자 디자이너수가 남자 디자이너 수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구/경북(1.86명)과 서울(1.70명)에서 여자 디자이너 수가 높게 나타남.
- » 규모별로 나누어 분석하면, 업체의 규모가 클수록 남자 종사자수와 여자 종사자 수의 평균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10인 이상의 규모에서는 여자 종사자 수 및 디자이너 수가 남성 종사자 및 디자이너 수 대비 높게 나타남.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성별 종사자 및 디자이너 수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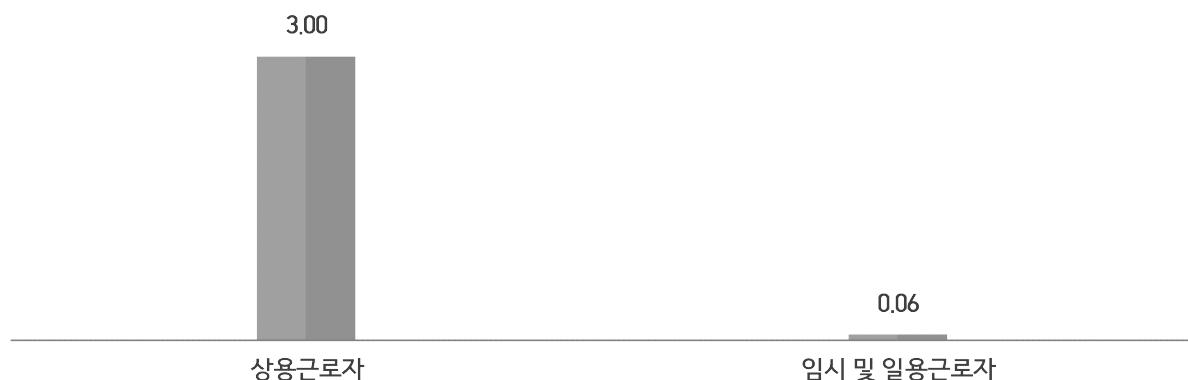
구분		남자 종사자 수	여자 종사자 수	남자 디자이너 수	여자 디자이너 수
전문디자인업체		2.38	2.19	1.46	1.60
권 역 별	서울	2.53	2.35	1.53	1.70
	부산/울산/경남	1.51	1.41	1.06	1.11
	대구/경북	1.87	2.26	1.41	1.86
	인천/경기	2.79	2.03	1.52	1.47
	광주/전라	1.78	1.41	1.28	0.89
	대전/충청	0.92	1.58	0.72	1.17
	강원/제주	1.00	1.00	0.00	1.00
규 모 별	1인	0.66	0.34	0.66	0.34
	2~4인	1.57	1.30	1.20	1.15
	5~9인	3.48	3.10	2.07	2.42
	10~14인	5.42	5.79	2.84	3.73
	15인 이상	13.29	15.08	4.76	7.89
매 출 구 성	디자인매출 50%↑	2.36	2.13	1.53	1.63
	기타매출 50%↑	1.71	1.90	0.99	1.55
	반반	2.90	2.00	1.01	2.00

2-2-6) 근로자 형태별 디자이너 수

- » 전문디자인업체의 근로자 형태별 평균 디자이너 수는 '상용근로자'가 평균 3.00명, '임시 및 일용근로자'의 0.06명으로 나타남.

전문디자인업체 근로자형태별 디자이너 수

(단위: 명)



- » 업종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평균 상용근로자의 디자이너 수는 제품디자인에서 3.22명으로 가장 높고, 다음은 시각디자인(3.02명), 인테리어디자인(2.91명),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2.72명) 순으로 나타남.

▣ 업종별 전문디자인업체 근로자형태별 디자이너 수

(단위: 명)

구분		상용근로자	임시 및 일용근로자
전문디자인업체		3.00	0.06
업종별	제품디자인	3.22	0.09
	시각디자인	3.02	0.04
	인테리어디자인	2.91	0.07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	2.72	0.05

- » 권역별로 디자인업체 디자이너 수를 살펴보면, '상용근로자' 수는 서울이 평균 3.19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대구/경북(3.14명), 인천/경기(2.69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강원/제주는 1.00 명으로 가장 적은 종사자 수를 보임.
- » 규모별로는 규모가 클수록 '상용근로자' 수 역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5인 이상 기업의 경우 '상용근로자' 수가 12.65명으로 나타남.
- » 매출 구성별로는, '상용근로자' 수 평균이 디자인 매출이 반 이상인 업체에서 3.1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디자인과 기타 매출이 비슷한 업체(2.34명), 기타매출이 반 이상인 업체(2.24 명)의 순으로 나타남.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전문디자인업체 근로자형태별 디자이너 수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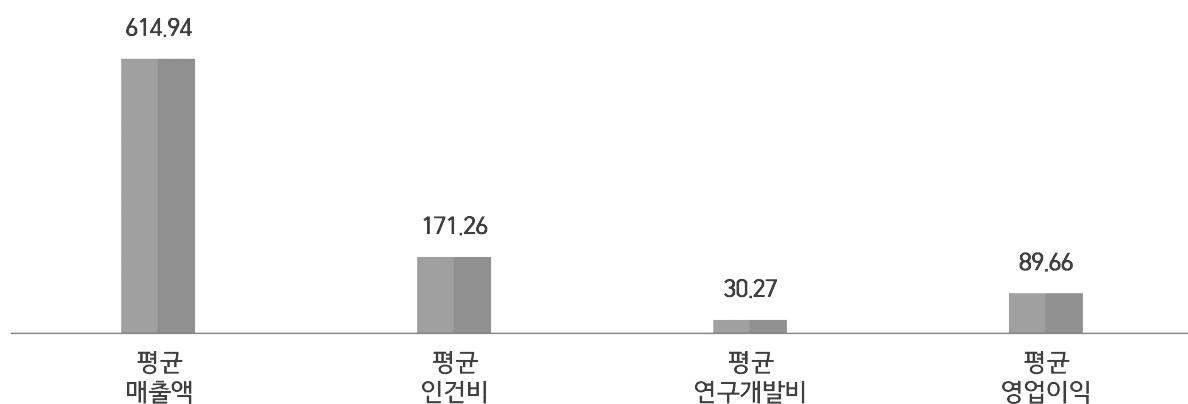
구분		상용근로자	임시 및 일용근로자
전문디자인업체		3.00	0.06
권 역 별	서울	3.19	0.05
	부산/울산/경남	2.18	0.00
	대구/경북	3.14	0.12
	인천/경기	2.69	0.30
	광주/전라	2.17	0.00
	대전/충청	1.89	0.00
	강원/제주	1.00	0.00
규 모 별	1인	1.00	0.00
	2~4인	2.27	0.09
	5~9인	4.42	0.08
	10~14인	6.53	0.03
	15인 이상	12.65	0.00
매 출 구 성	디자인매출 50%↑	3.11	0.06
	기타매출 50%↑	2.24	0.30
	반반	2.34	0.66

3) 2015년 재무 및 투자 현황

- » 전문디자인업체의 2015년 '매출액'은 평균 6억 1,494만원임.
 '인건비'는 평균 1억 7,126만원, '연구개발비'는 평균 3,027만원, '영업이익'은 평균 8,96만원으로 나타남.

2015년 재무 및 투자 현황

(단위: 백만원)



- » 업종별 2015년 재무 및 투자 현황을 살펴본 결과, 평균 '매출액'은 인테리어디자인업이 10억 2,0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제품디자인업(5억 8,635만원),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업(4억 9,538만원), 시각디자인업(4억 4,932만원)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 업종별 2015년 재무 및 투자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평균 매출액	평균 인건비	평균 연구개발비	평균 영업이익
전문디자인업체	614.94	171.26	30.27	89.66
업 종 별	제품디자인	586.35	156.53	41.76
	시각디자인	449.32	148.72	14.58
	인테리어디자인	1,020.88	190.51	14.82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	495.38	223.59	72.32

- » 권역별로 살펴보면, 평균 '연구개발비'를 제외한 모든 투자 현황에서 서울이 가장 높은 액수를 보인 가운데, 서울은 평균 '매출액' 6억 9,638만원, '인건비' 1억 8,935만원, '영업이익' 9,646만원을 보임. '연구개발비'는 인천/경기(4,743만원)에서 가장 높음.
- » 규모별로 살펴보면, 규모가 클수록 모든 재무 및 투자 현황에서 높은 액수를 보임.
- » 매출 구성별로 살펴보면, 디자인 매출이 절반 이상인 업체의 평균 매출액은 5억 8,944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연구개발비'를 제외한 모든 재무 및 투자 현황에 대해 디자인과 기타 매출이 비슷한 업체에서 가장 높은 액수를 보임. '연구개발비'는 디자인매출이 반 이상인 업체에서 2,955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2015년 재무 및 투자 현황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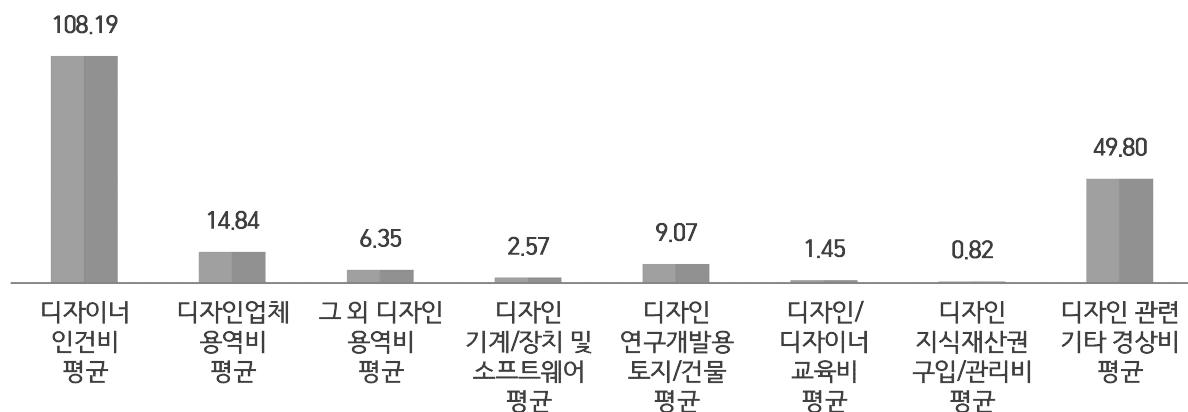
구분		평균 매출액	평균 인건비	평균 연구개발비	평균 영업이익
전문디자인업체		614.94	171.26	30.27	89.66
권 역 별	서울	696.38	189.35	32.35	96.46
	부산/울산/경남	330.99	81.24	18.62	65.41
	대구/경북	424.84	145.16	21.62	93.23
	인천/경기	483.26	155.80	47.43	77.05
	광주/전라	366.81	117.11	7.23	60.64
	대전/충청	203.18	79.78	11.36	28.82
	강원/제주	35.00	40.00	5.00	8.00
규 모 별	1인	94.79	31.06	3.69	14.44
	2~4인	352.95	109.50	12.09	55.93
	5~9인	987.12	240.00	27.62	111.70
	10~14인	1,648.63	463.78	166.58	407.19
	15인 이상	3,870.01	1,059.61	261.78	475.14
매 출 구 성	디자인매출 50%↑	589.44	167.72	29.55	88.66
	기타매출 50%↑	248.29	110.30	7.55	20.59
	반반	782.87	292.79	3.29	104.93

3-1) 2015년 디자인 투자금액

- » 전문디자인업체의 2015년 디자인 투자금액은 평균 '디자이너 인건비'가 1억 819만원으로 가장 높음. 이어 '디자인 관련 기타 경상비'(4,980만원), 그 외 '디자인업체 용역비'(1,484만원), '디자인 연구개발용 토지/건물'(907만원)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2015년 디자인 사업비

(단위: 백만원)



- » 업종별 디자인 사업비 항목을 보면, '디자이너 인건비' 평균은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업(1억 1,639만원), 제품디자인업(1억 1,093만원), 인테리어디자인업(1억 1,070만원), 시각디자인업(1억 163만원)의 순으로 나타남.

한편, '디자인 관련 기타경상비'은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업(8,633만원)에서, '디자인업체 용역비'는 인테리어디자인업(2,471만원)에서 가장 높았음.

▣ 업종별 2015년 디자인 사업비

(단위: 백만원)

구분		디자이너 인건비 평균	디자인업체 용역비 평균	그 외 디자인 용역비 평균	디자인 기계/장치 및 소프트 웨어 평균	디자인 연구개발용 토지/건물 평균	디자인/ 디자이너 교육비 평균	디자인 지식재산권 구입/관리비 평균	디자인 관련 기타 경상비 평균
전문디자인업체		108.19	14.84	6.35	2.57	9.07	1.45	0.82	49.80
업 종 별	제품디자인	110.93	10.15	3.19	3.60	5.12	0.30	2.35	44.23
	시각디자인	101.63	12.21	6.57	2.31	6.40	2.26	0.49	23.01
	인테리어디자인	110.70	24.71	8.19	2.66	15.01	0.41	0.06	77.15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	116.39	14.96	8.30	1.44	13.63	2.80	0.26	86.33

- » 권역별 디자인 사업비를 분석한 결과, 평균 ‘디자이너 인건비’는 대구/경북(1억 1,800만원)과 서울(1억 1,768만원)에서 가장 높았으며, 강원/제주(2,000만원)에서 가장 낮은 액수를 보임. ‘디자인 업체 용역비’는 인천/경기(1,648만원)과 서울(1,642만원)에서 높게 나타남. ‘디자인 관련 기타경상비’와 ‘그 외 디자인용역비’는 서울에서 가장 높은 사업비를 보임.
- » 규모별로 살펴보면, 규모가 클수록 대부분의 디자인 사업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 매출 구성별로 살펴보면, ‘디자이너 인건비’는 기타 매출이 반 이상인 업체에서 8,307만원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2015년 디자인 사업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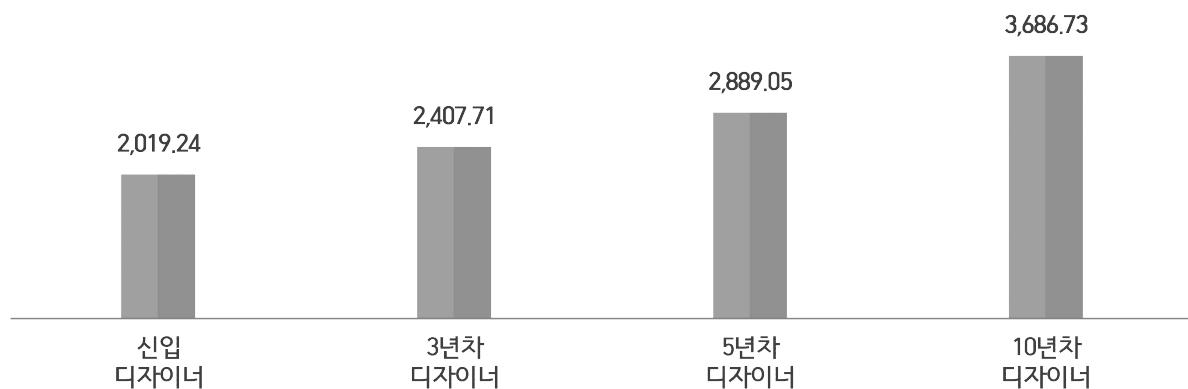
(단위: 백만원)

구분		디자이너 인건비 평균	디자인업체 용역비 평균	그 외 디자인 용역비 평균	디자인 기계/장치 및 소프트 웨어 평균	디자인 연구개발용 토지/건물 평균	디자인 디자이너 교육비 평균	디자인 자식재산권 구입/관리 비 평균	디자인 관련 기타 경상비 평균
전문디자인업체		108.19	14.84	6.35	2.57	9.07	1.45	0.82	49.80
권 역 별	서울	117.68	16.42	7.64	2.93	11.06	1.63	0.87	57.80
	부산/울산/경남	58.06	11.87	1.39	0.63	1.74	2.58	0.26	36.47
	대구/경북	118.00	5.33	4.80	2.28	7.24	1.20	1.88	29.84
	인천/경기	99.35	16.48	4.70	2.37	2.80	0.03	0.29	34.16
	광주/전라	61.78	8.18	0.73	1.36	2.77	0.18	0.85	7.93
	대전/충청	63.53	0.00	0.00	0.88	6.35	0.20	0.20	19.96
	강원/제주	20.00	0.00	0.00	0.00	10.00	0.00	0.00	16.00
규 모 별	1인	31.06	8.00	4.38	1.19	4.03	0.00	0.35	15.59
	2~4인	85.71	10.43	6.75	2.13	6.67	1.19	0.22	41.16
	5~9인	149.79	11.24	5.68	2.81	17.68	2.71	2.46	65.00
	10~14인	222.39	55.73	9.21	6.97	18.33	1.97	1.52	97.91
	15인 이상	488.68	77.57	11.45	9.66	18.68	6.38	3.06	218.66
매 출 구 성	디자인매출 50%↑	112.46	15.36	6.95	2.55	9.06	1.35	0.41	45.94
	기타매출 50%↑	83.07	15.41	3.35	0.00	2.09	4.98	0.00	15.71
	반반	117.24	25.00	8.24	8.39	7.21	3.83	0.00	35.97

3-2) 디자이너의 평균 연봉

- » 디자이너의 평균 연봉은 연차가 높을수록 높아졌으며, '10년차 디자이너'는 3,687만원, '5년차 디자이너'는 2,889만원, '3년차 디자이너'는 2,408만원, '신입 디자이너'는 2,019만원으로 나타남.

디자이너의 평균 연봉 (단위: 만원)



- » 업종별 디자이너 평균 연봉은 모든 년차 디자이너에 대해 인테리어디자인업에서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10년차 디자이너'의 경우, 인테리어디자인업의 연봉이 3,888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시각디자인업(3,744만원),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업(3,631만원), 제품디자인업(3,458만원) 순으로 나타남.

▣ 업종별 디자이너의 평균 연봉

(단위: 만원)

구분	신입 디자이너	3년차 디자이너	5년차 디자이너	10년차 디자이너
전문디자인업체	2,019.24	2,407.71	2,889.05	3,686.73
업종별	제품디자인	2,054.55	2,375.77	2,742.98
	시각디자인	1,973.28	2,377.44	2,887.58
	인테리어디자인	2,066.63	2,472.78	3,019.16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	2,008.39	2,442.13	2,945.31

- » 권역별로 살펴보면, 모든 년차의 디자이너에 대해 서울에서 가장 높은 연봉 평균을 보임. 서울의 '10년차 디자이너' 평균 연봉은 3,791만원으로 나타난 반면, 부산/울산/경남은 3,328만원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 규모별 디자이너 평균 연봉은 5~9인업체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규모가 클수록 연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10년차 디자이너'의 경우 5~9인업체의 연봉이 4,063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 매출 구성별로 살펴보면, '10년차 디자이너'를 제외한 모든 년차의 디자이너 연봉이 디자인매출과 기타 매출 비슷한 업체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10년차 디자이너' 평균 연봉은 디자인매출이 반 이상인 업체에서 3,715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디자이너의 평균 연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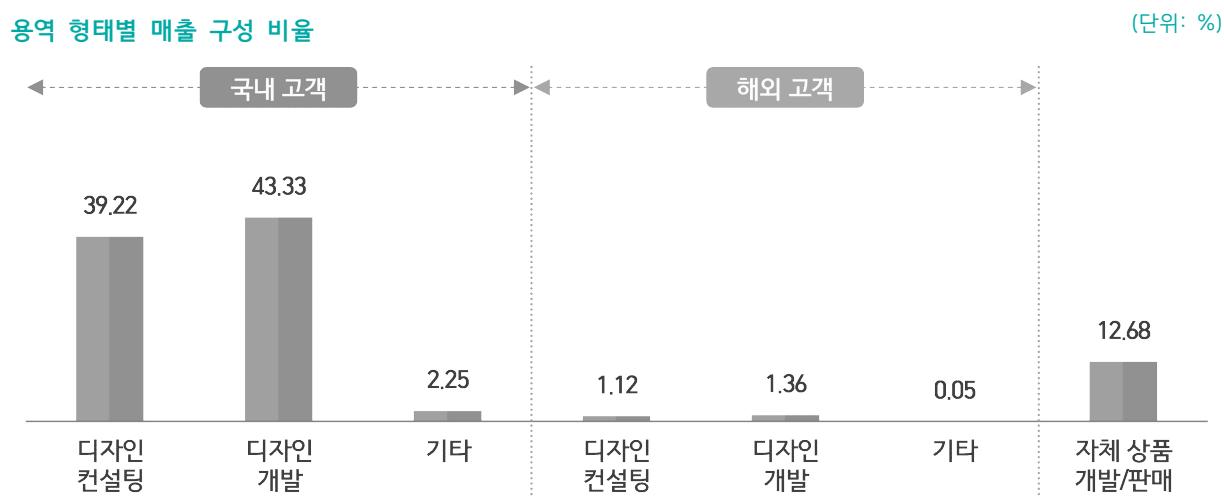
(단위: 만원)

구분		신입 디자이너	3년차 디자이너	5년차 디자이너	10년차 디자이너
전문디자인업체		2,019.24	2,407.71	2,889.05	3,686.73
권 역 별	서울	2,063.16	2,471.41	2,978.06	3,791.18
	부산/울산/경남	1,902.69	2,225.25	2,600.92	3,328.46
	대구/경북	1,836.25	2,237.27	2,637.64	3,434.27
	인천/경기	1,937.90	2,277.42	2,699.87	3,424.78
	광주/전라	1,884.61	2,177.12	2,618.85	3,402.24
	대전/충청	1,946.27	2,210.74	2,672.81	3,494.26
	강원/제주	2,000.00	2,400.00	2,900.00	3,500.00
규 모 별	1인	1,974.82	2,345.49	2,798.96	3,422.58
	2~4인	1,992.21	2,380.04	2,839.72	3,646.29
	5~9인	2,111.82	2,510.33	3,089.60	4,062.58
	10~14인	2,089.41	2,461.33	2,901.92	3,686.76
	15인 이상	2,117.42	2,579.70	3,097.65	3,963.08
매출 구성	디자인매출 50%↑	2,020.09	2,414.13	2,901.36	3,715.12
	기타매출 50%↑	1,804.83	2,173.93	2,746.86	3,649.80
	반반	2,224.15	2,672.83	2,944.64	3,639.41

3-3) 용역 형태별 매출구성

3-3-1) 용역 형태별 매출구성 비율

- » 용역 형태별 매출구성에 대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국내 디자인 개발 용역’의 비중이 84.80%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해외 용역’의 비율은 2.53%로 낮은 비중을 차지함. 그 외‘자체 상품 개발/판매’의 비율은 12.68%로 나타남.



- » 업종별로 살펴보면, 모든 업종에서 ‘국내 디자인 개발용역’의 비중이 높은 가운데, ‘국내 고객-디자인 컨설팅’의 경우 인테리어디자인업과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업에서 모두 53.87%로 높았으며, ‘국내 고객-디자인 개발’의 경우 시각디자인업(71.20%)에서 가장 높음. 한편, ‘자체 상품 개발/판매’의 비중은 제품디자인업(24.25%)과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업(21.56%)에서 높게 나타남.

▣ 업종별 용역 형태별 매출 구성 비율

(단위: %)

구분	국내 고객			해외 고객			자체 상품 개발/판매
	디자인 컨설팅	디자인 개발	기타	디자인 컨설팅	디자인 개발	기타	
전문디자인업체	39.22	43.33	2.25	1.12	1.36	0.05	12.68
업종별	제품디자인	48.65	25.24	0.12	0.43	1.31	0.00
	시각디자인	18.70	71.20	4.86	0.14	1.88	0.00
	인테리어디자인	53.87	33.37	1.64	0.74	0.50	9.66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	53.87	17.93	0.13	5.17	1.34	21.56

- » 권역별로 살펴보면, 모든 권역에서 '국내 디자인 개발 용역'의 비중이 높은 가운데, '국내 고객-디자인 컨설팅'의 경우 강원/제주(100.0%), 인천/경기(61.36%)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국내 고객-디자인 개발'은 서울(48.30%), 대전/충청(44.49%)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자체 상품 개발/판매'의 비중은 광주/전라(30.19%), 대전/충청(28.70%)이 다른 권역 대비 높았으며, 강원/제주는 0.0%로 자체 상품 개발/판매 비중이 매우 낮음.
- » 규모별로 살펴보면, 모든 규모에서 '국내 디자인 개발 용역'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자체 상품 개발/판매'의 비중은 1인(15.20%), 15인 이상(14.91%), 10~14인(13.8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 매출 구성별로는, 모든 규모에서 '국내 디자인 개발 용역'의 비중이 높았으며, '국내 고객-기타'의 경우 기타 매출이 반 이상인 기업에서 90.20%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함.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용역 형태별 매출 구성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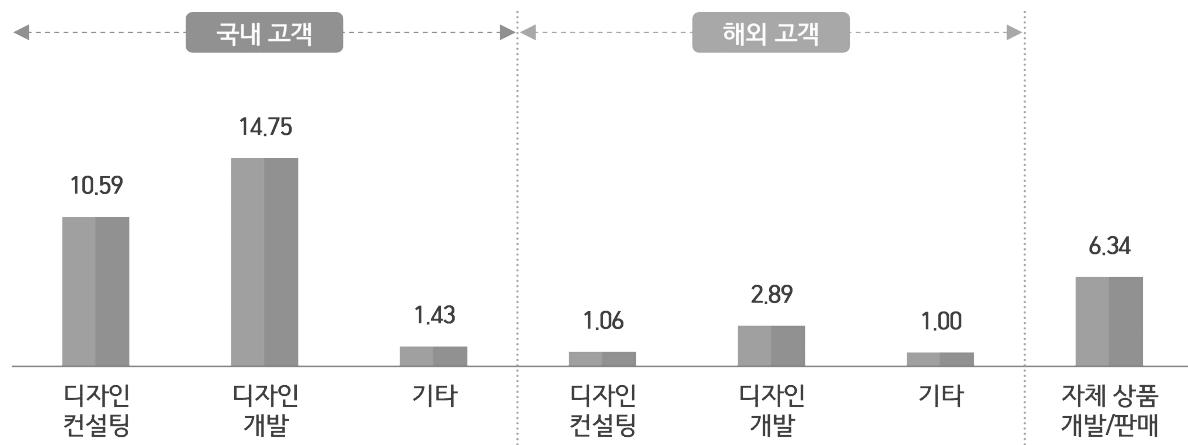
구분	국내 고객			해외 고객			자체 상품 개발/판매	
	디자인 컨설팅	디자인 개발	기타	디자인 컨설팅	디자인 개발	기타		
전문디자인업체	39.22	43.33	2.25	1.12	1.36	0.05	12.68	
권역별	서울	36.57	48.30	1.25	1.26	1.76	0.06	10.81
	부산/울산/경남	38.67	40.43	12.57	0.00	0.33	0.00	7.99
	대구/경북	41.91	26.49	8.35	1.19	0.07	0.00	22.00
	인천/경기	61.36	23.01	0.00	1.78	0.00	0.00	13.85
	광주/전라	43.74	25.28	0.00	0.00	0.80	0.00	30.19
	대전/충청	26.82	44.49	0.00	0.00	0.00	0.00	28.70
	강원/제주	100.00	0.00	0.00	0.00	0.00	0.00	
규모별	1인	34.99	46.42	1.27	1.42	0.71	0.00	15.20
	2~4인	43.33	39.09	2.46	0.94	1.50	0.00	12.67
	5~9인	33.08	52.90	2.82	0.92	1.25	0.26	8.78
	10~14인	36.85	42.87	4.18	1.78	0.50	0.00	13.83
	15인 이상	39.28	39.28	0.46	1.78	4.30	0.00	14.91
매출 구성	디자인매출 50%↑	46.19	50.54	0.10	1.27	1.56	0.00	0.34
	기타매출 50%↑	1.51	8.29	90.20	0.00	0.00	0.00	0.00
	반반	20.03	29.97	44.55	0.00	0.00	5.45	0.00

3-3-2) 용역 형태별 매출구성 건수

- » 용역의 형태에 따른 매출구성 건수는 '국내 용역'에 관련된 건이 평균 26.77건('디자인 컨설팅'(10.59건) + '디자인 개발'(14.75건) + '기타'(1.43건))으로, '해외 용역'('디자인 컨설팅'(1.06건) + '디자인 개발'(2.89건) + '기타'(1.00건)) 대비 높게 나타남.
 '자체 상품 개발/판매' 건수는 6.34건으로 나타남.

용역 형태별 매출 구성 건수

(단위: 건)



- » 업종별로 살펴보면, 모든 업종에서 '국내 용역'의 건수가 높은 가운데, '국내 디자인 컨설팅 용역'은 제품디자인업(17.77건)과 기타패션디자인업(15.11건)에서 가장 높았으며, '국내 디자인 개발 용역'은 시각디자인업(24.18건)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한편, '자체 상품 개발/판매' 건수는 제품디자인업과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업이 모두 9.37건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업종별 용역 형태별 매출 구성 건수

(단위: 건)

업종별	구분	국내 고객			해외 고객			자체 상품 개발/판매
		디자인 컨설팅	디자인 개발	기타	디자인 컨설팅	디자인 개발	기타	
	전문디자인업체	10.59	14.75	1.43	1.06	2.89	1.00	6.34
	제품디자인	17.77	5.53	1.01	1.04	1.09	1.00	9.37
	시각디자인	7.92	24.18	2.11	1.02	2.68	1.00	4.88
	인테리어디자인	4.09	11.98	1.03	1.08	1.04	1.01	3.30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	15.11	11.04	1.00	1.15	8.92	1.00	9.37

- » 권역별 매출 구성 건수는 모든 권역에서 ‘국내 용역’ 관련 매출 건이 가장 많은 가운데, ‘국내 디자인 컨설팅 용역’의 경우 대구/경북(34.50건)과 인천/경기(31.55건)에서 가장 많았으며, ‘국내 디자인 개발 용역’은 대구/경북(33.89건)에서 가장 많았음. ‘자체 상품 개발/판매’ 매출 건은 광주/전라에서 21.03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 규모별로 살펴보면, 2~4인 업체를 제외한 모든 규모에서 ‘국내 디자인 개발 용역’ 관련 건이 가장 많은 가운데, 특히 15인 이상(81.16건)에서 더욱 높음.
- » 매출 구성별로는, 디자인매출이 반 이상인 업체를 제외한 업체에서 ‘국내 기타 용역’ 관련 건이 가장 많았으며, ‘국내 디자인 개발 용역’의 경우 디자인매출이 반 이상인 업체에서 17.28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용역 형태별 매출 구성 건수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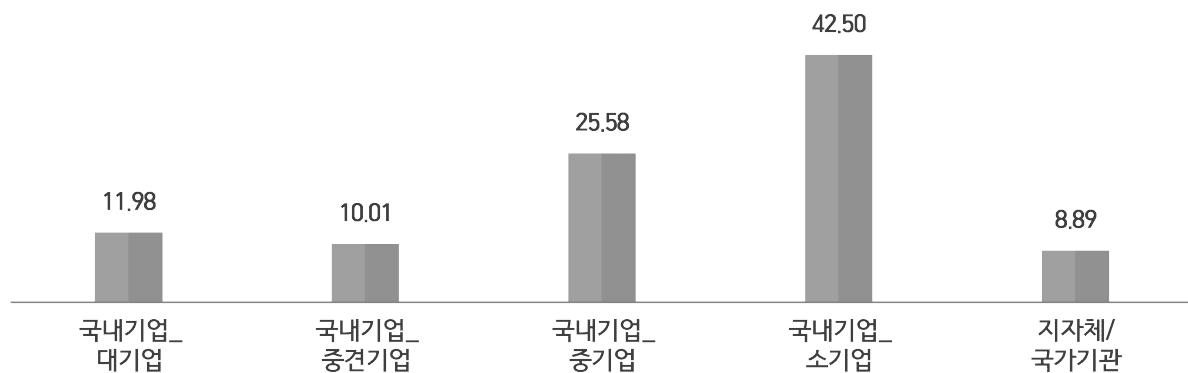
구분		국내 고객			해외 고객			자체 상품 개발/판매
		디자인 컨설팅	디자인 개발	기타	디자인 컨설팅	디자인 개발	기타	
	전문디자인업체	10.59	14.75	1.43	1.06	2.89	1.00	6.34
권역별	서울	5.33	16.18	1.02	1.06	3.56	1.00	4.45
	부산/울산/경남	20.34	12.35	6.59	1.00	1.07	1.00	11.48
	대구/경북	34.50	33.89	1.36	1.11	1.03	1.00	8.75
	인천/경기	31.55	1.85	1.00	1.08	1.00	1.00	6.23
	광주/전라	18.15	1.96	1.00	1.00	1.04	1.00	21.03
	대전/충청	2.07	2.58	1.00	1.00	1.00	1.00	15.16
	강원/제주	5.00	1.00	1.00	1.00	1.00	1.00	0.00
규모별	1인	9.06	11.66	1.07	1.04	1.07	1.00	8.56
	2~4인	13.98	10.42	1.78	1.05	1.09	1.00	5.70
	5~9인	4.18	14.92	1.04	1.06	4.42	1.02	1.99
	10~14인	2.42	18.51	1.15	1.16	1.11	1.00	7.80
	15인 이상	12.18	81.16	1.01	1.21	29.43	1.00	19.23
매출 구성	디자인매출 50%↑	12.37	17.28	1.00	1.06	3.23	1.00	0.41
	기타매출 50%↑	1.15	2.14	21.05	1.00	1.00	1.00	0.00
	반반	1.53	2.91	3.49	1.00	1.00	1.33	0.00

3-4) 매출액 기준 고객 비중

- » 매출액 기준으로 고객 구성 비중을 분석하면, 국내기업 기준 ‘소기업’ 비중이 42.5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중기업’(25.58), ‘대기업’(11.98), ‘중견기업’(10.01%), ‘지자체, 국가기관’(8.89%)의 순으로 나타남.

매출액 기준 고객 비중

(단위: %)



- » 업종별 고객 비중은 제품디자인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소기업’ 비중이 가장 높은 가운데, 특히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업(48.04%)에서 더욱 높게 나타남. 한편, ‘중기업’의 비중은 제품디자인업에서 31.58%로 가장 높았음. ‘지자체/국가기관’의 경우, 제품디자인업(11.60%)에서 가장 높은 반면,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업(0.74%)에서는 매우 낮은 비율을 보임.

▣ 업종별 매출액 기준 고객 비중

(단위: %)

구분	국내기업_ 대기업	국내기업_ 중견기업	국내기업_ 중기업	국내기업_ 소기업	지자체/ 국가기관
전문디자인업체	11.98	10.01	25.58	42.50	8.89
업 종 별	제품디자인	14.56	13.71	31.58	28.17
	시각디자인	10.34	10.69	21.57	47.01
	인테리어디자인	13.99	8.57	21.40	47.12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	8.99	4.36	31.67	48.04
					0.74

- » 권역별 고객비중은 모든 권역에서 '소기업'이 가장 높은 가운데, 강원/제주(100.0%), 대구/경북(62.25%), 부산/울산/경남(60.42%) 등의 순을 보임. 한편, '중기업' 비중은 광주/전라(32.76%)에서, '대기업'의 경우 서울(14.33%)에서, '지자체, 국가기관'은 대전/충청(22.74%)과 광주/전라(20.72%)에서 다른 권역 대비 높음.
- » 규모별로 살펴보면, 4인 이하의 규모 업체에서는 '소기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고, 5~9인, 10~14인 규모 업체에서는 '중기업'(각 29.49%, 27.44%) 고객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15인 이상의 규모 업체에서는 '대기업'(35.80%)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매출액 기준 고객 비중

(단위: %)

구분		국내기업 대기업	국내기업 중견기업	국내기업 중기업	국내기업 소기업	지자체/ 국가기관
전문디자인업체		11.98	10.01	25.58	42.50	8.89
권 역 별	서울	14.33	11.02	26.01	39.06	8.32
	부산/울산/경남	7.15	10.02	19.91	60.42	2.50
	대구/경북	1.86	6.31	18.77	62.25	10.81
	인천/경기	10.31	8.39	28.22	42.97	8.49
	광주/전라	1.72	0.80	32.76	44.01	20.72
	대전/충청	0.00	16.62	17.72	42.92	22.74
	강원/제주	0.00	0.00	0.00	100.00	0.00
규 모 별	1인	2.55	4.78	19.59	67.59	4.07
	2~4인	10.37	9.47	26.84	42.94	9.48
	5~9인	21.15	16.98	29.49	21.02	10.68
	10~14인	17.86	8.93	27.44	26.35	19.43
	15인 이상	35.80	15.31	22.92	14.14	8.48
매출 구성	디자인매출 50%↑	12.66	10.26	24.65	42.22	8.97
	기타매출 50%↑	13.14	12.08	4.53	65.75	4.50
	반반	21.76	7.58	6.00	40.68	23.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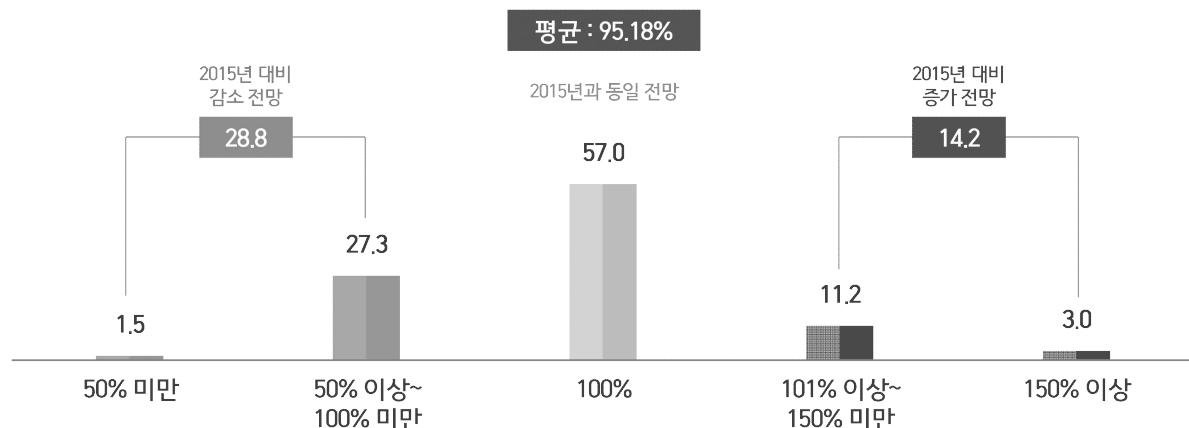
4) 2016년 재무 및 투자 전망

4-1) 2016년 매출액 전망

- » 2015년 대비 2016년 매출액을 전망^⑯ 한 결과, 2016년 매출액은 2015년의 평균 95.18% 수준으로 2015년에 비해 약간 감소될 것으로 전망함.
- 범주별로 보면, '2015년과 동일할 것'이라는 전망(100%)이 57.0%로 가장 높았고, '2015년 대비 감소 전망'(100% 미만)은 28.8%, '2015년 대비 증가 전망'(100% 초과)은 14.2%로 나타남.

2016년 매출액 전망

(단위: %)



- » 업종별 2016년 매출액 전망은 모든 업종에서 2015년 대비 감소를 전망했으며, 시각디자인업(97.61%), 제품디자인업(97.47%), 인테리어디자인업(96.61%) 대비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업(83.46%)의 감소폭이 클 것으로 전망함.

▣ 업종별 2016년 매출액 전망

(단위: %)

구분		50% 미만	50% 이상~100% 미만	100%	101% 이상~150% 미만	150% 이상	평균
전문디자인업체		1.5	27.3	57.0	11.2	3.0	95.18
업종별	제품디자인	0.5	26.2	56.8	10.9	5.5	97.47
	시각디자인	0.9	23.1	58.7	15.7	1.7	97.61
	인테리어디자인	3.6	22.4	61.3	8.5	4.2	96.61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	1.6	46.4	46.8	4.4	0.8	83.46

⑯ 2015년과 같으면, 100%, 2015년 보다 증가하면 100%초과, 2015년 보다 감소하면 100% 미만으로 작성
예를 들어 2015년의 절반 수준이면 50%, 2배 증가했으면 200% 등으로 작성

- » 권역별 매출액 전망 평균을 비교해 보면, 광주/전라(100.69%)는 2016년 매출액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반면, 서울(94.73%), 부산/울산/경남(99.42%), 대구/경북(94.22%), 인천/경기(91.32%)에서는 매출액 감소를 전망함. 한편, 대전/충청과 강원/제주는 100.0%로 2015년과 동일한 매출액을 전망함.
- » 종사자 규모별 매출액 전망은 10인~14인의 업체(107.13%)에서 가장 긍정적이었으며, 5~9인 업체(102.55%) 역시 긍정적 전망을 보임. 반면, 나머지 업체의 경우는 2016년 매출액을 부정적으로 전망함.
- » 매출 구성별 매출액 전망을 보면, 기타매출이 반 이상인 업체(115.70%)는 2016년 매출액 증가를 전망한 반면, 디자인 매출이 반 이상인 업체(95.03%)와 디자인과 기타 매출이 비슷한 업체(83.53%)에서는 부정적 전망치를 보임.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2016년 매출액 전망

(단위: %)

구분		50% 미만	50% 이상~100% 미만	100%	101% 이상~150% 미만	150% 이상	평균
전문디자인업체		1.5	27.3	57.0	11.2	3.0	95.18
권 역 별	서울	2.0	26.5	58.4	10.1	2.9	94.73
	부산/울산/경남	0.0	33.9	40.8	17.5	7.8	99.42
	대구/경북	0.8	35.3	45.3	16.2	2.4	94.22
	인천/경기	0.0	29.5	63.3	7.1	0.0	91.32
	광주/전라	0.0	25.9	49.5	20.6	4.0	100.69
	대전/충청	0.0	0.0	100.0	0.0	0.0	100.00
	강원/제주	0.0	0.0	100.0	0.0	0.0	100.00
규 모 별	1인	0.0	35.0	56.5	6.5	2.1	91.64
	2~4인	2.3	28.0	58.3	9.1	2.3	92.84
	5~9인	0.7	22.7	54.3	17.1	5.3	102.55
	10~14인	1.6	8.9	57.6	23.7	8.2	107.13
	15인 이상	2.9	17.1	53.5	23.9	2.6	98.95
매출 구성	디자인매출 50%↑	1.6	25.4	59.7	10.9	2.3	95.03
	기타매출 50%↑	0.0	45.3	43.1	0.0	11.6	115.70
	반반	0.0	43.6	16.4	40.1	0.0	83.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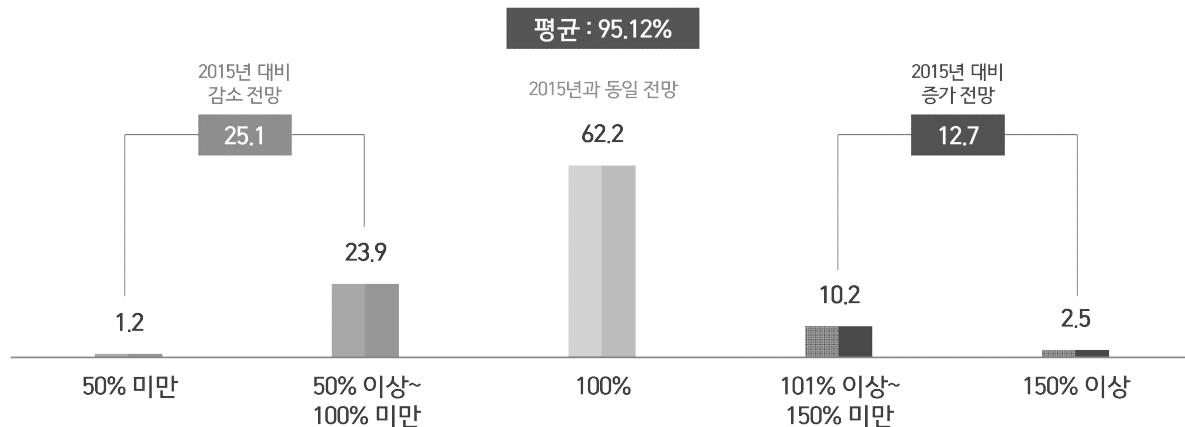
4-2) 2016년 디자인 사업비 전망

» 2015년 대비 2016년 디자인 사업비 전망은 평균 95.12%수준으로 2015년에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범주별로는, '2015년과 동일 전망'(100%)이 62.2%로 압도적인 가운데, '2015년 대비 감소 전망'(100% 미만)은 25.1%, '2015년 대비 증가 전망'(100% 초과)은 12.7%로 나타남.

2016년 디자인 사업비 전망

(단위: %)



» 업종별로 살펴보면, 모든 업종에서 디자인 사업비의 감소를 전망한 가운데, 시각디자인업(97.86%), 제품디자인업(97.20%), 인테리어디자인업(96.18%)의 전망치 순을 보임. 특히,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업(83.51%)이 가장 부정적인 전망을 한 것으로 나타남.

▣ 업종별 2016년 디자인 사업비 전망

(단위: %)

구분		50% 미만	50% 이상~100% 미만	100%	101% 이상~150% 미만	150% 이상	평균
전문디자인업체		1.2	23.9	62.2	10.2	2.5	95.12
업종별	제품디자인	0.5	21.7	62.9	11.0	3.9	97.20
	시각디자인	0.1	18.8	67.0	12.9	1.3	97.86
	인테리어디자인	3.6	19.9	63.3	8.9	4.2	96.18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	1.6	46.1	47.6	3.9	0.8	83.51

- » 권역별로 살펴보면, 광주/전라(104.02%)가 2016년 디자인 사업비에 대해 가장 긍정적인 전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서울(94.43%), 부산/울산/경남(99.49%), 대구/경북(94.01%), 인천/경기(91.22%)는 부정적 전망을 보임. 한편, 대전/충청과 강원/제주는 100.0%로 2015년과 비슷한 수준의 디자인 사업비를 전망함.
- » 규모별 디자인 사업비 전망은 10~14인(102.94%)에서 가장 긍정적인 반면, 나머지 규모의 업체에서는 디자인 사업비 감소를 전망함.
- » 매출 구성별로 살펴보면, 기타 매출이 반 이상인 업체(105.59%)는 2016년 디자인 사업비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한 반면, 디자인 매출이 반 이상인 업체(95.11%)와 디자인과 기타 매출이 비슷한 업체(81.57%)에서는 부정적 전망을 한 것으로 나타남.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2016년 디자인 사업비 전망

(단위: %)

구분		50% 미만	50% 이상~100% 미만	100%	101% 이상~150% 미만	150% 이상	평균
권 역 별	전문디자인업체	1.2	23.9	62.2	10.2	2.5	95.12
	서울	1.6	24.0	62.8	9.2	2.3	94.43
	부산/울산/경남	0.0	25.3	51.3	16.3	7.1	99.49
	대구/경북	0.8	35.3	45.3	17.1	1.5	94.01
	인천/경기	0.0	29.5	63.9	6.6	0.0	91.22
	광주/전라	0.0	8.6	71.7	15.7	4.0	104.02
	대전/충청	0.0	0.0	100.0	0.0	0.0	100.00
규 모 별	강원/제주	0.0	0.0	100.0	0.0	0.0	100.00
	1인	0.0	31.1	60.4	6.5	2.1	92.46
	2~4인	1.7	24.5	63.0	8.5	2.3	93.88
	5~9인	0.7	19.5	60.4	15.5	3.9	99.65
	10~14인	1.6	8.9	63.0	23.9	2.7	102.94
매 출 구 성	15인 이상	2.9	13.9	67.8	13.9	1.5	97.12
	디자인매출 50%↑	1.3	22.2	65.0	9.7	1.8	95.11
	기타매출 50%↑	0.0	30.2	58.2	0.0	11.6	105.59
반반		0.0	43.6	22.9	33.5	0.0	81.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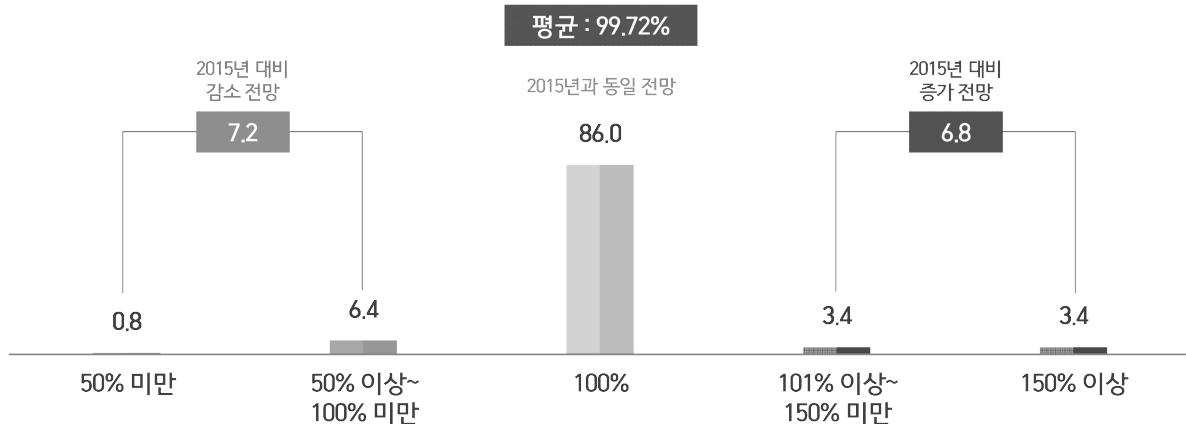
4-3) 2016년 디자이너 고용 전망

» 2015년 대비 2016년 디자이너 고용 전망은 평균 99.72%수준으로 2015년에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범주별로 살펴보면, '2015년과 동일 전망'(100%)이 86.0%로 압도적인 가운데, '2015년 대비 감소 전망'(100% 미만)은 7.2%, '2015년 대비 증가 전망'(100% 초과)은 6.8%로 나타남.

2016년 디자이너 고용 전망

(단위: %)



» 업종별 디자이너 고용 전망은 시각디자인업(102.40%)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나타남. 나머지 업종에서는 고용 감소를 전망한 가운데,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업(94.24%)의 감소폭이 타 업종 대비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전망함.

▣ 업종별 2016년 디자이너 고용 전망

(단위: %)

구분		50% 미만	50% 이상~100% 미만	100%	101% 이상~150% 미만	150% 이상	평균
전문디자인업체		0.8	6.4	86.0	3.4	3.4	99.72
업종별	제품디자인	0.0	7.9	86.5	3.3	2.2	99.22
	시각디자인	0.5	0.5	91.3	4.4	3.4	102.40
	인테리어디자인	1.5	7.6	81.7	3.4	5.8	99.50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	2.1	17.0	78.2	0.9	1.8	94.24

- » 권역별로 살펴보면, 대구/경북(103.47%)과 부산/울산/경남(101.04%)이 2016년 디자이너 고용에 대해 가장 긍정적인 전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서울(99.65%)와 인천/경기(96.30%)에서는 2015년 대비 감소 전망으로 나타남. 한편, 광주/전라, 대전/충청, 강원/제주에서는 100.0%로 디자이너 고용 수준이 비슷할 것이라 전망함.
- » 업체 종사자 규모에 따르면, 10~14인(103.49%)은 2016년 디자이너 고용에 대해 가장 긍정적 전망을 했으며, 5~9인 업체(101.48%) 역시 고용 증가를 전망함. 반면 15인 이상 업체(99.59%)와 2~4인 업체(98.70%)는 디자이너 고용 감소를 전망함.
- » 매출 구성별로 살펴보면, 디자인 매출과 기타 매출이 비슷한 업체(111.06%)와 기타 매출이 반 이상인 업체(101.09%)에서는 2016년 디자이너 고용 증가를 전망한 반면, 디자인 매출이 반 이상인 업체(99.99%)에서는 디자이너 고용 감소 전망을 보임.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2016년 디자이너 고용 전망

(단위: %)

구분		50% 미만	50% 이상~100% 미만	100%	101% 이상~150% 미만	150% 이상	평균
전문디자인업체		0.8	6.4	86.0	3.4	3.4	99.72
권 역 별	서울	1.1	6.7	85.1	3.4	3.8	99.65
	부산/울산/경남	0.0	2.2	91.0	6.8	0.0	101.04
	대구/경북	0.8	8.5	75.1	3.7	11.9	103.47
	인천/경기	0.0	11.5	85.3	3.2	0.0	96.30
	광주/전라	0.0	0.0	100.0	0.0	0.0	100.00
	대전/충청	0.0	0.0	100.0	0.0	0.0	100.00
	강원/제주	0.0	0.0	100.0	0.0	0.0	100.00
규 모 별	1인	0.0	0.0	100.0	0.0	0.0	100.00
	2~4인	0.8	9.0	84.2	1.1	4.9	98.70
	5~9인	1.9	7.8	76.8	9.2	4.4	101.48
	10~14인	0.0	3.4	77.6	17.9	1.1	103.49
	15인 이상	2.0	5.0	82.4	10.6	0.0	99.59
매출 구성	디자인매출 50%↑	1.0	5.6	86.4	3.6	3.4	99.99
	기타매출 50%↑	0.0	0.0	93.6	6.4	0.0	101.09
	반반	0.0	0.0	66.5	33.5	0.0	111.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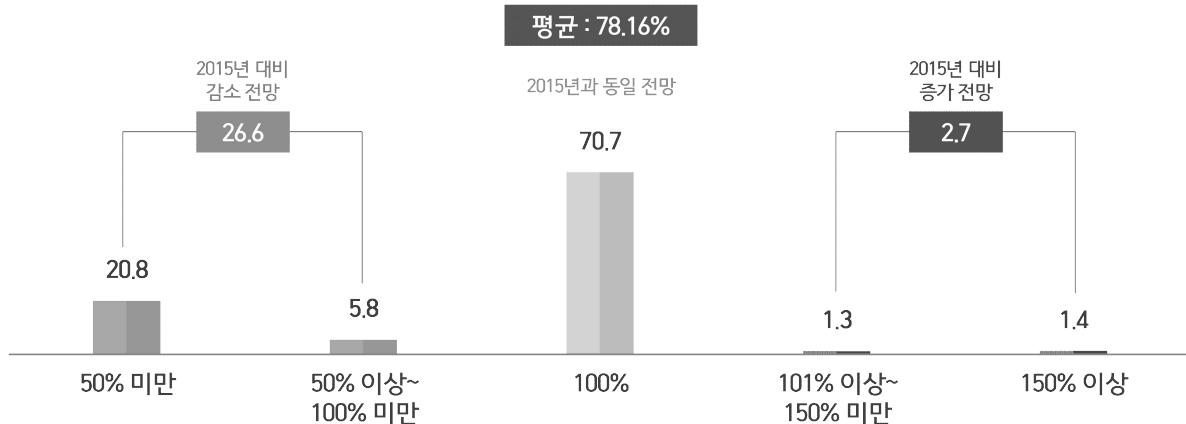
4-4) 2016년 연구개발비 전망

» 2015년 대비 2016년 연구개발비 전망은 평균 78.16%수준으로 낮게 나타나, 2015년에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범주별로 살펴보면, '2015년과 동일 전망'(100%)이 70.7%로 가장 높았으며, '2015년 대비 감소 전망'(100% 미만)은 26.6%, '2015년 대비 증가 전망'(100% 초과)은 2.7%로 나타남.

2016년 연구개발비 전망

(단위: %)



» 업종별 2016년 연구개발비 전망은 모든 업종에서 부정적으로 나타난 가운데,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업(90.10%)의 감소폭이 가장 좁게 전망되었으며, 제품디자인업(68.29%)은 2016년 연구개발비에 대해 가장 부정적으로 전망함.

▣ 업종별 2016년 연구개발비 전망

(단위: %)

구분		50% 미만	50% 이상~100% 미만	100%	101% 이상~150% 미만	150% 이상	평균
전문디자인업체		20.8	5.8	70.7	1.3	1.4	78.16
업종별	제품디자인	31.5	5.7	59.0	1.4	2.5	68.29
	시각디자인	20.7	0.2	77.3	1.7	0.1	79.61
	인테리어디자인	19.5	7.6	70.0	1.4	1.5	78.50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	5.7	17.0	74.6	0.1	2.6	90.10

- » 권역별로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모든 권역에서 2016년 연구개발비에 대해 부정적으로 전망한 가운데, 특히 인천/경기(49.87%)에서 부정적 전망치를 보임. 강원/제주는 100.0%로 2015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으로 나타남.
- » 업체 종사자 규모별 연구개발비 전망 역시 모든 규모의 업체에서 연구개발비 감소를 전망한 가운데, 10~14인(90.33%)이 가장 적은 감소폭을 전망함.
- » 매출 구성별로 살펴보면, 기타 매출이 반 이상인 업체에서는 100.0%로 2015년과 동일한 연구개발비를 전망했으며, 디자인과 기타 매출이 비슷한 업체(99.16%)와 디자인 매출이 반 이상인 업체(78.74%)에서는 낮은 전망치를 보임.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2016년 연구개발비 전망

(단위: %)

구분		50% 미만	50% 이상~100% 미만	100%	101% 이상~150% 미만	150% 이상	평균
전문디자인업체		20.8	5.8	70.7	1.3	1.4	78.16
권 역 별	서울	16.4	6.2	74.3	1.5	1.6	82.65
	부산/울산/경남	27.8	2.2	70.1	0.0	0.0	71.15
	대구/경북	22.4	8.5	66.5	1.1	1.5	76.04
	인천/경기	47.9	8.6	40.9	1.0	1.6	49.87
	광주/전라	26.2	0.0	73.0	0.9	0.0	73.99
	대전/충청	49.9	0.0	50.1	0.0	0.0	50.14
	강원/제주	0.0	0.0	100.0	0.0	0.0	100.00
규 모 별	1인	28.8	0.0	70.1	0.0	1.1	71.76
	2~4인	20.3	8.2	69.8	0.6	1.1	77.22
	5~9인	14.2	6.3	74.3	2.8	2.5	86.19
	10~14인	13.1	3.4	72.9	7.8	2.8	90.33
	15인 이상	22.3	6.1	68.2	3.4	0.0	76.58
매출 구성	디자인매출 50%↑	20.5	4.6	72.7	1.2	1.0	78.74
	기타매출 50%↑	0.0	0.0	100.0	0.0	0.0	100.00
	반반	10.9	0.0	55.6	33.5	0.0	99.16

5) 2017년 재무 및 투자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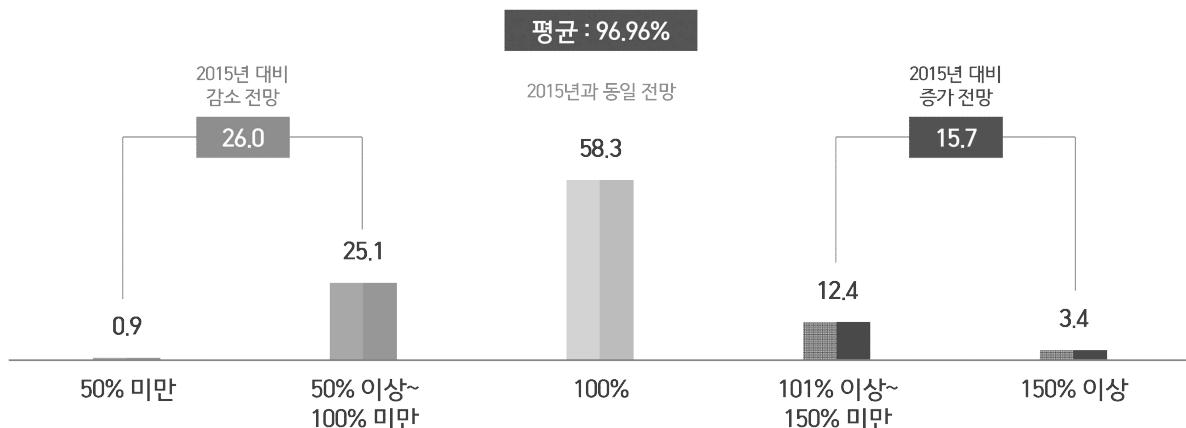
5-1) 2017년 매출액 전망

- » 2015년 대비 2017년 디자인 투자 전망은 평균 96.96%수준으로 2016년에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범주별로 살펴보면, '2015년과 동일 전망'(100%)이 58.3%로 높았으며, '2015년 대비 감소 전망'(100% 미만)은 26.0%, '2015년 대비 증가 전망'(100% 초과)은 15.7%로 나타남.

2017년 매출액 전망

(단위: %)



- » 업종별 2017년 매출액 전망은 제품디자인업(101.02%)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각 디자인업(98.89%)와 인테리어디자인업(98.29%)는 2016년 대비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함. 특히,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업(83.70%)이 가장 부정적인 전망을 한 것으로 나타남.

▣ 업종별 2017년 매출액 전망

(단위: %)

구분		50% 미만	50% 이상~100% 미만	100%	101% 이상~150% 미만	150% 이상	평균
전문디자인업체		0.9	25.1	58.3	12.4	3.4	96.96
업종별	제품디자인	0.9	24.9	52.5	14.9	6.9	101.02
	시각디자인	0.2	19.5	62.5	16.1	1.8	98.89
	인테리어디자인	2.5	19.2	65.6	8.7	4.0	98.29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	0.5	47.7	46.9	4.1	0.8	83.70

- » 권역별 전망은 광주/전라(102.20%)와 대전/충청(101.02%)에서 긍정적으로 나타났고, 서울(96.85%), 부산/울산/경남(99.16%), 대구/경북(97.88%), 인천/경기(90.78%)에서는 감소를 전망함. 한편, 강원/제주는 100.0%로 2016년과 동일한 수준을 전망함.
- » 종사자 규모별 매출액 전망은 5~9인(106.13%)과 10~14인(110.66%)을 제외한 기업에서 감소 전망을 보였으며, 1인 규모의 업체(91.34%)의 감소폭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함.
- » 매출 구성별로 살펴보면, 기타 매출이 반 이상인 업체(128.84%)에서는 긍정적 전망을 한 반면, 디자인 매출이 반 이상인 업체(96.58%)와 디자인과 기타 매출이 비슷한 업체(84.18%)에서는 낮은 전망치를 보임.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2017년 매출액 전망

(단위: %)

구분		50% 미만	50% 이상~100% 미만	100%	101% 이상~150% 미만	150% 이상	평균
전문디자인업체		0.9	25.1	58.3	12.4	3.4	96.96
권 역 별	서울	0.9	24.3	60.6	10.9	3.2	96.85
	부산/울산/경남	0.0	33.3	43.3	16.3	7.1	99.16
	대구/경북	0.8	31.1	52.2	10.3	5.6	97.88
	인천/경기	2.9	22.2	62.1	12.8	0.0	90.78
	광주/전라	0.0	29.5	37.9	28.6	4.0	102.20
	대전/충청	0.0	0.0	89.8	10.2	0.0	101.02
	강원/제주	0.0	0.0	100.0	0.0	0.0	100.00
규 모 별	1인	0.0	35.3	56.2	6.5	2.1	91.34
	2~4인	1.3	24.5	61.3	10.1	2.7	94.93
	5~9인	0.0	19.9	52.7	20.7	6.7	106.13
	10~14인	1.6	10.6	59.1	22.7	6.1	110.66
	15인 이상	3.9	16.0	54.6	24.4	1.1	98.37
매출 구성	디자인매출 50%↑	1.0	23.0	61.1	12.2	2.7	96.58
	기타매출 50%↑	0.0	30.2	58.2	0.0	11.6	128.84
	반반	0.0	43.6	16.4	40.1	0.0	84.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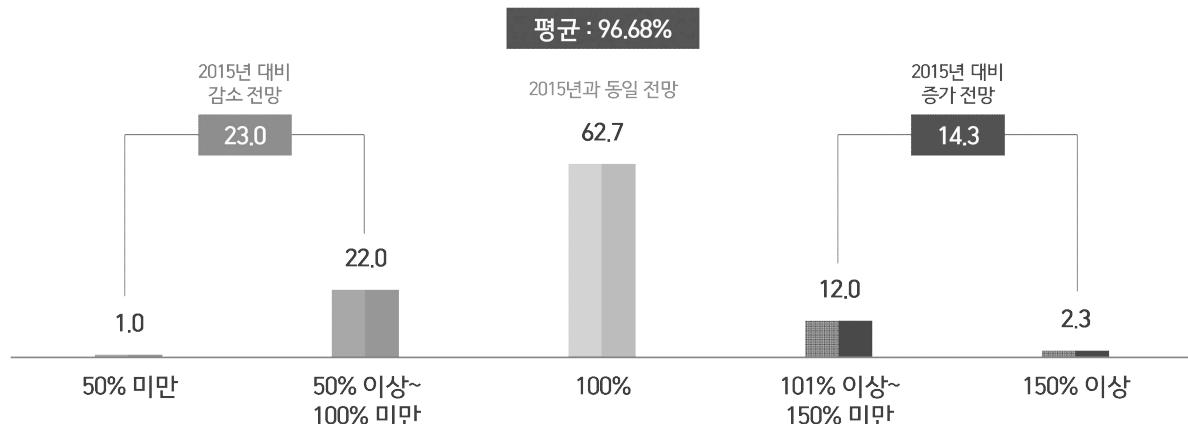
5-2) 2017년 디자인 사업비 전망

» 2015년 대비 2017년 디자인 사업비 전망은 평균 96.68%수준으로 2015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범주별로 살펴보면, '2015년과 동일 전망'(100%)이 62.7%로 가장 높았으며, '2015년 대비 감소 전망'(100% 미만)은 23.0%, '2015년 대비 증가 전망'(100% 초과)은 14.3%로 나타남.

2017년 디자인 사업비 전망

(단위: %)



» 업종별 2017년 디자인 사업비 전망은 모든 업종에서 부정적으로 나타났으며, 제품디자인업(99.55%)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전망함. 시각디자인업(98.94%)와 인테리어디자인업(98.56%) 역시 디자인 투자 감소를 전망했으며, 특히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업(83.77%)이 가장 부정적인 전망을 한 것으로 나타남.

▣ 업종별 2017년 디자인 사업비 전망

(단위: %)

구분		50% 미만	50% 이상~100% 미만	100%	101% 이상~150% 미만	150% 이상	평균
전문디자인업체		1.0	22.0	62.7	12.0	2.3	96.68
업종별	제품디자인	1.4	20.2	58.7	14.7	5.1	99.55
	시각디자인	0.1	15.2	69.3	15.3	0.1	98.94
	인테리어디자인	2.5	18.1	66.6	8.9	4.0	98.56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	0.5	47.3	47.5	3.9	0.8	83.77

- » 권역별로 살펴보면, 광주/전라(105.65%)와 대전/충청(101.02%)에서 2017년 디자인 사업비에 대해 가장 긍정적인 전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서울(96.24%), 부산/울산/경남(98.93%), 대구/경북(98.02%), 인천/경기(90.67%)에서는 디자인 투자 감소 전망으로 나타남. 강원/제주에서는 100.0%로 2016년 대비 동일 수준을 전망함.
- » 규모에 따라 살펴보면, 5~9인(103.92%)과 10~14인(103.53%)은 2017년 디자인 사업비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망한 반면, 나머지 규모의 업체에서는 투자 감소를 전망함.
- » 매출 구성별로 살펴보면, 기타 매출이 반 이상인업체(128.84%)에서는 긍정적 전망을 한 반면, 디자인 매출이 반 이상인 업체(96.31%)과 디자인과 기타 매출이 비슷한 업체(81.57%)에서는 낮은 전망치를 보임.

▣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2017년 디자인 투자 전망

(단위: %)

구분		50% 미만	50% 이상~100% 미만	100%	101% 이상~150% 미만	150% 이상	평균
전문디자인업체		1.0	22.0	62.7	12.0	2.3	96.68
권 역 별	서울	1.0	22.2	64.3	10.1	2.4	96.24
	부산/울산/경남	0.0	24.6	50.1	24.4	0.9	98.93
	대구/경북	0.8	31.1	52.2	10.3	5.6	98.02
	인천/경기	2.9	22.2	62.1	12.8	0.0	90.67
	광주/전라	0.0	12.3	60.9	22.8	4.0	105.65
	대전/충청	0.0	0.0	89.8	10.2	0.0	101.02
	강원/제주	0.0	0.0	100.0	0.0	0.0	100.00
규 모 별	1인	0.0	31.4	60.1	6.5	2.1	92.29
	2~4인	1.3	21.9	64.5	10.1	2.1	95.43
	5~9인	0.7	15.7	58.8	21.7	3.1	103.92
	10~14인	1.6	10.6	65.6	17.8	4.4	103.53
	15인 이상	2.9	12.8	68.0	16.3	0.0	97.20
매 출 구 성	디자인매출 50%↑	1.1	19.5	66.1	11.7	1.5	96.31
	기타매출 50%↑	0.0	30.2	58.2	0.0	11.6	128.84
	반반	0.0	43.6	22.9	33.5	0.0	81.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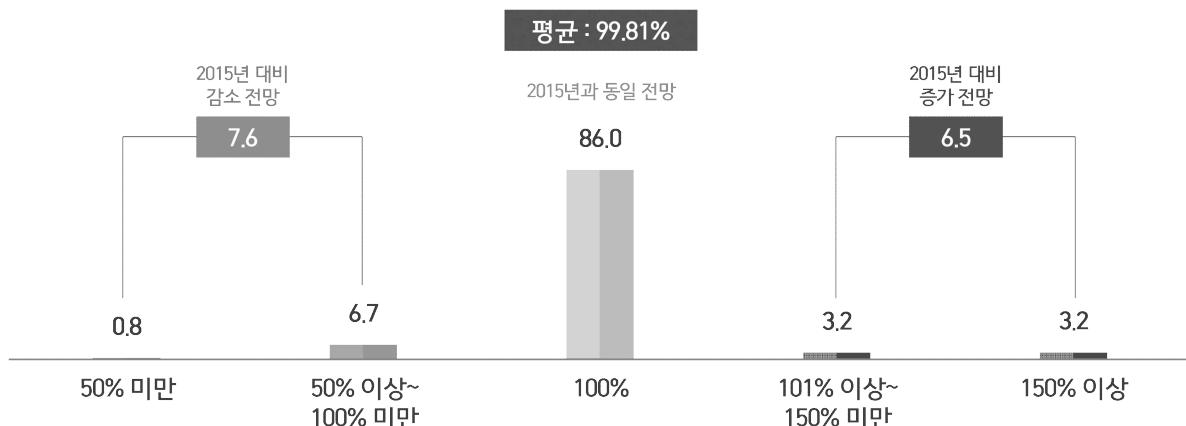
5-3) 2017년 디자이너 고용 전망

- » 2015년 대비 2017년 디자이너 고용 전망은 평균 99.81%수준으로 2015년 대비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범주별로는 '2015년과 동일할 것이라는 전망'(100%)이 86.0%로 압도적인 가운데, '2015년 대비 감소 전망'(100% 미만)은 7.6%, '2015년 대비 증가 전망'(100% 초과)은 6.5%로 나타남.

2017년 디자이너 고용 전망

(단위: %)



- » 업종별로 살펴보면, 시각디자인업(101.84%)과 제품디자인업(100.46%)은 2016년 대비 디자이너 고용 증가를 전망한 반면, 나머지 업종은 2016년 대비 고용 감소를 전망함.
특히,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업(94.14%)이 가장 부정적인 전망을 한 것으로 나타남.

▣ 업종별 2017년 디자이너 고용 전망

(단위: %)

구분		50% 미만	50% 이상~100% 미만	100%	101% 이상~150% 미만	150% 이상	평균
전문디자인업체		0.8	6.7	86.0	3.2	3.2	99.81
업종별	제품디자인	0.0	8.4	84.3	4.3	3.0	100.46
	시각디자인	0.5	0.5	93.0	3.1	2.9	101.84
	인테리어디자인	1.5	7.9	81.8	3.8	5.1	99.54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	2.1	18.0	77.2	0.9	1.8	94.14

- » 권역별로 살펴보면, 부산/울산/경남(101.68%)이 2017년 디자이너 고용에 대해 가장 긍정적인 전망치를 보였고, 대구/경북(98.55%)과 인천/경기(96.30%), 광주/전라(99.54%)는 디자이너 고용 감소를 전망함. 한편, 서울(100.10%)과 대전/충청, 강원/제주(각 100.0%)는 2016년과 동일한 고용 전망치를 보임.
- » 업체 종사자 규모별 디자이너 고용 전망은, 2~4인 규모를 제외한 모든 규모에서 동일한 수준 혹은 증가 전망을 내놓았으며, 특히 10~14인(104.17%)이 가장 긍정적인 전망을 한 것으로 나타남. 2~4인(98.33%) 규모의 업체는 디자이너 고용 감소를 전망함.
- » 매출 구성별로 살펴보면, 디자인 매출이 반 이상인 업체(99.93%)을 제외한 모든 업체에서 2017년 디자이너 고용 증가를 전망함.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2017년 디자이너 고용 전망

(단위: %)

구분		50% 미만	50% 이상~100% 미만	100%	101% 이상~150% 미만	150% 이상	평균
전문디자인업체		0.8	6.7	86.0	3.2	3.2	99.81
권 역 별	서울	1.1	7.0	84.5	3.4	4.0	100.10
	부산/울산/경남	0.0	2.2	91.6	1.8	4.3	101.68
	대구/경북	0.8	8.5	83.7	6.9	0.0	98.55
	인천/경기	0.0	11.5	85.3	3.2	0.0	96.30
	광주/전라	0.0	2.3	97.7	0.0	0.0	99.54
	대전/충청	0.0	0.0	100.0	0.0	0.0	100.00
	강원/제주	0.0	0.0	100.0	0.0	0.0	100.00
규 모 별	1인	0.0	0.0	100.0	0.0	0.0	100.00
	2~4인	0.8	9.3	85.2	0.9	3.9	98.33
	5~9인	1.9	8.4	74.7	8.6	6.3	102.63
	10~14인	0.0	5.0	78.6	13.7	2.8	104.17
	15인 이상	2.0	5.0	78.1	14.9	0.0	100.70
매출 구성	디자인매출 50%↑	1.0	6.1	86.5	3.3	3.3	99.93
	기타매출 50%↑	0.0	0.0	93.6	6.4	0.0	102.12
	반반	0.0	0.0	66.5	33.5	0.0	111.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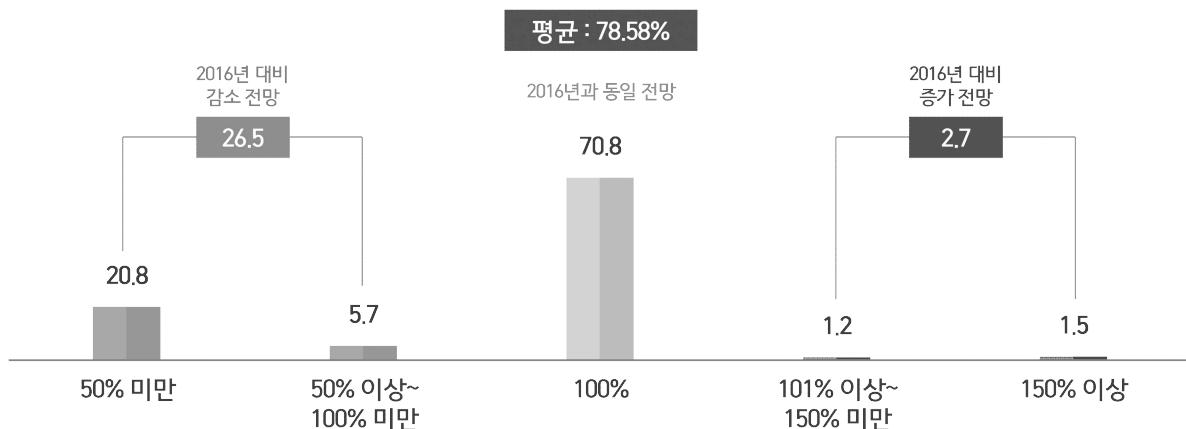
5-4) 2017년 연구개발비 전망

» 2015년 대비 2017년 연구개발비 전망은 평균 78.58%수준으로 낮게 나타나, 2015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범주별로 살펴보면, '2015년과 동일할 것이라는 전망'(100%)이 70.8%로 가장 높았으며, '2015년 대비 감소 전망'(100% 미만)은 26.5%, '2015년 대비 증가 전망'(100% 초과)은 2.7%로 나타남.

2017년 연구개발비 전망

(단위: %)



» 업종별 연구개발비 전망은 모든 업종에서 부정적 전망치를 보였으며,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업(90.0%)에서 가장 적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함. 반면, 제품디자인업(70.03%)의 연구개발비가 가장 많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업종별 2017년 연구개발비 전망

(단위: %)

구분		50% 미만	50% 이상~100% 미만	100%	101% 이상~150% 미만	150% 이상	평균
전문디자인업체		20.8	5.7	70.8	1.2	1.5	78.58
업종별	제품디자인	31.5	4.8	59.0	1.1	3.7	70.03
	시각디자인	20.7	0.1	77.4	1.8	0.0	79.54
	인테리어디자인	19.2	7.9	70.8	1.4	0.7	78.64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	5.7	18.0	73.6	0.1	2.6	90.00

- » 권역별로 살펴보면, 강원/제주를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2017년 연구개발비 감소를 전망한 가운데, 서울(82.87%)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전망함. 인천/경기와 대전/충청의 경우 각각 52.73%, 50.14%로 낮은 전망치를 보여 2017년 연구개발비의 감소를 전망함.
- » 업체 규모별 전망 역시 모든 규모의 업체에서 연구개발비에 대해 부정적으로 전망했으며, 10~14인(90.34%)이 가장 긍정적 전망치를 보임. 특히 1인 기업(71.22%)에서 가장 부정적으로 전망함.
- » 매출 구성별로 살펴보면, 디자인 매출과 기타 매출이 비슷한 업체(99.16%)와 디자인 매출이 반 이상인 업체(79.06%)에서는 낮은 전망치를 보인 반면, 기타매출이 반 이상인 업체는 2016년과 동일한 수준의 연구개발비를 전망함.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2017년 연구개발비 전망

(단위: %)

구분		50% 미만	50% 이상~100% 미만	100%	101% 이상~150% 미만	150% 이상	평균
전문디자인업체		20.8	5.7	70.8	1.2	1.5	78.58
권 역 별	서울	16.3	6.4	74.4	1.5	1.4	82.87
	부산/울산/경남	27.8	2.2	70.1	0.0	0.0	71.15
	대구/경북	22.4	4.4	70.6	1.1	1.5	76.79
	인천/경기	47.9	8.6	38.0	1.0	4.5	52.73
	광주/전라	26.2	0.0	73.0	0.9	0.0	73.99
	대전/충청	49.9	0.0	50.1	0.0	0.0	50.14
	강원/제주	0.0	0.0	100.0	0.0	0.0	100.00
규 모 별	1인	28.8	0.0	71.2	0.0	0.0	71.22
	2~4인	20.3	8.1	69.5	0.6	1.6	77.90
	5~9인	13.7	6.3	74.3	2.8	2.9	87.13
	10~14인	13.1	5.0	72.4	6.1	3.4	90.34
	15인 이상	22.3	5.0	68.3	4.4	0.0	77.13
매출 구성	디자인매출 50%↑	20.4	4.8	72.5	1.2	1.1	79.06
	기타매출 50%↑	0.0	0.0	100.0	0.0	0.0	100.00
	반반	10.9	0.0	55.6	33.5	0.0	99.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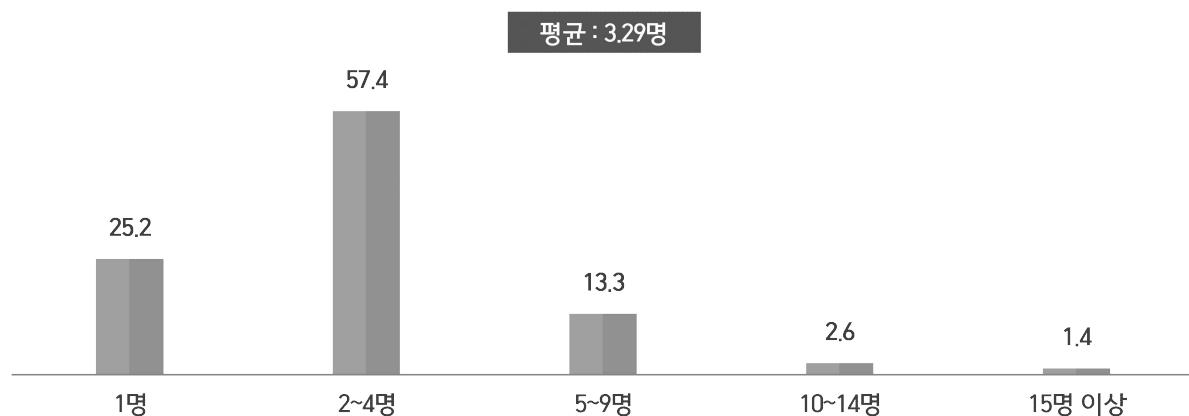
2 디자인 인력

1) 적정 디자이너 수

- 전문디자인업체의 적정 디자이너 수는 평균 3.29명인 것으로 나타남.
범주별로는, '2~4명'이 57.4%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1명'(25.2%), '5~9명'(13.3%), '10-14명'(2.6%), '15명 이상'(1.4%)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적정 디자이너 수

(단위: %)



- 업종별 적정 디자이너 수의 평균은 시각디자인업(3.56명), 인테리어디자인업(3.27명), 시각디자인업(3.25명),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업(2.98명) 순으로 나타남.

2) 업종별 적정 디자이너 수

(단위: %)

구분		1명	2~4명	5~9명	10~14명	15명 이상	평균(명)
전문디자인업체		25.2	57.4	13.3	2.6	1.4	3.29
업종별	제품디자인	17.2	61.9	16.2	3.9	0.8	3.56
	시각디자인	28.5	54.7	12.5	2.2	2.1	3.25
	인테리어디자인	16.8	66.9	13.1	2.1	1.1	3.27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	42.3	43.5	11.0	2.2	1.1	2.98

- » 권역별 적정 디자이너 수는 대구/경북에서 3.9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서울(3.48명), 인천/경기(3.01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강원/제주는 1.00명으로 가장 낮은 디자이너 수를 보임.
- » 규모별 적정 디자이너 수는 전문디자인업체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5인 이상 규모는 평균 12.93명으로 나타남.
- » 매출구성별로 살펴보면, 기타매출이 절반 이상인 업체(2.31명)에서 적정 디자이너 수가 상대적으로 낮음.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적정 디자이너 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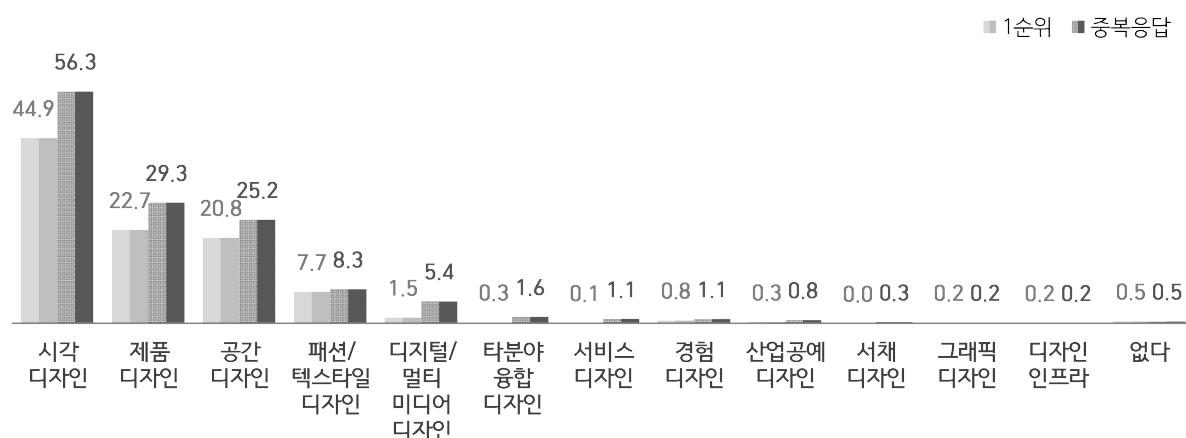
구분		1명	2~4명	5~9명	10~14명	15명 이상	평균(명)
전문디자인업체		25.2	57.4	13.3	2.6	1.4	3.29
권 역 별	서울	23.5	57.6	14.1	3.1	1.7	3.48
	부산/울산/경남	38.1	53.2	7.8	0.9	0.0	2.29
	대구/경북	4.1	72.6	19.0	1.8	2.5	3.94
	인천/경기	17.9	68.9	10.0	2.5	0.6	3.01
	광주/전라	50.9	41.4	7.7	0.0	0.0	2.20
	대전/충청	61.9	18.5	19.6	0.0	0.0	2.26
	강원/제주	100.0	0.0	0.0	0.0	0.0	1.00
규 모 별	1인	78.2	21.8	0.0	0.0	0.0	1.33
	2~4인	13.6	83.0	3.5	0.0	0.0	2.54
	5~9인	4.6	45.9	46.9	2.2	0.4	4.68
	10~14인	5.6	20.9	44.0	27.4	2.2	6.98
	15인 이상	0.0	16.3	29.9	24.4	29.4	12.93
매 출 구 성	디자인매출 50%↑	24.2	56.9	14.7	2.7	1.5	3.39
	기타매출 50%↑	21.5	72.0	6.4	0.0	0.0	2.31
	반반	0.0	77.1	22.9	0.0	0.0	3.67

2) 가장 필요한 디자이너 전문 분야

- » 가장 필요한 디자이너 전문 분야를 조사한 결과(중복응답 기준), ‘시각디자인’ 영역 디자이너가 56.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외 ‘제품디자인’(29.3%), ‘공간디자인’(25.2%), ‘패션/텍스타일디자인’(8.3%)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1순위 선택도 같은 순위를 보임.

가장 필요한 디자이너 전문 분야

(단위: %)



- » 업종별로 보면 시각디자인업(10.8%)은 다른 업종 대비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분야의 디자이너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 업종별 가장 필요한 디자이너 전문 분야

(단위: %)

구분		시각디자인	제품디자인	공간디자인	패션/텍스타일디자인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타분야융합디자인	서비스디자인	경험디자인	산업공예디자인	서체디자인	그래픽디자인	디자인인프라
전문디자인업체		56.3	29.3	25.2	8.3	5.4	1.6	1.1	1.1	0.8	0.3	0.2	0.2
업종별	제품디자인	46.5	74.2	11.0	1.4	3.1	1.5	1.2	0.0	0.8	0.0	0.9	0.0
	시각디자인	91.6	15.9	4.0	1.6	10.8	2.6	1.6	2.0	0.8	0.8	0.0	0.1
	인테리어디자인	27.6	7.1	92.7	0.0	1.5	1.1	0.9	0.0	0.0	0.0	0.0	0.0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	25.5	21.0	4.7	48.1	1.3	0.0	0.0	2.0	2.1	0.0	0.0	0.8

- » 권역별로 살펴보면, 인천/경기와 대전/충청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시각디자인’ 분야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제품디자인’의 경우 인천/경기(59.9%), 대전/충청(38.9%)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 규모별로 살펴보면, 모든 업체의 규모에서 ‘시각디자인’을 가장 필요한 디자이너 전문 분야로 응답함. ‘제품디자인’의 경우 15인 이상의 업체(38.1%)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 매출 구성별 결과 역시 매출 구성과 관계없이 ‘시각디자인’ 분야가 가장 필요한 디자이너 전문 분야라고 응답함.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가장 필요한 디자이너 전문 분야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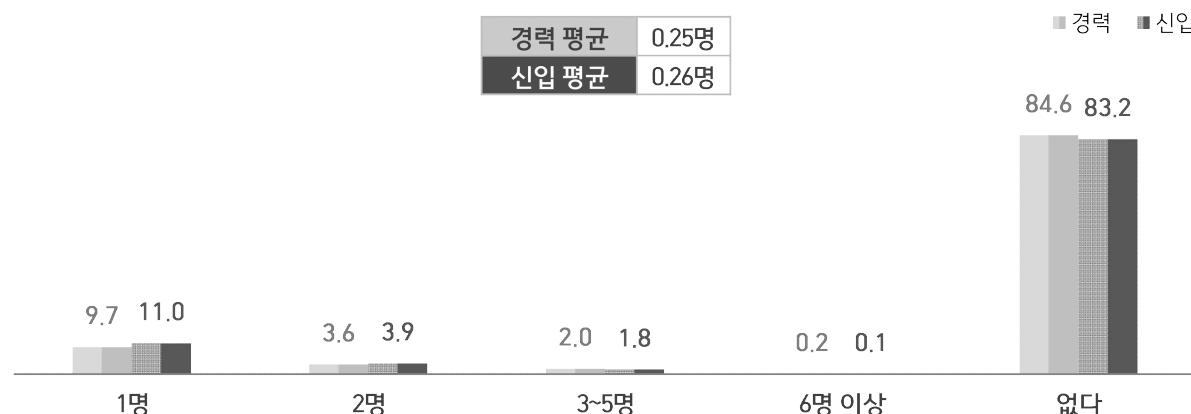
구분		시각 디자인	제품 디자인	공간 디자인	패션/ 텍스티일 디자인	디지털/ 멀티 미디어 디자인	타분야 융합 디자인	서비스 디자인	경험 디자인	산업공예 디자인	서체 디자인	그래픽 디자인	디자인 인프라
전문디자인업체		56.3	29.3	25.2	8.3	5.4	1.6	1.1	1.1	0.8	0.3	0.2	0.2
권 역 별	서울	55.4	26.4	30.6	8.6	6.2	1.8	1.1	1.2	0.8	0.4	0.3	0.2
	부산/울산/경남	75.3	23.9	14.0	6.6	3.7	0.0	0.0	0.0	0.0	0.0	0.0	0.0
	대구/경북	71.4	26.4	8.7	7.0	6.8	1.4	6.0	0.0	2.2	0.0	0.0	0.0
	인천/경기	34.6	59.9	5.8	11.5	3.2	0.0	0.0	2.1	1.6	0.0	0.0	0.0
	광주/전라	61.9	34.7	7.3	5.8	0.0	4.0	0.0	0.0	0.0	0.0	0.0	0.0
	대전/충청	36.2	38.9	35.1	0.0	0.0	0.0	0.0	0.0	0.0	0.0	0.0	0.0
	강원/제주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규 모 별	1인	59.3	22.6	21.6	12.8	2.5	1.4	0.0	0.7	0.7	0.0	0.0	0.0
	2~4인	56.7	31.7	24.9	7.4	2.7	2.1	1.6	1.5	0.6	0.6	0.4	0.0
	5~9인	54.7	27.7	28.1	7.5	11.3	0.0	0.0	0.7	1.4	0.0	0.0	0.7
	10~14인	53.4	32.7	29.0	1.8	21.7	3.4	1.6	0.0	1.7	0.0	0.0	1.1
	15인 이상	45.1	38.1	30.9	7.3	11.7	1.4	4.8	0.0	0.9	0.0	0.0	0.0
매 출 구 성	디자인매출 50%↑	57.8	26.8	26.0	7.6	5.5	1.9	1.3	1.3	1.0	0.4	0.0	0.2
	기타매출 50%↑	88.4	15.1	11.6	0.0	6.4	0.0	0.0	0.0	0.0	0.0	0.0	0.0
	반반	93.5	0.0	56.4	0.0	0.0	0.0	0.0	0.0	0.0	0.0	0.0	0.0

3) 2015년 신규 채용한 디자이너 수(경력/신입)

- » 전문디자인업체의 신규 채용 경력 디자이너 수 평균은 0.25명, 신입 디자이너 수 평균은 0.26명으로 경력 채용과 신입 채용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범주별로는, 경력 디자이너와 신규 디자이너 모두 '1명'(각 11.0%, 9.7%) 채용이 가장 많음.

2015년 신규 채용한 디자이너 수(경력/신입)

(단위: %)



- » 업종별 신규 채용 경력 디자이너 수는 제품디자인업이 0.39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신입 디자이너는 제품디자인업(0.35명)과 시각디자인업(0.34명)이 타 업종 대비 높음. 한편 시각디자인업의 경우 유일하게 경력 디자이너 채용(0.18명)이 신입 디자이너 채용(0.14명)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업종별 2015년 신규 채용한 디자이너 수(경력/신입)

(단위: %)

구분	경력 디자이너						신입 디자이너						
	1명	2명	3~5명	6명 이상	없다	평균(명)	1명	2명	3~5명	6명 이상	없다	평균(명)	
전문디자인업체	9.7	3.6	2.0	0.2	84.6	0.25	11.0	3.9	1.8	0.1	83.2	0.26	
업종별	제품디자인	11.9	7.4	3.8	0.0	77.0	0.39	14.6	4.2	3.2	0.1	78.0	0.35
	시각디자인	12.2	2.6	1.5	0.1	83.7	0.24	15.4	6.0	1.6	0.1	76.9	0.34
	인테리어디자인	7.7	2.6	1.1	0.3	88.3	0.18	5.9	2.3	1.1	0.0	90.7	0.14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	2.8	1.1	2.1	0.3	93.6	0.15	1.6	0.5	0.9	0.3	96.8	0.08

- » 권역별 신규 채용 경력 디자이너 수는 인천/경기가 0.43명으로 타 권역 대비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서울(0.25명), 광주/전라(0.24명)가 뒤를 이음. 신규 채용 신입 디자이너 수는 서울(0.29명)에서 가장 높음.
- » 규모별로 살펴보면, 규모가 커짐에 따라 신규 채용한 경력 디자이너와 신입 디자이너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2015년 신규 채용한 디자이너 수(경력/신입)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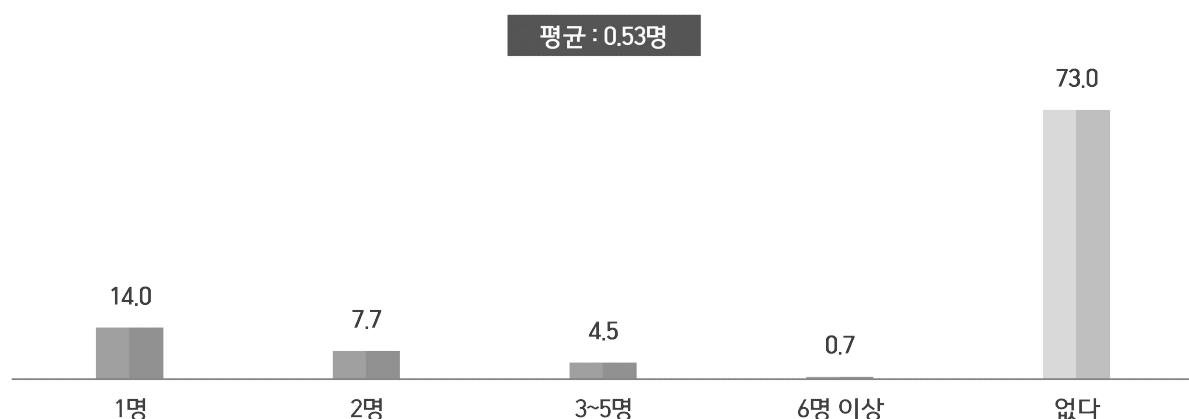
구분		경력 디자이너						신입 디자이너					
		1명	2명	3~5명	6명 이상	없다	평균 (명)	1명	2명	3~5명	6명 이상	없다	평균 (명)
전문디자인업체		9.7	3.6	2.0	0.2	84.6	0.25	11.0	3.9	1.8	0.1	83.2	0.26
권 역 별	서울	7.8	3.6	2.2	0.2	86.2	0.25	11.7	4.4	2.0	0.1	81.8	0.29
	부산/울산/경남	21.1	0.6	0.0	0.0	78.3	0.22	12.1	4.3	0.0	0.0	83.6	0.21
	대구/경북	11.0	2.8	0.0	0.0	86.2	0.17	9.2	2.2	2.2	0.0	86.4	0.21
	인천/경기	16.7	5.1	5.4	0.0	72.7	0.43	7.3	1.6	2.6	0.0	88.5	0.20
	광주/전라	11.6	6.3	0.0	0.0	82.1	0.24	10.2	0.0	0.0	0.0	89.8	0.10
	대전/충청	0.0	0.0	0.0	0.0	100.0	0.00	0.0	10.2	0.0	0.0	89.8	0.20
	강원/제주	0.0	0.0	0.0	0.0	100.0	0.00	0.0	0.0	0.0	0.0	100.0	0.00
규 모 별	1인	0.0	0.0	0.0	0.0	100.0	0.00	0.0	0.0	0.0	0.0	100.0	0.00
	2~4인	8.9	2.3	1.2	0.0	87.5	0.18	9.2	1.2	0.0	0.0	89.6	0.12
	5~9인	16.9	5.3	2.1	0.0	75.7	0.35	23.8	9.0	3.5	0.0	63.7	0.54
	10~14인	24.5	15.7	11.0	0.0	48.8	0.92	32.6	18.5	3.4	0.0	45.5	0.83
	15인 이상	23.7	17.5	13.0	3.6	42.2	1.32	14.1	21.2	23.2	2.2	39.3	1.61
매 출 구 성	디자인매출 50%↑	9.5	3.6	1.7	0.1	85.0	0.24	12.0	4.4	1.6	0.1	81.9	0.28
	기타매출 50%↑	36.6	15.1	0.0	0.0	48.3	0.67	15.1	6.4	0.0	0.0	78.5	0.28
	반반	0.0	0.0	5.5	0.0	94.5	0.16	0.0	5.5	0.0	0.0	94.5	0.11

4) 2015년 퇴사한 디자이너 수

- » 2015년 퇴사한 디자이너 수는 평균 0.53명으로 나타남.
범주별로는 '1명'(14.0%), '2명'(7.7%), '3~5명'(4.5%), '6명 이상'(0.7%) 순임.
전문디자인업체의 73.0%는 퇴직한 디자이너 수가 '없다'고 응답함.

2015년 퇴사한 디자이너 수

(단위: %)



- » 업종별 퇴사 디자이너 수는 제품디자인업(0.62명)과 시각디자인업(0.59명)에서 높음.
이어 인테리어디자인업(0.47명),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업(0.30명)의 순으로 나타남.

▣ 업종별 2015년 퇴사한 디자이너 수

(단위: %)

구분	1명	2명	3~5명	6명 이상	없다	평균(명)
전문디자인업체	14.0	7.7	4.5	0.7	73.0	0.53
업종별	제품디자인	20.6	7.6	7.6	0.1	0.62
	시각디자인	15.4	9.7	5.4	0.6	0.59
	인테리어디자인	12.4	6.7	1.5	1.6	0.47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	2.1	4.2	1.8	1.1	0.30

- » 권역별로 분석해보면, 2015년 퇴사한 디자이너 수는 부산/울산/경남에서 평균 0.74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0.55명), 인천/경기(0.52명)에서도 높게 나타남. 한편, 강원/제주는 0.0명으로 퇴사 디자이너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 규모별로 살펴보면, 업체의 규모가 클수록 퇴사 디자이너 수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 매출구성별로는 기타 매출이 반 이상인 업체에서 퇴직한 디자이너 수가 0.73명으로 가장 높음.

▣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2015년 퇴사한 디자이너 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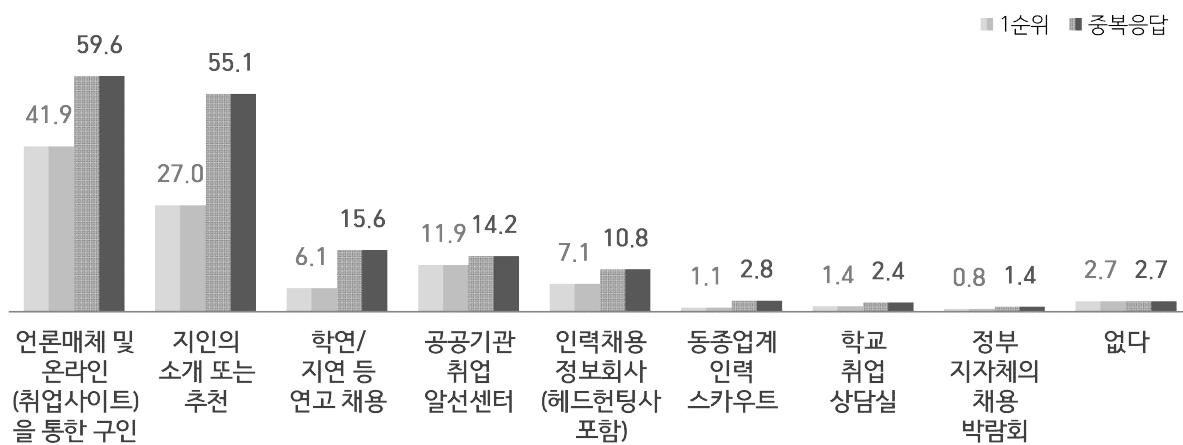
구분		1명	2명	3~5명	6명 이상	없다	평균(명)
전문디자인업체		14.0	7.7	4.5	0.7	73.0	0.53
권 역 별	서울	12.6	8.0	5.7	0.5	73.3	0.55
	부산/울산/경남	18.4	8.4	1.8	3.3	68.0	0.74
	대구/경북	23.5	0.9	0.9	0.0	74.7	0.28
	인천/경기	17.1	12.7	0.0	1.6	68.5	0.52
	광주/전라	13.3	4.6	4.0	0.0	78.2	0.34
	대전/충청	18.5	0.0	0.0	0.0	81.5	0.18
	강원/제주	0.0	0.0	0.0	0.0	100.0	0.00
규 모 별	1인	4.9	0.0	0.0	0.0	95.1	0.05
	2~4인	14.8	6.1	1.1	0.5	77.5	0.36
	5~9인	23.0	15.1	10.1	1.4	50.4	0.96
	10~14인	17.3	25.0	15.8	0.0	41.9	1.25
	15인 이상	10.3	18.2	34.8	5.8	30.9	2.55
매출 구성	디자인매출 50%↑	13.9	8.3	4.6	0.7	72.5	0.54
	기타매출 50%↑	30.2	21.5	0.0	0.0	48.3	0.73
	반반	10.9	0.0	5.5	0.0	83.6	0.38

5) 디자인 인력 채용 경로

- » 디자인 인력 채용 경로를 살펴본 결과(중복응답 기준), ‘언론매체 및 온라인(취업사이트)’(59.6%)이 가장 높았고, 그 외 ‘지인의 소개 또는 추천’(55.1%), ‘학연/지연 등 연고 채용’(15.6%), ‘공공기관 취업 알선센터’(14.2%) 등의 항목이 있었으며, ‘없다’의 응답은 2.7%로 나타남.

디자인 인력 채용 경로

(단위: %)



- » 업종별 디자인 인력 채용 경로를 살펴보면, 시각디자인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언론매체 및 온라인(취업사이트)’을 꼽은 응답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지인의 소개 또는 추천’은 시각디자인업(68.5%)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임.

▣ 업종별 디자인 인력 채용 경로

(단위: %, 중복응답)

구분		언론매체 및 온라인(취업사이트)을 통한 구인	지인의 소개 또는 추천	학연/지연 등 연고 채용	공공기관 취업 알선센터	인력채용 정보회사 (헤드헌팅사 포함)	동종업계 인력 스카우트	학교 취업 상담실	정부 지자체의 채용 박람회
전문디자인업체		59.6	55.1	15.6	14.2	10.8	2.8	2.4	1.4
업종별	제품디자인	65.2	43.3	7.9	12.6	31.2	1.0	4.2	0.9
	시각디자인	51.2	68.5	21.1	3.7	3.7	4.2	0.7	1.1
	인테리어디자인	64.2	43.9	21.6	23.7	5.7	4.5	4.3	1.5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	65.0	57.2	6.2	29.0	2.4	0.3	1.3	2.8

- » 권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과 대전/충청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지인의 소개 또는 추천’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강원/제주(100.0%), 인천/경기(70.9%), 광주/전라(67.3%)에서 높게 나타남. 서울(65.9%)과 대전/충청(50.1%)에서는 ‘언론매체 및 온라인(취업사이트)’이 주된 채용 경로인 것으로 나타남.
- » 규모별로 살펴보면, 1인 규모를 제외한 모든 업체에서 ‘언론매체 및 온라인(취업사이트)’이 주된 채용 경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규모가 커짐에 따라 응답 비율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1인 규모 업체의 경우 ‘지인의 소개 또는 추천’의 비율이 63.4%로 높게 나타남.
- » 매출 구성별로는, 디자인매출이 반 이상인 업체의 경우 ‘언론매체 및 온라인(취업사이트)’(60.2%)을 주된 채용 경로로, 나머지 업체들은 ‘지인의 소개 또는 추천’을 주된 경로로 꼽음.

▣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디자인 인력 채용 경로

(단위: %, 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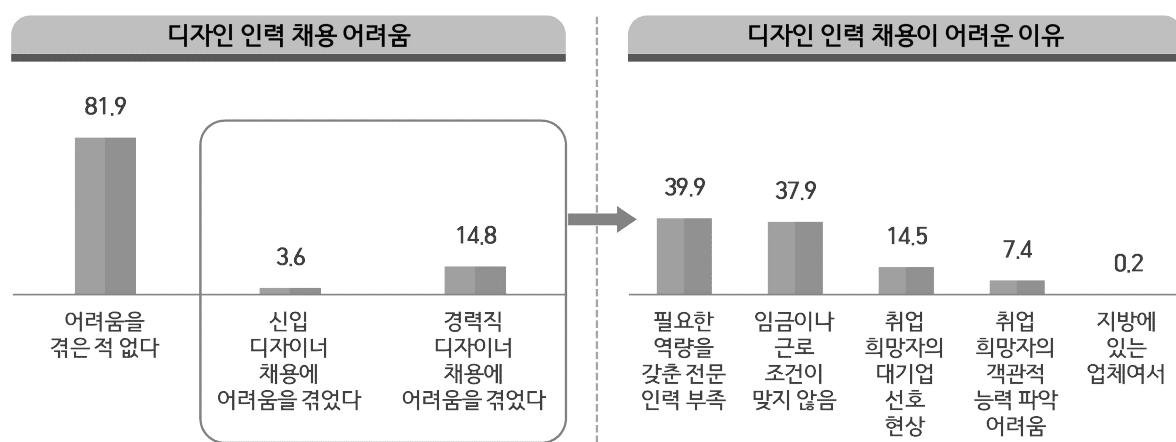
구분		언론매체 및 온라인 (취업 사이트)을 통한 구인	지인의 소개 또는 추천	학연/지연 등 연고 채용	공공기관 취업 알선센터	인력채용 정보회사 (헤드 헌팅사 포함)	동종업계 인력 스카우트	학교 취업 상담실	정부 지자체의 채용 박람회
전문디자인업체		59.6	55.1	15.6	14.2	10.8	2.8	2.4	1.4
권역별	서울	65.9	52.1	20.6	16.8	5.7	2.8	2.4	1.2
	부산/울산/경남	53.0	59.1	1.8	4.4	7.9	0.0	2.8	5.0
	대구/경북	52.3	58.1	3.0	6.0	28.6	7.5	2.2	0.9
	인천/경기	28.4	70.9	0.0	7.3	31.6	5.1	4.7	1.6
	광주/전라	37.9	67.3	0.0	3.8	36.1	0.0	0.0	0.0
	대전/충청	50.1	45.3	16.6	21.5	16.6	0.0	0.0	0.0
	강원/제주	0.0	100.0	0.0	100.0	0.0	0.0	0.0	0.0
규모별	1인	35.3	63.4	16.1	8.5	6.0	1.4	0.0	0.0
	2~4인	59.9	55.2	17.1	19.4	13.9	2.4	1.6	2.1
	5~9인	78.1	52.5	13.8	7.0	7.1	4.4	3.9	1.1
	10~14인	79.4	39.3	6.4	15.6	13.2	3.6	8.9	1.1
	15인 이상	84.3	38.3	12.2	8.6	10.7	8.5	12.2	1.1
매출 구성	디자인매출 50%↑	60.2	55.1	17.4	12.3	9.6	3.0	2.7	0.9
	기타매출 50%↑	41.8	58.2	11.6	6.4	0.0	0.0	0.0	15.1
	반반	5.5	94.5	5.5	0.0	0.0	44.4	0.0	0.0

6) 디자인 인력 채용의 어려움

- » 디자인 인력 채용의 어려움은 '겪은 적 없다'의 비율이 81.9%의 비율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은 기업들 중 '경력직 디자이너'의 경우 14.8%, '신입 디자이너'의 경우 3.6%의 비율을 보임.
- 디자인 인력 채용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는 '필요 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 부족'(39.9%), '임금이나 근로 조건이 맞지 않음'(37.9%) 등으로 나타남.

디자인 인력 채용의 어려움

(단위: %)



- » 업종별로 살펴보면, 모든 업종에서 '어려움을 겪은 적 없다'의 비율이 70% 이상으로 나타난 가운데, 인테리어디자인업의 경우 경력직 디자이너 채용에 어려움을 겪은 비율이 25.2%로 높게 나타남. '필요 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 부족'의 경우 시각디자인업(60.3%), '임금이나 근로 조건이 맞지 않음'은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업(51.0%)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업종별 디자인 인력 채용의 어려움

(단위: %)

구분	디자인 인력 채용 어려움			디자인 인력 채용이 어려운 이유				
	어려움을 겪은 적 없다	신입 디자이너 채용에 어려움을 겹었다	경력직 디자이너 채용에 어려움을 겹었다	필요한 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 부족	임금이나 근로 조건이 맞지 않음	취업 희망자의 대기업 선호 현상	취업 희망자의 객관적 능력 파악 어려움	지방에 있는 업체여서
전문디자인업체	81.9	3.6	14.8	39.9	37.9	14.5	7.4	0.2
업종별	제품디자인	88.3	1.6	10.6	21.6	44.6	26.4	7.4
	시각디자인	82.7	7.5	10.3	60.3	33.1	3.9	2.1
	인테리어디자인	73.4	1.4	25.2	39.2	33.8	10.6	16.4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	81.7	0.3	18.1	12.7	51.0	35.0	1.4

- » 권역별로 어려움을 분석하면, 모든 권역에서 '어려움을 겪은 적 없다'의 비율이 7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강원/제주(100.0%)의 경우 한 번도 어려움을 겪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대구/경북은 '신입 디자이너' 채용 시 어려움을 겪은 비율이 25.6%로 높았으며, 대전/충청은 '경력직 디자이너' 채용 시 어려움을 겪은 비율이 27.9%로 높게 나타남. 어려움의 이유에 대해서는, '필요한 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 부족'에 대해 대구/경북(74.4%)에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으며, '임금이나 근로조건이 맞지 않음'에 대해 광주/전라(100.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 » 규모별로 살펴보면, 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어려움을 겪은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으며, 특히 '경력직 디자이너 채용' 시, 10~14인 업체(29.3%)와 15인 이상의 업체(28.6%)에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남.
- » 매출 구성별로 살펴보면, 디자인과 기타 매출이 비슷한 업체(51.0%)에서 어려움을 겪은 비율이 높게 나타남.

▣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디자인 인력 채용의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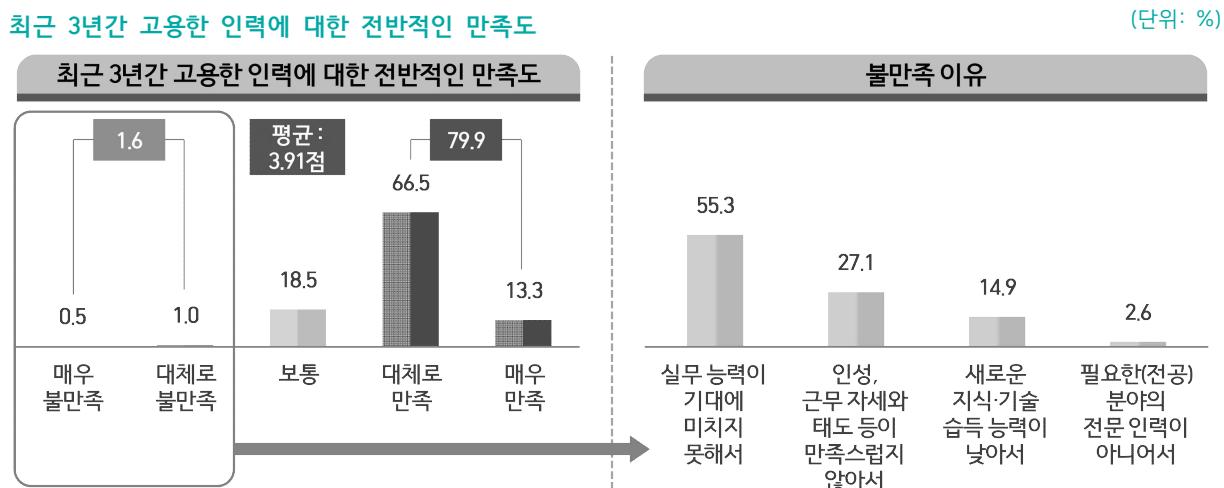
(단위: %)

구분		디자인 인력 채용 어려움			디자인 인력 채용이 어려운 이유				
		어려움을 겪은 적 없다	신입 디자이너 채용에 어려움을 겹쳤다	경력직 디자이너 채용에 어려움을 겹쳤다	필요한 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 부족	임금이나 근로 조건이 맞지 않음	취업 희망자의 대기업 선호 현상	취업 희망자의 객관적 능력 파악이 어려움	지방에 있는 업체여서
전문디자인업체		81.9	3.6	14.8	39.9	37.9	14.5	7.4	0.2
권역별	서울	80.0	2.1	18.2	40.5	37.2	13.1	9.2	0.0
	부산/울산/경남	93.8	0.9	5.3	0.0	50.0	50.0	0.0	0.0
	대구/경북	72.8	25.6	1.6	74.4	22.7	0.0	0.0	2.9
	인천/경기	91.9	0.0	8.1	0.0	21.2	78.8	0.0	0.0
	광주/전라	88.5	11.5	0.0	0.0	100.0	0.0	0.0	0.0
	대전/충청	72.1	0.0	27.9	66.2	33.8	0.0	0.0	0.0
	강원/제주	100.0	0.0	0.0	-	-	-	-	-
규모별	1인	90.2	1.4	8.4	11.0	36.4	41.5	11.0	0.0
	2~4인	83.8	3.6	12.6	45.7	44.1	1.9	8.3	0.0
	5~9인	74.9	4.2	22.4	39.7	37.0	18.0	5.2	0.0
	10~14인	62.0	8.7	29.3	47.3	23.7	17.9	11.0	0.0
	15인 이상	65.6	6.9	28.6	41.2	23.8	32.2	0.0	2.8
매출 구성	디자인매출 50%↑	82.5	3.1	14.6	40.4	37.3	12.9	9.1	0.3
	기타매출 50%↑	84.9	0.0	15.1	100.0	0.0	0.0	0.0	0.0
	반반	51.0	43.6	5.5	88.8	11.2	0.0	0.0	0.0

7) 최근 3년간 고용한 인력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 최근 3년간 고용한 인력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평균 3.91점으로 나타남.

범주별로 살펴보면, '만족'(대체로 만족: 66.5% + 매우 만족: 13.3%) 응답이 79.9%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불만족'(매우 불만족: 0.5% + 대체로 불만족: 1.0%) 응답 비율은 1.6%로 나타남. 불만족의 이유로는 '실무 능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55.3%), '인성, 근무 자세와 태도 등이 만족스럽지 않아서'(27.1%) 등이 나타남.



» 업종별로 살펴보면, 고용 인력 전반적 만족도는 모든 업종에서 비슷하게 나타난 가운데, 특히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업의 평균이 4.1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은 인테리어디자인업(4.02 점), 제품디자인업(3.87점), 시각디자인업(3.79점) 순으로 나타남.

▣ 업종별 최근 3년간 고용한 인력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단위: %)

구분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만족	평균(점)
전문디자인업체		0.5	1.0	1.6	18.5	66.5	13.3	79.9	3.91
업종별	제품디자인	0.0	3.1	3.1	16.9	70.0	10.0	80.0	3.87
	시각디자인	0.8	0.1	0.9	30.1	57.1	11.9	69.0	3.79
	인테리어디자인	1.1	1.1	2.2	8.8	72.6	16.3	89.0	4.02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	0.0	0.0	0.0	6.4	75.5	18.1	93.6	4.12

- » 권역별 만족도는 강원/제주(4.00점), 서울(3.96점), 부산/울산/경남(3.86점) 등의 순위를 보였으며, 광주/전라(3.57점)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 규모별로 살펴보면, 10~14인(4.11점), 5~9인(4.06점), 15인 이상(3.99점), 2~4인(3.91점), 1인(3.74점)의 순을 보임.
- » 매출 구성에 따른 만족도는 디자인매출이 반 이상인 업체와 디자인과 기타 매출이 비슷한 업체가 3.90점으로 비슷한 만족도를 보였고, 기타매출이 반 이상인 업체에서 4.06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았음.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최근 3년간 고용한 인력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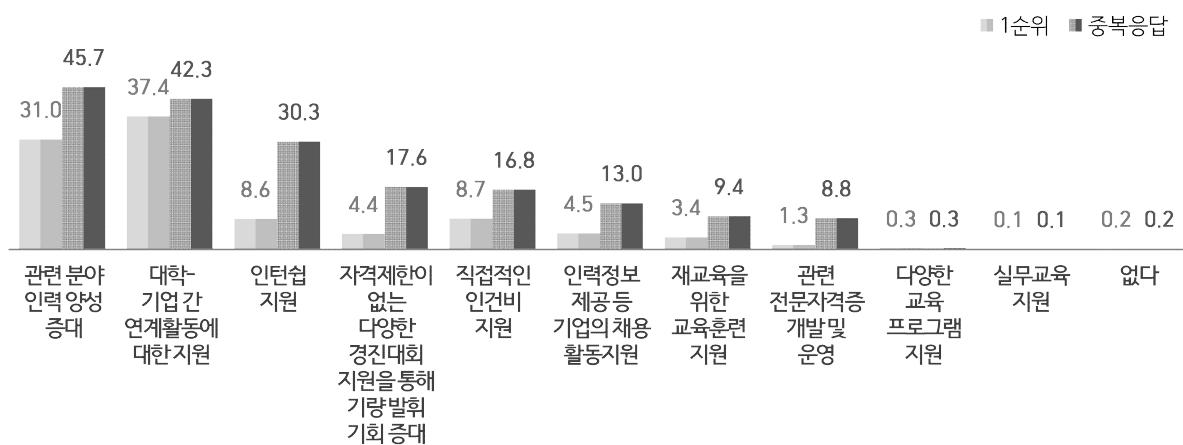
구분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만족	평균(점)
권 역 별	전문디자인업체	0.5	1.0	1.6	18.5	66.5	13.3	79.9	3.91
	서울	0.7	0.5	1.2	15.1	69.2	14.5	83.7	3.96
	부산/울산/경남	0.0	0.0	0.0	27.1	60.2	12.7	72.9	3.86
	대구/경북	0.0	0.8	0.8	25.7	66.6	6.9	73.5	3.80
	인천/경기	0.0	6.0	6.0	21.2	59.7	13.1	72.8	3.80
	광주/전라	0.0	4.0	4.0	40.7	49.5	5.7	55.3	3.57
	대전/충청	0.0	0.0	0.0	33.2	57.3	9.4	66.8	3.76
규 모 별	강원/제주	0.0	0.0	0.0	0.0	100.0	0.0	100.0	4.00
	1인	0.0	1.0	1.0	32.2	59.1	7.7	66.8	3.74
	2~4인	1.1	0.8	1.9	17.6	67.0	13.5	80.5	3.91
	5~9인	0.0	0.7	0.7	8.2	75.6	15.5	91.1	4.06
	10~14인	0.0	0.0	0.0	8.4	72.5	19.1	91.6	4.11
매출 구성	15인 이상	0.0	6.6	6.6	13.8	54.2	25.4	79.6	3.99
	디자인매출 50%↑	0.7	1.1	1.7	18.8	66.8	12.7	79.5	3.90
	기타매출 50%↑	0.0	0.0	0.0	15.1	63.4	21.5	84.9	4.06
반반		0.0	0.0	0.0	43.6	22.9	33.5	56.4	3.90

8) 우수인재 채용을 위한 정부의 지원 강화 부분

- » 우수인재 채용을 위한 정부의 지원 강화 부분(중복응답 기준)은 ‘관련 분야 인력 양성 증대’(45.7%)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대학-기업 간 연계활동에 대한 지원’(42.3%), ‘인턴쉽 지원’(30.3%), ‘자격제한이 없는 다양한 경진대회 지원을 통해 기량 발휘 기회 증대’(17.6 %) 등 의 항목이 있었으며, ‘없다’의 경우 0.2%로 나타남.

우수인재 채용을 위한 정부의 지원 강화 부분

(단위: %)



- »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품디자인업과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업에서는 각각 58.9%와 59.9%의 높은 응답률로 ‘대학-기업 간 연계 활동에 대한 지원’ 강화를 꼽음.
 ‘관련 분야 인력 양성 증대’에 대해 시각디자인업(60.0%)과 인테리어디자인업(52.6%)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임.

▣ 업종별 우수인재 채용을 위한 정부의 지원 강화 부분

(단위: %, 중복응답)

구분		관련 분야 인력 양성 증대	대학-기업 간 연계 활동에 대한 지원	인턴쉽 지원	다양한 경진대회 지원을 통해 기량 발휘 기회 증대	직접적인 인건비 지원	인력정보 제공 등 기업의 채용 활동지원	재교육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관련 전문자격증 개발 및 운영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	실무교육 지원
전문디자인업체		45.7	42.3	30.3	17.6	16.8	13.0	9.4	8.8	0.3	0.1
업종별	제품디자인	20.0	58.9	39.7	19.3	10.3	15.1	7.0	3.7	0.0	0.0
	시각디자인	60.0	25.6	26.0	9.0	29.4	15.9	11.7	4.7	0.8	0.0
	인테리어디자인	52.6	40.2	38.7	17.3	12.0	11.1	9.7	12.0	0.0	0.0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	41.8	59.9	13.8	36.9	3.3	5.2	6.9	22.8	0.0	0.8

- » 권역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권역에서 '관련 분야 인력 양성 증대'와 '대학-기업 간 연계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가장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남. 한편, 광주/전라에서는 '인턴쉽 지원'(68.8%) 강화가 높음.
- » 규모별로 살펴보면, 9인 이하의 기업에서는 '관련 분야 인력 양성 증대'에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반면, 10인 이상 규모의 업체들은 '대학-기업 간 연계 활동에 대한 지원'에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임.
- » 매출 구성별로는 기타매출이 반 이상인 업체를 제외한 업체들은 '관련 분야 인력 양성 증대'에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반면, 기타매출이 반 이상인 업체는 '인턴쉽 지원'에 높은 비율 보임.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우수인재 채용을 위한 정부의 지원 강화 부분

(단위: %, 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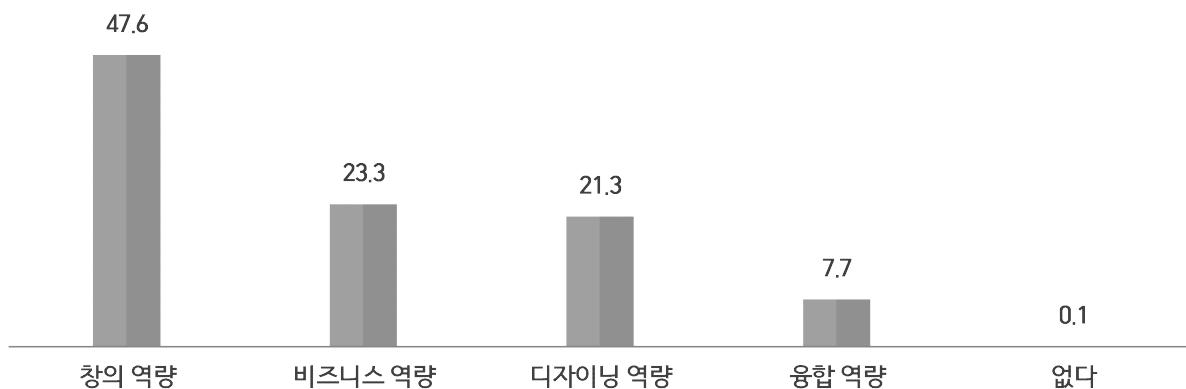
구분		관련 분야 인력 양성 증대	대학- 기업 간 연계 활동에 대한 지원	인턴쉽 지원	다양한 경진대회 지원 통해 기량 발휘 기회 증대	직접적인 인건비 지원	인력정보 제공 등 기업의 채용 활동지원	재교육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관련 전문 자격증 개발 및 운영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	실무교육 지원
전문디자인업체		45.7	42.3	30.3	17.6	16.8	13.0	9.4	8.8	0.3	0.1
권 역 별	서울	48.4	45.7	27.1	19.3	15.9	12.9	8.4	10.3	0.0	0.2
	부산/울산/경남	42.5	40.2	34.8	13.0	19.7	5.4	18.4	8.7	0.0	0.0
	대구/경북	25.5	30.8	30.2	21.7	27.1	20.3	6.0	0.0	6.0	0.0
	인천/경기	41.6	28.3	32.1	17.2	20.3	11.6	14.1	6.4	0.0	0.0
	광주/전라	37.4	38.7	68.8	0.0	12.0	18.1	5.7	2.9	0.0	0.0
	대전/충청	40.7	12.1	16.6	9.4	16.6	9.4	18.5	0.0	0.0	0.0
	강원/제주	100.0	0.0	0.0	0.0	0.0	100.0	0.0	0.0	0.0	0.0
규 모 별	1인	44.0	39.6	26.1	17.6	20.6	8.8	8.4	9.9	0.0	0.0
	2~4인	43.9	41.3	32.6	19.4	18.2	11.5	8.6	10.0	0.6	0.0
	5~9인	52.0	39.8	30.4	14.3	13.1	21.9	11.3	5.6	0.0	0.7
	10~14인	44.1	59.2	31.5	11.9	8.7	18.0	8.9	5.2	0.0	0.0
	15인 이상	50.2	63.6	22.6	15.6	5.0	10.3	16.1	5.5	0.0	0.0
매출 구성	디자인매출 50%↑	47.9	41.5	29.1	15.4	17.7	14.3	9.3	9.3	0.4	0.1
	기타매출 50%↑	28.0	26.7	48.3	0.0	21.5	15.1	15.1	15.1	0.0	0.0
	반반	88.0	22.9	33.5	5.5	0.0	0.0	6.5	0.0	0.0	0.0

3 디자인 교육

1)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역량

- »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역량을 조사한 결과, '창의 역량'이 47.6%로 가장 높고, '비즈니스 역량'(23.3%), '디자이닝 역량'(21.3%), '융합 역량'(7.7%), '없다'(0.1%)의 항목으로 나타남.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역량 (단위: %)



- » 업종별 필요 역량은 모든 업종에서 '창의 역량'에 가장 높은 필요도를 준 가운데, 특히 제품디자인업(53.4%)에서 높게 나타남. '비즈니스 역량'은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업(30.0%)에서 다른 업종 대비 높게 나타남. '융합 역량'의 경우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업에서 18.4%로 상대적으로 높음.

▣ 업종별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역량

(단위: %)

구분	창의 역량	비즈니스 역량	디자이닝 역량	융합 역량
전문디자인업체	47.6	23.3	21.3	7.7
업종별	제품디자인	53.4	18.2	18.6
	시각디자인	47.3	22.5	27.4
	인테리어디자인	47.7	25.8	19.8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	39.0	30.0	12.6

- » 권역별로 살펴보면,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라, 강원/제주를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창의 역량'을 가장 필요한 역량으로 응답했으며, 특히 인천/경기(70.6%)에서 높게 나타났고, 강원/제주는 0.0%의 낮은 비율을 보임. '디자이닝 역량'의 경우 부산/울산/경남(43.4%)과 광주/전라(41.1%)에서 타 권역 대비 높은 비율을 차지함. 한편, 강원/제주는 실질적으로 가장 필요한 역량으로 '융합 역량'에 100.0%의 높은 비율을 보임.
- » 규모별로 살펴보면, 모든 규모의 업체에서 '창의 역량'에 가장 높은 필요도를 준 가운데, 10~14인 기업의 11.5%는 '융합 역량'을 갖춘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 매출 구성별 결과는 디자인과 기타 매출이 비슷한 업체를 제외한 업체들에서 '창의 역량'의 필요도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역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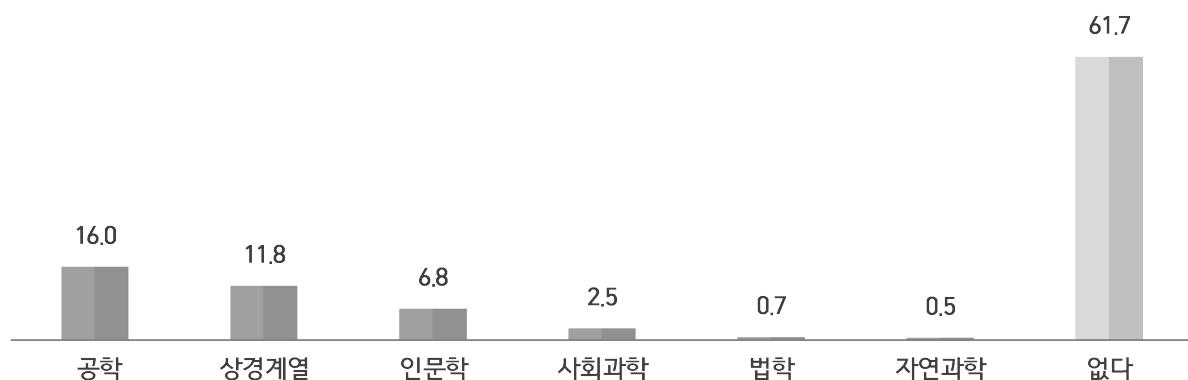
(단위: %)

구분		창의 역량	비즈니스 역량	디자이닝 역량	융합 역량
전문디자인업체		47.6	23.3	21.3	7.7
권 역 별	서울	46.2	25.7	20.0	7.9
	부산/울산/경남	37.7	13.7	43.4	5.3
	대구/경북	57.8	17.0	19.2	6.0
	인천/경기	70.6	16.6	3.7	9.1
	광주/전라	38.5	20.5	41.1	0.0
	대전/충청	51.7	16.6	0.0	31.7
	강원/제주	0.0	0.0	0.0	100.0
규 모 별	1인	54.5	17.5	24.8	3.2
	2~4인	47.7	25.7	17.1	9.5
	5~9인	42.4	21.2	28.6	7.8
	10~14인	42.4	26.8	19.2	11.5
	15인 이상	38.8	29.1	24.7	5.9
매출 구성	디자인매출 50%↑	46.7	24.1	21.4	7.6
	기타매출 50%↑	78.5	21.5	0.0	0.0
	반반	43.6	0.0	56.4	0.0

2) 필요 인력의 전공 분야

- » 디자인 전공 외 필요한 인력의 전공 분야를 조사한 결과(중복응답 기준), ‘공학’이 16.0%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상경계열’(11.8%)이 뒤를 이음. ‘없다’의 응답은 61.7%의 비율로 나타남.

필요 인력의 전공 분야 (단위: %)



- » 업종별 필요 전공 분야는 ‘공학’은 제품디자인업과 시각디자인업에서 각 31.3%, 17.2%로 다른 업종 대비 높게 나타났으며, ‘상경계열’은 제품디자인업과 인테리어디자인업에서 각 16.7%, 16.1%로 높게 나타남.

대부분의 업종에서 ‘없다’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업에서 89.8%로 가장 높음.

▣ 업종별 필요 인력의 전공 분야

(단위: %)

구분		공학	상경계열	인문학	사회과학	법학	자연과학	없다
전문디자인업체		16.0	11.8	6.8	2.5	0.7	0.5	61.7
업종별	제품디자인	31.3	16.7	1.4	1.5	0.0	1.2	48.0
	시각디자인	17.2	8.7	13.8	2.6	0.9	0.3	56.5
	인테리어디자인	7.5	16.1	5.8	2.4	1.5	0.4	66.4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	0.0	5.6	0.0	4.4	0.0	0.3	89.8

- » 권역별로 살펴보면, 인천/경기를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필요 인력의 전공 분야가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50%를 넘은 가운데, '공학'의 경우 인천/경기(46.1%), 광주/전라(32.1%)에서 높은 비율을 보임. '상경계열'을 꼽은 응답은 대전/충청(28.7%)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인문학'은 서울(6.8%)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함.
- »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부분 규모에서 '상경계열'과 '공학'을 꼽은 응답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가운데, 15인 이상 규모 업체의 32.8%가 '상경계열'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 매출구성별로는 필요 인력의 전공 분야가 '없다'는 응답이 50%를 넘었으며, 기타매출이 반 이상인 업체의 33.2%가 '인문학'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필요 인력의 전공 분야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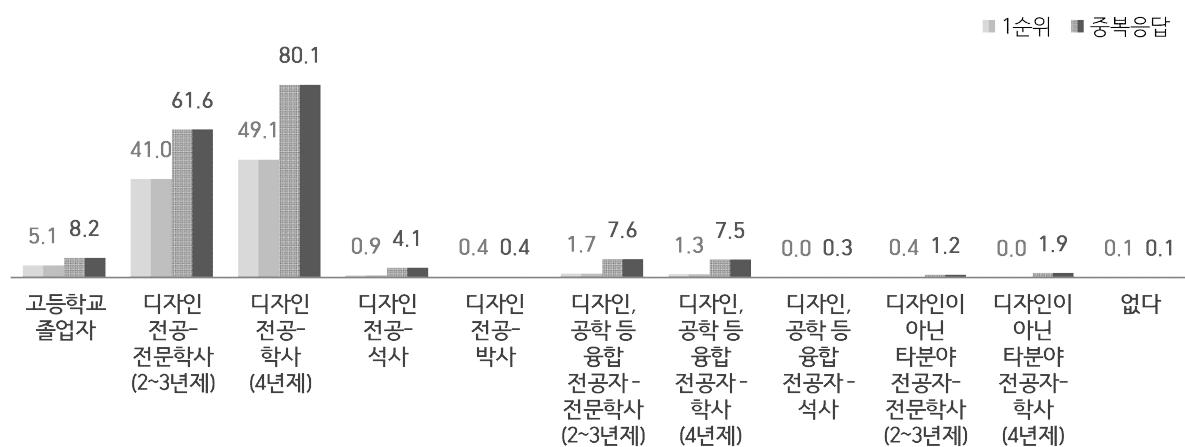
구분		공학	상경계열	인문학	사회과학	법학	자연과학	없다
전문디자인업체		16.0	11.8	6.8	2.5	0.7	0.5	61.7
권 역 별	서울	12.2	13.0	9.0	2.8	0.9	0.7	61.4
	부산/울산/경남	4.3	0.9	0.0	0.0	0.0	0.0	94.7
	대구/경북	24.5	8.0	0.0	3.0	0.0	0.8	63.8
	인천/경기	46.1	13.0	2.9	4.6	0.0	0.0	33.4
	광주/전라	32.1	8.4	0.9	0.0	0.0	0.0	58.6
	대전/충청	16.6	28.7	0.0	0.0	0.0	0.0	54.7
	강원/제주	0.0	0.0	0.0	0.0	0.0	0.0	100.0
규 모 별	1인	14.8	2.2	3.9	0.0	0.0	0.0	79.1
	2~4인	18.3	8.7	4.8	1.6	0.5	0.4	65.7
	5~9인	11.7	23.5	14.3	6.8	1.9	1.2	40.6
	10~14인	22.2	28.3	14.0	6.2	1.1	1.7	26.5
	15인 이상	5.4	32.8	8.2	5.4	1.0	0.9	46.3
매출 구성	디자인매출 50%↑	16.5	12.5	7.1	2.9	0.8	0.5	59.7
	기타매출 50%↑	0.0	0.0	33.2	6.4	0.0	0.0	60.4
	반반	0.0	10.9	0.0	0.0	0.0	0.0	89.1

3) 가장 선호하는 디자이너 교육 수준

» 가장 선호하는 디자이너 교육 수준을 조사한 결과(중복응답 기준), '디자인전공-학사(4년제)'의 비율이 80.1%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디자인전공-전문학사(2~3년제)'(61.6%), '고등학교 졸업자'(8.2%)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1순위 응답 역시 비슷한 순위를 보임.

가장 선호하는 디자이너 교육 수준

(단위: %)



» 업종별로 살펴보면,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디자인전공-학사(4년제)'를 꼽은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업은 '디자인전공-전문학사(2~3년제)'의 비율이 85.4%로 가장 높았음.

'디자인, 공학 등 융합 전공자'는 시각디자인업에서 타 업종 대비 높은 응답률을 나타냄.

▣ 업종별 가장 선호하는 디자이너 교육 수준

(단위: %, 중복응답)

구분	고등학교 졸업자	디자인 전공				디자인 공학 등 융합 전공자			디자인이 아닌 타분야 전공자		
		전문학사 (2~3년제)	학사 (4년제)	석사	박사	전문학사 (2~3년제)	학사 (4년제)	석사	전문학사 (2~3년제)	학사 (4년제)	
전문디자인업체	8.2	61.6	80.1	4.1	0.4	7.6	7.5	0.3	1.2	1.9	
업종별	제품디자인	12.0	51.1	73.0	5.5	0.0	7.7	3.4	0.5	0.9	0.0
	시각디자인	9.8	52.1	80.3	3.2	1.2	10.5	15.1	0.3	2.6	4.9
	인테리어디자인	2.1	73.2	88.5	5.7	0.0	7.8	3.9	0.0	0.0	0.0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	6.9	85.4	79.6	1.6	0.0	0.3	0.3	0.0	0.0	0.0

- » 권역별로 살펴보면, 모든 권역에서 '디자인 전공'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디자인 전공-학사(4년제)'는 광주/전라(94.7%), 서울(84.8%), 부산/울산/경남(67.8%)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디자인 전공-학사(2~3년제)'는 강원/제주(100.0%), 대구/경북(89.4%), 대전/충청(83.4%), 인천/경기(76.6%)에서 다른 권역 대비 높게 나타남.
- » 규모별로 살펴보면, 모든 규모의 업체에서 '디자인 전공-학사(4년제)'를 가장 선호하는 교육 수준으로 응답함. 매출 구성별 결과는 디자인 매출이 반 이상인 업체를 제외한 업체들에서 '디자인 전공-학사(2~3년제)'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가장 선호하는 디자이너 교육 수준

(단위: %, 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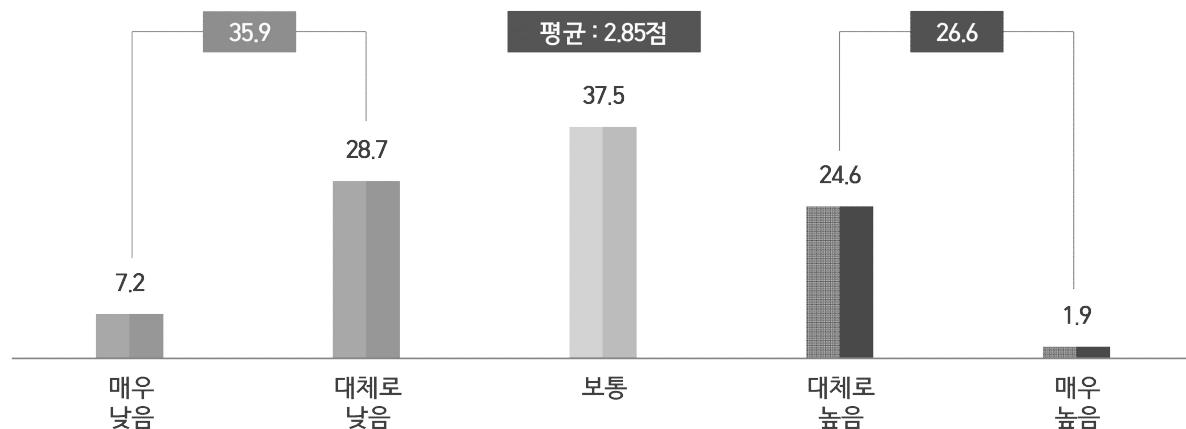
구분	고등학교 졸업자	디자인 전공				디자인 공학 등 융합 전공자			디자인이 아닌 타분야 전공자		
		전문학사 (2~3년제)	학사 (4년제)	석사	박사	전문학사 (2~3년제)	학사 (4년제)	석사	전문학사 (2~3년제)	학사 (4년제)	
전문디자인업체	8.2	61.6	80.1	4.1	0.4	7.6	7.5	0.3	1.2	1.9	
권 역 별	서울	4.5	59.7	84.8	4.7	0.6	7.9	9.5	0.3	1.3	2.5
	부산/울산/경남	28.8	65.2	67.8	0.0	0.0	5.1	0.0	0.0	0.0	0.0
	대구/경북	18.4	89.4	61.3	1.4	0.0	12.1	0.0	0.0	4.1	0.0
	인천/경기	25.3	76.6	55.1	6.4	0.0	8.6	7.0	0.0	0.0	0.0
	광주/전라	0.0	27.4	94.7	1.4	0.0	4.0	0.0	0.0	0.0	0.0
	대전/충청	0.0	83.4	54.7	0.0	0.0	0.0	0.0	0.0	0.0	0.0
	강원/제주	0.0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규 모 별	1인	8.3	66.0	78.9	1.4	0.0	6.3	8.5	0.0	0.0	1.4
	2~4인	10.3	66.0	76.0	1.7	0.6	7.5	6.6	0.0	2.2	3.0
	5~9인	3.2	49.9	90.2	8.3	0.7	10.4	7.6	1.4	0.0	0.0
	10~14인	7.6	48.1	84.9	13.5	0.0	7.5	12.4	0.0	1.1	0.0
	15인 이상	3.6	47.2	89.5	19.7	0.0	5.0	7.8	0.0	0.0	0.0
매 출 구 성	디자인매출 50%↑	8.1	60.7	81.2	4.1	0.5	7.6	8.4	0.3	1.4	2.2
	기타매출 50%↑	45.3	100.0	54.7	0.0	0.0	0.0	0.0	0.0	0.0	0.0
	반반	0.0	83.6	59.9	0.0	0.0	33.5	10.9	0.0	0.0	0.0

4) 대학 디자인 교육 기여도

- » 대학 디자인 교육 실제 디자인 업무 기여도를 조사한 결과, 평균 2.85점으로 나타남. 범주별로 살펴보면, '보통'의 비율은 37.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높음'(대체로 높음: 24.6% + 매우 높음: 1.9%)의 응답은 26.6%, '낮음'(대체로 낮음: 28.7% + 매우 낮음: 7.2%)의 응답 비율은 35.9%로 나타남.

대학 디자인 교육 기여도

(단위: %)



- » 업종별 디자인 업무 기여도는 시각디자인업에서 3.3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제품디자인업(2.65점), 인테리어디자인업(2.62점),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업(2.362점)의 순으로 나타남.

▣ 업종별 대학 디자인 교육 기여도

(단위: %)

구분		매우 낮음	대체로 낮음	낮음	보통	대체로 높음	매우 높음	높음	평균(점)
전문디자인업체		7.2	28.7	35.9	37.5	24.6	1.9	26.6	2.85
업종별	제품디자인	5.7	43.5	49.2	32.2	16.9	1.6	18.6	2.65
	시각디자인	1.3	7.4	8.7	51.8	37.4	2.1	39.5	3.32
	인테리어디자인	15.6	33.4	49.1	27.3	20.3	3.3	23.6	2.62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	12.3	50.8	63.2	25.0	11.8	0.0	11.8	2.36

- » 권역별 디자인 업무 기여도는 부산/울산/경남(3.30점)과 광주/전라(3.25점)에서 가장 높았으며, 강원/제주(2.00점)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임.
- » 규모별로 살펴보면, 10~14인(3.29점), 5~9인(3.21점), 15인 이상(3.16점), 1인(2.76점), 2~4인(2.71점)의 순의 디자인 업무 기여도를 보임.
- » 매출 구성별 결과로는 기타매출이 반 이상인 업체가 3.4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디자인과 기타 매출이 비슷한 업체(3.27점), 디자인매출이 반 이상인 업체(2.90점)의 순으로 나타남.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대학 디자인 교육 기여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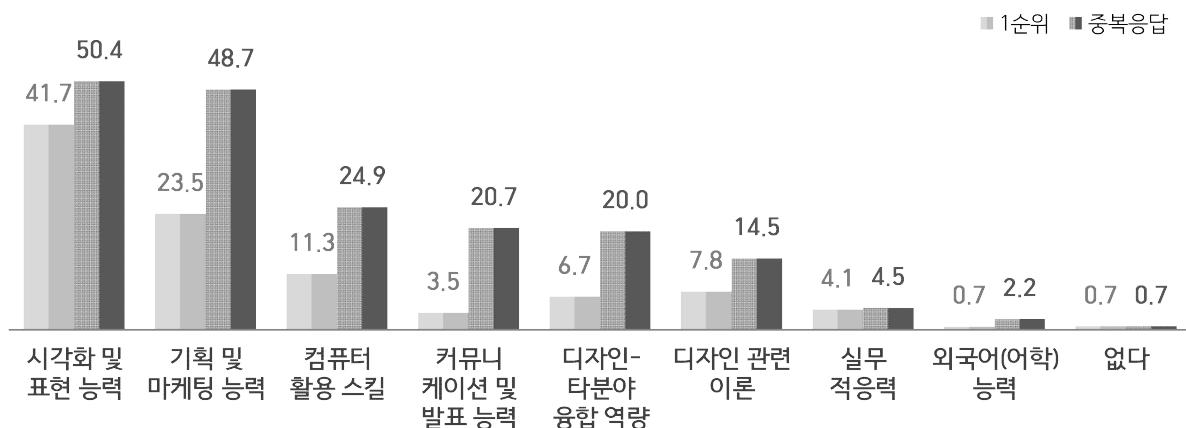
구분		매우 낮음	대체로 낮음	낮음	보통	대체로 높음	매우 높음	높음	평균(점)
전문디자인업체		7.2	28.7	35.9	37.5	24.6	1.9	26.6	2.85
권 역 별	서울	9.8	28.0	37.8	35.2	24.9	2.1	27.0	2.81
	부산/울산/경남	0.0	15.2	15.2	39.5	45.3	0.0	45.3	3.30
	대구/경북	0.0	31.8	31.8	40.5	26.8	0.9	27.7	2.97
	인천/경기	0.0	52.7	52.7	41.1	5.6	0.6	6.2	2.54
	광주/전라	0.0	11.4	11.4	58.1	24.7	5.7	30.5	3.25
	대전/충청	0.0	56.6	56.6	43.4	0.0	0.0	0.0	2.43
	강원/제주	0.0	100.0	100.0	0.0	0.0	0.0	0.0	2.00
규 모 별	1인	5.9	35.6	41.5	38.4	16.6	3.5	20.1	2.76
	2~4인	9.6	30.7	40.3	39.4	19.8	0.5	20.3	2.71
	5~9인	4.1	19.5	23.6	31.1	41.8	3.5	45.3	3.21
	10~14인	0.0	20.3	20.3	33.4	43.1	3.3	46.3	3.29
	15인 이상	4.6	16.4	21.0	41.2	34.2	3.6	37.8	3.16
매출 구성	디자인매출 50%↑	6.5	27.5	33.9	37.7	26.6	1.7	28.3	2.90
	기타매출 50%↑	0.0	15.1	15.1	36.6	36.6	11.6	48.3	3.45
	반반	0.0	6.5	6.5	59.9	33.5	0.0	33.5	3.27

5) 보강되어야 할 디자인 전공 대학교육

» 보강되어야 할 디자인 전공 대학교육에 대해 조사한 결과(중복응답 기준), '시각화 및 표현 능력'(50.4%)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기획 및 마케팅 능력'(48.7%), '컴퓨터 활용 스킬'(24.9%), '커뮤니케이션 및 발표 능력'(20.7%) 등의 항목이 나타났으며, '없다'의 응답은 0.7%로 나타남.

보강되어야 할 디자인 전공 대학교육

(단위: %)



»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품디자인업과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업은 '시각화 및 표현 능력'에 각각 55.8%와 42.6%로 가장 보강되어야한다고 응답했으며, '기획 및 마케팅 능력'의 경우 시각디자인업에서 62.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 업종별 보강되어야 할 디자인 전공 대학교육

(단위: %, 중복응답)

구분		시각화 및 표현 능력	기획 및 마케팅 능력	컴퓨터 활용 스킬	커뮤니케이션 및 발표 능력	디자인-타분야 융합 역량	디자인 관련 이론	실무 적응력	외국어 (영어) 능력
전문디자인업체		50.4	48.7	24.9	20.7	20.0	14.5	4.5	2.2
업종별	제품디자인	55.8	50.6	24.0	17.7	28.3	8.3	0.9	1.5
	시각디자인	62.1	62.6	13.7	9.4	14.8	11.2	10.8	1.6
	인테리어디자인	29.3	41.5	46.8	34.2	22.7	11.4	0.0	0.7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	42.6	21.5	22.7	34.3	15.6	37.3	0.8	6.7

- » 권역별로 살펴보면, 강원/제주를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시각화 및 표현 능력'과 '기획 및 마케팅 능력'을 보강 교육으로 응답했으며, 강원/제주에서는 '컴퓨터 활용 스킬'과 '커뮤니케이션 및 발표 능력'을 보강 교육으로 응답함. 특히 '시각화 및 표현 능력'은 대전/충청(80.4%), 광주/전라(79.3%)에서, '기획 및 마케팅 능력'은 부산/울산/경남(59.2%)과 인천/경기(55.9%)에서 다른 권역 대비 높게 나타남.
- » 규모별로 살펴보면, 4인 이하 규모의 업체에서는 '기획 및 마케팅 능력'을 가장 보강해야한다고 응답했으며, 5인 이상 규모의 업체에서는 '시각화 및 표현 능력'에 높은 응답률을 보임.
- » 매출 구성별로는, 디자인과 기타 매출이 비슷한 업체에서 '커뮤니케이션 및 발표 능력'(44.4%)과 '실무 적용력'(43.6%)에 높은 비율을 보임.

▣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보강되어야 할 디자인 전공 대학교육

(단위: %, 중복응답)

구분		시각화 및 표현 능력	기획 및 마케팅 능력	컴퓨터 활용 스킬	커뮤니케이션 및 발표 능력	디자인-타분야 융합 역량	디자인 관련 이론	실무 적용력	외국어 (영어) 능력
전문디자인업체		50.4	48.7	24.9	20.7	20.0	14.5	4.5	2.2
권역별	서울	45.7	48.0	30.0	24.4	21.8	16.2	0.3	2.6
	부산/울산/경남	58.0	59.2	5.5	7.7	12.6	6.6	28.5	2.2
	대구/경북	55.3	34.0	9.0	4.5	22.4	0.0	35.8	1.4
	인천/경기	60.5	55.9	13.2	15.6	13.7	17.5	2.9	0.0
	광주/전라	79.3	53.2	16.1	6.6	12.6	15.5	0.0	0.0
	대전/충청	80.4	33.2	0.0	27.9	21.5	0.0	10.2	0.0
	강원/제주	0.0	0.0	100.0	100.0	0.0	0.0	0.0	0.0
규모별	1인	47.4	54.3	29.2	21.1	19.7	13.5	1.4	1.4
	2~4인	45.5	46.2	25.9	22.3	19.5	17.8	7.0	1.5
	5~9인	64.9	50.3	19.6	14.4	22.1	8.0	2.2	3.3
	10~14인	61.6	50.2	21.6	21.0	14.4	4.5	0.0	5.9
	15인 이상	52.7	42.0	15.6	24.5	24.2	16.8	3.1	5.5
매출 구성	디자인매출 50%↑	51.6	49.9	24.6	20.9	20.2	13.3	3.8	2.4
	기타매출 50%↑	54.7	54.7	0.0	0.0	0.0	0.0	45.3	0.0
	반반	12.0	33.5	6.5	44.4	10.9	0.0	43.6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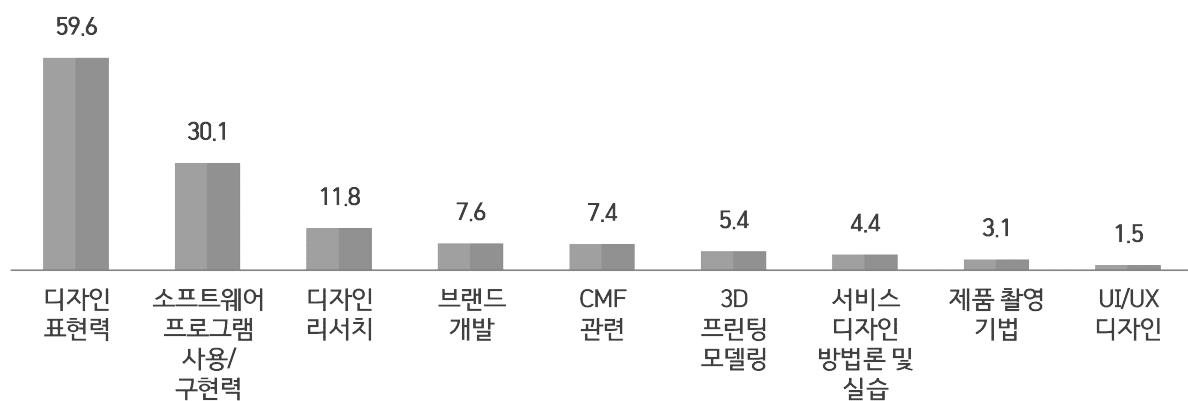
6)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재교육

(1) 디자인 스킬/툴 교육

- »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재교육 중 디자인 스킬/툴 교육을 분석한 결과, '디자인 표현력'(59.6%),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사용/구현력'(30.1%), '디자인 리서치'(11.8%) 등의 순을 보임.

디자인 스킬/툴 교육

(단위: %, 중복응답)



- » 업종별 필요한 재교육을 살펴본 결과,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디자인 표현력'에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가운데, 특히 시각디자인업(75.3%)에서 높은 비율을 보임.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사용/구현력'은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업(42.5%)에서 가장 높았음.

▣ 업종별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재교육_디자인 스킬/툴 교육

(단위: %, 중복응답)

구분		디자인 표현력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사용/구현력	디자인 리서치	브랜드 개발	CMF 관련	3D 프린팅 모델링	서비스 디자인 방법론 및 실습	제품 촬영 기법	UI/UX 디자인
전문디자인업체		59.6	30.1	11.8	7.6	7.4	5.4	4.4	3.1	1.5
업종별	제품디자인	52.6	22.4	6.8	3.1	16.3	5.8	2.4	3.6	0.9
	시각디자인	75.3	35.3	23.4	17.1	3.7	8.4	6.8	4.7	0.6
	인테리어디자인	55.0	21.3	3.2	0.6	9.1	3.3	3.9	0.3	4.0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	38.5	42.5	3.6	1.5	0.0	0.0	2.6	2.0	1.0

- » 권역별로 살펴보면, 모든 권역에서 디자인 스킬/툴 교육 중 '디자인 표현력'에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특히 강원/제주(100.0%), 대구/경북(92.2%), 대전/충청(90.6%)에서 높은 비중을 보임.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사용/구현력'은 대구/경북(40.3%)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 규모별 결과 역시, 모든 규모의 업체에서 디자인 스킬/툴 교육 중 '디자인 표현력'에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2번째로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사용/구현력'을 필요하다고 응답함.
- » 매출 구성별로는, 매출 구성과 관계없이 '디자인 표현력'이 가장 높은 필요도를 보였으며, '디자인 리서치'의 경우 디자인과 기타 매출이 비슷한 업체에서 43.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재교육_디자인 스킬/툴 교육

(단위: %, 중복응답)

구분		디자인 표현력	소프트 웨어 프로그램 사용/구현력	디자인 리서치	브랜드 개발	CMF 관련	3D 프로토킹 모델링	서비스 디자인 방법론 및 실습	제품 출영 기법	UI/UX 디자인
전문디자인업체		59.6	30.1	11.8	7.6	7.4	5.4	4.4	3.1	1.5
권역별	서울	56.9	31.4	8.7	9.2	8.8	6.7	3.0	4.0	1.7
	부산/울산/경남	76.8	25.1	27.9	0.6	9.9	1.8	14.9	1.8	1.8
	대구/경북	92.2	40.3	25.6	4.5	5.6	2.4	1.5	0.0	1.5
	인천/경기	52.1	34.4	0.0	4.7	0.0	2.9	8.9	0.0	0.0
	광주/전라	43.1	6.9	36.7	4.8	0.0	0.0	5.7	0.0	0.0
	대전/충청	90.6	19.6	10.2	0.0	0.0	0.0	10.2	0.0	0.0
	강원/제주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규모별	1인	59.0	31.9	9.5	8.5	2.9	0.0	3.5	5.5	1.8
	2~4인	61.2	29.6	12.9	8.2	8.2	6.0	4.5	2.1	0.9
	5~9인	59.6	30.3	9.5	5.6	13.0	7.9	4.1	2.1	2.9
	10~14인	49.9	34.6	17.4	6.5	1.1	14.3	0.9	3.4	0.0
	15인 이상	53.1	22.9	16.1	6.5	4.9	5.2	13.1	5.8	2.3
매출 구성	디자인매출 50%↑	60.5	31.8	12.0	8.5	8.7	5.6	4.8	3.0	1.7
	기타매출 50%↑	69.8	0.0	0.0	0.0	0.0	6.4	15.1	0.0	0.0
	반반	89.1	17.4	43.6	5.5	0.0	0.0	0.0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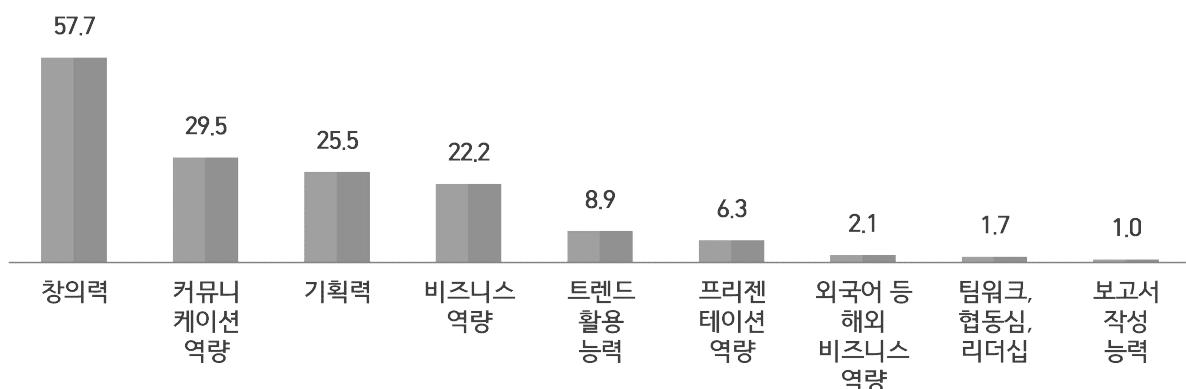
(2) 역량 향상 교육

»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재교육 중 역량 향상 교육을 살펴본 결과, '창의력'(57.7%)의 필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

다음은 '커뮤니케이션 역량'(29.5%), '기획력'(25.5%), '비즈니스 역량'(22.2%) 등의 순으로 필요도가 나타남.

역량 향상 교육

(단위: %, 중복응답)



» 업종별로 역량 향상 교육을 살펴보면, 모든 업종에서 역량 향상 교육 중 '창의력'의 필요도를 높게 응답했으며, 특히 시각디자인업(83.3%)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커뮤니케이션역량'은 인테리어디자인업(33.2%)과 시각디자인업(31.8%)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 업종별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재교육_역량 향상 교육

(단위: %, 중복응답)

구분		창의력	커뮤니케이션 역량	기획력 (사업 기획 및 전략 수립 등)	비즈니스 역량 (마케팅, 영업 등)	트렌드 활용 능력	프리젠테이션 역량	외국어 등 해외 비즈니스 역량	팀워크, 협동심, 리더십	보고서 작성 능력
전문디자인업체		57.7	29.5	25.5	22.2	8.9	6.3	2.1	1.7	1.0
업종별	제품디자인	52.5	29.1	15.1	12.4	7.7	2.7	1.0	1.7	0.3
	시각디자인	83.3	31.8	30.9	34.8	10.5	3.9	1.9	2.1	2.3
	인테리어디자인	40.3	33.2	28.9	19.7	8.0	10.8	4.0	1.5	0.0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	27.5	19.5	24.4	10.5	7.9	12.0	2.0	0.8	0.0

- » 권역별로 살펴보면, 모든 권역에서 '창의력'을 가장 필요한 재교육으로 응답했으며, 특히 강원/제주(100.0%), 대구/경북(89.0%)에서 높게 나타남. '커뮤니케이션 역량'은 부산/울산/경남(43.0%)에서 가장 높았으며, 강원/제주에서는 0.0%로 필요도가 없다고 응답함.
- » 규모별로 살펴보면, 모든 규모의 업체에서 '창의력'과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재교육 1,2위로 응답함. 매출 구성별 결과 역시 모든 업체에서 '창의력'의 필요도를 가장 높게 응답함.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재교육_역량 향상 교육

(단위: %, 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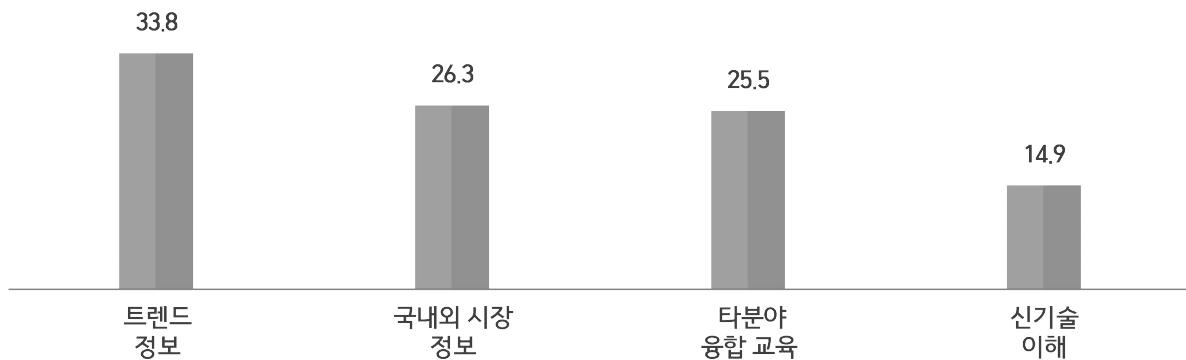
구분		창의력	커뮤니 케이션 역량	기획력 (사업 기획 및 전략 수립 등)	비즈니스 역량 (마케팅, 영업 등)	트렌드 활용 능력	프라젠 테이션 역량	외국어 등 해외 비즈니스 역량	팀워크, 협동심 리더십	보고서 작성 능력
전문디자인업체		57.7	29.5	25.5	22.2	8.9	6.3	2.1	1.7	1.0
권 역 별	서울	52.4	31.5	27.1	24.0	11.7	6.3	2.4	2.1	0.6
	부산/울산/경남	73.0	43.0	37.2	16.7	1.8	12.4	5.2	1.8	6.8
	대구/경북	89.0	19.8	6.0	12.5	0.9	6.0	0.0	0.0	0.0
	인천/경기	61.6	10.6	23.2	12.3	2.1	4.2	0.0	0.0	0.0
	광주/전라	71.6	26.5	8.5	26.1	0.0	0.9	0.0	0.9	0.9
	대전/충청	60.1	10.2	38.1	28.7	0.0	12.1	0.0	0.0	0.0
	강원/제주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규 모 별	1인	57.4	25.4	21.9	16.6	11.6	6.3	0.0	0.0	0.0
	2~4인	56.2	29.6	24.4	24.5	8.0	6.4	2.6	0.6	1.2
	5~9인	61.7	32.9	31.3	20.5	9.4	4.9	2.3	2.8	0.7
	10~14인	63.4	36.2	26.0	23.1	9.9	7.8	2.8	10.0	2.8
	15인 이상	55.4	29.1	32.9	29.1	2.2	10.1	6.2	10.5	2.2
매출 구성	디자인매출 50%↑	61.0	30.4	26.8	24.2	8.9	6.1	2.4	1.9	1.1
	기타매출 50%↑	63.4	15.1	26.7	6.4	0.0	0.0	0.0	0.0	0.0
	반반	61.0	6.5	40.1	10.9	6.5	50.1	10.9	6.5	0.0

(3) 기타 교육

- »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교육 중 기타 교육을 살펴본 결과(중복응답 기준), '트렌드 정보'(33.8%), '국내외 시장 정보'(26.3%), '타분야 융합 교육'(25.5%), '신기술 이해'(14.9%)의 순을 보임.

기타 교육

(단위: %, 중복응답)



- » 업종별로 살펴보면, 시각디자인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트렌드 정보'를 가장 필요한 재교육으로 응답했으며, 특히 제품디자인업(43.5%)에서 높게 나타남. '국내외 시장 정보' 역시 제품디자인업(30.3%)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업종별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재교육_기타 교육

(단위: %, 중복응답)

구분	트렌드 정보	국내외 시장 정보	타분야 융합 교육	신기술 이해
전문디자인업체	33.8	26.3	25.5	14.9
업종별	제품디자인	43.5	30.3	21.3
	시각디자인	26.0	26.6	33.9
	인테리어디자인	39.3	27.4	17.2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	29.7	17.7	23.5

- » 권역별로 살펴보면, '트렌드 정보'에 대해 대전/충청(68.3%), 광주/전라(58.0%), 서울(34.1%)에서는 가장 높은 필요도를 보였으며, 나머지 권역인 강원/제주(100.0%), 대구/경북(41.7%), 부산/울산/경남(35.6%)에서는 '타분야 융합 교육'이 가장 필요한 재교육으로 나타남.
- » 규모별로 살펴보면, 1인을 제외한 모든 규모의 업체에서 '트렌드 정보'를 가장 필요한 재교육으로 응답했으며, 특히 5~9인 규모(41.8%)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매출 구성별로 살펴본 결과, 기타매출이 반 이상인 업체에서는 '국내외 시장 정보'가 30.2%로 가장 높게 나타남.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재교육_기타 교육

(단위: %, 중복응답)

구분		트렌드 정보	국내외 시장 정보	타분야 융합 교육	신기술 이해
전문디자인업체		33.8	26.3	25.5	14.9
권 역 별	서울	34.1	29.6	22.3	15.6
	부산/울산/경남	25.0	24.6	35.6	5.5
	대구/경북	23.3	10.6	41.7	3.1
	인천/경기	24.0	22.6	30.7	26.4
	광주/전라	58.0	11.9	29.5	16.0
	대전/충청	68.3	0.0	31.7	0.0
	강원/제주	0.0	0.0	100.0	0.0
규 모 별	1인	26.9	38.2	27.3	8.0
	2~4인	34.0	28.1	25.2	16.8
	5~9인	41.8	10.6	24.7	17.7
	10~14인	30.9	22.7	20.8	11.5
	15인 이상	36.4	13.4	27.6	18.9
매 출 구 성	디자인매출 50%↑	33.0	26.4	26.8	15.0
	기타매출 50%↑	18.1	30.2	0.0	21.5
	반반	40.1	0.0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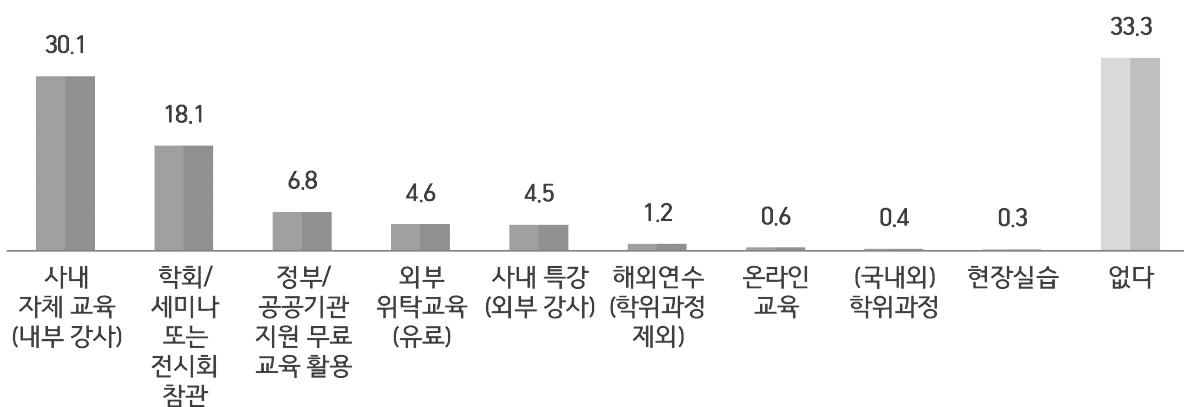
7) 선호하는 디자이너 재교육 방법

» 선호하는 디자이너 재교육 방법을 살펴본 결과, '자체 교육(내부 강사)'(30.1%)이 가장 선호도가 높은 30.1%의 비중을 보임.

또한 '학회, 세미나 또는 전시회 참관'(18.1%), '정부/공공기관 지원 무료 교육 활용'(6.8%) 등의 순으로 선호도가 나타남. 한편, '없다'라는 응답도 33.3%의 비율을 차지함.

선호하는 디자이너 재교육 방법

(단위: %)



» 업종별로 살펴보면, 인테리어디자인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자체 교육(내부강사)'를 제일 선호하는 디자이너 재교육 방법으로 응답했으며, 특히 제품디자인업(46.8%)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한편,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업에서는 선호하는 방법이 '없다'의 비율이 68.0%로 높게 나타남.

▣ 업종별 선호하는 디자이너 재교육 방법

(단위: %)

구분		사내 자체 교육 (내부 강사)	학회, 세미나 또는 전시회 참관	정부/ 공공기관 지원 무료 교육 활용	외부 위탁교육 (유료)	사내 특강 (외부 강사)	해외연수 (학위 과정 제외)	온라인 교육	(국내외) 학위과정	현장실습	없다
전문디자인업체		30.1	18.1	6.8	4.6	4.5	1.2	0.6	0.4	0.3	33.3
업종별	제품디자인	46.8	13.2	11.9	5.6	3.4	1.4	0.0	0.0	0.0	17.6
	시각디자인	33.2	22.9	5.1	5.2	1.0	1.3	1.6	0.0	0.8	28.8
	인테리어디자인	19.6	24.1	8.3	3.4	8.6	0.4	0.0	1.1	0.0	34.5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	10.1	6.0	0.3	3.3	9.2	2.0	0.0	1.0	0.0	68.0

- » 권역별로 살펴보면, 강원/제주를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자체 교육(내부 강사)'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응답했으며, 특히 대전/충청(60.1%)와 광주/전라(52.8%)에서 높게 나타남. '학회 세미나 또는 전시회 참관'은 광주/전라(28.8%)에서, '정부/공공기관 지원 무료 교육 활용'은 부산/울산/경남(17.3%)에서 가장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남. 강원/제주의 경우 선호하는 방법이 '없다'의 응답에 100.0%의 높은 비율을 보임.
- » 규모별로 살펴보면, 업체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업체에서 '사내 자체 교육(내부 강사)'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 매출 구성별로는, 기타매출이 반 이상인 업체를 제외한 모든 업체에서 '사내 자체교육(내부 강사)'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선호하는 디자이너 재교육 방법

(단위: %)

구분		사내 자체 교육 (내부 강사)	학회, 세미나 또는 전시회 참관	정부/공공기관 지원 무료 교육 활용	외부 위탁교육 (유료)	사내 특강 (외부 강사)	해외연수 (학위 과정 제외)	온라인 교육	(국내외) 학위과정	현장실습	없다
전문디자인업체		30.1	18.1	6.8	4.6	4.5	1.2	0.6	0.4	0.3	33.3
권역별	서울	26.8	17.7	6.8	3.9	5.5	1.2	0.0	0.2	0.0	37.9
	부산/울산/경남	23.1	21.6	17.3	5.4	0.0	2.2	0.0	0.0	0.0	30.4
	대구/경북	46.0	8.3	6.2	12.7	0.0	0.0	11.9	0.0	6.0	9.0
	인천/경기	37.4	18.6	2.9	10.0	2.1	2.9	0.0	3.2	0.0	23.0
	광주/전라	52.8	28.8	0.0	0.0	4.0	0.0	0.0	0.0	0.0	14.4
	대전/충청	60.1	18.5	0.0	0.0	9.4	0.0	0.0	0.0	0.0	12.1
	강원/제주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규모별	1인	21.9	13.1	8.3	2.4	2.8	0.0	0.0	0.0	0.0	51.5
	2~4인	26.1	16.8	7.5	4.7	5.8	1.0	1.2	0.3	0.6	36.0
	5~9인	42.3	27.4	4.6	5.7	2.5	2.6	0.0	0.0	0.0	14.9
	10~14인	54.6	27.5	1.1	6.4	0.9	2.8	0.0	0.0	0.0	6.8
	15인 이상	45.1	12.1	5.5	9.2	10.2	2.7	0.0	5.6	0.0	9.6
매출 구성	디자인매출 50%↑	30.9	19.3	6.3	4.4	4.4	1.4	0.7	0.5	0.4	31.7
	기타매출 50%↑	21.5	33.2	0.0	0.0	0.0	0.0	0.0	0.0	0.0	45.3
	반반	44.4	5.5	0.0	50.1	0.0	0.0	0.0	0.0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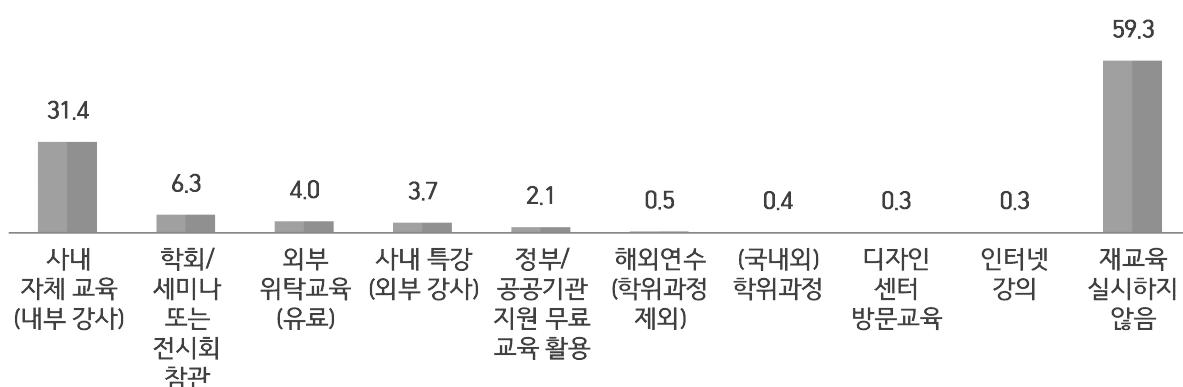
8) 디자이너 재교육 방법

» 디자이너 재교육 방법별 교육 경험률을 살펴본 결과, '자체 교육(내부 강사)'(31.4%)이 가장 경험률이 높은 재교육 방법으로 나타남.

다음은 '학회, 세미나 또는 전시회 참관'(6.3%), '외부 위탁교육(유료)'(4.0%) 등의 순으로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한편, '실시하지 않음'이라는 응답도 59.3%로 높은 비율을 차지함.

디자이너 재교육 방법

(단위: %, 중복응답)



» 업종별로 살펴보면, '자체 교육(내부강사)'은 제품디자인업(59.4%)에서 가장 높았고,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업(8.7%)에서 가장 낮았음. '재교육 실시하지 않음'은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업(86.9%)에서 가장 높아 재교육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업종별 디자이너 재교육 방법

(단위: %, 중복응답)

구분		사내 자체 교육(내부 강사)	학회, 세미나 또는 전시회 참관	외부 위탁교육(유료)	사내 특강(외부 강사)	정부/ 공공기관 지원 무료 교육 활용	해외연수(학위과정 제외)	(국내외) 학위과정	디자인 센터 방문교육	인터넷 강의	재교육 실시하지 않음
전문디자인업체		31.4	6.3	4.0	3.7	2.1	0.5	0.4	0.3	0.3	59.3
업종별	제품디자인	59.4	3.3	2.3	1.4	3.3	0.9	0.0	0.0	0.0	36.2
	시각디자인	23.6	10.7	7.3	6.7	3.0	0.5	0.0	0.8	0.8	60.0
	인테리어디자인	29.2	6.1	1.9	3.3	0.4	0.0	0.0	0.0	0.0	65.3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	8.7	0.5	1.6	0.5	0.1	0.8	2.3	0.0	0.0	86.9

- » 권역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권역에서 '자체 교육'과 '학회 및 세미나', '외부 위탁 교육(유료)'이 주된 재교육 방법으로 나타남. '자체 교육'은 인천/경기(60.2%), 대전/충청(60.1%)에서, '학회 및 세미나'는 대구/경북(9.1%)에서, '외부 위탁교육(유료)'은 대구/경북(17.9%)에서 다른 권역 대비 높게 나타남. 강원/제주의 경우, '재교육 실시하지 않음'이 100.0%의 비율로 재교육 실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재교육 방법 경험 비율은 규모가 큰 업체일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남. '사내 자체 교육(내부 강사)'의 경우 10~14인(70.3%) 규모의 경험률이 15인(59.7%) 규모의 기업 대비 높게 나타남.

■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디자이너 재교육 방법

(단위: %, 중복응답)

구분		사내 자체 교육 (내부 강사)	학회, 세미나 또는 전시회 참관	외부 위탁교육 (유료)	사내 특강 (외부 강사)	정부/공공기관 지원 무료 교육 활용	해외연수 (학위과정 제외)	(국내외) 학위과정	디자인 센터 방문교육	인터넷 강의	재교육 실시하지 않음
전문디자인업체		31.4	6.3	4.0	3.7	2.1	0.5	0.4	0.3	0.3	59.3
권역별	서울	25.8	6.1	3.3	3.4	2.4	0.4	0.5	0.0	0.0	65.8
	부산/울산/경남	23.7	7.5	9.8	8.7	1.8	0.0	0.0	0.0	0.0	58.5
	대구/경북	53.3	9.1	17.9	5.1	0.2	0.0	0.0	6.0	6.0	20.9
	인천/경기	60.2	7.8	0.0	1.6	0.0	2.9	0.0	0.0	0.0	33.2
	광주/전라	51.1	4.8	0.0	0.9	2.3	0.0	0.0	0.0	0.0	48.9
	대전/충청	60.1	0.0	0.0	10.2	0.0	0.0	0.0	0.0	0.0	39.9
	강원/제주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규모별	1인	7.8	1.4	0.0	0.0	2.8	0.0	0.7	0.0	0.0	88.6
	2~4인	27.8	5.2	4.5	2.3	0.6	0.4	0.3	0.6	0.6	63.9
	5~9인	54.8	9.9	6.0	6.4	5.3	1.4	0.0	0.0	0.0	29.7
	10~14인	70.3	15.8	6.5	7.8	2.8	1.1	0.9	0.0	0.0	20.7
	15인 이상	59.7	20.5	8.5	24.0	1.3	0.0	0.0	0.0	0.0	16.1
매출 구성	디자인매출 50%↑	31.8	6.2	3.2	3.5	2.2	0.5	0.4	0.4	0.4	60.0
	기타매출 50%↑	33.2	33.2	30.2	15.1	0.0	0.0	0.0	0.0	0.0	21.5
	반반	16.4	5.5	50.1	5.5	0.0	0.0	0.0	0.0	0.0	3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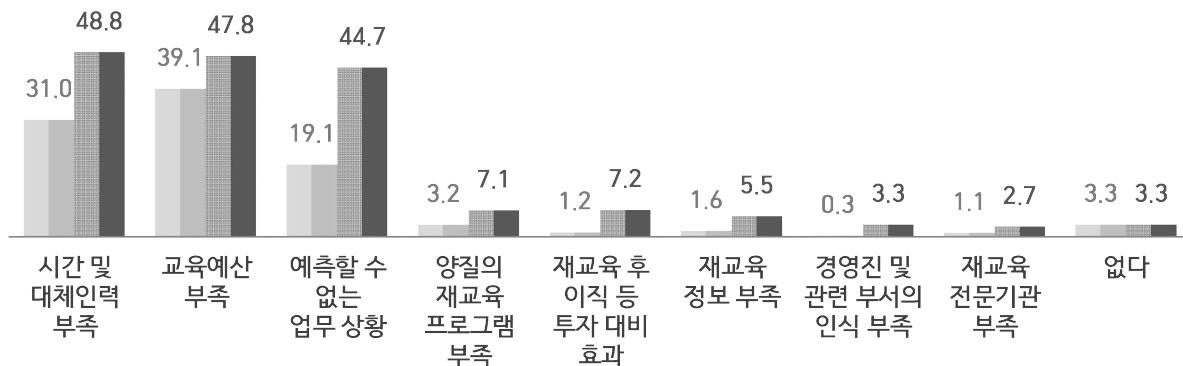
9) 디자이너 재교육 시 애로사항

- » 디자이너 재교육 시 애로사항(중복응답 기준)으로 '시간 및 대체인력 부족'(48.8%)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교육예산 부족'(47.8%), '예측할 수 없는 업무 상황'(44.7%), '재교육 후 이직 등 투자 대비 효과'(7.2 %)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디자이너 재교육 시 애로사항

(단위: %)

■ 1순위 ■ 중복응답



- » 업종별 애로사항을 분석하면, '시간 및 대체인력 부족'은 시각디자인업(71.8%)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업(7.3%)에서는 가장 낮게 나타남. '교육예산 부족'의 경우, 제품 디자인업(57.1%)과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업(52.1%)에서 높은 비율을 보임. '예측할 수 없는 업무 상황'은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업(69.7%)에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임.

▣ 업종별 디자이너 재교육 시 애로사항

(단위: %, 중복응답)

구분		시간 및 대체인력 부족	교육예산 부족	예측할 수 없는 업무 상황	양질의 재교육 프로그램 부족	재교육 후 이직 등 투자 대비 효과	재교육 정보 부족	경영진 및 관련 부서의 인식 부족	재교육 전문기관 부족
전문디자인업체		48.8	47.8	44.7	7.1	7.2	5.5	3.3	2.7
업종별	제품디자인	45.7	57.1	34.1	5.7	2.6	1.8	1.4	1.0
	시각디자인	71.8	41.7	35.5	4.3	1.9	5.5	0.9	0.9
	인테리어디자인	41.5	44.8	55.4	13.1	14.4	6.4	6.8	3.9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	7.3	52.1	69.7	7.5	17.3	10.2	7.2	8.5

- » 권역별로 살펴보면, '시간 및 대체인력 부족'은 광주/전라(82.0%), 부산/울산/경남(64.5%), 대구/경북(61.0%)의 지역에서 큰 불편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 예산 부족'은 강원/제주(100.0%), 인천/경기(57.1%)에서 특히 불편을 겪는 것으로 나타남. '예측할 수 없는 업무 상황'은 대전/충청(27.9%)에서 다른 권역 대비 높게 나타남.
- » 규모별로 살펴보면, 4인 이하 규모의 업체에서는 '교육예산 부족'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응답했으며, 나머지 규모의 업체에서는 '시간 및 대체인력 부족'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응답함.
- » 매출 구성별로 살펴보면, 매출 구성과 관계없이 모든 업체에서 '시간 및 대체인력 부족'에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디자이너 재교육 시 애로사항

(단위: %, 총복응답)

구분		시간 및 대체인력 부족	교육예산 부족	예측할 수 없는 업무 상황	양질의 재교육 프로그램 부족	재교육 후 이직 등 투자 대비 효과	재교육 정보 부족	경영진 및 관련 부서의 인식 부족	재교육 전문기관 부족
전문디자인업체		48.8	47.8	44.7	7.1	7.2	5.5	3.3	2.7
권역별	서울	46.3	46.5	54.7	6.3	7.8	4.5	3.8	3.2
	부산/울산/경남	64.5	53.4	22.2	0.0	7.5	9.0	0.0	3.3
	대구/경북	61.0	54.2	10.8	18.1	3.8	12.8	0.0	0.0
	인천/경기	31.0	57.1	22.1	15.2	8.9	4.3	6.8	2.1
	광주/전라	82.0	36.2	8.7	0.9	0.0	9.8	0.0	0.0
	대전/충청	28.7	54.7	27.9	12.1	0.0	0.0	0.0	0.0
	강원/제주	0.0	100.0	0.0	100.0	0.0	0.0	0.0	0.0
규모별	1인	38.1	49.8	47.6	5.9	5.0	8.7	2.1	2.8
	2~4인	46.6	47.1	43.6	8.1	9.4	5.6	3.8	2.9
	5~9인	65.5	49.5	47.5	4.9	1.8	2.0	2.6	0.7
	10~14인	59.2	47.1	39.9	4.8	10.3	1.1	1.7	3.7
	15인 이상	50.7	39.5	37.2	11.2	10.1	6.1	7.9	8.0
매출 구성	디자인매출 50%↑	51.7	48.6	44.2	6.7	6.7	5.5	2.6	2.8
	기타매출 50%↑	63.4	39.6	36.6	0.0	0.0	15.1	0.0	0.0
	반반	56.4	39.0	10.9	43.6	0.0	0.0	0.0	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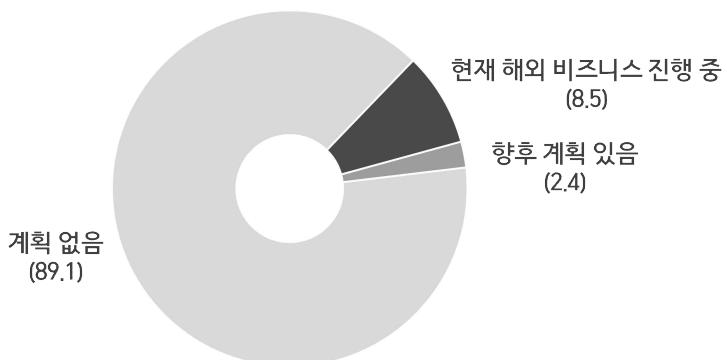
4 디자인 역량

1) 해외 비즈니스 및 진출 여부

- » 해외 비즈니스 및 진출 여부는 '계획 없음'(89.1%)이 가장 높고, 그 외 8.5%는 '현재 해외 비즈니스 진행 중', 2.4%는 '향후 계획 있음'이라고 응답함.

해외 비즈니스 및 진출 여부

(단위: %)



- » 업종별로 살펴보면, 모든 업종에서 '계획 없음'이 85.0% 이상의 높은 비율을 보인 가운데, '현재 해외 비즈니스 진행 중'인 기업은 제품디자인업(10.5%)에서 높게 나타남. '향후 계획 있음' 역시 제품디자인업(4.0%)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임.

▣ 업종별 해외 비즈니스 및 진출 여부

(단위: %)

구분	현재 해외 비즈니스 진행 중	향후 계획 있음	계획 없음
전문디자인업체	8.5	2.4	89.1
업종별	제품디자인	10.5	4.0
	시각디자인	7.4	1.5
	인테리어디자인	7.9	2.9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	8.9	90.1

- » 권역별 해외 진출 여부는 모든 권역에서 '계획 없음'의 비율이 85.0% 이상의 높은 비율을 보임. '현재 해외 비즈니스 진행 중'인 권역은 부산/울산/경남(9.4%), 인천/경기(9.3%), 서울(9.0%)이 높게 나타났으며, 대전/충청과 강원/제주는 0.0%로 진행 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한편, '향후 계획 있음'은 대구/경북(4.9%)과 광주/전라(4.0%)에서 다른 권역 대비 높게 나타남.
- » 규모별로 살펴보면, 규모가 커짐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해외 비즈니스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5인 이상 규모의 업체에서는 21.8%가 '현재 해외 비즈니스를 진행 중'이라고 응답함.
- » 매출 구성별로는, 기타매출이 반 이상인 기업의 경우 '향후 계획 있음'(6.4%)에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디자이너와 기타 매출이 비슷한 업체의 경우 '현재 해외 비즈니스 진행 중'인 비율이 10.9%로 가장 높음.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해외 비즈니스 및 진출 여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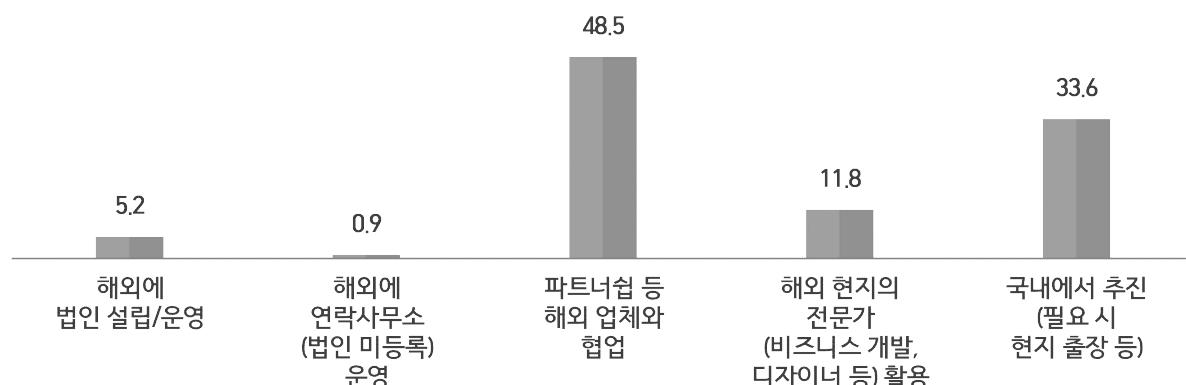
구분		현재 해외 비즈니스 진행 중	향후 계획 있음	계획 없음
전문디자인업체		8.5	2.4	89.1
권 역 별	서울	9.0	2.2	88.8
	부산/울산/경남	9.4	0.6	90.0
	대구/경북	7.1	4.9	87.9
	인천/경기	9.3	2.9	87.9
	광주/전라	4.0	4.0	92.0
	대전/충청	0.0	0.0	100.0
	강원/제주	0.0	0.0	100.0
규 모 별	1인	2.8	2.1	95.1
	2~4인	7.7	1.3	91.0
	5~9인	13.1	3.7	83.2
	10~14인	15.2	5.7	79.1
	15인 이상	21.8	7.5	70.6
매출 구성	디자인매출 50%↑	8.5	2.3	89.3
	기타매출 50%↑	0.0	6.4	93.6
	반반	10.9	0.0	89.1

1-1) 해외 비즈니스 방법

- » 해외 비즈니스 방법으로는 '파트너쉽 등 해외 업체와 협업'(48.5%)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국내에서 추진(필요 시 현지 출장 등')(33.6%), '해외 현지의 전문가(비즈니스 개발, 디자이너 등) 활용'(11.8%)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해외 비즈니스 방법

(단위: %)



- » 업종별 해외 비즈니스 방법은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파트너쉽 등 해외 업체와 협업'을 꼽은 응답이 가장 높은 가운데 특히, 제품디자인업(70.6%)에서 더욱 높음. '국내에서 추진(필요시 현지 출장 등)'은 기타 패션/텍스타일디자인업(54.8%)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업종별 해외 비즈니스 방법

(단위: %)

구분	해외에 법인 설립/운영	해외에 연락사무소 (법인 미등록) 운영	파트너쉽 등 해외 업체와 협업	해외 현지의 전문가 (비즈니스 개발, 디자이너 등) 활용	국내에서 추진 (필요시 현지 출장 등)
전문디자인업체	5.2	0.9	48.5	11.8	33.6
업종별	제품디자인	0.0	2.8	70.6	0.0
	시각디자인	14.1	0.0	39.1	15.6
	인테리어디자인	0.0	0.0	59.6	9.0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	3.7	0.0	11.5	54.8

- » 권역별로 살펴보면, 인천/경기를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파트너쉽 등 해외 업체와 협업'에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가운데, 광주/전라(100.0%), 대구/경북(97.3%)에서 특히 높게 나타남. 인천/경기의 경우, '국내에서 추진(필요시 현지 출장 등)'에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임.
- » 규모별로 살펴보면, 15인 이상을 제외한 모든 규모의 업체에서 '파트너쉽 등 해외 업체와 협업'이 가장 높고, 15인 이상의 업체는 '국내에서 추진(필요시 현지 출장 등)’(58.9%)에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임.
- » 매출 구성별로는, 기타매출이 반 이상인 업체에서는 해외비즈니스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해외 비즈니스 방법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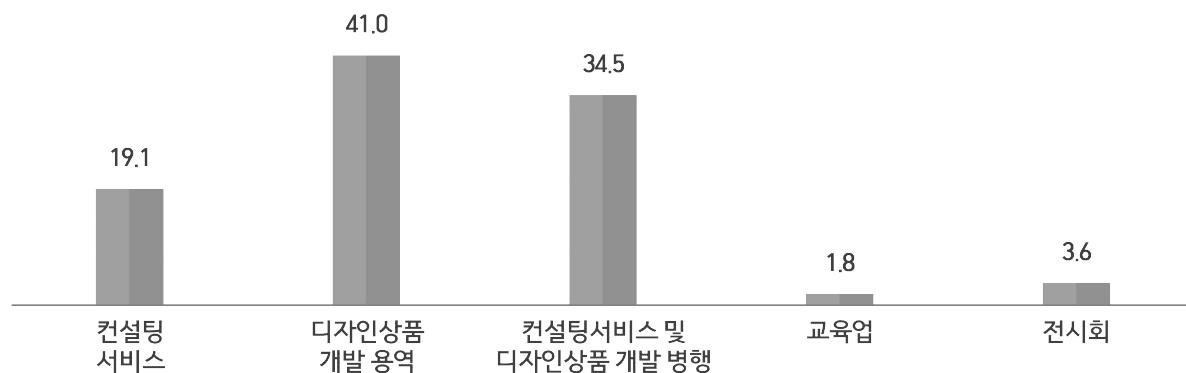
구분		해외에 법인 설립/운영	해외에 연락사무소 (법인 미등록) 운영	파트너쉽 등 해외 업체와 협업	해외 현지의 전문가 (비즈니스 개발, 디자이너 등) 활용	국내에서 추진 (필요시) 현지 출장 등
전문디자인업체		5.2	0.9	48.5	11.8	33.6
권 역 별	서울	6.8	1.1	45.4	13.3	33.4
	부산/울산/경남	0.0	0.0	53.8	0.0	46.2
	대구/경북	0.0	0.0	97.3	2.7	0.0
	인천/경기	0.0	0.0	30.8	17.5	51.7
	광주/전라	0.0	0.0	100.0	0.0	0.0
	대전/충청	-	-	-	-	-
	강원/제주	-	-	-	-	-
규 모 별	1인	0.0	0.0	25.1	49.8	25.1
	2~4인	7.8	0.0	49.7	3.9	38.7
	5~9인	0.0	0.0	56.0	22.6	21.3
	10~14인	0.0	11.2	70.4	0.0	18.4
	15인 이상	14.8	0.0	25.2	1.1	58.9
매 출 구 성	디자인매출 50%↑	6.3	0.0	44.1	12.3	37.4
	기타매출 50%↑	-	-	-	-	-
	반반	0.0	0.0	100.0	0.0	0.0

1-2) 해외 비즈니스 주력 분야

- » 해외 비즈니스 주력 분야로는 '디자인상품 개발 용역'(41.0%)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컨설팅서비스 및 디자인상품 개발 병행'(34.5%), '컨설팅서비스'(19.1%), '전시회'(3.6%), '교육업'(1.8%) 분야가 나타남.

해외 비즈니스 주력 분야

(단위: %)



- »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품디자인업과 시각디자인업은 '디자인상품 개발 용역'의 주력비율이 각각 56.6%와 50.1%로 높게 나타남. 인테리어디자인업과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업은 '컨설팅서비스 및 디자인상품 개발 병행'의 주력비율이 각각 41.2%와 41.5%로 상대적으로 높음.

▣ 업종별 해외 비즈니스 주력 분야

(단위: %)

구분	컨설팅서비스	디자인상품 개발 용역	컨설팅서비스 및 디자인상품 개발 병행	교육업	전시회
전문디자인업체	19.1	41.0	34.5	1.8	3.6
업종별	제품디자인	20.3	56.6	23.1	0.0
	시각디자인	1.5	50.1	37.5	0.0
	인테리어디자인	35.9	22.9	41.2	0.0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	31.9	15.2	41.5	0.0

- » 권역별 해외 비즈니스 주력 분야 중 ‘디자인 상품 개발 용역’은 광주/전라(100.0%), 서울(45.8%)에서 주력 비율이 높고, ‘컨설팅서비스’의 경우 대구/경북(57.9%)과 인천/경기(51.7%)의 주력 분야인 것으로 나타남.
- » 규모별로 살펴보면, 2~4인, 5~9인 규모의 업체를 제외한 모든 업체에서 ‘디자인 상품 개발 용역’이 가장 주력 분야라고 응답했으며, 특히 10~14인(63.3%)에서 높게 나타남. 2~4인과 5~9인 규모의 경우 ‘컨설팅서비스 및 디자인상품 개발 병행’에 가장 주력하는 것으로 나타남.
- » 매출 구성별로는, 디자인매출이 반 이상인 기업과 디자인과 기타 매출이 비슷한 업체 모두 ‘디자인상품 개발 용역’이 가장 주력 분야임.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해외 비즈니스 주력 분야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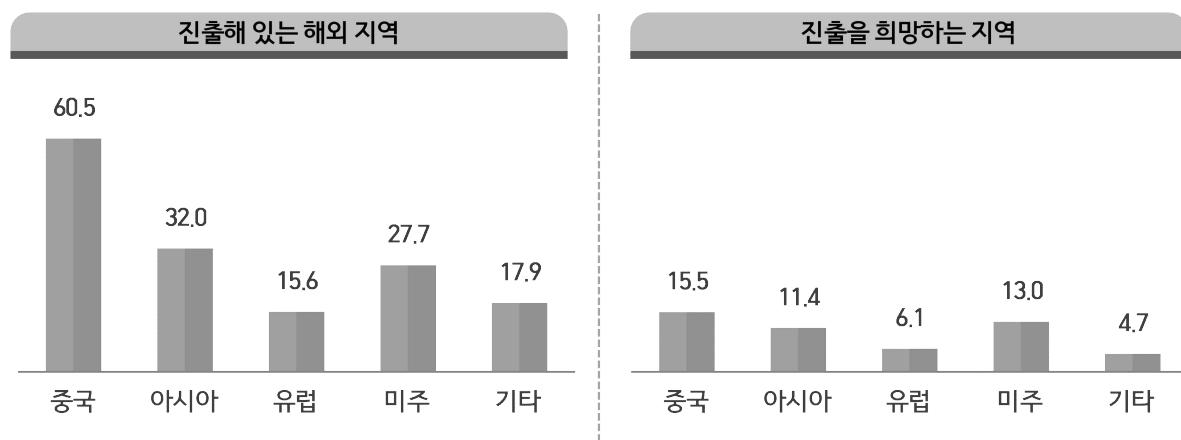
구분		컨설팅서비스	디자인상품 개발 용역	컨설팅서비스 및 디자인상품 개발 병행	교육업	전시회
전문디자인업체		19.1	41.0	34.5	1.8	3.6
권 역 별	서울	16.0	45.8	35.8	2.4	0.0
	부산/울산/경남	0.0	18.3	35.5	0.0	46.2
	대구/경북	57.9	39.3	2.7	0.0	0.0
	인천/경기	51.7	0.0	48.3	0.0	0.0
	광주/전라	0.0	100.0	0.0	0.0	0.0
	대전/충청	-	-	-	-	-
	강원/제주	-	-	-	-	-
규 모 별	1인	25.1	49.8	25.1	0.0	0.0
	2~4인	15.3	36.2	36.8	3.9	7.8
	5~9인	19.0	38.9	42.1	0.0	0.0
	10~14인	11.2	63.3	25.5	0.0	0.0
	15인 이상	36.8	45.5	17.8	0.0	0.0
매출 구성	디자인매출 50%↑	18.8	41.2	33.5	2.2	4.3
	기타매출 50%↑	-	-	-	-	-
	반반	0.0	100.0	0.0	0.0	0.0

1-3) 교류 해외 지역

- » 교류 해외 지역 중, 진출 지역의 비율은 '중국'(60.5%), '아시아'(32.0%), '미주'(27.7%), 의 순으로 나타남. 진출을 희망하는 지역의 경우, '중국'(15.5%), '미주(13.0%)', '아시아'(11.4%), '유럽'(6.1%) 등의 순으로 나타남.

교류 해외 지역

(단위: %, 중복응답)



- » 업종별로 살펴보면, 시각디자인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해외 진출 지역으로 '중국'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시각디자인업의 경우 '미주'가 54.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진출 희망 지역의 경우, 인테리어디자인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중국'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특히 제품디자인업의 '중국' 진출 희망 비율이 더욱 높게 나타남.

▣ 업종별 교류 해외 지역

(단위: %, 중복응답)

구분	진출해 있는 해외 지역					진출을 희망하는 지역				
	중국	아시아	유럽	미주	기타	중국	아시아	유럽	미주	기타
전문디자인업체	60.5	32.0	15.6	27.7	17.9	15.5	11.4	6.1	13.0	4.7
업종별	제품디자인	55.3	46.6	21.1	24.6	2.8	24.0	17.3	5.4	15.3
	시각디자인	54.5	26.5	18.9	54.9	34.6	10.5	6.3	6.6	11.9
	인테리어디자인	63.3	27.4	4.5	0.0	27.7	12.6	10.1	10.1	12.8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	79.6	21.1	12.2	12.2	0.0	10.9	10.6	0.0	10.6

- » 권역별로 살펴보면, 진출 해외 지역 중 '중국'은 인천/경기(100.0%), 서울(60.8%)에서 가장 높은 진출 비율을 보였으며, '아시아'의 경우 부산/울산/경남과 광주/전라에서 100.0%, 대구/경북에서 60.7%로 가장 높은 진출 비율을 보임. 진출 희망 지역으로는 대구/경북에서 '중국' 및 '아시아' 진출에 대한 희망이 높았으며, 광주/전라는 '아시아'(50.0%), '미주'(50.0%) 진출에 대한 희망이 높게 나타남.
- » 규모별로 살펴보면, 규모가 커짐에 따라 '중국' 진출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중국' 진출 희망 비율 역시 규모에 따라 커지는 것으로 나타남.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교류 해외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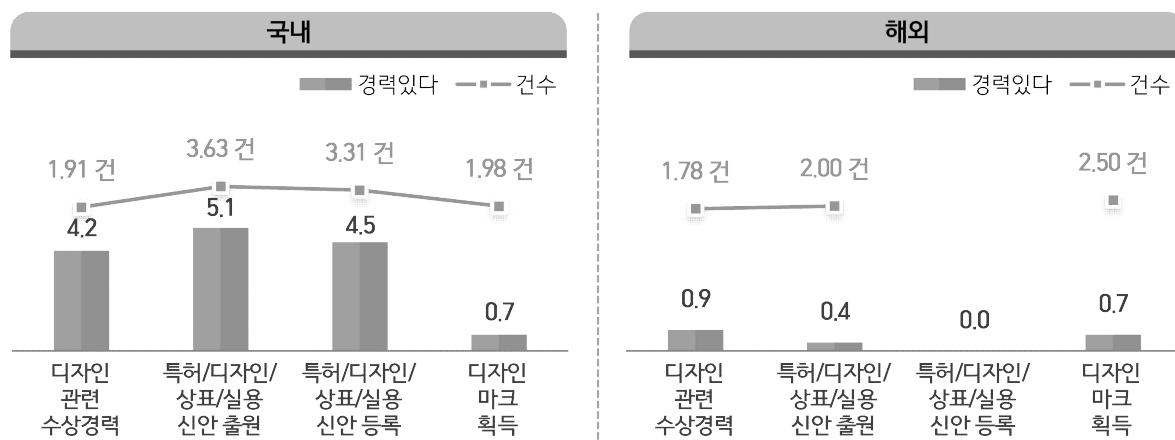
(단위: %, 중복응답)

구분		진출해 있는 해외 지역					진출을 희망하는 지역				
		중국	아시아	유럽	미주	기타	중국	아시아	유럽	미주	기타
전문디자인업체		60.5	32.0	15.6	27.7	17.9	15.5	11.4	6.1	13.0	4.7
권 역 별	서울	60.8	21.3	16.8	32.5	19.6	17.8	9.4	6.0	11.5	6.3
	부산/울산/경남	46.2	100.0	0.0	0.0	35.5	0.0	0.0	23.6	6.5	0.0
	대구/경북	42.1	60.7	2.7	2.7	0.0	35.9	40.9	0.0	0.0	0.0
	인천/경기	100.0	30.8	0.0	0.0	0.0	0.0	0.0	0.0	23.6	0.0
	광주/전라	0.0	100.0	100.0	100.0	0.0	0.0	50.0	0.0	50.0	0.0
	대전/충청	-	-	-	-	-	-	-	-	-	-
	강원/제주	-	-	-	-	-	-	-	-	-	-
규 모 별	1인	25.1	25.1	25.1	25.1	49.8	0.0	0.0	22.2	20.0	14.5
	2~4인	56.3	37.7	13.2	41.9	19.7	8.0	14.4	0.0	9.7	6.7
	5~9인	61.2	36.1	19.4	16.5	11.3	16.2	12.5	8.5	12.5	0.0
	10~14인	77.6	18.4	7.1	0.0	25.5	52.6	12.5	5.2	19.1	5.2
	15인 이상	88.6	11.4	16.0	16.0	0.0	28.5	6.6	9.5	16.1	0.0
매출 구성	디자인매출 50%↑	65.4	22.5	13.8	29.9	20.4	16.2	11.3	5.1	10.5	5.7
	기타매출 50%↑	-	-	-	-	-	100.0	0.0	0.0	100.0	0.0
	반반	100.0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2) 디자인 수상 및 출원, 등록경력 건수

- » 디자인 수상 및 출원, 등록경력은 '국내 디자인 특허/디자인/상표/실용 신안 출원'(5.1%), '국내 디자인 특허/디자인/상표/실용 신안 등록'(4.5%), '국내 디자인 관련 수상 경력'(4.2%)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 외 경력은 모두 1.0% 미만으로 낮게 나타남.

디자인 수상 및 출원, 등록경력 건수 (단위: %)



- »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품디자인업의 디자인 수상 및 출원, 등록경력이 높은 가운데, 특히 '특허/디자인 상표/ 실용신안 출원 및 등록'(각각 14.1%, 13.1%)이 더욱 높게 나타남. '디자인 관련 수상 경력'은 제품디자인업 5.1%, 시각디자인업 4.5%, 패션/텍스타일디자인업 4.1% 등의 순으로 높음.

▣ 업종별 디자인 수상 및 출원, 등록 경력 건수

(단위: 건)

구분	국내				해외			
	디자인 관련 수상경력	특허/ 디자인/ 상표/실용 신안 출원	특허/ 디자인/ 상표/실용 신안 등록	디자인 마크획득	디자인 관련 수상경력	특허/ 디자인/ 상표/실용 신안 출원	특허/ 디자인/ 상표/실용 신안 등록	디자인 마크획득
전문디자인업체	4.2	5.1	4.5	0.7	0.9	0.4	0.0	0.1
업 종 별	제품디자인	5.1	14.1	13.1	2.1	1.6	0.0	0.0
	시각디자인	4.5	2.0	2.7	0.2	1.1	0.9	0.0
	인테리어디자인	2.5	1.4	0.3	0.3	0.0	0.0	0.0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	4.1	3.4	1.1	0.0	0.0	0.0	0.0

- » 권역별로 살펴보면, 광주/전라 지역에서 디자인 수상 및 출원, 등록 경력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특히 '특허/디자인 상표/ 실용신안 출원 및 등록'(각각 17.9%. 19.6%)이 더욱 높게 나타남. 규모가 큰 업체일수록 디자인 수상 및 출원, 등록 경력이 높게 나타났으며, 디자인 매출이 절반 이상이 업체에 디자인 수상 및 출원, 등록 경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디자인 수상 및 출원, 등록 경력 건수

(단위: 건)

구분		국내				해외			
		디자인 관련 수상경력	특허/ 디자인/ 상표/실용 신안 출원	특허/ 디자인/ 상표/실용 신안 등록	디자인 마크획득	디자인 관련 수상경력	특허/ 디자인/ 상표/실용 신안 출원	특허/ 디자인/ 상표/실용 신안 등록	디자인 마크획득
전문디자인업체		4.2	5.1	4.5	0.7	0.9	0.4	0.0	0.1
권 역 별	서울	3.9	4.0	2.9	0.7	1.1	0.5	0.0	0.1
	부산/울산/경남	4.3	1.7	1.8	1.6	0.6	0.0	0.0	0.6
	대구/경북	7.4	6.4	5.5	0.9	0.9	0.0	0.0	0.0
	인천/경기	0.0	9.7	9.7	0.0	0.0	0.0	0.0	0.0
	광주/전라	11.5	17.9	19.6	0.0	0.0	0.0	0.0	0.0
	대전/충청	0.0	0.0	10.2	0.0	0.0	0.0	0.0	0.0
	강원/제주	0.0	0.0	0.0	0.0	0.0	0.0	0.0	0.0
규 모 별	1인	4.6	0.0	0.0	0.0	0.0	1.4	0.0	0.0
	2~4인	3.1	4.3	3.1	0.0	0.4	0.0	0.0	0.0
	5~9인	5.6	8.3	8.4	2.1	1.4	0.0	0.0	0.0
	10~14인	3.4	17.6	18.2	4.4	1.1	0.0	0.0	1.1
	15인 이상	9.2	15.6	14.5	2.8	8.4	1.1	0.0	1.1
매 출 구 성	디자인매출 50%↑	4.6	4.3	4.0	0.8	0.9	0.4	0.0	0.1
	기타매출 50%↑	0.0	0.0	0.0	0.0	0.0	0.0	0.0	0.0
	반반	0.0	0.0	0.0	0.0	0.0	0.0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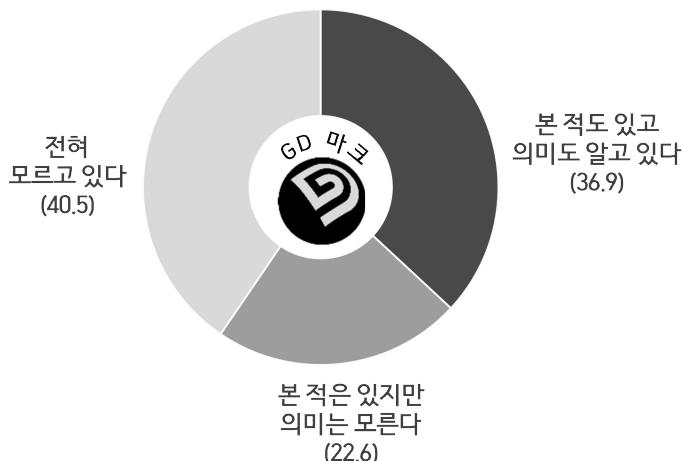
3) 디자인 인증

3-1) GD 마크 인지도

- » GD 마크 인지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혀 모르고 있다’는 응답이 40.5%로 가장 높았고, ‘본 적도 있고 의미도 알고 있다’의 비율은 36.9%, 그 외 ‘본 적은 있지만 의미는 모른다’의 비율은 22.6%로 나타남.

GD 마크 인지도

(단위: %)



- » 업종별 마크 인지도는 제품디자인업에서 ‘본 적도 있고 의미도 알고 있다’의 비율이 60.3%로 가장 높았으며,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업은 18.5%로 낮은 인지도를 보임. ‘전혀 모르고 있다’의 응답은 인테리어디자인업(49.8%)과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업(48.2%)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임.

업종별 GD 마크 인지도

(단위: %)

구분	본 적도 있고 의미도 알고 있다	본 적은 있지만 의미는 모른다	전혀 모르고 있다
전문디자인업체	36.9	22.6	40.5
업 종 별	제품디자인	60.3	15.3
	시각디자인	33.8	23.7
	인테리어디자인	28.5	21.6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	18.5	33.3

- » 권역별 GD 마크 인지도는 대전/충청과 대구/경북에서 '본 적도 있고 의미도 알고 있다'의 비율이 각각 61.9%와 54.7%로 높게 나타났으며, 강원/제주의 경우 0.0%의 응답률을 보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응답은 부산/울산/경남에서 60.2%로 다른 권역 대비 높게 나타남.
- » 규모별로 살펴보면, '본 적도 있고 의미도 알고 있다'고 응답한 업체는 1인(40.4%), 2~4인(37.4%), 15인 이상(36.3%), 10~14인(34.8%), 5~9인(31.8%) 규모의 순으로 나타남.
- » 매출 구성별로는, 디자인과 기타 매출이 비슷한 업체에서 '본 적도 있고 의미도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이 49.0%로 가장 높았으며, 기타매출이 반 이상인 업체는 15.0%로 낮음.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GD 마크 인지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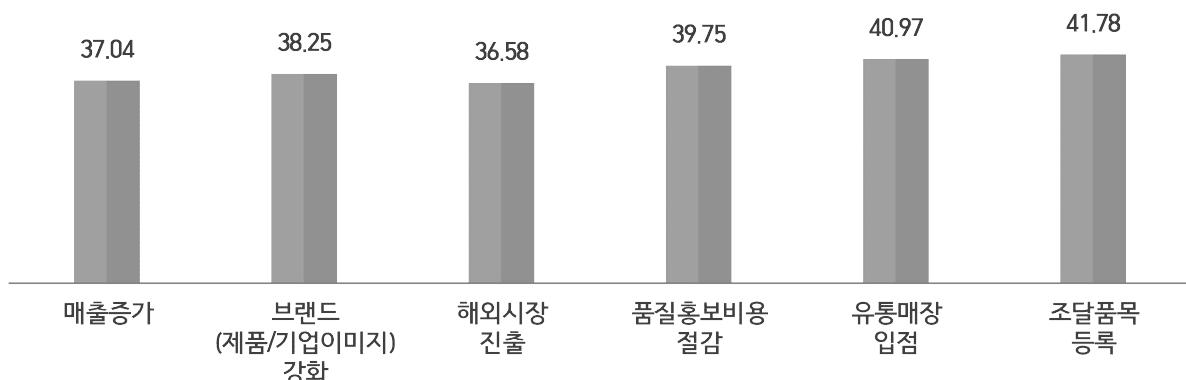
구분		본 적도 있고 의미도 알고 있다	본 적은 있지만 의미는 모른다	전혀 모르고 있다
전문디자인업체		36.9	22.6	40.5
권 역 별	서울	33.9	24.8	41.3
	부산/울산/경남	34.8	5.0	60.2
	대구/경북	54.7	15.1	30.2
	인천/경기	42.2	21.1	36.7
	광주/전라	51.6	24.7	23.7
	대전/충청	61.9	16.6	21.5
	강원/제주	0.0	100.0	0.0
규 모 별	1인	40.4	18.9	40.6
	2~4인	37.4	20.8	41.7
	5~9인	31.8	30.4	37.8
	10~14인	34.8	29.7	35.6
	15인 이상	36.3	23.0	40.7
매출 구성	디자인매출 50%↑	35.2	24.6	40.3
	기타매출 50%↑	15.1	0.0	84.9
	반반	49.0	6.5	44.4

3) GD 마크 획득 경영활동 기여도

- » GD 마크 획득 경영활동 기여도를 살펴보니, 전반적으로 항목별 고른 점수 분포를 보인 가운데, '조달품목 등록'(41.78점)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유통매장 입점'(40.97점), '품질홍보비용 절감'(39.75점)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GD 마크 획득 경영활동 기여도

(단위: 점)



- » 업종별로 살펴보면, '조달품목 등록'은 시각디자인업(48.09점)과 인테리어디자인업(44.53점)에서 높은 기여도를 보였으며, '유통매장 입점' 역시 시각디자인업(47.69점)과 인테리어디자인업(42.29점)에서 높은 기여도를 보임.
 '브랜드 강화'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 대해 시각디자인업에서 다른 업종 대비 높은 기여도 점수를 보임.

▣ 업종별 GD 마크 획득 경영활동 기여도

(단위: 점)

구분		매출증가	브랜드 강화	해외시장 진출	품질홍보비용 절감	유통매장 입점	조달품목 등록
전문디자인업체		37.04	38.25	36.58	39.75	40.97	41.78
업종별	제품디자인	36.89	38.01	36.28	35.86	35.56	36.29
	시각디자인	39.93	39.93	39.03	44.61	47.69	48.09
	인테리어디자인	36.13	40.57	36.46	42.11	42.29	44.53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	31.44	31.19	31.19	30.68	31.25	31.19

- » 권역별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 모든 항목에 대해 대전/충청에서 다른 권역 대비 가장 높은 기여도 점수를 보임. '조달품목 등록'은 대전/충청(52.55점), 서울(43.52점)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강원/제주(25.00점)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유통매장 입점' 역시 대전/충청(52.55점), 서울(42.54점)에서 가장 높은 기여도를 보였으며, 강원/제주(25.00점)에서 다른 권역 대비 낮게 나타남.
- » 규모별로 살펴보면, '조달품목 등록'은 5~9인(46.20점), 10~14인(45.64점), 15인 이상(43.53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유통매장 입점' 역시 5~9인(45.23점), 10~14인(43.76점), 15인 이상(41.96점) 등의 순으로 같은 순위를 보임.
- » 매출 구성 별 기여도는 '조달품목 등록'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디자인과 기타 매출이 비슷한 업체가 가장 높은 기여도를 보였으며, '조달품목 등록'의 경우 디자인매출이 반 이상인 업체가 42.41점으로 가장 높은 기여도를 보임.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GD 마크 획득 경영활동 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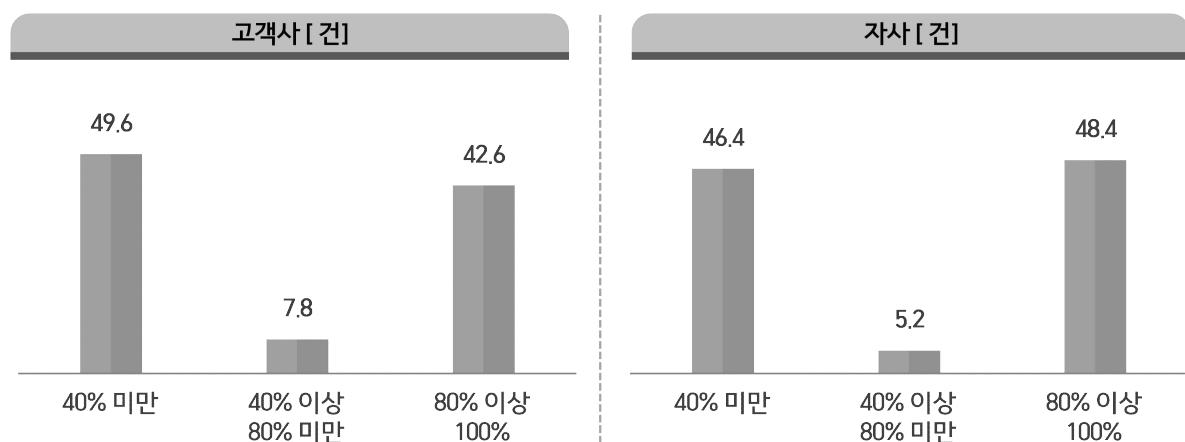
(단위: 점)

구분		매출증가	브랜드 강화	해외시장 진출	품질홍보비용 절감	유통매장 입점	조달품목 등록
전문디자인업체		37.04	38.25	36.58	39.75	40.97	41.78
권 역 별	서울	37.36	39.08	37.21	40.81	42.54	43.52
	부산/울산/경남	35.45	34.72	33.14	37.19	36.85	37.82
	대구/경북	36.39	35.14	33.29	34.79	35.20	34.97
	인천/경기	35.14	36.04	34.80	37.07	36.48	36.89
	광주/전라	35.85	35.85	35.85	34.64	34.64	34.64
	대전/충청	47.94	47.94	47.94	52.55	52.55	52.55
	강원/제주	25.00	25.00	25.00	25.00	25.00	25.00
규 모 별	1인	37.35	38.17	37.79	39.78	39.00	39.81
	2~4인	36.74	37.24	35.82	39.03	40.03	40.63
	5~9인	35.73	38.88	36.27	40.24	45.23	46.20
	10~14인	41.10	43.18	37.63	43.92	43.76	45.64
	15인 이상	40.58	43.33	39.92	42.00	41.96	43.53
매 출 구 성	디자인매출 50%↑	37.05	38.28	36.54	40.19	41.39	42.41
	기타매출 50%↑	28.04	32.98	28.78	36.50	39.41	39.41
	반반	39.11	41.84	41.84	41.84	41.84	39.11

4) 최종산출물에 대한 디자인권 소유(명의)

- » 최종산출물에 대한 디자인권은 건수 평균으로는 0.57건이 고객사, 0.31건이 자사의 소유로 나타나 고객사의 소유가 되는 디자인권의 평균 건수가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남.

최종산출물에 대한 디자인권 소유(명의) (단위: %)



- »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품디자인업의 고객사 디자인권 소유 건수가 1.31건으로 가장 높고, 다음은 패션/텍스타일디자인업 0.69건, 인테리어디자인업 0.5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남. 자사 디자인권 역시 제품디자인업이 0.81건으로 가장 높고, 다음은 시각디자인업 0.22건, 패션/텍스타일디자인업 0.13건 등의 순임.

▣ 업종별 최종산출물에 대한 디자인권 소유(명의)

(단위: %)

구분	고객사				자사			
	40% 미만	40% 이상 80% 미만	80% 이상 100%	건수 (건)	40% 미만	40% 이상 80% 미만	80% 이상 100%	건수 (건)
전문디자인업체	49.6	7.8	42.6	0.57	46.4	5.2	48.4	0.31
업종별	제품디자인	44.2	11.3	44.4	1.31	50.6	7.2	42.1
	시각디자인	68.9	1.8	29.3	0.08	29.3	1.8	68.9
	인테리어디자인	43.8	0.0	56.2	0.51	56.2	0.0	43.8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	43.0	3.9	53.0	0.69	53.0	3.9	43.0

- » 권역별로 살펴보면, 대전/충청에서 고객사 소유의 디자인권이 5.82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은 인천/경기(3.21건)이 뒤를 이음.
- » 규모가 큰 업체일수록 고객사의 디자인권 건수가 높게 나타났으나, 규모가 작은 업체의 고객사 디자인권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권역별/규모별 최종산출물에 대한 디자인권 소유(명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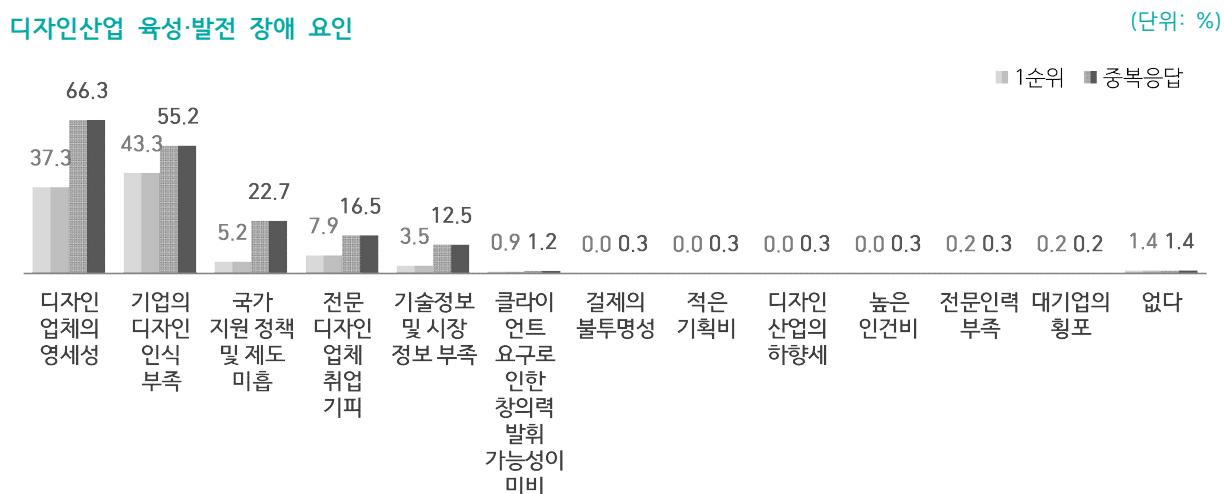
(단위: %)

구분		고객사				자사			
		40% 미만	40% 이상 80% 미만	80% 이상 100%	건수 (건)	40% 미만	40% 이상 80% 미만	80% 이상 100%	건수 (건)
전문디자인업체		49.6	7.8	42.6	0.57	46.4	5.2	48.4	0.31
권 역 별	서울	62.8	5.2	32.0	0.32	34.5	4.0	61.5	0.20
	부산/울산/경남	45.1	0.0	54.9	0.13	54.9	0.0	45.1	0.07
	대구/경북	78.2	21.8	0.0	0.03	0.0	21.8	78.2	0.72
	인천/경기	3.3	16.5	80.2	3.21	88.4	11.0	0.5	0.29
	광주/전라	86.0	5.2	8.8	0.25	14.0	0.0	86.0	1.79
	대전/충청	23.5	0.0	76.5	5.82	76.5	0.0	23.5	0.10
	강원/제주	-	-	-	-	-	-	-	-
권 역 별	1인	41.9	0.0	58.1	0.34	58.1	0.0	41.9	0.03
	2~4인	34.8	8.0	57.2	0.58	61.2	4.0	34.8	0.23
	5~9인	74.0	0.0	26.0	0.30	26.0	0.0	74.0	0.58
	10~14인	60.9	18.4	20.7	1.71	26.9	24.6	48.6	1.10
	15인 이상	51.9	19.5	28.5	1.71	40.6	7.5	51.9	0.77
매출 구성	디자인매출 50%↑	44.5	7.2	48.3	0.64	52.0	5.0	43.0	0.26
	기타매출 50%↑	0.0	0.0	0.0	0.00	0.0	0.0	0.0	0.00
	반반	0.0	0.0	0.0	0.00	0.0	0.0	0.0	0.00

5 기타

1) 디자인산업 육성·발전 장애 요인

» 디자인 산업 육성·발전 장애 요인에 대해 조사한 결과(중복응답 기준) '디자인 업체의 영세성'(66.3%)이 가장 많고, 이어 '기업의 디자인 인식 부족'(55.2%), '국가 지원정책 및 제도 미흡'(22.7%), '전문 디자인 업체 취업 기피'(16.5%)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1순위 기준 응답에서는 '기업의 디자인 인식 부족'이 43.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 업종별로 살펴보면, 모든 업종에서 '디자인 업체의 영세성'을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응답했으며, 다음으로 '기업의 디자인 인식 부족'이 나타남. '디자인 업체의 영세성'은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업(78.3%)과 인테리어디자인업(76.2%)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2) 업종별 디자인산업 육성·발전 장애 요인

(단위: %, 중복응답)

구분	디자인 업체의 영세성	기업의 디자인 인식 부족	국가 지원정책 및 제도 미흡	전문 디자인 업체 취업 기피	기술정보 및 시장 정보 부족	클라이언트 요구로 인한 창의력 발휘 가능성이 미비	결제의 불투명성	적은 기획비	디자인 산업의 하향세	높은 인건비	전문인력 부족	대기업의 횡포
전문디자인업체	66.3	55.2	22.7	16.5	12.5	1.2	0.3	0.3	0.3	0.3	0.3	0.2
업종별	제품디자인	54.8	50.2	23.9	20.6	17.0	0.0	0.0	0.0	0.0	0.0	0.9
	시각디자인	63.2	53.6	20.0	17.9	10.8	1.6	0.8	0.8	0.8	0.8	0.0
	인테리어디자인	76.2	57.4	28.0	13.5	12.5	0.0	0.0	0.0	0.0	1.1	0.0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	78.3	64.0	20.1	10.5	9.5	3.8	0.0	0.0	0.0	0.0	0.0

- » 권역별로 살펴보면, 대전/충청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디자인 업체의 영세성'을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응답했으며, 특히 강원/제주(100.0%), 서울(70.8%)에서 높은 응답률을 보임. '기업의 디자인 인식 부족'은 강원/제주(100.0%), 대전/충청(61.9%)에서 높게 나타남.
- » 규모별로 살펴보면, 4인 이하 규모의 업체에서는 '디자인 업체의 영세성'을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응답했으며, 5인 이상 규모의 업체에서는 '기업의 디자인 인식 부족'을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응답함.
- » 매출 구성별로는, 디자인과 기타 매출이 비슷한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에서 '디자인 업체의 영세성'을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응답했으며, 디자인과 기타 매출이 비슷한 업체에서는 '전문 디자인 업체 취업 기피'(49.0%)를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응답함.

▣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디자인산업 육성·발전 장애 요인

(단위: %, 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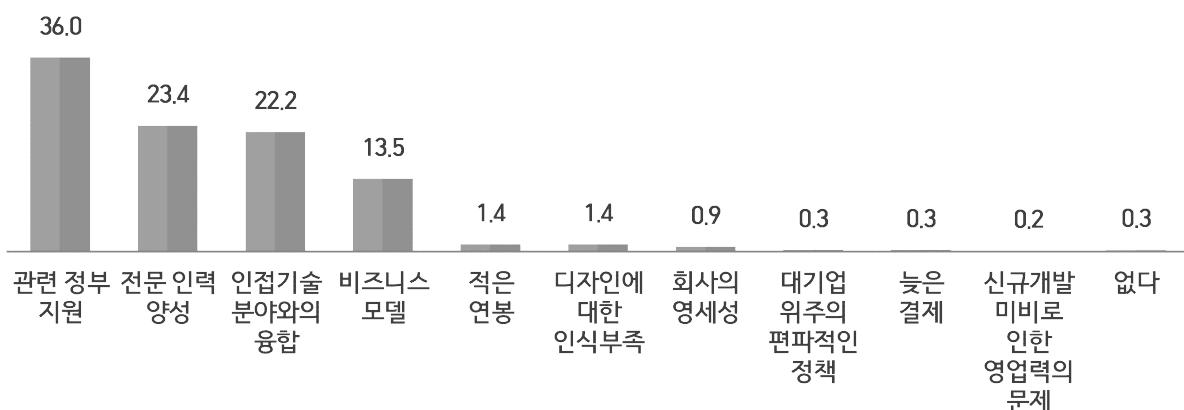
구분		디자인 업체의 영세성	기업의 디자인 인식 부족	국가 지원 정책 및 제도 미흡	전문 디자인 업체 취업 기피	기술 정보 및 시장 정보 부족	클라우드 인트로덕션 및 창의력 발휘 가능성 미비	결제와 불투명성	적은 기회비	디자인 산업의 희망체	높은 연간비	전문 인력 부족	대기업의 흥미
전문디자인업체		66.3	55.2	22.7	16.5	12.5	1.2	0.3	0.3	0.3	0.3	0.3	0.2
권역별	서울	70.8	59.6	22.0	16.9	12.8	0.6	0.0	0.0	0.0	0.0	0.3	0.0
	부산/울산/경남	59.8	36.0	39.1	5.5	11.1	4.3	4.3	0.0	0.0	0.0	0.0	0.0
	대구/경북	46.4	30.1	10.0	22.2	3.2	6.0	0.0	6.0	6.0	6.0	0.9	0.0
	인천/경기	60.4	48.1	12.3	21.5	8.1	2.1	0.0	0.0	0.0	0.0	0.0	2.9
	광주/전라	54.7	51.4	31.0	11.9	23.0	0.0	0.0	0.0	0.0	0.0	0.0	0.0
	대전/충청	0.0	61.9	56.6	21.5	26.8	0.0	0.0	0.0	0.0	0.0	0.0	0.0
	강원/제주	100.0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규모별	1인	70.0	51.5	20.8	12.1	10.1	2.8	0.0	0.0	0.0	0.0	1.1	0.0
	2~4인	69.6	52.6	17.6	18.1	12.6	0.9	0.6	0.6	0.6	0.6	0.0	0.4
	5~9인	58.9	66.4	36.2	14.6	12.9	0.7	0.0	0.0	0.0	0.0	0.0	0.0
	10~14인	53.0	59.3	28.7	17.7	15.4	0.0	0.0	0.0	0.0	0.0	1.1	0.0
	15인 이상	49.7	54.2	32.0	26.4	20.0	0.0	0.0	0.0	0.0	0.0	0.0	0.0
매출 구성	디자인매출 50%↑	65.9	57.4	22.4	17.2	11.5	1.2	0.0	0.4	0.4	0.0	0.3	0.0
	기타매출 50%↑	84.9	28.0	11.6	0.0	15.1	0.0	15.1	0.0	0.0	0.0	0.0	0.0
	반반	17.4	33.5	40.1	49.0	0.0	0.0	0.0	0.0	0.0	43.6	0.0	0.0

2) 디자인산업이 타 산업에 비해 취약한 부분

- » 디자인 산업이 타 산업에 비해 취약한 부분을 조사한 결과, '관련 정부 지원'(36.0%)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전문 인력 양성'(23.4%), '인접기술 분야와의 융합'(22.2%), '비즈니스 모델'(13.5%)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없다'는 0.3%의 비율을 보임.

디자인산업이 타 산업에 비해 취약한 부분

(단위: %)



- »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품디자인업(58.6%)과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업(42.7%)에서는 '관련 정부 지원'을 가장 취약 부분으로 응답했으며, 시각디자인업은 '전문인력 양성'(27.6%)에 가장 높음. '인접기술 분야와의 융합'은 인테리어디자인업(34.2%)에서 다른 업종 대비 높음.

▣ 업종별 디자인산업이 타 산업에 비해 취약한 부분

(단위: %)

구분		관련 정부 지원	전문 인력 양성	인접기술 분야와의 융합	비즈니스 모델	적은 연봉	디자인에 대한 인식부족	회사의 영세성	대기업 위주의 편파적인 정책	늦은 결제	신규개발 미비로 인한 영업력의 문제
전문디자인업체		36.0	23.4	22.2	13.5	1.4	1.4	0.9	0.3	0.3	0.2
업종별	제품디자인	58.6	10.1	15.9	12.8	0.9	0.9	0.0	0.0	0.0	0.9
	시각디자인	21.2	27.6	19.1	21.7	3.0	3.0	2.4	0.8	0.8	0.0
	인테리어디자인	31.3	26.4	34.2	6.7	0.0	0.0	0.0	0.0	0.0	0.0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	42.7	30.1	23.0	4.1	0.0	0.0	0.0	0.0	0.0	0.0

- » 권역별로 살펴보면, 강원/제주를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관련 정부 지원'을 가장 큰 취약점으로 응답한 가운데, 특히 대전/충청(61.9%), 광주/전라(54.9%), 인천/경기(53.8%)에서 높은 비율을 보임. '전문 인력 양성'은 강원/제주(100.0%)에서 다른 권역 대비 높게 나타났으며, 대전/충청(9.4%)에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 규모별로 살펴보면,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는 디자인매출이 반 이상인 업체는 '관련 정부 지원'(34.2%), 그 외 업체는 '전문인력 양성'으로 나타남.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디자인산업이 타 산업에 비해 취약한 부분

(단위: %)

구분		관련 정부 지원	전문 인력 양성	인접기술 분야와의 융합	비즈니스 모델	적은 연봉	디자인에 대한 인식부족	회사의 영세성	대기업 위주의 편파적인 정책	늦은 결제	신규개발 비비로 인한 영업력의 문제
전문디자인업체		36.0	23.4	22.2	13.5	1.4	1.4	0.9	0.3	0.3	0.2
권 역 별	서울	31.5	24.2	26.0	17.0	0.3	0.0	0.0	0.0	0.4	0.0
	부산/울산/경남	42.2	14.8	15.2	4.3	8.7	1.8	13.0	0.0	0.0	0.0
	대구/경북	39.5	26.6	3.2	0.0	6.0	18.8	0.0	6.0	0.0	0.0
	인천/경기	53.8	27.7	5.2	4.1	2.9	2.9	0.0	0.0	0.0	2.9
	광주/전라	54.9	15.5	23.0	5.7	0.0	0.9	0.0	0.0	0.0	0.0
	대전/충청	61.9	9.4	18.5	10.2	0.0	0.0	0.0	0.0	0.0	0.0
	강원/제주	0.0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규 모 별	1인	42.2	21.9	30.3	2.8	1.4	0.0	1.4	0.0	0.0	0.0
	2~4인	37.0	19.3	22.0	15.1	1.6	2.2	1.2	0.6	0.6	0.4
	5~9인	26.7	32.2	16.6	21.7	0.7	0.7	0.0	0.0	0.0	0.0
	10~14인	30.1	30.5	17.7	17.4	1.1	2.2	0.0	0.0	0.0	0.0
	15인 이상	36.6	36.9	11.5	11.4	1.1	0.0	0.0	0.0	0.0	0.0
매출 구성	디자인매출 50%↑	34.2	24.6	21.8	14.6	1.3	1.6	0.7	0.4	0.4	0.3
	기타매출 50%↑	0.0	21.5	15.1	21.5	15.1	0.0	15.1	0.0	0.0	0.0
	반반	12.0	54.5	33.5	0.0	0.0	0.0	0.0	0.0	0.0	0.0

3) 디자인 개발 시 느끼는 애로사항

» 디자인 개발 시 애로사항으로는 '시장상황 및 경기 침체'(5.9%), '고객 응대의 어려움'(4.8%), '디자인 개발 환경 미비'(4.3%) 등의 순으로 나타남. 세부적으로는 '시장상황 및 경기 침체'의 경우, '경기 침체로 일이 줄어듦'(2.2%), '업체의 영세성'(1.2%) 등의 항목이 나타남. '없다/무응답'은 75.5%로 높은 비율을 차지함.

▣ 디자인 개발 시 느끼는 애로사항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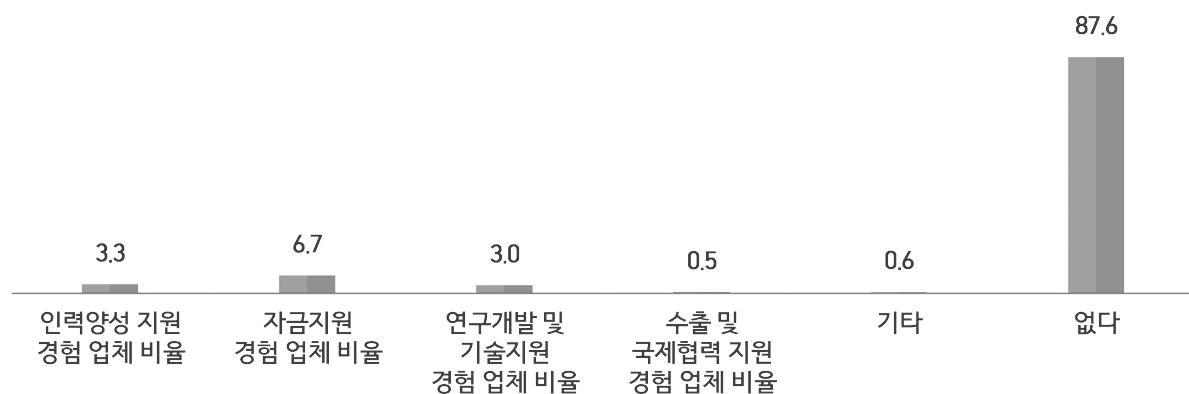
의견	%	의견	%
전체	100.0	전체	100.0
◎ 시장상황 및 경기 침체	5.9	◎ 정부 지원 및 제도 미비	2.3
경기침체로 일이 줄어듦	2.2	개발비 지원자격요건의 까다로움	0.9
업체의 영세성	1.2	복잡한 개발비 지원 절차	0.4
새로운 거래처 확보가 어려움	0.8	입찰 관련 규제가 심함	0.4
받는 디자이너 용역비가 낮음	0.8	영세업자의 정부 지원 미비	0.3
디자인 시장의 포화	0.4	영세업자에게 불리한 입찰 기준	0.2
대기업의 횡포	0.3	부정확한 세율 기준	0.2
디자인 업계의 하향세	0.2	신규개발을 위한 지원책의 부족	0.2
국내시장 개척의 어려움	0.1	정부사업의 예산 하락	0.1
◎ 고객 응대의 어려움	4.8	◎ 디자인 인력 및 전문성 부족	2.1
고객의 디자인에 대한 이해와 인식 부족	1.4	디자인 인력이 부족	1.4
고객사의 의견에 맞춰야함	1.2	젊은 디자이너의 정규시간외 업무 거부	0.5
기업의 디자인에 대한 인식 부족	0.8	디자이너 전문성 부족	0.1
고객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의 어려움	0.7	디자이너 기획력 부족	0.1
거래처 부도로 대금을 못받음	0.3	◎ 디자인 저작권 문제	1.4
결제가 늦음	0.3	창의력을 구현하기 힘듦	0.6
고객의 낮은 디자인 이해도	0.2	창의력을 인정 안해줌	0.3
디자인 개발 후 고객사의 잦은 후속 작업 요청	0.0	디자인카피가 쉽게 이루어짐	0.2
◎ 디자인 개발 환경 미비	4.3	저작권 사용이 어려움	0.1
낮은 개발 지원금	2.3	새로운 디자인 개발이 어려움	0.1
자금력 부족	1.5	◎ 기타	2.2
업무환경 열악	0.5	계약기간 내 일정에 대한 스트레스	1.4
기술력 부족	0.2	과다한 행정 업무	0.2
개발 프로그램 미비	0.0	샘플구매 시 경비처리가 까다로움	0.2
◎ 낮은 인건비 및 디자인 단가 문제	3.5	소기업의 일을 제작업체가 대행함	0.2
낮은 단가	2.0	심사인력의 전문성 부족	0.1
낮은 인건비	1.0	투명하지 않은 심사과정	0.1
부당한 디자인 개발 비용 책정	0.5	트렌드가 너무 빨리 변함	0.1
단가 비용 절감의 어려움	0.2	◎ 없다/무응답	75.5
다운계약서 분쟁의 발생	0.1		
시장 가격의 하락	0.1		
외주 용역비가 비쌈	0.0		

4) 정부지원 여부

- » 전문디자인업체의 정부지원 여부를 살펴보면, 대부분(87.6%)의 전문디자인업체에서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자금지원' 6.7%, '인력양성' 3.3%,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3.0%, '수출 및 국제협력 지원' 0.5% 등으로 모두 10% 미만의 낮은 비율을 보임.

정부지원 여부

(단위: %)



- » 업종별로 살펴보면, 모든 업종에서 정부지원 경험이 낮게 나타난 가운데, 특히 시각디자인업(92.1%)과 패션/텍스타일디자인업(91.9%)의 비율이 더욱 높게 나타남. 정부 지원별로는 '자금지원'이 제품디자인업(11.0%)과 인테리어디자인업(12.0%)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업종별 정부지원 여부

(단위: %)

구분		인력양성	자금지원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수출 및 국제협력지원	기타	없다
전문디자인업체		3.3	6.7	3.0	0.5	0.6	87.6
업종별	제품디자인	4.3	11.0	6.2	0.3	0.0	80.2
	시각디자인	3.5	3.1	1.5	0.8	1.1	92.1
	인테리어디자인	2.5	12.0	1.1	0.0	0.9	85.0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	2.4	0.8	3.9	1.0	0.0	91.9

- » 권역별로 살펴보면, 정부지원 경험이 없는 업체의 비율은 강원/제주(100.0%), 부산/울산/경남(94.1%) 등에서 높게 나타남.
 '자금지원'의 경우 대전/충청(10.2%), 인천/경기(9.2%), 서울(7.4%), '인력양성'은 대전/충청(10.2%),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은 광주/전라(10.2%)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규모별로는 10인 이상의 사업체에서 지원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10~14인에서 '인력 양성'(10.9건), '자금지원'(9.8건)이 다소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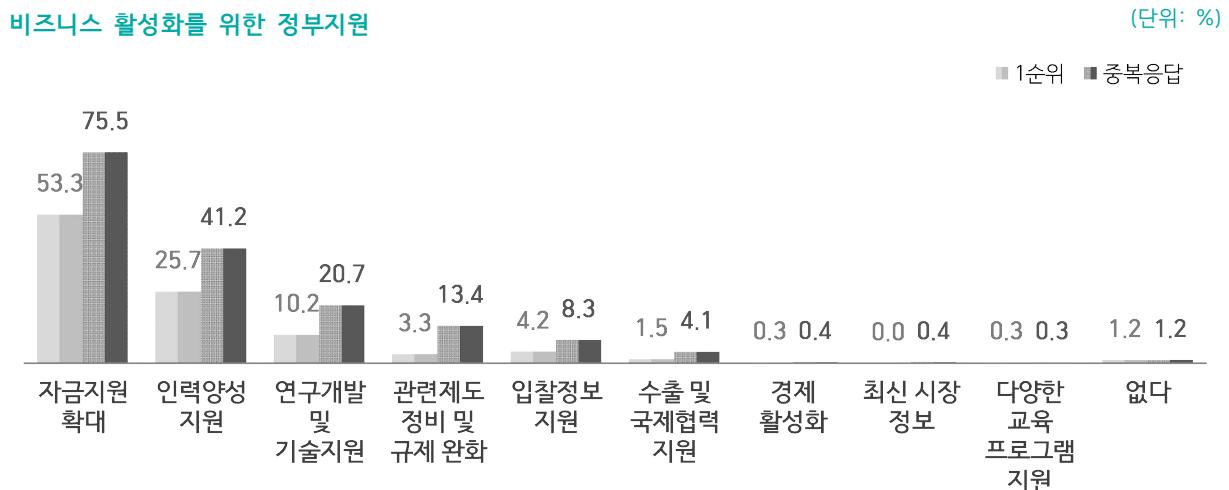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정부지원 여부

(단위: %)

구분		인력양성	자금지원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수출 및 국제협력지원	기타	없다
권 역 별	전문디자인업체	3.3	6.7	3.0	0.5	0.6	87.6
	서울	3.4	7.4	3.0	0.6	0.8	86.5
	부산/울산/경남	1.8	1.8	2.2	1.8	0.0	94.1
	대구/경북	7.0	4.1	1.4	0.0	0.0	87.5
	인천/경기	0.6	9.2	0.0	0.0	0.0	90.8
	광주/전라	2.3	1.4	10.2	0.0	0.0	88.4
	대전/충청	10.2	10.2	0.0	0.0	0.0	89.8
규 모 별	강원/제주	0.0	0.0	0.0	0.0	0.0	100.0
	1인	0.0	7.5	0.0	0.0	0.0	92.5
	2~4인	2.0	6.2	2.3	0.3	0.0	89.7
	5~9인	8.3	5.8	6.3	1.5	0.7	82.0
	10~14인	10.9	9.8	7.9	2.8	5.3	73.3
매출 구성	15인 이상	8.3	8.2	7.0	0.0	5.7	73.7
	디자인매출 50%↑	3.2	5.5	2.4	0.6	0.6	89.2
	기타매출 50%↑	15.1	0.0	0.0	0.0	6.4	78.5
	반반	5.5	0.0	0.0	0.0	0.0	94.5

4-1)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

- »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을 조사한 결과(중복응답 기준), '자금지원 확대'가 75.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그 외 '인력양성 지원'(41.2%),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20.7%)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1순위 응답 역시 비슷한 순위를 보임.



- » 업종별로 살펴보면, 모든 업종에서 '자금지원 확대'의 응답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특히 기타 패션/텍스타일디자인업(83.2%)에서 더욱 높았음. 또한 모든 업종에서 '인력양성 지원'을 두 번째 지원 분야로 응답한 가운데, 특히 시각디자인업(48.0%)에서 높은 응답률을 보임.

▣ 업종별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

(단위: %, 중복응답)

구분		자금지원 확대	인력양성 지원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관련제도 정비 및 규제 완화	입찰정보 지원	수출 및 국제협력 지원	경제 활성화	최신 시장 정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
전문디자인업체		75.5	41.2	20.7	13.4	8.3	4.1	0.4	0.4	0.3
업종별	제품디자인	73.1	43.3	23.7	14.1	4.2	5.6	0.5	0.3	0.0
	시각디자인	72.7	48.0	23.5	19.9	9.8	3.6	0.8	0.8	0.8
	인테리어디자인	77.8	40.4	17.5	7.1	11.9	4.7	0.0	0.0	0.0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	83.2	22.1	13.7	5.4	6.2	2.1	0.0	0.0	0.0

- » 권역별로는, 모든 권역에서 '자금지원 확대'가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인 가운데, 강원/제주(100.0%), 대전/충청(81.5%), 인천/경기(80.9%)에서 특히 높게 나타남. '인력양성 지원'의 경우, 대구/경북(48.6%), 광주/전라(47.5%)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강원/제주(0.0%)에서는 다른 권역 대비 낮게 나타남.
- » 규모별로 살펴보면, 전문디자인업체 규모와 관계없이 '자금지원 확대'에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음. '인력 양성 지원'은 5~9인 규모의 기업에서 63.7%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임.
- » 매출 구성별로는 디자인매출이 반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자금지원 확대'(76.0%)에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으며, 그 외 업체에서는 '인력양성 지원'에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임.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

(단위: %, 총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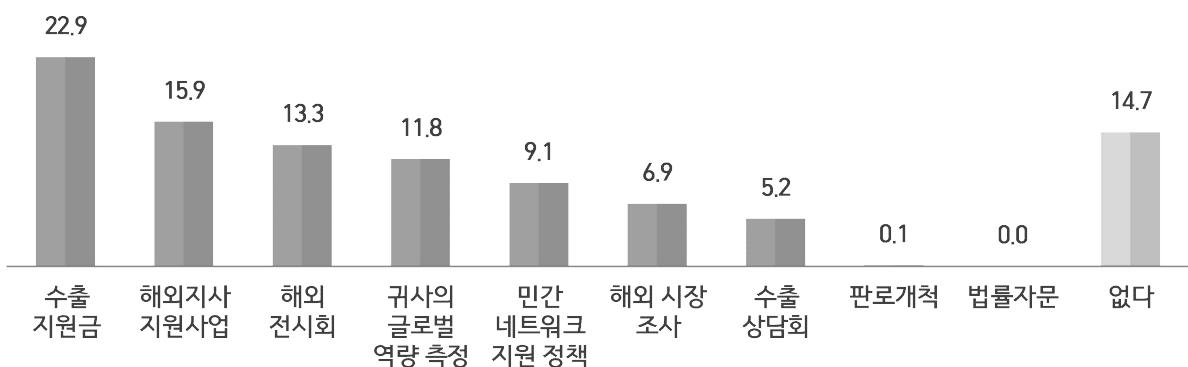
구분		자금지원 확대	인력양성 지원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관련제도 정비 및 규제 완화	입찰정보 지원	수출 및 국제협력 지원	경제 활성화	최신 시장 정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
전문디자인업체		75.5	41.2	20.7	13.4	8.3	4.1	0.4	0.4	0.3
권역별	서울	77.6	41.1	20.9	12.8	10.4	4.6	0.2	0.1	0.0
	부산/울산/경남	73.5	42.2	18.8	24.4	0.9	7.7	4.3	4.3	0.0
	대구/경북	60.6	48.6	14.6	12.7	6.0	0.0	0.0	0.0	6.0
	인천/경기	80.9	32.0	27.1	6.0	1.8	0.0	0.0	0.0	0.0
	광주/전라	54.5	47.5	15.4	23.0	2.9	4.0	0.0	0.0	0.0
	대전/충청	81.5	40.7	35.1	0.0	0.0	0.0	0.0	0.0	0.0
	강원/제주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규모별	1인	81.9	30.1	19.8	9.9	7.7	1.1	1.4	1.4	0.0
	2~4인	78.0	37.7	16.2	16.1	7.5	4.3	0.0	0.0	0.6
	5~9인	65.2	63.7	26.6	12.0	11.1	6.7	0.7	0.0	0.0
	10~14인	74.5	41.0	35.1	10.9	9.8	5.6	0.0	0.0	0.0
	15인 이상	57.4	46.7	40.8	8.4	8.2	5.3	0.0	1.7	0.0
매출 구성	디자인매출 50%↑	76.0	43.2	21.4	14.7	8.7	3.7	0.0	0.4	0.4
	기타매출 50%↑	54.7	66.8	36.6	0.0	11.6	0.0	15.1	0.0	0.0
	반반	33.5	54.5	56.4	0.0	12.0	0.0	0.0	0.0	0.0

4-2)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

- » 해외 시장으로 진출 확대를 위한 정부의 지원 항목을 조사한 결과, '수출 지원금'(22.9%), '해외지사 지원사업'(15.9%), '해외 전시회'(13.3%), '귀사의 글로벌 역량 측정'(11.8%) 등의 응답 항목이 나타남. 한편, '없다'의 비율은 14.7%로 나타남.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

(단위: %)



- » 업종별로 살펴보면, '수출 지원금'은 제품디자인업(30.1%)과 시각디자인업(29.4%)에서 높고, '해외지사 지원사업'은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업(32.2%)과 인테리어디자인업(23.6%), '수출 상담회'의 경우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업에서 16.4%로 다른 업종 대비 높음.

▣ 업종별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

(단위: %)

구분		수출 지원금	해외지사 지원사업	해외 전시회	귀사의 글로벌 역량 측정	민간 네트워크 지원 정책	해외 시장조사	수출 상담회	판로개척	법률자문
전문디자인업체		22.9	15.9	13.3	11.8	9.1	6.9	5.2	0.1	0.0
업종별	제품디자인	30.1	15.8	13.3	8.5	7.7	4.7	2.6	0.0	0.0
	시각디자인	29.4	4.9	18.6	5.7	7.5	9.3	2.9	0.3	0.1
	인테리어디자인	15.0	23.6	11.8	18.8	13.7	8.1	4.4	0.0	0.0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	6.4	32.2	2.3	22.0	9.2	2.5	16.4	0.0	0.0

- » 권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인천/경기에서는 '수출 지원금'을 정부 지원 항목으로 응답한 가운데, 특히 대구/경북(34.0%)에서 높게 나타남. 광주/전라와 대전/충청에서는 '해외 전시회'에 가장 높고, 강원/제주는 '해외지사 지원사업'이 100.0%로 높음.
- » 규모별로 살펴보면, 5~9인 규모의 업체를 제외한 모든 업체에서 '수출 지원금'에 가장 높고, 5~9인 규모는 '해외 전시회'에 23.7%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임.
- » 매출 구성별로는, '수출지원금', '해외지사 지원사업', '해외 전시회'에서는 기타 매출이 반 이상인 업체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글로벌 역량 측정'에서는 디자인과 기타 매출이 비슷한 업체의 응답률이 33.5%로 가장 높게 나타남.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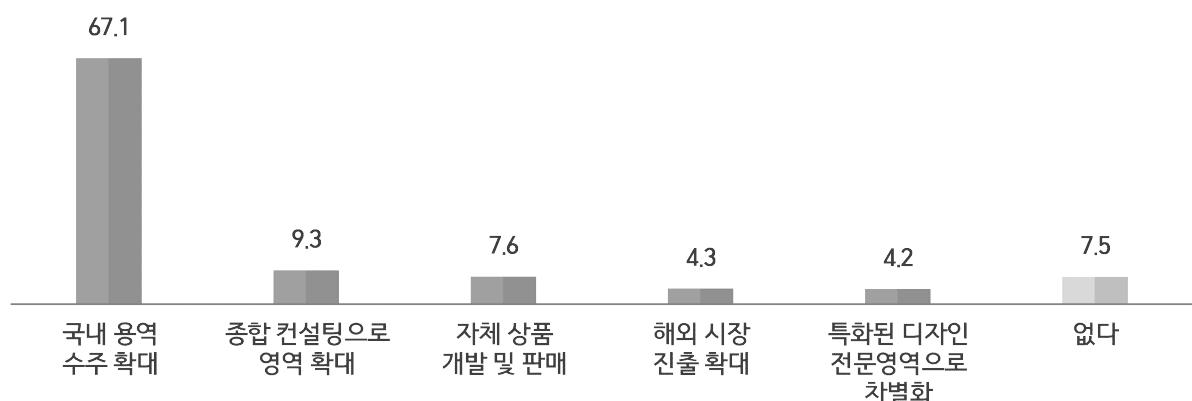
구분		수출 지원금	해외지사 지원사업	해외 전시회	귀사의 글로벌 역량 측정	민간 네트워크 지원 정책	해외 시장조사	수출 상담회	판로개척	법률자문
전문디자인업체		22.9	15.9	13.3	11.8	9.1	6.9	5.2	0.1	0.0
권 역 별	서울	21.8	17.8	14.2	14.9	9.5	7.6	5.6	0.0	0.1
	부산/울산/경남	28.4	17.1	4.3	1.8	2.2	0.0	4.4	0.0	0.0
	대구/경북	34.0	8.1	0.0	0.2	0.0	19.2	0.0	0.0	0.0
	인천/경기	29.2	7.9	12.6	4.9	18.4	0.0	10.5	0.0	0.0
	광주/전라	12.8	5.8	22.2	4.0	8.4	5.7	0.0	0.0	0.0
	대전/충청	16.6	9.4	35.1	12.1	16.6	0.0	0.0	10.2	0.0
	강원/제주	0.0	100.0	0.0	0.0	0.0	0.0	0.0	0.0	0.0
규 모 별	1인	22.8	21.5	8.0	8.7	12.7	6.0	4.3	0.0	0.0
	2~4인	26.3	14.8	12.2	13.7	7.2	6.4	4.4	0.0	0.0
	5~9인	16.5	13.2	23.7	9.1	8.4	6.6	8.3	0.7	0.0
	10~14인	15.1	10.4	12.6	16.1	11.3	13.9	7.7	0.0	1.1
	15인 이상	16.9	15.6	11.3	11.5	15.1	11.7	5.1	0.0	0.0
매출 구성	디자인매출 50%↑	22.5	14.3	13.8	11.7	10.1	7.7	4.9	0.2	0.1
	기타매출 50%↑	30.2	15.1	33.2	0.0	0.0	0.0	6.4	0.0	0.0
	반반	0.0	10.9	0.0	33.5	0.0	5.5	0.0	0.0	0.0

5) 향후 매출 증대 방안

» 향후 매출 증대 방안을 조사한 결과, ‘국내 용역 수주 확대’의 비율이 67.1%로 압도적이었으며, 다음은 ‘종합 컨설팅으로 영역 확대’(9.3%), ‘자체 상품 개발 및 판매’(7.6%), ‘해외 시장 진출 확대’(4.3%), ‘특화된 디자인 전문영역으로 차별화’(4.2%)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없다’는 7.5%의 비율을 보임.

향후 매출 증대 방안

(단위: %)



» 업종별로 살펴보면, 모든 업종에서 ‘국내 용역 수주 확대’를 향후 매출 증대 방안으로 꼽은 비율이 가장 높은 가운데, 특히 인테리어디자인업(75.6%)에서 더욱 높음. ‘종합 컨설팅으로 영역 확대’의 방안은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업에서 26.2%로 다른 업종 대비 상대적으로 높음.

▣ 업종별 향후 매출 증대 방안

(단위: %)

구분		국내 용역 수주 확대	종합 컨설팅으로 영역 확대	자체 상품 개발 및 판매	해외 시장 진출 확대	특화된 디자인 전문영역으로 차별화
전문디자인업체		67.1	9.3	7.6	4.3	4.2
업종별	제품디자인	62.5	8.4	11.0	4.9	8.4
	시각디자인	74.3	2.3	4.3	4.0	1.8
	인테리어디자인	75.6	10.6	4.2	2.9	4.7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	44.3	26.2	15.1	6.4	2.6

- » 권역별 향후 매출 증대 방안은 모든 권역에서 '국내 용역 수주 확대'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강원/제주(100.0%)와 대구/경북(83.9%)에서 높게 나타남. '국내 용역 수주 확대'의 경우 모든 권역에서 응답 비율이 55% 이상의 높은 비중을 보임. '종합 컨설팅으로 영역 확대'는 대전/충청(22.3%)에서 다른 권역 대비 높게 나타남.
- » 규모별 결과 역시, 모든 규모의 업체에서 '국내 용역 수주 확대'를 주요 매출 증대 방안으로 응답했으며, 특히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응답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임.
- » 매출 구성별 결과 역시, 매출 구성과 관계없이 '국내 용역 수주 확대'의 응답 비율이 6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남.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향후 매출 증대 방안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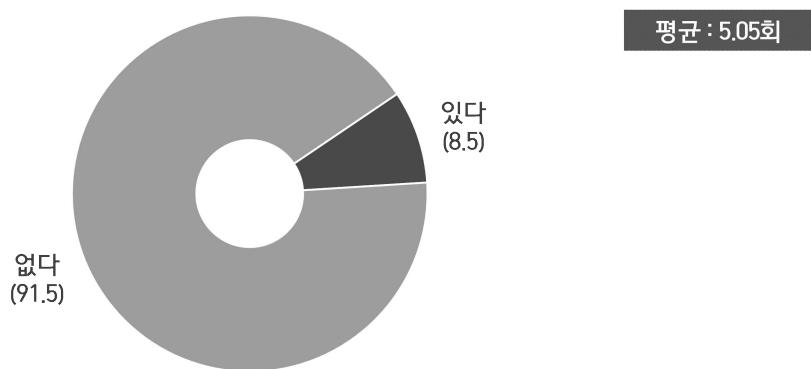
구분		국내 용역 수주 확대	종합 컨설팅으로 영역 확대	자체 상품 개발 및 판매	해외 시장 진출 확대	특화된 디자인 전문영역으로 차별화
전문디자인업체		67.1	9.3	7.6	4.3	4.2
권 역 별	서울	67.8	10.4	9.3	4.8	4.9
	부산/울산/경남	61.0	5.0	4.3	3.3	5.3
	대구/경북	83.9	0.0	0.9	1.6	0.0
	인천/경기	55.7	13.8	5.7	6.7	1.0
	광주/전라	61.8	0.0	0.0	0.0	2.9
	대전/충청	77.7	22.3	0.0	0.0	0.0
	강원/제주	100.0	0.0	0.0	0.0	0.0
규 모 별	1인	76.1	5.9	4.6	1.0	1.1
	2~4인	65.0	11.2	8.8	5.5	3.0
	5~9인	68.6	7.9	5.6	4.3	9.6
	10~14인	59.1	11.3	9.0	5.4	8.4
	15인 이상	46.4	8.0	16.1	6.6	8.0
매 출 구 성	디자인매출 50%↑	69.0	8.5	7.4	4.3	3.7
	기타매출 50%↑	84.9	0.0	0.0	0.0	0.0
	반반	94.5	0.0	5.5	0.0	0.0

6) 부당한 처우 경험

- » 부당한 처우 경험 여부에 대해, '있다'는 8.5%로 나타났으며, 대부분(91.5%)의 전문디자인업체는 부당한 처우 경험이 없다고 나타남.

부당한 처우 경험 비율 및 횟수

(단위: %)



- » 업종별로 살펴보면,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업에서는 '없다'의 응답이 100.0%로 나타났으며, 그 외 업종에서도 '없다'의 비율이 85.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남. 부당한 처우를 경험한 횟수는 시각디자인업(6.78회), 제품디자인업(3.18회), 인테리어디자인업(2.46회)의 순으로 나타남.

▣ 업종별 부당한 처우 경험 비율 및 횟수

(단위: %)

구분		있다	없다	횟수(회)
전문디자인업체		8.5	91.5	5.05
업종별	제품디자인	8.8	91.2	3.18
	시각디자인	12.4	87.6	6.78
	인테리어디자인	7.2	92.8	2.46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	0.0	100.0	-

- » 권역별 부당한 처우 현황으로는, 대부분의 권역에서 부당한 처우 경험이 '없다'가 80% 이상으로 나타난 가운데, 부당한 처우 횟수는 부산/울산/경남이 16.26회로 가장 높게 나타남. 한편, 대전/충청과 강원/제주는 '없다'의 비율이 100.0%로 부당한 처우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 규모별로 살펴보면, 규모별 부당한 처우 경험 비율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난 가운데, 1인 규모의 업체에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남. 부당한 처우 경험 횟수는 2~4인(5.44회)에서 가장 높은 횟수를 보임.
- » 매출 구성별로는, 디자인과 기타매출이 비슷한 업체에서 부당한 처우를 경험한 횟수가 20.0회로 가장 높게 나타남.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부당한 처우 경험 비율 및 횟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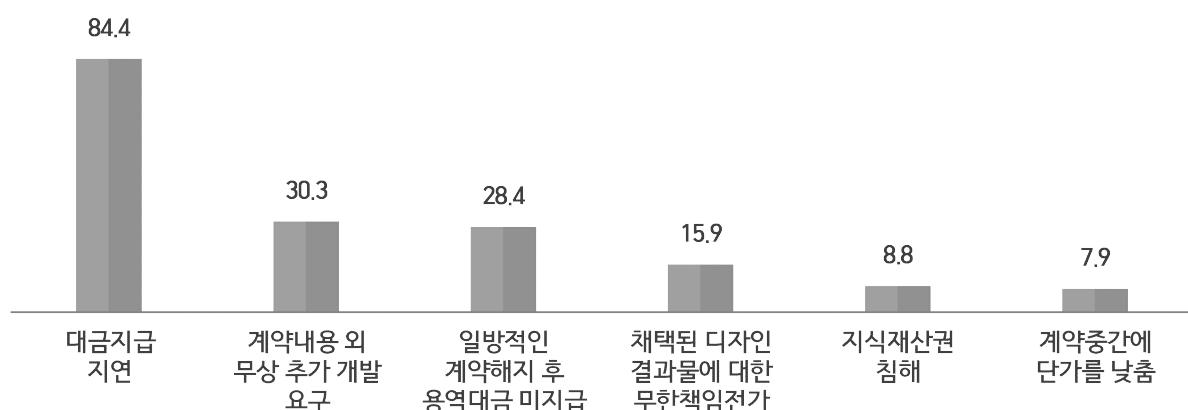
구분		있다	없다	횟수(회)
권 역 별	전문디자인업체	8.5	91.5	5.05
	서울	6.6	93.4	3.31
	부산/울산/경남	16.6	83.4	16.26
	대구/경북	11.6	88.4	4.10
	인천/경기	17.3	82.7	2.98
	광주/전라	9.7	90.3	2.00
	대전/충청	0.0	100.0	-
	강원/제주	0.0	100.0	-
규 모 별	1인	2.5	97.5	4.17
	2~4인	10.6	89.4	5.44
	5~9인	9.1	90.9	4.44
	10~14인	9.3	90.7	4.45
	15인 이상	10.0	90.0	3.95
매출 구성	디자인매출 50%↑	9.2	90.8	5.08
	기타매출 50%↑	15.1	84.9	5.00
	반반	6.5	93.5	20.00

6-1) 부당한 처우 피해 유형

- » 부당한 처우의 피해 유형을 조사한 결과(중복응답 기준), '대금지급 지연'(84.4%)이 가장 높고, 다음은 '계약내용 외 무상 추가 개발 요구'(30.3%), '일방적인 계약해지 후 용역대금 미지급'(28.4%), '채택된 디자인 결과물에 대한 무한 책임전가'(15.9%), '지식재산권 침해'(8.8%), '계약 중간에 단가를 낮춤'(7.9%)의 부당 처우 항목을 보임.

부당한 처우 피해 유형

(단위: %, 중복응답)



- » 업종별 피해 유형으로는, 모든 업종에서 '대금지급 지연'에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특히 인테리어디자인업에서 100.0%로 매우 높게 나타남. '채택된 디자인 결과물에 대한 무한 책임 전가'에서는 제품디자인업(43.5%)이 상대적으로 높음.
한편,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업에서는 부당 처우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업종별 부당한 처우 피해 유형

(단위: %, 중복응답)

구분	대금지급 지연	계약내용 외 무상 추가 개발 요구	일방적인 계약해지 후 용역대금 미지급	채택된 디자인 결과물에 대한 무한 책임전가	지식재산권 침해	계약중간에 단가를 낮춤
전문디자인업체	84.4	30.3	28.4	15.9	8.8	7.9
업종별	제품디자인	72.2	22.2	14.1	43.5	0.0
	시각디자인	84.8	25.5	31.1	8.4	14.2
	인테리어디자인	100.0	55.6	40.4	0.0	0.0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	-	-	-	-	-

- » 권역별로 살펴보면, 모든 권역에서 '대금지급 지연'에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특히 대구/경북과 광주/전라에서는 100.0%의 높은 비율을 보임. '계약내용 외 무상 추가 개발 요구'는 서울에서 46.5%로 다른 권역 대비 높게 나타남. 한편, 대전/충청과 강원/제주에서는 부당 처우 피해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 규모별 결과 역시, 모든 규모의 업체에서 '대금지급 지연'에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특히 1인과 5~9인 규모의 업체에서는 100.0%의 높은 응답률을 보임. '일방적인 계약해지 후 용역대금 미지급'의 경우 5~9인(50.3%)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 매출 구성별 결과 역시 '대금지급 지연'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일방적인 계약해지 후 용역대금 미지급'에서는 기타매출이 반 이상인 업체의 응답률이 100.0%로 높게 나타남.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부당한 처우 피해 유형

(단위: %, 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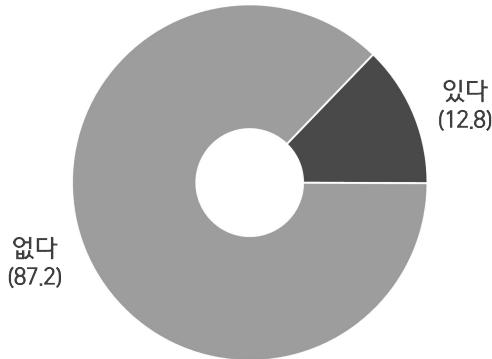
구분		대금지급 지연	계약내용 외 무상 추가 개발 요구	일방적인 계약해지 후 용역대금 미지급	채택된 디자인 결과물에 대한 무한책임전가	지식재산권 침해	계약중간에 단가를 낮춤
전문디자인업체		84.4	30.3	28.4	15.9	8.8	7.9
권역별	서울	82.8	46.5	31.9	10.1	6.6	7.4
	부산/울산/경남	96.1	0.0	47.7	0.0	0.0	26.1
	대구/경북	100.0	12.9	12.9	0.0	0.0	0.0
	인천/경기	66.0	17.5	16.5	66.0	16.5	0.0
	광주/전라	100.0	0.0	0.0	0.0	40.9	0.0
	대전/충청	-	-	-	-	-	-
	강원/제주	-	-	-	-	-	-
규모별	1인	100.0	43.5	43.5	0.0	0.0	0.0
	2~4인	80.8	18.3	19.6	15.7	7.9	11.3
	5~9인	100.0	50.3	50.3	24.4	8.1	0.0
	10~14인	70.0	65.0	23.3	0.0	23.3	11.7
	15인 이상	64.4	57.3	43.4	21.6	21.6	0.0
매출 구성	디자인매출 50%↑	86.9	31.7	26.9	14.5	9.6	8.5
	기타매출 50%↑	100.0	0.0	100.0	0.0	0.0	0.0
	반반	100.0	0.0	0.0	0.0	0.0	0.0

7) 디자인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 » 전문디자인업체 12.8%는 디자인표준계약서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그 외 87.2%의 전문디자인업체는 디자인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고 있음.

디자인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단위: %)



- »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품디자인(17.2%)이 가장 높고, 다음은 시각디자인(15.1%), 인테리어디자인(10.9%) 등의 순임.
-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의 경우 디자인표준계약서 활용 비율이 2.8%로 매우 낮음.

▣ 업종별 디자인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단위: %)

구분		있다	없다
업종별	전문디자인업체	12.8	87.2
	제품디자인	17.2	82.8
	시각디자인	15.1	84.9
	인테리어디자인	10.9	89.1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	2.8	97.2

- » 권역별로 살펴보면, 모든 권역에서 활용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25.0% 미만으로 낮은 활용도를 보인 가운데, 광주/전라(21.8%)가 다른 권역 대비 높은 활용도를 보임. 한편, 부산/울산/경남, 대전/충청과 강원/제주에서는 '없다'의 비율이 100.0%로 활용도가 매우 낮게 나타남.
- » 규모별로 살펴보면, 규모와 관계없이 비슷한 활용 비율을 보인 가운데, 5~9인(17.3%)에서 가장 높은 활용 비율을 보임. 매출 구성별로는 디자인매출이 반 이상인 업체(14.0%)가 가장 높은 활용률을, 디자인과 기타 매출이 비슷한 업체(6.5%)에서 가장 낮은 활용률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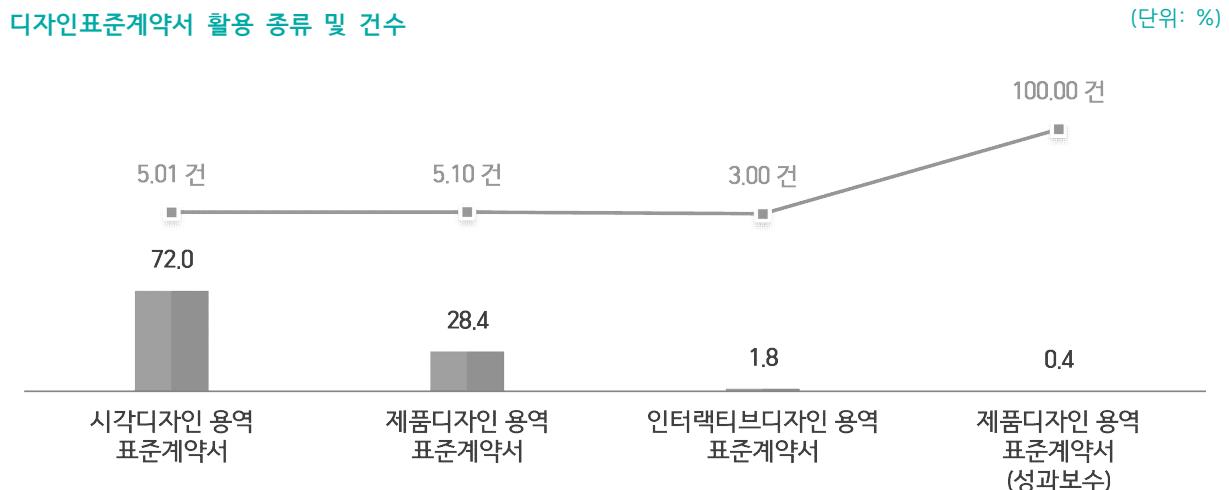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디자인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단위: %)

구분		있다	없다
전문디자인업체		12.8	87.2
권 역 별	서울	14.9	85.1
	부산/울산/경남	0.0	100.0
	대구/경북	7.8	92.2
	인천/경기	4.0	96.0
	광주/전라	21.8	78.2
	대전/충청	0.0	100.0
	강원/제주	0.0	100.0
규 모 별	1인	10.3	89.7
	2~4인	12.4	87.6
	5~9인	17.3	82.7
	10~14인	12.4	87.6
	15인 이상	12.7	87.3
매출 구성	디자인매출 50%↑	14.0	86.0
	기타매출 50%↑	11.6	88.4
	반반	6.5	93.5

7-1) 디자인표준계약서 활용 종류 및 건수

- » 디자인표준계약서 활용 종류로는 '시각디자인 용역'이 72.0%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제품디자인 용역'(28.4%)이 뒤를 이음. 한편, '인터랙티브디자인 용역'(1.8%), '제품디자인 용역(성과 보수)'(0.4%)의 활용도는 낮음.



- »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품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활용 비율은 제품디자인업과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업에서 각각 69.6%, 45.5%로 나타남. '시각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활용 비율은 시각디자인업과 인테리어디자인업에서 각각 99.2%, 76.6%로 높게 나타남.

▣ 업종별 디자인표준계약서 활용 종류 및 건수

(단위: %)

구분	시각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제품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인터랙티브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제품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성과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전문디자인업체	72.0	5.01	28.4	5.10	1.8	100.00	0.4	3.00
업종별	제품디자인	38.3	4.36	69.6	5.50	0.0	-	0.0
	시각디자인	99.2	4.46	0.0	-	0.0	100.00	0.8
	인테리어디자인	76.6	7.35	20.1	2.00	3.3	-	0.0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	18.2	4.00	45.5	6.60	36.4	-	0.0

- » 권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과 광주/전라에서는 '시각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의 활용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한편, 대구/경북에서는 '제품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의 활용 비율이 70.8%로 가장 높고, 인천/경기에서는 '제품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성과보수)'의 활용 비율이 51.8%로 가장 높게 나타남.
- » 규모별로 살펴보면, 모든 규모의 업체에서 '시각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특히 2~4인(78.3%) 규모의 업체에서 높은 비율을 보임.
- » 매출 구성별 활용비율은 디자인매출이 반 이상인 업체의 경우 '시각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의 활용 비율이 76.3%로 가장 높음. 한편, 디자인과 기타 매출이 비슷한 업체는 '인터랙티브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의 활용 비율이 100.0%인 것으로 나타남.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디자인표준계약서 활용 종류 및 건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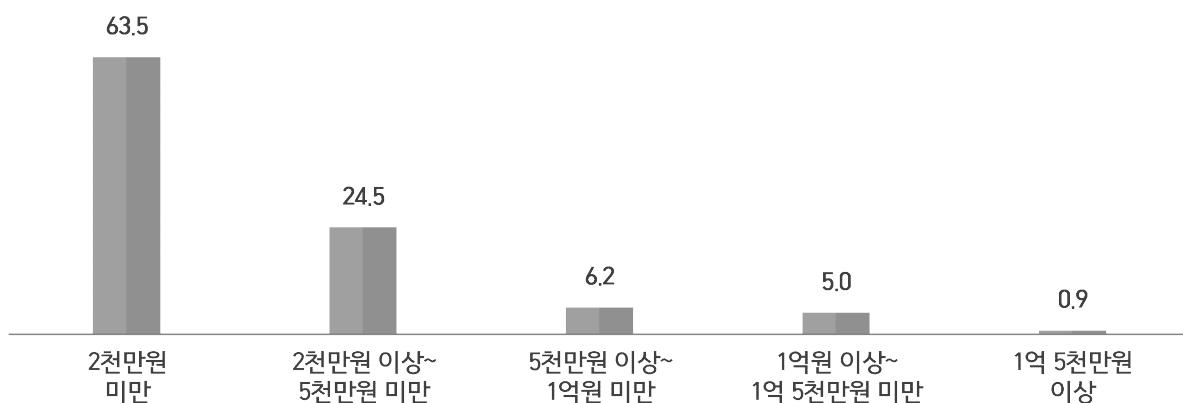
구분		시각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제품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인터랙티브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제품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성과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전문디자인업체		72.0	5.01	28.4	5.10	1.8	3.00	0.4	100.00
권 역 별	서울	71.4	4.26	29.5	4.21	0.7	3.00	0.4	100.00
	부산/울산/경남	-	-	-	-	-	-	-	-
	대구/경북	29.2	32.97	70.8	16.20	0.0	-	0.0	-
	인천/경기	43.7	7.00	4.4	10.00	51.8	3.00	0.0	-
	광주/전라	100.0	6.90	10.5	2.00	0.0	-	0.0	-
	대전/충청	-	-	-	-	-	-	-	-
	강원/제주	-	-	-	-	-	-	-	-
규 모 별	1인	61.0	2.41	48.4	3.17	0.0	-	0.0	-
	2~4인	78.3	4.64	19.2	7.00	2.4	3.00	0.0	-
	5~9인	69.9	7.55	31.6	5.15	2.5	3.00	0.0	-
	10~14인	56.3	3.87	35.0	5.00	0.0	-	8.8	100.00
	15인 이상	70.7	5.61	29.3	3.59	0.0	-	0.0	-
매출 구성	디자인매출 50%↑	76.3	4.93	25.9	5.71	0.7	3.00	0.0	-
	기타매출 50%↑	0.0	-	100.0	2.00	0.0	-	0.0	-
	반반	0.0	-	0.0	-	0.0	-	100.0	100.00

7-2) 디자인표준계약서 평균 계약금액

- » 디자인 표준계약서의 평균 계약금액은 '2천만원 미만'이 63.5% 비율로 가장 높고, 다음은 '2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24.5%),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6.2%), '1억원 이상~1억 5천만원 미만'(5.0%), '1억 5천만원 이상'(0.9%)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디자인표준계약서 평균 계약금액

(단위: %)



- » 업종별 계약금액은 모든 업종에서 '2천만원 미만'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시각 디자인업(69.3%)와 제품디자인업(64.1%)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의 계약 금액은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업에서 36.4%로 다른 업종 대비 높음.

▣ 업종별 디자인표준계약서 평균 계약금액

(단위: %)

구분		2천만원 미만	2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1억 5천만원 미만	1억 5천만원 이상
전문디자인업체		63.5	24.5	6.2	5.0	0.9
업 종 별	제품디자인	64.1	34.2	0.0	0.0	1.7
	시각디자인	69.3	16.9	6.9	6.9	0.0
	인테리어디자인	50.0	29.9	10.0	10.0	0.0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	54.5	0.0	36.4	0.0	9.1

- » 권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인천/경기, 광주/전라에서는 ‘2천만원 미만’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특히 광주/전라(79.1%)에서 높게 나타남. ‘1억 5천만원 이상’의 계약 금액은 대구/경북에서 17.9%로 높게 나타났으며, 인천/경기와 광주/전라에서는 0.0%의 낮은 비율을 보임.
- » 규모별로 살펴보면, 규모가 작을수록 ‘2천만원 미만’의 계약금액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의 경우 15인 이상의 기업에서 53.9%로 상대적으로 높음.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디자인표준계약서 평균 계약금액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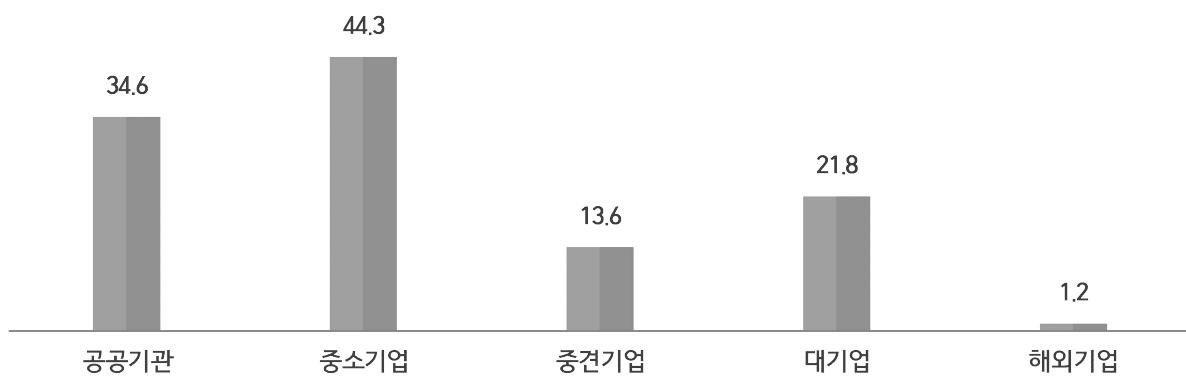
구분		2천만원 미만	2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1억 5천만원 미만	1억 5천만원 이상
권 역 별	전문디자인업체	63.5	24.5	6.2	5.0	0.9
	서울	63.4	23.2	7.2	5.8	0.4
	부산/울산/경남	-	-	-	-	-
	대구/경북	29.2	52.8	0.0	0.0	17.9
	인천/경기	51.8	48.2	0.0	0.0	0.0
	광주/전라	79.1	20.9	0.0	0.0	0.0
	대전/충청	-	-	-	-	-
규 모 별	강원/제주	-	-	-	-	-
	1인	100.0	0.0	0.0	0.0	0.0
	2~4인	66.6	22.4	6.2	4.8	0.0
	5~9인	43.3	40.4	8.5	7.7	0.0
	10~14인	28.6	31.3	17.5	8.8	13.8
매 출 구 성	15인 이상	23.7	53.9	7.6	7.6	7.2
	디자인매출 50%↑	64.2	24.7	6.7	3.4	0.9
	기타매출 50%↑	0.0	0.0	0.0	100.0	0.0
	반반	0.0	100.0	0.0	0.0	0.0

7-3) 디자인표준계약서 사용대상

» 디자인표준계약서 사용대상으로는(중복응답 기준) '중소기업'의 비율이 44.3%로 가장 높고, 다음은 '공공기관'(34.6%), '대기업'(21.8%), '중견기업'(13.6%)의 순을 보였으며, '해외기업'이 1.2%로 가장 낮게 나타남.

디자인표준계약서 사용 대상

(단위: %, 중복응답)



» 업종별로 살펴보면, 사용 대상 중 '중소기업'의 비율은 제품디자인업(68.3%)과 인테리어디자인업(50.0%)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공공기관'의 비율은 시각디자인업(60.0%)에서 높은 비율을 보임.
 '해외 기업'은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업(36.4%)을 제외한 업체에서는 0.0%의 비율을 보임.

▣ 업종별 디자인표준계약서 사용 대상

(단위: %, 중복응답)

구분		공공기관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해외기업
전문디자인업체		34.6	44.3	13.6	21.8	1.2
업종별	제품디자인	2.9	68.3	14.6	20.9	0.0
	시각디자인	60.0	25.3	7.7	18.5	0.0
	인테리어디자인	29.9	50.0	26.6	33.4	0.0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	36.4	27.3	9.1	9.1	36.4

- » 권역별 디자인표준계약서 사용 대상 중 '중소기업'의 비중은 대구/경북에서 100.0%, 광주/전라 63.2%, 서울 41.4%, 인천/경기 0.0%의 비율을 보임. '공공기관' 비중은 인천/경기(95.6%), 광주/전라(36.8%), 서울(34.0%), 대구/경북(0.0%)의 순으로 나타남. '해외 기업'의 비중은 서울에서 1.4%로 다른 권역 대비 높게 나타났으며, 나머지 권역에서는 0.0%의 비중을 보임.
- » 규모별로 살펴보면, 모든 규모의 업체에서 '중소기업'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특히 10~14인(59.9%) 규모의 업체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해외 기업'의 경우 2~4인의 기업에서 2.4%의 비율을 보였으며, 나머지 규모의 업체에서는 0.0%의 비율을 나타냄.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디자인표준계약서 사용 대상

(단위: %, 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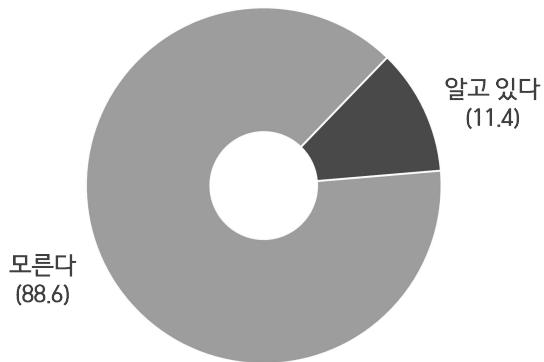
구분		공공기관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해외기업
전문디자인업체		34.6	44.3	13.6	21.8	1.2
권 역 별	서울	34.0	41.4	15.2	22.2	1.4
	부산/울산/경남	-	-	-	-	-
	대구/경북	0.0	100.0	19.1	52.8	0.0
	인천/경기	95.6	0.0	0.0	48.2	0.0
	광주/전라	36.8	63.2	0.0	0.0	0.0
	대전/충청	-	-	-	-	-
	강원/제주	-	-	-	-	-
규 모 별	1인	37.9	39.0	9.5	13.7	0.0
	2~4인	35.3	43.6	15.7	22.4	2.4
	5~9인	37.0	47.0	9.0	18.7	0.0
	10~14인	26.3	59.9	17.5	45.1	0.0
	15인 이상	7.6	43.4	28.2	42.8	0.0
매출 구성	디자인매출 50%↑	36.3	43.6	14.4	20.1	1.3
	기타매출 50%↑	0.0	0.0	0.0	100.0	0.0
	반반	0.0	100.0	100.0	0.0	0.0

8)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인지도

- 전문디자인업체를 대상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대해 질문한 결과, 업체의 88.6%가 '모른다'의 응답을 보였으며, 그 외 11.4%의 업체가 '알고 있다'의 응답을 보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인지도

(단위: %)



- 업종별 인지도는 모든 업종에서 15.0% 이하의 낮은 인지도를 보였으며, 시각디자인업(15.0%)에서 가장 높은 NCS 인지도를 보임. 한편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업에서는 '알고 있다'의 비율이 5.4%로 가장 낮은 인지도를 보임.

▣ 업종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인지도

(단위: %)

구분		알고 있다	모른다
전문디자인업체		11.4	88.6
업종별	제품디자인	13.2	86.8
	시각디자인	15.0	85.0
	인테리어디자인	7.4	92.6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	5.4	94.6

- » 권역별로 살펴보면,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은 대전/충청(33.2%), 대구/경북(23.8%)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강원/제주의 경우 '알고 있다'의 응답이 0.0%로 낮은 인지도를 보임.
- » 규모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규모가 커짐에 따라 NCS 인지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 가운데, 5~9인 규모의 업체는 9.3%로 낮은 인지도를 보임.
- » 매출 구성별 인지도는 기타매출이 반 이상인 업체에서 '알고 있다'의 응답이 15.1%로 가장 높은 인지도를 보였으며, 디자인과 기타 매출이 비슷한 업체에서는 5.5%로 가장 낮은 인지도를 보임.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인지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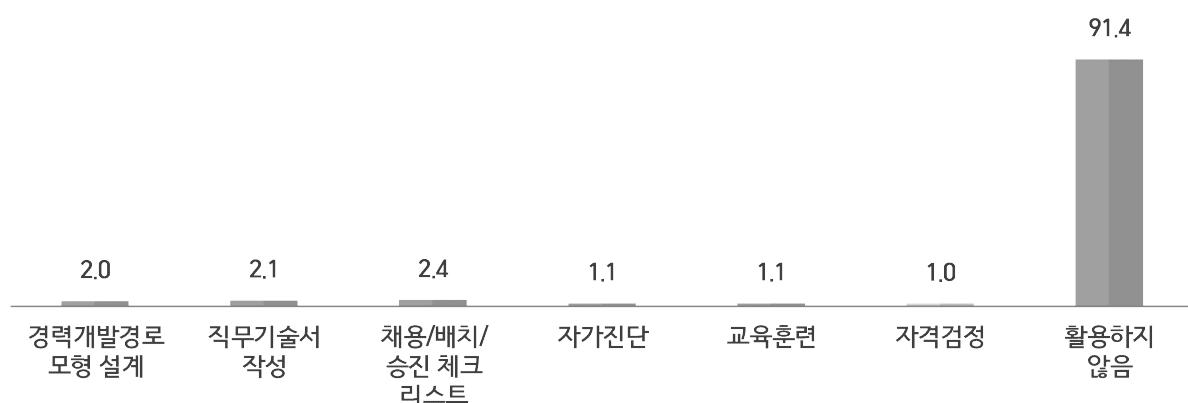
구분		알고 있다	모른다
전문디자인업체		11.4	88.6
권 역 별	서울	9.9	90.1
	부산/울산/경남	13.2	86.8
	대구/경북	23.8	76.2
	인천/경기	8.8	91.2
	광주/전라	16.7	83.3
	대전/충청	33.2	66.8
	강원/제주	0.0	100.0
규 모 별	1인	10.7	89.3
	2~4인	11.3	88.7
	5~9인	9.3	90.7
	10~14인	15.2	84.8
	15인 이상	22.9	77.1
매출 구성	디자인매출 50%↑	11.7	88.3
	기타매출 50%↑	15.1	84.9
	반반	5.5	94.5

8-1)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업무 활용도

-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업무 활용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중복응답 기준), '활용하지 않음'의 응답이 91.4%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그 외 '채용/배치/승진 체크리스트'(2.4%), '직무기술서 작성'(2.1%), '경력개발경로 모형 설계'(2.0%), '자가진단', '교육훈련'(각 1.1%), '자격검정'(1.0%)의 활용도를 보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업무 활용도

(단위: %, 중복응답)



- » 업종별 NCS 업무 활용도는 모든 업종에서 '활용하지 않음'의 응답이 80.0% 이상으로 낮은 활용도를 나타냈으며, 특히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업은 '활용하지 않음'의 비율이 100.0%로 전혀 활용하고 있음. 항목별로는, '채용/배치/승진 체크리스트'는 인테리어디자인업(4.8%)과 제품디자인업(4.4%)에서, '경력개발 경로 모형 설계'는 시각디자인업(3.9%)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업종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업무 활용도

(단위: %, 중복응답)

구분	경력개발 경로 모형 설계	직무기술서 작성	채용/배치/승진 체크리스트	자가진단	교육훈련	자격검정	활용하지 않음
전문디자인업체	2.0	2.1	2.4	1.1	1.1	1.0	91.4
업종별	제품디자인	0.0	2.2	4.4	0.0	3.7	2.2
	시각디자인	3.9	3.0	0.8	0.8	0.0	91.4
	인테리어디자인	0.0	0.0	4.8	4.8	0.0	90.3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	0.0	0.0	0.0	0.0	0.0	100.0

- » 권역별로 살펴보면, 모든 권역에서 '활용하지 않음'의 비율이 85.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난 가운데, 특히 부산/울산/경남, 인천/경기, 광주/전라, 대전/충청의 경우 '활용하지 않음'에 100.0%의 응답률을 보여 낮은 활용도를 보임. '채용/배치/승진 체크리스트'의 경우 대구/경북(5.9%)에서, '직무기술서 작성'은 서울(3.4%)에서 타 권역 대비 높은 활용도를 보임.
- » 규모별로 살펴보면, '활용하지 않음'의 응답은 10~14인(63.3%) 규모의 업체에서 가장 낮았으며, 1인과 2~4인의 업체에서는 100.0%의 응답률을 보임. '채용/배치/승진 체크리스트'는 10~14인(22.4%) 규모의 업체에서, '직무기술서 작성'은 15인 이상(11.6%)의 업체에서 높음.
- » 매출 구성별로는, 기타매출이 반 이상인 업체와 디자인과 기타 매출이 비슷한 업체에서는 전혀 활용하지 않음. 디자인매출이 반 이상인 업체의 경우 '채용/배치/승진 체크리스트'(2.7%)에 가장 높은 업무 활용도를 보임.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업무 활용도

(단위: %, 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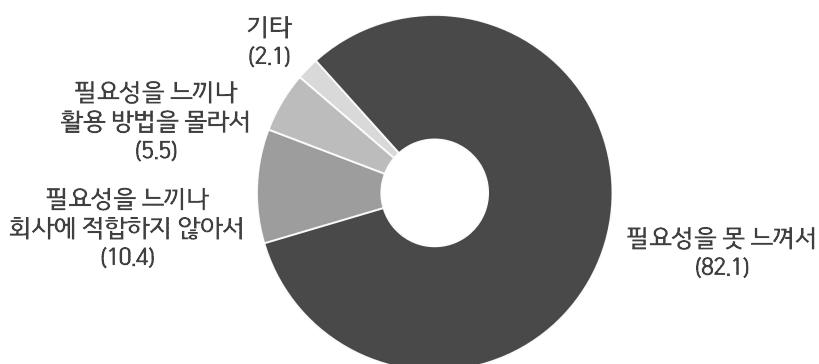
구분		경력개발 경로 모형 설계	직무기술서 작성	채용/배치/ 승진 체크 리스트	자가진단	교육훈련	자격검정	활용하지 않음
전문디자인업체		2.0	2.1	2.4	1.1	1.1	1.0	91.4
권 역 별	서울	3.1	3.4	2.7	1.7	1.7	1.6	87.4
	부산/울산/경남	0.0	0.0	0.0	0.0	0.0	0.0	100.0
	대구/경북	0.0	0.0	5.9	0.0	0.0	0.0	94.1
	인천/경기	0.0	0.0	0.0	0.0	0.0	0.0	100.0
	광주/전라	0.0	0.0	0.0	0.0	0.0	0.0	100.0
	대전/충청	0.0	0.0	0.0	0.0	0.0	0.0	100.0
	강원/제주	-	-	-	-	-	-	-
규 모 별	1인	0.0	0.0	0.0	0.0	0.0	0.0	100.0
	2~4인	0.0	0.0	0.0	0.0	0.0	0.0	100.0
	5~9인	8.0	8.0	4.7	4.7	7.4	0.0	67.2
	10~14인	14.3	0.0	22.4	0.0	0.0	11.2	63.3
	15인 이상	0.0	11.6	4.7	4.7	0.0	4.7	78.9
매출 구성	디자인매출 50%↑	2.3	1.3	2.7	1.3	1.2	1.2	91.2
	기타매출 50%↑	0.0	0.0	0.0	0.0	0.0	0.0	100.0
	반반	0.0	0.0	0.0	0.0	0.0	0.0	100.0

8-2)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업무에 활용하지 않는 이유

- »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업무에 활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필요성을 못 느껴서'가 82.1%로 대부분이었고, 그 외 '필요성을 느끼나 회사에 적합하지 않아서'(10.4%), '필요성을 느끼나 활용 방법을 몰라서'(5.5%), '기타'(2.1%) 등의 순으로 나타남.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업무에 활용하지 않는 이유

(단위: %)



- » 업종별로 살펴보면, 모든 업종에서 '필요성을 못 느껴서'를 가장 큰 이유로 응답했으며,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업의 경우 100.0%의 높은 응답률을 보임. 인테리어디자인업에서는 16.4%의 비율로 '필요성을 느끼나 회사에 적합하지 않아서'라는 이유를 꼽음.

▣ 업종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업무에 활용하지 않는 이유

(단위: %)

구분	필요성을 못 느껴서	필요성을 느끼나 회사에 적합하지 않아서	필요성을 느끼나 활용 방법을 몰라서	기타
전문디자인업체	82.1	10.4	5.5	2.1
업 종 별	제품디자인	68.1	9.1	15.6
	시각디자인	88.1	11.0	0.9
	인테리어디자인	78.9	16.4	4.6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	100.0	0.0	0.0

- » 권역별로 살펴보면, 모든 권역에서 '필요성을 못 느껴서'의 비율이 60.0% 이상으로, 전반적으로 NCS 활용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대전/충청(100.0%)에서 높고, 인천/경기(60.5%)에서 낮음. '필요성을 느끼나 회사에 적합하지 않아서'의 이유는 서울(15.2%), '필요성을 느끼나 활용 방법을 몰라서'는 부산/울산/경남(20.2%)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 규모별로 살펴보면, 10~14인 규모의 업체를 제외한 모든 업체에서 '필요성을 못 느껴서'가 가장 높음. 10~14인 규모의 업체는 '필요성을 느끼나 회사에 적합하지 않아서'(46.7%)가 상대적으로 높음.
- » 매출 구성별로는, 기타매출이 반 이상인 업체와 디자인과 기타 매출이 비슷한 업체에서는 '필요성을 못 느껴서'(100.0%)가 높게 나타남.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업무에 활용하지 않는 이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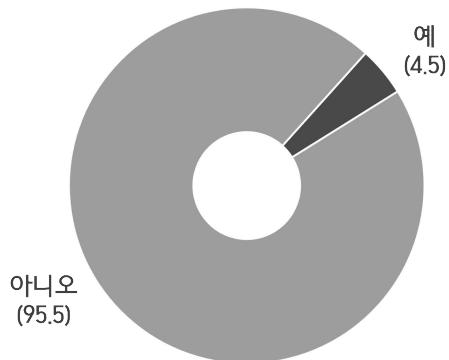
구분		필요성을 못 느껴서	필요성을 느끼나 회사에 적합하지 않아서	필요성을 느끼나 활용 방법을 몰라서	기타
전문디자인업체		82.1	10.4	5.5	2.1
권 역 별	서울	84.8	15.2	0.0	0.0
	부산/울산/경남	79.8	0.0	20.2	0.0
	대구/경북	71.7	9.8	18.5	0.0
	인천/경기	60.5	0.0	7.0	32.4
	광주/전라	86.3	0.0	13.7	0.0
	대전/충청	100.0	0.0	0.0	0.0
	강원/제주	-	-	-	-
규 모 별	1인	100.0	0.0	0.0	0.0
	2~4인	83.2	9.4	3.7	3.7
	5~9인	54.9	22.9	22.1	0.0
	10~14인	25.8	46.7	27.5	0.0
	15인 이상	88.6	11.4	0.0	0.0
매출 구성	디자인매출 50%↑	82.9	9.7	5.0	2.4
	기타매출 50%↑	100.0	0.0	0.0	0.0
	반반	100.0	0.0	0.0	0.0

9) 세액공제 적용 여부

- 전문디자인업체의 4.5%가 세액공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대부분(95.5%)의 전문업체는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있음.

세액공제 적용 여부

(단위: %)



- 업종별로는 모든 업종에서 세액공제 적용에 대해 '아니오'의 응답이 90.0% 이상으로 높았으며, 특히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업(98.9%)에서 높은 비율을 보임.

▣ 업종별 세액공제 적용 여부

(단위: %)

구분		예	아니오
전문디자인업체		4.5	95.5
업종별	제품디자인	5.4	94.6
	시각디자인	5.9	94.1
	인테리어디자인	3.4	96.6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	1.1	98.9

- » 권역별로는, 광주/전라(13.7%)에서 세액공제를 받는 비율이 다른 지역 대비 높았으며, 다음은 서울(4.6%), 부산/울산/경남(4.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 규모별로 살펴보면, 규모가 커짐에 따라 세액공제 적용 비율이 높은 가운데, 15인 이상의 세액공제 적용 비율은 10.7%로 나타남.
- » 매출 구성별로는 기타매출이 반 이상인 업체의 15.1%는 세액공제 적용이 되는 반면, 디자인과 기타 매출이 비슷한 업체의 경우 세액공제 적용 비율이 낮음.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세액공제 적용 여부

(단위: %)

구분		예	아니오
전문디자인업체		4.5	95.5
권 역 별	서울	4.6	95.4
	부산/울산/경남	4.3	95.7
	대구/경북	1.6	98.4
	인천/경기	0.0	100.0
	광주/전라	13.7	86.3
	대전/충청	0.0	100.0
	강원/제주	0.0	100.0
규 모 별	1인	0.0	100.0
	2~4인	5.4	94.6
	5~9인	5.1	94.9
	10~14인	7.6	92.4
	15인 이상	10.7	89.3
매출 구성	디자인매출 50%↑	3.5	96.5
	기타매출 50%↑	15.1	84.9
	반반	0.0	100.0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
- 01 | 디자인 활용 현황
 - 02 | 디자인 인력
 - 03 | 디자인 교육
 - 04 |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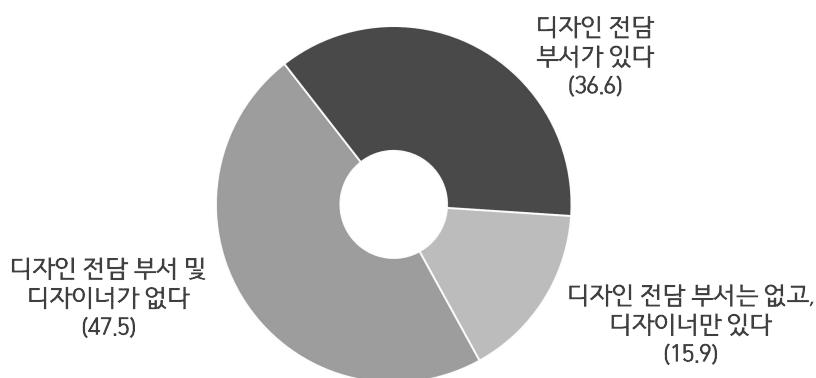
1 디자인 활용 현황

1) 디자인 전담부서 보유 여부

- »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내 ‘디자인 전담부서가 있다’는 기관은 36.6%로 나타남. ‘디자인 전담부서는 없고, 디자이너만 있다’는 15.9%, ‘디자인 전담부서 및 디자이너가 없다’는 47.5%로 나타남.

디자인 전담부서 보유 여부

(단위: %)



- » 정부 기관을 구분하여 분석해보면, 지자체 중 ‘디자인 전담부서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41.1%인 반면, 중앙부처는 5.7%로 낮은 수준을 보임.

▣ 구분별 디자인 전담부서 보유 여부

(단위: %)

구분	디자인 전담부서가 있다	디자인 전담부서는 없고, 디자이너만 있다	디자인 전담부서 및 디자이너가 없다
중앙부처 및 지자체	36.6	15.9	47.5
구분	지자체	41.1	14.1
	중앙부처	5.7	28.6

- »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디자인 전담부서가 있다'는 시/도에서 82.4%로 높게 나타난 반면, 시/군/구에서는 37.9%로 낮게 나타남.
- » 예산별로는 지자체 예산이 많을수록 '디자인 전담부서가 있다'는 비율이 높음. 지자체 예산이 5천억원 이상인 기관은 62.8%가 '디자인 전담부서가 있다'고 응답한 반면, 지자체 예산이 2천 억원 미만인 기관은 '디자인 전담부서 디자이너 있다'의 응답이 10.0%로 낮게 나타남.

지자체별/지자체예산별 디자인 전담부서 보유 여부

(단위: %)

구분		디자인 전담부서가 있다	디자인 전담부서는 없고, 디자이너만 있다	디자인 전담부서 및 디자이너가 없다
지자체		36.6	15.9	47.5
지자체	시/도	82.4	5.9	11.8
	시/군/구	37.9	14.7	47.3
지자체 예산	2천억원 미만	10.0	30.0	60.0
	3천억원 미만	18.6	9.3	72.1
	5천억원 미만	35.3	18.6	46.1
	5천억원 이상	62.8	9.3	2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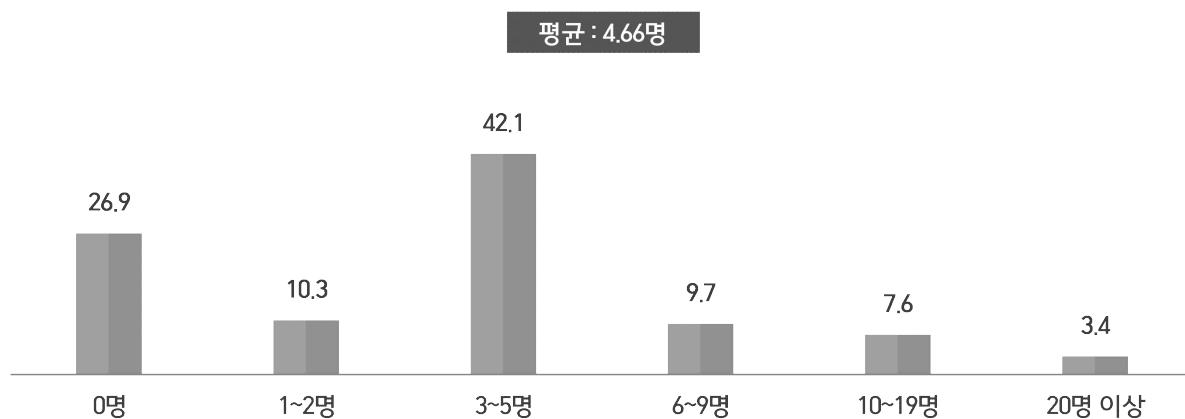
2) 직원 수

2-1) 디자인 전담부서 보유 기관 총 직원 수

- » 디자인 전담부서가 있는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디자인 전담부서의 총 직원 수에 대해 살펴본 결과 평균 4.66명으로 나타남.
세부 항목별로는 '3~5명'이 42.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0명'(26.9%), '1~2명'(10.3%), '6~9명'(9.7%), '10~19명'(7.6%), '20명 이상'(3.4%)의 순으로 나타남.

디자인 전담부서 보유 기관 총 직원 수

(단위: %)



- » 구분별 디자인 전담부서 종사자 수 평균은 지자체에서 5.00명인 반면 중앙부처에서는 0.92명으로 차이를 보임.

3. 구분별 디자인 전담부서 보유 기관 총 직원 수

(단위: %)

구분	0명	1~2명	3~5명	6~9명	10~19명	20명 이상	평균(명)
중앙부처 및 지자체	26.9	10.3	42.1	9.7	7.6	3.4	4.66
구분	지자체	21.8	10.5	45.9	9.8	8.3	5.00
	중앙부처	83.3	8.3	0.0	8.3	0.0	0.92

» 지자체 구분별로는, 시/도 단위의 평균 디자인 전담부서 직원 수가 12.47명으로, 시/군/구 단위 (평균 4.05) 대비 많은 것으로 나타남.

지자체 예산별로는, 5천억원 이상이 6.6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3천억원 미만(평균 4.92명), 5천억원 미만(3.35명), 2천억원 미만 (평균 2.25명)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지자체별/지자체예산별 디자인 전담부서 보유 기관 총 직원 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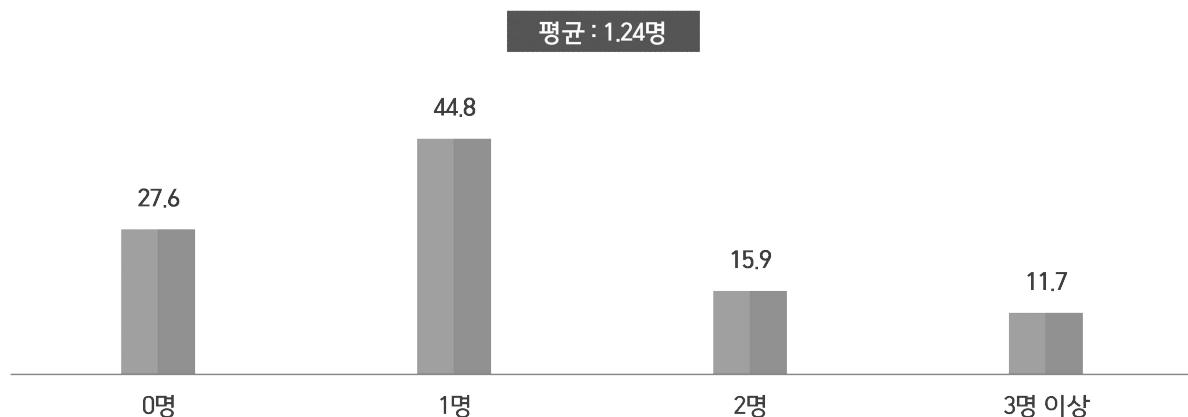
구분		0명	1~2명	3~5명	6~9명	10~19명	20명 이상	평균(명)
지자체		26.9	10.3	42.1	9.7	7.6	3.4	4.66
지자체	시/도	6.7	0.0	33.3	20.0	26.7	13.3	12.47
	시/군/구	23.7	11.9	47.5	8.5	5.9	2.5	4.05
지자체 예산	2천억원 미만	50.0	25.0	0.0	25.0	0.0	0.0	2.25
	3천억원 미만	25.0	8.3	41.7	8.3	8.3	8.3	4.92
	5천억원 미만	30.9	10.9	43.6	10.9	1.8	1.8	3.35
	5천억원 이상	11.3	9.7	51.6	8.1	14.5	4.8	6.66

2-2) 디자인 전담부서 보유 기관 디자이너 수

- » 디자인 전담부서가 있는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디자인 전담부서 내 디자이너 수에 대해 살펴본 결과 평균 1.24명으로 나타남.
세부 항목별로는 '1명'이 44.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0명'(27.6%), '2명'(15.9%), '3명 이상'(11.7%)의 순으로 나타남.

디자인 전담부서 보유 기관 디자이너 수

(단위: %)



- » 구분별 디자인 전담부서 내 디자이너 수는 지자체에서는 평균 1.25명, 중앙부처는 1.17명으로 나타남. 전담부서 유무에 따라서는 전담부서가 있는 경우 1.17명으로 나타났으며, 디자이너만 있는 경우는 평균 1.41명으로 나타남.

▣ 구분별/전담부서별 디자인 전담부서 보유 기관 디자이너 수

(단위: %)

구분		0명	1명	2명	3명 이상	평균(명)
중앙부처 및 지자체		27.6	44.8	15.9	11.7	1.24
구분	지자체	28.6	44.4	14.3	12.8	1.25
	중앙부처	16.7	50.0	33.3	0.0	1.17
전담부서	전담부서 있음	39.6	33.7	12.9	13.9	1.17
	디자이너만 있음	0.0	70.5	22.7	6.8	1.41

- » 지자체 구분별로는, 시/도 단위의 평균 디자인 전담부서 디자이너 수가 2.13명으로, 시/군/구 단위(평균 1.14) 대비 많은 것으로 나타남. 예산별로 살펴보면, 5천억원 이상이 1.5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2천억원 미만 (평균 1.50명), 3천억원 미만(평균 1.08명), 5천억원 미만(평균 0.96명)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지자체별/지자체예산별 디자인 전담부서 보유 기관 디자이너 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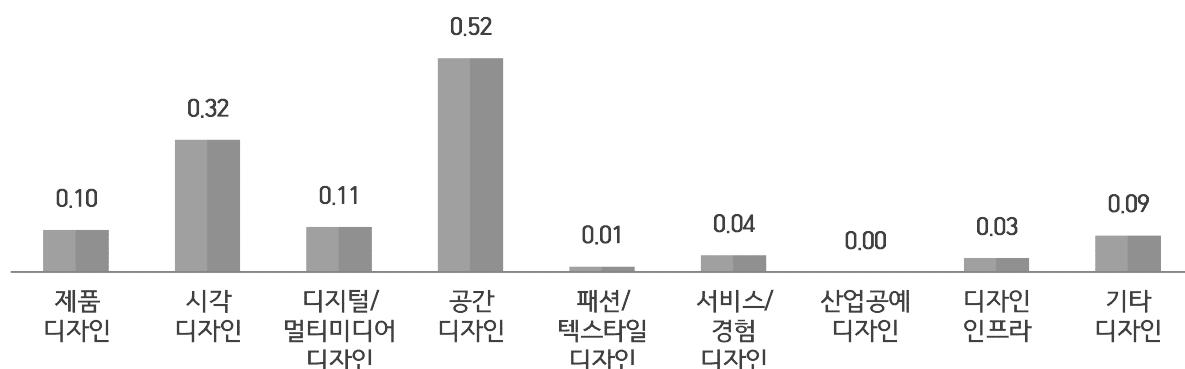
구분		0명	1명	2명	3명 이상	평균(명)
지자체		27.6	44.8	15.9	11.7	1.24
지자체	시/도	33.3	13.3	20.0	33.3	2.13
	시/군/구	28.0	48.3	13.6	10.2	1.14
지자체예산	2천억원 미만	25.0	25.0	25.0	25.0	1.50
	3천억원 미만	25.0	66.7	0.0	8.3	1.08
	5천억원 미만	34.5	45.5	12.7	7.3	0.96
	5천억원 이상	24.2	40.3	17.7	17.7	1.52

2-2-1) 디자인 영역별 디자이너 수

- » 디자인 영역별 디자이너 수에 대해 살펴본 결과 ‘공간디자인’ 분야에서 0.5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시각디자인’(0.32명), ‘디지털/멀티미디어 디자인’(0.11명), ‘제품디자인(0.10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산업공예 디자인’ 분야에서는 디자이너 수가 0.0명으로 나타남.

디자인 영역별 디자이너 수

(단위: 명)



- » 구분별 디자이너 수는 중앙부처는 ‘디지털/멀티미디어 디자인’ 영역에서 1.08명으로 가장 많은 디자이너 수를 보였으며, 지자체는 ‘공간디자인’ 분야에 0.57명으로 가장 많은 디자이너 수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남.
전담부서 유무에 따라서는, 전담부서의 유무와 관계없이 ‘공간디자인’ 분야에서 가장 많은 수의 디자이너를 보임.

▣ 구분별/전담부서별 디자인 영역별 디자이너 수

(단위: 명)

구분		제품 디자인	시각 디자인	디지털/멀티 미디어 디자인	공간 디자인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서비스/경험 디자인	산업공예 디자인	디자인 인프라	기타 디자인
중앙부처 및 지자체		0.10	0.32	0.11	0.52	0.01	0.04	0.00	0.03	0.09
구분	지자체	0.11	0.35	0.02	0.57	0.02	0.05	0.00	0.04	0.10
	중앙부처	0.00	0.08	1.08	0.00	0.00	0.00	0.00	0.00	0.00
전담 부서	전담부서 있음	0.14	0.33	0.02	0.50	0.01	0.06	0.00	0.01	0.10
	디자이너만 있음	0.02	0.32	0.32	0.57	0.02	0.00	0.00	0.09	0.07

- » 지자체 구분별로는, 지자체 구분과 관계없이 ‘공간디자인’ 분야의 디자이너 수가 시/도는 0.80명, 시/군/구는 0.54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시/도와 시/군/구 모두 ‘시각디자인’ 분야의 디자이너 수가 각각 0.67명과 0.31명으로 2번째 순위로 나타남.
- » 예산별 결과 역시 예산 규모와 관계없이 ‘공간디자인’ 분야에서 가장 많은 디자이너 수가 나타난 가운데, 2천억원 미만은 1.25명, 3천억원 미만은 0.92명, 5천억원 미만은 0.40명, 5천억원 이상은 0.61명으로 나타남.

지자체별/지자체예산별 디자인 영역별 디자이너 수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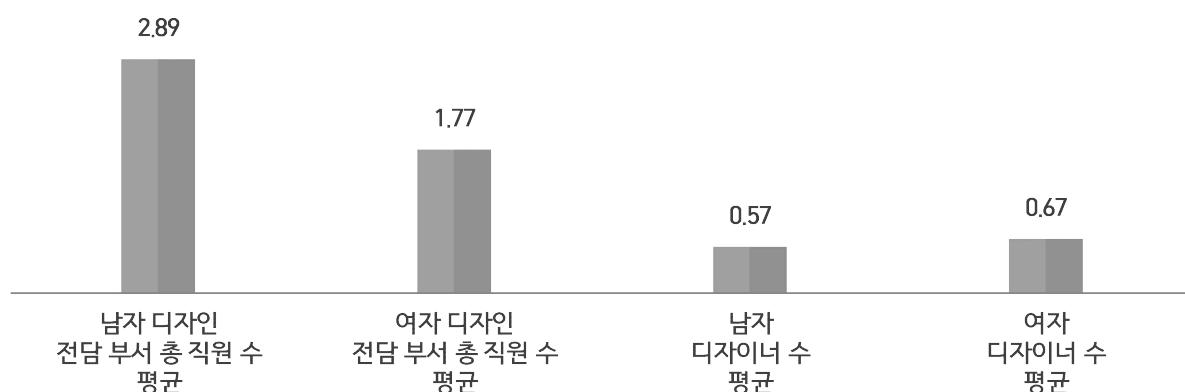
구분		제품 디자인	시각 디자인	디지털/ 멀티 미디어 디자인	공간 디자인	패션/ 텍스타일 디자인	서비스/ 경험 디자인	산업공예 디자인	디자인 인프라	기타 디자인
지자체		0.10	0.32	0.11	0.52	0.01	0.04	0.00	0.03	0.09
지자체	시/도	0.33	0.67	0.00	0.80	0.00	0.00	0.00	0.13	0.20
	시/군/구	0.08	0.31	0.03	0.54	0.02	0.05	0.00	0.03	0.08
지자체 예산	2천억원 미만	0.00	0.25	0.00	1.25	0.00	0.00	0.00	0.00	0.00
	3천억원 미만	0.00	0.00	0.00	0.92	0.00	0.08	0.00	0.00	0.08
	5천억원 미만	0.07	0.33	0.04	0.40	0.02	0.00	0.00	0.05	0.05
	5천억원 이상	0.18	0.44	0.02	0.61	0.02	0.08	0.00	0.03	0.15

2-2-2) 성별 종사자 및 디자이너 수

- » 디자인 전담부서가 있는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디자인 전담부서의 총 직원 수과 디자이너 수를 성별에 따라 살펴본 결과, 디자인 전담부서 내 ‘남자 총 직원 수’는 2.89명으로 ‘여자 총 직원 수’(1.77명) 대비 많은 것으로 나타남. 반면, 디자이너 수는 ‘여자’가 0.67명, ‘남자’가 0.57명으로 여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성별 종사자 및 디자이너 수

(단위: 명)



- » 구분별로 살펴보면, 지자체의 디자인 전담부서 ‘남자 직원 수’는 3.12명으로 ‘여자 직원 수’(1.88명) 대비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자 디자이너 수’는 0.60명으로 ‘여자 디자이너 수’(0.65명) 대비 적은 것으로 나타남. 중앙부처는 총 직원 수 및 디자이너 수가 모두 여성의 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구분별 성별 종사자 및 디자이너 수

(단위: 명)

구분	남자 디자인 전담부서 총 직원 수 평균	여자 디자인 전담부서 총 직원 수 평균	남자 디자이너 수 평균	여자 디자이너 수 평균
중앙부처 및 지자체	2.89	1.77	0.57	0.67
구분	지자체	3.12	1.88	0.60
	중앙부처	0.33	0.58	0.25
0.92				

- » 지자체 구분별로는, 시/도 단위의 평균 디자인 전담부서 직원 수가 '남자' 8.13명, '여자' 4.33명으로, 시/군/구 단위('남자' 2.48명, '여자' 1.57명) 대비 많은 것으로 나타남. 지자체와 관계없이 디자인 전담부서 총 직원 수는 남자가 여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시/군/구 단위 '남자 디자이너 수'는 0.53명으로 '여자 디자이너 수'(0.60명) 대비 적은 것으로 나타남.
- » 예산별로 살펴보면, 디자인 전담부서 총 직원 수는 남녀 모두 5천억원 이상(각각 4.06명, 2.60명)에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3천억원 미만(각각 3.42명, 1.50명)으로 나타남. 한편, '남자 디자이너 수'는 3천억원 미만에서 0.83명으로 가장 많은 수를 보였으며, '여자 디자이너 수'는 5천억원 이상에서 0.81명으로 가장 많은 수를 보임.

지자체별/지자체예산별 성별 종사자 및 디자이너 수

(단위: 명)

구분		남자 디자인 전담부서 총 직원 수 평균	여자 디자인 전담부서 총 직원 수 평균	남자 디자이너 수 평균	여자 디자이너 수 평균
지자체		2.89	1.77	0.57	0.67
지자체	시/도	8.13	4.33	1.13	1.00
	시/군/구	2.48	1.57	0.53	0.60
지자체 예산	2천억원 미만	1.25	1.00	0.75	0.75
	3천억원 미만	3.42	1.50	0.83	0.25
	5천억원 미만	2.13	1.22	0.42	0.55
	5천억원 이상	4.06	2.60	0.71	0.81

3) 2015년 디자인 관련 예산집행금액

3-1) 2015년 디자인 전담부서 보유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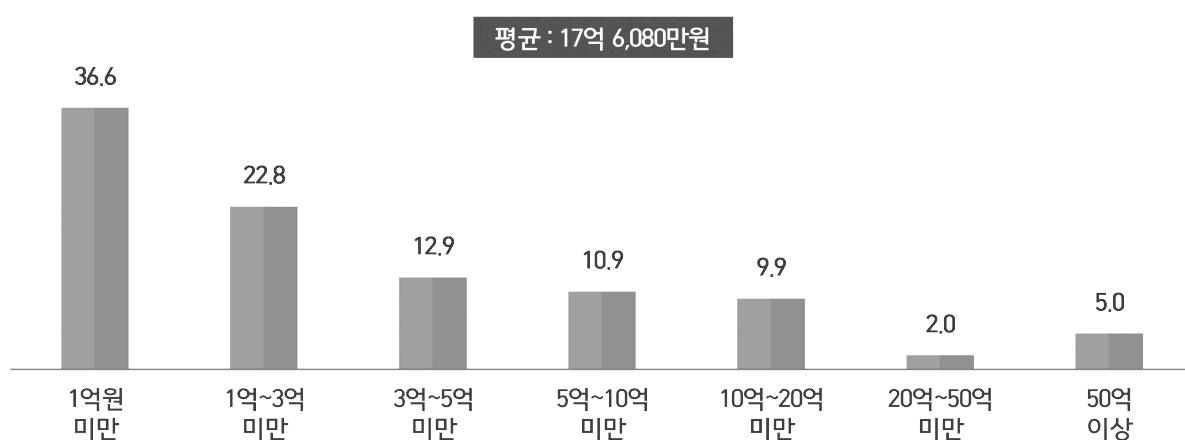
3-1-1) 디자인 용역비

» 디자인 전담부서가 있는 정부기관의 디자인 전담부서 예산 중 디자인 용역비는 평균 17억 6,089만원으로 나타남.

범주별로 살펴보면, '1억원 미만'의 비율이 36.6%로 가장 높고, 다음은 '1억~3억 미만'(22.8%), '3억~5억 미만'(12.9%), '5억~10억 미만'(10.9%) 등의 순으로 나타남.

2015년 디자인 전담부서 예산 - 디자인 용역비

(단위: %)



» 정부기관을 구분해 살펴보면, 중앙부처의 디자인 전담부서 예산은 평균 309억 8,700만원으로 지자체(11억 7,037만원) 대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범주별로 살펴보면, 지자체의 경우 '1억원 미만'의 예산 비율이 37.4%로 가장 높은 반면, 중앙 부처의 경우 '20억~50억 미만'이 50.0%, '50억 이상'이 50.0%의 비율을 보임.

▣ 구분별 2015년 디자인 전담부서 예산 - 디자인 용역비

(단위: %)

구분	1억원 미만	1억~3억 미만	3억~5억 미만	5억~10억 미만	10억~20억 미만	20억~50억 미만	50억 이상	평균 (백만원)
중앙부처 및 지자체	36.6	23.8	12.9	10.9	9.9	2.0	4.0	1,178.09
구분	지자체	37.4	23.2	13.1	11.1	10.1	1.0	4.0
	중앙부처	0.0	0.0	0.0	0.0	50.0	50.0	30,987.00

» 지자체 구분별로 살펴보면, 시/도의 2015년 디자인 전담부서 예산 중 디자인 용역비는 평균 13 억 2,771만원으로 시/군/구(11억 4,446만원)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남.

지자체예산별로는 2천억원 미만의 평균은 0원, 3천억원 미만은 2억 4,675만원, 5천억원 미만은 22 억 5,144만원, 5천억원 이상은 6억 817만원으로 나타남.

▣ 지자체별/지자체예산별 2015년 디자인 전담부서 예산 - 디자인 용역비

(단위: %)

구분		1억원 미만	1억~3억 미만	3억~5억 미만	5억~10억 미만	10억~20억 미만	20억~50억 미만	50억 이상	평균 (백만원)
지자체		36.6	23.8	12.9	10.9	9.9	2.0	4.0	1,178.09
지자체	시/도	14.3	14.3	21.4	7.1	35.7	0.0	7.1	1,327.71
	시/군/구	41.2	24.7	11.8	11.8	5.9	1.2	3.5	1,144.46
지자체예산	2천억원 미만	100.0	0.0	0.0	0.0	0.0	0.0	0.0	0.00
	3천억원 미만	37.5	37.5	0.0	25.0	0.0	0.0	0.0	246.75
	5천억원 미만	47.2	13.9	13.9	8.3	8.3	0.0	8.3	2,251.44
	5천억원 이상	29.6	27.8	14.8	11.1	13.0	1.9	1.9	608.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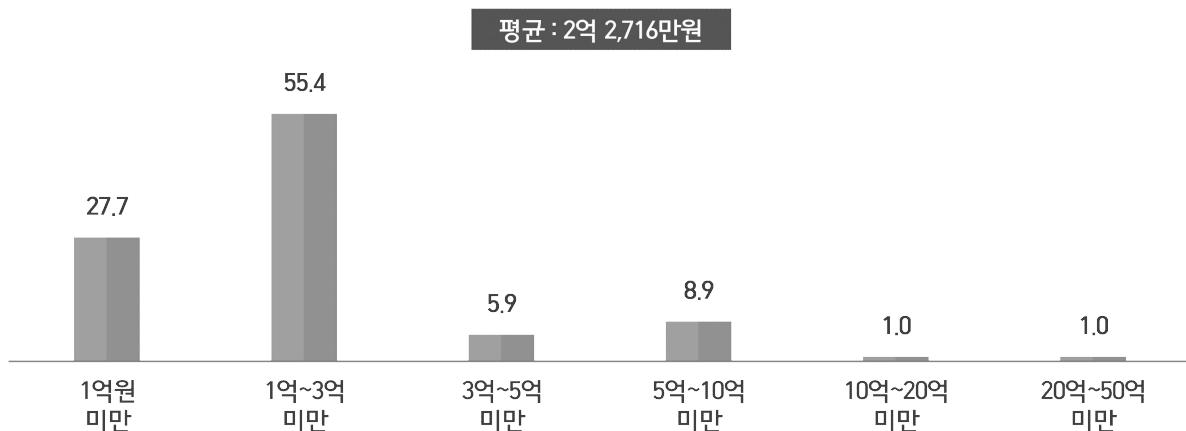
3-1-2) 인건비

» 디자인 전담부서가 있는 정부기관의 디자인 전담부서 인건비는 평균 2억 2,716만원으로 나타남.

인건비를 범주별로 살펴보면, '1억~3억 미만'의 비율이 55.4%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1억원 미만'(27.7%), '5억~10억 미만'(8.9%), '3억~5억 미만'(5.9%) 등의 순으로 나타남.

2015년 디자인 전담부서 인건비

(단위: %)



» 정부기관별 디자인 전담부서 인건비는 지자체에서 평균 2억 2,937만원으로 중앙부처(1억 1,750만원)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남.

범주별로 살펴보면, 지자체의 경우 '1억~3억 미만'의 비율이 55.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중앙부처의 경우 '1억원 미만'과 '1억~3억 미만'의 비율이 각각 50.0%를 차지함.

▣ 구분별 2015년 디자인 전담부서 인건비

(단위: %)

구분		1억원 미만	1억~3억 미만	3억~5억 미만	5억~10억 미만	10억~20억 미만	20억~50억 미만	평균 (백만원)
중앙부처 및 지자체		27.7	55.4	5.9	8.9	1.0	1.0	227.16
구분	지자체	27.3	55.6	6.1	9.1	1.0	1.0	229.37
	중앙부처	50.0	50.0	0.0	0.0	0.0	0.0	117.50

» 지자체 구분별 2015년 디자인 전담부서 인건비는 시/도에서 평균 6억 1,307만원으로 시/군/구(1억 6,618만원)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남.

지자체 예산별로는 2천억원 미만의 평균은 0원, 3천억원 미만은 2억 188만원, 5천억원 미만은 1억 7,231만원, 5천억원 이상은 2억 7,574만원으로 나타남.

▣ 지자체별/지자체예산별 2015년 디자인 전담부서 인건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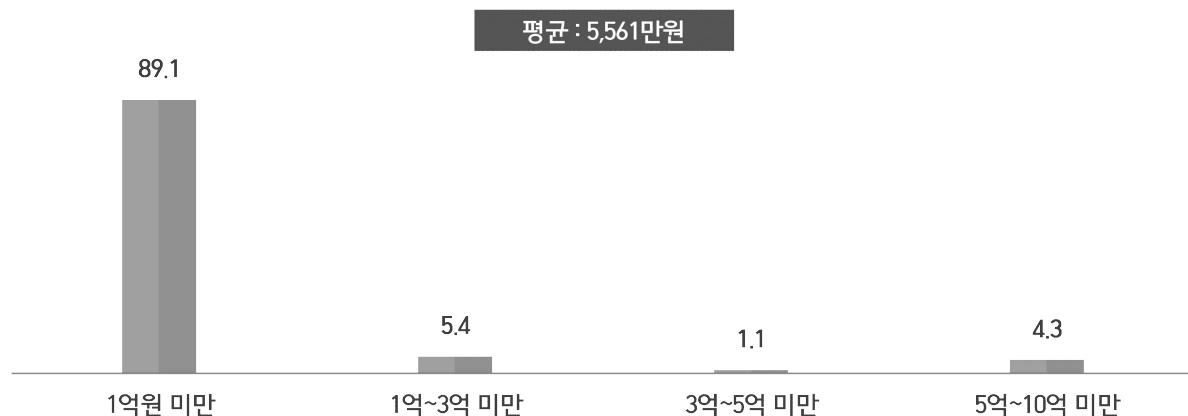
구분		1억원 미만	1억~3억 미만	3억~5억 미만	5억~10억 미만	10억~20억 미만	20억~50억 미만	평균 (백만원)
지자체		27.7	55.4	5.9	8.9	1.0	1.0	227.16
지자체	시/도	0.0	35.7	21.4	35.7	0.0	7.1	613.07
	시/군/구	31.8	58.8	3.5	4.7	1.2	0.0	166.18
지자체예산	2천억원 미만	100.0	0.0	0.0	0.0	0.0	0.0	0.00
	3천억원 미만	25.0	62.5	0.0	12.5	0.0	0.0	201.88
	5천억원 미만	36.1	52.8	5.6	2.8	2.8	0.0	172.31
	5천억원 이상	20.4	57.4	7.4	13.0	0.0	1.9	275.74

3-1-3) 고용되지 않은 인건비

- » 디자인 전담부서가 있는 정부기관 고용되지 않은 인력의 인건비 평균은 5,561만원으로 나타남. 범주별로 살펴보면, '1억원 미만'의 비율이 89.1%로 압도적이었고, 다음은 '1억~3억 미만'(5.4%), '5억~10억 미만'(4.3%), '3억~5억 미만'(1.1%)의 순으로 나타남.

2015년 디자인 전담부서 예산 - 고용되지 않은 인건비

(단위: %)



- » 정부기관별 디자인 전담부서 내 고용되지 않은 인력의 인건비 예산은 지자체에서 5,651만원으로 중앙부처(1,500만원)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남. 범주별로 살펴보면, 지자체의 경우 '1억원 미만'의 비율이 88.9%로 가장 높았고, 중앙부처의 경우 '1억원 미만'의 비율이 100.0%를 차지해 모든 예산이 1억원 미만으로 나타남.

▣ 구분별 2015년 디자인 전담부서 예산 - 고용되지 않은 인건비

(단위: %)

구분	1억원 미만	1억~3억 미만	3억~5억 미만	5억~10억 미만	평균 (백만원)
중앙부처 및 지자체	89.1	5.4	1.1	4.3	55.61
구분	지자체	88.9	5.6	1.1	56.51
	중앙부처	100.0	0.0	0.0	15.00

» 지자체 구분별 고용되지 않은 인력의 인건비 예산은 시/군/구에서 평균 6,101만원으로 시/도(3,207만원)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남.

지자체 예산별로 살펴보면, '2천억원 미만'의 평균은 1억원, '3천억원 미만'은 943만원, '5천억원 미만'은 7,219만원, '5천억원 이상'은 5,453만원으로 나타남.

▣ 지자체별/지자체예산별 2015년 디자인 전담부서 예산 - 고용되지 않은 인건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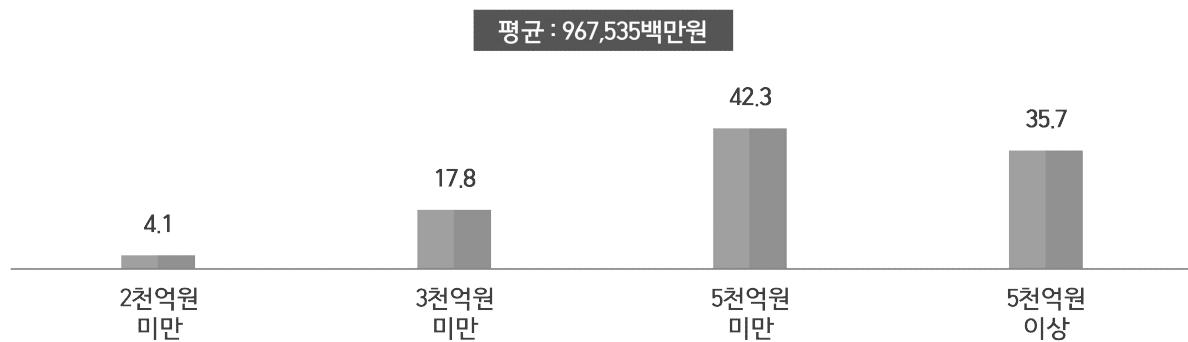
구분		1억원 미만	1억~3억 미만	3억~5억 미만	5억~10억 미만	평균 (백만원)
지자체		89.1	5.4	1.1	4.3	55.61
지자체	시/도	85.7	14.3	0.0	0.0	32.07
	시/군/구	89.5	3.9	1.3	5.3	61.01
지자체예산	2천억원 미만	100.0	0.0	0.0	0.0	1.00
	3천억원 미만	100.0	0.0	0.0	0.0	9.43
	5천억원 미만	90.3	0.0	3.2	6.5	72.19
	5천억원 이상	86.3	9.8	0.0	3.9	54.53

3-1-4) 지방자치단체

- » 2015년 지자체 예산의 평균은 9,675억 3,540만원으로 나타남.
세부항목별로는 '5천억원 미만'이 42.3%로 가장 높고, 다음은 '5천억원 이상'(35.7%), '3천억원 미만'(17.8%) 등의 순으로 나타남.

2015년 지자체 예산

(단위: %)



- » 전담부서별로 살펴보면, 디자인 전담부서가 있는 경우 지자체 예산 평균이 1조 6,039억 2,500만 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전담부서별 2015년 지자체 예산

(단위: %)

구분	2천억원 미만	3천억원 미만	5천억원 미만	5천억원 이상	평균(백만원)
지자체	4.1	17.8	42.3	35.7	967,535
전담부서	전담부서 있음	1.0	8.1	36.4	1,603,925
	디자이너만 있음	8.8	11.8	55.9	535,171
	없음	5.6	28.7	43.5	520,293

- »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시/도의 디자인 전담부서 예산의 평균은 7조 1,016억 4,247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시/군/구 단위의 지자체 예산 평균은 5,020억 49만원으로 나타남.

▣ 전담부서별 2015년 지자체 예산

(단위: %)

구분	2천억원 미만	3천억원 미만	5천억원 미만	5천억원 이상	평균(백만원)
지자체	4.1	17.8	42.3	35.7	967,535
지자체	시/도	0.0	0.0	0.0	7,101,642
	시/군/구	4.5	19.2	45.5	50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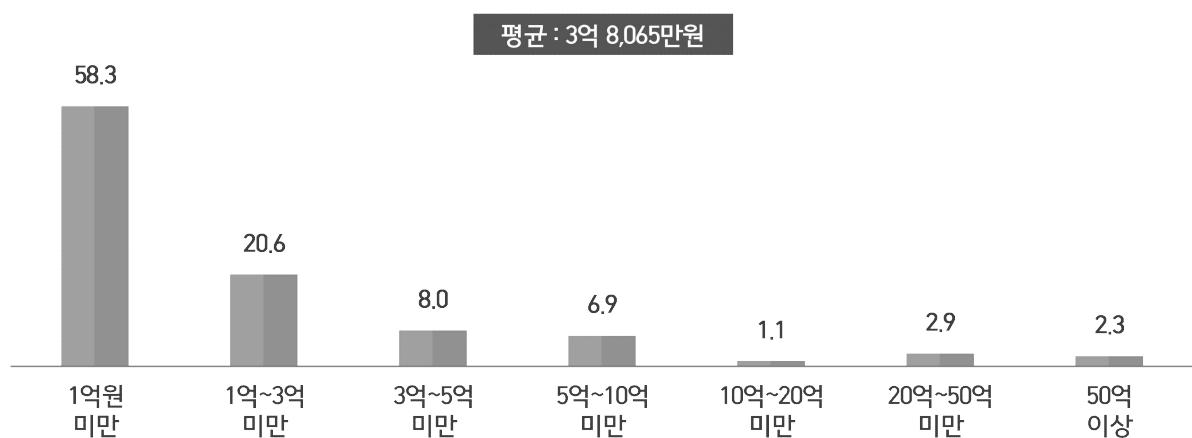
3-2) 2015년 디자인 전담부서 미보유 기관

3-2-1) 디자인 용역비

- » 디자인 전담부서가 없는 정부기관의 사업비 예산 중 디자인 용역비는 평균 3억 8,065만원으로 나타남.
범주별로 살펴보면, '1억원 미만'의 비율이 58.3%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1억~3억'(20.6%), '3억~5억 미만'(8.0%), '5억~10억 미만'(6.9%) 등의 순으로 나타남.

디자인 전담부서 미보유 기관 사업비 예산 - 디자인 용역비

(단위: %)



- » 정부기관을 구분해 살펴보면, 지자체의 디자인 용역비는 평균 4억 5,296만원으로 중앙부처(6,948만원)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남.
범주별로 살펴보면, 지자체의 경우 지자체와 중앙부처 모두 '1억원 미만'의 비율이 각각 50.7%, 90.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1억~3억 미만'의 비율이 각각 23.9%, 6.1%로 높게 나타남.

▣ 구분별/전담부서별 디자인 전담부서 미보유 기관 사업비 예산 - 디자인 용역비

(단위: %)

구분	1억원 미만	1억~3억 미만	3억~5억 미만	5억~10억 미만	10억~20억 미만	20억~50억 미만	50억 이상	평균 (백만원)
중앙부처 및 지자체	58.3	20.6	8.0	6.9	1.1	2.9	2.3	380.65
구분	지자체	50.7	23.9	9.9	8.5	0.7	3.5	452.96
	중앙부처	90.9	6.1	0.0	0.0	3.0	0.0	69.48

- » 지자체 구분별로 살펴보면, 시/도의 2015년 디자인 사업비 예산 중 디자인 용역비(디자인 전담 부서가 없는 기관)는 평균 9억원으로 시/군/구(4억 4,332만원)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남.
 지자체예산별로는 2천억원 미만의 평균은 8,989만원, 3천억원 미만은 5억 8,374만원, 5천억원 미만은 4억 7,453만원, 5천억원 이상은 3억 6,756만원으로 나타남.

지자체별/지자체예산별 디자인 전담부서 미보유 기관 사업비 예산 - 디자인 용역비

(단위: %)

구분		1억원 미만	1억~3억 미만	3억~5억 미만	5억~10억 미만	10억~20억 미만	20억~50억 미만	50억 이상	평균 (백만원)
지자체		58.3	20.6	8.0	6.9	1.1	2.9	2.3	380.65
지자체	시/도	0.0	0.0	33.3	33.3	33.3	0.0	0.0	900.00
	시/군/구	51.8	24.5	9.4	7.9	0.0	3.6	2.9	443.32
지자체예산	2천억원 미만	55.6	44.4	0.0	0.0	0.0	0.0	0.0	89.89
	3천억원 미만	65.7	20.0	5.7	2.9	0.0	0.0	5.7	583.74
	5천억원 미만	47.0	24.2	12.1	7.6	0.0	6.1	3.0	474.53
	5천억원 이상	40.6	21.9	12.5	18.8	3.1	3.1	0.0	367.56

3-2-2) 인건비

- » 디자인 전담부서가 없는 정부기관의 사업비 예산 중 인건비는 평균 1,299만원으로 나타남. 범주별로 살펴보면, '1억원 미만'의 비율이 97.1%로 압도적이었고, 다음은 '1억~3억 미만'(2.3%), '3억~5억 미만'(0.6%)의 비율을 보임.

디자인 전담부서가 없는 기관 사업비 예산 - 인건비

(단위: %)



- » 정부기관을 구분해 살펴보면, 지자체의 인건비 예산은 평균 1,375만원으로 중앙부처(973만원)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남. 범주별로 살펴보면, 지자체와 중앙부처 모두 '1억원 미만'의 비율이 각각 96.5%, 100%로 매우 높게 나타남.

▣ 구분별/전담부서별 디자인 전담부서가 없는 기관 사업비 예산 - 디자인 인건비

(단위: %)

구분		1억원 미만	1억~3억 미만	3억~5억 미만	평균 (백만원)
중앙부처 및 지자체		97.1	2.3	0.6	12.99
구분	지자체	96.5	2.8	0.7	13.75
	중앙부처	100.0	0.0	0.0	9.73

» 지자체 구분별로 살펴보면, 시/도의 2015년 디자인 전담부서가 없는 기관의 인건비 예산은 0원으로 나타났으며, 한편, 시/군/구의 인건비 예산은 1,404만원으로 나타남.

지자체 예산별로는, 예산 규모와 관계없이 '1억원 미만'의 비율이 가장 높은 가운데, 2천억원 미만의 평균은 2,444만원, 3천억원 미만은 849만원, 5천억원 미만은 1,856만원, 5천억원 이상은 656만원으로 나타남.

지자체별/지자체예산별 디자인 전담부서가 없는 기관 디자인 사업비 예산 - 디자인 인건비

(단위: %)

구분		1억원 미만	1억~3억 미만	3억~5억 미만	평균 (백만원)
지자체		97.1	2.3	0.6	12.99
지자체	시/도	100.0	0.0	0.0	0.00
	시/군/구	96.4	2.9	0.7	14.04
지자체예산	2천억원 미만	100.0	0.0	0.0	24.44
	3천억원 미만	97.1	2.9	0.0	8.49
	5천억원 미만	93.9	4.5	1.5	18.56
	5천억원 이상	100.0	0.0	0.0	6.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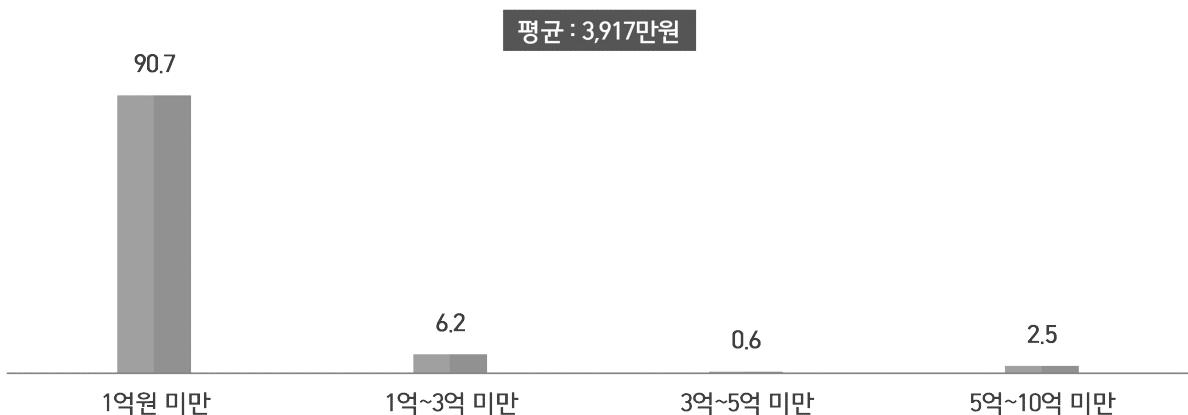
3-2-3) 고용되지 않은 인건비

» 디자인 전담부서가 없는 정부기관의 디자인 사업비 예산 중 고용되지 않은 인건비는 평균 3,917만원으로 나타남.

범주별로 살펴보면, '1억원 미만'의 비율이 90.70%로 압도적이었고, 다음은 '1억~3억 미만'(6.2%), '5억~10억 미만'(2.5%), '3억~5억 미만'(0.6%) 등의 순으로 나타남.

디자인 전담부서 미보유 기관 디자인 사업비 예산 - 고용되지 않은 인건비

(단위: %)



» 정부기관을 구분해 살펴보면, 지자체의 디자인 사업비 예산 중 고용되지 않은 인건비는 평균 4,571만원으로 중앙부처(1,382만원)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남.

범주별로 살펴보면, 지자체와 중앙부처 모두 '1억원 미만'의 비율이 각각 88.3%와 100.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 구분별/전담부서별 디자인 전담부서 미보유 기관 디자인 사업비 예산 - 고용되지 않은 인건비

(단위: %)

구분	1억원 미만	1억~3억 미만	3억~5억 미만	5억~10억 미만	평균 (백만원)
중앙부처 및 지자체	90.7	6.2	0.6	2.5	39.17
구분	지자체	88.3	7.8	0.8	45.71
	중앙부처	100.0	0.0	0.0	13.82

» 지자체 구분별로 살펴보면, 시/도의 2015년 디자인 사업비 예산 중 고용되지 않은 인건비 평균은 1,167만원으로 시/군/구(4,653만원) 대비 낮은 것으로 나타남.

지자체 예산별로는, 예산 규모와 관계없이 '1억원 미만'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난 가운데, 2천억원 미만의 평균은 288만원, 3천억원 미만은 1,785만원, 5천억원 미만은 5,405만원, 5천억원 이상은 7,321만원으로 나타남.

지자체별/지자체예산별 디자인 전담부서 미보유 기관 디자인 사업비 예산 - 고용되지 않은 인건비

(단위: %)

구분		1억원 미만	1억~3억 미만	3억~5억 미만	5억~10억 미만	평균 (백만원)
지자체		90.7	6.2	0.6	2.5	39.17
지자체	시/도	100.0	0.0	0.0	0.0	11.67
	시/군/구	88.0	8.0	0.8	3.2	46.53
지자체예산	2천억원 미만	100.0	0.0	0.0	0.0	2.88
	3천억원 미만	93.9	6.1	0.0	0.0	17.85
	5천억원 미만	83.1	11.9	1.7	3.4	54.05
	5천억원 이상	89.3	3.6	0.0	7.1	73.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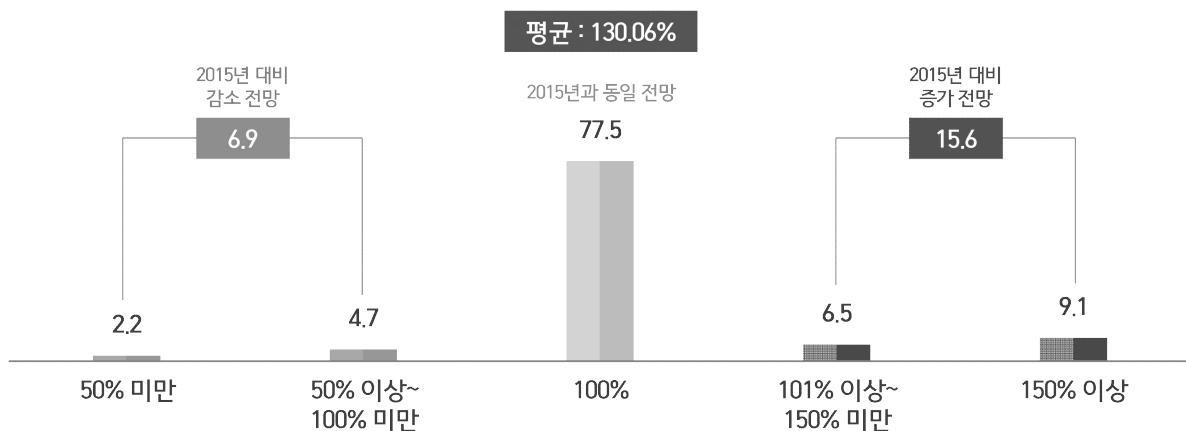
4) 2016년 디자인 관련 예산집행금액 전망

» 2015년 대비 2016년 디자인 관련 예산집행금액 전망은 평균 130.06% 수준으로 2015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범주별로 살펴보면, '2015년과 동일할 것이다'는 전망(100%)이 77.5%로 가장 높은 가운데, '2015년 대비 증가 전망'(100% 초과)은 15.6%, '2015년 대비 감소 전망'(100% 미만)은 6.9%로 나타남.

2016년 디자인 관련 예산집행금액 전망

(단위: %)



» 정부기관을 구분해 살펴보면, 지자체와 중앙부처 모두 증가 전망을 내놓은 가운데, 지자체의 디자인 관련 예산집행금액 전망은 134.30%, 중앙부처는 100.86%로 지자체에서 더 긍정적 전망치를 보임.

전담부서의 유무에 따라 살펴보면, 디자인 전담부서 유무와 관계없이 100% 이상의 전망치로 예산집행금액 증가를 예상한 가운데, 디자이너만 있는 정부기관에서 173.30%로 가장 높은 전망치를 보임.

▣ 구분별/전담부서별 2016년 디자인 관련 예산집행금액 전망

(단위: %)

구분		50% 미만	50% 이상~100% 미만	100%	101% 이상~150% 미만	150% 이상	평균
중앙부처 및 지자체		2.2	4.7	77.5	6.5	9.1	130.06
구분	지자체	2.1	5.4	75.9	6.6	10.0	134.30
	중앙부처	2.9	0.0	88.6	5.7	2.9	100.86
전담부서	전담부서 있음	2.0	5.0	68.3	9.9	14.9	141.45
	디자이너만 있음	0.0	6.8	77.3	6.8	9.1	173.30
	없음	3.1	3.8	84.7	3.8	4.6	106.76

» 지자체 구분별로 살펴보면, 시/군/구는 137.25%로 2016년 디자인 관련 예산집행금액의 증가를 전망한 반면, 시/도(95.47%)는 예산집행금액의 감소를 전망함.

지자체 예산별로는, 예산 규모와 관계없이 디자인 관련 예산집행금액 증가를 전망한 가운데, 특히 2천억원 미만(191.30%)의 예산 규모에서 가장 긍정적 전망치가 나타남.

▣ 지자체별/지자체예산별 2016년 디자인 관련 예산집행금액 전망

(단위: %)

구분		50% 미만	50% 이상~100% 미만	100%	101% 이상~150% 미만	150% 이상	평균
지자체		2.2	4.7	77.5	6.5	9.1	130.06
지자체	시/도	0.0	17.6	64.7	17.6	0.0	95.47
	시/군/구	2.2	4.5	76.8	5.8	10.7	137.25
지자체 예산	2천억원 미만	0.0	0.0	80.0	10.0	10.0	191.30
	3천억원 미만	2.3	4.7	83.7	4.7	4.7	102.51
	5천억원 미만	2.0	3.9	74.5	5.9	13.7	145.86
	5천억원 이상	2.3	8.1	73.3	8.1	8.1	129.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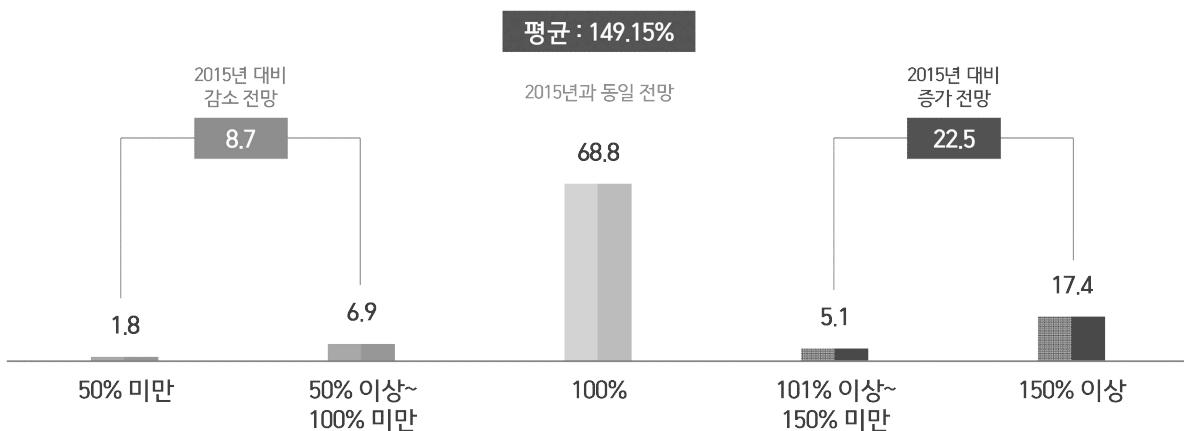
5) 2017년 디자인 관련 예산집행금액 전망

» 2015년 대비 2017년 디자인 관련 예산집행금액 전망은 평균 149.15% 수준으로 2015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범주별로 살펴보면, '2015년과 동일 할 것이다'는 전망(100%)이 68.8%로 가장 높은 가운데, '2015년 대비 증가 전망'(100% 초과)은 22.5%, '2015년 대비 감소 전망'(100% 미만)은 8.7%로 나타남.

2017년 디자인 관련 예산집행금액 전망

(단위: %)



» 정부기관을 구분해 살펴보면, 지자체와 중앙부처 모두 2017년 디자인 관련 예산집행금액의 증가를 전망한 가운데, 지자체(155.31%)의 전망치가 중앙부처(106.74%) 대비 높게 나타남. 전담부서의 유무별로는, 전담부서와 관계없이 모두 긍정적인 전망치를 보인 가운데, 디자이너만 있는 정부기관의 경우 219.32%로 디자인 관련 예산집행금액이 2016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구분별/전담부서별 2017년 디자인 관련 예산집행금액 전망

(단위: %)

구분		50% 미만	50% 이상~100% 미만	100%	101% 이상~150% 미만	150% 이상	평균
중앙부처 및 지자체		1.8	6.9	68.8	5.1	17.4	149.15
구분	지자체	2.1	7.5	66.8	5.4	18.3	155.31
	중앙부처	0.0	2.9	82.9	2.9	11.4	106.74
전담부서	전담부서 있음	2.0	7.9	57.4	6.9	25.7	157.75
	디자이너만 있음	0.0	6.8	68.2	4.5	20.5	219.32
	없음	2.3	6.1	77.9	3.8	9.9	118.95

» 지자체 구분별로 살펴보면, 시/도와 시/군/구에서 모두 긍정적 전망이 나타났으며, 시/군/구(158.52%)의 전망치가 시/도(112.94%) 대비 높게 나타남.

지자체 예산별 결과 역시 예산과 관계없이 모두 긍정적 전망이 나타난 가운데, 5천억원 미만 예산 규모(177.23%)에서 가장 큰 증가폭을 보일 것으로 전망함. 다음은 5천억원 이상(157.33%), 3천억원 미만(110.07%), 2천억원 미만(108.90%)의 순으로 나타남.

지자체별/지자체예산별 2017년 디자인 관련 예산집행금액 전망

(단위: %)

구분		50% 미만	50% 이상~100% 미만	100%	101% 이상~150% 미만	150% 이상	평균
지자체		1.8	6.9	68.8	5.1	17.4	149.15
지자체	시/도	0.0	11.8	58.8	11.8	17.6	112.94
	시/군/구	2.2	7.1	67.4	4.9	18.3	158.52
지자체예산	2천억원 미만	0.0	0.0	90.0	0.0	10.0	108.90
	3천억원 미만	0.0	4.7	79.1	7.0	9.3	110.07
	5천억원 미만	3.9	4.9	64.7	5.9	20.6	177.23
	5천억원 이상	1.2	12.8	60.5	4.7	20.9	157.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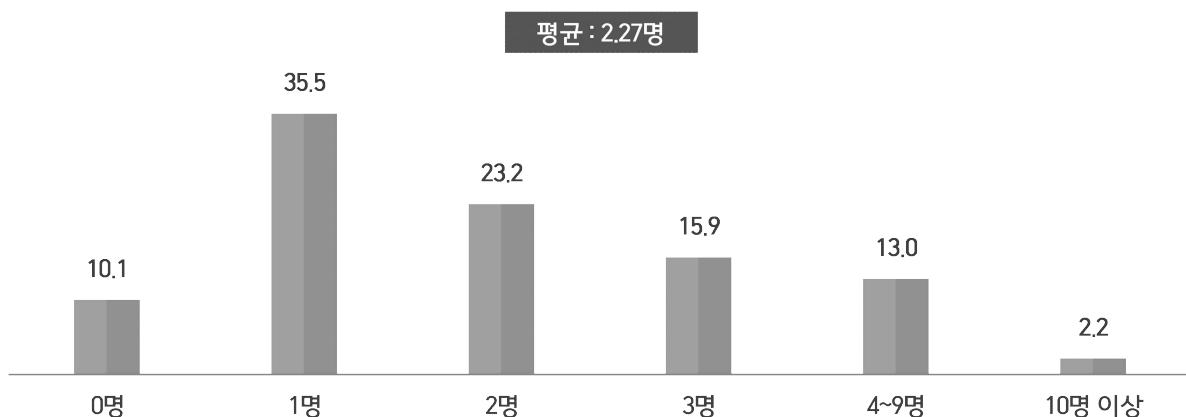
2 디자인 인력

1) 적정 디자이너 수

- » 적정 디자이너 수를 조사한 결과, 평균 2.27명으로 나타남. 범주별로는 '1명'(35.5%), '2명'(23.2%), '3명'(15.9%), '4~9명'(13.0%), '0명'(10.1%), '10명 이상'(2.2%)의 순으로 나타남.

적정 디자인 담당 인력

(단위: %)



- » 정부기관 구분별 적정 디자이너 수는 지자체의 경우 평균 2.39명으로 중앙부처(평균 1.43명) 대비 높게 나타남.

전담부서별로는 전담부서가 있는 경우 평균 3.24명으로 적정 인력 수치가 가장 많았으며, 디자이너만 있는 경우 평균 2.43명, 전담부서가 없는 경우는 평균 1.47명으로 나타남.

▣ 구분별/전담부서별 적정 디자이너 수

(단위: %)

구분		0명	1명	2명	3명	4~9명	10명 이상	평균(명)
중앙부처 및 지자체		10.1	35.5	23.2	15.9	13.0	2.2	2.27
구분	지자체	8.7	34.9	22.8	17.0	14.1	2.5	2.39
	중앙부처	20.0	40.0	25.7	8.6	5.7	0.0	1.43
전담부서	전담부서 있음	5.0	23.8	23.8	17.8	25.7	4.0	3.24
	디자이너만 있음	4.5	25.0	36.4	18.2	13.6	2.3	2.43
	없음	16.0	48.1	18.3	13.7	3.1	0.8	1.47

» 지자체 규모별로 살펴보면, 시/도 단위의 적정 디자이너 수는 평균 5.06명으로 시/군/구(평균 2.19명) 대비 높은 수치를 보임.

예산별 적정 인력은 5천억원 이상(평균 3.29명), 2천억원 미만(평균 2.70명), 3천억원 미만(평균 1.84명), 5천억원 미만(평균 1.84명)으로 나타남.

▣ 지자체별/지자체예산별 적정 디자이너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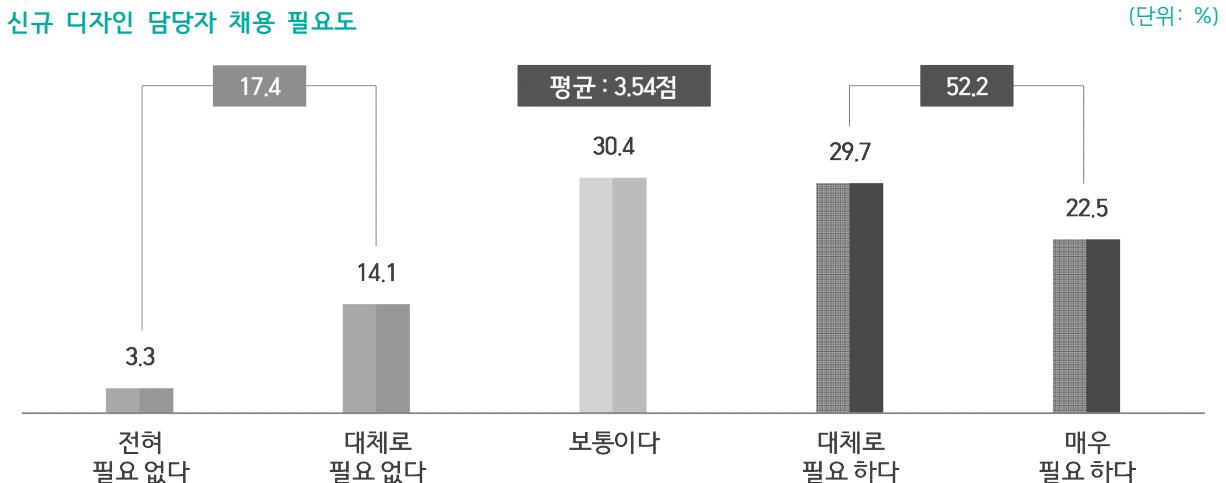
(단위: %)

구분		0명	1명	2명	3명	4~9명	10명 이상	평균(명)
지자체		10.1	35.5	23.2	15.9	13.0	2.2	2.27
지자체	시/도	5.9	11.8	17.6	11.8	41.2	11.8	5.06
	시/군/구	8.9	36.6	23.2	17.4	12.1	1.8	2.19
지자체 예산	2천억원 미만	0.0	40.0	20.0	30.0	0.0	10.0	2.70
	3천억원 미만	18.6	48.8	18.6	9.3	2.3	2.3	1.84
	5천억원 미만	8.8	46.1	20.6	13.7	10.8	0.0	1.84
	5천억원 이상	4.7	14.0	27.9	23.3	25.6	4.7	3.29

2) 신규 디자인 담당자 채용 필요도

» 신규 디자인 담당자 채용 필요도를 조사한 결과, 평균 3.54점으로 나타남.

범주별로 살펴보면, '필요하다'는 52.2%(대체로 : 29.7% + 매우 : 22.5%)로 높고, '필요 없다'는 17.4%(대체로 : 14.1% + 전혀 : 3.3%)로 나타남. '보통이다'는 30.4%의 비율을 보임.



» 구분별 디자인 담당자 채용 필요도는 지자체에서 평균 3.58점으로 중앙부처(평균 3.26점) 대비 높게 나타남. 전담부서 유무에 따른 채용 필요도는, 전담부서가 있는 경우가 평균 3.8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디자이너만 있는 경우(평균 3.57점), 전담부서가 없는 경우(평균 3.32점)의 순으로 나타남.

▣ 구분별/전담부서별 신규 디자인 담당자 채용 필요도

(단위: %)

구분		전혀 필요 없다	대체로 필요 없다	필요 없다	보통이다	대체로 필요 하다	매우 필요 하다	필요 하다	평균(점)
중앙부처 및 지자체		3.3	14.1	17.4	30.4	29.7	22.5	52.2	3.54
구분	지자체	2.9	13.3	16.2	29.5	31.5	22.8	54.4	3.58
	중앙부처	5.7	20.0	25.7	37.1	17.1	20.0	37.1	3.26
전담부서	전담부서 있음	0.0	10.9	10.9	24.8	36.6	27.7	64.4	3.81
	디자이너만 있음	6.8	9.1	15.9	31.8	25.0	27.3	52.3	3.57
	없음	4.6	18.3	22.9	34.4	26.0	16.8	42.7	3.32

» 지자체 규모별 신규 디자인 담당자 채용 필요도는 시/도 단위에서 평균 4.12점으로 시/군/구 단위(평균 3.54점)에 비해 높은 필요도를 보임.

예산별로는 전반적으로 예산 단위가 커짐에 따라 채용 필요도가 커지는 가운데, 2천억원 미만의 단위에서는 평균 3.10점으로 3천억원 미만(평균 3.09점)과 비슷한 필요도를 보임.

▣ 지자체별/지자체예산별 신규 디자인 담당자 채용 필요도

(단위: %)

구분		전혀 필요 없다	대체로 필요 없다	필요 없다	보통 이다	대체로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필요 하다	평균(점)
지자체		3.3	14.1	17.4	30.4	29.7	22.5	52.2	3.54
지자체	시/도	0.0	5.9	5.9	23.5	23.5	47.1	70.6	4.12
	시/군/구	3.1	13.8	17.0	29.9	32.1	21.0	53.1	3.54
지자체예산	2천억원 미만	0.0	40.0	40.0	30.0	10.0	20.0	30.0	3.10
	3천억원 미만	7.0	18.6	25.6	39.5	27.9	7.0	34.9	3.09
	5천억원 미만	2.9	14.7	17.6	27.5	32.4	22.5	54.9	3.57
	5천억원 이상	1.2	5.8	7.0	26.7	34.9	31.4	66.3	3.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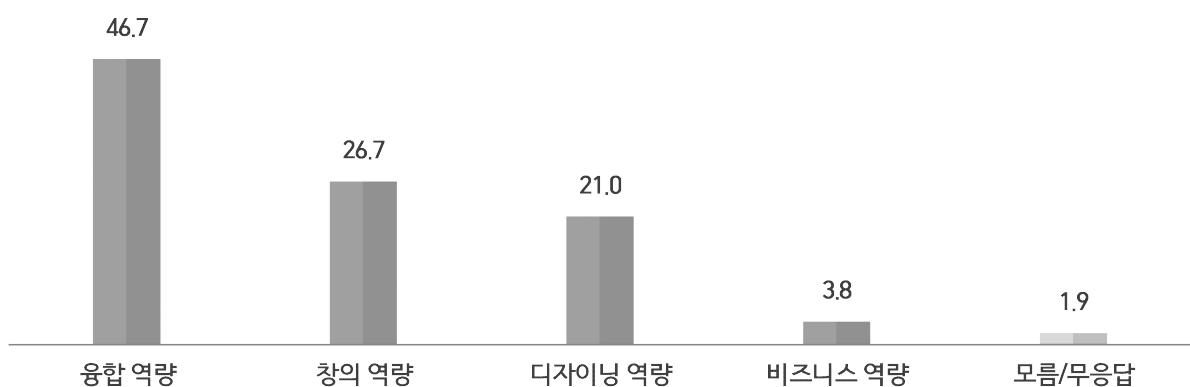
3 디자인 교육

1)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역량

»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역량을 조사한 결과, 46.7%가 '융합 역량'이라는 응답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창의역량'(26.7%), '디자이닝 역량'(21.0%), '비즈니스 역량'(3.8%)의 역량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보임. '모름/무응답'은 1.9%로 나타남.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역량

(단위: %)



» 정부기관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지자체는 '융합 역량'(50.5%)을 가장 필요 역량으로 뽑은 반면, 중앙부처는 '디자이닝 역량'(50.0%)을 가장 필요 역량으로 응답함. 다음 필요 역량으로는 지 자체와 중앙부처 모두 '창의 역량'(각각 25.3%, 40.0%)을 꼽음.
전담부서별로는 전담부서가 있는 경우 '융합 역량'(59.0%)을 가장 필요한 역량으로 꼽은 반면, 디자이너만 있는 기관은 '창의 역량'(36.4%)을 가장 필요 역량으로 꼽음.

▣ 구분별/전담부서별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역량

(단위: %)

구분		융합 역량	창의 역량	디자이닝 역량	비즈니스 역량
중앙부처 및 지자체		46.7	26.7	21.0	3.8
구분	지자체	50.5	25.3	17.9	4.2
	중앙부처	10.0	40.0	50.0	0.0
전담부서	전담부서 있음	59.0	19.7	13.1	4.9
	디자이너만 있음	29.5	36.4	31.8	2.3
	없음	-	-	-	-

- » 지자체 규모별로 살펴보면, 모든 구분에서 '융합 역량'이 디자이너에게 가장 필요한 역량으로 꼽힌 가운데, 시/도(80.0%) 단위에서 시/군/구(47.1%) 단위보다 높게 나타남.
- » 예산별로는 3천억원 미만을 제외한 모든 예산 단위에서 '융합 역량'의 비중이 높은 가운데, 특히 2천억원 미만에서 66.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3천억원 미만의 예산 단위에서는 '창의 역량'(55.6%)을 디자이너에게 가장 필요한 역량이라고 나타남.

지자체별/지자체예산별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역량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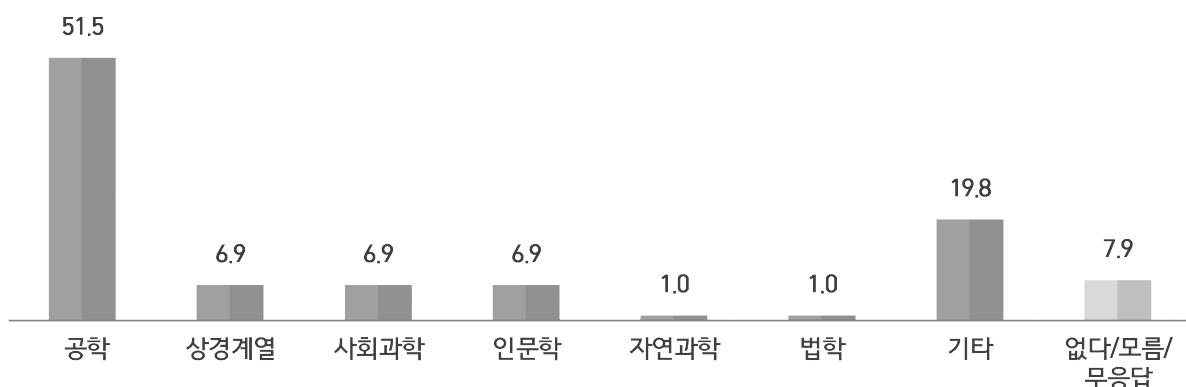
구분		융합 역량	창의 역량	디자이닝 역량	비즈니스 역량
지자체		46.7	26.7	21.0	3.8
지자체	시/도	80.0	10.0	0.0	10.0
	시/군/구	47.1	27.1	20.0	3.5
지자체예산	2천억원 미만	66.7	33.3	0.0	0.0
	3천억원 미만	33.3	55.6	11.1	0.0
	5천억원 미만	47.2	22.2	25.0	2.8
	5천억원 이상	55.3	21.3	14.9	6.4

2) 필요 인력의 전공 분야

» 필요한 인력의 전공 분야에 대해 조사한 결과, '공학' 분야가 51.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했으며, 그 외 '상경계열', '사회과학', '인문학' 분야는 6.9%, '자연과학'과 '법학' 분야는 1.0% 를 차지함. '기타'는 19.8%, '없다/모름/무응답'은 7.9%로 나타남.

필요 인력의 전공 분야

(단위: %)



» 정부기관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지자체와 중앙부처 모두 '공학'(각각 51.5%, 50.0%) 분야의 인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중앙부처의 경우 '공학'과 '기타'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서 0.0% 의 응답률을 보여, '상경계열', '사회과학' 등의 전공 분야 인재에 대한 필요도는 낮게 나타남.

▣ 구분별/전담부서별 필요 인력의 전공 분야

(단위: %)

구분		공학	상경계열	사회과학	인문학	자연과학	법학	기타
중앙부처 및 지자체		51.5	6.9	6.9	6.9	1.0	1.0	19.8
구분	지자체	51.5	7.1	7.1	7.1	1.0	1.0	19.2
	중앙부처	50.0	0.0	0.0	0.0	0.0	0.0	50.0

- » 지자체 규모별로 살펴보면, 모든 구분에서 ‘공학’ 전공의 인재에 대한 필요 비중이 높은 가운데, 시/도(57.1%) 단위 응답률이 시/군/구(50.6%) 단위에 비해 높게 나타남.
- » 예산별 결과 역시 모든 예산 단위에서 ‘공학’ 전공 인재의 필요도가 높게 나타난 가운데, 특히 2천억 원 미만에서는 100.0%로 매우 높은 응답률을 보임. ‘자연과학’ 전공의 경우 3천억원 미만의 예산 단위에서 12.5%의 필요도를 보임.

지자체별/지자체예산별 필요 인력의 전공 분야

(단위: %)

구분		공학	상경계열	사회과학	인문학	자연과학	법학	기타
지자체		51.5	6.9	6.9	6.9	1.0	1.0	19.8
지자체	시/도	57.1	0.0	0.0	7.1	0.0	0.0	21.4
	시/군/구	50.6	8.2	8.2	7.1	1.2	1.2	18.8
지자체 예산	2천억원 미만	100.0	0.0	0.0	0.0	0.0	0.0	0.0
	3천억원 미만	25.0	12.5	12.5	0.0	12.5	0.0	12.5
	5천억원 미만	50.0	11.1	8.3	5.6	0.0	0.0	19.4
	5천억원 이상	55.6	3.7	5.6	9.3	0.0	1.9	2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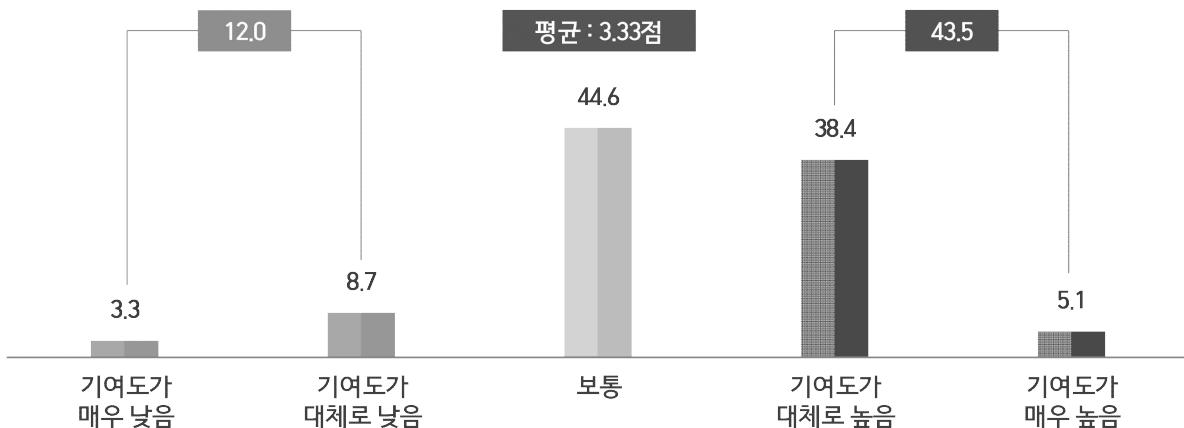
4) 대학 디자인 교육의 기여도

» 대학 디자인 교육의 기여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평균 3.33점으로 나타남.

범주별로 살펴보면, '보통'의 응답이 44.6%로 가장 많았으며, '기여도가 높음'('대체로 높음': 38.4% + '매우 높음': 5.1%)의 응답이 43.5%, '기여도가 낮음'('대체로 낮음': 8.7% + '매우 낮음': 3.3%)의 응답 비율은 12.0%를 차지함.

대학 디자인 교육의 기여도

(단위: %)



» 정부기관 구분별 대학 디자인 교육의 기여도는 지자체에서 평균 3.34점, 중앙부처에서 평균 3.31점으로 비슷한 기여도 수준을 보임.

전담부서별로 살펴보면, 딜레이너만 있는 경우 평균 3.50점으로 가장 높은 기여도를 보였으며, 다음은 전담부서가 있는 경우(평균 3.34점), 전담부서가 없는 경우(평균 3.27점)의 순으로 나타남.

▣ 구분별/전담부서별 대학 디자인 교육의 기여도

(단위: %)

구분		매우 낮음	대체로 낮음	낮음	보통	대체로 높음	매우 높음	높음	평균(점)
중앙부처 및 지자체		3.3	8.7	12.0	44.6	38.4	5.1	43.5	3.33
구분	지자체	3.3	8.7	12.0	44.0	39.0	5.0	44.0	3.34
	중앙부처	2.9	8.6	11.4	48.6	34.3	5.7	40.0	3.31
전담부서	전담부서 있음	4.0	7.9	11.9	44.6	37.6	5.9	43.6	3.34
	디자이너만 있음	2.3	6.8	9.1	38.6	43.2	9.1	52.3	3.50
	없음	3.1	9.9	13.0	46.6	37.4	3.1	40.5	3.27

» 지자체 규모별 대학 디자인 교육 기여도는 시/도(평균 3.24점) 단위 대비 시/군/구(3.34점) 단위에서 높은 기여도를 보임.

예산별로 살펴보면, 예산 단위가 커짐에 따라 기여도 점수가 높아졌으며, 그 중 5천억원 이상에서는 평균 3.38점의 기여도를 보임.

▣ 지자체별/지자체예산별 대학 디자인 교육의 기여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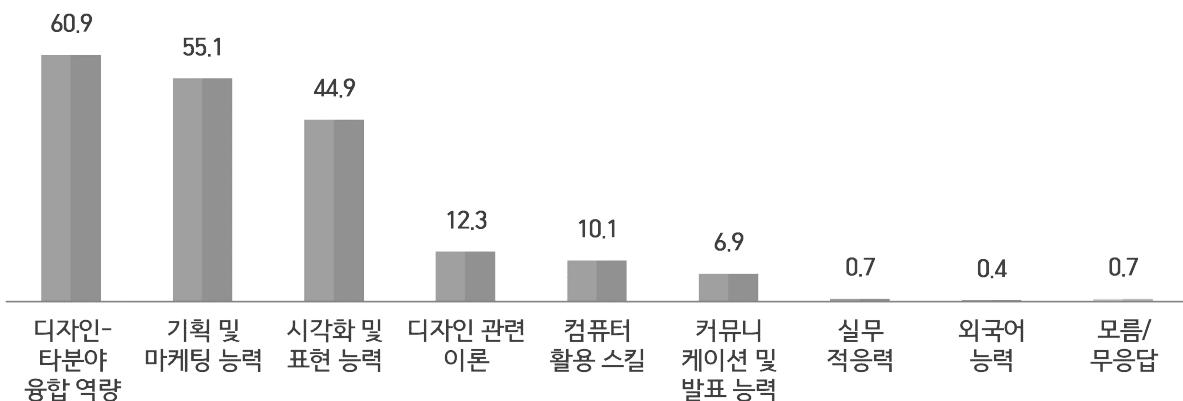
구분		매우 낮음	대체로 낮음	낮음	보통	대체로 높음	매우 높음	높음	평균(점)
지자체		3.3	8.7	12.0	44.6	38.4	5.1	43.5	3.33
지자체	시/도	11.8	5.9	17.6	41.2	29.4	11.8	41.2	3.24
	시/군/구	2.7	8.9	11.6	44.2	39.7	4.5	44.2	3.34
지자체 예산	2천억원 미만	0.0	20.0	20.0	30.0	50.0	0.0	50.0	3.30
	3천억원 미만	4.7	11.6	16.3	46.5	37.2	0.0	37.2	3.16
	5천억원 미만	2.9	8.8	11.8	41.2	42.2	4.9	47.1	3.37
	5천억원 이상	3.5	5.8	9.3	47.7	34.9	8.1	43.0	3.38

4) 보강되어야 할 디자인 전공 대학교육

» 보강되어야 할 대학 디자인 전공을 조사한 결과(중복응답 기준), '디자인-타분야 융합 역량'이 60.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은 '기획 및 마케팅 능력'(55.1%), '시각화 및 표현 능력'(44.9%), '디자인 관련 이론'(12.3%) 등이 보강되어야 할 전공으로 조사됨.

보강되어야 할 디자인 전공 대학교육

(단위: %, 중복응답)



» 정부기관 구분별로는, 지자체와 중앙부처 모두 '디자인-타분야 융합 역량'을 가장 보강되어야 할 전공으로 뽑았으며, 다음 보강 전공으로 '기획 및 마케팅 능력'을 꼽았음. 특히 '디자인-타분야 융합 역량'에 대해 지자체 응답률은 61.4%로 중앙부처(57.1%) 대비 높게 나타남. 전담부서별로는 전담부서가 있거나 디자이너만 있는 경우 '디자인-타분야 융합 역량'(각각 70.3%, 61.4%)에 대한 보강 필요성을 크게 느낀 반면, 전담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시각화 및 표현 능력'(55.0%)을 가장 보강되어야 할 대학 디자인 전공으로 응답함.

▣ 구분별/전담부서별 보강되어야 할 디자인 전공 대학교육

(단위: %, 중복응답)

구분		디자인-타분야 융합 역량	기획 및 마케팅 능력	시각화 및 표현 능력	디자인 관련 이론	컴퓨터 활용 스킬	커뮤니케이션 및 발표 능력	실무 적응력	외국어 능력
중앙부처 및 지자체		60.9	55.1	44.9	12.3	10.1	6.9	0.7	0.4
구분	지자체	61.4	55.6	44.0	12.0	9.5	6.6	0.8	0.4
	중앙부처	57.1	51.4	51.4	14.3	14.3	8.6	0.0	0.0
전담부서	전담부서 있음	70.3	53.5	38.6	12.9	4.0	9.9	1.0	1.0
	디자이너만 있음	61.4	61.4	29.5	11.4	15.9	11.4	0.0	0.0
	없음	53.4	54.2	55.0	12.2	13.0	3.1	0.8	0.0

- » 지자체 규모별로 살펴보면, 모든 구분에서 '디자인-타분야 융합 역량'의 비중이 다른 전공 대비 높은 가운데, 시/도(70.6%) 단위 응답률이 시/군/구(60.7%) 단위 대비 높게 나타남. 예산별 결과는 5천억원 미만을 제외한 모든 예산 단위에서 '디자인-타분야 융합 역량'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5천억원 미만은 '기획 및 마케팅 능력'(57.8%)을 가장 보강이 필요한 대학 디자인 전공으로 나타남.

지자체별/지자체예산별 보강되어야 할 디자인 전공 대학교육

(단위: %, 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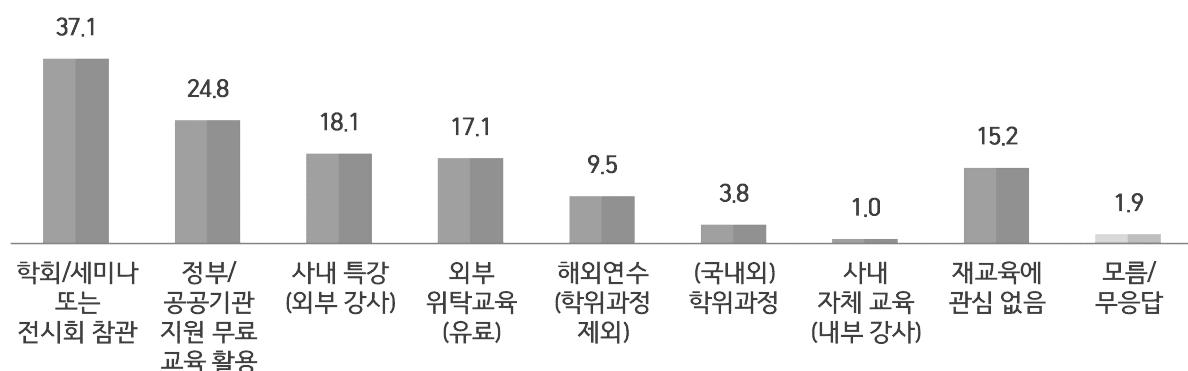
구분		디자인-타분야 융합 역량	기획 및 마케팅 능력	시각화 및 표현 능력	디자인 관련 이론	컴퓨터 활용 스킬	커뮤니케이션 및 발표능력	실무 적응력	외국어 능력
지자체		60.9	55.1	44.9	12.3	10.1	6.9	0.7	0.4
지자체	시/도	70.6	52.9	23.5	11.8	11.8	11.8	5.9	0.0
	시/군/구	60.7	55.8	45.5	12.1	9.4	6.3	0.4	0.4
지자체 예산	2천억원 미만	70.0	40.0	50.0	20.0	0.0	10.0	0.0	0.0
	3천억원 미만	62.8	53.5	48.8	11.6	9.3	9.3	0.0	0.0
	5천억원 미만	52.0	57.8	48.0	11.8	11.8	5.9	1.0	0.0
	5천억원 이상	70.9	55.8	36.0	11.6	8.1	5.8	1.2	1.2

5) 선호하는 디자이너 재교육 방법

» 선호하는 디자이너 재교육 방법을 조사한 결과(중복응답 기준), 37.1%가 ‘학회/세미나 또는 전시회 참관’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정부/공공기관 지원 무료 교육 활용’(24.8%), ‘사내 특강(외부강사)’(18.1%), ‘외부 위탁교육(유료)’(17.1%) 순의 선호도(활용도)를 보임.

선호하는 디자이너 재교육 방법

(단위: %, 중복응답)



» 정부기관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지자체의 경우 ‘학회/세미나 또는 전시회 참관’ 방법을 38.9%로 가장 선호하는 한편, 중앙부처는 ‘정부/공공기관 지원 무료 교육 활용’(50.0%)을 가장 선호(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전담부서별로는 전담부서가 있거나 디자이너만 있는 경우 모두 ‘학회/세미나 또는 전시회 참관’(각각 37.7%, 36.4%)의 선호도(활용도)가 높게 나타남.

▣ 구분별/전담부서별 선호하는 디자이너 재교육 방법

(단위: %, 중복응답)

구분		학회/세미나 또는 전시회 참관	정부/공공기관 지원 무료 교육 활용	사내 특강(외부 강사)	외부 위탁교육(유료)	해외연수(학위과정 제외)	(국내외) 학위과정	사내 자체 교육(내부 강사)	재교육에 관심 없음
중앙부처 및 지자체		37.1	24.8	18.1	17.1	9.5	3.8	1.0	15.2
구분	지자체	38.9	22.1	18.9	18.9	10.5	3.2	1.1	14.7
	중앙부처	20.0	50.0	10.0	0.0	0.0	10.0	0.0	20.0
전담부서	전담부서 있음	37.7	29.5	24.6	21.3	6.6	3.3	0.0	11.5
	디자이너만 있음	36.4	18.2	9.1	11.4	13.6	4.5	2.3	20.5
	없음	-	-	-	-	-	-	-	-

- » 지자체 규모별로 살펴보면, 시/도 단위에서는 '사내 특강(외부 강사)'(50.0%)을 디자이너 재교육 방법으로 가장 선호(많이 활용)하는 반면, '외부 위탁교육(유료)', '해외연수(학위과정 제외)', '(국내외)학위과정'은 0.0%의 비율을 보임. 시/군/구 단위에서는 '학회/세미나 또는 전시회 참관'(40.0%)을 디자이너 재교육 방법으로 가장 선호(많이 활용)하는 반면, '사내 자체 교육(내부 강사)'은 0.0%의 비율을 보임.
- » 예산별로도 모든 예산 단위에서 '학회/세미나 또는 전시회 참관'의 선호(활용)도가 높은 가운데, 특히 3천억원 미만(66.7%)에서 높음.

지자체별/지자체예산별 선호하는 디자이너 재교육 방법

(단위: %, 중복응답)

구분		학회/ 세미나 또는 전시회 참관	정부/ 공공기관 지원 무료 교육 활용	사내 특강 (외부 강사)	외부 위탁교육 (유료)	해외연수 (학위과정 제외)	(국내외) 학위과정	사내 자체 교육 (내부 강사)	재교육에 관심 없음
지자체		37.1	24.8	18.1	17.1	9.5	3.8	1.0	15.2
지자체	시/도	30.0	30.0	50.0	0.0	0.0	0.0	10.0	10.0
	시/군/구	40.0	21.2	15.3	21.2	11.8	3.5	0.0	15.3
지자체 예산	2천억원 미만	33.3	0.0	0.0	0.0	33.3	0.0	0.0	33.3
	3천억원 미만	66.7	22.2	22.2	11.1	11.1	0.0	0.0	22.2
	5천억원 미만	41.7	16.7	5.6	30.6	13.9	5.6	0.0	11.1
	5천억원 이상	31.9	27.7	29.8	12.8	6.4	2.1	2.1	1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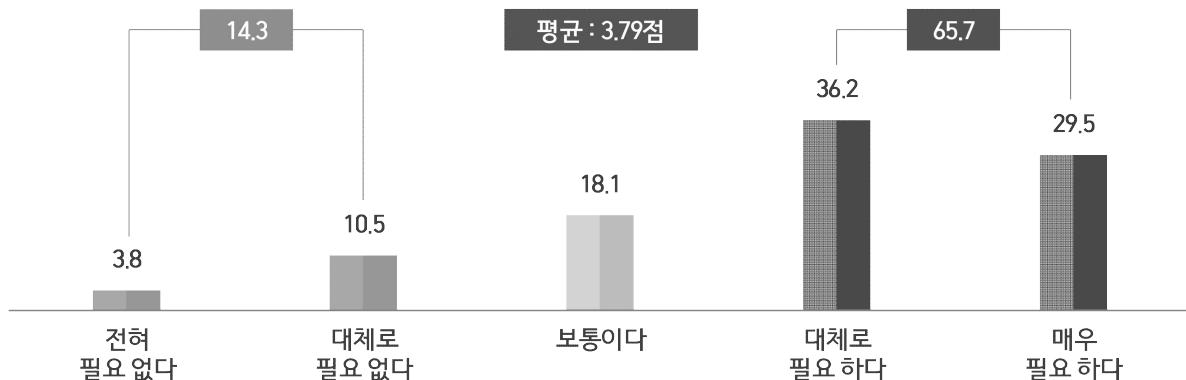
6) 디자인 교육 필요도

» 디자인 교육이 필요한 정도를 조사한 결과, 평균 3.79점으로 나타남.

범주별로 살펴보면, '필요하다'('대체로 필요하다': 36.2% + '매우 필요하다': 29.5%)는 응답이 65.7%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필요 없다'('대체로 필요 없다': 10.5% + '전혀 필요 없다': 3.8%)라고 응답한 비율은 14.3%로 나타남.

직원 디자인 교육 필요도

(단위: %)



* 모름/무응답: 1.9%

» 정부기관 구분별로 살펴보면, 직원 디자인 교육 필요도는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며, 시/도 단위는 평균 3.78점, 시/군/구 단위는 평균 3.80점으로 나타남. 전담부서 유모별 필요도는 전담부서가 있는 경우가 평균 3.88점으로, 디자이너만 있는 경우(평균 3.66점) 대비 높은 필요도를 보임.

▣ 구분별/전담부서별 직원 디자인 교육 필요도

(단위: %)

구분		전혀 필요 없다	대체로 필요 없다	필요 없다	보통이다	대체로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필요 하다	평균(점)
중앙부처 및 지자체		3.8	10.5	14.3	18.1	36.2	29.5	65.7	3.79
구분	지자체	4.2	11.6	15.8	16.8	33.7	31.6	65.3	3.78
	중앙부처	0.0	0.0	0.0	30.0	60.0	10.0	70.0	3.80
전담부서	전담부서 있음	4.9	6.6	11.5	19.7	29.5	36.1	65.6	3.88
	디자이너만 있음	2.3	15.9	18.2	15.9	45.5	20.5	65.9	3.66
	없음	-	-	-	-	-	-	-	-

- » 지자체 규모별로 살펴보면, 모든 구분에서 비슷한 수준의 필요도를 보인 가운데, 시/도 단위에서는 평균 3.70점, 시/군/구 단위에서는 평균 3.80점의 필요도를 보임. 예산별 직원 디자인 교육 필요도는 예산 단위가 커짐에 따라 필요도가 커지는 경향을 보인 가운데, 2천억원 미만(평균 3.33점), 3천억원 미만(평균 3.56점), 5천억원 미만(평균 3.63점), 5천억원 이상(평균 3.98점)으로 나타남.

지자체별/지자체예산별 직원 디자인 교육 필요도

(단위: %)

구분		전혀 필요 없다	대체로 필요 없다	필요 없다	보통이다	대체로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필요 하다	평균(점)
지자체		3.8	10.5	14.3	18.1	36.2	29.5	65.7	3.79
지자체	시/도	10.0	0.0	10.0	30.0	30.0	30.0	60.0	3.70
	시/군/구	3.5	12.9	16.5	15.3	34.1	31.8	65.9	3.80
지자체 예산	2천억원 미만	0.0	33.3	33.3	0.0	66.7	0.0	66.7	3.33
	3천억원 미만	0.0	33.3	33.3	11.1	22.2	33.3	55.6	3.56
	5천억원 미만	5.6	13.9	19.4	16.7	36.1	25.0	61.1	3.63
	5천억원 이상	4.3	4.3	8.5	19.1	31.9	38.3	70.2	3.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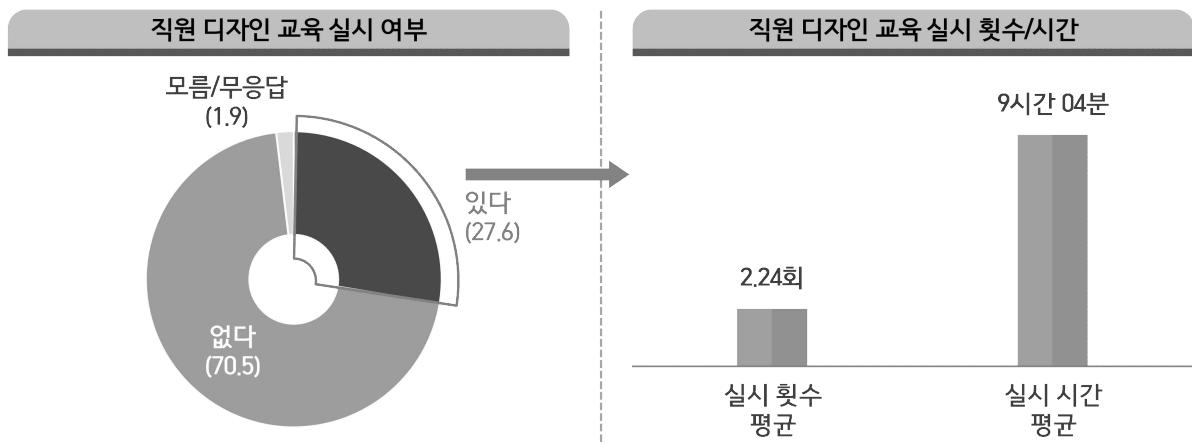
7) 디자인 교육 실시 여부 및 횟수/시간

» 디자인 교육을 실시했는지 조사한 결과, '있다'의 비율이 27.6%로 나타남.

직원 디자인 교육을 실시한 기관을 대상으로 횟수 및 시간을 조사한 결과, 교육 '실시 시간'은 평균 9시간 4분으로 나타났고, '실시 횟수'는 평균 2.24회로 나타남.

디자인 교육 실시 여부 및 횟수/시간

(단위: %)



- » 정부기관 구분별 디자인 교육 실시 여부는 '있다'의 응답이 지자체(27.4%)에서 중앙부처(30.0%) 대비 낮게 나타남. 직원 디자인 교육 횟수 평균은 지자체는 2.15번, 중앙부처는 3.00번이었으며, 교육 시간 평균은 지자체 8.48시간, 중앙부처 13.67시간으로 나타남.
- » 전담부서 별로는 전담부서의 유무와 관계없이 비슷한 수준의 교육 실시 정도를 보인 반면, 교육 시간의 경우 디자이너만 있는 경우(14.25시간)가 전담부서가 있는 경우(5.13시간)에 비해 높은 시간을 보임.

▣ 구분별/전담부서별 디자인 교육 실시 여부 및 횟수/시간

(단위: %)

구분	직원 디자인 교육 실시 여부		직원 디자인 교육 실시 횟수/시간	
	있다	없다	횟수 평균	시간 평균
중앙부처 및 지자체	27.6	70.5	2.24	9.04
구분	지자체	70.5	2.15	8.48
	중앙부처	70.0	3.00	13.67
전담부서	전담부서 있음	68.9	2.00	5.13
	디자이너만 있음	72.7	2.58	14.25
	없음	-	-	-

- » 지자체 규모별로 살펴보면, 직원 디자인 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다'의 응답은 시/도 단위(30.0%)가 시/군/구(27.1%) 단위 대비 높게 나타남. 한편 교육 시간의 평균은 시/군/구(9.14시간) 단위에서 시/도(3.67시간) 단위 대비 높게 나타남.
- » 예산별 직원 디자인 교육 실시 경험이 있는 비율은 5천억원 이상(34.0%), 2천억원 미만(33.3%), 3천억원 미만(22.2%), 5천억원 미만(19.4%)의 순으로 나타남. 직원 디자인 교육 실시 횟수는 3천억원 미만(2.50번)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실시 시간 역시 3천억원 미만(20시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지자체별/지자체예산별 디자인 교육 실시 여부 및 횟수/시간

(단위: %)

구분		직원 디자인 교육 실시 여부		직원 디자인 교육 실시 횟수/시간	
		있다	없다	횟수 평균	시간 평균
지자체		27.6	70.5	2.24	9.04
지자체	시/도	30.0	70.0	2.67	3.67
	시/군/구	27.1	70.6	2.09	9.14
지자체 예산	2천억원 미만	33.3	66.7	1.00	4.00
	3천억원 미만	22.2	77.8	2.50	20.00
	5천억원 미만	19.4	77.8	2.43	15.29
	5천억원 이상	34.0	63.8	2.06	5.06

7-1) 실시한 디자인 교육 분야

» 실시한 디자인 교육 분야를 살펴본 결과(중복응답 기준), '유니버설 디자인'이 14.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공공디자인'(12.4%), '셉테드'(4.8%), '도시경관'(3.8%)의 순서로 나타남. 그 외에도 '범죄예방 디자인', '카드뉴스', '도시계획', '디자인 스쿨과정', '어린이 체험교실' 등의 분야에 대한 교육이 실시됨.

▣ 실시한 디자인 교육 분야

(단위: %, 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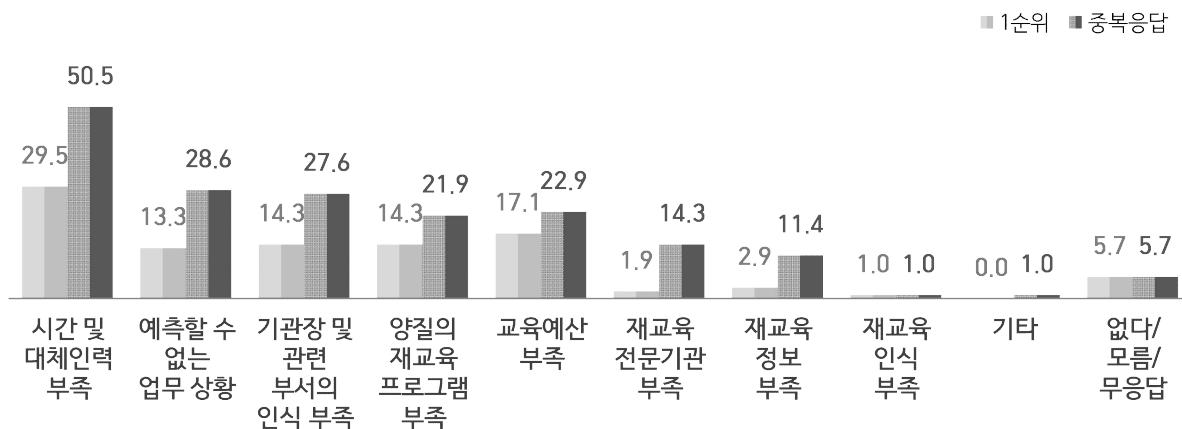
구 분	비율
유니버설 디자인	14.3
공공디자인	12.4
셉테드	4.8
도시경관	3.8
사내특강(외부강사)	1.9
범죄예방디자인	1.9
내,외부세미나 및 학회	1.9
웹디자인	1.0
온라인 홍보 관련 - 인포그래픽	1.0
카드뉴스	1.0
영상	1.0
도시계획	1.0
디자인 마인드 함양	1.0
사례학습	1.0
공무원 워크샵	1.0
경관색채	1.0
디자인 스쿨과정	1.0
도시재생	1.0
시민디자인역량강화교육	1.0
어린이 체험교실	1.0
건축디자인	1.0
공공건축	1.0
선진사례검학	1.0
없음	60.0

8) 디자이너 재교육 시 애로사항

- » 디자이너 재교육 시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중복응답 기준), 50.5%가 '시간 및 대체인력 부족'을 꼽았고, 다음으로 '예측할 수 없는 업무 상황'(28.6%), '기관장 및 관련 부서의 인식 부족'(27.6%), '교육예산 부족'(22.9%) 등의 순으로 나타남. 1순위 응답 역시 '시간 및 대체인력 부족'이 29.5%로 가장 높게 나타남.

디자이너 재교육 시 애로사항

(단위: %)



- » 정부기관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지자체와 중앙부처 모두 '시간 및 대체인력 부족'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으며, 특히 중앙부처는 100.0%의 높은 비율을 보임. 다음 애로사항으로 지자체는 '예측할 수 없는 업무 상황'(30.5%), 중앙부처는 '교육예산 부족'(40.0%)을 꼽음. 전담부서별 결과 역시 전담부서가 있거나 디자이너만 있는 경우 모두 '시간 및 대체인력 부족'(각각 42.6%, 61.4%)을 주요 큰 애로사항으로 꼽음.

▣ 구분별/전담부서별 디자이너 재교육 시 애로사항

(단위: %, 중복응답)

구분	시간 및 대체인력 부족	예측할 수 없는 업무 상황	기관장 및 관련 부서의 인식 부족	양질의 재교육 프로그램 부족	교육예산 부족	재교육 전문기관 부족	재교육 정보 부족	재교육 인식 부족	기타
중앙부처 및 지자체	50.5	28.6	27.6	21.9	22.9	14.3	11.4	1.0	1.0
구분	지자체	45.3	30.5	29.5	23.2	21.1	14.7	11.6	1.1
	중앙부처	100.0	10.0	10.0	10.0	40.0	10.0	10.0	0.0
전담부서	전담부서 있음	42.6	31.1	23.0	31.1	18.0	16.4	13.1	1.6
	디자이너만 있음	61.4	25.0	34.1	9.1	29.5	11.4	9.1	0.0
	없음	-	-	-	-	-	-	-	-

- » 지자체 규모별로 살펴보면, 시/도 단위에서는 '양질의 재교육 프로그램 부족'을 60.0%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으며, 다음은 '재교육 전문기관 부족'(50.0%)을 꼽음.
시/군/구 단위에서는 '시간 및 대체인력 부족'을 47.1%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예측할 수 없는 업무 상황'(32.9%)을 꼽음.
- » 예산별로는 2천억원 미만을 제외한 모든 예산 단위에서 '시간 및 대체인력 부족'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나타났으며, 2천억 원 미만의 경우 '예측할 수 없는 업무 상황'에 100.0%의 높은 비율을 보임.

지자체별/지자체예산별 디자이너 재교육 시 애로사항

(단위: %, 중복응답)

구분		시간 및 대체인력 부족	예측할 수 없는 업무 상황	기관장 및 관련 부서의 인식 부족	양질의 재교육 프로그램 부족	교육예산 부족	재교육 전문기관 부족	재교육 정보 부족	재교육 인식부족	기타
지자체		50.5	28.6	27.6	21.9	22.9	14.3	11.4	1.0	1.0
지자체	시/도	30.0	10.0	30.0	60.0	10.0	50.0	10.0	0.0	0.0
	시/군/구	47.1	32.9	29.4	18.8	22.4	10.6	11.8	1.2	1.2
지자체 예산	2천억원 미만	66.7	100.0	0.0	0.0	33.3	0.0	0.0	0.0	0.0
	3천억원 미만	55.6	44.4	44.4	11.1	0.0	0.0	22.2	0.0	0.0
	5천억원 미만	44.4	33.3	30.6	16.7	13.9	13.9	11.1	0.0	2.8
	5천억원 이상	42.6	21.3	27.7	31.9	29.8	19.1	10.6	2.1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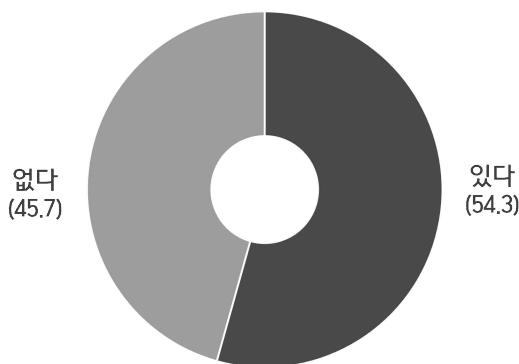
4 기타

1)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또는 마스터플랜 여부

- » 정부기관의 공공디자인에 대해 가이드라인 또는 마스터플랜이 ‘있다’는 54.3%로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절반가량이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또는 마스터플랜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또는 마스터플랜 여부

(단위: %)



- » 정부기관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또는 마스터플랜이 ‘있다’는 지자체가 58.1%로 중앙부처(28.6%) 대비 높게 나타남.
전담부서별로 살펴보면, 전담부서가 있거나 디자이너만 있는 정부기관의 경우가 높음.

▣ 구분별/전담부서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또는 마스터플랜 여부

(단위: %)

구분		있다	없다
중앙부처 및 지자체		54.3	45.7
구분	지자체	58.1	41.9
	중앙부처	28.6	71.4
전담부서	전담부서 있음	77.2	22.8
	디자이너만 있음	61.4	38.6
	없음	34.4	65.6

- » 지자체 구분별로 살펴보면, 시/도와 시/군/구 모두 가이드라인 및 마스터플랜이 '없다'가 높은 가운데, 특히 시/도는 82.4%로 시/군/구(56.3%) 대비 높음.
- » 지자체 예산별로는 2천억원 미만 예산 규모와 3천억원 미만의 예산 규모에서는 '없다'가 '있다'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5천억원 미만과 5천억원 이상 예산 규모에서는 '있다'의 비율이 '없다'의 비율보다 높게 나타남. 또한 예산규모가 커짐에 따라 '있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지자체별/지자체예산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또는 마스터플랜 여부

(단위: %)

구분		있다	없다
지자체		54.3	45.7
지 자 체	시/도	82.4	17.6
	시/군/구	56.3	43.8
지 자 체 예 산	2천억원 미만	30.0	70.0
	3천억원 미만	30.2	69.8
	5천억원 미만	53.9	46.1
	5천억원 이상	80.2	19.8

2) 디자인 예산 집행방법별 비율

- » 디자인 관련 예산 집행 시 기관에서 직접 용역을 발주하는 비중은 기관 평균 91.18%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반면, 산하기관을 통해 발주하는 비율은 평균 6.61%, 그 외 기타 발주 비율은 평균 2.21%로 낮게 나타남.

디자인 예산 집행방법별 비율

(단위: %)



- » 모든 지자체 구분과 디자인 전담부서 구분에서 '기관 직접 용역 발주'의 비율이 가장 높은 가운데, 특히 지자체(92.47%)와 전담부서와 디자이너가 없는 기관(94.96%)에서 높게 나타남.

▣ 구분별/전담부서별 디자인 예산 집행 방법별 비율

(단위: %)

구분		기관 직접 용역 발주 비중 평균	산하기관을 통해 발주 비중 평균	기타 발주 비중 평균
중앙부처 및 지자체		91.18	6.61	2.21
구분	지자체	92.47	5.41	2.12
	중앙부처	82.29	14.86	2.86
전담 부서	전담부서 있음	89.11	8.61	2.28
	디자이너만 있음	84.66	13.52	1.82
	없음	94.96	2.75	2.29

- » 지자체 구분별로 살펴보면, 지자체 구분과 관계없이 ‘기관 직접 용역 발주’의 비중이 가장 큰 가운데, 시/군/구는 94.62%, 시/도는 64.12%의 비중을 보임. ‘산하기관을 통해 발주’ 비중은 시/도에서 24.12%로 시/군/구(4.00%) 대비 높게 나타남.
- » 지자체 예산별 결과 역시 ‘기관 직접 용역 발주’의 비중이 90.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난 가운데, 특히 3천억원 미만에서 94.65%로 가장 높게 나타남. ‘산하기관을 통해 발주’하는 비중은 5천억원 이상 예산 기관에서 6.63%로 다른 예산 규모 대비 높은 비중을 차지함.

지자체별/지자체예산별 디자인 예산 집행 방법별 비율

(단위: %)

구분		기관 직접 용역 발주 비중 평균	산하기관을 통해 발주 비중 평균	기타 발주 비중 평균
지자체		91.18	6.61	2.21
지자체	시/도	64.12	24.12	11.76
	시/군/구	94.62	4.00	1.38
지자체 예산	2천억원 미만	92.00	0.00	8.00
	3천억원 미만	94.65	3.02	2.33
	5천억원 미만	93.09	5.93	0.98
	5천억원 이상	90.70	6.63	2.67

3) 디자인 사업 발주방법별 비율

- » 공공디자인이 포함된 사업을 발주할 경우, 설계·시공 등과 디자인산업 부분을 분리하여 발주하는 ‘분리발주’와 포함하여 발주하는 ‘포함발주’의 비중을 살펴본 결과, ‘포함발주’ 비중이 평균 64.31%로 ‘분리 발주’(35.69%)보다 높게 나타남.

디자인 사업 발주방법별 비율

(단위: %)



- » 정부기관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포함발주’의 비중이 ‘분리발주’ 비중을 앞서는 가운데, 특히 ‘포함발주’ 비중은 지자체(66.22%)에서 중앙부처(51.14%)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전담부서별로 살펴보면, 디자인 전담부서 유무와 관계없이 ‘포함 발주’의 비중이 60.0% 이상으로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남.

▣ 구분별/전담부서별 디자인 사업 발주방법별 비율

(단위: %)

구분		분리발주 비중 평균	포함발주 비중 평균
중앙부처 및 지자체		35.69	64.31
구분	지자체	33.78	66.22
	중앙부처	48.86	51.14
전담부서	전담부서 있음	37.92	62.08
	디자이너만 있음	38.52	61.48
	없음	33.02	66.98

» 지자체 규모별로 살펴보면, 모든 구분에서 ‘포함발주’의 비중이 높은 가운데, 시/도 단위는 60.88%, 시/군/구 단위는 66.63%로 나타남.

예산별로도 모든 예산 단위에서 ‘포함 발주’의 비중이 높은 가운데, 예산 단위가 커질수록 ‘포함 발주’ 비중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임.

지자체별/지자체예산별 디자인 사업 발주방법별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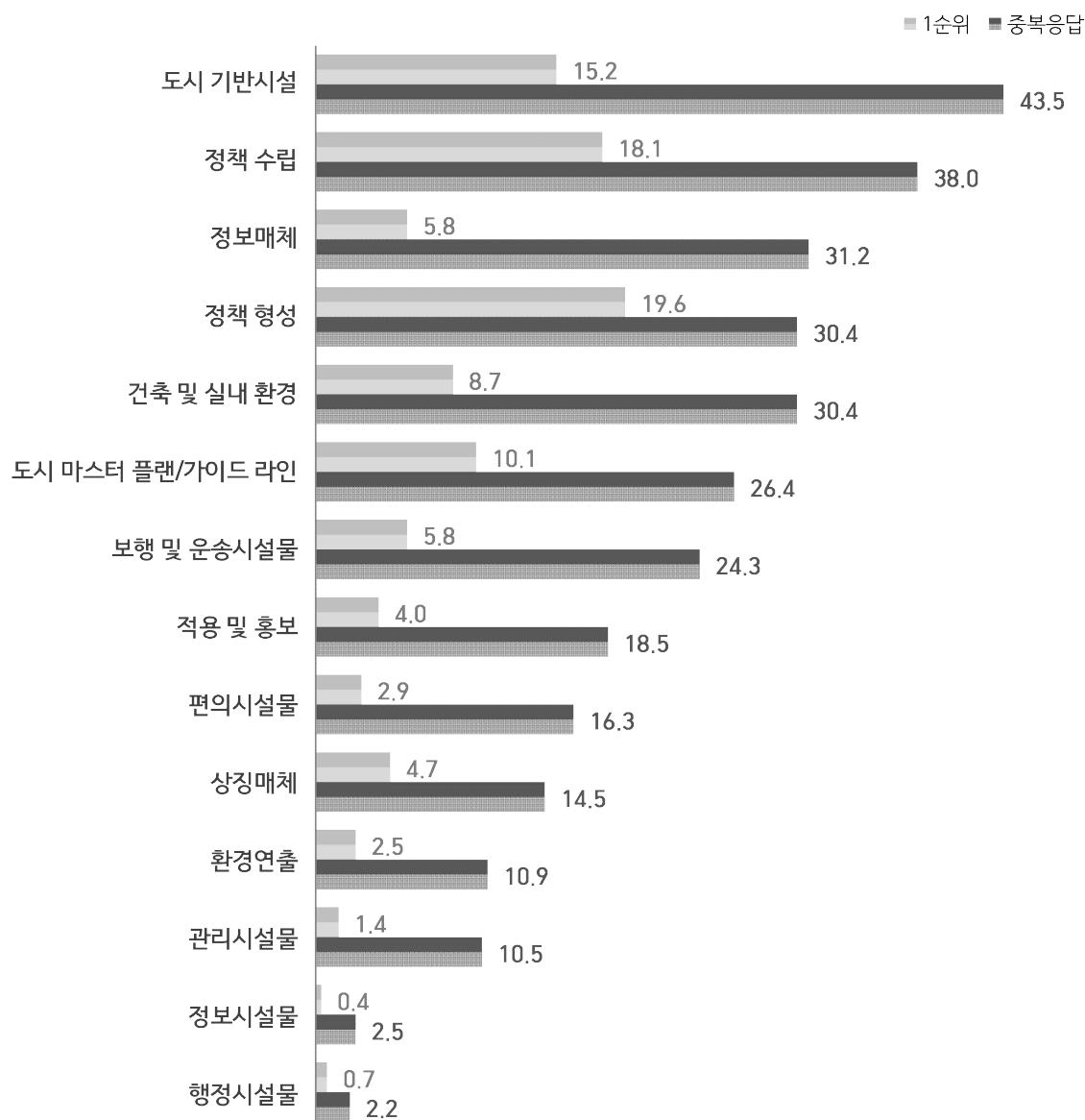
구분		분리발주 비중 평균	포함발주 비중 평균
지자체		35.69	64.31
지자체	시/도	39.12	60.88
	시/군/구	33.37	66.63
지자체 예산	2천억원 미만	16.50	83.50
	3천억원 미만	34.88	65.12
	5천억원 미만	28.68	71.32
	5천억원 이상	41.28	58.72

4) 공공디자인사업 중 가장 효과 있는 정책

- » 공공디자인사업 중 가장 효과 있는 정책을 살펴본 결과(중복응답 기준), '도시기반시설'이 43.5%로 가장 높음. 다음으로는 '정책 수립'(38.0%), '정보매체'(31.2%), '정책 형성'(30.4%)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1순위 응답 기준에서는 '정책 형성'(19.6%), '정책 수립'(18.1%), '도시 기반시설'(15.2%) 등의 순으로 나타남.

공공디자인사업 중 가장 효과 있는 정책

(단위: %)



- » 정부기관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지자체는 '도시기반시설'(47.7%)을 가장 효과 있는 정책으로 꼽았으며, 다음은 '정책 수립'(35.3%), '건축 및 실내 환경'(32.8%)의 순으로 나타남. 한편 중앙부처는 '정책 형성'(60.0%)을 가장 효과 있는 정책으로 꼽았으며, '정책 수립'(57.1%), '적용 및 홍보'(48.6%), '정보매체'(40.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 전담부서별로 살펴보면, 전담부서가 있는 기관의 경우와 없는 기관의 경우 '도시기반시설'을 가장 효과 있는 정책으로 꼽은 반면, 디자이너만 있는 기관의 경우 '정책 형성'(45.5%)을 가장 효과 있는 정책으로 꼽았음.

구분별/전담부서별 공공디자인사업 중 가장 효과 있는 정책

(단위: %, 중복응답)

구분		도시 기반시설	정책 수립	정보매체	정책 형성	건축 및 실내 환경	도시 마스터 플랜/ 가이드 라인	보행 및 운송 시설물
중앙부처 및 지자체		43.5	38.0	31.2	30.4	30.4	26.4	24.3
구분	지자체	47.7	35.3	29.9	26.1	32.8	27.8	27.0
	중앙부처	14.3	57.1	40.0	60.0	14.3	17.1	5.7
전담 부서	전담부서 있음	48.5	41.6	28.7	27.7	28.7	29.7	31.7
	디자이너만 있음	36.4	43.2	31.8	45.5	20.5	22.7	15.9
	없음	42.0	33.6	32.8	27.5	35.1	25.2	21.4

구분		적용 및 홍보	편의 시설물	상징매체	환경연출	관리 시설물	정보 시설물	행정 시설물
중앙부처 및 지자체		18.5	16.3	14.5	10.9	10.5	2.5	2.2
구분	지자체	14.1	18.3	12.4	11.2	12.0	2.5	2.5
	중앙부처	48.6	2.9	28.6	8.6	0.0	2.9	0.0
전담 부서	전담부서 있음	12.9	18.8	5.9	10.9	10.9	1.0	3.0
	디자이너만 있음	31.8	20.5	13.6	11.4	6.8	0.0	0.0
	없음	18.3	13.0	21.4	10.7	11.5	4.6	2.3

- » 지자체 규모별로 살펴보면, 시/도 단위에서는 '정책 수립'(64.7%)을 가장 효과 있는 정책으로 꼽았으며, '도시 기반시설'(35.3%), '정보매체'(35.3%), '적용 및 홍보'(29.4%) 등의 순으로 나타남. 시/군/구 단위에서는 '도시 기반시설'(48.7%)을 가장 효과 있는 정책으로 꼽았으며, 다음은 '건축 및 실내 환경'(33.5%), '정책 수립'(33.0%), '정보매체'(29.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 예산별로는 모든 예산 단위에서 '도시 기반시설'이 가장 효과 있는 정책으로 꼽혔으며, 특히 3천억 원 미만(53.5%)에서 높은 응답률을 보임.

지자체별/지자체예산별 공공디자인사업 중 가장 효과 있는 정책

(단위: %, 중복응답)

구분		도시 기반시설	정책 수립	정보매체	정책 형성	건축 및 실내 환경	도시 마스터 플랜/ 가이드 라인	보행 및 운송 시설물
지자체		43.5	38.0	31.2	30.4	30.4	26.4	24.3
지자체	시/도	35.3	64.7	35.3	23.5	23.5	17.6	23.5
	시/군/구	48.7	33.0	29.5	26.3	33.5	28.6	27.2
지자체예산	2천억원 미만	40.0	20.0	40.0	30.0	30.0	40.0	20.0
	3천억원 미만	53.5	25.6	20.9	20.9	39.5	27.9	32.6
	5천억원 미만	46.1	32.4	34.3	22.5	32.4	27.5	26.5
	5천억원 이상	47.7	45.3	27.9	32.6	30.2	26.7	2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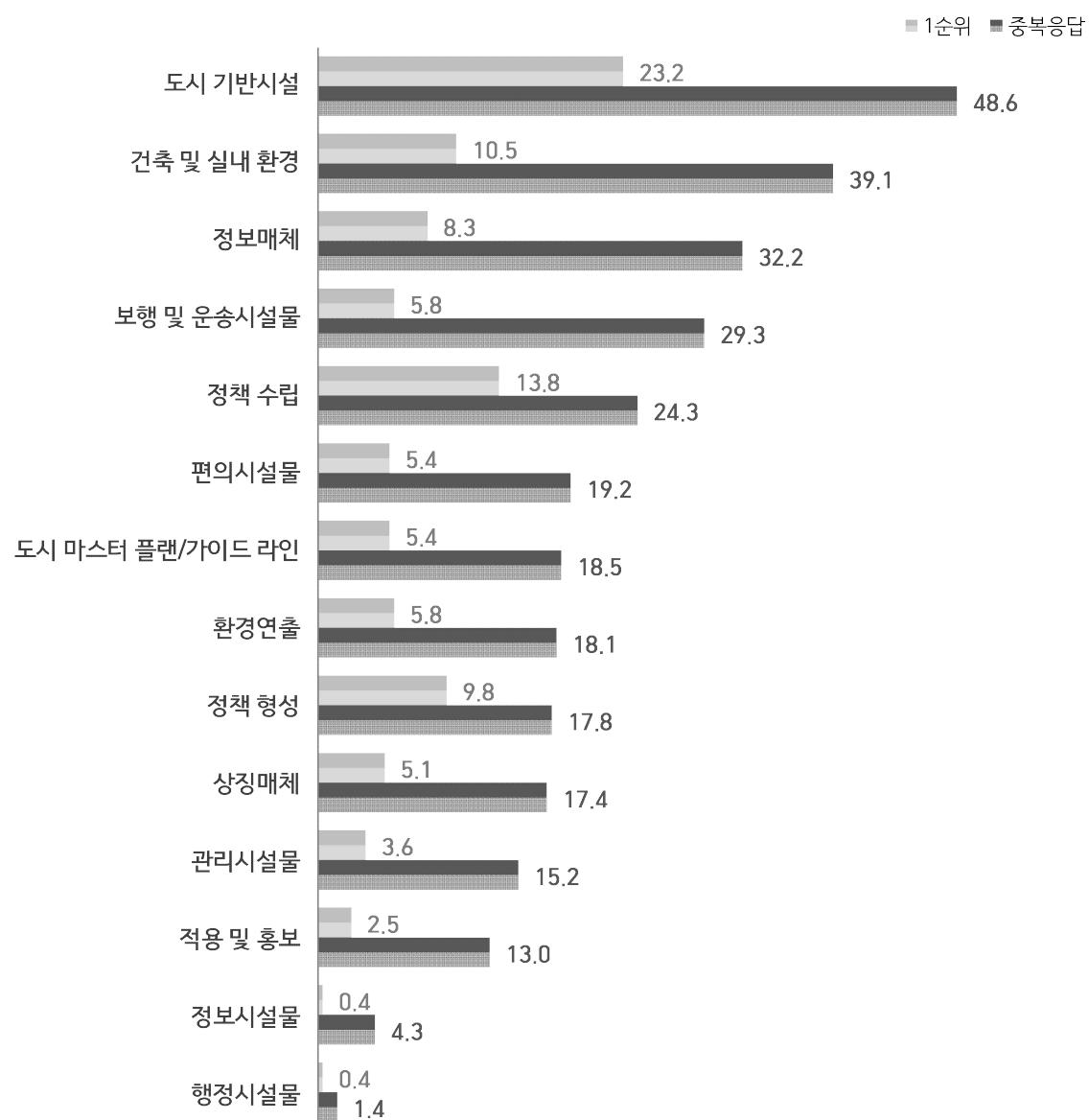
구분		적용 및 홍보	편의 시설물	상징매체	환경연출	관리 시설물	정보 시설물	행정 시설물
지자체		18.5	16.3	14.5	10.9	10.5	2.5	2.2
지자체	시/도	29.4	17.6	0.0	5.9	11.8	5.9	5.9
	시/군/구	12.9	18.3	13.4	11.6	12.1	2.2	2.2
지자체예산	2천억원 미만	0.0	30.0	10.0	20.0	20.0	0.0	0.0
	3천억원 미만	16.3	18.6	14.0	9.3	18.6	2.3	0.0
	5천억원 미만	14.7	19.6	14.7	14.7	9.8	0.0	3.9
	5천억원 이상	14.0	15.1	9.3	7.0	10.5	5.8	2.3

4-1) 공공디자인사업 중 우선 추진 정책

- » 공공디자인사업 중 우선 추진 정책을 살펴본 결과(중복응답 기준), '도시기반시설'이 48.6%로 가장 높음. 다음으로는 '건축 및 실내 환경'(39.1%), '정보매체' (32.2%), '보행 및 운송시설물'(29.3%)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1순위 기준으로는 '도시 기반시설'(23.2%), '정책 수립(13.8%), '정책 형성'(9.8%)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공공디자인사업 중 우선 추진 정책

(단위: %)



- » 정부기관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지자체는 '도시 기반시설'(53.9%)을 우선 추진 정책으로 꼽았으며, 다음은 '건축 및 실내 환경'(42.3%), '보행 및 운송 시설물'(32.4%) 등의 정책이 나타남. 한편, 중앙부처는 '정책 수립'(45.7%)을 우선 추진 정책으로 꼽았으며, 다음은 '정책 형성'(45.7%), '적용 및 홍보'(45.7%), '정보매체'(42.9%)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 전담부서별로 살펴보면, 전담부서가 있는 기관의 경우와 없는 기관의 경우 '도시기반시설'(각각 53.5%, 49.6%)을 우선 추진 정책으로 꼽은 반면, 디자이너만 있는 기관의 경우 '건축 및 실내 환경'과 '정보매체'가 36.4%로 우선 추진 정책으로 나타남.

구분별/전담부서별 공공디자인사업 중 우선 추진 정책

(단위: %, 중복응답)

구분		도시 기반시설	건축 및 실내 환경	정보매체	보행 및 운송 시설물	정책 수립	편의 시설물	도시 마스터 플랜/ 가이드 라인
중앙부처 및 지자체		48.6	39.1	32.2	29.3	24.3	19.2	18.5
구분	지자체	53.9	42.3	30.7	32.4	19.1	21.2	20.7
	중앙부처	11.4	17.1	42.9	8.6	60.0	5.7	2.9
전담 부서	전담부서 있음	53.5	35.6	30.7	40.6	19.8	21.8	19.8
	디자이너만 있음	34.1	36.4	36.4	15.9	29.5	22.7	20.5
	없음	49.6	42.7	32.1	25.2	26.0	16.0	16.8

구분		환경연출	정책 형성	상징매체	관리 시설물	적용 및 홍보	정보 시설물	행정 시설물
중앙부처 및 지자체		18.1	17.8	17.4	15.2	13.0	4.3	1.4
구분	지자체	18.7	13.7	14.5	17.4	8.3	4.6	1.7
	중앙부처	14.3	45.7	37.1	0.0	45.7	2.9	0.0
전담 부서	전담부서 있음	19.8	16.8	9.9	18.8	8.9	2.0	1.0
	디자이너만 있음	20.5	27.3	22.7	11.4	20.5	2.3	0.0
	없음	16.0	15.3	21.4	13.7	13.7	6.9	2.3

- » 지자체 규모별로 살펴보면, 모든 구분에서 '도시 기반 시설'이 높은 가운데, 시/도 단위(47.1%) 대비 시/군/구 단위(54.5%)가 높음.
 예산별로는 2천억원 미만을 제외한 모든 예산 단위에서 '도시 기반시설'의 응답률이 높은 가운데, 2천억원 미만에서는 '건축 및 실내 환경'이 60.0%로 우선 추진 정책으로 나타남.

▣ 지자체별/지자체예산별 공공디자인사업 중 우선 추진 정책

(단위: %, 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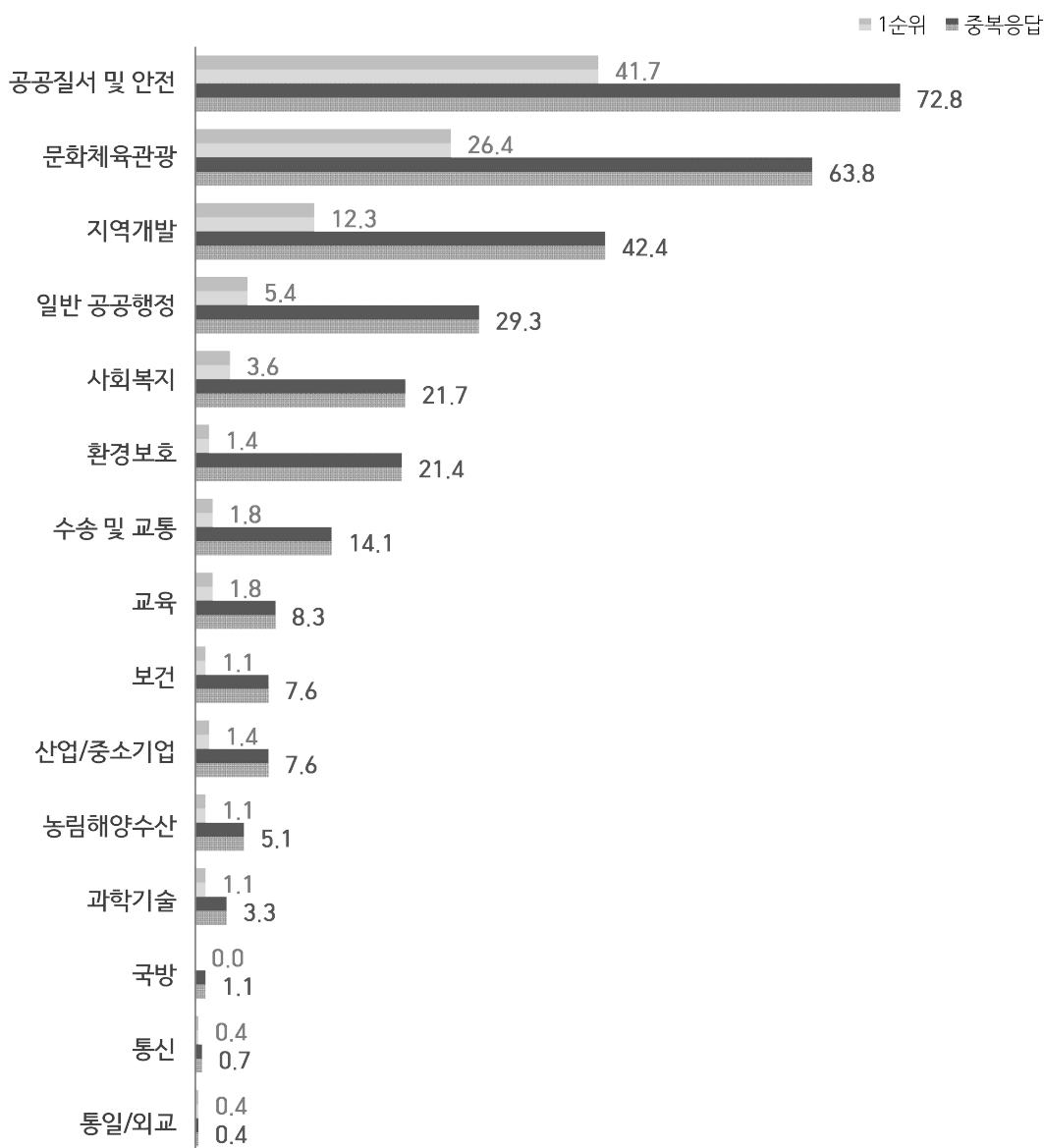
구분		도시 기반시설	건축 및 실내 환경	정보매체	보행 및 운송 시설물	정책 수립	편의 시설물	도시 마스터 플랜/ 가이드 라인
지자체		48.6	39.1	32.2	29.3	24.3	19.2	18.5
지 자 체	시/도	47.1	41.2	23.5	35.3	41.2	29.4	11.8
	시/군/구	54.5	42.4	31.3	32.1	17.4	20.5	21.4
지 자 체 예 산	2천억원 미만	40.0	60.0	40.0	20.0	20.0	30.0	20.0
	3천억원 미만	55.8	48.8	27.9	34.9	14.0	20.9	20.9
	5천억원 미만	51.0	42.2	34.3	30.4	20.6	18.6	21.6
	5천억원 이상	58.1	37.2	26.7	34.9	19.8	23.3	19.8

구분		환경연출	정책 형성	상징매체	관리 시설물	적용 및 홍보	정보 시설물	행정 시설물
지자체		18.1	17.8	17.4	15.2	13.0	4.3	1.4
지 자 체	시/도	17.6	17.6	0.0	17.6	11.8	5.9	0.0
	시/군/구	18.8	13.4	15.6	17.4	8.0	4.5	1.8
지 자 체 예 산	2천억원 미만	20.0	20.0	10.0	20.0	0.0	0.0	0.0
	3천억원 미만	16.3	9.3	11.6	20.9	14.0	2.3	2.3
	5천억원 미만	16.7	13.7	18.6	14.7	9.8	4.9	2.0
	5천억원 이상	22.1	15.1	11.6	18.6	4.7	5.8	1.2

5) 디자인 적용 정책 분야 중 가장 효과 있는 정책

» 디자인 적용 정책 분야 중 가장 효과 있는 정책을 살펴본 결과(중복응답 기준), '공공질서 및 안전'이 72.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은 '문화체육관광'(63.8%), '지역개발'(42.4%), '일반 공공행정'(29.3%)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1순위 기준 역시 비슷한 순위를 보임.

디자인 적용 정책 분야 중 가장 효과 있는 정책 (단위: %)



- » 지자체는 '공공질서 및 안전'을 75.5%로 가장 효과 있는 정책으로 꼽은 가운데, 다음은 '문화체육관광'(64.7%), '지역 개발'(46.1%) 등의 정책이 나타남. 중앙부처는 '문화체육관광'(57.1%)을 가장 효과 있는 정책으로 꼽았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54.3%), '사회복지'(48.6%) 등의 정책이 나타남.
- » 전담부서별로는, 전담부서 유무와 관계없이 '공공질서 및 안전'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전담부서가 있는 정부 기관의 경우 78.2%로 더욱 높게 나타남.

▣ 구분별/전담부서별 디자인 적용 정책 분야 중 가장 효과 있는 정책

(단위: %, 중복응답)

구분		공공질서 및 안전	문화체육 관광	지역개발	일반 공공행정	사회복지	환경보호	수송 및 교통	교육
중앙부처 및 지자체		72.8	63.8	42.4	29.3	21.7	21.4	14.1	8.3
구분	지자체	75.5	64.7	46.1	29.5	17.8	22.0	14.9	7.9
	중앙부처	54.3	57.1	17.1	28.6	48.6	17.1	8.6	11.4
전담부서	전담부서 있음	78.2	65.3	54.5	29.7	15.8	16.8	15.8	5.9
	디자이너만 있음	77.3	63.6	43.2	20.5	29.5	18.2	11.4	6.8
	없음	67.2	62.6	32.8	32.1	23.7	26.0	13.7	10.7

구분		보건	산업/ 중소기업	농림 해양수산	과학기술	국방	통신	통일/외교
중앙부처 및 지자체		7.6	7.6	5.1	3.3	1.1	0.7	0.4
구분	지자체	6.6	6.6	5.0	1.7	0.8	0.8	0.0
	중앙부처	14.3	14.3	5.7	14.3	2.9	0.0	2.9
전담부서	전담부서 있음	3.0	7.9	5.9	1.0	0.0	0.0	0.0
	디자이너만 있음	4.5	4.5	6.8	6.8	4.5	0.0	0.0
	없음	12.2	8.4	3.8	3.8	0.8	1.5	0.8

- » 지자체 규모별로 살펴보면, 시/도 단위에서는 '문화체육관광'(82.4%)이 가장 높고, 다음은 '공공질서 및 안전'(64.7%), '지역개발'(47.1%) 등이 나타남. 시/군/구 단위에서는 '공공질서 및 안전'(76.3%)을 가장 효과 있는 정책으로 꼽음.
- » 예산별로 살펴보면, 예산 단위와 관계없이 '공공질서 및 안전'을 가장 효과 있는 정책으로 꼽았으며, 특히 5천억원 미만(78.4%)에서 높은 비율을 보임.

▣ 지자체별/지자체예산별 디자인 적용 정책 분야 중 가장 효과 있는 정책

(단위: %, 중복응답)

구분		공공질서 및 안전	문화체육 관광	지역개발	일반 공공행정	사회복지	환경보호	수송 및 교통	교육
지자체		72.8	63.8	42.4	29.3	21.7	21.4	14.1	8.3
지자체	시/도	64.7	82.4	47.1	23.5	11.8	17.6	17.6	5.9
	시/군/구	76.3	63.4	46.0	29.9	18.3	22.3	14.7	8.0
지자체 예산	2천억원 미만	70.0	70.0	50.0	50.0	20.0	20.0	0.0	0.0
	3천억원 미만	72.1	65.1	44.2	23.3	18.6	20.9	14.0	14.0
지자체 예산	5천억원 미만	78.4	67.6	40.2	30.4	16.7	24.5	15.7	6.9
	5천억원 이상	74.4	60.5	53.5	29.1	18.6	19.8	16.3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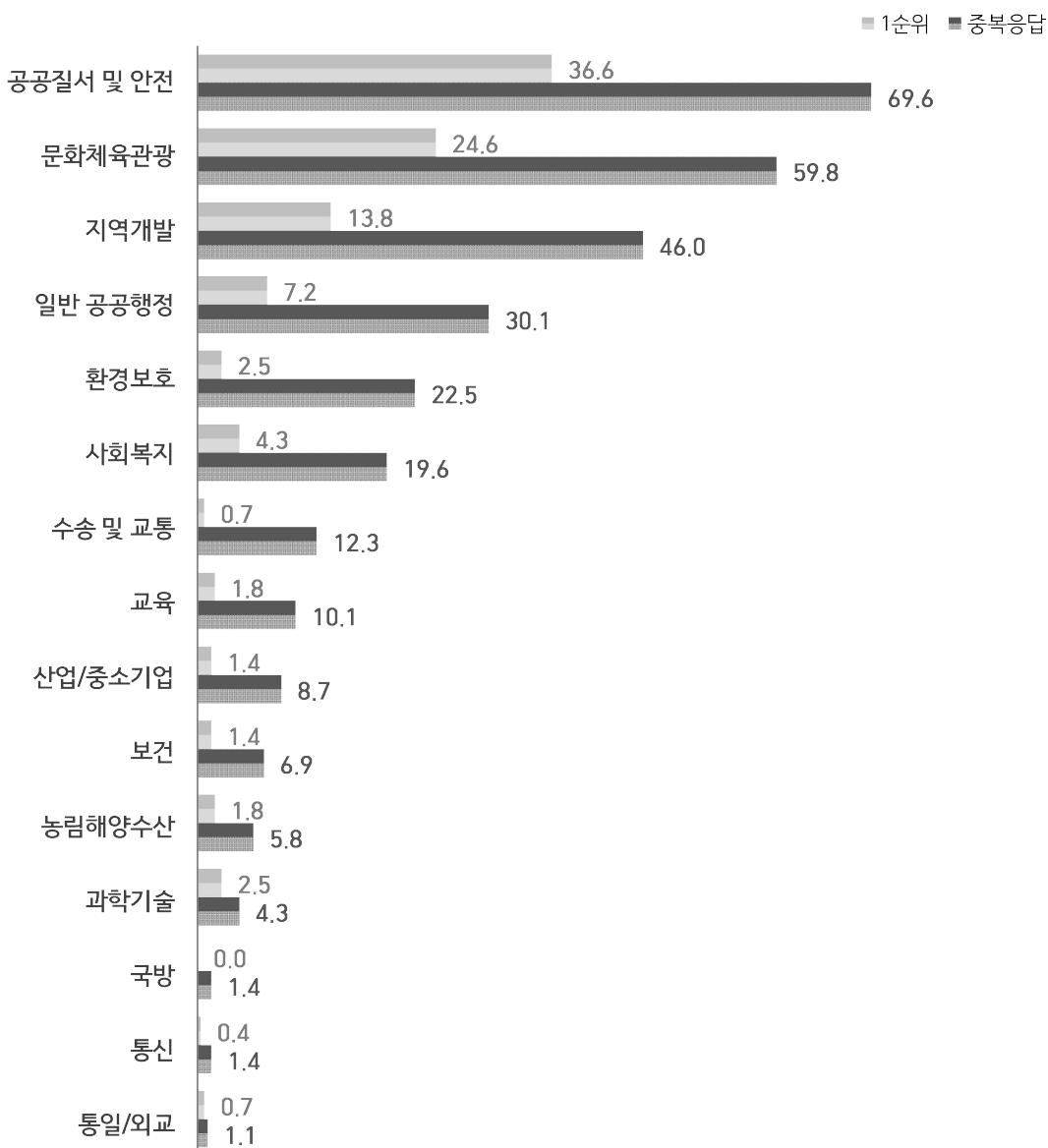
구분		보건	산업/ 중소기업	농림 해양수산	과학기술	국방	통신	통일/외교
지자체		7.6	7.6	5.1	3.3	1.1	0.7	0.4
지자체	시/도	5.9	17.6	0.0	5.9	0.0	0.0	0.0
	시/군/구	6.7	5.8	5.4	1.3	0.9	0.9	0.0
지자체 예산	2천억원 미만	20.0	0.0	0.0	0.0	0.0	0.0	0.0
	3천억원 미만	11.6	7.0	7.0	2.3	0.0	0.0	0.0
지자체 예산	5천억원 미만	3.9	5.9	4.9	2.0	1.0	2.0	0.0
	5천억원 이상	5.8	8.1	4.7	1.2	1.2	0.0	0.0

5-1) 디자인 적용 정책 분야 중 우선 추진 정책

- » 디자인 적용 정책 분야 중 우선 추진 정책을 살펴본 결과(중복응답 기준), '공공질서 및 안전'이 69.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은 '문화체육관광'(59.8%), '지역개발'(46.0%), '일반공공행정'(30.1%)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1순위 응답 역시 '공공질서 및 안전'(36.6%)이 우선 추진 정책으로 나타남.

디자인 적용 정책 분야 중 우선 추진 정책

(단위: %)



- » 지자체/중앙부처 모두 ‘공공질서 및 안전’을 우선 추진 정책으로 꼽은 가운데, 지자체에서 72.2%로 높은 비율을 보임. 전담부서별 구분에서도 ‘공공질서 및 안전’이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전담부서가 있는 정부 기관의 경우 74.3%로 더욱 높게 나타남.

▣ 구분별/전담부서별 디자인 적용 정책 분야 중 우선 추진 정책

(단위: %)

구분		공공질서 및 안전	문화체육 관광	지역개발	일반 공공행정	환경보호	사회복지	수송 및 교통	교육
중앙부처 및 지자체		69.6	59.8	46.0	30.1	22.5	19.6	12.3	10.1
구분	지자체	72.2	61.4	49.4	29.5	22.0	17.4	12.9	9.5
	중앙부처	51.4	48.6	22.9	34.3	25.7	34.3	8.6	14.3
전담부서	전담부서 있음	74.3	57.4	57.4	30.7	16.8	18.8	13.9	6.9
	디자이너만 있음	68.2	65.9	50.0	22.7	18.2	29.5	9.1	6.8
	없음	66.4	59.5	35.9	32.1	28.2	16.8	12.2	13.7

구분		산업/ 중소기업	보건	농림 해양수산	과학기술	국방	통신	통일/외교
중앙부처 및 지자체		8.7	6.9	5.8	4.3	1.4	1.4	1.1
구분	지자체	7.9	7.1	5.8	2.5	1.2	1.2	0.0
	중앙부처	14.3	5.7	5.7	17.1	2.9	2.9	8.6
전담부서	전담부서 있음	8.9	5.0	6.9	3.0	0.0	0.0	0.0
	디자이너만 있음	6.8	4.5	6.8	2.3	4.5	0.0	2.3
	없음	9.2	9.2	4.6	6.1	1.5	3.1	1.5

- » 지자체 규모별로 살펴보면, 시/도 단위에서는 '문화체육관광'(76.5%)을 우선 추진 정책으로 꼽았으며, 다음은 '공공질서 및 안전'(58.8%), '지역개발'(52.9%) 등의 순임. 시/군/구 단위에서는 '공공질서 및 안전'(73.2%)을 우선 추진 정책으로 꼽았으며, 다음은 '문화체육관광'(60.3%), '지역개발'(49.1%) 등의 순임.
- » 예산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공공질서 및 안전'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특히 5천억원 미만(73.5%)에서 더욱 높음. 한편, 2천억원 미만의 경우 '문화체육관광'(80.0%)을 우선 추진 정책으로 꼽았음.

지자체별/지자체예산별 디자인 적용 정책 분야 중 우선 추진 정책

(단위: %)

구분		공공질서 및 안전	문화체육 관광	지역개발	일반 공공행정	환경보호	사회복지	수송 및 교통	교육
지자체		69.6	59.8	46.0	30.1	22.5	19.6	12.3	10.1
지자체	시/도	58.8	76.5	52.9	17.6	11.8	23.5	17.6	5.9
	시/군/구	73.2	60.3	49.1	30.4	22.8	17.0	12.5	9.8
지자체 예산	2천억원 미만	70.0	80.0	50.0	40.0	20.0	20.0	0.0	0.0
	3천억원 미만	67.4	60.5	51.2	18.6	27.9	18.6	16.3	4.7
	5천억원 미만	73.5	66.7	43.1	35.3	21.6	15.7	12.7	9.8
	5천억원 이상	73.3	53.5	55.8	26.7	19.8	18.6	12.8	1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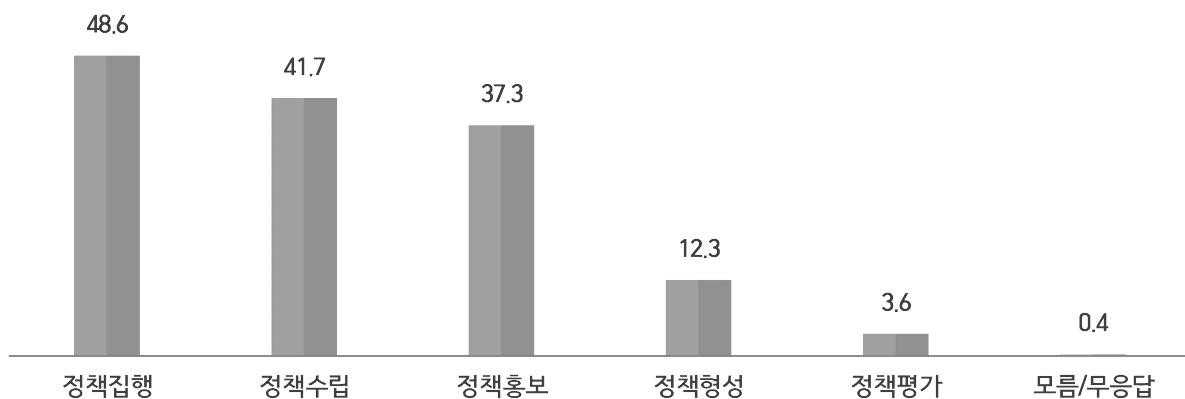
구분		산업/ 중소기업	보건	농림 해양수산	과학기술	국방	통신	통일/외교
지자체		8.7	6.9	5.8	4.3	1.4	1.4	1.1
지자체	시/도	17.6	11.8	0.0	5.9	0.0	0.0	0.0
	시/군/구	7.1	6.7	6.3	2.2	1.3	1.3	0.0
지자체 예산	2천억원 미만	0.0	20.0	0.0	0.0	0.0	0.0	0.0
	3천억원 미만	11.6	11.6	9.3	2.3	0.0	0.0	0.0
	5천억원 미만	5.9	3.9	5.9	2.0	1.0	2.9	0.0
	5천억원 이상	9.3	7.0	4.7	3.5	2.3	0.0	0.0

6) 공공정책의 디자인 활용 단계

- » 공공정책에서 디자인이 활용되는 단계를 조사한 결과(중복응답 기준), 48.6%가 '정책집행'에서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정책수립'(41.7%), '정책홍보'(37.3%), '정책형성'(12.3%), '정책평가'(3.6%)의 순으로 나타남.

공공정책의 디자인 활용 단계

(단위: %, 중복응답)



- » 정부기관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지자체는 '정책집행'(53.5%)의 단계에서 디자인이 가장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반면, 중앙부처는 '정책홍보'(77.1%)에서 가장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전담부서별로는 전담부서가 있는 경우 '정책수립'(59.4%)의 응답이 높았으며, 디자이너만 있는 경우에는 '정책홍보'(54.5%) 단계에서 가장 활발히 활용되고 있음. 전담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정책집행'(45.0%) 단계에서 디자인이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남.

▣ 구분별/전담부서별 공공정책의 디자인 활용단계

(단위: %, 중복응답)

구분	정책집행	정책수립	정책홍보	정책형성	정책평가
중앙부처 및 지자체	48.6	41.7	37.3	12.3	3.6
구분	지자체	53.5	44.8	31.5	13.3
	중앙부처	14.3	20.0	77.1	5.7
전담부서	전담부서 있음	58.4	59.4	20.8	17.8
	디자이너만 있음	36.4	36.4	54.5	9.1
	없음	45.0	29.8	44.3	9.2

- » 지자체 규모별로 살펴보면, 모든 구분에서 '정책집행' 단계에서 디자인이 가장 활발히 활용되는 가운데, 시/도(64.7%) 단위에서 시/군/구(52.7%) 단위보다 높음.
- » 예산별로는 5천억원 이상을 제외한 모든 예산 단위에서 '정책 집행'의 비중이 높았으며, 한편 5천억원 이상(59.3%)에서는 '정책 수립' 단계에서 디자인 활용이 가장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지자체별/지자체예산별 공공정책의 디자인 활용단계

(단위: %, 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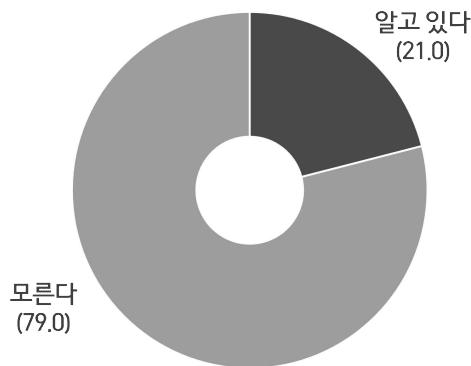
구분		정책집행	정책수립	정책홍보	정책형성	정책평가
지자체		48.6	41.7	37.3	12.3	3.6
지자체	시/도	64.7	58.8	5.9	5.9	5.9
	시/군/구	52.7	43.8	33.5	13.8	4.0
지자체예산	2천억원 미만	40.0	30.0	20.0	20.0	0.0
	3천억원 미만	51.2	30.2	32.6	9.3	2.3
	5천억원 미만	52.0	40.2	35.3	10.8	2.9
	5천억원 이상	58.1	59.3	27.9	17.4	7.0

7)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인지도

- »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79.0%가 '모른다'라고 응답했으며, 나머지 21.0%만이 '알고 있다'의 응답을 보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인지도

(단위: %)



- » 정부기관별 NCS 인지도는 '알고 있다'의 응답이 지자체(18.7%) 대비 중앙부처(37.1%)에서 높게 나타나, 중앙부처의 인지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전담부서별 NCS 인지도는 전담부서가 있는 경우에 30.7%로 가장 높은 인지도를 보였으며, 디자이너만 있는 경우 20.5%, 전담부서가 없는 경우는 13.7%의 순으로 인지도를 보임.

▣ 구분별/전담부서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인지도

(단위: %)

구분		알고 있다	모른다
중앙부처 및 지자체		21.0	79.0
구분	지자체	18.7	81.3
	중앙부처	37.1	62.9
전담부서	전담부서 있음	30.7	69.3
	디자이너만 있음	20.5	79.5
	없음	13.7	86.3

- » 지자체 규모별로는, 모든 구분에서 '모른다'의 응답 비중이 '알고 있다'의 비중보다 높은 가운데, 시/도(41.2%) 단위의 인지도가 시/군/구(17.0%) 단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예산별 NCS 인지도는 예산 단위가 커짐에 따라 인지도가 높아진 가운데, 5천억원 이상 단위에서 29.1%로 가장 높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인지도가 나타남. 한편, 2천억원 미만의 경우 '모른다'의 응답이 100.0%로 매우 낮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인지도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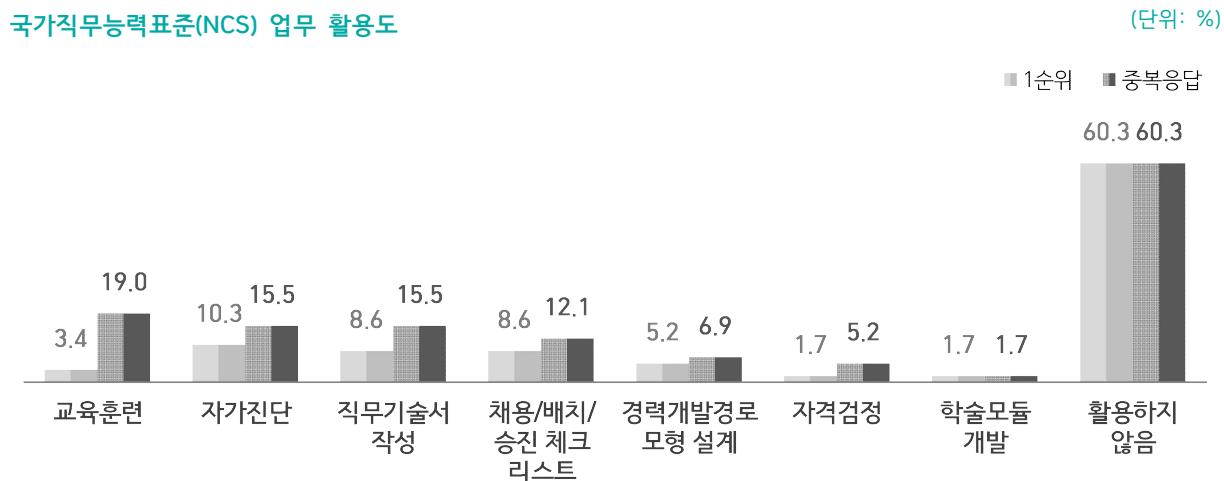
지자체별/지자체예산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인지도

(단위: %)

구분		알고 있다	모른다
지자체		21.0	79.0
지 자 체	시/도	41.2	58.8
	시/군/구	17.0	83.0
지 자 체 예 산	2천억원 미만	0.0	100.0
	3천억원 미만	9.3	90.7
	5천억원 미만	15.7	84.3
	5천억원 이상	29.1	70.9

7-1)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업무 활용도

- » 국가직무능력표준(NCS)를 활용한 업무에 대해 조사한 결과(중복응답 기준), '활용하지 않음'의 비율이 60.3%로 높게 나타남. 활용 업무로는 '교육훈련'(19.0%), '자가진단'(15.5%), '직무기술서 작성'(15.5%), '채용/배치/승진 체크리스트'(12.1%) 등의 순으로 나타남. 1순위 응답에서는 활용 업무 중 '자가진단'이 10.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 정부기관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지자체와 중앙부처 모두 '활용하지 않음'의 비율이 60.0% 이상으로 낮은 활용도를 보인 가운데, 활용 업무로는 '교육훈련'(각각 20.0%, 15.4%)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전담부서별로는 디자이너만 있는 경우 '활용하지 않음'의 비율이 88.9%로 특히 높게 나타났으며 전담부서가 있거나 없는 경우 모두 '교육훈련'(각각 22.6%, 22.2%)이 NCS 활용 업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구분별/전담부서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업무 활용도

(단위: %, 중복응답)

구분		교육훈련	자가진단	직무기술서 작성	채용/배치/승진체크리스트	경력개발경로 모형 설계	자격검정	학술모듈 개발	활용하지 않음
중앙부처 및 지자체		19.0	15.5	15.5	12.1	6.9	5.2	1.7	60.3
구분	지자체	20.0	20.0	15.6	11.1	8.9	2.2	0.0	60.0
	중앙부처	15.4	0.0	15.4	15.4	0.0	15.4	7.7	61.5
전담부서	전담부서 있음	22.6	22.6	16.1	12.9	3.2	3.2	0.0	58.1
	디자이너만 있음	0.0	11.1	11.1	0.0	0.0	0.0	0.0	88.9
	없음	22.2	5.6	16.7	16.7	16.7	11.1	5.6	50.0

- » 지자체 규모별로 살펴보면, 시/도 단위의 활용도가 시/군/구 단위의 활용도 대비 낮게 나타난 가운데, 시/도 단위와 시/군/구 단위 모두 NCS 활용 업무 중 '교육훈련'(각각 14.3%, 21.1%)의 비중이 가장 크게 나타남.
- » 예산별로는 5천억원 미만에서 활용도가 50.0%로 다른 예산 단위 대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활용 업무의 비중은 3천억원 미만의 경우 '채용/배치/승진체크리스트'(25.0%)에서, 5천억 원 미만은 '직무기술서 작성'(31.3%)에서, 5천억원 이상은 '교육훈련'(32.0%)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지자체별/지자체예산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업무 활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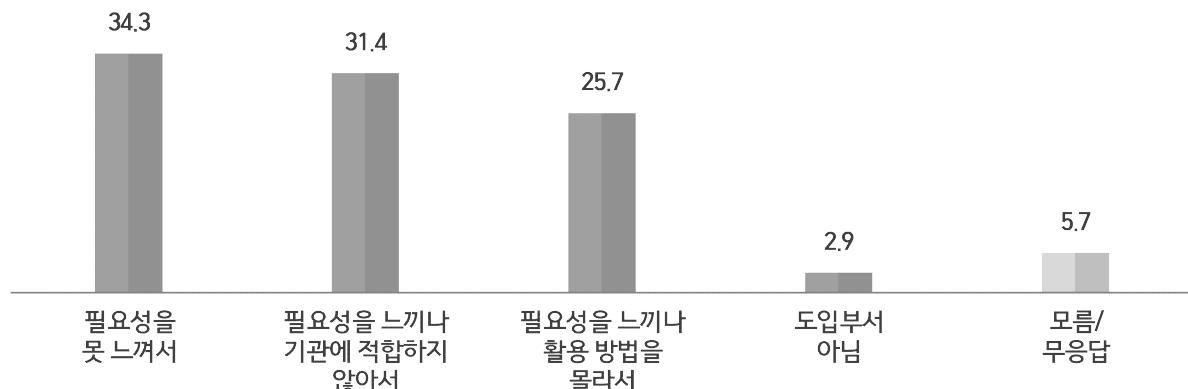
(단위: %, 중복응답)

구분		교육훈련	자가진단	직무 기술서 작성	채용/ 배치/ 승진체크 리스트	경력개발 경로 모형 설계	자격검정	학술모듈 개발	활용하지 않음
지자체		19.0	15.5	15.5	12.1	6.9	5.2	1.7	60.3
지자체	시/도	14.3	14.3	0.0	0.0	0.0	0.0	0.0	85.7
	시/군/구	21.1	21.1	18.4	13.2	10.5	2.6	0.0	55.3
지자체 예산	2천억원 미만	-	-	-	-	-	-	-	-
	3천억원 미만	0.0	0.0	0.0	25.0	0.0	0.0	0.0	75.0
	5천억원 미만	6.3	18.8	31.3	18.8	25.0	0.0	0.0	50.0
	5천억원 이상	32.0	24.0	8.0	4.0	0.0	4.0	0.0	64.0

8-2)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업무에 활용하지 않는 이유

- »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활용하지 않는 이유로 '필요성을 못 느껴서'가 34.3%로 가장 높고, 그 외 '필요성을 느끼나 기관에 적합하지 않아서'(31.4%), '필요성을 느끼나 활용 방법을 몰라서'(25.7%), '도입부서 아님'(2.9%) 등의 순임.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업무에 활용하지 않는 이유 (단위: %)



- » 정부기관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지자체는 '필요성을 못 느껴서'(37.0%), 중앙부처는 '필요성을 느끼나 기관에 적합하지 않아서'(50.0%)가 높게 나타남. 전담부서별로는 전담부서가 있는 경우 '필요성을 느끼나 기관에 적합하지 않아서'(38.9%), 디자이너만 있는 기관에서는 '필요성을 못 느껴서'(37.5%)가 상대적으로 높음.

▣ 구분별/전담부서별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업무에 활용하지 않는 이유

(단위: %)

구분		필요성을 못 느껴서	필요성을 느끼나 기관에 적합하지 않아서	필요성을 느끼나 활용 방법을 몰라서	도입부서 아님
중앙부처 및 지자체		34.3	31.4	25.7	2.9
구분	지자체	37.0	25.9	25.9	3.7
	중앙부처	25.0	50.0	25.0	0.0
전담 부서	전담부서 있음	33.3	38.9	22.2	0.0
	디자이너만 있음	37.5	12.5	25.0	12.5
	없음	33.3	33.3	33.3	0.0

- » 지자체 규모별로 살펴보면, 시/도 단위에서는 '필요성을 느끼나 기관에 적합하지 않아서'(50.0%), 시/군/구 단위에서는 '필요성을 못 느껴서'(42.9%)가 높게 나타남.
- » 예산별로는 3천억원 미만과 5천억원 미만의 단위에서 '필요성을 못 느껴서'가 각각 66.7%, 62.5%로 높고, 5천억원 이상에서는 '필요성을 느끼나 기관에 적합하지 않아서'는 37.5%로 상대적으로 높음.

▣ 지자체별/지자체예산별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업무에 활용하지 않는 이유

(단위: %)

구분		필요성을 못 느껴서	필요성을 느끼나 기관에 적합하지 않아서	필요성을 느끼나 활용 방법을 몰라서	도입부서 아님
지자체		34.3	31.4	25.7	2.9
지 자 체	시/도	16.7	50.0	16.7	0.0
	시/군/구	42.9	19.0	28.6	4.8
지 자 체 예 산	2천억원 미만	-	-	-	-
	3천억원 미만	66.7	0.0	33.3	0.0
	5천억원 미만	62.5	12.5	12.5	12.5
	5천억원 이상	18.8	37.5	31.3	0.0

교육통계(문헌조사)

01 | 대학(원)의 디자인학과 보유학교 및 학과 현황

02 | 2016년 대학(원) 디자인학과 학생 현황

1 대학(원)의 디자인학과 보유 학교 및 학과 현황^⑭

- » 2016년 대학(원) 디자인학과 보유 학교 수는 총 453개로 나타남. 그 중 학사 과정에 디자인학과가 있는 학교는 총 255개로 가장 많았고, 석사 과정에 디자인학과가 있는 학교는 총 149개, 박사 과정에 디자인학과가 있는 학교는 총 49개로 나타남.

▣ 학교별 2016년 대학(원)의 디자인학과 보유 학교 수

(단위: 개)

구분	학교 수			
	학사	석사	박사	계
총합계	255	149	49	453
전문대학	93	0	0	93
대학교	135	0	0	135
산업대학	2	0	0	2
각종대학(대학)	1	0	0	1
일반대학원	0	149	49	198
사이버대학(대학)	8	0	0	8
전공대학	1	0	0	1
기술대학	15	0	0	15

⑭ 조사기준일: 2016. 4. 1

디자인 관련 학과: 요청 시 첨부한 학과리스트 기준

분교 및 캠퍼스가 포함된 학교 수임.

폐교는 제외됨.

개설된 학과가 1개 이상인 학교 기준임.

개설된 학과는 재적학생 수가 1명 이상인 학과 기준임.

한 학교에 2개 이상의 학과가 개설되어있을 경우, 1개의 학교로 카운트됨. 각 과정별로는 중복 카운트됨.

- » 디자인 관련 학과 수는 학부, 석·박사 과정을 모두 포함하여 총 1,303개로 나타남.
학부과정의 디자인학과 수는 961개, 석사과정은 269개, 박사과정은 73개임.
- » 학교 구분별로는 대학교의 디자인학과 수가 464개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전문대학(422개), 일반대학원(342개)등의 순으로 나타남.
- » 디자인특수분류별로는 패션/텍스타일디자인의 디자인학과 수가 234개로 가장 많고, 제품디자인(209개), 공간디자인(204개), 시각디자인(196개),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156개) 등의 순임.

학교구분별 & 디자인특수분류별 2016년 대학(원)의 디자인학과 수

(단위: 개)

구분		디자인학과 수			
		학부	석사과정	박사과정	계
총합계		961	269	73	1,303
학교 구분별	전문대학	422	-	-	422
	대학교	464	-	-	464
	산업대학	33	-	-	33
	각종대학(대학)	1	-	-	1
	일반대학원	-	269	73	342
	사이버대학(대학)	12	-	-	12
	전공대학	2	-	-	2
	기능대학	27	-	-	27
디자인 특수 분류별	디자인 일반	72	45	26	143
	제품디자인	151	50	8	209
	시각디자인	163	28	5	196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125	26	5	156
	공간디자인	162	37	5	204
	패션/텍스타일디자인	190	38	6	234
	서비스/경험디자인	20	16	9	45
	산업공예디자인	60	22	8	90
	디자인인프라	18	7	1	26

2 2016년 대학(원) 디자인학과 학생 현황

1) 재적학생 수⁽¹⁵⁾

- » 2016년 대학(원) 내 디자인학과 재적학생은 117,747명으로 나타남. 그 중 학부생은 112,450명, 석사과정은 4,419명, 박사과정은 878명으로 나타남.

▣ 2016년 대학(원)의 학교구분별 디자인학과 재적학생 수

(단위: 명)

구분	재적학생 수			
	학부	석사과정	박사과정	계
총합계	112,450	4,419	878	117,747
학교 구분별	전문대학	39,105	-	-
	대학교	64,830	-	-
	산업대학	1,178	-	-
	각종대학(대학)	147	-	-
	일반대학원	-	4,419	878
	사이버대학(대학)	3,373	-	-
	전공대학	705	-	-
	기능대학	3,112	-	-

- » 성별로는 여학생이 70,895명으로 남학생(46,852명)보다 많고, 산업대학 및 기능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서 여학생 수가 남학생 수를 앞서고 있음.

▣ 2016년 대학(원)의 학교구분별 디자인학과 재적학생 수

(단위: 명)

구분	재적학생 수							
	학부		석사과정		박사과정		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총합계	45,095	67,355	1,396	3,023	361	517	46,852	70,895
학교 구분별	전문대학	18,755	20,350	-	-	-	-	18,755
	대학교	21,707	43,123	-	-	-	-	21,707
	산업대학	719	459	-	-	-	-	719
	각종대학(대학)	45	102	-	-	-	-	45
	일반대학원	-	-	1,396	3,023	361	517	1,757
	사이버대학(대학)	1,178	2,195	-	-	-	-	1,178
	전공대학	316	389	-	-	-	-	316
	기능대학	2,375	737	-	-	-	-	2,375

(15) 조사기준일: 2016. 4. 1

디자인 관련 학과: 요청 시 첨부한 학과리스트 기준

디자인 특수분류는 요청 시 첨부한 학과리스트의 분류에 따름

2) 재학생 수^⑯

» 2016년 디자인학과 총 재학생 수는 85,526명으로 나타남.

그 중 학부 재학생 수는 81,281명, 석사과정 재학생 수는 3,556명, 박사과정 재학생 수는 689명이었음. 학교 구분별로는 절반 이상이 대학교의 디자인학과 재학생(49,465명)인 것으로 나타났고, 전문대학(3년제)(25,732명)이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 2016년 대학(원)의 학교구분별 디자인학과 재학생 수

(단위: 명)

구분	재학생 수			
	학부	석사과정	박사과정	계
총합계	81,281	3,556	689	85,526
학교 구분별	전문대학(3년제)	25,732	-	25,732
	대학교	49,465	-	49,465
	산업대학	754	-	754
	각종대학(대학)	112	-	112
	일반대학원	-	3,556	689
	사이버대학(대학)	2,666	-	2,666
	전공대학	485	-	485
	기능대학	2,067	-	2,067

» 성별로는 여자 재학생 수는 59,746명, 남자 재학생 수는 25,780명으로 나타남.

학교구분별로는 산업대학과 기능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교의 여자 재학생 수가 남자 재학생 수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2016년 대학(원)의 학교구분별 디자인학과 재학생수

(단위: 명)

구분	재학생 수							
	학부		석사과정		박사과정		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총합계	24,388	17,231	1,108	2,448	284	405	25,780	59,746
학교 구분별	전문대학(3년제)	8,501	17,231	-	-	-	8,501	17,231
	대학교	12,999	36,466	-	-	-	12,999	36,466
	산업대학	420	334	-	-	-	420	334
	각종대학(대학)	24	88	-	-	-	24	88
	일반대학원	-	-	1,108	2,448	284	405	1,392
	사이버대학(대학)	868	1,798	-	-	-	868	1,798
	전공대학	150	335	-	-	-	150	335
	기능대학	1,426	641	-	-	-	1,426	641

⑯ 조사기준일: 2016. 4. 1

디자인 관련 학과: 요청 시 첨부한 학과리스트 기준

디자인 특수분류는 요청시 첨부한 학과리스트의 분류에 따른

3) 입학자 수^⑯

- » 2016년 디자인학과 총 입학자 수는 28,015명으로 나타남.
그 중 학부 입학자 수는 25,987명, 석사과정 입학자 수는 1,707명, 박사과정 입학자 수는 321명임.
- » 학교 구분별로는 전문대학(3년제) 디자인학과 입학자 수(12,084명)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일반대학디자인학과 입학자 수(11,445명)가 많음.
디자인특수분류별로는 패션/텍스타일디자인 디자인학과 입학자 수가 5,565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간디자인(4,320명), 제품디자인(3,904명), 디자인 일반(3,819명), 시각디자인(3,728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16년 대학(원)의 학교구분별&디자인특수분류별 디자인학과 입학자 수

(단위: 명)

구분	입학자 수				
	학부	석사과정	박사과정	계	
총합계	25,987	1,707	321	28,015	
학교 구분별	전문대학(3년제)	12,084	-	-	12,084
	대학교	11,445	-	-	11,445
	산업대학	134	-	-	134
	각종대학(대학)	21	-	-	21
	일반대학원		1,707	190	2,028
	사이버대학(대학)	864	-	-	864
	전공대학	278	-	-	278
	기능대학	1,161	-	-	1,161
디자인 특수 분류별	디자인 일반	3,150	529	140	3,819
	제품디자인	3,711	165	28	3,904
	시각디자인	3,543	171	14	3,728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3,513	113	7	3,633
	공간디자인	4,178	131	11	4,320
	패션/텍스타일디자인	5,373	176	16	5,565
	서비스/경험디자인	541	119	30	690
	산업공예디자인	1,260	102	73	1,435
	디자인인프라	718	201	2	921

^⑯ 2016년 3월 입학자 기준

디자인 관련 학과: 요청 시 첨부한 학과리스트 기준

디자인 특수분류는 요청시 첨부한 학과리스트의 분류에 따름

- » 성별로는 여학생 입학자 수가 19,104명으로 남학생 입학자 수(8,911명) 대비 2배 이상 많았음. 디자인특수분류별로는 디자인인프라를 제외한 모든 디자인 분류에서 여학생 입학자 수가 남학생 입학자 수에 비해 많음.

▣ 2016년 대학(원)의 학교구분별&디자인특수분류별 디자인학과 입학자 수

(단위: 명)

구분		재적학생 수							
		학부		석사과정		박사과정		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총합계		8,260	17,727	520	1,187	131	190	8,911	19,104
학교 구분별	전문대학(3년제)	4,029	8,055	-	-	-	-	4,029	8,055
	대학교	2,998	8,447	-	-	-	-	2,998	8,447
	산업대학	56	78	-	-	-	-	56	78
	각종대학(대학)	5	16	-	-	-	-	5	16
	일반대학원	-	-	520	1,187	131	190	651	1,377
	사이버대학(대학)	271	593	-	-	-	-	271	593
	전공대학	81	197	-	-	-	-	81	197
	기능대학	820	341	-	-	-	-	820	341
디자인 특수 분류별	디자인 일반	884	2,266	105	424	47	93	1,036	2,783
	제품디자인	1,371	2,340	71	94	11	17	1,453	2,451
	시각디자인	962	2,581	64	107	6	8	1,032	2,696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1,030	2,483	53	60	5	2	1,088	2,545
	공간디자인	1,766	2,412	48	83	9	2	1,823	2,497
	패션/텍스타일디자인	1,094	4,279	18	158	2	14	1,114	4,451
	서비스/경험디자인	224	317	50	69	18	12	292	398
	산업공예디자인	265	995	19	83	33	40	317	1,118
	디자인인프라	664	54	92	109	-	2	756	165

※ 조사기준일 : 2016년 4월 1일

4) 졸업자 수^⑯

- » 2016년 디자인학과 총 졸업자 수는 25,975명으로 나타남.
그 중 학부 졸업자 수는 24,474명, 석사과정 졸업자 수는 1,359명, 박사과정 졸업자 수는 142명임.
- » 학교구분별로는 전문대학의 디자인학과 졸업자 수가 11,250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학교(11,167명)가 다음으로 나타남.
디자인특수분류별로는 패션/텍스타일디자인 디자인학과 졸업자 수가 5,550명으로 가장 많았고, 시각디자인(4,515명), 제품디자인(3,864명) 등의 순임.

▣ 2016년 대학(원)의 학교구분별&계열별 디자인학과 졸업자 수

(단위: 명)

구분		졸업자 수			
		학부	석사과정	박사과정	계
	총합계	24,474	1,359	142	25,975
학교 구분별	전문대학	11,250	-	-	11,250
	대학교	11,167	-	-	11,167
	산업대학	416	-	-	416
	각종대학(대학)	19	-	-	19
	일반대학원	-	1,359	142	1,501
	사이버대학(대학)	570	-	-	570
	전공대학	150	-	-	150
	기능대학	902	-	-	902
디자인 특수 분류별	디자인 일반	1,921	333	48	2,302
	제품디자인	3,675	176	13	3,864
	시각디자인	4,387	125	3	4,515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3,350	98	8	3,456
	공간디자인	3,685	144	8	3,837
	패션/텍스타일디자인	5,375	166	9	5,550
	서비스/경험디자인	177	76	21	274
	산업공예디자인	1,246	73	32	1,351
	디자인인프라	658	168	-	826

^⑯ 2016년 2월 졸업자 및 2015년 8월 졸업자 기준임

디자인 관련 학과: 요청 시 첨부한 학과리스트 기준

디자인 특수분류는 요청시 첨부한 학과리스트의 분류에 따름

- » 성별로는 여학생 졸업자 수가 18,487명으로 남학생 졸업자 수(7,488명)의 2배 이상으로 나타남.
 디자인특수분류별로는 디자인인프라(남학생 졸업자 수: 599명, 여학생 졸업자 수: 227명)를 제외한 모든 분류의 디자인학과 졸업자 수가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2016년 대학(원)의 학교구분별&디자인특수분류별 디자인학과 졸업자 수

(단위: 명)

구분		졸업자 수							
		학부		석사과정		박사과정		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총합계	6,980	17,494	450	909	58	84	7,488	18,487
학교 구분별	전문대학	3,370	7,880	-	-	-	-	3,370	7,880
	대학교	2,618	8,549	-	-	-	-	2,618	8,549
	산업대학	152	264	-	-	-	-	152	264
	각종대학(대학)	4	15	-	-	-	-	4	15
	일반대학원	-	-	450	909	58	84	508	993
	사이버대학(대학)	193	377	-	-	-	-	193	377
	전공대학	49	101	-	-	-	-	49	101
	기능대학	594	308	-	-	-	-	594	308
디자인 특수 분류별	디자인 일반	554	1,367	73	260	18	30	645	1,657
	제품디자인	1,227	2,448	89	87	5	8	1,321	2,543
	시각디자인	1,096	3,291	52	73	2	1	1,150	3,365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1,022	2,328	46	52	3	5	1,071	2,385
	공간디자인	1,367	2,318	42	102	3	5	1,412	2,425
	패션/텍스타일디자인	914	4,461	14	152	0	9	928	4,622
	서비스/경험디자인	72	105	30	46	15	6	117	157
	산업공예디자인	211	1,035	22	51	12	20	245	1,106
	디자인인프라	517	141	82	86	-	-	599	227

※ 조사기준일 : 2016년 4월 1일

5) 취업자 수^⑯

- » 2016년 디자인학과 총 취업자 수는 14,569명으로 나타남.
그 중 학부 취업자 수는 14,269명, 석사과정 취업자 수는 220명, 박사과정 취업자 수는 80명 이었음.
- » 디자인특수분류별로는 패션/텍스타일디자인 디자인학과 취업자 수가 3,199명으로 가장 많았고, 시각디자인(2,580명), 제품디자인(2,309명), 공간디자인(2,214명),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1,783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2016년 대학(원)의 학교구분별&디자인 특수분류별 디자인학과 취업자 수

(단위: 명)

구분	취업자 수				계
	학부	석사과정	박사과정		
총합계	14,269	220	80	14,569	
학교 구분별	전문대학	6,539	-	-	6,539
	대학교	6,711	-	-	6,711
	산업대학	369	-	-	369
	각종대학(대학)	7	-	-	7
	일반대학원	-	220	80	300
	사이버대학(대학)	-	-	-	-
	전공대학	-	-	-	-
디자인 특수 분류별	기능대학	643	-	-	643
	디자인 일반	869	75	30	974
	제품디자인	2,272	26	11	2,309
	시각디자인	2,564	12	4	2,580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1,771	7	5	1,783
	공간디자인	2,199	14	1	2,214
	패션/텍스타일디자인	3,180	14	5	3,199
	서비스/경험디자인	86	4	-	90
	산업공예디자인	701	16	24	741
	디자인인프라	627	52	-	679

^⑯ 취업자는 조사 기준일(12월 31일) 당시 건강보험가입 취업자, 교내취업자, 해외취업자, 농림어업종사자, 개인창작활동종사자, 1인창(사)업자, 프리랜서임

- 일반대학원 외 전문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은 조사에서 제외됨

» 성별로는 여학생 취업자 수가 10,528명으로 남학생 취업자 수(4,041명) 대비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남.

디자인특수분류별로는 서비스/경험디자인과 디자인인프라 분야에서는 디자인학과 남학생 취업자 수가 여학생에 비해 많았고, 그 외 모든 분류에서 여학생 취업자 수가 남학생 대비 많음.

▣ 2016년 대학(원)의 학교구분별&디자인특수분류별 디자인학과 취업자 수

(단위: 명)

구분		취업자 수							
		학부		석사과정		박사과정		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총합계		3,946	10,323	61	159	34	46	4,041	10,528
학교 구분별	전문대학	1,834	4,705	-	-	-	-	1,834	4,705
	대학교	1,564	5,147	-	-	-	-	1,564	5,147
	산업대학	123	246	-	-	-	-	123	246
	각종대학(대학)	1	6	-	-	-	-	1	6
	일반대학원	-	-	61	159	34	46	95	205
	사이버대학(대학)	-	-	-	-	-	-	-	-
	전공대학	-	-	-	-	-	-	-	-
	기능대학	424	219	-	-	-	-	424	219
디자인 특수 분류별	디자인 일반	237	632	21	54	13	17	271	703
	제품디자인	762	1,510	12	14	6	5	780	1,529
	시각디자인	610	1,954	3	9	-	4	613	1,967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500	1,271	2	5	4	1	506	1,277
	공간디자인	768	1,431	4	10	1	-	773	1,441
	패션/텍스타일디자인	477	2,703	2	12	-	5	479	2,720
	서비스/경험디자인	52	34	2	2	-	-	54	36
	산업공예디자인	104	597	6	10	10	14	120	621
	디자인인프라	436	191	9	43	-	-	445	234

* 조사기준일 : 2015년 12월 31일

6) 취업률^②

- » 2016년 디자인학과 졸업자의 취업률은 65.1%로 나타남.
그 중 박사과정 졸업자의 취업률이 77.7%로 가장 높고, 다음은 석사과정 취업률(68.5%), 학부 과정 취업률(65.0%) 순으로 나타남.
- » 학교구분별로는 학부 내 기능대학(대학)의 취업률이 82.0%로 가장 높고, 대학교(64.5%), 전문 대학(64.3%) 등의 순으로 나타남.
디자인특수분류별로는 디자인인프라 디자인학과 취업률이 72.9%로 가장 높고, 산업공예디자인(68.1%), 공간디자인(67.0%),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65.5%)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 2016년 대학(원)의 학교구분별&계열별 디자인학과 취업률

(단위: %)

구분		취업률			
		학부	석사과정	박사과정	계
총합계		65.0	68.5	77.7	65.1
학교 구분별	전문대학	64.3	-	-	64.3
	대학교	64.5	-	-	64.5
	산업대학	62.4	-	-	62.4
	각종대학(대학)	63.6	-	-	63.6
	일반대학원	-	68.5	77.7	70.8
	사이버대학(대학)	-	-	-	-
	전공대학	-	-	-	-
	기능대학	82.0	-	-	82.0
디자인 특수 분류별	디자인 일반	60.9	74.3	76.9	62.2
	제품디자인	63.8	74.3	73.3	63.9
	시각디자인	63.0	85.7	100.0	63.2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65.4	70.0	100.0	65.5
	공간디자인	67.0	77.8	33.3	67.0
	패션/텍스타일디자인	64.9	43.8	83.3	64.8
	서비스/경험디자인	62.8	36.4	-	60.8
	산업공예디자인	67.7	72.7	77.4	68.1
	디자인인프라	73.4	66.7	-	72.9

② 취업률: 취업자/(졸업자-(진학자+입대자+취업불가능자+제외인정자+외국인유학생))*100

취업자는 조사 기준일(12월 31일) 당시 건강보험가입 취업자, 교내취업자, 해외취업자, 농림어업종사자, 개인창작활동종사자, 1인창(사)업자, 프리랜서임.

- 일반대학원 외 전문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은 조사에서 제외됨

부 록

01 | 표본 설계

02 | 조사표

2 0 1 6

K O R E A

01

표본설계

디자인 활용업체 | 전문 디자인업체 |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1 디자인 활용업체(일반업체) 조사

1) 모집단 분석

(1) 모집단

- » 2014년 전국사업체조사 중 디자인산업 특수분류에 해당하는 5인 이상인 사업체를 디자인활용 여부 조사모집단으로 정의함. 종사자수 4인 이하는 디자인 활용 비율이 매우 낮을 것으로 추정하여 4인 이하는 디자인 활용여부 조사에서 제외함. 디자인 특수분류 중 1-7-1 제품디자인, 2-5-6 시각디자인, 4-10-1 인테리어디자인, 5-5-1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 등 전문디자인업체 전체와 8-3-2 행정서비스 중 지자체 및 중앙부처, 8-3-3 교육 서비스 중 대학은 타 조사영역과 중복되므로 제외함.

(2) 모집단 특성

- » 먼저 2014년 전국사업체조사 DB(한국통계진흥원)를 이용하여 업종별/규모별 사업체수를 파악함. 전체 조사대상 사업체 수는 336,833개임. 업종분류별로 제품디자인 51,553개(15.3%), 시각디자인 18,325개(5.4%),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7,449개(2.2%), 공간디자인 67,324개(20.0%), 패션/텍스타일디자인 13,169개(3.9%), 서비스/경험디자인 65,207개(19.4%), 산업공예디자인 17,986개(5.3%), 디자인인프라(디자인기반기술) 95,820(28.4%)개 사업체임. 종사자수별로는 5-9인 182,247개(54.1%), 10-19인 83,437개(24.8%), 20-49인 48,159개(14.3%), 50-99인 13,944개(4.1%), 100-299인 7,325개(2.2%), 300인 이상 1,721(0.5%)개임.

■ 디자인활용업체의 대분류업종/규모별 모집단 크기

대분류 업종	종사자 규모						
	5-9인	10-19인	20-49인	5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계
총계	182,247	83,437	48,159	13,944	7,325	1,721	336,833
제품디자인	24,937	11,787	9,451	3,116	1,821	441	51,553
시각디자인	10,654	3,762	2,560	810	470	69	18,325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3,847	1,938	1,081	386	167	30	7,449
공간디자인	36,634	17,272	9,314	2,317	1,375	412	67,324
패션/텍스타일디자인	8,498	2,818	1,360	343	130	20	13,169
서비스/경험디자인	31,564	20,048	9,733	2,372	1,214	276	65,207
산업공예디자인	10,753	4,032	2,511	465	206	19	17,986
디자인인프라(디자인기반기술)	55,360	21,780	12,149	4,135	1,942	454	95,820

▣ 디자인활용업체의 대분류업종/규모별 모집단 크기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소분류명	총사업자 규모						
				5~9인	10~19인	20~49인	5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계
		총계		182,247	83,437	48,159	13,944	7,325	1,721	336,833
1	1-1	1-1-1	의료기기디자인	1,013	347	219	73	43	2	1,697
1	1-1	1-1-2	컴퓨터및모니터디자인	109	43	37	10	5	0	204
1	1-1	1-1-3	컴퓨터주변기기디자인	117	81	60	11	13	1	283
1	1-1	1-1-4	유무선통신기기및통신장비디자인	707	401	347	124	58	15	1,652
1	1-1	1-1-5	영상기기디자인	190	100	79	25	14	2	410
1	1-1	1-1-6	음향기기디자인	196	78	79	27	17	8	405
1	1-1	1-1-7	방송용장비/기기디자인	226	137	96	23	17	2	501
1	1-1	1-1-8	생활가전및주방가전디자인	1,339	647	454	139	61	18	2,658
1	1-1	1-1-9	사무기기디자인	113	65	62	19	6	1	266
1	1-1	1-1-10	조명기기디자인	668	248	162	31	14	0	1,123
1	1-1	1-1-11	전기장비및특수용도조명등디자인	2,866	1,215	856	238	129	31	5,335
1	1-2	1-2-1	공구디자인	574	283	177	35	23	6	1,098
1	1-2	1-2-2	악기디자인	17	7	8	3	1	0	36
1	1-2	1-2-3	측정,시험,제어및기타정밀기기디자인	1,334	574	337	89	42	3	2,379
1	1-2	1-2-4	반도체및전자부품제조관련디자인	2,027	1,002	778	312	244	99	4,462
1	1-2	1-2-5	로봇디자인	114	65	42	14	5	0	240
1	1-2	1-2-6	시계디자인	25	6	3	1	0	0	35
1	1-3	1-3-1	안경및광학기기디자인	212	97	81	32	23	6	451
1	1-3	1-3-2	완구디자인	124	38	17	3	2	0	184
1	1-3	1-3-3	스포츠/레저용품디자인	140	60	22	4	2	0	228
1	1-3	1-3-4	사무/회화용품디자인	83	17	21	7	3	0	131
1	1-3	1-3-5	위생용품디자인	76	30	24	2	5	1	138
1	1-3	1-3-6	용기(用器)디자인	28	16	13	4	3	0	64
1	1-3	1-3-7	생활용품디자인	761	309	178	40	10	0	1,298
1	1-3	1-3-8	종이및판지제품디자인	1,442	708	481	112	43	7	2,793
1	1-3	1-3-9	화학제품,고무,플라스틱제품디자인	4,136	2,194	1,883	499	258	51	9,021
1	1-4	1-4-1	자동차디자인	1,836	1,134	1,373	630	330	87	5,390
1	1-4	1-4-2	요트/선박디자인	633	348	439	270	268	13	1,971
1	1-4	1-4-3	기차디자인	1	2	2	1	1	1	8
1	1-4	1-4-4	항공/우주선디자인	10	5	4	1	0	2	22
1	1-4	1-4-5	바이크디자인	57	16	11	4	1	0	89
1	1-4	1-4-6	기타운송기기디자인	390	238	226	56	18	4	932
1	1-5	1-5-1	리빙가구디자인	242	59	27	4	2	0	334
1	1-5	1-5-2	주방가구디자인	649	171	83	14	8	2	927
1	1-5	1-5-3	의료가구디자인	28	14	15	1	0	0	58
1	1-5	1-5-4	기타가구디자인	2,048	676	377	60	23	3	3,187
1	1-6	1-6-1	제조업회사본부디자인	406	356	378	198	129	76	1,543
2	2-1	2-1-1	일반서적편집디자인	1,362	564	316	50	37	6	2,335
2	2-1	2-1-2	신문/잡지편집디자인	526	227	146	70	34	11	1,014
2	2-1	2-1-3	기타인쇄물편집디자인	724	93	47	10	6	0	880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소분류명	종사자 규모						
				5~9인	10~19인	20~49인	5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계
총계				182,247	83,437	48,159	13,944	7,325	1,721	336,833
2	2-2	2-2-1	축·수산물가공식품패키지그래픽디자인	1,571	721	599	179	101	8	3,179
2	2-2	2-2-2	농산물가공식품패키지그래픽디자인	1,147	372	253	63	19	0	1,854
2	2-2	2-2-3	낙농품및빙과류패키지그래픽디자인	35	21	41	20	29	4	150
2	2-2	2-2-4	떡,빵,과자,면류패키지그래픽디자인	983	320	235	76	49	16	1,679
2	2-2	2-2-5	기타식품패키지그래픽디자인	1,217	524	349	133	58	6	2,287
2	2-2	2-2-6	음료패키지그래픽디자인	103	51	64	22	21	4	265
2	2-2	2-2-7	의약품패키지그래픽디자인	181	89	116	92	78	9	565
2	2-3	2-3-1	화학제품패키지그래픽디자인	424	188	163	64	24	5	868
2	2-3	2-3-2	미디어상품패키지그래픽디자인	53	24	12	2	3	0	94
2	2-4	2-4-1	신문·잡지및기타인쇄물광고디자인	470	134	30	3	0	0	637
2	2-4	2-4-2	목외인쇄물광고디자인	717	121	54	5	0	0	897
2	2-5	2-5-1	일러스트레이션	17	15	16	6	4	0	58
2	2-5	2-5-2	아이덴티티디자인	420	114	46	5	2	0	587
2	2-5	2-5-3	캐릭터디자인	526	136	61	8	3	0	734
2	2-5	2-5-4	타이포그래피	129	39	12	2	2	0	184
2	2-5	2-5-5	사진디자인	49	9	0	0	0	0	58
3	3-1	3-1-1	광고영화및비디오물영상디자인	279	96	35	5	0	0	415
3	3-1	3-1-2	일반영화및비디오물영상디자인	617	223	199	110	16	1	1,166
3	3-1	3-1-3	방송프로그램영상디자인	168	105	53	12	7	1	346
3	3-1	3-1-4	애니메이션디자인	70	71	33	15	7	0	196
3	3-1	3-1-5	공간영상디자인	131	38	16	4	1	0	190
3	3-2	3-2-1	웹사이트디자인	851	409	217	64	24	3	1,568
3	3-2	3-2-2	온라인광고디자인	950	454	185	54	19	5	1,667
3	3-3	3-3-1	온라인/모바일게임디자인	366	298	160	59	47	13	943
3	3-3	3-3-2	기타게임디자인	77	53	22	7	3	0	162
3	3-5	3-5-1	디지털DB소스디자인	200	113	81	31	22	3	450
3	3-5	3-5-2	기타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138	78	80	25	21	4	346
4	4-1	4-1-1	인테리어디자인	3,970	1,475	553	143	107	21	6,269
4	4-1	4-1-2	건축디자인	2,507	1,054	642	176	95	27	4,501
4	4-1	4-1-3	실내조경디자인	56	23	8	0	0	0	87
4	4-2	4-2-1	인테리어코디네이션	84	39	18	3	2	0	146
4	4-2	4-2-2	실내조명디자인	3,870	1,708	958	197	112	12	6,857
4	4-3	4-3-1	전시디자인	511	223	100	14	10	3	861
4	4-3	4-3-2	무대디자인	589	353	281	92	21	3	1,339
4	4-4	4-4-1	목재자재디자인	354	131	77	7	4	0	573
4	4-4	4-4-2	플라스틱자재디자인	768	338	229	36	17	2	1,390
4	4-4	4-4-3	금속자재디자인	1,690	742	437	73	20	3	2,965
4	4-4	4-4-4	기타자재디자인	1,821	774	370	60	24	5	3,054
4	4-5	4-5-1	환경디자인	242	76	34	7	2	0	361
4	4-5	4-5-2	경관디자인	182	69	18	12	5	0	286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소분류명	종사자 규모						
				5~9인	10~19인	20~49인	5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계
총계				182,247	83,437	48,159	13,944	7,325	1,721	336,833
4	4-5	4-5-3	예술장식품디자인	187	58	16	4	1	0	266
4	4-6	4-6-1	조경디자인	1,215	488	177	37	17	1	1,935
4	4-6	4-6-2	놀이터/공원디자인	49	14	11	0	1	0	75
4	4-7	4-7-1	주거용건축물리모델링디자인	1,822	961	438	134	67	26	3,448
4	4-7	4-7-2	상업및기타건축물리모델링디자인	1,544	1,055	561	153	63	14	3,390
4	4-8	4-8-1	건축물축조디자인	3,457	1,446	689	173	136	52	5,953
4	4-8	4-8-2	건축물설비디자인	3,503	1,674	779	171	101	32	6,260
4	4-8	4-8-3	건축물유지관리서비스디자인	1,837	1,050	949	410	318	137	4,701
4	4-9	4-9-1	도로및교량디자인	2,042	1,047	668	157	74	25	4,013
4	4-9	4-9-2	토목환경디자인	4,014	2,259	1,175	238	170	49	7,905
4	4-9	4-9-3	토목지질환경디자인	320	215	126	20	8	0	689
5	5-1	5-1-1	남성복디자인	140	92	50	13	20	2	317
5	5-1	5-1-2	여성복디자인	1,040	285	141	24	13	10	1,513
5	5-1	5-1-3	유아동복디자인	122	50	20	7	3	0	202
5	5-1	5-1-4	모피디자인	69	23	9	1	0	0	102
5	5-1	5-1-5	전통복식디자인	70	8	1	1	0	0	80
5	5-2	5-2-1	스포츠웨어디자인	1,747	661	258	43	14	1	2,724
5	5-2	5-2-2	근무복,캐주얼웨어디자인	726	149	66	14	7	1	963
5	5-2	5-2-3	테크니컬웨어,아웃웨어디자인	187	38	9	2	1	0	237
5	5-2	5-2-4	이너웨어디자인	379	144	51	16	9	3	602
5	5-3	5-3-1	인테리어텍스타일디자인	535	150	71	23	5	1	785
5	5-3	5-3-2	직물디자인	88	42	27	4	0	0	161
5	5-3	5-3-3	편물디자인	797	259	80	14	5	1	1,156
5	5-3	5-3-4	프린팅디자인	442	241	236	100	28	0	1,047
5	5-3	5-3-5	기타폐브릭디자인	241	134	98	26	7	0	506
5	5-4	5-4-1	패션악세서리디자인	472	130	55	15	1	1	674
5	5-4	5-4-2	슈즈디자인	367	184	91	24	7	0	673
5	5-4	5-4-3	가방디자인	617	106	40	5	5	0	773
5	5-4	5-4-4	기타잡화디자인	459	122	57	11	5	0	654
6	6-1	6-1-1	보건의료서비스디자인	3,631	2,789	2,658	612	246	18	9,954
6	6-1	6-1-2	여가/레저서비스디자인	1,219	640	471	157	65	6	2,558
6	6-1	6-1-3	교육서비스디자인	177	84	30	10	6	3	310
6	6-1	6-1-4	커뮤니티서비스디자인	294	206	198	30	13	2	743
6	6-1	6-1-5	공공행정서비스디자인	22,752	14,045	4,581	987	527	158	43,050
6	6-2	6-2-1	휴먼인터랙션디자인	463	315	237	96	62	33	1,206
6	6-2	6-2-2	시스템/응용소프트웨어디자인	2,318	1,485	1,062	295	162	24	5,346
6	6-2	6-2-3	디지털간행물디자인	222	86	63	21	19	9	420
6	6-2	6-2-4	사용자인터페이스(UI)디자인	84	56	37	19	12	2	210
6	6-2	6-2-5	기타인터랙티브미디어디자인	404	342	396	145	102	21	1,410
6	6-3	6-3-1	서비스/경영디자인컨설팅	0	0	0	0	0	0	0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소분류명	종사자 규모						
				5~9인	10~19인	20~49인	5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계
총계				182,247	83,437	48,159	13,944	7,325	1,721	336,833
7	7-1	7-1-1	금속단조디자인	185	97	87	19	13	2	403
7	7-1	7-1-2	금속입형디자인	1,303	423	338	99	33	1	2,197
7	7-1	7-1-3	금속주조디자인	182	136	170	49	21	2	560
7	7-1	7-1-4	비철금속주조디자인	204	86	61	18	4	0	373
7	7-1	7-1-5	커머셜주얼리디자인	128	24	16	0	1	0	169
7	7-1	7-1-6	귀금속디자인	187	57	27	8	1	2	282
7	7-1	7-1-7	금속표면장식디자인	6,098	2,249	1,242	160	81	4	9,834
7	7-2	7-2-1	도자디자인	106	18	22	5	3	0	154
7	7-2	7-2-2	건축도자디자인	26	9	24	7	0	0	66
7	7-3	7-3-1	자수디자인	213	47	14	1	0	0	275
7	7-3	7-3-2	매듭디자인	178	74	41	4	1	0	298
7	7-3	7-3-3	염색디자인	77	45	40	7	3	0	172
7	7-3	7-3-4	직조디자인	755	355	217	39	17	1	1,384
7	7-4	7-4-1	대목디자인	128	48	18	2	1	0	197
7	7-4	7-4-2	소목디자인	200	40	16	0	0	0	256
7	7-5	7-5-1	나전·칠공예디자인	147	60	64	28	18	7	324
7	7-5	7-5-2	유리공예디자인	14	5	5	1	1	0	26
7	7-5	7-5-3	가죽공예디자인	123	52	33	12	7	0	227
7	7-5	7-5-4	지물공예디자인	135	135	57	5	1	0	333
7	7-5	7-5-5	석공예디자인	364	72	19	1	0	0	456
8	8-1	8-1-1	디자인목업및모형제작	2,314	911	563	116	39	0	3,943
8	8-1	8-1-2	컴퓨터응용모델링(CAD/CAM)	9	4	0	1	1	0	15
8	8-2	8-2-1	디자인기획	1,221	541	259	55	20	6	2,102
8	8-2	8-2-2	디자인연구및출판	1,706	1,017	689	182	91	8	3,693
8	8-3	8-3-1	법률서비스	1,374	547	255	40	18	8	2,242
8	8-3	8-3-2	행정서비스	98	72	42	11	12	6	241
8	8-3	8-3-3	교육서비스	11,821	4,155	3,859	2,334	1,255	321	23,745
8	8-3	8-3-4	디자인마케팅및유통	30,732	12,662	5,768	1,206	415	77	50,860
8	8-3	8-3-5	디자인관련기관	5,918	1,740	624	145	49	4	8,480
8	8-3	8-3-6	기타산업회사본부	167	131	90	45	42	24	499

2) 표본 설계

(1) 표본크기

- » 표본크기는 표본추출방법과 모집단의 특성 및 총화방법 등의 영향을 받지만, 단순임의추출의 상황 하에서 통계분석 단위별로 평균 추정치의 목표오차를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통제할 것인가에 따라서 아래 식으로 계산할 수 있음.

$$n = \frac{N(zs)^2}{Nd^2 + (zs)^2}$$

- » 여기서 N 은 모집단의 크기이고, s 는 관심변수의 표준편차이며, z 은 신뢰계수임(신뢰수준 95% 하에서 $z=1.96$ 임). 본 조사의 전체 목표 표본크기는 대부분업 업종의 상대표본오차가 3% 이하가 되도록 하였고, 조사의 비용 및 시간을 고려하여 약 10,000개(모집단 크기 대비 약 3.0%)로 결정. 이 때 모비율의 추정에 대하여 예상되는 표본오차는 단순 임의추출을 가정하는 경우 95% 신뢰수준 하에서 약 $\pm 0.97P$ (단, $p=0.5$ 로 가정함)임. 본 조사는 업종 및 종사자수를 고려한 총화추출법을 사용할 것이므로 실제 표본오차가 이보다 조금 더 작을 것으로 기대되며, 일반적인 기준에서 볼 때 표본오차가 충분히 허용할만한 수준으로 판단됨.

(2) 표본추출방법 및 단계

○ 총화

- » 조사내용의 특성과 모집단에 대한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업종과 종사자수를 총화변수로 고려함. 즉, 총화변수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업종: 디자인 특수분류 소분류 154개 (디자인활용업체 해당 특수분류 150개, 전문디자인업체 분류 4개)
 - 종사자규모 : 5~9인, 10~19인, 20~49인, 5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 표본 추출 방법

- » 디자인 활용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1차 표본을 추출하여 조사하고, 1차 표본 중 약 일부를 2차 표본으로 추출하여 관심변수들을 조사하는 이중추출법(two-phase sampling) 사용함.
이는 디자인 활용여부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없기 때문에 조사비용과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함임.

○ 표본 추출 단계

- » 1차 표본 배분: 업종별 종사자규모별 단순비례배분으로 표본크기를 할당할 경우 상당수의 층에 너무 작은 표본 크기가 할당되는 문제점이 발생. 따라서 제곱근비례배분으로 표본크기를 할당하는 것으로 원칙을 정하였으며, 업종별 모집단 크기가 50개 이하 또는 각 층별 조사 모집단 크기가 5개 이하인 경우 또는 종사자수가 300인 이상인 업체는 전수조사를 목표로 조사함. 이러한 원칙 하에서 실제 조사된 표본크기가 아래 표에 제시되어 있음.
- » 2차 표본조사는 1차 표본조사에서 디자인활용업체로 파악된 사업체를 조사대상으로하여 약 1,000개의 표본을 조사하는 것을 목표로 수행된. 1차 조사결과 파악된 디자인활용업체 수 추정치와 이러한 원칙 하에서 실제 조사된 디자인활용업체 실태조사 표본크기를 아래 표에 제시함.

(3) 표본추출방법 및 단계

- » 업종별, 종사자수별 추출률(inclusion probability)을 고려하여 일반업체의 모수에 대한 추정치와 표준오차를 계산함.

○ 디자인 활용 여부 조사(1차 조사)

- » N : 전체 조사 모집단크기
- » N_{ij} : i 번째 업종, j 번째 규모 총의 조사 모집단 크기
- » n'_{ij} : i 번째 업종, j 번째 규모 총의 1차 조사 표본크기
- » $m_{ij} = \sum_k x_{ijk}$: i 번째 업종, j 번째 규모 총의 표본 중 디자인활용업체 수.
- » 단, $x_{ijk} = 1$: 디자인활용업체인 경우, $x_{ijk} = 0$: 디자인활용업체가 아닌 경우

☞ 디자인활용업체의 수

- » 총별 : $\widehat{M}_{ij} = N_{ij} \times \frac{m_{ij}}{n'_{ij}}$
- » 전체 : $\widehat{M} = \sum_i \sum_j \widehat{M}_{ij} = \sum_i \sum_j \sum_k w'_{ijk} x_{ijk}$

☞ 디자인활용업체의 비율

- » 총별 : $\widehat{r}_{ij} = \widehat{M}_{ij} / N_{ij}$
- » 전체 : $\widehat{r} = \widehat{M} / N$

○ 실태조사 (2차 조사)

- y_{ijk} : i 번째 업종, j 번째 규모의 k 번째 표본 일반업체에 대한 관찰값.
- » i : 업종의 번호($i = 1, 2, \dots, I$). 단, $I = 8$.
- » j : 규모의 번호($j = 1, 2, \dots, J$). 단, $J = 6$.
- » k : 권역/업종/규모 내의 표본 일반기업의 번호($k = 1, 2, \dots, n_{ij}$)
- » n_{ij} : i 번째 업종, j 번째 규모 총의 2차 조사 표본크기

- » $n = \sum_{i=1}^I \sum_{j=1}^J n_{ij}$: 2차 조사 전체 표본크기
- » $\overline{y}_{ij} = \sum_{k=1}^{n_{ij}} y_{ijk} / n_{ij}$: i 번째 업종, j 번째 규모의 표본평균

» $\hat{\tau}_{ij} = \widehat{M}_{ij} \overline{y_{ij}}$: i 번째 업종, j 번째 규모의 표본합

» $s_{ij}^2 = \sum_{k=1}^{n_{ij}} (y_{ijk} - \overline{y_{ij}})^2 / (n_{ij} - 1)$: i 번째 업종, j 번째 규모의 표본분산

» \hat{p}_{ij} : i 번째 업종, j 번째 규모의 표본비율

» 모합 τ , 모평균 μ , 모비율 p 에 대한 추정량

$$\bar{\tau} = \sum_{i=1}^I \sum_{j=1}^J \widehat{M}_{ij} \overline{y_{ij}} = \sum_{i=1}^I \sum_{j=1}^J \sum_{k=1}^{n_{ij}} w_{ijk} y_{ijk}$$

$$\hat{\mu} = \sum_{i=1}^I \sum_{j=1}^J \frac{\widehat{M}_{ij}}{\widehat{M}} \overline{y_{ij}}$$

$$\hat{p} = \sum_{i=1}^I \sum_{j=1}^J \frac{\widehat{M}_{ij}}{\widehat{M}} \hat{p}_{ij}$$

○ 분산에 대한 추정량

$$\widehat{Var}(\hat{\tau}_{ij}) = \widehat{M}_{ij}^2 \left(1 - \frac{n_{ij}}{m_{ij}} \right) \frac{s_{ij}^2}{n_{ij}} + N_{ij}^2 \left(1 - \frac{n'_{ij}}{N_{ij}} \right) \frac{s'^2_{ij}}{n'_{ij}}$$

$$\text{단, } s_{ij}^2 = \frac{1}{n_{ij}-1} \sum_k (y_{ijk} - \overline{y_{ij}})^2, \quad s'^2_{ij} = \frac{1}{N_{ij}-1} \left\{ (\widehat{M}_{ij}-1)s_{ij}^2 + \frac{N_{ij}-\widehat{M}_{ij}}{N_{ij}} \widehat{M}_{ij} \overline{y_{ij}}^2 \right\}$$

$$\widehat{Var}(\hat{\tau}) = \sum_{i=1}^I \sum_{j=1}^J \widehat{Var}(\hat{\tau}_{ij})$$

○ 가중치 산정

» 본 조사의 가중치는 사후총화 방법을 적용하였으며, 모집단 크기인 N_{ij} 개와 표본조사된 사업체수인 n_{ij}

를 비교하여 표본조사된 사업체 1개는 모집단의 $\frac{N_{ij}}{n_{ij}}$ 를 대표하므로 다음과 같이 계산함.

$$W_{ijk} = \frac{N_{ij}}{n_{ij}}, \quad (i=\text{디자인산업특수분류}, j=\text{종사자, 규모총})$$

(4) 주요항목 공표범위

» 조사 결과는 디자인산업 특수분류 대분류와 규모별로 구분해 공표하고, 공표 시에는 주요변수(디자인 활용여부, 디자인 투자금액 등)에 대한 표본 오차를 제시함.

▣ 디자인활용업체의 대분류업종/규모별 표본 크기

대분류 업종	총사자 규모						
	5-9인	10-19인	20-49인	5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계
총계	3,125	2,050	1,596	874	634	1,721	10,000
제품디자인	663	432	383	219	166	441	2,304
시각디자인	319	188	150	92	69	69	887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149	109	81	51	33	30	453
공간디자인	658	452	327	163	124	412	2,136
패션/텍스타일디자인	290	166	114	62	47	20	699
서비스/경험디자인	313	249	192	102	73	276	1,205
산업공예디자인	286	171	139	68	43	19	726
디자인인프라(디자인기반기술)	447	283	210	117	79	454	1,590

▣ 디자인활용업체의 대분류업종/규모별 표본 크기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소분류명	총사자 규모				
				5-9인	10-19인	20-49인	50-99인	100-299인
			총계	3,125	2,050	1,596	874	634
1	1-1	1-1-1	의료기기디자인	26	15	12	7	5
1	1-1	1-1-2	컴퓨터및모니터디자인	8	5	5	3	5
1	1-1	1-1-3	컴퓨터주변기기디자인	9	7	6	3	3
1	1-1	1-1-4	유무선통신기기및통신장비디자인	21	16	15	9	6
1	1-1	1-1-5	영상기기디자인	11	8	7	4	3
1	1-1	1-1-6	음향기기디자인	11	7	7	4	3
1	1-1	1-1-7	방송용장비/기기디자인	12	9	8	4	3
1	1-1	1-1-8	생활가전및주방가전디자인	29	20	17	9	6
1	1-1	1-1-9	사무기기디자인	9	6	6	4	2
1	1-1	1-1-10	조명기기디자인	21	13	10	4	3
1	1-1	1-1-11	전기장비및특수용도조명등디자인	43	28	23	12	9
1	1-2	1-2-1	공구디자인	19	14	11	5	4
1	1-2	1-2-2	악기디자인	17	7	8	3	1
1	1-2	1-2-3	측정,시험,제어및기타정밀기기디자인	29	19	15	8	5
1	1-2	1-2-4	반도체및전자부품제조관련디자인	36	25	22	14	13
1	1-2	1-2-5	로봇디자인	9	6	5	3	5
1	1-2	1-2-6	시계디자인	25	6	3	1	0
1	1-3	1-3-1	안경및광학기기디자인	12	8	7	5	4
1	1-3	1-3-2	완구디자인	9	5	3	3	2
1	1-3	1-3-3	스포츠/레저용품디자인	9	6	4	4	2
1	1-3	1-3-4	사무/회화용품디자인	7	3	4	2	3
1	1-3	1-3-5	위생용품디자인	7	4	4	2	5
1	1-3	1-3-6	용기(用器)디자인	4	3	3	4	3
1	1-3	1-3-7	생활용품디자인	22	14	11	5	3
1	1-3	1-3-8	종이및판지제품디자인	30	21	18	9	5
1	1-3	1-3-9	화학제품,고무,플라스틱제품디자인	52	38	35	18	13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소분류명	종사자 규모						
				5-9인	10-19인	20-49인	5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계
총계				3,125	2,050	1,596	874	634	1,721	10,000
1	1-4	1-4-1	자동차디자인	34	27	30	20	15	87	213
1	1-4	1-4-2	요트/선박디자인	20	15	17	13	13	13	91
1	1-4	1-4-3	기차디자인	1	2	2	1	1	1	8
1	1-4	1-4-4	항공/우주선디자인	10	5	4	1	0	2	22
1	1-4	1-4-5	바이크디자인	6	3	3	4	1	0	17
1	1-4	1-4-6	기타운송기기디자인	16	12	12	6	3	4	53
1	1-5	1-5-1	리빙가구디자인	13	6	4	4	2	0	29
1	1-5	1-5-2	주방가구디자인	20	10	7	3	2	2	44
1	1-5	1-5-3	의료가구디자인	4	3	3	1	0	0	11
1	1-5	1-5-4	기타가구디자인	36	21	16	6	4	3	86
1	1-6	1-6-1	제조업회사본부디자인	16	15	16	11	9	76	143
2	2-1	2-1-1	일반서적편집디자인	30	19	14	6	5	6	80
2	2-1	2-1-2	신문/잡지편집디자인	18	12	10	7	5	11	63
2	2-1	2-1-3	기타인쇄물편집디자인	22	8	6	3	2	0	41
2	2-2	2-2-1	축.수산물가공식품패키지그래픽디자인	32	22	20	11	8	8	101
2	2-2	2-2-2	농산물가공식품패키지그래픽디자인	27	16	13	6	4	0	66
2	2-2	2-2-3	낙농품및빙과류패키지그래픽디자인	5	4	5	4	4	4	26
2	2-2	2-2-4	떡,빵,과자,면류패키지그래픽디자인	25	14	12	7	6	16	80
2	2-2	2-2-5	기타식품패키지그래픽디자인	28	18	15	9	6	6	82
2	2-2	2-2-6	음료패키지그래픽디자인	8	6	6	4	4	4	32
2	2-2	2-2-7	의약품패키지그래픽디자인	11	8	9	8	7	9	52
2	2-3	2-3-1	화학제품패키지그래픽디자인	17	11	10	6	4	5	53
2	2-3	2-3-2	미디어상품패키지그래픽디자인	6	4	3	2	3	0	18
2	2-4	2-4-1	신문·잡지및기타인쇄물광고디자인	17	9	4	3	0	0	33
2	2-4	2-4-2	옥외인쇄물광고디자인	21	9	6	5	0	0	41
2	2-5	2-5-1	일러스트레이션	3	3	3	2	4	0	15
2	2-5	2-5-2	아이덴티티디자인	16	9	5	5	2	0	37
2	2-5	2-5-3	캐릭터디자인	18	9	6	2	3	0	38
2	2-5	2-5-4	타이포그래피	9	5	3	2	2	0	21
2	2-5	2-5-5	사진디자인	6	2	0	0	0	0	8
3	3-1	3-1-1	광고영화및비디오물영상디자인	13	8	5	5	0	0	31
3	3-1	3-1-2	일반영화및비디오물영상디자인	20	12	11	8	3	1	55
3	3-1	3-1-3	방송프로그램영상디자인	10	8	6	3	2	1	30
3	3-1	3-1-4	애니메이션디자인	7	7	5	3	2	0	24
3	3-1	3-1-5	공간영상디자인	9	5	3	4	1	0	22
3	3-2	3-2-1	웹사이트디자인	23	16	12	6	4	3	64
3	3-2	3-2-2	온라인광고디자인	25	17	11	6	4	5	68
3	3-3	3-3-1	온라인/모바일게임디자인	15	14	10	6	6	13	64
3	3-3	3-3-2	기타게임디자인	7	6	4	2	3	0	22
3	3-5	3-5-1	디지털DB소스디자인	11	9	7	4	4	3	38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소분류명	종사자 규모						
				5-9인	10-19인	20-49인	5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계
총계				3,125	2,050	1,596	874	634	1,721	10,000
3	3-5	3-5-2	기타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9	7	7	4	4	4	35
4	4-1	4-1-1	인테리어디자인	51	31	19	10	8	21	140
4	4-1	4-1-2	건축디자인	40	26	20	11	8	27	132
4	4-1	4-1-3	실내조경디자인	6	4	2	0	0	0	12
4	4-2	4-2-1	인테리어코디네이션	7	5	3	3	2	0	20
4	4-2	4-2-2	실내조명디자인	50	33	25	11	9	12	140
4	4-3	4-3-1	전시디자인	18	12	8	3	3	3	47
4	4-3	4-3-2	무대디자인	19	15	13	8	4	3	62
4	4-4	4-4-1	목재자재디자인	15	9	7	2	4	0	37
4	4-4	4-4-2	플라스틱자재디자인	22	15	12	5	3	2	59
4	4-4	4-4-3	금속자재디자인	33	22	17	7	4	3	86
4	4-4	4-4-4	기타자재디자인	34	22	15	6	4	5	86
4	4-5	4-5-1	환경디자인	12	7	5	2	2	0	28
4	4-5	4-5-2	경관디자인	11	7	3	3	5	0	29
4	4-5	4-5-3	예술장식품디자인	11	6	3	4	1	0	25
4	4-6	4-6-1	조경디자인	28	18	11	5	3	1	66
4	4-6	4-6-2	놀이터/공원디자인	6	3	3	0	1	0	13
4	4-7	4-7-1	주거용건축물리모델링디자인	34	25	17	9	7	26	118
4	4-7	4-7-2	상업및기타건축물리모델링디자인	32	26	19	10	6	14	107
4	4-8	4-8-1	건축물축조디자인	47	31	21	11	9	52	171
4	4-8	4-8-2	건축물설비디자인	47	33	22	11	8	32	153
4	4-8	4-8-3	건축물유지관리서비스디자인	34	26	25	16	14	137	252
4	4-9	4-9-1	도로및교량디자인	36	26	21	10	7	25	125
4	4-9	4-9-2	토목환경디자인	51	38	27	12	10	49	187
4	4-9	4-9-3	토목지질환경디자인	14	12	9	4	2	0	41
5	5-1	5-1-1	남성복디자인	10	8	6	3	4	2	33
5	5-1	5-1-2	여성복디자인	26	14	10	4	3	10	67
5	5-1	5-1-3	유아동복디자인	9	6	4	2	3	0	24
5	5-1	5-1-4	모피디자인	7	4	2	1	0	0	14
5	5-1	5-1-5	전통복식디자인	7	2	1	1	0	0	11
5	5-2	5-2-1	스포츠웨어디자인	34	21	13	5	3	1	77
5	5-2	5-2-2	근무복,캐주얼웨어디자인	22	10	7	3	2	1	45
5	5-2	5-2-3	테크니컬웨어,아우터웨어디자인	11	5	2	2	1	0	21
5	5-2	5-2-4	이너웨어디자인	16	10	6	3	2	3	40
5	5-3	5-3-1	인테리어텍스타일디자인	19	10	7	4	5	1	46
5	5-3	5-3-2	직물디자인	8	5	4	4	0	0	21
5	5-3	5-3-3	편물디자인	23	13	7	3	5	1	52
5	5-3	5-3-4	프린팅디자인	17	12	12	8	4	0	53
5	5-3	5-3-5	기타페브릭디자인	12	9	8	4	2	0	35
5	5-4	5-4-1	패션액세서리디자인	17	9	6	3	1	1	37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소분류명	종사자 규모						
				5~9인	10~19인	20~49인	5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계
총계				3,125	2,050	1,596	874	634	1,721	10,000
5	5-4	5-4-2	슈즈디자인	15	11	8	4	2	0	40
5	5-4	5-4-3	가방디자인	20	8	5	5	5	0	43
5	5-4	5-4-4	기타잡화디자인	17	9	6	3	5	0	40
6	6-1	6-1-1	보건의료서비스디자인	48	42	41	20	13	18	182
6	6-1	6-1-2	여가/레저서비스디자인	28	20	17	10	6	6	87
6	6-1	6-1-3	교육서비스디자인	11	7	4	3	2	3	30
6	6-1	6-1-4	커뮤니티서비스디자인	14	12	11	4	3	2	46
6	6-1	6-1-5	공공행정서비스디자인	121	95	54	25	18	158	471
6	6-2	6-2-1	휴먼인터렉션디자인	17	14	12	8	6	33	90
6	6-2	6-2-2	시스템/응용소프트웨어디자인	39	31	26	14	10	24	144
6	6-2	6-2-3	디지털간행물디자인	12	7	6	4	4	9	42
6	6-2	6-2-4	사용자인터페이스(UI)디자인	7	6	5	4	3	2	27
6	6-2	6-2-5	기타인터넷브이미디어디자인	16	15	16	10	8	21	86
6	6-3	6-3-1	서비스/경영디자인컨설팅	0	0	0	0	0	0	0
7	7-1	7-1-1	금속단조디자인	11	8	8	4	3	2	36
7	7-1	7-1-2	금속압형디자인	29	17	15	8	5	1	75
7	7-1	7-1-3	금속주조디자인	11	9	10	6	4	2	42
7	7-1	7-1-4	비철금속주조디자인	11	7	6	3	4	0	31
7	7-1	7-1-5	커머셜주얼리디자인	9	4	3	0	1	0	17
7	7-1	7-1-6	귀금속디자인	11	6	4	2	1	2	26
7	7-1	7-1-7	금속표면장식디자인	63	38	28	10	7	4	150
7	7-2	7-2-1	도자디자인	8	3	4	5	3	0	23
7	7-2	7-2-2	건축도자디자인	4	2	4	2	0	0	12
7	7-3	7-3-1	자수디자인	12	6	3	1	0	0	22
7	7-3	7-3-2	매듭디자인	11	7	5	4	1	0	28
7	7-3	7-3-3	염색디자인	7	5	5	2	3	0	22
7	7-3	7-3-4	직조디자인	22	15	12	5	3	1	58
7	7-4	7-4-1	대목디자인	9	6	3	2	1	0	21
7	7-4	7-4-2	소목디자인	11	5	3	0	0	0	19
7	7-5	7-5-1	나전·칠공예디자인	10	6	6	4	3	7	36
7	7-5	7-5-2	유리공예디자인	14	5	5	1	1	0	26
7	7-5	7-5-3	가죽공예디자인	9	6	5	3	2	0	25
7	7-5	7-5-4	지물공예디자인	9	9	6	5	1	0	30
7	7-5	7-5-5	석공예디자인	15	7	4	1	0	0	27
8	8-1	8-1-1	디자인목업및모형제작	39	24	19	9	5	0	96
8	8-1	8-1-2	컴퓨터응용모델링(CAD/CAM)	9	4	0	1	1	0	15
8	8-2	8-2-1	디자인기획	28	19	13	6	4	6	76
8	8-2	8-2-2	디자인연구및출판	33	26	21	11	8	8	107
8	8-3	8-3-1	법률서비스	30	19	13	5	3	8	78
8	8-3	8-3-2	행정서비스	8	7	5	3	3	6	32
8	8-3	8-3-3	교육서비스	87	52	50	39	28	321	577
8	8-3	8-3-4	디자인마케팅및유통	141	90	61	28	16	77	413
8	8-3	8-3-5	디자인관련기관	62	33	20	10	6	4	135
8	8-3	8-3-6	기타산업회사본부	10	9	8	5	5	24	61

디자인활용업체의 실태조사 표본크기

대분류 업종	종사자 규모						
	5-9인	10-19인	20-49인	5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계
총계	368	307	215	96	75	143	1,204
제품디자인	57	59	48	26	16	47	253
시각디자인	63	36	27	10	5	12	153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33	23	17	4	3	6	86
공간디자인	83	81	32	12	9	22	239
패션/텍스타일디자인	34	23	22	7	7	5	98
서비스/경험디자인	36	29	19	10	16	29	139
산업공예디자인	19	20	24	8	4	2	77
디자인인프라(디자인기반기술)	43	36	26	19	15	20	159

2 전문디자인업체 조사

1) 모집단 분석

- » 2014년 전국사업체조사 DB를 이용하여 전문디자인업체의 업종별/규모별 사업체수를 파악함. 전체 전문디자인업체 사업체 수는 4,976개 업체로 나타남. 전문디자인업체의 경우 규모가 작은 사업체가 대다수로 4인 이하의 업체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킴. 디자인산업 특수분류 기준으로 1-7-1 제품디자인은 1,240개, 2-5-6 시각디자인은 1,889개, 4-10-1 인테리어디자인은 1,083개, 5-5-1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은 764개 업체로 나타남. 종사자수별로는 4인 이하가 3,734개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5-9인 854개, 10-19인 280개, 20-49인 93개, 50인 이상 15개로 나타남.

전문디자인업체의 업종/규모별 모집단 크기(2014년 전국사업체조사 기준)

디자인 특수분류	업종	종사자 규모					
		4인 이하	5-9인	10-19인	20-49인	50인 이상	계
	총계	3,734	854	280	93	15	4,976
1-7-1	제품디자인	866	251	98	23	2	1,240
2-5-6	시각디자인	1,419	328	97	37	8	1,889
4-10-1	인테리어디자인	843	166	50	22	2	1,083
5-5-1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	606	109	35	11	3	764

2) 표본설계

(1) 표본크기

- » 표본크기는 표본추출방법과 모집단의 특성 및 층화방법 등의 영향을 받지만, 단순임의추출의 상황 하에서 통계분석 단위별로 평균 추정치의 목표오차 d 를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통제할 것인가에 따라서 아래 식으로 계산할 수 있음.

$$n = \frac{N(zs)^2}{Nd^2 + (zs)^2}$$

- » 여기서 N 은 모집단의 크기이고, s 는 관심변수의 표준편차이며, z 은 신뢰계수이다(신뢰수준 95% 하에서 $z=1.96$ 이다).

본 조사의 전체 목표 표본크기는 모집단 크기 및 비용을 고려하여 약 600개 (모집단 크기 대비 약 13.1%)로 결정함.

이 때 모비율의 추정에 대하여 예상되는 표본오차는 단순임의추출을 가정하는 경우 95% 신뢰수준 하에서 약 $\pm 3.75\%$ ($p=0.5$ 로 가정함)임.

본 조사는 업종 및 종사자수를 고려한 층화추출법을 사용할 것이므로 실제 표본오차가 이보다 조금 더 작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일반적인 기준에서 볼 때 표본오차가 충분히 허용할만한 수준으로 판단됨.

(2) 표본추출방법 및 단계

○ 층화

- » 조사내용의 특성과 모집단에 대한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업종과 종사자수를 층화변 수로 고려함. 즉, 층화변수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업종: 디자인 특수분류 소분류 4개
 - 종사자규모 : 4인 이하, 5~9인, 10~19인, 20~49인, 50인 이상

○ 표본 추출 방법

- » 업종별 종사자규모별 단순비례배분으로 표본크기를 할당할 경우 상당수의 층에 너무 작은 표본크기가 할당되는 문제점이 발생함. 따라서 제곱근비례배분으로 표본크기를 할당하는 것으로 원칙을 정하였으며, 업종별 모집단 크기가 50개 이하 또는 각 층별 조사 모집단 크기가 5개 이하인 경우 또는 종사자수가 50인 이상인 업체는 전수조사를 목표로 조사함. 이러한 원칙 하에서 실제 조사된 표본크기가 아래 표에 제시되어 있음.

전문디자인업체의 업종/규모별 할당

디자인 특수분류	업종	종사자 규모					
		4인 이하	5-9인	10-19인	20-49인	50인 이상	계
	총계	309	146	83	47	15	600
1-7-1	제품디자인	75	40	25	12	2	154
2-5-6	시각디자인	97	46	25	15	8	191
4-10-1	인테리어디자인	74	33	18	12	2	139
5-5-1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	63	27	15	8	3	116

(3) 모수 추정

» 업종별, 종사자수별 추출률(inclusion probability)을 고려하여 전문디자인업체의 모수에 대한 추정치와 표준오차를 계산함.

- y_{ijk} : 관찰값(각 문항에 대한 응답)

» i : 업종의 번호($i = 1, 2, \dots, I$). 단, $I = 4$.

» j : 규모의 번호($j = 1, 2, \dots, J$). 단, $J = 5$.

» k : 업종/규모 내의 표본 전문디자인업체의 번호($k = 1, 2, \dots, n_{hij}$)

즉, y_{ijk} 는 i 번째 업종, j 번째 규모의 k 번째 표본 전문디자인업체에 대한 관찰값임.

» n_{ij} : i 번째 업종, j 번째 규모에 대한 표본크기

» N_{ij} : i 번째 업종, j 번째 규모에 대한 모집단크기

» $n = \sum_{i=1}^I \sum_{j=1}^J n_{ij}$: 전체 표본크기

» $N = \sum_{i=1}^I \sum_{j=1}^J N_{ij}$: 전체 모집단 크기

» $\bar{y}_{ij} = \sum_{k=1}^{n_{ij}} y_{ijk} / n_{ij}$: i 번째 업종, j 번째 규모의 표본평균

» $\hat{\tau}_{ij} = N_{ij} \bar{y}_{ij}$: i 번째 업종, j 번째 규모의 표본 합

» $s_{ij}^2 = \sum_{k=1}^{n_{ij}} (y_{ijk} - \bar{y}_{ij})^2 / (n_{ij} - 1)$: i 번째 업종, j 번째 규모의 표본분산

» \hat{p}_{ij} : i 번째 업종, j 번째 규모의 표본비율

» 모합 τ 의 추정량 및 분산

$$\begin{aligned} - \hat{\tau} &= \sum_{i=1}^I \sum_{j=1}^J N_{ij} \bar{y}_{ij} \\ - \widehat{Var}(\hat{\tau}) &= \sum_{i=1}^I \sum_{j=1}^J N_{ij}^2 \left(\frac{N_{ij} - n_{ij}}{N_{ij}} \right) \frac{s_{ij}^2}{n_{ij}} \end{aligned}$$

» 모평균 μ 의 추정량 및 분산

$$\begin{aligned} - \hat{\mu} &= \sum_{i=1}^I \sum_{j=1}^J \frac{N_{ij}}{N} \bar{y}_{ij} \\ - \widehat{Var}(\hat{\mu}) &= \sum_{i=1}^I \sum_{j=1}^J \left(\frac{N_{ij}}{N} \right)^2 \left(\frac{N_{ij} - n_{ij}}{N_{ij}} \right) \frac{s_{ij}^2}{n_{ij}} \end{aligned}$$

» 모비율 p 의 추정량 및 분산

$$\begin{aligned} - \hat{p} &= \sum_{i=1}^I \sum_{j=1}^J \frac{N_{ij}}{N} \bar{y}_{ij} \\ - \widehat{Var}(\hat{p}) &= \sum_{i=1}^I \sum_{j=1}^J \left(\frac{N_{ij}}{N} \right)^2 \left(\frac{N_{ij} - n_{ij}}{N_{ij}} \right) \frac{\hat{p}_{ij}(1 - \hat{p}_{ij})}{n_{ij} - 1} \end{aligned}$$

(4) 주요항목 공표범위

- » 조사 결과의 공표는 디자인 특수분류 대분류, 업체 규모별로 공표하고 공표 시에는 주요변수(매출액, 디자이너 수)에 대한 표본 오차를 제시함.

▣ 전문디자인업체 실태조사 표본크기

디자인 특수분류	업종	총조사 규모					
		4인 이하	5~9인	10~19인	20~49인	50인 이상	계
	총계	94	222	154	70	82	622
1-7-1	제품디자인	19	62	41	20	15	157
2-5-6	시각디자인	31	61	48	32	34	206
4-10-1	인테리어디자인	17	48	47	10	15	137
5-5-1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	27	51	18	8	18	122

3 중앙부처 및 지자체

1) 중앙부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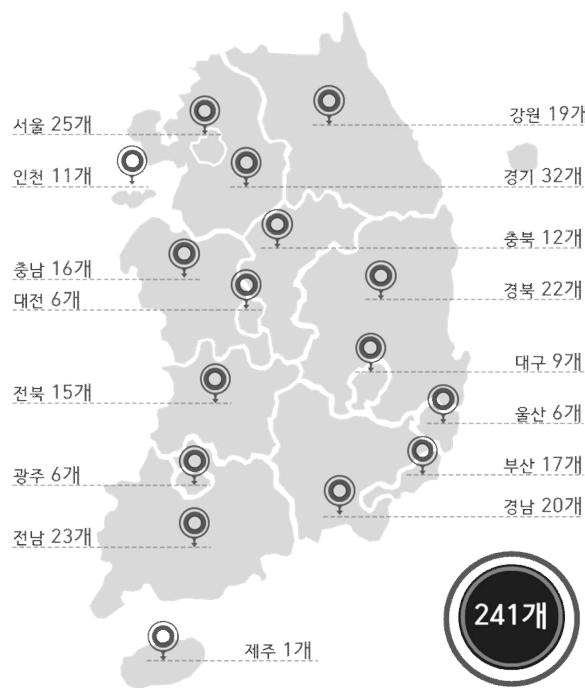
▣ 총 36개 기관 중 33개 기관 조사 완료①

중앙부처	
17부 (16부 완료)	고용노동부, 교육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외교부, 통일부,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환경부
5처 (5처 완료)	국가보훈처, 국민안전처(구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사혁신처
16청 (14청 완료)	관세청, 국세청, 기상청, 농촌진흥청, 문화재청, 방위사업청, 병무청, 산림청, 새만금개발청, 조달청, 중소기업청, 통계청, 특허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 지방자치단체

▣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241개 조사 완료②

▶▶ 지방자치단체 지역별 모집단 크기 (2015년)



시/도	시군구(행정구/자치구)			계
	시	군	구	
서울	1		24	25
부산	1	1	15	17
대구	1	1	7	9
인천	1	2	8	11
광주	1		5	6
대전	1		5	6
울산	1	1	4	6
경기	1	28	3	32
강원	1	7	11	19
충북	1	3	8	12
충남	1	8	7	16
세종	1			1
전북	1	6	8	15
전남	1	5	17	23
경북	1	8	13	22
경남	1	10	9	20
제주	1			1
계	17	75	81	241

①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미응답

② 서울 중랑구, 경남 산청군 미응답

02

조사표

디자인 활용업체 | 전문 디자인업체 |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2016 산업디자인통계조사 (디자인활용업체)	 산업통상자원부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p>안녕하십니까?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p> <p>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산업디자인증명법 제10조의 2에 근거하여 산업디자인활용증명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2016 산업디자인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p> <p>본 조사는 통계법 제18조에 의한 승인통계로, 기업의 디자인관련 현황을 조사하여 디자인 정책을 효과적으로 분석하고, 디자인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매우 중요한 조사입니다.</p> <p>번거로우시겠지만 짧지만 시간을 내시어 설문조사에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p> <p>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고,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귀사에 피해가 가는 일이 없으므로 솔직한 응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16년 산업통상자원부/한국디자인진흥원</p>																																																																											
주관 기관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엔지니어링PD 심다은 주임연구원(031-780-2266)	조사 기관	산업디자인통계조사사무국 양대영(02-3488-1697)																																																																								
<p>■ 사업체 기본 현황</p> <p>★ 이후 모든 문항은 기업 기준이 아닌 사업체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ID</th> <th colspan="2"></th> <th>List No</th> <th colspan="2"></th> </tr> </thead> <tbody> <tr> <td>1. List 명시(별첨)</td> <td>지역</td> <td></td> <td>업종</td> <td></td> <td>상용근로자수</td> </tr> <tr> <td>2. 조사결과</td> <td>지역</td> <td></td> <td>업종</td> <td></td> <td>상용근로자수</td> </tr> <tr> <td>3. 사업체명</td> <td colspan="5"></td> </tr> <tr> <td>4. 사업지등록번호</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5. 상세업종</td> <td colspan="5">※ 리스트의 업종과 실제 업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상세업종을 구체적으로 작성</td> </tr> <tr> <td>6. 기업규모분류</td> <td>① 대기업</td> <td>② 중견기업</td> <td>③ 중기업</td> <td>④ 소기업</td> <td></td> </tr> <tr> <td>7. 조직형태</td> <td>① 개인사업체 ② 회사법인 ③ 회사이외법인 ④ 비법인 단체</td> <td>]</td> <td>→</td> <td>구분</td> <td>① 단독사업체 ② 본사, 본점 등 ③ 공장, 지사(점), 영업소 등</td> </tr> <tr> <td colspan="6" style="font-size: small; text-align: center;"> ※ 회사이외법인 : 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사업체, 재단법인, 사단법인, 특수법인(법무회계법인, 공사, 공단 등) ※ 비법인 단체 : 법인격이 없는 단체나 모임, 종교단체, 문화단체, 후원회 등 </td> </tr> <tr> <td>8. 재무제표 작성여부</td> <td>① 작성 ② 미작성</td> <td>9. 상장 여부</td> <td>① 상장</td> <td>② 비상장</td> <td></td> </tr> <tr> <td>10. 외경기업 여부</td> <td></td> <td>10. 외경기업 여부</td> <td>① 외경기업</td> <td>② 비외경기업</td> <td></td> </tr> <tr> <td>11. 최종 상품의 유형</td> <td>① 최종소비재 ② 자본재(기계류 등)</td> <td>③ 중간재(부품, 소재)</td> <td>④ 서비스</td> <td></td> <td></td> </tr> </tbody> </table>				ID			List No			1. List 명시(별첨)	지역		업종		상용근로자수	2. 조사결과	지역		업종		상용근로자수	3. 사업체명						4. 사업지등록번호			—		—	5. 상세업종	※ 리스트의 업종과 실제 업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상세업종을 구체적으로 작성					6. 기업규모분류	① 대기업	② 중견기업	③ 중기업	④ 소기업		7. 조직형태	① 개인사업체 ② 회사법인 ③ 회사이외법인 ④ 비법인 단체]	→	구분	① 단독사업체 ② 본사, 본점 등 ③ 공장, 지사(점), 영업소 등	※ 회사이외법인 : 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사업체, 재단법인, 사단법인, 특수법인(법무회계법인, 공사, 공단 등) ※ 비법인 단체 : 법인격이 없는 단체나 모임, 종교단체, 문화단체, 후원회 등						8. 재무제표 작성여부	① 작성 ② 미작성	9. 상장 여부	① 상장	② 비상장		10. 외경기업 여부		10. 외경기업 여부	① 외경기업	② 비외경기업		11. 최종 상품의 유형	① 최종소비재 ② 자본재(기계류 등)	③ 중간재(부품, 소재)	④ 서비스		
ID			List No																																																																								
1. List 명시(별첨)	지역		업종		상용근로자수																																																																						
2. 조사결과	지역		업종		상용근로자수																																																																						
3. 사업체명																																																																											
4. 사업지등록번호			—		—																																																																						
5. 상세업종	※ 리스트의 업종과 실제 업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상세업종을 구체적으로 작성																																																																										
6. 기업규모분류	① 대기업	② 중견기업	③ 중기업	④ 소기업																																																																							
7. 조직형태	① 개인사업체 ② 회사법인 ③ 회사이외법인 ④ 비법인 단체]	→	구분	① 단독사업체 ② 본사, 본점 등 ③ 공장, 지사(점), 영업소 등																																																																						
※ 회사이외법인 : 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사업체, 재단법인, 사단법인, 특수법인(법무회계법인, 공사, 공단 등) ※ 비법인 단체 : 법인격이 없는 단체나 모임, 종교단체, 문화단체, 후원회 등																																																																											
8. 재무제표 작성여부	① 작성 ② 미작성	9. 상장 여부	① 상장	② 비상장																																																																							
10. 외경기업 여부		10. 외경기업 여부	① 외경기업	② 비외경기업																																																																							
11. 최종 상품의 유형	① 최종소비재 ② 자본재(기계류 등)	③ 중간재(부품, 소재)	④ 서비스																																																																								
<p>■ 응답자 현황</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3%;">1 응답자 성명</td> <td style="width: 33%;">응답자 연락처</td> <td style="width: 34%;">() -</td> </tr> <tr> <td>2 응답자 부서(팀)</td> <td>응답자 직책</td> <td></td> </tr> <tr> <td></td> <td>전공분야</td> <td>① 디자인 전공 ② 디자인 외 전공</td> </tr> </table>				1 응답자 성명	응답자 연락처	() -	2 응답자 부서(팀)	응답자 직책			전공분야	① 디자인 전공 ② 디자인 외 전공																																																															
1 응답자 성명	응답자 연락처	() -																																																																									
2 응답자 부서(팀)	응답자 직책																																																																										
	전공분야	① 디자인 전공 ② 디자인 외 전공																																																																									

SC1. 귀사의 디자인 활용 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	아니오
①	2015년 12월 기준으로 귀사에는 디자인 부서가 있었습니다?	①	②
②	※ 디자이나: 디자이너로 고용된 자 중 디자인 관련학과 전공 또는 디자인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이거나, 디자인 관련학과 또는 자격증 소지자가 아니라도 디자인 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①	②
③	2014년, 2015년 동안 귀사에서 생산하는 제품 및 제공하는 서비스의 디자인 개발을 위해 전문디자인업체에 용역을 의뢰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②

SC2. [SC1에서 모두 없다고 이는 경우]

1) 귀사는 2014~2015년 동안 신제품을 출시했거나 기존 상품의 디자인을 변경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예 ②아니오

2) [신제품 출시 및 디자인 변경 경험이 있는 경우]

신제품 디자인 혹은 디자인 변경은 어떤 방법(자체, 외주 등)으로 하셨습니까?

[디자인활용 현황]
문1) [SC1 디자인 부서가 있는 경우]

귀사의 디자인부서는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지 모두 선택해 주세요.

- ① 기업 디자인센터, 디자인연구소 등 독립된 디자인 부서(팀)가 있다
- ② R&D 연구소 등 R&D 관련 부서 내에 디자인 부서(팀)를 운영하고 있다
- ③ 상품기획, 마케팅 등 R&D 이외의 부서에서 디자인 부서(팀)를 운영하고 있다
- ④ 기타()

문2) 2015년 기준, 귀사에서 디자인 개발을 할 때

자체 디자인 개발 비중(사내 인력 활용)과

외주 디자인 개발 비중(그룹 내 디자인 전문 계열사, 외부 전문 디자인업체, 프리랜서를 활용)을 작성해주세요. 디자인 개발 건 수와 개발 비용 각각의 기준으로 작성해 주세요.

구분	디자인 개발 건 수 기준	디자인 개발 비용 기준
자체 디자인 개발	%	%
외주 디자인 개발	%	%
합계	100%	100%

문2-1) [외주 디자인 개발이 있는 경우]

외주 대상별 비중은 어떠합니까? 각각의 합이 100%가 되도록 작성해 주세요.

구분	디자인 개발 건 수 기준	디자인 개발 비용 기준
그룹 내 디자인 전문 계열사	%	%
외부 전문 디자인업체	%	%
프리랜서	%	%
합계	100%	100%

문2-2) 국내, 해외 의뢰 비중은 어떠합니까? 각각의 합이 100%가 되도록 작성해 주세요.

구분	디자인 개발 건 수 기준	디자인 개발 비용 기준
국내 의뢰	%	%
해외 의뢰	%	%
합계	100%	100%

문3) 귀사의 디자인 활용 분야 비중을 작성해 주세요. 활용 비중의 합은 100%입니다.

분야	범위	활용 비중
① 제품디자인	전기 전자 제품디자인, 디자인 기계 및 공구디자인, 생활/환경용품디자인, 운송기기디자인, 가구디자인, 제조업 회사본부 디자인, 기타 제품디자인	%
② 시각디자인	편집디자인, 식·의약품 패키지디자인, 비식·의약품 패키지디자인, 광고디자인(인쇄매체), 기타 시각디자인	%
③ 디자인/멀티미디어디자인	영상디자인, 웹디자인, 게임디자인, 기타 디자인/멀티미디어디자인	%
④ 공간디자인	건축디자인, 인테리어공간디자인, 전시 및 무대디자인, 인테리어 자재디자인, 익스테리어디자인, 조경 및 레저공간디자인, 리모델링디자인, 건설환경디자인, 토목환경디자인, 기타인테리어디자인	%
⑤ 패션/액스터디자인	패션디자인, 기능성패션디자인, 텍스타일디자인, 접화디자인, 기타패션액스터디자인	%
⑥ 서비스디자인	보건의료서비스디자인, 여가/레저서비스디자인, 교육서비스디자인, 커뮤니티서비스디자인, 공공행정서비스디자인	%
⑦ 경험디자인	사용자인터페이스(UIS)디자인, 사용자경험(UX)디자인, 유연인터랙션디자인	%
⑧ 산업공예디자인	금속공예, 도자공예, 섬유공예, 목공예, 기타공예	%
⑨ 디자인인프라	디자인 모형, 디자인 연구개발, 기타디자인서비스	%
⑩ 기타디자인()		%

[디자인 투자 실적]

문4) 귀사의 2015년 사업실적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분	집계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① 매출액	2015년 1년간 사업 활동을 통한 수익총액							
② 인건비	급여, 복리후생비, 팀직급여, 충당금전입액 등 인건비성 제비용으로 기타증사업자에게 지급되는 수령, 수수료도 포함							
③ 연구개발비	연구비, 개발비, 경상개발비의 합으로 구성됨							
④ 영업이익	매출액 - 영업비용(매출원가,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등)							

문5) 귀사의 2015년 디자인 투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분	집계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① 디자인 인건비	고용 디자인 인건비							
② 디자인체 융역비	전문디자인업체 융역비							
③ 그 외 디자인 용역비	프리랜서 등 고용되지 않은 인력에게 지급된 인건비/목업 제작비/인상비 등							
④ 디자인 기계/장치 및 소프트웨어	구매 디자인 연구 개발용 고가 기기, 장치, 컴퓨터시스템 및 응용소프트웨어 구매 및 관리 비용							
⑤ 디자인 연구개발용 토지/건물	구매 디자인 연구 개발용 토지, 건물비 및 건물의 대규모 수리 등을 위한 지출액							
⑥ 디자인/디자이너 교육비	디자인/디자이너 교육비							
⑦ 디자인 자식재산권 구입·관리비	디자인 관련 자식재산권(특허, 상표, 저작권 등) 구입 및 관리 등							
⑧ 디자인 관련 기타 경상비	디자인 연구에 소요되는 재료비, 유인물비, 비품구입비, 출장비 등 기타 경비							
디자인 투자금액 합계(①~⑧)								

문6) 귀사의 향후 디자인투자 금액 및 디자이너 고용 전망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5년과 같으면 100%, 2015년의 절반 수준이면 50%, 2배 증가면 200% 등으로 작성해 주세요.

① 디자인투자 금액 전망	2016년 전망		2017년 전망	
	2015년의 (%) 수준	()명, 2015년의 (%) 수준	2015년의 (%) 수준	()명, 2015년의 (%) 수준
② 디자이너 고용 전망	디자이너가 있는 경우	()명, 2015년의 (%) 수준	디자이너가 있는 경우	()명, 2015년의 (%) 수준
	디자이너가 없는 경우	()명 채용 전망	디자이너가 없는 경우	()명 채용 전망

문7) 귀사의 제품(서비스) 판매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 7개 요소의 비중을 작성해 주세요.

요소별 비중	브랜드	성능	마케팅 (홍보/광고)	유통	디자인	고객서비스	기업 이미지/브랜드	합계
요소별 비중	%	%	%	%	%	%	%	100%

문8) 오른쪽 마크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인증한 우수 디자인 상품을 나타냅니다.
귀사는 이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 ① 본 적도 있고 의미도 알고 있다 ② 본 적은 있지만 의미는 모른다 ③ 전혀 모르고 있다



문9) 귀사에서 GD 마크 획득이 다음의 각 경영활동에 얼마나 기여한다고 생각합니까?

	전혀 기여하지 않음	별로 기여하지 않음	보통	조금 기여함	매우 기여함
매출증가	①	②	③	④	⑤
브랜드(제품/기업이미지) 강화	①	②	③	④	⑤
해외시장 진출	①	②	③	④	⑤
품질증보비용 절감	①	②	③	④	⑤
유통매장 입점	①	②	③	④	⑤
조달품목 등록	①	②	③	④	⑤

문10) 2015년 귀사의 디자인 수상 및 출원, 등록 등의 경력에 대해 작성해 주세요.

	있다	없다
디자인 관련 수상 경력	국내 ① 건	②
	해외 ① 건	②
특허/디자인/상표/실용신안 출원	국내 ① 건	②
	해외 ① 건	②
특허/디자인/상표/실용신안 등록	국내 ① 건	②
	해외 ① 건	②
디자인 마크 획득	국내- GD마크 등 ① 건	②
	해외 ① 건	②

[디자인 위상 및 기여도]

문11) 귀사에서 디자인이 차지하는 위상/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회사의 전략에 중심이 되는 요소
- ② 제품 및 서비스 개발과정에 필수적인 요소
- ③ 제품 개발 마지막 단계의 외관 및 스타일링에 활용되는 요소
- ④ 비정기적으로 제품 홍보나, 마케팅에 단순 활용되는 요소
- ⑤ 기타()

문12) 다음의 신제품(서비스) 개발 프로세스에서

귀사의 디자이너 또는 용역 의뢰한 전문디자인업체가 개입하는 단계를 모두 선택해 주세요.

	[제작자의 SC1 디자이너 고용업체면] 디자이너 개입	전문디자인업체 개입
비즈니스 전략 수립	①	①
시장 조사	②	②
상품 기획	③	③
연구 개발(디자인 개발 포함)	④	④
생산엔지니어링 · 서비스 제공	⑤	⑤
판매 및 유통	⑥	⑥
홍보 및 마케팅	⑦	⑦

문13) 디자인 업무 및 활동에 대한 귀사의 수준을 평가해 주세요.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디자인 비전 및 전략수립(개발 계획)	①	②	③	④	⑤
디자인 전문 인력 채용 및 경력개발	①	②	③	④	⑤
디자인 이웃소식	①	②	③	④	⑤
디자인 전담 조직	①	②	③	④	⑤
디자인 성과	①	②	③	④	⑤
디자인 자산 관리	①	②	③	④	⑤

문14) 귀사의 디자인 투자 및 활용이 다음 각 항목에 대해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생각합니까?

	전혀 기여하지 않음	별로 기여하지 않음	보통	다소 기여 함	상당히 기여 함
매출 증대	①	②	③	④	⑤
고용 증대	①	②	③	④	⑤
주가 등 기업 가치 상승	①	②	③	④	⑤
고객 만족도 향상	①	②	③	④	⑤
제품·브랜드 충성도 상승	①	②	③	④	⑤
기업 이미지 향상	①	②	③	④	⑤
기술·디자인 간 융합 생성	①	②	③	④	⑤
기업 내 생산성 향상	①	②	③	④	⑤

문15) 귀사에서 디자인 활용 시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두 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1순위:() ⇒ 2순위:()

- ① 전문인력 및 전문회사 역량 미흡
 ② 디자인 활용 시 비용부담
 ③ 디자인 활용에 대한 정보/이해 부족
 ④ 기타()

[디자인 인력]

문16) 귀사에서 가장 필요한 디자이너의 전문 분야는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두 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1순위:() ⇒ 2순위:()

- ① 제품디자인
 ② 시각디자인
 ③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④ 공간디자인
 ⑤ 패션/텍스타일디자인
 ⑥ 서비스디자인
 ⑦ 경험디자인
 ⑧ 산업공예디자인
 ⑨ 디자인인프라
 ⑩ 디자인 용합디자인
 ⑪ 기타()

문17) [디자인 부서 직원 수 및 디자이너 수는 해당 업체만 기입]

2015년 12월 31일 기준 귀사의 인력 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총 직원 수			디자인 부서 직원 수 (직원인력 포함)			디자이너 수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① 상용근로자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② 임시 및 일용근로자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합계(①+②)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상용근로자 : 기간 제한 없이 고용되어 인사관리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상여금과 각종 수혜를 받는 근로자 또는 사업체 외 1년 이상 고용을 계약한 자

*임시 및 일용근로자 : 고용계약기간 1년 미만 근로자로 사업체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자

*디자이너 디자이너로 고용된 자 중 디자인 관리와 전문 또는 디자인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이나, 디자인 관리학과 또는 자격증 소지자가 아니라도 디자인 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문18~문32는 [SC1 디자이너 고용 업체만 응답]]

문18) 2015년 12월 31일 기준 귀사의 디자이너 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디자인 분야별에서 한 디자이너가 여러 분야에서 활동 중이라면 주요 분야 하나를 기준으로 작성해 주세요

디자인 분야별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디지털/ 멀티미디어	공간디자인	패션/텍스타일	서비스디자인	경업디자인	산업공예	디자인포	기타디자인	계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직급별	사장/부사장급	상무/이사급	부장급	차/과장급	대리급	사원급					문17의 디자이너 계와 동일인지 확인
	명	명	명	명	명	명					
연령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명	명	명	명	명						
학력별	고졸 이하	전문대졸	대학	석사졸	박사졸						
	명	명	명	명	명						

문19) 귀사의 적정 디자이너 수는 몇 명이라고 보십니까?

()명

※ 상용근로자 기준으로 응답

문20) 2015년 한 해 동안 귀사에 신규 채용된 디자이너는 몇 명입니까?

경력()명, 신입()명

※ 상용근로자 기준으로 응답

문21) 2015년 한 해 동안 퇴직한 디자이너는 몇 명입니까?

()명

※ 상용근로자 기준으로 응답

문22) 디자인 인력 채용 시 주로 어떤 경로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순서대로 두 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1순위:() ⇒ 2순위:()

- | | |
|-----------------|----------------------------|
| ① 공공기관 취업 일선센터 | ② 언론매체 및 온라인(취업사이트)을 통한 구인 |
| ③ 학교 취업상담실 | ④ 인력채용정보회사(에드헌팅사 포함) |
| ⑤ 정부 지자체의 채용박람회 | ⑥ 학연·지연 등 연고 채용 |
| ⑦ 동종업계 인력 스카우트 | ⑧ 지원의 소개 또는 추천 |
| ⑨ 기타() | |

문23) 귀사는 디자인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모두 선택해 주세요

- | | |
|-------------------------|-------------------------|
| ① 신입 디자이너 채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 ② 경력직 디자이너 채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
| ③ 어려움을 겪은 적 없다 → 문 24으로 | |

문23-1) 디자인 인력 채용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 | |
|-----------------------|--------------------------|
| ① 필요한 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 부족 | ② 취업 희망자의 객관적 능력 피약이 어려움 |
| ③ 임금이나 근로 조건이 맞지 않음 | ④ 취업 희망자의 대기업 선호 현상 |
| ⑤ 기타() | |

문24) 2015년 기준 귀사의 신입 직원 및 디자이너의 평균 연봉은 얼마입니까?

2015년 채용 직원이 없으면 최근 채용 기준으로 작성해 주세요.

전체 신입 직원 평균	만월	신입 디자이너 평균	만월

[디자인 교육]

문25) 최근 귀사가 고용한 디자인 인력의 업무수행능력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습니까?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①	②	③	④	⑤

문25-1) [문25, 불만족①②끼는 사업체]

귀사가 고용한 디자인 인력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실무 능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 ② 새로운 지식·기술 습득 능력이 낮아서
- ③ 필요한 (전공) 분야의 전문 인력이 아니어서
- ④ 인성, 근무 자세와 태도 등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 ⑤ 기타 ()

문26) 디자인 업무에서 디자이너에게 실질적으로 가장 필요한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창의 역량 (사회, 문화, 경제 환경의 변화와 관련된 복합적인 요소를 결합하여 새로운 시장과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통합적인 시각과 직관력)
- ② 비즈니스 역량 (창출된 새로운 가치를 구체화하여 시장에서 실현시킬 수 있는 논리력과 시장 지향적 역량)
- ③ 디자이닝 역량 (창출된 아이디어를 디자인 결과물로 구체화 시킬 수 있는 감각과 스킬)
- ④ 융합 역량 (타분야에 대한 관심과 이해, 소통, 협업, 활용 등을 통해 새로운 차원의 기획이나 개선점, 해결방안 도출을 주도하는 역량)
- ⑤ 기타 ()

문27) 2015년 귀사에서 실시한 디자이너 재교육 방법은 무엇인지 모두 선택해 주세요.

- ① 사내 자체 교육(내부 강사)
- ② 사내 특강(외부 강사)
- ③ 외부 위탁교육(유료)
- ④ 해외연수(학위과정 제외)
- ⑤ (국내외) 학위과정
- ⑥ 학회, 세미나 또는 전시회 참관
- ⑦ 정부/공공기관 지원 무료 교육 활용
- ⑧ 기타()
- ⑨ 재교육 실시하지 않음

문28) 귀사에서 선호하는 디자이너 재교육 방법은 무엇입니까?

- ① 사내 자체 교육(내부 강사)
- ② 사내 특강(외부 강사)
- ③ 외부 위탁교육(유료)
- ④ 해외연수(학위과정 제외)
- ⑤ (국내외) 학위과정
- ⑥ 학회, 세미나 또는 전시회 참관
- ⑦ 정부/공공기관 지원 무료 교육 활용
- ⑧ 기타()
- ⑨ 재교육에 관심 없음

문29) 귀사 디자이너들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재교육은 무엇입니까? 모두 선택해 주세요.

디자인 스킬/툴 교육	역량 향상 교육	기타 교육
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사용/구현력	⑪ 창의력	⑩ 타분야 융합 교육(인문학, 엔지니어링 등)
② 디자인 표현력	⑫ 커뮤니케이션 역량	⑪ 신기술 이해(AI, 증강현실 등)
③ 디자인 리서치	⑬ 기획력(사업 기획 및 전략 수립 등)	⑫ 트렌드 정보
④ CMF 관련	⑭ 비즈니스 역량(마케팅, 영업 등)	⑬ 국내외 시장 정보
⑤ UI/UX 디자인	⑮ 프리젠테이션 역량	⑭ 기타 ()
⑥ 서비스디자인 방법론 및 실습	⑯ 트렌드 활용 능력	
⑦ 제품 촬영 기법	⑰ 외국어 등 해외비즈니스 역량	
⑧ 3D 프린팅 모델링	⑱ 보고서 작성 능력	
⑨ 브랜드 개발	⑲ 팀워크, 협동심, 리더십	
⑩ 기타()	⑳ 기타()	

문30) 디자이너 재교육 시 가장 큰 애로 사항 두 가지를 순서대로 선택해 주세요.

1순위:() ⇒ 2순위:()

- ① 교육예산 부족
- ② 예측할 수 없는 업무 상황
- ③ 시간 및 대체인력 부족
- ④ 경영진 및 관련 부서의 인식 부족
- ⑤ 양질의 재교육 프로그램 부족
- ⑥ 재교육 정보 부족
- ⑦ 재교육 전문기관 부족
- ⑧ 재교육 후 이직 등 투자 대비 효과
- ⑨ 기타 ()

문31) 대학 디자인 전공 교육이 실제 디자인 업무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낮음 대체로 낮음 보통 대체로 높음 매우 높음]

문36-1) 귀사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어떤 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까?

활용하고 있는 업무를 활용도가 높은 순으로 선택해 주세요. 1순위:() ⇒ 2순위:()

- | | |
|-----------------|------------|
| ① 경력개발경로 모형 설계 | ② 직무기술서 작성 |
| ③ 채용·배치·승진체크리스트 | ④ 자가진단 |
| ⑤ 교육훈련 | ⑥ 자격검정 |
| ⑦ 기타 () | ⑧ 활용하지 않음 |

문36-2) 귀사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업무에 활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
| ① 필요성을 못 느껴서 |
| ② 필요성을 느끼나 회사에 적합하지 않아서 |
| ③ 필요성을 느끼나 활용 방법을 몰라서 |
| ④ 기타 () |

♣ 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면접상황	면접원 성명 :	면접원 ID :
	면접일시 : 2016년 ()월 ()일 ()시 ~ ()시	
검증상황	검증원 성명 :	
	검증일시 : 2016년 ()월 ()일 ()시 ~ ()시	
	검증결과 :	

 국가등록(법적)등록 증인(협의)번호 제 11526	2016 산업디자인통계조사 (전문디자인업체)	 산업통상자원부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p>안녕하십니까?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p> <p>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0조의 2에 근거하여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2016 산업디자인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p> <p>본 조사는 통계법 제18조에 의한 승인통계로, 기업의 디자인관련 현황을 조사하여 디자인 정책을 효과적으로 분석하고, 디자인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매우 중요한 조사입니다.</p> <p>번거로우사겠지만 잠시만 시간을 내시어 설문조사에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p> <p>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고,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귀사에 피해가 가는 일이 없으므로 솔직한 응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16년 산업통상자원부/한국디자인진흥원</p>																																																																																					
주관 기관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엔지니어링PD 심다은 주임연구원(031-780-2266)	조사 기관	산업디자인통계조사사무국 양대영(02-3488-1697)																																																																																		
<p>■ 사업체 기본 현황</p> <p>★ 이후 모든 문항은 기업 기준이 아닌 <u>사업체 기준</u>으로 응답해 주세요.</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ID</th> <th colspan="3"></th> <th>List No</th> <th colspan="3"></th> </tr> </thead> <tbody> <tr> <td>1. List 명시(일당)</td> <td>지역</td> <td></td> <td></td> <td>업종</td> <td></td> <td></td> <td>상용고로자수</td> </tr> <tr> <td>2. 조사결과</td> <td>지역</td> <td></td> <td></td> <td>업종</td> <td></td> <td></td> <td>상용고로자수</td> </tr> <tr> <td>3. 사업체명</td> <td colspan="7"></td> </tr> <tr> <td>4. 사업자등록번호</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5. 상세업종</td> <td colspan="7">※ 리스트의 업종과 실제 업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상세업종을 구체적으로 작성</td> </tr> <tr> <td>6. 조직형태</td> <td colspan="7"> ① 개인사업체 ② 회사법인 ③ 회사이외법인 ④ 법인 단체] → 구분 ① 단독사업체 ② 본사, 본점 등 ③ 공장, 지사(점), 영업소 등 </td> </tr> <tr> <td>7. 재무제표 작성여부</td> <td colspan="7"> ① 작성 ② 미작성 </td> </tr> <tr> <td>8. 상장 여부</td> <td colspan="7"> ① 상장 ② 비상장 </td> </tr> <tr> <td>9.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td> <td colspan="7"> ① 신고 → 분야 ① 시각디자인 ② 포장디자인 ③ 제품디자인 ④ 환경디자인 ⑤ 멀티미디어 ⑥ 서비스디자인 ※ 종합디자인으로 신고한 경우 위 6개 분야 중 3개 이상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미신고 </td> </tr> </tbody> </table>						ID				List No				1. List 명시(일당)	지역			업종			상용고로자수	2. 조사결과	지역			업종			상용고로자수	3. 사업체명								4. 사업자등록번호				—			—	5. 상세업종	※ 리스트의 업종과 실제 업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상세업종을 구체적으로 작성							6. 조직형태	① 개인사업체 ② 회사법인 ③ 회사이외법인 ④ 법인 단체] → 구분 ① 단독사업체 ② 본사, 본점 등 ③ 공장, 지사(점), 영업소 등							7. 재무제표 작성여부	① 작성 ② 미작성							8. 상장 여부	① 상장 ② 비상장							9.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① 신고 → 분야 ① 시각디자인 ② 포장디자인 ③ 제품디자인 ④ 환경디자인 ⑤ 멀티미디어 ⑥ 서비스디자인 ※ 종합디자인으로 신고한 경우 위 6개 분야 중 3개 이상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미신고						
ID				List No																																																																																	
1. List 명시(일당)	지역			업종			상용고로자수																																																																														
2. 조사결과	지역			업종			상용고로자수																																																																														
3. 사업체명																																																																																					
4. 사업자등록번호				—			—																																																																														
5. 상세업종	※ 리스트의 업종과 실제 업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상세업종을 구체적으로 작성																																																																																				
6. 조직형태	① 개인사업체 ② 회사법인 ③ 회사이외법인 ④ 법인 단체] → 구분 ① 단독사업체 ② 본사, 본점 등 ③ 공장, 지사(점), 영업소 등																																																																																				
7. 재무제표 작성여부	① 작성 ② 미작성																																																																																				
8. 상장 여부	① 상장 ② 비상장																																																																																				
9.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	① 신고 → 분야 ① 시각디자인 ② 포장디자인 ③ 제품디자인 ④ 환경디자인 ⑤ 멀티미디어 ⑥ 서비스디자인 ※ 종합디자인으로 신고한 경우 위 6개 분야 중 3개 이상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미신고																																																																																				
<p>■ 응답자 현황</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5%;">1</td> <td style="width: 30%;">응답자 성명</td> <td style="width: 30%;">응답자 연락처</td> <td style="width: 25%;">() -</td> </tr> <tr> <td>2</td> <td>응답자 부서(팀)</td> <td>응답자 주택</td> <td>전공여부</td> </tr> <tr> <td></td> <td></td> <td></td> <td>① 디자인 전공 ② 디자인 외 전공</td> </tr> </table>						1	응답자 성명	응답자 연락처	() -	2	응답자 부서(팀)	응답자 주택	전공여부				① 디자인 전공 ② 디자인 외 전공																																																																				
1	응답자 성명	응답자 연락처	() -																																																																																		
2	응답자 부서(팀)	응답자 주택	전공여부																																																																																		
			① 디자인 전공 ② 디자인 외 전공																																																																																		

[주력 디자인 분야 및 인력]

문1) 귀사의 주력 디자인 분야 비중을 작성해 주십시오. 비중의 합은 100%입니다.

분야	별위	주력 비중
① 제품디자인	전기 전자 제품디자인, 다목적 기계 및 공구디자인, 생활/환경용품디자인, 운송기기디자인, 가구디자인, 제조업 회사본부 디자인, 기타 제품디자인	%
② 시각디자인	편집디자인, 적·의약품 패키지디자인, 비식·의약품 패키지디자인, 광고디자인(인쇄매체), 기타 시각디자인	%
③ 디자일/멀티미디어디자인	영상디자인, 웹디자인, 게임디자인, 기타 디자일/멀티미디어디자인	%
④ 공간디자인	건축디자인, 인테리어장식디자인, 전시 및 무대디자인, 인테리어 재배디자인, 익스테리어디자인, 조경 및 레저공간디자인, 리모델링디자인, 건설환경디자인, 토목환경디자인, 기타인테리어디자인	%
⑤ 패션/텍스타일디자인	패션디자인, 기능성패션디자인, 텍스티일디자인, 접화디자인,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	%
⑥ 서비스디자인	보건의료서비스디자인, 여가/레저서비스디자인, 교육서비스디자인, 커뮤니티서비스디자인, 공공행정서비스디자인	%
⑦ 경험디자인	사용자인터페이스(UI)디자인, 사용자경험(UX)디자인, 유면인터넷디자인	%
⑧ 산업공예디자인	금속공예, 도자공예, 섬유공예, 목공예, 기타공예	%
⑨ 디자인인프라	디자인 모형, 디자인 연구개발, 기타디자인서비스	%
⑩ 기타디자인()		%

문2) 2015년 12월 31일 기준 귀사의 인력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총 직원 수			디자인 부서 직원 수 (지원인력 포함)			디자이너 수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① 상용근로자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② 임시 및 일용근로자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합계(①+②)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상용근로자 : 기간 제한 없이 고용되어 인사관리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상여금과 각종 수혜를 받는 근로자 또는 사업체 외 1년 이상 고용을 계획한 자

*임시 및 일용근로자 : 고용계약기간 1년 미만 근로자로 사업체에서 일자리를 지원하는 자

*디자이너 디자이너로 고용된 자 중 디자인 관련학과 전공 또는 디자인 주제 관련 족지자(디자인 관련학과 또는 자격증 소지자)가 아니라도 디자인 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문3) 2015년 12월 31일 기준 귀사의 디자이너 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디자인 분야별에서 한 디자이너가 여러 분야에서 활동 중이라면 주요 분야 하나를 기준으로 작성해 주세요

디자인 분야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디자일/멀티미디어	공간디자인	패션/텍스타일	서비스디자인	경험디자인	산업공예	디자인인프라	기타디자인	계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직급별	상장/부사장급 명	상무/이사급 명	부장급 명	차/과장급 명	대리급 명	사원급 명					문2 의 디자이너 계와 동일인지 확인
연령별	20대 이하 명	30대 명	40대 명	50대 명	60세 이상 명						
학력별	고졸 이하 명	전문대졸 명	대학 명	석사졸 명	박사졸 명						

문4) 귀사의 적정 디자이너 수는 몇 명이라고 보십니까?

()명

* 상용근로자 기준으로 응답

문5) 귀사에서 가장 필요한 디자이너의 전문 분야는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두 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1순위:() ⇒ 2순위:()

- ① 제품디자인
- ② 시각디자인
- ③ 디자일/멀티미디어디자인
- ④ 공간디자인
- ⑤ 패션/텍스타일디자인
- ⑥ 서비스디자인
- ⑦ 경험디자인
- ⑧ 산업공예
- ⑨ 디자인인프라
- ⑩ 타분야 융합디자인
- ⑪ 기타()

문6) 2015년 한 해 동안 귀사에 신규 채용된 디자이너는 몇 명입니까?

경력()명, 신입()명

* 상용근로자 기준으로 응답

문7) 2015년 한 해 동안 퇴직한 디자이너는 몇 명입니까?

()명

* 상용근로자 기준으로 응답

문8) 디자인 인력 채용 시 주로 어떤 경로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순서대로 두 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1순위() ⇒ 2순위()

- | | |
|-----------------|----------------------------|
| ① 공공기관 취업 일선센터 | ② 언론매체 및 온라인(취업사이트)을 통한 구인 |
| ③ 학교 취업상담실 | ④ 인력채용정보회사(에드한팅사 포함) |
| ⑤ 정부 지자체의 채용박람회 | ⑥ 학연·지연 등 연고 채용 |
| ⑦ 동종업계 인력 스카우트 | ⑧ 지원의 소개 또는 추천 |
| ⑨ 기타() | |

문9) 귀사는 디자인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모두 선택해 주세요.

- | | |
|-------------------------|------------------------|
| ① 경력직 디자이너 채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 ② 신입 디자이너 채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
| ③ 어려움을 겪은 적 없다 ⇒ 문10으로 | |

문9-1) 디자인 인력 채용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 | |
|-----------------------|--------------------------|
| ① 필요한 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 부족 | ② 취업 희망자의 객관적 능력 평가에 어려움 |
| ③ 임금이나 근로 조건이 맞지 않음 | ④ 취업 희망자의 대기업 선호 현상 |
| ⑤ 기타() | |

문10) 2015년 기준 귀사의 디자이너의 평균 연봉은 얼마입니까?

2015년 기준 평균 연봉	평균 연봉
신입 디자이너	만원
3년차 디자이너	만원
5년차 디자이너	만원
10년차 디자이너	만원

[디자인 사업 실적]

문11) 귀사의 2015년 사업실적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분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① 매출액	2015년 1년간 사업 활동을 통한 수익총액					
② 인건비	급여, 복리후생비, 토직급여, 중당금전입액 등 인건비성 제비용으로 기타종사자에게 지급되는 수당, 수수료도 포함					
③ 연구개발비	연구비, 개발비, 경상개발비의 합으로 구성됨					
④ 영업이익	매출액 - 영업비용(매출원가,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등)					

문12) 귀사에서 디자인 사업 이외 경영하고 있는 다른 영역의 사업이 있습니까?

- | | |
|-----------------------|--|
| ① 경영하는 사업 있다(사업 내용:) | |
| ② 경영하는 사업 없다 | |

문13) 귀사의 2015년 매출 구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영역별 매출액 비중과 용역 건수를 작성해 주세요.

	매출액 비중	용역 건 수
국내 고객	디자인 컨설팅	%
	디자인 개발	%
	기타()	%
해외 고객	디자인 컨설팅	%
	디자인 개발	%
	기타()	%
자체 상품 개발/판매	%	건
전체	100%	건

문14) 귀사의 국내 고객 용역 비중(2015년 매출액 기준)을 작성해 주세요.

대기업	국내 기업			지자체/ 국가기관	합계
	중견기업	중기업	소기업		
%	%	%	%	%	100%

* 중견기업: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아니면서 대기업 계열사가 아닌 기업으로,
중소기업기본법상 3년 평균 매출이 1500억 원 이상이지만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군에는 속하지 않는 회사

문15) 귀사의 2015년 디자인 사업비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분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① 디자이너 인건비	고용 디자이너 인건비					
② 디자인업체 용역비	전문디자인업체 재직형 용역비					
③ 그 외 디자인 용역비	프리랜서 등 고용되지 않은 인력에게 지급된 인건비/독립 제작비/인쇄비 등					
④ 디자인 기계/장치 및 소프트웨어	구매 디자인 연구 개발용 고가 기기, 장치, 컴퓨터시스템 및 유통소프트웨어 구매 및 관리 비용					
⑤ 디자인 연구개발용 토지/건물	구매 디자인 연구 개발용 토지, 건물비 및 건물의 대규모 수리 등을 위한 지출액					
⑥ 디자인 교육비	디자인/디자이너 교육비					
⑦ 디자인 자식재산권 구입·관리비	디자인 관련 저작재산권(특허, 상표, 저작권 등) 구입 및 관리 등					
디자인 사업비 합계(①~⑦)						

문16) 귀사의 향후 매출 및 사업비, 고용 전망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5년과 같으면 100%, 2015년의 절반 수준이면 50%, 2배 증가면 200% 등으로 작성해 주세요.

	2016년 전망	2017년 전망
① 매출액 전망	2015년의 ()% 수준	2015년의 ()% 수준
② 디자인사업비 전망	2015년의 ()% 수준	2015년의 ()% 수준
③ 디자이너 고용 전망	()명, 2015년의 ()% 수준	()명, 2015년의 ()% 수준
④ 연구개발비 전망	()명, 2015년의 ()% 수준	()명, 2015년의 ()% 수준

문17) 귀사가 매출 증대 방안으로 향후 계획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 ① 국내 용역 수주 확대
- ② 해외 시장 진출 확대
- ③ 종합 컨설팅으로 영역 확대
- ④ 자체 상품 개발 및 판매
- ⑤ 특화된 디자인 전문영역으로 차별화
- ⑥ 기타()

문18) 2015년 한 해 동안 산출한 디자인권(출원·등록 포함)의 소유(명의)에 대한 질문입니다.

고객사 소유(명의)	건	귀사 소유(명의)	건

문19) 오른쪽 마크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인증한 우수 디자인 상품을 나타냅니다.

귀사는 이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 ① 본 적도 있고 의미도 알고 있다
- ② 본 적은 있지만 의미는 모른다
- ③ 전혀 모르고 있다

문20) 귀사에서 GD 마크 획득이 다음의 각 경영활동에 얼마나 기여한다고 생각합니까?

	전혀 기여하지 않음	별로 기여하지 않음	보통	조금 기여함	매우 기여함
매출증가	①	②	③	④	⑤
브랜드(제품/기업이미지) 강화	①	②	③	④	⑤
해외시장 진출	①	②	③	④	⑤
품질증보비용 절감	①	②	③	④	⑤
유통매장 입점	①	②	③	④	⑤
조달품목 등록	①	②	③	④	⑤

문21) 2015년 귀사의 디자인 수상 및 출원, 등록 등의 경력에 대해 작성해 주세요.

		있다	없다
디자인 관련 수상 경력	국내	① 건	②
	해외	① 건	②
특허/디자인/상표/실용신안 출원	국내	① 건	②
	해외	① 건	②
특허/디자인/상표/실용신안 등록	국내	① 건	②
	해외	① 건	②
디자인 마크 획득	국내- GD마크 등	① 건	②
	해외	① 건	②

[디자인 해외 교류]

문22) 귀사는 현재 해외 비즈니스(문22-1 보기 확인)를 하고 있거나, 향후 해외진출 계획이 있습니까?

- ① 현재 해외 비즈니스 진행 중 ⇒ 문22-1로 ② 향후 계획 있음 ⇒ 문22-4로 ③ 계획 없음 ⇒ 문23으로

문22-1) 귀사의 해외 비즈니스 방법을 선택해 주세요.

- ① 해외에 법인 설립·운영 ② 해외에 연락사무소(법인 미등록) 운영
 ③ 파트너쉽 등 해외 업체와 협업 ④ 해외 현지의 전문가(비즈니스개발, 디자이너 등) 활용
 ⑤ 해외 대학교의 산학 프로젝트 수행 ⑥ 국내에서 추진(필요시 현지 출장 등)

문22-2) 귀사의 해외 비즈니스 주력분야는 무엇입니까?

- ① 컨설팅서비스 ② 디자인상품 개발·용역 ③ 컨설팅서비스 및 디자인상품 개발·병행
 ④ 기타 ()

문22-3) 귀사가 진출해 있는 해외 지역은 어디입니까?

- 모두 체크해주시고, 구체적인 국가(지역)를 작성해 주세요.
 ① 중국 (지역:) ② 아시아 (국가:)
 ③ 유럽 (국가:) ④ 미주 (국가:)
 ⑤ 기타 (국가:)

문22-4) 귀사가 향후 진출을 희망하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 모두 체크해주시고, 구체적인 국가(지역)를 작성해 주세요.
 ① 중국 (지역:) ② 아시아 (국가:)
 ③ 유럽 (국가:) ④ 미주 (국가:)
 ⑤ 기타 (국가:)

[디자인 교육]

문23) 최근 귀사가 고용한 디자인 인력의 업무수행능력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습니까?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①	②	③	④	⑤

문23-1) [문23. 불만족①②에는 사례]

- 귀사가 고용한 디자인 인력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실무 능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② 새로운 지식·기술 습득 능력이 낮아서
 ③ 필요한 (전공) 분야의 전문 인력이 아니어서 ④ 인성, 근무 자세와 태도 등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⑤ 기타 ()

문24) 귀사에 디자인 분야 이외 필요한 인력의 전공 분야는 무엇입니까?

- ① 공학(엔지니어링 전반) ② 상경계열(경영학/경제학/회계학/통계학 등)
 ③ 사회과학(심리학/사회학 등) ④ 인문학(역사/철학 등)
 ⑤ 자연과학(물리/화학/생물학 등) ⑥ 법학
 ⑦ 기타()

문25) 디자인 업무에서 디자이너에게 실질적으로 가장 필요한 역량은 무엇입니까?

- ① 창의 역량 (사회, 문화, 경제 환경의 변화와 관련된 복합적인 요소를 결합하여 새로운 시장과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통합적인 시각과 직관력)
- ② 비즈니스 역량 (창출된 새로운 가치를 구체화하여 시장에서 실현시킬 수 있는 논리력과 시장 지향적 역량)
- ③ 디자이너 역량 (창출된 아이디어를 디자인 결과물로 구체화 시킬 수 있는 감각과 스킬)
- ④ 융합 역량 (타분야에 대한 관심과 이해, 소통, 협업, 활용 등을 통해 새로운 차원의 기회이나 개선점, 해결방안 도출을 주도하는 역량)
- ⑤ 기타 ()

문26) 2015년에 귀사에서 실시한 디자이너 재교육 방법은 무엇인지 모두 선택해 주세요.

- ① 사내 자체 교육(내부 강사) ② 사내 특강(외부 강사) ③ 외부 위탁교육(유료)
- ④ 해외연수(학위과정 제외) ⑤ (국내외) 학위과정 ⑥ 학회, 세미나 또는 전시회 참관
- ⑦ 정부/공공기관 지원 무료 교육 활용
- ⑧ 기타() ⑨ 재교육 실시하지 않음

문27) 귀사에서 선호하는 디자이너 재교육 방법은 무엇입니까?

- ① 사내 자체 교육(내부 강사) ② 사내 특강(외부 강사) ③ 외부 위탁교육(유료)
- ④ 해외연수(학위과정 제외) ⑤ (국내외) 학위과정 ⑥ 학회, 세미나 또는 전시회 참관
- ⑦ 정부/공공기관 지원 무료 교육 활용
- ⑧ 기타() ⑨ 재교육에 관심 없음

문28) 귀사 디자이너들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재교육은 무엇입니까? 모두 선택해 주세요.

디자인 스킬/툴 교육	역량 향상 교육	기타 교육
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사용/구현력	⑪ 창의력	② 타분야 융합 교육(인문학, 엔지니어링 등)
② 디자인 표현력	⑫ 커뮤니케이션 역량	③ 신기술 이해(AI, 증강현실 등)
③ 디자인 리서치	⑬ 기획력(사업 기획 및 전략 수립 등)	④ 트렌드 정보
④ CMF 관련	⑭ 비즈니스 역량(마케팅, 영업 등)	⑤ 국내외 시장 정보
⑤ UI/UX 디자인	⑮ 프리젠테이션 역량	⑥ 기타 ()
⑥ 서비스디자인 방법론 및 실습	⑯ 트렌드 활용 능력	
⑦ 제품 촬영 기법	⑰ 외국어 등 해외비즈니스 역량	
⑧ 3D 프린팅 모델링	⑱ 보고서 작성 능력	
⑨ 브랜드 개발	⑲ 팀워크, 협동심, 리더십	
⑩ 기타()	⑳ 기타()	

문29) 디자이너 재교육 시 가장 큰 애로 사항 두 가지를 순서대로 선택해 주세요 1순위:() ⇒ 2순위:()

- ① 교육예산 부족 ② 예측할 수 없는 업무 상황
- ③ 시간 및 대체인력 부족 ④ 경영진 및 관련 부서의 인식 부족
- ⑤ 양질의 재교육 프로그램 부족 ⑥ 재교육 정보 부족
- ⑦ 재교육 전문기관 부족 ⑧ 재교육 후 이직 등 투자 대비 효과
- ⑨ 기타 ()

문30) 대학 디자인 전공 교육이 실제 디자인 업무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낮음	대체로 낮음	보통	대체로 높음	매우 높음
①	②	③	④	⑤

문31) 대학 디자인 전공 교육에서 시급히 보강되어야 할 교육은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두 가지를 선택해 주세요

1순위:() ⇒ 2순위:()

- ① 시각화 및 표현 능력
- ② 디자인 관련 이론
- ③ 기획 및 마케팅 능력
- ④ 컴퓨터 활용 스킬
- ⑤ 외국어(영어) 능력
- ⑥ 커뮤니케이션 및 발표 능력
- ⑦ 디자인-타분야 융합 역량
- ⑧ 기타 ()

문32) 디자이너 채용 시 가장 선호하는 교육(학위) 수준을 순서대로 두 가지 선택해 주세요 1순위:() ⇒ 2순위:()

- ① 고등학교 졸업자(디자인 특성화고등학교 등)
- ② 디자인 전공
- 전문학사(2~3년제)
- ③ 디자인 전공
- 학사(4년제)
- ④ 디자인 전공
- 석사
- ⑤ 디자인 전공
- 박사
- ⑥ 디자인-공학 등 융합 전공자
- 전문학사(2~3년제)
- ⑦ 디자인-공학 등 융합 전공자
- 학사(4년제)
- ⑧ 디자인-공학 등 융합 전공자
- 석사
- ⑨ 디자인-공학 등 융합 전공자
- 박사
- ⑩ 디자이너 아닌 타분야 전공자
- 전문학사(2~3년제)
- ⑪ 디자이너 아닌 타분야 전공자
- 학사(4년제)
- ⑫ 디자이너 아닌 타분야 전공자
- 석사
- ⑬ 디자이너 아닌 타분야 전공자
- 박사

[정부 정책 및 지원]

- 문33) 디자인산업이 성장·발전하는데 가장 장애가 되는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순서대로 두 가지를 선택해 주세요. **1순위:() ⇒ 2순위:()**
- | | |
|--------------------|------------------|
| ① 기업의 디자인 인식 부족 | ② 디자인 업체의 영세성 |
| ③ 전문디자인 업체 취업 기피 | ④ 기술정보 및 시장정보 부족 |
| ⑤ 국가 지원 정책 및 제도 미흡 | ⑥ 기타() |

- 문34) 디자인산업이 타산업에 비해 가장 취약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① 인력기술 분야와의 융합 ② 전문 인력 양성
 ③ 비즈니스 모델 ④ 관련 정부 지원
 ⑤ 기타()

문35) 귀사가 디자인 개발을 하면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

- 문36) 2015년 한 해 동안 귀사는 고객사(발주사)로부터 디자인권, 용역비용 미지급 등의 문제로 부당한 처우를 받은 경험이 있었습니까?

① 없다⇒ 문37로 ② 있다→(연간 ___회)⇒ 문36-1로

- 문36-1) 부당한 처우를 받은 경험이 있다면 다음 중 그 피해 유형이 어떠한 것인지 모두 선택해 주세요.
- | |
|--|
| ① 대금지급 지연 |
| ② 계약내용 외 무상 추가 개발 요구 |
| ③ 일방적인 계약해지 후 용역대금 미지급 |
| ④ 지식재산권 침해 (디자인개발 중 발생된 여러 시안의 지식재산권 소유 및 비용처리 문제 등) |
| ⑤ 채택된 디자인 결과물에 대한 무한책임전가 (결과물 관련 소송 문제 등) |
| ⑥ 기타 피해 유형 () |

- 문37) 귀사는 디자인 연구, 개발 등 디자인과 관련해 정부로부터 다음의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정부 지원 내용	지원 여부	
	있다	없다
인력양성 지원(재교육 등)	①	②
자금지원(융자, 출연금 등)	①	②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①	②
수출 및 국제협력 지원	①	②
기타()	①	②

- 문38) 귀사의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문은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두 가지를 선택해 주세요. **1순위:() ⇒ 2순위:()**
- | | |
|---------------|----------------------|
| ① 인력양성 지원 | ② 자금지원 확대(융자, 출연금 등) |
| ③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 ④ 수출 및 국제협력 지원 |
| ⑤ 임찰정보 지원 | ⑥ 관련제도 정비 및 규제 완화 |
| ⑦ 기타() | ⑧ |

- 문39) 귀사가 원하는 우수인재를 뽑기 위해 정부는 어떤 부분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순서대로 두 가지를 선택해 주세요. **1순위:() ⇒ 2순위:()**
- | | |
|---|--------------------|
| ① 대학-기업 간 연계활동(ex. 계약학과)에 대한 지원 | ② 관련 분야 인력 양성 증대 |
| ③ 재교육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 ④ 인턴쉽 지원 |
| ⑤ 인력정보 제공 등 기업의 채용 활동지원 | ⑥ 관련 전문자격증 개발 및 운영 |
| ⑦ 자격제한이 없는 다양한 경진대회 지원을 통해 실력 있는 인력들의 기량 발휘 기회 증대 | ⑧ 기타() |
| ⑧ 직접적인 인건비 지원 | ⑨ |

문40) 귀사의 해외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 지원은 무엇입니까?

- | | |
|----------------|-----------------|
| ① 수출지원금 | ② 귀사의 글로벌 역량 측정 |
| ③ 해외지사 지원사업 | ④ 해외 시장조사 |
| ⑤ 수출 상담회 | ⑥ 해외 전시회 |
| ⑦ 민관네트워크 지원 정책 | ⑧ 기타 () |

문41) 산업통상자원부가 2013년 6월 고시한 디자인표준계약서를 활용하신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 문 41-1로

② 없다 ⇒ 문 42로

문41-1) 활용한 적이 있다면 사용하신 계약서의 종류를 선택해 주시고, 활용 건수를 작성해 주세요.

- | | |
|------------------------|------|
| ① 시각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 (건) |
| ② 제품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 (건) |
| ③ 제품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성과보수) | (건) |
| ④ 인더렉티브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 (건) |

문41-2) 표준계약서를 사용한 경우 평균 계약금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 | | |
|--------------------|---------------------|
| ① 2천만원 미만 | ② 2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
| ③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④ 1억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 |
| ⑤ 1억5천만원 이상 | |

문41-3) 표준계약서를 사용한 경우 사용 대상은 어디입니까? 모두 선택해 주세요.

- ① 공공기관 ② 중소기업 ③ 중견기업 ④ 대기업 ⑤ 기타 ()

문42) 귀사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까?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이란

한 개인이 산업현장에서 자신의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직무능력(지식, 기술, 태도)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도출하여 표준화한 것입니다.

- ① 알고 있다 ⇒ 문42-1로
② 모른다 ⇒ 문43으로

문42-1) 귀사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어떤 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까?

활용하고 있는 업무를 활용도가 높은 순으로 선택하여 주세요. 1순위:() ⇒ 2순위:()

- | | |
|-----------------|------------|
| ① 경력기법경로 모형 설계 | ② 직무기술서 작성 |
| ③ 채용·배치·승진폐크리스트 | ④ 자기진단 |
| ⑤ 교육문제 | ⑥ 자격검정 |
| ⑦ 기타 () | ⑧ 활용하지 않음 |

문42-2) 귀사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업무에 활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필요성을 못 느껴서
② 필요성을 느끼나 회사에 적합하지 않아서
③ 필요성을 느끼나 활용 방법을 몰라서
④ 기타 ()

문43) 귀사의 연구·인력개발비 중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 또는 '공업 및 상품디자인 개발 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 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면접상황	면접원 성명 :	면접원 ID :
	면접일시 : 2016년 ()월 ()일 ()시 ~ ()시	
검증상황	검증원 성명 :	
	검증일시 : 2016년 ()월 ()일 ()시 ~ ()시	
	검증결과 :	

 협의번호 제 11526	2016 산업디자인통계조사 (중앙부처 및 지자체)						 산업통상자원부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면접원이 기입하는 난입된다	ID						List No																																																							
<p>안녕하십니까?</p> <p>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0조의 2에 근거하여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2016 산업디자인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p> <p>본 조사는 통계법 제18조에 의한 승인통계로, 지자체 및 중앙부처의 디자인 수급 현황을 파악하고 효용성을 측정하여 디자인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 계획 및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p> <p>응답해 주신 모든 내용은 통계 처리되어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조사의 설문내용 및 개인 신상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비밀이 보장됩니다. 바쁘신 중에도 조사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p>																																																														
2016년 산업통상자원부/한국디자인진흥원																																																														
수행 기관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엔지니어링PD 심다은 주임연구원(031-780-2266)			조사 기관	산업디자인통계조사사무국 양대영(02-3488-1697)																																																									
<p>■ 기관 개요</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rowspan="4" style="width: 15%; vertical-align: top; text-align: center;"> 면접원 작성 </td> <td style="width: 15%; text-align: center;"> 지자체 </td> <td colspan="4" style="width: 40%;"> ① 광역시/도 ② 시 ③ 군 ④ 구 </td> <td style="width: 15%; text-align: center;"> 정부부처 </td> <td colspan="5" style="width: 20%;"> ①부 ②처 ③청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기관명 </td> <td colspan="4"></td> <td colspan="5"></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응답자 성명 </td> <td colspan="2"></td> <td style="text-align: center;"> 응답자 연락처 </td> <td colspan="2"></td> <td style="text-align: center;"> () </td> <td colspan="3"></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응답자 부서(팀) </td> <td colspan="2"></td> <td style="text-align: center;"> 응답자 직책 </td> <td colspan="4"></td> </tr> <tr> <td></td> <td colspan="2"></td> <td style="text-align: center;"> 전공여부 </td> <td colspan="4"> ① 디자인 전공 ② 디자인 외 전공 </td> <td colspan="3"></td> </tr> </table>												면접원 작성	지자체	① 광역시/도 ② 시 ③ 군 ④ 구				정부부처	①부 ②처 ③청					기관명										응답자 성명			응답자 연락처			()				응답자 부서(팀)			응답자 직책								전공여부	① 디자인 전공 ② 디자인 외 전공						
면접원 작성	지자체	① 광역시/도 ② 시 ③ 군 ④ 구				정부부처	①부 ②처 ③청																																																							
	기관명																																																													
	응답자 성명			응답자 연락처			()																																																							
	응답자 부서(팀)			응답자 직책																																																										
			전공여부	① 디자인 전공 ② 디자인 외 전공																																																										

문1) 현재 귀 기관에는 별도의 디자인실(팀,계)이나 국, 전담과 등 디자인 관련 전담부서 및 팀이 있거나 혹은 디자이너가 있습니까?

- ① 디자인 전담부서가 있다 → 문1-1로
- ② 디자인 전담부서는 없고, 디자이너만 있다 → 문1-3으로
- ③ 디자인 전담부서 및 디자이너가 없다 → 문1-5로

* 디자이너: 디자이너로 고용된 자 중 디자인 관련학과 전공 또는 디자인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이거나, 디자인 관련학과 또는 자격증 소지자가 아니라도 디자인 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문1-1) 디자인 전담부서의 소속과 이름을 작성해 주세요.

여러 부서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모두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No	국/설/분부	관	과	팀
1				
2				
3				
4				
5				

문1-2) 디자인 전담부서의 2015년 예산집행금액을 작성해 주십시오.

No	디자인 전담부서 명	디자인 용역비						디자인 전담부서 총 인건비						프리랜서 등 고용되지 않은 인력에 지급된 인건비, 목업 제작비, 인쇄비 등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1																			
2																			
3																			
4																			
5																			
합계																			

문1-3) 디자인 전담부서의 해당 직원은 모두 몇 명이며, 그 중 디자이너는 몇 명입니까?

디자인 전담부서는 없고 디자이너만 있는 경우 디자이너 수만 작성해 주세요.

No	디자인 전담부서 명	디자인 전담부서 총 직원 수			디자이너 수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1							
2							
3							
4							
5							
합계							

문1-4) 귀 기관의 디자이너 수를 활동 디자인 분야별로 작성해 주세요.

만약 한 디자이너가 여러 분야에서 활동 중이라면 주요 분야 하나를 기준으로 작성해 주세요.

분야	범위	디자이너 수
① 제품디자인	전기 전자 제품디자인, 단목적 기계 및 공구디자인, 생활/환경용품디자인, 운송기기디자인, 가구디자인, 제조업 회사본부 디자인, 기타 제품디자인	명
② 시각디자인	편집디자인, 식·의약품 패키지디자인, 비식·의약품 패키지디자인, 광고디자인(인쇄매체), 기타 시각디자인	명
③ 디자일/멀티미디어디자인	영상디자인, 웹디자인, 게임디자인, 기타 디자일/멀티미디어디자인	명
④ 공간디자인	건축디자인, 인테리어장식디자인, 전시 및 무대디자인, 인테리어 재재디자인, 익스테리어디자인, 조경 및 레저공간디자인, 리모델링디자인, 건설환경디자인, 토목환경디자인, 기타인테리어디자인	명
⑤ 패션/액스터리디자인	패션디자인, 기능성패션디자인, 브랜드디자인, 기타패션액스터리디자인	명
⑥ 서비스디자인	보건의료서비스디자인, 여가/레져서비스디자인, 교육서비스디자인, 커뮤니티서비스디자인, 공공행정서비스디자인,	명
⑦ 경험디자인	사용자인터페이스(UI)디자인, 사용자경험(UX)디자인, 유면인터랙션디자인	명
⑧ 산업경제디자인	급속공예, 도자공예, 섬유공예, 목공예, 기타공예	명
⑨ 디자인인프라	디자인 모형, 디자인 연구개발, 기타디자인서비스	명
⑩ 기타디자인()		명
합 계 (문1-3의 디자이너 수와 동일여부 확인)		명

문1-5) 귀 기관의 적정 디자인 담당 인력은 몇 명입니까? ()명

문1-6) [디자인 전담부서가 없는 기관(문1의②,③)만 해당]

귀 기관에 디자인 전담부서가 없다면 디자인 사업을 주로 담당하는 곳을 기술해 주세요.

국/설/본부	관	과	팀

문1-7) [디자인 전담부서가 없는 기관(문1의②,③)만 해당] 아래 2015년 예산집행금액을 작성해 주십시오.

디자인 용역비						[문1 ② 디자이너가 있는 경우] 디자이너 총 인건비						디자인 관련 프리랜서 등 고용되지 않은 인력에 지급된 인건비, 목업 제작비, 인쇄비 등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문1-8) 귀 기관의 향후 디자인 관련 예산집행금액 및 디자이너 고용 전망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5년과 같으면 100%, 2015년의 절반 수준이면 50%, 2배 증가면 200% 등으로 작성해 주세요.

① 디자인 관련 예산집행금액	2016년 전망			2017년 전망		
	2015년의 (%) 수준					
② 디자이너 고용 전망	디자이너가 있는 경우 ()명 2015년의 (%) 수준					
	디자이너가 없는 경우 ()명 채용 전망					

문2) 귀 기관에서는 기관 특성(아이덴티티)을 고려한 디자인 가이드라인 또는 마스터플랜이 있습니까?

(ex. 공공시설물 디자인가이드라인 등) ① 있다 ② 없다

문3) 디자인 관련 예산 집행 시,

기관에서 직접 용역을 발주하는 비율과 기관의 산하기관을 통하는 비율, 기타 비율을 응답해 주세요.

기관 직접 용역 발주	산하기관을 통해	기타()	합계
%	%	%	100%

문4) 귀 기관에서 디자인이 포함된 사업을 발주할 경우 설계·시공 등과 별도로

디자인사업 부문만 분리하여 발주하는 비율과 디자인 사업을 포함하여 발주하는 비율을 작성해 주십시오.

분리 발주	포함 발주	합계
%	%	100%

문5) 디자인 연계 사업 중 가장 효과 있었던 분야 및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순서대로 3가지만 작성해 주십시오. (우선순위를 번호로 표기해 주세요.)

범주 보기		세부 내용	가장 효과 있는 분야	우선 추진분야	
정책 형성	문제정의를 위한 현장조사 이해관계자파악	정책 현황과 문제점 파악, 현장 조사를 통한 핵심 수요자 선정 및 핵심 이슈 파악, 국내외 참고사례 벤치마킹, 이해관계자 여론수렴			
정책 수립	문제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수립, 해결책 구체화	정책 추진 목적 및 목표 설정, 추진 내용 및 방법 수립, 사전타당성 분석, 관계부처 협의, 갈등관리, 정책영향평가 등			
	작용 및 응보	주진상왕 모니터링, 자원확보 및 투입, 관계기관 협조, 애로사항 및 장애요인 극복 대책 마련, 여건변화 대책마련, 평가결과 분석 및 활용			
정책 집행 및 정책 옹보	도시 기반시설	공원, 운동장, 광장, 놀이터, 접외시설, 보도, 자투리 공원, 주차장, 터널, 도로, 철로, 교량, 육교, 고가도로, 아천, 야수처리장, 산업공단, 변전소, 전소 등			
		마을회관, 페출소, 소방서, 우체국, 전화국, 통사무소, 군사시설, 교도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청사, 정부 행정부처 건물, 외국공관 건축물, 시민회관, 문화재, 체육관, 경기장, 공연장, 국공립 복지시설, 국공립 의료시설, 보육원, 기념관, 박물관, 미술관, 유적소, 여객자동차 터미널, 화물터미널, 철도역사, 지하철역, 공항, 항만, 고속도로 우계설,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유아원, 교육원, 혼련원, 연구소, 도서관, 연수원 등			
	시설물	보행 및 운송시설물	보행신호등, 훨스, 방음벽, 불라드, 가드레일, 가로표식,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육교, 정류장, 자전거 정차대, 보행 유도등, 신호등, 교통차단물, 속도 억제물, 주차시설, 주차요금징수기, 골공기관 소유자랑 등		
		편의시설물	벤자, 의자, 텔터, 육외용 테이블, 휴지통, 음수대, 재떨이, 화장실, 세면장, 매점, 무인 키오스크, 자동판매기, 신문가판대 등		
		관리시설물	맨홀, 전신주, 가로등, 신호기휀기, 전력구, 문전반, 흡기구, 우체통, 소화전, 방재시설, 방진여방장치, 신월 확인장치 등		
		정보시설물	광중전화, 풍향계, 시계, 온습도계, 정보부스, 지역/관광안내시설, 시(도)계 경계석, 지자체 상징탑, 교통정보판 등		
	행정시설물	제복, 가구, 문구, 표찰, 무인 민원처리기 등			
이미지	정보매체	이정표, 교통표지판, 지역/관광 안내도, 버스노선도, 지아철노선도, 방향유도사인, 규제사인, 자동차 번호판, 각종 픽토그램, 광고판, 연수막, 포스터, 게시판, 간판, 배너, 기, 풍보망상 등			
	상징매체	국가 및 행정부처·지방자치단체·각급 공공기관 상징시스템(상징사인, 증명서, 공문서, 출판물 표지, 웹페이지 등), 화폐, 주민등록증, 여권, 교통카드, 채권, 기념주와, 우표 등			
	환경연출	벽화, 수피그래픽, 미디어 아트, 오감연출매체(sound scape, light scape), 미술장식품 등			
	도시미스터플랜/ 기아드라인	녹지 벨트 확보를 위한 디자인 개발 등, 도시별 이미지 구축을 위한 디자인 개발 등			

문6) 다음의 정책 분야에 디자인을 적용한다고 할 때

가장 효과 있는 분야 및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순서대로 3가지만 작성해 주십시오. (우선순위를 번호로 표기해 주세요.)

정책 분야	가장 효과 있는 분야	우선 추진분야
공공질서 및 안전		
과학기술		
교육		
국방		
농림·해양수산		
문화체육관광		
보건		
사회복지		
산업·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일반공공행정		
자연개발		
통신		
통일·외교		
환경보호		

문7) 귀 기관은 현재 디자인을 공공정책의 어느 단계에서 활용하고 있습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 | | | |
|--------|--------|--------|
| ① 정책형성 | ② 정책수립 | ③ 정책집행 |
| ④ 정책평가 | ⑤ 정책홍보 | |

문8) 귀 기관의 디자인 담당자를 신규로 채용할 필요가 있습니까?

전혀 필요 같다	대체로 필요 없다	보통이다	대체로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 문9~문14는 문1의 ①,② (디자이너를 보유한 기관)만 응답

문9) 귀 기관의 디자인 담당자를 대상으로 디자인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까?

- | | | |
|-------------|-------------|--------|
| ① 전혀 필요 없다 | ② 대체로 필요 없다 | ③ 보통이다 |
| ④ 대체로 필요 하다 | ⑤ 매우 필요하다 | |

문10) 귀 기관은 2015년 한 해 동안 기관 디자인 담당자들에게 디자인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 | | |
|------|-------------------------------------|
| ① 없다 | ② 있다→ (연간 총: _____회, 연간 총: _____시간) |
|------|-------------------------------------|

문11) 2015년에 귀 기관에서 실시한 디자이너 재교육 방법은 무엇인지 모두 선택해 주세요

- | | | |
|-----------------------|----------------|---------------------|
| ① 사내 자체 교육(내부 강사) | ② 사내 특강(외부 강사) | ③ 외부 위탁교육(유료) |
| ④ 해외연수(학위과정 제외) | ⑤ (국내외) 학위과정 | ⑥ 학회, 세미나 또는 전시회 참관 |
| ⑦ 정부/공공기관 지원 무료 교육 활용 | | |
| ⑧ 기타() | ⑨ 재교육 실시하지 않음 | |

문12) 귀 기관에서 선호하는 디자이너 재교육 방법은 무엇입니까?

- | | | |
|-----------------------|----------------|---------------------|
| ① 사내 자체 교육(내부 강사) | ② 사내 특강(외부 강사) | ③ 외부 위탁교육(유료) |
| ④ 해외연수(학위과정 제외) | ⑤ (국내외) 학위과정 | ⑥ 학회, 세미나 또는 전시회 참관 |
| ⑦ 정부/공공기관 지원 무료 교육 활용 | | |
| ⑧ 기타() | ⑨ 재교육에 관심 없음 | |

문12-1) 귀 기관에서 실시했던 디자인 교육 분야는 무엇입니까?

()

문13) 재직 디자이너 재교육 시 가장 큰 애로 사항 두 가지를 순서대로 선택해 주세요

1순위:() ⇒ 2순위:()

- | | |
|-------------------|-----------------------|
| ① 교육예산 부족 | ② 예측할 수 없는 업무 상황 |
| ③ 시간 및 대체인력 부족 | ④ 기관장 및 관련 부서의 인식 부족 |
| ⑤ 양질의 재교육 프로그램 부족 | ⑥ 재교육 정보 부족 |
| ⑦ 재교육 전문기관 부족 | ⑧ 재교육 후 이직 등 투자 대비 효과 |
| ⑨ 기타 () | |

문14) 디자인 업무에서 실질적으로 디자이너에게 가장 필요한 역량은 무엇입니까?

- | | |
|--|--|
| ① 창의 역량 (사회, 문화, 경제 환경의 변화와 관련된 복합적인 요소를 결합하여 새로운 시장과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통합적인 시각과 직관력) | |
| ② 비즈니스 역량 (창출된 새로운 가치를 구체화하여 시장에서 실현시킬 수 있는 논리력과 시장 지향적 역량) | |
| ③ 디자이너 역량 (창출된 아이디어를 디자인 결과물로 구체화 시킬 수 있는 감각과 스킬) | |
| ④ 융합 역량 (디분야에 대한 관심과 이해, 소통, 협업, 활용 등을 통해 새로운 차원의 기획이나 개선점, 해결방안 도출을 주도하는 역량) | |
| ⑤ 기타 역량 () | |

문15) [디자인 전담부서가 있는 기관(문1의①)만 해당]

- 귀 기관의 디자인 부서에 필요한 미충원 전공 인력은 어떤 분야입니까?
- | | |
|---------------------|---------------------------|
| ① 공학(엔지니어링 전반) | ② 상경계열(경영학/경제학/회계학/통계학 등) |
| ③ 사회과학(심리학/사회학 등) | ④ 인문학(역사/철학 등) |
| ⑤ 자연과학(물리/화학/생물학 등) | ⑥ 법학 |
| ⑦ 기타() | |

문16) 대학 디자인 전공 교육이 실제 디자인 업무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생각합니까?

기여도가 매우 낮음	기여도가 대체로 낮음	보통	기여도가 대체로 높음	기여도가 매우 높음
①	②	③	④	⑤

문17) 대학 디자인 전공 교육에서 시급히 보강되어야 할 교육은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두 가지를 선택해 주세요.

1순위:() ⇒ 2순위:()

- | | |
|-----------------|------------------|
| ① 시각화 및 표현 능력 | ② 디자인 관련 이론 |
| ③ 기획 및 마케팅 능력 | ④ 컴퓨터 활용 스킬 |
| ⑤ 외국어(영어) 능력 | ⑥ 커뮤니케이션 및 발표 능력 |
| ⑦ 디자인-터분야 융합 역량 | ⑧ 기타() |

문18) 귀 기관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까?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이란

한 개인이 산업현장에서 자신의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직무능력(지식, 기술, 태도)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도출하여 표준화한 것입니다.

- | | |
|---------|----------|
| ① 알고 있다 | ⇒ 문18-1로 |
| ② 모른다 | ⇒ 조사 완료 |

문18-1) 귀 기관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어떤 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까?

활용하고 있는 업무를 활용도가 높은 순으로 선택하여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 | |
|-----------------|------------|
| ① 경력개발경로 모형 설계 | ② 직무기술서 작성 |
| ③ 채용·배치·승진체크리스트 | ④ 자가진단 |
| ⑤ 교육문제 | ⑥ 자격검정 |
| ⑦ 기타() | ⑧ 활용하지 않음 |

문18-2) 귀 기관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업무에 활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
| ① 필요성을 못 느껴서 |
| ② 필요성을 느끼나 기관에 적합하지 않아서 |
| ③ 필요성을 느끼나 활용 방법을 몰라서 |
| ④ 기타() |

♣ 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면접상황	면접원 성명 :	면접원 ID :
	면접일시 : 2016년 ()월 ()일 ()시 ~ ()시	
검증상황	검증원 성명 :	
	검증일시 : 2016년 ()월 ()일 ()시 ~ ()시	
	검증결과 :	